

서경

권덕주 역 동아시아 문명의 시원(始原)이자 원류(原流). 고금을 통해 성균(聖君)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요순(堯舜)을 비롯, 이제삼왕(二帝三王)의 활약상이 담겨 있는 최고(最古)의 역사서이자 정치철학서이다. 공자는 삼천 명의 제자를 가르치면서 '서(書)'를 중시하여 '시(詩)'와 함께 주교재로 삼았다 한다. 고대 동양인들의 정치적 투쟁과 상상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고전 중의 고전.



서정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재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제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고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고전이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도소,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 《서경》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삼성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고 코리아헤럴드와 헤럴드경제를 발행하는 (주)헤럴드는 출판인쇄와 교열을 도와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캘리그라피연구소 술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친의 글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권호장 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신 벗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홀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농협 301-0100-8607-71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① 02)720-8278 ② www.olje.or.kr ③ olje classics@olje.or.kr

④ [@olje classics](https://www.facebook.com/olje classics) ⑤ www.facebook.com/olje 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 한 벗들



머리말

《서경(書經)》은 중국 고대의 역사적 기록으로서 《상서(尚書)》라고도 한다. 상(尚)은 상(上)과 통해 ‘가장 오래된 책’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 최고(最古)의 기록으로서 중국문학사에서 산문의 효시로 일컬어지기도 하며 문체 역시 여러 경서 중에서 가장 고전적이다.

삼경을 비교해 흔히 《시경(詩經)》은 문학적인 것, 《주역》 즉 《역경(易經)》은 철학적인 것, 《서경(書經)》은 정치적인 것으로 나눈다.

《서경》에는 정치철학적 의미에서 이제삼왕(二帝三王)의 시대가 그려져 있다고 말한다. 이제는 요(堯)와 순(舜)임금을, 삼왕은 우(禹) · 탕(湯) · 문무(文武)를 가리킨다. 이 이제삼왕의 시대를 관류하는 정치철학, 즉 그 대경대법(大經大法)이 모두 《서경》 안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제삼왕의 정치는 도(道)에 근본하고 있으며, 그 도는 마음에 근본하고 있으니 그 마음을 얻으면, 진실로 도와 정치를 말할 수 있으리라.”

주자(朱子)의 제자였던 채침(蔡沈)의 말인데 이는 난세에 처한 공자(孔子)가 이상으로 여겼던 정치철학의 도이기도 했다.

이처럼 《서경》을 전체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백성의 마음을 얻고 밭들라는 사상이었다. 이는 곧 공자와 맹자(孟子)에게 이어졌으니, 맹자의 왕도정치론(王道政治論)이나 공자의 중용사상(中庸思想)의 발단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또한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오늘날의 정치에도 어김없이 적용되는 치도(治道)의 근본이기도 하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처럼 옛 성현(聖賢)의 가르침을 배우고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고전을 배우고 익히는 커다란 보람이요 기쁨의 하나일 것이다. 많은 독자들이 고전의 숙독을 통해 그 큰 보람과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해제(書經解題)

1. 서언

《서경(書經)》의 사상은 중국의 사상이라기보다 ‘동양사상’이란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는지 모른다. 그것은 중국의 옛날 사상이 평화와 온유를 즐기는 동양사상에 공통되며, 또 그것이 옛날부터 중국을 기점으로 비롯되어 여러 동양의 이웃 나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것’을 되찾자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것’은 먼저 시야를 넓혀 ‘동양’이라는 넓은 테두리 안에서의 우리, 나아가서는 ‘세계’라는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우리를 찾아야 한다. 즉 우리의 것, 또는 나를 알자면 우리와 관계있는 ‘동양적인 것’ 또는 ‘인간적인 것’ 모두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만 그 존재 의의를 지녀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세상의 사상 관계 책을 모두 읽을 수는 없는 것이며, 여기에는 순서와 단계가 있는 것이다. 그 순서와 단계 중에서 첫 번째 것이 이 《서경》이다. 왜냐하면 《서경》은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사상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의 자세를 똑바로 지니기 위해서는 《서경》을 읽어야만 한다. 《서경》을 통해서만 올바른 동양사상 내지는 ‘한국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2. 《서경》의 시대적 배경

전설에 따르면 지금부터 약 5천 년 전부터 중국에는 황제를 비롯한 3황 5제(三皇五帝)가 있어서 중국을 다스렸다. 이들은 신화시대에 속하는 임금들이라 그들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알 수가 없다. 아무래도 중국문화의 전설은 기원전 2천 수백 년 전부터 황하(黃河) 유역의 부족들을 거느린 요(堯)임금과 순(舜)임금부터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자 아래로 유가(儒家)들은 요순시대(堯舜時代)를 그들의 이상적인 시대였다고

떠받들어 온다. 임금은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일이 없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은 정부가 있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하며, 각자의 생업에 힘쓰고 평화로운 삶을 누렸다. 《제왕세기(帝王世紀)》의 요임금 때 팔구십 된 노인이 땅을 두드리며 불렀다는 격양가(擊壤歌)는 이때의 사회를 잘 말해 준다.

그리고 공자는 《논어》에서 “크시도다! 요임금님이여! 하늘이 크다 하지만, 요임금님의 덕도 이에 맞먹는도다. 끝없이 넓도다. 백성들은 이것을 무엇이라 불리야 할지도 모르나니, 위대하도다! 그의 이룩한 공이여! 빛나도다, 그가 이룩한 문화여!” 하고 극도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순은 이처럼 어진 임금의 뒤를 이어 요임금의 정치를 발전시켰다. 인류 문화의 발상을 보면 사람들이 살기에 알맞은 조건으로 온화한 기후와 강을 중심으로 한 풍성한 천연자원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

나일 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 그러했고,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러했다. 그러나 중국문화의 발상지인 황하 유역을 보면 나일이나 유프라테스 유역처럼 조건이 좋지를 못하였다. 날씨도 그랬지만 황하의 홍수는 백성들의 삶을 크게 위협하는 악조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태고적부터 중국을 다스리는 이들의 가장 커다란 임무는 이 홍수를 다스리는 일이었다.

요임금 때부터 홍수를 다스리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는데, 순임금 때 이 홍수를 다스린 위대한 인물이 나타난다. 그가 바로 하나라를 연 우(禹)임금이다. 우임금은 전국의 강물을 다스린 공로로 순임금으로부터 임금 자리를 물려받는다. 그리고 우임금에 이르러서야 중국의 정치 구역이 나누어지기 시작하였고, 정치제도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나라에서 가장 어진 사람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었으나, 하(夏)나라로부터는 그의 아들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게 된다. 그 후 폭군 결(桀)임금이 포악한 정치에 의해 상(商)나라 탕(湯)임금에게 멸망당하였으며 상나라 뒤에 반경(盤庚)임금이 서울을 은(殷)으로 옮겨 은나라라고 불렸다.

중국의 유사시대(有史時代)는 이 은나라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요순시대나 하나라의 역사에 관하여도 기록이 있는 하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역사적인 유물이 없기 때문이다. 은나라의 경우는 하남성에서 옛 유물이 발견된 후 학계의 주목을 끌어 대대적인 발굴이 진행되었고, 여러 학자의 연구에 의하여 중국 고대 사회의 새로운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지금껏 쓰고 있는 한자가 이 시대에 벌써 사용되었으며, 정교한 구리그릇이며 질그릇과 함께 문물제도가 상당히 갖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은나라도 28대 주(紂)임금에 이르러 포악한 정치를 하다가 주(周)나라 문왕(文王)에게 멸망당했다.

주나라는 근대의 나라처럼 국가형태가 완전히 갖추어진 나라였다. 유가의 경전 중에서 《주례(周禮)》·《의례(儀禮)》·《예기(禮記)》는 뒷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 시대의 예약제도를 서술한 것이다. 후세의 국가나 사회 및 집안의 의례는 모두 이 주나라의 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들 3례뿐만 아니라 《시경(詩經)》·《역경(易經)》·《춘추(春秋)》 등 중요한 경전의 바탕이 전부 이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보면 주나라는 중국의 고대문화가 안정되어 꽂피었던 시대라 할 것이다. 유가들은 하·은·주의 3왕조를 3대라고 한다. 요순시대가 모든 제도를 초월한 이 상시대였다면, 이 3대는 현실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이상정치가 시행되었던 시대라고 유가들은 주장한다.

《서경》에는 이상과 같은 전설시대로부터 유사시대에 걸친, 초현실의 이상시대였던 요순시대와 현실의 이상시대였던 3대 임금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는 것이다.

3. 《서경》의 내용과 사상

《서경》의 내용

중국에는 태고적부터 사관(史官)이 있어 모든 임금의 언동과 이와 관련된 일들을 기록하였다. 공자가 이 기록들 중에서 후세에 참고가 될 만한 것 1백 편을 뽑아 엮은 것이 이 《서경》이라 한다. 그러나 이 1백 편도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 때 많이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58편뿐이다. 그나마 이 58편도 모두가 본래의 《서경》 그대로가 아니라 20여 편은 후세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다시 쓰인 것이라 한다.

《서경》의 내용은 나라의 법도(法度), 임금의 전적(專蹟), 나라를 다스리는 데의 훈계, 임금이 신하에게 당부하는 훈계, 전장을 앞두고 임금이 백성과 군사들에게 한 훈시 등을 각 사관들이 기록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서경》이 공자가 편찬한 《서경》의 내용과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고, 후세 사람들의 손에 의해 잘리고 덧붙여졌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것은 공자가 편찬한 내용과 크게 어긋난 곳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서경》의 사상

《서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눈을 가장 끄는 것은 천명사상(天命思想)이라 할 것이다. 임금이란 하늘의 명에 의하여 왕위에 올라 하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다. 임금이 하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할 때 하늘의 명은 다른 사람에게로 옮아간다. 그러면 하늘의 명을 받은 이는 하늘의 벌을 대신 행하고 임금이 되는데, 이것을 혁명이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늘은 백성들을 통하여 보고 듣고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성의 뜻은 바로 하늘의 뜻이 된다. 그리고 임금은 하늘의 뜻을 따를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산천의 여러 신(神)들과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

한 일이었다. ‘하늘은 곧 이치’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이었다. 그러기에 부정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칼을 들 때도 있었지만, 무력보다는 덕에 의한 감화를 통하여 굴복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덕치주의(德治主義)는 지금까지도 중국 사람들의 세계통치에 대한 이상으로 되어 있다. 천명사상에서 백성들을 바탕으로 한 민본주의(民本主義)가 나왔듯이, 개인의 수양 즉 덕행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집안, 자기의 나라,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를 감화시켜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이룬다는 덕치주의는 하늘에 대한 경건한 신앙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늘을 공경하는 개인의 몸가짐이 바로 덕이며, 하늘의 뜻에 따르는 대인관계가 바로 덕행이며, 하늘의 뜻에 따르는 다스림이 바로 덕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하늘’과 ‘덕’을 중심으로 한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는 바로 이상세계의 요건이 되는 것이다.

중국문화의 산문(散文)의 할아버지요, 중국사상의 할아버지인 《서경》의 주요사상을 살펴본다.

첫째로 《서경》에는 중국인이 품어온 군주와 혁명에 대한 사상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논어》에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중국은 건국 초부터 여러 번 혁명이 일어났다. 이 혁명이란 곧 하늘의 명이 새로워짐으로 생기는 것이며 덕 있는 사람을 왕위에 오르게 한다. 덕 있는 사람의 자손에 덕이 없는 사람이 나온다면 하늘은 그를 버린다. 이처럼 천명(天命)은 새로워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왕 된 사람은 그 행동을 신중히 하고, 덕을 닦아야 하고 정의로써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의 자리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평소부터 덕을 닦아야 하며, 신하는 이러한 충의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서경》에 나오는 요임금이나 순임금이 그러한 분으로, 왕위를 덕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었다. 이것을 선양(禪讓)이라고 하며, 왕이 덕이 없어 국정을 어지럽히는 경

우 제후는 군주를 축출하게 되는데, 이것을 방벌(放伐)이라 한다. 이러한 혁명사상이 중국의 정치사상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둘째로 《서경》은 제왕이 책임지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인민을 위한 정치가 《서경》에 나타나는 기본사상이다.

다음으로 《서경》에 나타난 사상은 어진 이를 보필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제왕 된 자는 높은 덕으로써 천하를 다스려야 하지만, 이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반드시 보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어진 이를 등용하는 것은 제왕 된 자의 가장 큰 의무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로 《서경》에서는 어버이에 대한 효도가 강조되고 있다. 효도란 동양 도덕의 중심사상이지만, 중국에서는 특히 이것이 강조되고 있다. 순임금이 천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어버이에게 효를 다한 정성의 선물이라고 전해진다.

이상과 같은 《서경》에 나타난 주요사상은 춘추전국시대를 통하여 유교사상뿐만 아니라 모든 중국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4. 서지학적 고찰

명칭과 편자

《서경》을 흔히 《상서(尚書)》라고도 부른다. 진(秦)나라 이전(기원전 294년 이전)에는 모두 《서(書)》라고만 불렸고, 《서경》이나 《상서》는 후세에 생긴 이름이다. 《서경》뿐만 아니라 《시경》·《악경》·《역경》·《효경》 등 중국의 경전에 ‘경’ 자가 붙여진 것은 전국시대 만년에 시작된 것이라 한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서경》이란 뜻으로의 ‘경’ 자가 쓰이진 않았다.

《상서》라는 말은 《목자(墨子)》의 〈명귀편(明鬼篇)〉에 나오는 것이 맨 처음이었으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옛날의 책’이란 뜻으로 쓰인 말이다. 그 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와 중서(仲舒)의 《춘추번로(春秋繁露)》 등에서 상서란 말을 즐겨 쓰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상(尙) 자는 옛날이란 뜻도 있지만 높다는 뜻도 있다. 따라서 《상서》라는 말은 '옛날의 책'이라는 뜻도 되지만 한편 《서경》이나 마찬가지로 높이는 뜻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나라 공영달(孔穎達)의 《상서정의(尙書正義)》에 의하면 공자는 《시경》이나 마찬가지로 《서경》도 산정(刪定)하였던 것이다. 공자가 살던 노(魯)나라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문물이 잘 정비되어 문서들이 가장 많이 보전되었으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공자가 《서경》을 편찬하였다고 믿을 수밖에 없으나, 《서경》은 그 성격으로 보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공자가 편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서경》의 〈순전(舜典)〉이나 〈익직편(益稷篇)〉 · 〈탕서편(湯誓篇)〉 같은 곳에 보이는 유가학설은 후세 유가들이 보충한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다. 어쨌든 이 《서경》은 《시경》과 함께 공자로 해서 유가의 가장 중요한 경전이 되었음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

《서경》의 서문에 관해

《서경》에는 옛날부터 서문(序文)이 전해 온다. 이것은 노나라 공왕(恭王)이 궁전을 지으려고 공자가 살던 집을 헐 때 여러 가지 옛날 책과 함께 얻은 것이라 한다. 서문은 《서경》의 각 편이 쓰인 연유를 간단히 설명한 것이다. 공영달은 그의 정의에서 《시경》의 소서(小序)처럼 각 편의 앞머리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서서(序書)를 소서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이 서문에 의하면 《서경》에는 2백 편의 글이 있어야 한다. 또 《서경》의 내용은 공자 이후에도 많은 개편이 있었음을 아울러 생각할 때 이 서서의 2백 편이 바로 공자가 편찬한 《서경》의 목차와 같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금문상서(今文尙書)

한(漢)의 경학(經學)에는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의 두 가지가 있었다.

금문이란 한(漢)나라 때에 보통으로 쓰이던 예서(隸書)로 쓰인 경서를 뜻하며, 고문이란 진(秦)나라 이전에 동부 지방에서 쓰던 옛날 글자로 쓰인 글이다. 고문은 대개 한대(漢代)에 이르러 옛 집의 벽 사이 같은 데서 발견되었거나 우연히 민간에 전하여진 것이다. 이 금문과 고문은 쓰인 글자뿐만 아니라 경문(經文) 자체에도 많은 차이가 있어, 학자들은 금문파(今文派)와 고문파(古文派)로 나뉘어 이론이 분분하였다. 이 금문과 고문은 《서경》뿐만 아니라 《역경》·《시경》·《예기》·《논어》·《효경》 등 모든 책에도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금문과 고문의 차이가 가장 심하고 따라서 이론이 가장 엇갈렸던 것이 이 《서경》이다.

금문상서(今文尙書)는 29편으로 복생(伏生)이란 사람이 전한 것이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지금의 《서경》 여러 편 중에서 틀림없이 진나라 시대 이전에 나왔다고 보이는 것은 이것들뿐이다.

공자의 《서경》은 진시황의 분서갱유라는 난폭한 정치로 말미암아, 일단 세상에서 자취조차도 없어졌다. 한나라에 이르러 효문제(孝文帝)는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없어진 《상서》를 세상에 널리 구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진나라의 박사였던 복생이란 사람이 《서경》에 정통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임금은 곧 복생을 불렀으나 그는 이미 나이 구십의 노인이어서 걸음을 마음대로 걷지 못하였다. 이에 태상사장고(太常使掌故) 조조(朝錯)를 보내어 《서경》을 배워 오게 하였다. 진시황이 세상의 책을 모아 태워 버릴 때에 복생은 집의 벽 사이에 그것을 감추어 두었다. 그 뒤 피난을 다니다가 한나라가 세상을 평정한 뒤 그 책을 찾아보니 모두 없어졌고 29편만이 남아 있었다. 복생은 나머지 상서를 가지고 제나라와 노나라 지방에서 가르쳐 많은 학자들이 상서에 관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다.

복생이 벽 속에 감추어 두었던 본래의 책은 고문일 가능성성이 많다. 그러나 조조가

베껴 올 때에는 예서인 금문으로 썼을 것이다. 이 밖에 복생이 책을 감추어 두었던 것이 아니라, 복생이 머리 속에 외우고 있던 것을 조조가 찾아가 입으로 말하게 하고 베껴 왔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후세에 생긴 이야기이다.

그런데 복생이 전한 29편이란 무엇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대하여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으나 가장 믿을 만한 것은 청대(清代) 왕선겸(王先謙)의 설이다. 그의 상서공전참정(尚書孔傳參正) 서열(序列)에 의하면 29편의 편목은 다음과 같다.

1. 요전(堯典)
2. 고요모(阜陶謨)
3. 우공(禹貢)
4. 감서(甘誓)
5. 탕서(湯誓)
6. 반경(盤庚)
7. 고종옹일(高宗肅日)
8. 서백감려(西伯戡黎)
9. 미자(微子)
10. 목서(牧誓)
11. 홍범(洪範)
12. 태고(太誥)
13. 금등(金縢)
14. 강고(康誥)
15. 주고(酒誥)
16. 자재(梓材)
17. 소고(召誥)
18. 낙고(洛誥)
19. 다사(多士)
20. 무일(無佚)
21. 군석(君奭)
22. 다문(多文)
23. 입정(立政)
24. 고명(顧命)
25. 강왕지고(康王之誥)
26. 비서(柴誓)
27. 보형(甫刑)
28. 문후지명(文侯之命)
29. 진서(秦誓)

이상과 같은 금문상서의 내용은 오늘날까지 전해 오는 《서경》 속에 모두 들어 있으며, 《서경》의 무게와 권위는 특히 이 금문상서를 통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고문상서(古文尚書)와 위고문상서(爲古文尚書)

고문상서(古文尚書)는 공자의 옛집 벽 속에서 나온 것이다. 한나라 경제(景帝) 때에 노나라 공왕(恭主)이 궁전을 넓히려고 공자가 살던 옛집을 헬다가 벽 속에서 《서경》·《예기》·《논어》·《효경》 등 수십 편을 얻었다. 이것들은 모두 다 고문으로 쓰인 것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고문체를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오직 공자의 후손인 공안국(孔安國)이 이것들을 금문으로 읽었다. 이때 《서경》을 금문상서와 견주어 본 결과 스물아홉 편 이외에 열여섯 편이 더 많았다. 공안국이 죽은 뒤 집

안사람들이 이것을 임금에게 바쳤으나, 학관에서 쓰여지지는 않았다.

복생의 금문상서 29편 속에 없는 새로 발견한 16편이란 다음과 같다.

1. 순전(舜典)
2. 골작(汨作)
11. 구공(九共)
12. 대우모(大禹謨)
13. 익직(益稷)
14. 오자지가(五子之歌)
15. 윤정(胤征)
16. 탕고(湯誥)
17. 함유일덕(咸有一德)
18. 전보(典寶)
19. 이훈(伊訓)
20. 사명(肆命)
21. 원명(原命)
22. 무성(武成)
23. 여오(旅獒)
24. 경명(閼命).

이상과 같은 고문상서는 내용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인정을 받지는 못하였다. 고문상서는 조정은 물론 민간인들도 별로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때에는 〈무성(武成)〉 한 편이 없어져 버렸고, 영가지란(永嘉之亂)에 이르러서는 나머지 15편도 모두 없어져 버리고 말았으니, 매우 애석한 일이다. 따라서 지금 전하여지고 있는 고문이란 후세 사람이 거짓으로 만든 위고문상서(僞古文尙書)이다.

《서경》의 위작(僞作)은 일찍이 한나라 성제(成帝) 때에 나왔다. 동래의 장폐라는 사람이 1백 2편을 만들어 임금에게 바쳤다. 그는 복생의 《서경》 스물아홉 편을 쪼개어 수십 편을 만들고, 거기에 좌전(左傳)과 서서(書敍)를 따다가 앞뒤로 붙여 1백 2편을 만든 것이다. 이 가짜는 거짓이 바로 드러나 경학 자체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그런데 1천여 년 동안 세상을 속여 왔고 지금까지도 진짜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가짜 위고문서경(僞古文書經)이 동진(東晉) 때에 나왔다. 위공본서경(僞孔本書經)은 모두가 58편으로 복생의 29편을 33편으로 나누었고 그 밖에 25편을 만들어 보탠 것이다.

이 25편에 대하여는 이미 송(宋)나라 때의 오역(吳棫) · 주희(朱熹) · 채침(蔡沈) 등이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에 원(元)나라 오징(吳澄)은 《서찬언(書纂言)》에서 이 25편을 뒤로 빼어 버렸고, 청대(清代)에 이르러 염약거(閻若璩)가 《상서고문소

증(尚書古文疏證)》을 짓고, 다시 혜동(惠棟)이 《고문상서고(古文尚書考)》를 지어 실증을 들어 그 거짓을 논하자, 이 25편은 위작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따라서 지금 전하여지고 있는 《서경》 58편은 그 중 25편이 가짜다.

역대의 《서경》 주석

한대 이전에 《서경》을 주석(註釋)한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한대에 들어 와서 복생이 《서경》을 전한 뒤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설을 모아 《상서대전(尚書大傳)》을 만들었다. 후세 사람들의 주석과 그 체재는 다르나 이것이 최초의 《서경》 전주(傳注)이다.

그 밖에 한대에는 구양경(歐陽經) · 구양장구(歐陽章句) · 대소후장구(大小侯章句) 등이 있어 모두가 복생의 《서경》을 전하였다. 그러나 이들 금문가(今文家)들은 모두 자구(字句)의 주석엔 힘쓰지 않고 경(經)을 빌어 정치를 논하고 거기에 음양오행의 터무니없는 이론까지 보태었다. 그 전주를 쓴 구양고(歐陽高)나 대하후승(大夏侯勝), 소하후건(小夏侯建)은 모두가 박사였으나 한말에 이르러 쉽고 착실하게 경문을 풀이하는 고문가(古文家)에 의해 쇠하여지고 말았다. 그 뒤 영가지란에 이르러서는 이들 금문가의 설은 모두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한초(漢初)에는 행세하지 못하던 고문이 말엽에 가까워지면서 고개를 들었다. 한 말에서 위(魏)나라 시대에 걸쳐 마융(馬融)은 고문가의 설을 많이 따서 《서전(書傳)》을 지었고 정현(鄭玄)과 왕숙(王肅)은 금고문을 모두 따서 《전주(傳注)》를 지었다.

그러나 이들 고문가들이 주를 금문경에만 달고 고문경에는 달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 세 사람들의 전주는 그 뒤 오랫동안 학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나라의 공영달 등은 칙명을 받들어 위공전(僞孔傳)에 의거하여 《상서정의(尚書

正義》)를 지었다. 이 책이 나오자 앞서 말한 마·정·왕 세 사람의 전주는 모두 없어지고 위공전의 권위가 크게 끝어졌다.

당대 초기부터 송나라 초기에 이르기까지 《서경》은 모두가 위공의 경문과 정의의 해석을 따랐다. 그러나 인종(仁宗) 이후로 경학에는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한대로부터 인종의 경력(慶歷) 년간에 이르기까지 경학을 논하는 사람은 모두가 옛 설만을 따랐으나 《칠경소전(七經小傳)》이 나오자 새로운 기풍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삼경신의(三經新義)》가 나오자 옛 한나라 선비들의 학설도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 외에 소식(蘇軾)의 《서전(書傳)》이 독자적인 안목으로 경을 풀이한 책이라 할 수가 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주석은 주자(朱子)의 학설을 받들어 쓴 채침의 《서집전(書集傳)》이다. 이 책은 옛날 사람들의 해석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눈으로 《서경》을 읽어 이후의 《서경》학을 일신한 대저술이다. 중국 역대를 통하여 앞에 든 당대의 《상서정의(尚書正義)》와 함께 이 집전(集傳)은 학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던 전주라 할 것이다.

그 뒤로 원(元)·명(明) 두 시대는 대체로 모두 이 채침의 《서집전(書集傳)》을 따랐다. 청대에 들어오면서 점차로 송학(宋學)의 공소함에 싫증이 나서 한학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그 뒤로 왕명성(王鳴盛)의 《상서후안》, 손성현의 《상서금문주서》 등 한대의 금고문가들의 주석을 중심으로 한 훌륭한 주해서들이 나왔다. 다시 가도(嘉道) 이후 학자들은 서한(西漢)의 금문을 승상하는 경향이 짙었다. 그리하여 위원(魏源)의 《서고미(書古微)》, 할교종(輯喬縱)의 《금문상서경설고(今文尚書經說考)》 등이 나왔다. 우리는 이들 저서를 통하여 서한(西漢) 금문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다.

정말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에는 다시 《서경》 연구에 고고학적인 방법이 원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옛날의 종정문(鍾鼎文)이나 갑골문(甲骨文)은 경서 연구에도

많은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손이양(孫詒讓)의 《상서병지(尚書駢枝)》, 양균여의 《상서핵고(尚書覈誥)》 등은 모두가 이러한 과학적인 방법을 가미한 주석서들이다. 이 밖에 대만대학 굴만리(屈萬里) 교수의 《상서석의(尚書釋義)》는 간략하면서도 앞의 주석들의 장점만을 총망라한 뛰어난 주해서이다.

5. 결어

중국에서는 중요한 경전을 들어 3경이니 5경이니 6경, 7경, 9경 또는 13경이라 말한다. 그런데 이 《서경》은 《시경》, 《주역》과 함께 3경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니, 그것이 경전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 수 있다.

《서경》은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까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었던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경》을 통하여 덕치주의와 민본사상을 중심으로 다스리는 평화로운 시대를 그리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서경》의 사상이나 제도, 글 같은 것은 중국에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까지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일상생활에 젖어든 《서경》 사상의 영향은 무엇보다도 크다. 부모의 삼년상이며,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예교사상(禮教思想), 오행사상(五行思想) 같은 것이 《서경》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서경》은 중국 역사의 할아버지이자 중국문학사에서 산문의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 사상의 기본이 되며, 중국 경전의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다. 또 《서경》의 여러 가지 제도는 《주례(周禮)》나 《예기(禮記)》의 근본이 되었을 것이며, 《춘추》의 이른바 미언대의(微言大義)의 표준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공자가 《서경》을 편찬하였으니, 사서와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서경》을 통하지 않고는 중국의 경전, 나아가서는 공자의 유가사상과 동양사상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차례

머리말	5
해제 書經解題	6
우서 虞書	23
요전 堯典	24
순전 舜典	34
대우모 大禹謨	51
고요모 皐陶謨	66
익직 益稷	74
하서 夏書	88
우공 禹貢	89
감서 甘誓	111
오자지가 五子之歌	114
윤정 舜征	120
상서 商書	126
탕서 湯誓	127
중췌지고 仲虺之誥	130
탕고 湯誥	137
이훈 伊訓	141
태갑 상 太甲 上	147

태갑 중 太甲 中	152
태갑 하 太甲 下	156
함유일덕 咸有一德	160
반경 상 盤庚 上	166
반경 중 盤庚 中	175
반경 하 盤庚 下	183
열명 상 說命 上	187
열명 중 說命 中	192
열명 하 說命 下	197
고종옹일 高宗肅曰	202
서백감려 西伯戡黎	204
미자 微子	207
주서 周書	213
태서 상 泰誓 上	214
태서 중 泰誓 中	220
태서 하 泰誓 下	225
목서 牧誓	229
무성 武成	234
홍법 洪範	241
여오 旅獒	261
금등 金縢	266
대고 大誥	274
미자지명 微子之命	285
강고 康誥	288

주고 酒誥	303
자재 柊材	314
소고 召誥	319
낙고 洛誥	330
다사 多士	343
무일 無逸	353
군석 君奭	363
채중지명 蔡仲之命	376
다방 多方	380
입정 立政	392
주관 周官	403
군진 君陳	413
고명 顧命	419
강왕지고 康王之誥	431
필명 畢命	436
군아 君牙	443
정명 邪命	447
여형 呂刑	451
문후지명 文侯之命	468
비서 費誓	472
진서 秦誓	476



우서(虞書)

우서(虞書)

〈우서(虞書)〉는 〈요전(堯典)〉, 〈순전(舜典)〉, 〈대우모(大禹謨)〉, 〈고요모(臯陶謨)〉, 〈의직(益稷)〉의 5편으로 나뉘어져 있다. 내용은 요순(堯舜)시대의 치적을 비롯해, 그 당시 큰 공을 세웠던 현신(賢臣)들의 말씀이나 업적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우(虞)는 순임금의 씨족명(氏族名)인 유우(有虞)에서 유래된 것으로, 순임금 때의 사관(史官)이 정리 기록한 때문에 〈우서〉로 불린다. 그러나 실제로는 춘추(春秋)시대의 사가(史家)들의 초기(追記)로 보는 설이 많다.

제왕의 덕(德)과 도(道)에 관한 내용과 황하를 다스린 우(禹)의 치수 사업 등이 기록되어 있다.

요전(堯典)

옛날 요(堯)라는 임금이 총명하고 생각이 원대하여 성덕(聖德)이 온 천하에 빛났다. 요임금의 성은 이기(伊嗜)요, 오제(五帝)의 한 사람인 제곡(帝饗)의 아들이었다. 말년에 아들 단주(丹朱)가 어리석음으로 순임금에게 제위를 물려주었다. 이때에 순임금의 사관이 요임금의 사적을 쓴 것이 <요전>이니, 요임금이 정하신 영원히 변치 않는 규범이란 뜻이다.

1 옛 요임금을 상고(詳考)하건대 지극한 공훈(功勳)을 이루었으니, 공경하고 밝으며 문채가 빛나고 생각이 자연스러우며, 진실로 공경하고, 사양하여 빛이 사해에 미치며 하늘과 땅에 이르렀다. 큰 덕을 밝혀 구족(九族)을 친하게 하니 구족이 이미 친목하기에 이르렀고, 백성을 고루 밝게 다스렸고, 온 나라를 화합하게 하니, 모든 백성들이 이에 변하여져 화평하게 되었다.

曰若稽古帝堯, 曰放勳, 欽明文思安安, 允恭克讓, 光被四表, 格于上下。

克明俊德, 以親九族, 九族既睦, 平章百姓, 百姓昭明, 協和萬邦, 黎民於變時雍。

[통석] 요임금의 덕이 지극히 위대하였으므로 그 공업(功業)이 또한 지극하여 방훈(放勳)이라 하였다. 요임금은 공경함으로 마음의 본체를 삼았고 총명함으로 마음의 효용을 삼았으며 안으로는 생각이 깊고 넓었으며, 밖으로는 빛나는 문채가 나타나 보였다. 흄(欽) · 명(明) · 문(文) · 사(思) 이 네 가지 덕성의 아름다움이 애써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고 성한 덕이 천지 사방에 두루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었다.

요임금의 덕이 사람들에게 미쳐나가는 것은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렀다. 그는 이미 스스로 높고 큰 덕을 밝혔고, 이를 미루어 구족(九族) 즉 고조(高祖)로부터 현손(玄孫)에 이르기까지, 이성(異姓)이나 친척까지도 모두 친목하고 사랑하였

다. 구족이 이미 화친해지자 또 미루어 서울 지역 안의 백성들을 고루 밝혔다. 모든 백성들은 다 이 덕에 감화되어 그들의 덕을 밝히게 되고, 드디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또 이를 미루어 만방 제후들의 백성들을 화합하니, 만방의 백성들은 진실로 낡은 관습을 바꾸고 순미(醇美)한 풍속을 이루어가서 천하가 모두 화평하게 되었다.

曰若(왈약) : 월(曰)은 월(越)과 같아 빌여서. 약(若)은 조사로 뜻은 없다.

放勸(방훈) : 지극한 공훈. 사기(史記)에는 요임금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다.

安安(안안) : 자연히 되어 힘쓰지 않는 모양.

四表(사표) : 사방. 곧 온 세상의 뜻.

九族(구족) : 고조로부터 현손에 이르기까지 맥이 있는 집안 사람들.

黎民(여민) : 머리가 검은 일반 백성.

於(오) : 감탄사.

2 이에 희씨(羲氏)와 화씨(和氏)에게 명하여 하늘을 삼가 따르게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을 관찰하여 삼가 백성의 때를 알려 주게 하였다.

희중(羲仲)에게 따로 명하여 우이(嵎夷)에 있게 하니 양곡(暘谷)이라 이르는 곳이다. 뜨는 해를 공경히 맞아 봄 농사를 고루 다스리도록 하니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것과 조성(鳥星)으로 중춘(仲春)을 바로잡으면 백성들은 들로 흘어지고 새와 짐승들은 젖먹이고 교미했다.

다시 희숙(羲叔)에게 명하여 남교(南交)에 있게 하니 명도(明都)라 이르는 곳이다. 여름 농사를 고루 다스리도록 하니 해가 긴 것과 성화(星火)로 중하(仲夏)를 바로 잡으면 백성들은 들밭으로 흘어지고 새와 짐승은 털을 갈아 모양을 바꾸었다.

화중(和仲)에게 나누어 따로 명하여 서쪽 땅에 있게 하니, 매곡(昧谷)이라 이르는 곳이다. 지는 해를 공경히 보내어 추수를 고루 다스리도록 하니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것과 허성(虛星)으로 중추(仲秋)를 바로잡으면 백성들은 편안하고, 새와 짐승은 털이 윤택하였다. 화숙(和叔)에게 따로 명하여 북쪽 땅에 있게 하니, 유도(幽都)라 이르는 곳이다. 겨울 밭일을 고루 다스리게 하고, 해가 짧은 것과 묘성(昴星)으

로 중동(仲冬)을 바로잡으면, 백성들은 방 안으로 들어가고 새와 짐승들은 숨털이 많이 났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그대 희씨와 화씨여! 일 년은 삼백 육십 육일이니 윤 달이 있으므로 사시(四時)를 정하고 일 년을 이루게 되어서 백공(百公)이 잘 다스려지고 여러 가지 공이 다 빛나게 될 것이다.” 하셨다.

乃命羲、和、欽若昊天，曆象日月星辰，敬授人時。

分命羲仲，宅嵎夷，日暘谷，寅賓出日，平秩東作，日中星鳥，以殷仲春，厥民析，鳥獸孳尾。

申命羲叔，宅南交，【當有“日明都”三字】平秩南訛，敬致，日永星火，以正仲夏，厥民因，鳥獸希革。

分命和仲，宅西，日昧谷，寅餼納日，平秩西成，宵中星虛，以殷仲秋，厥民夷，鳥獸毛撣。

申命和叔，宅朔方，日幽都，平在朔易，日短星昴，以正仲冬，厥民隩，鳥獸耗毛。

帝曰咨汝羲暨和！朞，三百有六旬有六日，以閏月定四時成歲，允釐百工，庶績咸熙。

[통석] 정사(政事)의 가장 크고 먼저 할 일은 백성에게 절후(節候)를 해아려 농사법을 알리는 데 있다. 그러므로 천문(天文)에 통달한 희씨(羲氏) · 화씨(和氏) 두 사람을 역관으로 임명하여, 하늘과 자연의 이치를 따라 해와 달과 별의 운행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측하고 기록하여, 역서(曆書)와 상기(象器)를 만들어 파종하고 수확하는 때를 공경히 알려 주도록 하였다.

먼저는 희화(羲和)를 합하여 명하고 여기서는 희씨(羲氏) · 화씨(和氏)의 직책을 나누어 명하였다. 희중(羲仲)은 봄을 맡은 직책에 있었으므로 동쪽 땅 우이(嵎夷)에 있게 하니 그곳을 양곡(暘谷)이라 하였다. 해가 뜨는 것을 손님처럼 공경히 맞이하여 봄철에 시작하는 농사를 순서대로 고르게 다스리도록 하였다. 춘분(春分) 절후

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때이므로 주야가 평균하고, 어두울 때 남쪽의 별인 조성(鳥星)이 보이니 춘분 때의 중성(仲星)이다. 이로써 중춘을 맞게 하면 집안에서 겨울을 지나던 백성들이 들로 나가 봄기운의 따스함을 시험하고 새와 짐승들은 젓먹이고 교미하여 봄기운의 화창함을 즐긴다. 이런 것들을 추측하고 징험하여 백성들을 지도한다.

다시 희숙(羲叔)에게 명하여 여름일을 맡아 다스리게 하고 남쪽 땅 교(交)에 있게 하니 그곳을 명도(明都)라 하였다. 여름은 모든 사물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때이니, 이를 고르고 질서 있게 바로잡아 하지(夏至)의 해가 이르러 옴을 공경히 이루게 한 것이다. 해가 가장 길고, 동쪽의 별인 화(火)는 하지 때의 중성이다. 이로써 중하(仲夏)를 바르게 하면 기후가 몹시 더우므로 백성은 더욱 들로 흘어지고, 새와 짐승은 털이 빠져 들험듬성하게 변한다.

또 화중(和仲)에게 나누어 명하여 가을일을 맡아 다스리게 하고 서쪽에 가 있게 하니, 그곳을 매곡(昧谷)이라 하였다. 지는 해를 공경히 보내어 가을에 이룬 농사를 고르게 차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추분(秋分)의 절후는 밤이 낮과 같이 평균하고, 북쪽의 별인 허(虛)는 추분 때의 중성이다. 이로써 중추를 맞게 하면 더위에 고생했던 백성들은 평온해지고, 새와 짐승들은 털이 빠지고 다시 나서 윤택해진다.

또 화숙(和叔)에게 거듭 명하여 겨울일을 맡아 다스리게 하여 북쪽에 가 있게 하니, 그곳을 유도(幽都)라 하였다. 겨울은 그 해의 일이 끝나는 계절이라, 모든 사물의 변화하는 것을 살피도록 하였다. 해가 가장 짧고, 서쪽 별인 묘(昴)는 동지 때의 중성이다. 이로써 중동(仲冬)을 바르게 하면 흘어져 있던 백성들은 다시 집안으로 모여들고, 새와 짐승들은 가는 털이 생긴다.

요임금이 말씀하기를 “아아! 그대 희씨와 화씨여! 하늘의 도수(度數)는 366일이 한 돌이 되오. 옛 역법에 달의 보름과 그믐을 따라 30일이 한 달이 되고, 12월이 한 해가 되는데 날과 달의 도수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달이 크고 작음이 있소. 1년은 항상 365일에 불과하므로 그 남은 날을 모아 3년 만에 윤달을 두어야 달의 희식현망(晦朔弦望)과 사시 춘하추동이 이루어지오. 역상(曆象)을 살펴 백성을 가르치면 천시(天時)를 어기지 않아 모든 공을 다 이룰 것이니, 이것은 진실로 정치를

하는데 중요한 급선무인 것이오.”

하였다.

寅(인) : 공경함.

出日(출일) : 처음 떠오르는 해.

平秩(평질) : 공평하고 질서가 있게 다스리는 것.

東作(동작) : 봄철 농사일을 시작하는 것.

星鳥(성조) : 남쪽의 주조칠숙(朱鳥七宿)을 말함.

日中(일중) : 밤낮의 길이가 같은 것.

南訛(남의) : 여름철에 만물이 자라 변화하는 것. 와(訛)는 화(化)와 통함.

希革(희혁) : 새와 짐승이 텁같이를 하여 텁이 듬성듬성해지는 것.

寅錢(인전) : 공경하여 전송함.

納日(납일) : 저녁때에 막 들어가려는 해.

西成(서성) : 가을철에 만물이 성숙하는 것.

宵中(소중) : 추분 절후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것.

夷(이) : 평(平)과 같은 뜻으로서 더위가 물러가고 사람들의 기운이 평온해지는 것.

平在(평재) : 고루 살핌.

曠(오) : 방 안.

虯毛(용모) : 솜털처럼 가는 털.

咨(자) : 감탄사.

恭(기) : 1주년.

閏月(윤월) :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는 29일 남짓 걸리므로 음력에는 큰달(30일)과 작은달(29일)이

있어 조절하고,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는 데는 1년 365일과 4분의 1일이 걸려 10여일이 모자라므로 3

년쯤 걸려서 윤달을 두어 보충한다.

3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때를 순응할 누구를 찾아내어 등용하게 할 것인가?”

방제(放齊)가 아뢰었다.

“맏아들인 주(朱)가 명석합니다.”

“아니오. 완악하고 말다툼이나 하는데 되겠소? 누가 나의 일에 순응하겠소?”

환두(驩兜)가 아뢰었다.

“오오, 공공(共工)이 인심을 모아서 공을 보였습니다.”

“아니오. 평시에는 말을 잘하되 쓰면 어기고, 외모만 꾸미고 있소. 아아, 사악(四岳)이여! 넘실거리는 큰물이 바야흐로 해를 끼치어 널리 산을 싸돌고 언덕을 넘어, 질편하게 하늘에 닿을 듯하오. 백성들이 이를 탄식하고 있으니 이 일을 해낼 사람이 있거든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오.”

모두들 “오오! 곤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아니오. 그렇지 않소. 명을 거스르며 동료를 해치리다.”

사악이 말하였다.

“그럴는지도 모르오나 시험해 보고 나서 그만둘 일입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삼가 질해 보오” 하셨는데, 구 년의 공적을 쌓았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帝曰：“疇咨若時登庸？”放齊曰：“胤子朱啓明。”帝曰：“吁！囂訟可乎？”

帝曰：“疇咨若予采。”驩兜曰：“都！共工方鳩僥功。”帝曰：“吁！靜言庸違，象恭。”【滔天○二字未詳，與下文相似，疑有舛誤】

帝曰：“咨，四岳！湯湯洪水方割，蕩蕩懷山襄陵，浩浩滔天，下民其咨，有能俾乂。”僉曰：“於！鯀哉！”帝曰：“吁，佛哉！方命圮族。”岳曰：“弔哉！試可乃已。”帝曰：“往欽哉！”九載績用弗成。

[통석] 요임금이 “누가 나를 위하여 능히 때를 순응해서 천하를 잘 다스려 줄 사람을 찾아서 등용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으니 신하 가운데 방제라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드님 단주(丹朱)가 그 성품이 총명하오니 등용할 만합니다” 하고 아뢰었다. 그러나 요임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 안 되오. 저 단주는 말이 믿음이 없어 입으로 미더운 말을 하지 않고, 또 싸움과 송사를 좋아하니 불가하오” 하였다.

요임금은 또 “누가 내 뜻에 따라 내가 하는 일을 순리로 잘 다스릴 사람을 찾아 줄 수 있겠는가?” 하고 물으니, 신하 가운데 환두라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좋은 말씀

이십니다. 공공씨(共工氏)가 바야흐로 일을 잘하며 공적을 보이고 있으니 이 사람이 가할까 합니다” 하고 아뢰었다. 그러나 요임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 아니오. 공공씨는 일을 맡지 않을 때는 말을 잘하지만 막상 일을 맡기면 어그러지고, 외모는 공경한 듯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서 하늘을 멸시하고 잘난 체하니 소인의 태도라 어찌 공을 이루겠는가?” 하였다.

요임금은 또 사악(四岳) 대신에게 물었다. “아! 사악이여, 넘쳐흐르는 홍수가 바야흐로 막심한 해를 끼쳐 넓게 산악(山岳)의 사면을 에워싸고 언덕으로 치올라 하늘에 닿았소. 이제 아래 백성들이 편히 살 수가 없고 모두 곤궁에 빠져 탄식하고 근심만 하고 있으니, 당신들 신하 중에 능히 이 재해를 제거하여 백성들의 근심을 덮어 줄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할 것이오. 과연 누구 없겠소?”

모두들 대답하기를 “홍수를 다스릴 책임을 맡길 만한 사람은 오직 송백(崇伯) 곤(鯀)이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요임금은 마땅히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지 않소. 저 곤의 사람됨은 마음이 곧지 못하며 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아 동료들을 해롭게 할 것이오” 하였다. 사악은 곤의 장점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강권하여 아뢰기를 “그럴는지도 모를 일이오나 지금 조정의 신하들을 살펴보건대 진실로 곤 만한 사람이 없으니, 치수 사업을 그에게 시켜 시험해 보시고서 여의치 못하면 그때 가서 그만둘 일이옵니다” 하니 요임금은 일단 신하들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그대 가서 물을 공경히 다스리오” 하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곤이 명을 받고서 치수 사업을 시작한 지 9년이 지나도록 그 공적이 성취되지 못하였다.

咨(자) : 찾는다는 뜻.

放齊(방제) : 요임금의 신하 이름.

胤子(윤자) : 맏아들.

朱(주) : 요임금의 아들 단주.

嚚訟(은송) : 완악하고 말다툼이나 하는 것.

驩兜(환두) : 요임금의 신하 이름.

都(도) : 감탄사.

共工(공공) : 벼슬 이름.

鳩(구) : 모으다는 뜻.

庸違(옹위) : 써 보면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것.

湯湯(상상) : 물이 넘실거리는 모양.

蕩蕩(텅텅) : 물이 질편한 모양.

懷山襄陵(희산양릉) : 장마물이 산허리를 감돌고 구릉을 넘쳐흐르는 것.

鯤(곤) : 우임금의 아버지. 치수사업을 성공하지 못한 죄로 순임금에게서 형벌을 받았다. 뒤에 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 일을 성공시켰다.

方(방) : 역(逆)의 뜻.

岳(악) : 사악(四岳)을 말함.

4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아, 사악(四岳)이여! 내가 위에 있은 지 칠십 년인데, 그대가 명을 잘 받들어 주었으니 나의 위를 물려줄까 하오.”

사악이 아뢰었다.

“턱이 없어 임금의 자리를 욕되게 할 것이옵니다.”

임금께서 이르셨다.

“현명한 이를 밝히고, 미천한 사람을 드러내 주오.”

여럿이 임금께 아뢰기를 “한 홀아비가 민간에 있으니 우순(虞舜)이라 하옵니다” 하였다.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소. 나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오?”

사악이 말하기를 “장님의 자식으로 아비는 완악하고 어미는 간악하며 아우 상(象)은 교만한데, 능히 효로써 화하게 하여 점점 다스려 나감으로써 간사한 데 이르지 않게 하였다 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내 그를 시험해 보되 그에게 딸을 주어 그가 행하는 법도를 두 딸에게서 살펴보리라” 하시고 두 딸을 규예(媯汭)로 내려 보내어 우씨(虞氏)에게 시집가게 하고는 “공경하라” 하고 일러 주었다.

帝曰：“咨，四岳！朕在位七十載，汝能庸命，巽朕位。”岳曰：“否德忝帝位。”曰：“明揚側陋。”錫帝曰：“有鰥在下，曰虞舜。”帝曰：“俞！予聞，如何？”岳曰：“瞽子，父頑，母嚚，象傲，克諧以孝，烝烝乂，不格姦。”帝曰：“我其試哉，女于時，觀厥刑于二女。”釐降二女于媯汭，嬪于虞。”帝曰：“欽哉！”

[통석] 요임금이 어느 날 “내가 칠십 년이란 오랜 세월 임금 자리에 있고 보니 노쇠한데다가 그대 사악은 내 명령을 잘 받들어 직책을 완수했으니, 나는 그대에게 제위를 물려주려고 하오” 하고 말하니, 사악이 “제위는 막중한 자리로서 오직 덕이 있는 사람만이 이 자리를 맡을 것이옵니다. 저는 덕이 없어 감히 맡지 못할 것이옵니다” 하고 사양하였다.

“그러면 그대 사악은 나를 위하여 유덕한 사람을 구하되, 가까이는 현재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밝혀내고, 멀리는 미천한 속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버리지 말고 천거하오. 오직 덕이 있는 사람을 들어 추천할 것이고 귀하고 천한 것은 가릴 것이 없는 것이오” 하자 이에 사악 및 여러 신하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홀아비가 시골 미천한 곳에 있는데 우순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은 덕이 제위에 있음직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요임금은 즉시 허락하면서 “나도 또한 일찍이 들은 일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아직 알지 못하니 대관절 어떠한 사람이오?” 하고 물어, 사악이 대답하였다. “우순은 고자(瞽者)의 아들로서 그 아비는 어리석어 심덕이 바르지 못하고, 그 계모는 사납고 거만하여 입에 미더운 말을 담지 않으며, 그 계모의 소생인 아우는 이름을 상(象)이라 하는데, 또 오만하고 불공하기 짹이 없었습니다. 순은 이러한 인륜의 어긋남을 만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의 아비와 어미에게 진실로 효로써 섬기고 정성을 다하여 감화시켰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우순의 지성에 감동되어 점점 착해져서 스스로 다스려 큰 간악한 죄를 저지르는 데 이르지 않았으니 성덕(盛德)이 아니고서는 어찌 이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요임금은 “그렇다면 순의 부모 형제에 대한 처사를 보아 그 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소. 그러나 나는 그를 내치(內治)로써 시험해 보기 위해 내 딸로 그의 아내를 삼아 주고, 그가 두 딸에 베푸는 법도를 보기로 하겠소” 하고는 곧 혼구(婚具)를 갖추어 두 딸 아황(娥皇) · 여영(女英)을 규수(媯水)의 물가에 보내어 우씨(虞氏)의 집 안에 머느리로 들여보냈다. 그리고는 두 딸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은 가서 공경히 섬기고, 부도(婦道)를 극진히 하여 바르게 하라” 하였다.

巽(손) : 사양하는 것.

忝(첩) : 욕됨.

師(사) : 못 사람.

錫(석) : 여(與)와 통해 더불어의 뜻.

虞舜(우순) : 우(虞)는 성, 순(舜)은 이름.

俞(유) : 긍정을 표시하는 대답.

象(상) : 순의 배다른 동생.

烝烝(증증) : 몇 번이고 부모 앞에 나가는 모양.

格(격) : 이른다는 뜻.

刑(형) : 법의 뜻.

嬪(빈) : 여자 벼슬 이름인데, 여기서는 부(婦)와 같은 뜻으로서 머느리로 들여보내는 것.

순전(舜典)

〈순전(舜典)〉은 〈요전(堯典)〉의 한 부분으로서, 금문에는 〈요전〉에 합쳐져 있다. 위고문(僞古文)의 작자가 그 후반(後半)을 따로 떼어 〈순전〉이라고 이름붙인 것 같다. 우순(虞舜)은 미천한 사람이었는데, 요임금이 그의 충명함을 듣고 시련을 겪게 한 뒤에 자기의 제위를 물려주었다. 이에 사관이 그 일을 적어 〈순전〉을 만들었다.

1 옛 순임금에 대하여 상고해 보건대 덕의 빛남이 요임금과 일치하였으니 생각이 깊고 슬기로우며, 빛나고 밝으며, 온화하고 공손하며, 미덥고 성실하여 숨은 덕이 위로 들리게 되어 요임금은 아예 직위로써 명하였다.

曰若稽古帝舜。曰重華協于帝。濬哲文明，溫恭允塞，玄德升聞，乃命以位。

[통석] 옛날 순임금이 요임금의 뒤를 계승한 것을 상고해 보니, 요임금은 이미 빛난 덕이 있었고, 순임금 또한 빛난 덕이 있어 요임금과 서로 합치되었다. 순임금의 덕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안으로 깊이 쌓여서 모든 사리에 통달하였다. 이것은 순임금의 마음의 덕이 요임금의 흠명문사(欽明文思)의 덕과 합치된다.

순임금은 온화하고 순수하지만 엄숙한 법도가 있으며, 지성스럽고 독실하여 꾸며서 하는 일이 없었다. 이것은 순임금의 몸가짐으로서 요임금의 윤공극양(允恭克讓)한 처신과 합치된다. 이 네 가지 숨은 덕이 여러 사람의 말을 통하여 요임금에게 들리니, 요임금은 바로 그를 등용하여 직위로써 명하였던 것이다.

協(협) : 합치됨.

濬(준) : 깊음.

塞(색) : 독실함.

玄德(현덕) : 숨어 나타나지 않는 덕.

升聞(승문) : 임금에게 알려지는 것.

2 오륜(五倫)을 삼가 아름답게 하라 하니 오륜을 잘 따르게 되었고, 백관(百官)을 맡기시니 백관의 질서가 잡혔고, 사방의 문에서 손님들을 맞게 하니 사방의 문에 화한 기운이 넘치게 되었으며, 깊고 큰 산림 속에 나가 살피게 하니 사나운 바람과 우뢰 소리 거센 비에도 방향을 잃지 않았다.

요임금이 말씀하셨다.

“그대 순에게 고하노라. 일을 물어 보고 말한 것을 살펴보건대 그대의 말이 공을
이를 수 있다고 본 지 삼 년이니 그대가 임금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오.”

순은 덕 있는 사람에게 사양하고 계승하지 않았다.

慎徽五典! 五典克從, 納于百揆, 百揆時敍, 賓于四門, 四門穆穆, 納于大麓, 烈風雷
雨弗迷。”

帝曰：“格, 汝舜! 詢事考言, 乃言底可績, 三載, 汝陟帝位! 舜讓于德, 弗嗣。

[통석] 요임금이 처음부터 순에게 여러 가지 벼슬로 시험해 보았다. 사도(司徒)의 관직을 맡겼던 바 순은 삼가고 공경하여 오륜을 아름답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부자(父子)는 친하고, 군신(君臣)은 의를 따르고 부부는 분별이 있고, 장유(長幼)는 차례가 있고, 봉우(朋友)는 신의가 있게 되어, 한 사람도 가르침을 어기는 자가 없었다. 순이 총재(冢宰)의 직위에 올라 모든 정치의 책임을 맡은 뒤로 예악(禮樂)과 형정(刑政)과 법도가 바로잡혔다. 또 순으로 하여금 사악의 관직을 겸하게 하여 사방에서 오는 제후들을 빈례(賓禮)로 맞이하게 하니, 모든 제후들이 다 기뻐하고 화순하여 어긋남이 없었다.

또 당시에 홍수의 재해가 극심하므로 요임금은 순으로 하여금 큰 산, 깊은 숲 속에 들어가 지형의 높고 낮음을 살피게 하였더니 마침 사나운 비바람을 만났다. 그러나 순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얼굴빛이 태연하였다. 순의 도량이 남보다 크게 뛰어난 것이 이러하였다.

요임금이 순을 불러 “그대가 등용이 된 뒤로 그대의 행한 일을 물어 보고 그대가

아刎 말을 살펴보니 공적을 이룬 지 이미 3년이 되었소. 그대 공적과 덕은 진실로 천하를 들어서 부탁할 만하오. 마땅히 나를 대신해서 임금의 자리에 올라야 하오”하고 말하니 순은 자기의 덕이 아직도 부족함을 말하여, 덕이 보다 높은 사람에게 시양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徽(희) : 아름다움.

五典(오전) : 오륜(五倫) · 오상(五常) · 오교(五教)라고도 하며 부자유친(父子有親) · 군신유의(君臣有義) · 부부유별(夫婦有別) · 장유유서(長幼有序) · 봉우유신(朋友有信)을 말함.

百揆(백규) : 백관.

穆穆(목목) : 희순한 모양.

格(격) : 래(來)의 뜻.

詢(순) : 묻는다는 뜻.

3 정월 초하룻날에 순이 제위를 요임금 시조의 사당에서 물려받았다. 구슬로 된 혼천의(渾天儀)를 살펴서 일월(日月)과 오성(五星)의 운행을 바로잡았다.

하늘에 제사 지내고 육종(六宗)에 제사 지내고, 명산대천에 정성껏 제사 지내고 여러 신(神)들에게 두루 제사 지냈다.

다섯 가지 서흘(瑞笏)을 모아 달이 다하도록 날마다 사악과 여러 주목(州牧)들을 만나보고, 서흘을 여러 제후들에게 돌려주었다.

이 해 이월에는 동쪽으로 순행하여 태산(泰山)에 이르러 나무를 태워 하늘에 제사 지내고, 차례로 산천을 제사 지내고 동쪽 제후들을 와서 뵙게 하니 다섯 가지 옥과 세 가지 비단과 두 가지 산 짐승과 한 가지 죽은 짐승의 폐백을 가지고 왔다. 철과 달을 맞추고, 날짜를 바로잡았으며 악률(樂律)과 도량형(度量衡)을 통일하고 오례(五禮)를 닦으며, 오기(五器)를 같게 하였다. 여섯 가지 일을 끝마치고 다시 그 일을 되풀이 하였다.

오월에는 남쪽으로 순행하여 형산(衡山)에 이르러 태산에서와 같은 예를 행하였다. 팔월에는 서쪽으로 순행하여 화산(華山)에 이르러 처음과 같이 행하였다.

십이월에는 북쪽으로 순행하여 항산(恒山)에 이르러 서쪽에서와 같이 행하였다.

돌아와서 종묘에 고제(告祭)를 지냈는데,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썼다.

오 년에 한 번 순행하면 여러 제후들은 오 년마다 와서 조회하는데, 널리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공로를 밝게 고찰해서 수레와 옷을 내려 주었다.
새로 열두 주를 마련하고 열두 산을 봉하였으며, 내를 준설했다.

正月上日，受終於文祖。

在璿璣玉衡，以齊七政。

肆類于上帝，禋于六宗，望于山川，徧于羣神。

輯五瑞，旣月，乃日觀四岳羣牧，班瑞于羣后。

歲二月，東巡守至于岱宗，柴，望秩于山川，肆觀東后，協時月正日，同律度量衡，修五禮，五玉，三帛，二生，一死，贊。如五器，卒乃復。五月南巡守，至于南岳，如岱禮。八月西巡守，至于西岳，如初。十有一月朔巡守，至于北岳，如西禮，歸格于藝祖，用特。【五玉三帛二生一死贊”此九字，當在“肆觀東后”之下“協時月正日”之上。】

五載一巡守，羣后四朝，敷奏以言，明試以功，車服以庸。

肇十有二州，封十有二山，濬川。

[통석] 요임금은 정월 상일(上日)에 시조의 사당에 고하고 순에게 섭정의 명을 내린 뒤 스스로 제위에서 물러났다.

섭정의 명을 받아 국사를 맡아 하였는데, 무엇보다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급하므로 먼저 천체를 관찰하는 기구인 선기옥형(璿璣玉衡)을 정밀히 살펴 일월성신(日月星辰)의 운행을 밝혀냈다. 이로써 자연현상의 변화를 관찰하여 백성들의 농사 때를 잊지 않게 하였다.

다음에 임금의 일을 대행하는 일을 천신(天神)과 지신(地神)에 고해서 제사 지내고 때와 차고 더운 것과 해와 달과 별과, 비오고 가뭄의 육종(六宗)에 제사 지내고 명산과 대천의 귀신에게도 제사 지내고 옛날 성현들의 신에게도 두루 제사 지냈다. 순이 임금의 자리를 물려받은 뒤 처음으로 제후들을 불러들여 그 규벽(圭璧)을 모

아서 천자의 것과 맞추어 부신(符信)을 살펴보는 데 한 달이 걸렸다. 제후들을 접견하고 묻고 살피기를, 주도하고 면밀하게 함과 동시에 예의를 갖추어 극진하게 하였다. 조회를 마친 뒤에 각각 바친 규벽을 다시 제후들에게 돌려주어 천하가 다시 이롭게 되었음을 보였다.

순임금이 섭정하던 처음에 제후들의 조회를 다 받고 난 뒤 2월에 먼저 동쪽 제후들에게 순행하기 위하여 동악(東嶽)인 태산 아래에 이르러 나무를 태워 하늘에 제사 지내고 산천에 차례로 망제(望祭)를 지냈다. 그리고 동쪽 제후를 대종(岱宗) 아래에서 접견하니 모두 다섯 개의 구슬과 붉고 검고 노란 비단과 염소와 기리기와 꿩을 페백으로 가지고 왔다. 이에 그들 나라에 시후(時候)의 이르고 늦음과 월령(月令)의 크고 작음과 일진(日辰)을 살펴서 조정의 정삭(正朔)을 받아들여 행하게 하고, 그들 나라에 12율(律)의 높낮이와 잣대의 길고 짧음과 말의 크고 작음과 저울의 가볍고 무거움을 살펴서 조정이 제정한 제도를 따르게 하고, 또 길(吉) · 흥(凶) · 군(軍) · 빈(賓) · 가(嘉)의 다섯 가지 예를 들어서 천하의 풍속을 똑같게 하고, 또 다섯 가지 예 가운데 다섯 가지 예기(禮器)를 같게 하여 천하의 예기를 하나로 통일시켰다.

이 여섯 가지 일을 마치고 다시 5월은 남쪽, 8월은 서쪽, 11월은 북쪽을 순행했는데 그 절차는 동쪽에서와 같이 하였다. 순행하는 일을 끝마치고 서울로 돌아와서 시조의 사당에 이르러 소 한 마리를 제물로 하여 제사 지냈다.

순임금은 이미 순수를 마치고 제후들이 내조(來朝)하는 시기를 정하였다. 5년에 천자는 한 번 순수하고, 제후들은 네 번 와서 조회하게 하되 사방이 각각 번갈아 와서 그 직책을 진술하게 하였다. 순임금은 와서 조회하는 제후들로 하여금 평일에 여행한 것을 낱낱이 아뢰게 하고 그 백성을 다스리는 실적을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훌륭하지만 실지 행한 것이 혹시라도 다하지 못한 데가 있을까 염려하여 그 공적이 밀한 것과 합치되는가의 여부를 밝게 고찰하여, 과연 그들이 백성에게 공을 쌓은 일이 확실하면 수레와 의복을 하사하여 정표(旌表)하였다.

그리고 천하의 경계를 구획하여 기(冀) · 연(兗) · 청(青) · 형(荆) · 서(徐) · 양(揚) ·

예(豫) · 양(梁) · 옹(雍) · 유(幽) · 병(并) · 영(營)의 12주로 나누어 정치와 교화를 펴게 하고, 천하의 산을 봉하여 망제를 지내게 하고 홍수가 이미 다스려졌지만 뒷 날을 위해 다시 내를 준설하여 대비하도록 하였다.

上日(상일) : 초하룻날.

文祖(문조) : 요임금의 시조의 사당 종묘.

璣璣(선기) : 혼천의(渾天儀)와 비슷한 천체를 관측하는 기계.

七政(칠정) : 일 · 월 · 오성 곧 천체를 말함.

類(유) · 禮(인) : 모두 제사 이름.

望(망) : 바라보며 제 지내는 것.

五瑞(오서) : 다섯 가지 제후들의 훌(笏), 훌이란 구슬로 만든 길쭉한 물건으로 제후들이 조회나 회동할 때 손에 드는 것. 공(公)은 환규(桓圭)를 들고, 후(侯)는 신규(信圭)를 들고, 백(伯)은 궁규(躬圭)를 들고, 자(子)는 고벽(穀璧)을 들고 남(男)은 보벽(蒲璧)을 들었다. 이 서(瑞)는 제후들의 신분을 밝히는 신표인 것이다. 순임금은 제후들의 서를 모두 거둬들여 그들의 시정을 살피고 확인하였다.

巡守(순수) : 순수(巡狩)라고도 하며 천자가 제후의 나라를 돌면서 시찰하는 것.

柴(자) : 나무를 태워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함.

望秩(망질) : 망제를 차례로 지내는 것.

五玉(오옥) : 앞에 나온 오서.

三崩(삼백) : 붉은색 · 흰색 · 검은색의 세 가지 비단.

二生(이생) : 경(卿)이 들던 새끼양과 대부들이 들던 기러기.

一死(일사) : 선비들이 들던 꽁.

贊(지) :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 서로 주고받는 예물.

五禮(오례) : 길례(吉禮) · 흥례(凶禮) · 빈례(賓禮) · 군례(軍禮) · 가례(嘉禮)의 다섯 가지.

五器(오기) : 오례를 행할 때 쓰는 그릇.

南岳(남악) : 형산(衡山).

西岳(서악) : 화산(華山).

北岳(북악) : 항산(恒山).

特(특) : 황소.

四朝(사조) : 순임금이 5년에 한 번 순수하는 동안 제후들은 네 번 와서 조회하는 것.

敷奏(부주) : 그들의 치적이나 의견을 진주(陳奏)하게 하는 것.

十二州(십이주) : 기주(冀州) · 연주(兗州) · 청주(青州) · 서주(徐州) · 형주(荊州) · 양주(揚州) · 예주(豫州) · 양주(梁州) · 옹주(雍州) · 병주(并州) · 유주(幽州) · 영주(營州).

4 일정한 형벌을 정하여 백성에게 보이되 귀양살이로 오형(五刑)을 너그럽게 하고, 회초리로 관청의 형벌을 삼고, 종아리채로 학교의 형벌을 삼되, 돈으로 형벌을 대속(代贖)하게 하였다. 실수와 재난으로 지은 죄는 용서하였고, 끝내 나쁜 죄를 지은 자는 사형에 처하되 삼가고 삼가서 오직 형벌을 신중히 다루었다. 공공(共工)을 유주(幽州)로 귀양 보내고, 환두(驩兜)를 송산(崇山)으로 내치고, 삼묘(三苗)를 삼위(三危)에 내몰아 가두고, 곤(鯀)은 우산(羽山)에 가두어 욕보여, 네 사람을 벌하니 천하가 다 복종하였다.

이십팔 년이 되던 해에 요임금이 세상을 뜨자 백성들은 부모를 잃은 것처럼 삼 년 동안을 슬퍼하였고 온 세상은 음악 소리를 그쳐 고요히 지냈다.

象以典刑, 流宥五刑, 鞭作官刑, 扑作教刑, 金作贖刑, 命災肆赦, 恤終賊刑。欽哉
欽哉! 惟刑之恤哉!

流共工于幽洲, 放驩兜于崇山, 罷三苗于三危, 殲鯀于羽山。四罪而天下咸服。

二十有八載, 帝乃殂落, 百姓如喪考妣, 三載, 四海遏密八音。

[통석] 순임금은 천하의 대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섯 등급의 분명한 형벌을 제정하여 천하에 명시하였다.

다섯 형에 해당한 자라도 정상이 의심할 만하거나 그동안의 공훈으로서 논의가 되는 대상은 유배 또는 방치하여 너그러이 용서하였다. 또한 무심코 저지른 죄라는가, 불의의 재앙 때문에 죄를 범한 자는 유배나 벌금형을 가하지 않고 바로 사면하였고, 악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여러 번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다섯 가지 형벌과 회초리로 다스렸다. 그러나 형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항상 조심하여 비록 정도와 권도(權道)를 아울러 쓰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실수할까 삼가고 또 삼가서 만의 하나라도 무고한 사람에게 벌이 가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썼다.

그러나 죄가 있는 사람은 또한 용서하지 않았다. 죄의 경중을 따져서 공공을 북쪽 끝인 유주에 유배하고, 환두를 남쪽 끝 송산에 방치하고, 험준한 지형을 믿고 난을

일으킨 삼묘와 임금들을 서쪽 끝 삼위에 쫓아 버리고, 송백(崇伯) 곤을 동쪽 끝인 우산에 가두었다. 이들 사흉(四凶)은 천하 백성들이 다 같이 미워하는 자들로서 순 임금이 이들을 치죄하니, 천하 백성들이 모두 다 마음 속으로 기뻐하여 성심으로 복종하였다.

순임금이 섭정한 지 28년 만에 요임금이 세상을 뜨니 장안에 사는 백성들의 애통하고 슬퍼함이 마치 부모를 여읜 듯하였고,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사해의 백성들은 모두 다 음악을 금하고 조용히 지냈다.

典刑(전형) : 상형(常刑)이란 뜻으로 오형(五刑) 즉 목(墨) · 의(劓) · 비(剕) · 궁(宮) · 대벽(大辟)을 말함.

怙(호) : 여전히 잘못을 저지름.

終(종) : 재벌의 뜻.

放(방) : 귀양살이의 뜻으로, 유(流)와 다른 것은 유는 이곳저곳으로 옮겨가며 귀양살이 하는 것이고, 방은 제한된 지역에 가두어 귀양살이 시키는 것임.

竄(찬) : 귀양 보내어 금고하는 형.

殛(극) : 종신형을 뜻함.

殂落(조락) : 죽음.

八音(팔음) : 쇠(金) · 돌(石) · 실(絲) · 대(竹) · 박(匏) · 흙(土) · 가죽(革) · 나무(木)로 된 악기를 말함.

5 정월 초하룻날에 순임금은 요임금의 시조의 사당에 고하였다.

사악과 상의하여 네 곳의 문을 열어 사방의 보는 눈을 밝히고 사방의 듣는 귀를 넓혔다.

열 두 고을 주목(州牧)을 불러 물어 보고 말하기를 “먹는 것은 오직 때를 가려 할 것이니, 먼 곳이라 해도 너그럽게 하고 가까운 곳일수록 더욱 친하게 할 것이며, 덕 있는 사람을 후하게 하고 어진 이를 믿으며 약한 사람을 막으면 오랑캐들도 다 복종할 것이오” 하셨다.

순임금이 말씀하셨다.

“아, 사악이여, 힘써 일하여 임금의 일을 빛낼 사람이 있거든 그로 하여금 백관의 위에 있게 하여, 모든 일을 밝게 처리하게 해서 여러 무리를 순하게 이루게 하고

싶구려.”

모두들 아뢰었다.

“백우(伯禹)를 사공(司空)에 기용하셨으면 합니다.”

순임금이 말씀하셨다.

“그렇소. 아, 우(禹)여! 그대는 물과 흙을 다스렸으니 더욱이 일에 힘쓰기 바라오.”

우가 머리를 조아리며 직(稷)과 설(契)과 고요(臯陶)에게 사양하니, 임금께서, “그렇소! 그대는 가서 잘해 보오” 하셨다.

순임금이 말씀하셨다.

“기(棄)여, 빈민이 굶주리고 있소. 그대는 농사일을 맡았으니, 때맞춰 온갖 곡식을 씨 뿌리게 하오.”

순임금이 말씀하셨다.

“설이여, 백성들이 화친하지 않으며 오륜을 따르지 않고 있소. 그대를 사도(司徒)에 임명하니 오륜의 가르침을 삼가 펴서 너그럽게 하기 바라오.”

순임금이 말씀하셨다.

“고요여, 오랑캐가 중국을 어지럽히며 도적 떼들이 안팎으로 들끓고 있소. 그대를 법관에 임명하니 다섯 가지 형벌을 행하되 다섯 가지의 복역을 세 곳에 나가게 할 것이며 다섯 가지로 귀양을 보내되 다섯 가지를 세 곳으로 보낼 것이며, 오직 밝게 살펴서 사람들이 신복(信服)하도록 하오.”

月正元日，舜格于文祖。

詢于四岳，闢四門，明四目，達四聰。

咨十有二牧，曰：“食哉惟時，柔遠能邇，惇德允元，而難任人，蠻夷率服。”

舜曰：“咨，四岳！有能奮庸熙帝之載，使宅百揆，亮采惠疇。”僉曰：“伯禹作司空。”帝曰：“俞，咨禹！汝平水土，惟時懋哉。”禹拜稽首，讓于稷、契暨臯陶。”帝曰：“俞！汝往哉。”

帝曰：“棄！黎民阻飢，汝后稷，播時百穀！”

帝曰：“契！百姓不親，五品不遜，汝作司徒，敬敷五教在寬！”

帝曰：“臯陶！蠻夷猾夏，寇賊姦宄，汝作士，五刑有服，五服三就，五流有宅，五宅三居，惟明克允！”

[통석] 요임금의 삼년상을 마치고 다음해 정월 초하룻날에 순임금이 다시 문조(文祖)의 사당에 가서 고제(告祭)하고 천자의 자리에 올랐다. 먼저 사악 대신에게 천하 다스리는 도를 자문하고, 사방의 어진 이에게 문을 활짝 열어 덕행과 재능이 있는 이들을 모두 오게 하였다. 또 사방으로 눈을 밝히고 사방으로 귀를 통하여 하여 여러 천하 백성의 이목으로써 이목을 삼았다. 그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정을 위에 통하여 상하의 정이 막히는 일이 없게 하였다.

순임금은 또 열두 주목들을 불러들여 백성을 기르는 도를 가르쳐 주되, 백성을 잘 기르려면 먼저 먹을 것을 만족히 주는 데 있으니, 먹을 것을 만족히 해주는 방법으로서는 오직 천시(天時)를 따라야만 한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풍족하면 그 다음에는 교화를 시킬 것이다. 백성들은 먼 곳에 있는 사람은 너그럽게 어루만져 주어 즐거이 돌아오게 하고, 가까운 사람은 더욱 잘 길들여 소원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덕행이 있는 이를 가까이 하여 대접해 주고, 인후한 이를 믿어 주고, 흉악한 자를 멀리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비록 무지한 오랑캐라도 모두들 복종해 올 것이다. 순임금은 사악을 불러 말씀하기를 “그대는 공적을 쌓아 요임금의 하신 일을 넓히고 빛나게 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하라. 그로 하여금 재상의 자리에 있게 하여 모든 정사를 밝게 행하고 만물을 순성(順成)시켜 모두 그의 살 곳을 얻게 하리라” 하니, 여러 신하들은 한결같이 말하였다.

“오직 백우가 있습니다. 그는 사공이 된 뒤로 치수의 어려운 일을 성공시켰으니 재상의 중책을 맡기에 알맞은 사람입니다.”

순임금이 “그대들의 말이 옳소” 하고 바로 우를 불러 말하기를 “그대는 물과 토지를 다스린 공적이 현저하니, 진실로 등용할 만하오. 이제 재상의 일을 겸해서 맡기니, 그대는 더욱 힘써 일하오” 하였다.

우는 순임금의 명을 듣고 감히 그러한 중책을 스스로 맡을 수 없음을 말하고 직과

설과 고요에게 사양하였다.

순임금은 “그렇소. 그대가 천거한 사람들도 또한 훌륭한 인물들이오. 그러나 재상의 자리는 그대만이 맡을 수 있으니, 그만 물러가서 정사를 밝히고 만물을 순성(順成)하도록 하오” 하였다.

순임금은 또 기를 불러 말하기를 “홍수를 다스려 농사를 짓고 있으나, 아직도 지리(地理)를 다하지 못하고 있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그대는 백성들에게 천시와 지리를 잘 파악하여 곡식을 심는 일을 가르쳐 주기 바라오” 하였다.

순임금은 또 설을 불러서 “백성들이 친화하지 못함은 부자·군신·부부·장유·붕우의 오륜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오. 그대는 사도의 직책을 맡았으니 항상 백성들의 마음에 근본을 두어 오륜의 가르침을 펴되 너그럽게 하오”라고 당부하였다.

순임금은 또 고요를 불러서 “지금 오랑캐들이 중국을 침범하여 어지럽히고 있으며, 중국의 백성들도 그 틈을 타서 겁탈과 살인을 자행하여 안팎으로 악을 쌓고 있소. 그대는 법관의 직책을 맡았으니 도적들 중 그 죄악이 용서할 수 없는 자는 오형으로써 다스려 복역케 하오. 그리고 형벌엔 다섯 가지가 있어도 쓰는 곳이 세 곳이 있고, 귀양 보내는 것엔 다섯 가지가 있어도 두는 곳은 세 곳이 있으니, 그 죄의 경중을 따라서 밝게 살피어 조금도 그릇됨이 없게 하오. 형벌을 시행하되 그 죄상에 따라 바르게 시행하면 모든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오” 하였다.

格(격) : 신(神)께 고한다는 말.

文祖(문조) : 순임금의 시조의 사당을 말함.

柔(유) : 희유의 뜻.

允(윤) : 신임의 뜻.

元(원) : 인(仁)하고 선하다는 뜻.

難(난) : 막는다는 뜻.

任(임) : 임(壬)과 통하여 간악의 뜻.

奮庸(분용) : 공을 위해 힘써 일함의 뜻.

載(재) · 采(재채) : 모두 일의 뜻.

疇(주) : 무리의 뜻.

伯禹(백우) : 성은 이(姒). 송백 곤(崇伯鯤)의 아들. 순임금의 뒤를 이어 제위에 올랐다.

稷(직) : 전정관(田正官)으로 성은 희(姪)씨. 이름은 기(箕).

契(설) : 고신(高辛)의 아들로 순임금의 신하.

臯陶(고요) : 순임금의 신하.

阻飢(조기) : 굶주림에 시달림.

五品(오품) : 오륜(五倫) · 오상(五常) · 오교(五教)와 같은 말.

司徒(사도) : 민정(民政)을 맡은 벼슬.

司空(사공) : 토지를 맡은 벼슬.

姦宄(간궤) : 내부에서 일어난 도적은 간(姦), 외부에서 일어난 도적은 궤(宄)라 함.

士(사) : 옥관의 우두머리.

五刑(오형) : 묵형(墨刑), 의형, 월형, 궁형, 대벽.

三就(삼취) : 큰 죄는 원야(原野)에서 목을 베고, 궁형은 잠실(蠶室)에 가두고, 그 밖의 형은 궁벽한 오지로 내쫓음.

五流(오류) : 다섯 종류로 갈라 귀양 보낸다는 뜻.

五宅(오택) : 귀양 가서 머무는 곳.

三居(삼거) : 세 군데의 귀양살이하는 곳.

允(윤) : 신복(信服)한다는 말.

6 순임금은 말씀하셨다.

“누가 내 백공의 일을 잘 다스릴 수 있겠소?”

여러 신하들이 “수(垂)가 적합합니다” 하고 아뢰니, 순임금이 “그렇소. 아, 수여, 그대를 공공(共工)에 임명하오” 하셨다.

수가 머리를 조아리며, 수장(殳斪)과 백여(伯與)에게 사양하니, 순임금은 “그렇소. 그대는 물러가서 그 직책을 조화 있게 이행하오” 하셨다.

순임금이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산림과 늄과 풀과 나무와 새와 짐승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소?”

여러 신하들이 “익(益)이 적합합니다” 하고 아뢰니, 순임금이 “그렇소. 아! 익이여, 그대는 내 우(虞)가 되오” 하셨다.

익이 머리를 조아리며 주(朱)와 호(虎)와 응(熊)과 비(罷)에게 사양하니, 순임금은 “그렇소. 그대는 가서 그 직책을 조화 있게 이행하오” 하셨다.

순임금이 말씀하셨다.

“아 ! 사악이여, 나의 삼례(三禮)를 맡아 할 사람이 있겠소?”

여러 신하들이 “백이(伯夷)가 적합합니다” 하니, 순임금은 “그렇소. 아! 백이여, 그 대를 질종(秩宗)에 임명하니 아침저녁으로 오직 맡은 일에 공경하여 바르게 함으로써 밝아지게 하오” 하셨다.

백이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기(夔)와 용(龍)에게 사양하니 순임금은 “그렇소. 가서 공경히 하오” 하고 당부하였다.

순임금이 말씀하셨다.

“기여 ! 그대에게 음악을 맡기니 맡아들을 가르치오. 가르칠 때는 곧게 하되 온화하게 하도록 하며, 너그럽게 하되 위엄 있게 하며, 군세계 하되 포악함이 없게 하며, 간략하되 거만함이 없게 해야 하오. 시는 뜻을 말한 것이요, 노래는 말을 길게 늘인 것이요, 소리는 가락에 맞게 할 것이요, 음률은 소리를 조화시켜야 하는 것이니, 팔음(八音)이 충분히 조화를 이루어 서로 차례를 잊지 아니하여야 신(神)과 사람들이 화평하게 될 것이오.”

기가 아뢰었다.

“제가 석(石)을 치고 두드리니 백수(百獸)가 따라서 춤을 추었습니다.”

순임금이 말씀하셨다.

“용이여, 나는 참소하는 말과 잔악한 행동이 나의 백성을 놀라게 하는 것을 싫어하오. 그대에게 명하여 납언(納言)을 삼으니 아침저녁으로 나의 명령을 내고 들이되 오직 믿음으로써 행하오.”

帝曰：“疇若予工？”僉曰：“垂哉。”帝曰：“俞！咨垂！汝共工。垂拜稽首，讓于殳斨暨伯與。”帝曰：“俞！往哉汝諧！”

帝曰：“疇若予上下草木鳥獸？”僉曰：“益哉！”帝曰：“俞！咨益！汝作朕虞！益拜稽首，讓于朱、虎、熊、羆。”帝曰：“俞！往哉汝諧！”

帝曰：“咨，四岳！有能典朕三禮？”僉曰：“伯夷。”帝曰：“俞！咨伯！汝作秩宗。夙夜惟寅，直哉惟清！伯拜稽首，讓于夔、龍。”帝曰：“俞。往欽哉！”

帝曰：“夔！命汝典樂，教胄子，直而溫，寬而栗，剛而無虐，簡而無傲，詩言志，歌永

言，聲依永，律和聲，八音克諧，無相奪倫，神人以和。”【夔曰：“於予擊石拊石，百獸率舞。”此《益稷》之文，簡編脫誤，復見於此。】

帝曰：“龍！朕聖讖說移行，震驚朕師，命汝作納言，夙夜出納朕命，惟允！”

[통석] 성인이 기계를 제작함에 있어선 반드시 자연의 이치를 따랐다. 수(垂)의 재주는 자연 만물의 이치를 따라서 백성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기구를 제작하는 지혜가 있었다. 그러므로 순임금은 그에게 공공(共工)의 직책을 맡겼던 것이다.

성인은 만물을 일체(一體)라 보았기 때문에 나의 초목과 조수(鳥獸)라 하였다. 이 직책을 맡은 사람은 만물과 자연의 이치에 따라 그것들의 뜻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것들의 삶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취해 쓰는 데도 때가 있어야 하고, 절도가 있어야 한다. 익(益)은 산택(山澤), 초목과 조수들을 그 성질과 생명에 따라 잘 다스렸으므로 순임금은 우(虞)의 직책을 맡겼던 것이다.

순임금은 또 예(禮)가 중대함을 알고 특히 사악을 불러 “누가 예문(禮文)에 통달하여 나의 천신(天神)과 인귀(人鬼)와 지기(地祈)를 제사 지내는 세 가지 일을 맡아서 하겠는가?” 하고 물어, 여러 신하들이 백이를 추천하였다. 순임금은 높게 여겨 그에게 질종(秩宗)을 맡겼다. 그리고 순임금은 신을 섬기는 도를 백이에게 알려 주었다. “제사의 본뜻은 오직 밤낮으로 공경하고 마음이 정직하여야 한다. 텔끝만큼도 사곡(私曲)함이 없어야 마음이 맑고 깨끗해져서, 천지에 부끄러움이 없고 신명(神明)에 합하여 신을 섬기는 근본이 서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순임금은 기(夔)를 불러 말하기를 “그대에게 전악(典樂)의 직책을 맡기니, 그대는 마땅히 음악의 율리(律理)를 잘 알아서, 태자와 공경대부(公卿大夫)의 맏아들을 가르쳐 주기 바라오. 사람의 기질이란 과불급(過不及)이 있어 편벽됨을 면하기 어려우니 정직하면서도 온화하게 하고, 너그러우면서도 엄격하게 하고, 씩씩하면서도 난폭함이 없게 하며, 대범하면서도 방만함이 없게 할 것이오. 사람의 덕성을 함양하고 기질을 변화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교육을 음악으로 흥기시켜 민심을 화하게 하는 데 있다 할 것이오. 대체로 사람의 마음은 언어로 표현되어 시가 되므로 시

는 뜻을 말함이고, 노래는 길고 짧은 절주(節奏)가 있어야 하므로, 노래는 말을 길게 함이고, 절주는 운율이 있어서 고저청탁(高低清濁)이 같지 않으므로 궁(宮) · 상(商) · 각(角) · 치(徵) · 우(羽) 5성을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니, 소리는 긴 데 의지함이고, 운율은 맑고 흐림이 있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반드시 12율의 관악으로 조화시켜 5성을 맞춘 뒤에야, 맑고 흐림이 어울려 어지럽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곧 율(律)은 소리를 화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오.

사람의 소리가 이미 조화를 이루거든 다시 이 노래 소리를 금(金) · 석(石) · 사(絲) · 죽(竹) · 포(匏) · 토(土) · 혁(革) · 목(木)의 여덟 가지 악기에 엮어 음악을 만드는 것이오. 이 여덟 가지 악기 소리가 함께 어울려야 그 차례를 잊지 않으며 이 음악을 교제(郊祭)나 묘제(廟祭)에 쓰면 천신이 내리며 귀신이 흠향하고, 조정에 연주하면 모든 제후들은 사양을 하고 모든 관리는 화합하게 될 것이오. 천신과 귀신도 감동하거든 하물며 인간이야 말할 것이 있겠소?”

이에 기가 아뢰었다. “그러합니다. 제가 경(磬)을 치며 두드리자 수많은 짐승들조차 이에 감응되어 춤을 추었습니다.”

순임금은 또 용(龍)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참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어진 이의 행동을 중상하고, 여러 사람의 이목을 어지럽게 하기 때문이오. 그러므로 그대를 명하여 납언(納言)을 삼는 것이니, 아침저녁으로 나의 명령을 들이고 내는 데 반드시 살펴서 미덥게 하면 간사한 사람은 스스로 나오지 못할 것이고, 참소의 말은 없어지게 될 것이오” 하였다.

垂(수) : 순임금의 신하 이름. 순재주가 있는 수(垂)란 사람인 듯함.

共工(공공) : 공사(工事)를 맡은 벼슬의 명칭.

殳(수) · 斫(장) · 伯與(백여) : 순임금의 신하 이름. 무기를 잘 만들었다.

諧(해) : 화합하고 고르게 하는 뜻.

上下(상하) : 상은 산림, 하는 택수(數)를 말함.

盈(익) : 백익(伯益).

虞(우) : 산택(山澤)을 맡은 벼슬 이름.

朱(주) · 虎(호) · 熊(옹) · 罷(비) : 산짐승을 잘 다스리는 사람 이름.

伯夷(백이) : 순임금의 신하. 성은 강씨.

秩宗(질종) : 의식을 맡은 관명.

夔(기) · 龍(용) : 순임금의 신하 이름.

聲(성) : 궁(宮) · 상(商) · 각(角) · 치(徵) · 우(羽)의 5성(五聲).

律(율) : 황종(黃鍾) · 태족(太簇) · 고세(姑洗) · 유빈(蕤賓) · 이칙(夷則) · 무사(無事) · 대려(大呂) · 응종(應鍾) · 남려(南呂) · 임종(林鍾) · 중려(仲呂) · 협종(夾鍾)의 12율.

납(納) : 임금의 명령을 내고 들이는 벼슬 이름.

7 순임금이 말씀하셨다.

“아아! 그대들 스물 두 사람은 공경하여 오직 하늘의 일을 밝게 해주시오.”

세 해에 공적을 살피고 세 번 고찰하는 동안에 악한 자는 내치고 어진 이는 승진시키시니, 모든 일이 다 빛이 났고 삼묘족(三苗族)을 분산시켜 도망치게 하였다. 순임금은 낳아서 삼십년에 불리어 등용되고, 삼십 년에 재위에 올라 오십 년에 세상을 떴다.

帝曰：“咨，汝二十有二人！欽哉，惟時亮天功！”

三載考績，三考，黜陟幽明，庶績咸熙，分北三苗。

舜生三十徵庸，三十在位。五十載，陟方乃死。

[통석] 순임금은 말씀하셨다. “그대들 스물두 사람은 혹은 정치를 총괄하고, 혹은 분담하여 다스리고, 혹은 나라 안을, 혹은 나라 밖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맡은 직을 공경히 행할 것이오. 시악이 공경하면 어진 인재를 등용할 것이요, 구관(九官)이 공경하면 교화가 이루어져 형벌을 밝히고, 예악을 일으켜 풍속이 순화될 것이요, 십이목(十二牧)이 공경하면 백성들의 먹을 것을 풍족히 할 것이며, 또 백성을 잘 어루만질 것이며, 군자를 친히 하고 소인을 멀리할 것이니 이 모두 신하의 직책을 닦아서 하늘의 화육(化育)하는 공을 이루는 것이오.”

순임금은 9년 동안에 세 번이나 그 공을 고찰하고 살피니, 신하들의 현명함과 어

리석음이며 사업의 득실을 볼 수 있었다. 명철한 사람은 올려 쓰고 어리석은 사람은 물리쳤다. 상주고 벌함을 밝게 하고 미덥게 하니 사람마다 일과 공을 이루는 데 힘썼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공적이 다 빛났던 것이다.

순임금은 태어나서 30년 만에 비로소 요임금에 불리어 등용되었다. 3년 동안 시험을 거치고, 28년 동안 섭정의 위에 있었고 임금의 위에 있은 지 50년에 세상을 떴다.

二十二人(이십이인) : 사악(四岳) · 구관(九官) · 십이목(十二牧)을 말함.

考(고) : 고찰함.

幽明(유명) : 유(幽)는 어리석고 못된 관리, 명(明)은 명철한 관리를 말함.

三苗(삼묘) : 험준한 지리를 믿어 복종하지 않던 종족 이름.

陟方(척방) : 승하(昇遐)와 같은 말.

대우모(大禹謨)

우순(虞舜)의 사관(史官)이 <요전(堯典)>과 <순전(舜典)> 두 편을 기술하였는데, 기록이 미비한 데가 많았으므로 그 임금과 신하 사이에 있었던 좋은 말과 잘한 정치를 서술하여 <대우모(大禹謨)> · <고요모(臯陶謨)> · <의직(益稷)> 세 편을 지어서 2전(二典)의 갖추지 못한 것을 보충하였다. 이 편은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만 있다.

1 옛 우임금에 대하여 상고해 보건대 문교(文敎)를 온 세상에 퍼고 임금님을 공경히 받들었다.

우가 말하였다.

“임금으로서 그 임금됨을 어렵게 생각하며, 신하로서 그 신하됨을 어렵게 생각하면 정치가 잘 다스려지고 백성들은 덕에 민감할 것입니다.”

순임금이 말씀하셨다.

“그렇소. 정말 그러하다면 아름다운 말이 숨겨지지 않고, 시골에 묻혀 있는 어진 이가 없어 온 나라가 화평하게 될 것이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남의 의견을 따르며,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곤궁한 사람을 버려두지 않는 일들은 오직 요임금만이 할 수 있으셨소.”

익(益)이 말하였다.

“아아! 요임금의 덕은 널리 퍼져 성스럽고 신기로우며 씩씩하고 문채가 빛났으니, 하늘이 돌보시어 명을 내려 천하를 다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천하의 임금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가 말하였다.

“도(道)를 따르면 길할 것이요, 거스르면 흉할 것이니 이는 그림자나 메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익이 말하였다. “아! 경계하소서. 걱정 없을 때 경계하시어 법도를 잊지 말고 편안함에 놀지 말고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어진 이를 쓰되 소인이 이간하지 못하게 하고, 간사한 자를 물리치기에 의심치 마십시오. 의심나는 계책을 성사시키지 않으

시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에 어긋나는 일을 하여 백성들의 칭송을 구하지 말고, 백성들의 뜻을 어겨가며 자기 욕심을 따르지 마십시오. 게으르고 거칠지 않으시면 사방의 오랑캐들도 찾아와 조공할 것입니다.”

우가 말하였다.

“아! 임금이시여, 생각하십시오. 덕으로 해야 선정이 되며, 정치는 백성을 기르는 데 있으니 물과 불과 쇠와 나무와 흙과 곡식들을 잘 다스려, 덕을 바르게 하고 쓰임을 편리하게 하고 삶을 두터이 하는 일에 조화를 이루십시오. 아홉 가지 일을 다 펴거든 그 일을 노래하게 하십시오. 부지런히 할 때는 경계하여 아름답게 여기시고, 게으를 때는 독려하여 징계하시며, 아홉 가지 노래로써 권장하여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순임금이 말씀하셨다.

“그렇소. 땅을 다스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섯 가지 재원과 세 가지 일이 잘 다스려져 만세토록 영원히 힘입게 되었으니, 이것은 다 그대들의 공인가 하오.”

曰若稽古大禹，曰文命敷於四海，祗承于帝。

曰：“后克艱厥后，臣克艱厥臣，政乃乂，黎民敏德。”

帝曰：“俞！允若茲。嘉言罔攸伏，野無遺賢，萬邦咸寧，稽于衆，舍己從人，不虐無告，不廢困窮，惟帝時克。”

益曰：“都！帝德廣運，乃聖乃神，乃武乃文，皇天眷命，奄有四海，爲天下君。”

禹曰：“惠迪吉，從逆凶，惟影響。”

益曰：“吁！戒哉！儆戒無虞罔失法度，罔遊于逸，罔淫于樂，任賢勿貳，去邪勿疑，疑謀勿成，百志惟熙，罔違道以干百姓之譽，罔咈百姓以從己之欲，無怠無荒，四夷來王。”

禹曰：“於！帝念哉！德惟善政，政在養民，水火金木土穀惟修，正德、利用、厚生惟和。九功惟敍，九敍惟歌。戒之用休，董之用威，勸之以九歌，俾勿壞。”

帝曰：“俞！地平天成，六府三事允治，萬世永賴，時乃功。

[통석] 우(禹)가 이미 덕화를 세상에 펴서 물과 흙을 다스리고 조공과 세금을 정하고 제후를 세워 경계를 밟혀 놓았지만, 다시 그 정책을 말씀드려 순임금을 공경히 받들었다.

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임금으로서 그 임금된 도를 쉽게 생각하지 않으며, 신하로서 그 신하된 직분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각각 밤낮으로 조심스럽게 그 맡은 일을 다한다면, 정사가 잘 다스려지고 백성들은 스스로 감동하여 빨리 선하게 될 것입니다.”

순임금이 우의 이 말을 옳게 여겨 “진실로 이같이 하면 모든 사람의 의견이 널리 채용되고, 모든 어진 사람들이 다 오게 되어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그 혜택을 입을 것이오. 그러나 사사로운 뜻을 버리고, 고정한 말을 따르며 백성을 사랑하고 어진 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지극하지 않으면 되지 못하는 것이니, 이 일은 오직 요임금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오” 하였다.

순임금이 모든 덕을 임금에게 사양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익(益)이 “그렇습니다. 임금의 덕은 널리 사방 구석구석까지 퍼져서 참으로 성스럽고 신기할 정도이며, 문무(文武)를 겸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굽어보시고 널리 온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가 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도 또한 마땅히 이같이 하시어 길이 천자의 위를 누리셔야 할 것이옵니다” 하고 말하였다.

또 “하늘의 이치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길하고, 좋지 않은 일을 하면 흉한 것이 마치 물건에 따르는 그림자와 소리에 따르는 메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고 아뢰었다.

익이 또 “아아, 임금님께서는 경계하셔야 합니다. 나라가 근심이 없을 때에 법도가 해이하기 쉬우니, 마땅히 법도를 지켜서 안일과 방종에 빠지지 마셔야 합니다.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어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니, 마땅히 소인들의 이간질을 경계하시고, 사악함을 물리치는 데 과감하소서. 그리고 마음에 의혹이 날 때는 사업을 중지하고 더 나아가지 않으시면, 모든 생각이 정대하고 광명해질 것입니다. 또 정리(正理) · 정법(正法)을 위해하면서 백성들의 칭찬을 구하려 하지 마시고 공심(公心)을 떠나 사정에 끌려 백성들의 뜻을 거스르고,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려 마소서. 이 여덟 가지 일에 대하여 게으르고 거칠지 않으시면 사방의 오랑캐들도 임금님의 뜰 앞에 와서 조공할 것입니다”고 아뢰었다.

우가 또 순임금에게 “오오, 임금님이시여, 익이 한 말이 임금의 덕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도에 크게 관계되오니 깊이 생각하소서. 위대한 덕은 착한 정치를 베푸는 데 있고, 위대한 정치는 오로지 백성들을 잘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수(水) · 화(火) · 금(金) · 목(木) · 토(土) · 곡(穀) 여섯 가지는 모두 천지자연의 이로운 것으로서 백성들의 일용생활에 빼놓지 못할 것이오니, 이 여섯 가지를 닦아서 백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부자(父慈) · 자효(子孝) · 형우(兄友) · 제공(弟恭) · 부의(夫義) · 부청(婦聽) 여섯 가지 덕을 바르게 하고 기구를 만들고 재화를 유통시켜 백성들의 생활의 필수품을 이롭게 하고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게 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후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홉 가지 공이 다 펴져서 조화를 이루면, 백성들은 저마다 복리를 누려서 자기들의 삶을 즐겁게 노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근면하나 끝에는 게으르게 됨은 사람의 상정이오니, 마땅히 이들을 격려하여 근면한 사람은 친양하고, 게으른 자는 독려하고 징계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억지로 힘써서 하는 일은 영구성이 없으므로 다시금 권장하여 구공(九功)의 노래를 음률에 맞춰 부르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고무시켜 앞에 이룩한 공을 오래도록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 모두 백성을 기르고 정치를 닦아가는 정도이오니, 임금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

순임금이 이 말을 듣고 “그렇소. 우여, 그대의 말이 옳소. 지난날 홍수의 재앙으로 하늘과 땅이 위치를 잃었고 모든 백성들이 살 곳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땅이 다 다스려지고 하늘도 또한 만물을 생성하는 공을 이루게 되었소. 이에 수 · 화 · 금 · 목 · 토 · 곡의 육부(六府)가 잘 다스려져서 재용(財用)이 풍부하고 정덕(正德) · 이용(利用) · 후생(厚生)의 세 가지 일이 각각 닦아져서 백성들이 그 복리를 흡족하게 입어 잘 살게 되었소. 이것은 그대가 사업을 잘 이룩한 공적이라 믿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었소” 하셨다.

命(명) : 가르침의 뜻.

祇(기) : 공경함.

帝(제) : 순임금을 말하는 것임.

廣運(광운) : 광(廣)은 커서 끝없고, 운(運)은 운행이 쉬지 않는 것.

奄(암) : 다함의 뜻.

惠(혜) : 순종한다는 뜻.

迪(적) : 도(道)와 같음.

逆(역) : 도에 거스름.

儆(경) : 경(警)과 같음.

虞(우) : 해아림.

貳(이) : 소인이 이간질하는 것.

淫(음) : 지나침.

來王(내왕) : 사방의 오랑캐들이 와서 조공하는 것. 王(왕)은 구주 밖 오랑캐들이 때가 바뀔 때마다 와서 조 견한다는 뜻.

六府(육부) : 수·화·금·목·토·곡을 말하며, 백성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임.

三事(삼사) : 정덕·이용·후생을 말하며, 치국의 근본이 되는 것.

九功(구공) : 육부(六府)와 삼사(三事).

九敍(구서) : 구공이 질서가 잡혔다는 뜻.

董(동) : 독려의 뜻.

地平(지평) : 물과 흙을 잘 다스렸다는 말.

天成(천성) : 하늘의 뜻대로 이루었다는 말.

賴(뢰) : 의뢰함.

時(시) : 시(是)의 뜻.

2 순임금이 말씀하셨다.

“오, 그대 우여! 내 제위에 있은 지 삼십삼 년이요, 나이도 아흔을 넘어 백 살이 되어 가니, 일에도 권태를 느끼는구려. 그러니 그대는 계을리 말고 나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오.”

우가 말하였다.

“제 덕이 모자라 백성들이 의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요(阜陶)는 힘써 덕을 펴, 덕이 백성들에게 미쳐 따르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굽어 살피소서. 그 사람

을 생각함도 그 공적 때문이요, 그 사람을 벼려도 그 표적은 남아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것도 공적 때문이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우리나라오는 것 또한 공적 때문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의 공적을 생각하소서.”

순임금이 말씀하셨다.

“고요여! 신하들이 나의 정사를 범하는 이가 없는 것은 그대가 사(士)가 되어 오형(五刑)을 밝히고 오교(五教)를 도와, 나의 다스림을 맡아 주었기 때문이오. 형벌을 쓰되 형벌이 없어지도록 하여 백성들이 중정(中正)에 맞도록 한 것은 그대의 공이니, 더욱 힘써 하오.”

고요가 말하였다.

“임금님의 덕에 허물이 없으시어, 신하들에게는 간략하게 대하시고, 백성들에게는 너그럽게 다스렸으며, 죄는 아들에게까지 미치지 않게 하시고 상은 후대에까지 미치게 하셨으며, 모르고 저지른 죄는 커도 용서하시고 고의로 저지른 죄는 작아도 벌하셨으며, 의심스러운 죄는 가볍게 하시고 의심스러운 공은 후하게 하셨으며,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느니 차라리 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살기를 좋아하는 덕이 백성들의 마음에 흡족히 젖어 있어, 그렇게 됨으로써 관리들을 범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순임금이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스려져서 사방이 바람에 쓸리듯 따르게 된 것은 오직 그대가 훌륭한 때문이오.”

帝曰：“格汝禹！朕宅帝位，三十有三載，耄期倦于勤，汝惟不怠，總朕師！”

禹曰：“朕德罔克，民不依，臯陶邁種德，德乃降，黎民懷之，帝念哉，念茲在茲，釋茲在茲，名言茲在茲，允出茲在茲，惟帝念功！”

帝曰：“臯陶！惟茲臣庶，罔或于予正，汝作士，明于五刑，以弼五教，期于予治，刑期于無刑，民協于中，時乃功，懋哉！”

臯陶曰：“帝德罔愆，臨下以簡，御衆以寬，罰弗及嗣，賞延于世，宥過無大，刑故無小，罪疑惟輕，功疑惟重，與其殺不辜，寧失不經，好生之德，洽于民心，茲用不犯于

有司。”

帝曰：“俾予從欲以治，四方風動。惟乃之休。”

[통석] 순임금이 말씀하셨다. “내 나이 이미 늙어서 혈기가 쇠하였으므로 일에 권태가 오고 하니, 그대 우가 마땅히 힘을 다하여 우리 백성과 신하들을 모두 거느려 다스려야겠소.”

우가 말하였다. “저는 덕이 천박하여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백성들도 따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신 가운데 오직 고요가 덕에 힘써 그 덕이 널리 퍼져 백성들에게 크게 미쳤으므로 백성들이 다 감복하여 따르고 있사오니 진실로 정사를 고요에게 명하심이 마땅한 줄 아옵니다. 임금님은 고요의 공을 생각하시고 잊지 마소서. 정녕 언제든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진실로 고요일 뿐이니, 고요를 놓고 다른 현재(賢才)를 구하려 해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고요밖에 없으니, 이름을 붙여 말해 보아도 고요밖에 입에 떠오르지 않고, 거짓 없이 진실로 이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은 고요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마침내 바꿀 수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임금님께서는 고요의 공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 사람에게 제위를 대행케 하옵소서.” 임금은 우의 사양함을 듣고 고요를 불러 칭찬하기를 “고요여! 우리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이치를 쫓고 법을 지켜 나의 정령(政令)을 범하는 자가 없는 것은 그대가 법관이 된 뒤로 다섯 가지 형법을 정확히 밝혀서 오륜의 가르침을 보필하였기 때문이요 또한 내가 해 온 정치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게 하였소. 처음에 형벌을 쓰지 않을 수 없었으나, 형벌이 없는 경지에 이르도록 노력함으로써 백성들이 모두 다 바른 도에 의하여 과불급의 차가 없어서 형벌이 쓸 데가 없게 되었구려. 이렇게 된 것이 모두 그대의 공적이라 생각하고 있으니, 그대는 더욱 힘써 주기 바라오.”

순임금의 칭찬을 받은 고요는 그 공을 순임금에게 돌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백성들이 중정한 도에 이르게 된 것은 저의 공이 아니라, 임금님께서 이루신 덕입니다. 생각하옵건대 임금님의 덕은 지극히 정밀하고 준수하여 티끌만한 결함도 없으

십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래 신하들을 대할 때는 평이하게 번거로움 없이 하시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는 너그러우시어 촉박함이 없으시되, 죄인을 벌할 때는 다만 그 자신에 한하고 자손에게는 누가 미치지 않게 하시며, 공이 있는 사람을 상줄 때는 그 자신에만 한하지 않고, 반드시 벼슬에 따라 토지를 주어 멀리 후세 자손에까지 미치게 하셨으며, 형벌을 행함에 있어서는 무의식중에 저지른 허물은 비록 크다 해도 사면하시고 고의로 범한 죄악은 비록 작더라도 처벌하셨으며, 그 정상을 참작하여 죄를 정하되 중하고 경한 것이 의심나는 때는 가벼운 데 죽어 벌하셨으며, 공을 논하여 상주는 데 있어 경하고 중한 것이 의심나는 때는 중한 데로 죽어 상을 주시며 또 큰 죄를 저질러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을 때는 죄인을 죽이느니보다 그 생명을 보전하게 하고, 스스로 실형(實刑)의 책임을 감수하셨습니다. 이것은 임금님의 어질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지극하심이요, 호생(好生)의 거룩한 덕이시라,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백성들이 사모하고 감복하게 돼 스스로 법도를 어기는 사람이 없는 것이오니, 어찌 제가 형벌을 밝게 하고 교회를 보필해서 이루어진 치적이겠습니까?”

순임금은 다시 그 공을 고요에게 사양하며 “그대가 나의 바라는 바를 따라 정치를 잘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법을 어기지 않고, 위에서는 형벌을 쓰지 않게 된 것이오. 정치와 교화가 사방에 고루 미쳐 마치 바람에 풀잎이 쓸리듯이 백성들이 저절로 따라왔으니 이는 모두 그대의 훌륭한 공이었소.”

耄期(모기) : 여든 살에서 아흔 살까지를 모(耄)라 하고, 백 살을 기(期)라 함.

降(강) : 하(下)의 뜻으로 백성에게 미쳤다는 뜻.

懷(회) : 진심으로 생각하여 따른다는 뜻.

干(간) : 범함.

五刑(오형) : 목형(墨刑), 의형, 윌형, 궁형, 대벽.

五教(오교) : 오륜(五倫) · 오상(五常)과 같은 말.

協(협) : 맞음.

時(시) : 시(是)와 같음.

乃(내) : 너란 말.

嗣(사) : 자손.

不辜(불고) : 죄 없는 사람.

有司(유사) : 관직에 있는 사람.

3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오, 우여! 흥수가 나를 위협했으되 믿음을 이루고 공을 이룬 것은 오직 그대가 어진 때문이었소. 나랏일에 부지런하고 집안일에 검소하여 스스로 만족하고 뽐내지 않은 것은 오직 그대가 어진 때문이었소. 그대가 자랑하지 않으나 천하에 그대와 더불어 공을 다할 자 없으나 내 그대의 덕을 크게 여기며, 그대의 큰 공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소. 하늘의 돌아가는 운수가 그대 몸에 있으니, 그대는 마침내 임금의 위에 오를 것이오.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고 도의 마음은 은미하니 오직 정일(精一)해야 진실로 그 중정을 잡을 것이오. 근거 없는 말은 듣지 말고, 묻지 않은 꾀는 쓰지 마오. 사랑할 만한 이가 임금이 아니겠소. 두려워할 만한 것이 백성이 아니겠소. 백성은 임금이 아니면 누구를 떠받들며, 임금은 백성이 아니면 나라를 지키지 못하리니, 공경하여 그대의 자리를 삼가서 그들의 원하는 일을 공경히 닦으시오. 천하가 곤궁해지면 하늘의 녹도 영영 끝장이 날 것이오. 입이란 좋은 말도 하지만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니 나는 더 말하지 않겠소.”

우가 말하였다.

“공신들을 하나하나 점치시어 길한 사람을 따르십시오.”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우여! 관청에서 치는 점은 먼저 뜻을 결단하고서야 뒤에 큰 거북에게 명하는 것인데, 나의 뜻이 먼저 정해졌고 의논이 동일하며, 귀신도 따르고 거북과 시초(蓍草) 점도 다 같이 따랐소. 점이란 길한 것을 거듭 치는 법이 아니오.”

우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굳이 사양하니,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그만두오. 그대만이 적합하오” 하셨다.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요임금 사당에서 명을 받고 백관을 거느렸는데, 순임금이

처음 임금 자리에 나갈 때와 같이 하였다.

帝曰：“來禹！洚水儆予，成允成功，惟汝賢，克勤于邦，克儉于家，不自滿假，惟汝賢，汝惟不矜，天下莫與汝爭能，汝惟不伐，天下莫與汝爭功，予懋乃德，嘉乃不績，天之曆數在汝躬，汝終陟元后。

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

無稽之言勿聽，弗詢之謀勿庸！

可愛非君，可畏非民，衆非元后何戴？后非衆罔與守邦。欽哉！慎乃有位，敬修其可願！四海困窮，天祿永終。惟口出好興戎，朕言不再。”

禹曰：“枚卜功臣，惟吉之從。”帝曰：“禹！官占。惟先蔽志，昆命于元龜。朕志先定，詢謀僉同，鬼神其依，龜筮協從。卜不習吉。”禹拜稽首固辭，帝曰：“毋！惟汝諧。”

正月朔旦，受命于神宗。率百官若帝之初。

[통석] 순임금은 드디어 우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려고 순순히 타일러 말씀하셨다.

“이리 오시오, 우여! 옛날에 홍수가 범람하여 하늘이 나에게 경계함을 보였소. 이 때 그대에 의해 치수의 공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오직 그대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소. 그대는 또 나랏일에 부지런하고, 집안일에 검소하였소. 이 두 가지 아름다운 공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조금도 자만하는 뜻이 없으니, 이는 그대의 덕이 남보다 뛰어난 때문이 아니겠소. 또 그대는 근검의 덕이 있어서, 뽑낼 만도 하지만 전연 그런 일이 없었소.

그대는 비록 뽑내지 않으나 그 능함을 가릴 수는 없고 더욱 사람을 감복시키고 있으니, 천하에 누가 그대와 능함을 겨룰 자가 있겠소. 그대는 이러한 믿음과 공이 있으나 자랑할 만도 하지만 그러한 일이 없었소. 이에 임금의 차례가 그대의 몸에 돌아감을 알고 있으니, 그대는 마땅히 임금의 위에 올라서 천하 백성들의 여망에

부응해야 할 것이니, 어찌 사양할 수 있겠소.

대체로 사람이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데 따라 뜻에 맞으면 기뻐하고, 뜻에 거스르면 마땅치 않게 여기나니, 이것이 곧 인심이오. 이 마음은 사사롭기 쉽고 공정하기 어려워서 밖으로부터 오는 물욕에 사로잡히기 쉬운 것이니, 얼마나 위태롭소. 마음이 의리에서 벗하여 보고 듣는 것이 정당함을 얻은 것을 도심(道心)이라 하오. 이 도심은 밝기가 어렵고 어둡기 쉬워서 잡으면 있고 놓으면 없어지니 얼마나 은미(隱微)하오. 그러므로 정하게 살펴서 형기(形氣)의 사사로움에 섞이지 않게 하고, 한결같이 지켜서 의리의 바름에 순화하여 도심이 항상 주인이 되고 민심이 따라 복종하면, 위태로운 것이 편안하고 은미한 것이 나타나서 모든 행위가 과불급 없는 중정의 도를 잡게 될 것이오.

말은 증거가 있어야 이치에 맞고 꾀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야 일을 이루는 것이니, 그렇지 못하면 이는 한 사람의 사사로운 것이고 천하의 공론이 아니라 정치에 해롭고 사람을 얻지 못할 것이오. 그러므로 근거 없는 말을 듣지 말고 묻지 않을 것이오. 꾀를 쓰지 마오.

대체로 임금은 지극히 높은 존재라, 두려운 듯하나 사랑스러운 것은 임금이 아니겠소. 아래 백성들은 지극히 하찮은 존재인 듯하지만 두려운 것은 백성들이 아니겠소. 백성들은 임금이 아니면 어디에 삶을 유지할 것이며 임금 또한 백성들이 아니면 누구와 나라를 지킬 것이오. 임금은 마땅히 그가 있는 자리를 조심스레 지켜 백성들의 소원과 욕망을 공경스럽게 이루어 주어야 하오. 만일 조금이라도 옳지 못한 생각이 마음에 일어나서 정치에 해독을 주어서는 백성들은 그들의 살 곳을 얻지 못하여 모두 곤궁하게 될 것이오. 그렇게 되면 임금의 천록(天祿)은 영영 끊어져 다시는 잊지 못하게 될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겠소?”

우는 순임금의 말씀을 다 듣고 다시 더 사양할 수 없으므로 “임금의 위를 대행하는 일은 지극히 큰일이오니, 공 있는 신하들을 하나하나 점쳐서 길한 쪽으로 쫓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순임금이 말씀하셨다. “관청에서 점치는 법은 먼저 그 뜻의 방향을 결정한 뒤에 거북과 시초로 점을 치는 것이오. 이제 나는 뜻이 이미 결정되었고,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 본 바, 다 찬동하고 귀신도 나의 뜻을 따르고 거북과 시초도 똑같이 따르고 있는데 무슨 점을 또 치겠소. 또 점이란 거듭 길하지만은 않는 법이오.”

우는 머리를 조아리며 굳이 사양하고 끝내 사양하니, 순임금이 “너무 사양하지 마오. 오직 그대만이 천자의 위에 적합한 사람이오”라고 말씀하셨다.

우는 마침내 사양하지 못하고 정월 초하룻날 요임금의 사당에서 명을 받고, 드디어 백관을 통솔하고 여러 정사를 대행하되 그 예절이 순임금이 요임금에게서 받을 때와 같이 하였다.

浲水(강수) : 홍수와 같음.

成允(성윤) : 성공과 같은 뜻으로 치수하는 공을 이루어 믿음을 얻었다는 말.

自滿假(자만가) : 스스로 만족하고 훌륭한 체하는 것.

曆數(역수) : 지내온 운수.

元后(원후) : 천자의 뜻.

無稽(무계) : 근거가 없음.

天祿(천록) : 하늘이 내리신 녹, 즉 왕위를 뜻함.

興戎(흥옹) : 전쟁을 일으킴.

枚卜(매복) : 하나하나 점친다는 뜻.

官占(관점) : 점관이 치는 점.

蔽(폐) : 여기서는 단(斷)의 뜻으로 결정한다는 말.

昆(곤) : 후(後)의 뜻.

元龜(원귀) : 대귀(大龜).

詢謀(순모) :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의논하였다는 말.

僉同(침동) : 모두 의견이 같다는 말.

依(의) : 임금의 뜻대로 따랐다는 뜻.

龜筮(귀서) : 점치는 거북과 시초. 시귀(蓍龜)라고도 함.

協從(협종) : 시초와 거북으로 친 점괘도 임금의 뜻대로 똑같이 따랐다는 뜻.

習(습) : 중복의 뜻.

神宗(신종) : 요임금의 사당.

4 “아아! 우여! 오직 묘족(苗族)만이 따르지 아니하니 그대는 가서 정벌하오.”

우가 여러 제후들을 모아 놓고 군사들에게 훈시하였다.

“여러분! 모두 내 명령을 들으시오. 어리석은 묘족이 어둡고 미혹하여 공순치 않으

며, 업신여기고 거만하여 스스로 어진 체하며, 도를 배반하고 덕을 무너뜨려 군자는 초야에 묻혀 있고 소인은 벼슬자리에 머물러 있소. 백성은 그를 버리고 보호하지 않으며, 하늘은 재앙을 내리고 있으니 내가 그대들 여러분과 더불어 임금의 말씀을 받들어 그 죄를 치려 하오. 그대들은 바라건대 마음과 힘을 하나로 뭉쳐야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오.”

삼십 일을 묵의 백성들이 명을 거스르니 익(益)이 우를 도와 말하기를 “덕은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라 멀다고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자만하는 자는 손해를 부르고 겸손한 자는 이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늘의 도입니다. 임금님께서 처음 역산(歷山)에서 밭에 나아가 날마다 하늘과 부모에게 울부짖어 우시며 죄를 스스로 지시고 악함을 스스로 걸어지셨습니다. 일을 공경하여 고수(瞽瞍) 모시기를 엄숙하고 송구한 모습으로 하시니 고수도 또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귀신도 감동하거늘, 하물며 묘족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는 훌륭한 말에 절하며 “그렇소” 하고는 군사를 돌려 서울로 되돌아왔다. 임금님이 문교와 덕을 크게 펴고 방패와 새깃을 들고 두 섬돌 사이에서 춤추니, 칠십일만에 묘족들이 감복하며 돌아왔다.

帝曰：“咨禹！惟時有苗弗率，汝徂征！”禹乃會羣后，誓于師曰：“濟濟有衆！咸聽朕命！蠢茲有苗，昏迷不恭，侮慢自賢，反道敗德。君子在野，小人在位，民棄不保，天降之咎，肆予以爾衆士，奉辭伐罪。爾尚一乃心力，其克有勳。”

三旬，苗民逆命。”益贊于禹曰：“惟德動天，無遠弗届，滿招損，謙受益，時乃天道。帝初于歷山，往于田。日號泣于昊天，于父母。負罪引慝，祇載見瞽瞍，夔夔齋慄，瞽亦允若。至誠感神，矧茲有苗。”禹拜昌言曰：“俞！班師振旅。帝乃誕敷文德，舞干羽于兩階，七旬有苗格。”

[통석] 순임금이 우에게 말씀하셨다. “천하 사방이 모두 다 근심이 없어 화평한데 오직 묘족만이 임금인 나의 명을 거슬리어 따르지 않으니 그대는 육사(六師)를 거

느리고 가서 그 죄를 바로잡도록 하오.”

우는 곧 임금의 명을 받고 여러 제후들을 모아 놓고 그 군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훈시하였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여! 다 이리로 와서 내 명령을 들으시오. 이제 묘족의 어리석은 임금이 훈미하여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남을 업신여기며, 망령되어 스스로 잘난 체하여 정도를 배반하고 상덕(常德)을 파괴하며, 덕 있는 군자는 배척하여 들에 있게 하고, 흉악한 소인은 신임하여 높은 지위에 있게 하는 등 정사를 어지럽히고 있소.

이로 말미암아 아래로는 민심을 잃어 백성들이 받들지 않으며, 위로는 천심을 잃어 하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소. 묘족의 죄는 천인공노할 만하니, 내가 그 대들과 더불어 묘족의 죄를 토벌하려 하오. 그대들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로 뭉쳐 그 포악함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공훈을 세워 주기 바라오.”

우의 군사가 묘국에 임한 지 30일이 넘도록 묘족들은 오히려 명령을 어기고 복종하지 않았다.

이에 익(益)이 우에게 조언하여 권하기를 “묘족들이 완악하니 힘으로 억누르기보다는 차라리 덕화(德化)로 감복시키는 편이 낫겠습니다. 덕은 천심을 움직일 수 있으며, 그 감동하는 힘이 먼 데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 힘을 쓰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대체로 잘난 체하는 자는 반드시 손해를 불러들이고 겸허한 자는 반드시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천도(天道)의 자연스런 이치입니다. 마땅히 덕을 닦아 겸손하게 대할 것이고, 굳이 정벌할 것만은 아닌 줄 압니다.

순임금은 미천할 때에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역산에 나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날마다 하늘을 보고 울부짖었으며 때때로 부모에게도 울부짖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허물과 죄를 자신에게 돌리고, 추호라도 부모를 원망하는 뜻이 없습니다. 이토록 지극하신 효심은 마침내 그 부모를 감동시켜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대개 지극한 정성이 있으면 하늘과 부모와 귀신도 감동케 하거늘 저 사나운 묘족의 백성들을 어찌 덕으로 감화시킬 수 없겠습니까? 덕과 성(誠)으로써 회유하면 묘족도 스스로 따라올 것입니다.”

우는 백익(伯益)의 이러한 훌륭한 말에 절하고 바로 군사를 돌이켜 서울로 되돌아 왔다.

순임금도 또한 백익의 말에 감탄하여 크게 덕교(德教)를 펴니, 곧 조정이 맑게 화 하여 날마다 방패와 깃을 들고 동쪽 서쪽 두 섬돌에서 춤을 추었다. 이런 지 70일 만에 묘족이 마음이 돌아서서 스스로 항복해 왔다.

誓(서) : 군령을 전달하는 훈시.

蠢(준) : 어리석음의 뜻.

肆(사) : 드디어의 뜻.

届(계) : 이르는.

歷山(역산) : 지금의 산동성 역성현(歷城縣)에 있다.

曼(민) : 하늘의 뜻.

引慝(인특) :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인다는 뜻.

夔夔(기기) :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양.

齊慄(제율) : 엄숙하고 송구해하는 모양.

昌言(창언) : 선언(善言)과 같음.

班師(반사) : 군사를 돌이킴.

振旅(진려) : 군대를 정돈한다는 뜻.

誕敷(단부) : 크게 펼.

干羽(간우) : 춤출 때 손에 드는 물건으로, 무무(武舞)에는 방패 같은 무기를 들고, 문무(文舞)에는 새의 깃 같은 것을 들고 춤을 추었다.

兩階(양계) : 두 섬돌이란 뜻으로, 주인이 오르는 섬돌과 손님이 오르는 섬돌을 가리킨다. 이것은 궁정의 양계로서 순임금이 문무와 무무로 묘족을 교화시켰음을 말한다.

格(격) : 도래의 뜻으로, 굴복해 왔다는 말.

고요모(臯陶謨)

고요(臯陶)는 순임금 때 형벌을 맡고 있으면서 훌륭한 덕을 백성들에게 떴던 인물이다.고요가 순임금 앞에서 우와 함께 문답한 충언들을 기록한 것이 이 편이다.금문과 고문에 다 들어 있다.

1 옛날 고요에 대해 살펴보건대, 그는 말하였다.

“진실로 그 덕을 행하면, 꾀하는 일이 밝으며 보필하는 사람들이 화협(和協)할 것입니다.”

우가 말하였다.

“그렇소. 어떻게 해야 되겠소?”

고요가 말하였다.

“아아! 삼가 그의 몸을 닦고 생각을 오래하면 구족이 화목해 질서가 서며 여러 밝은 이들이 도우면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잘 다스려지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우는 훌륭한 말에 절하며 “그렇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曰若稽古臯陶, 曰：“允迪厥德, 謨明弼諧。”禹曰：“俞! 如何?”臯陶曰：“都! 慎厥身, 修思永, 慄敍九族, 庶明勵翼, 遷可遠在茲。”禹拜昌言曰：“俞。”

[통설] 옛 고요의 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어느 때 고요는 순임금에게 다음과 같은 충언을 드렸다. “임금이 되어 진실로 그 덕을 실천하면 신하들이 더욱 명철해질 것이오며, 보필하는 신하들이 다 화합할 것입니다.”

이때 우가 임금 곁에 있다가 그 말을 듣고 “참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 자세히 말해 보십시오” 하니, 고요가 그의 물음을 아름답게 여겨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임금의 한 몸은 만화(萬化)의 근원이 되는 것이니, 삼가 그 몸을 닦아 말과 행동에 실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땅히 심사원려(深思遠慮)하여 천박한 일을 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을 집안에 행하면 구족이 그 덕에 감화되어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여 집안이 스스로 다스려질 것이요, 이것을 미루어 나라에 행하면 밝은 신하들이 그 덕에 감화되어 마음과 힘을 다하여 보필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나라가 스스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가까운 데로부터 면 곳까지 미쳐 나감도 또한 몸을 닦고 생각을 깊게 하는 데 있으니, 국가를 다스리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어찌 덕을 닦고 행하지 않겠습니까?”

우는 고요의 훌륭한 말에 절하며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말했다.

曰(왈) : 고요의 말.

迪(적) : 다름.

謨(모) : 모(謀)와 같음.

都(도) : 환영함의 뜻.

惇(돈) : 두터움.

翼(의) : 도움.

昌言(창언) : 착한 말.

2 고요가 말하였다.

“아아! 사람을 알며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가 말하였다.

“아니오. 모두 그처럼 하는 것은 요임금께서도 어렵게 여기셨소. 사람을 안다는 것은 명철한 것으로서 어진 사람을 벼슬시킬 것이며, 백성들을 편안케 한다는 것은 은혜로운 것으로서 백성들이 따를 것입니다. 명철하고 은혜로울 수 있다면 어찌 환두(驩兜)를 근심하며, 어찌 묘족(苗族)을 내치며, 어찌 말만 잘 하고 얼굴만 좋게 하는 공임(孔壬)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고요가 말하였다.

“아아! 또한 행동에는 아홉 가지 덕이 있으니, 그 사람의 가진 덕을 말할진대 어떤

일 어떤 일을 어떻게 행했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우가 “무슨 말이오?” 하고 물었다.

고요가 말하였다.

“너그럽고 씩씩하며 부드럽고 꿋꿋하며 삼가고 공손하며, 다스리고 공경하며 온순하고 굳세며 곧고 온화하며 평탄하고, 청렴하며 굳세고 독실하며 강강하고 의로움이니, 이런 것들을 뚜렷이 나타내어 언제나 그러한 사람이면 길한 사람입니다.

날로 세 가지 덕을 베풀어 아침저녁으로 집안을 다스릴 것이며, 날로 여섯 가지 덕을 염히 공경하면 일을 나라에 밝힐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두 받아들여 널리 편다면 아홉 가지 덕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일하게 되어, 준인(俊人)과 예인(乂人)이 벼슬에 있고 백료(百僚)가 서로 배우며 일하게 될 것입니다. 백공들이 때로 사철을 따라 일하니 모든 공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편안함과 욕심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마시고, 조심하고 두려워하소서. 하루 이를 사이에 만 가지 기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벼슬을 폐하지 마소서. 하늘의 일을 사람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질서에 법이 있어 우리에게 오륜(五倫)을 바르게 하셨으니 이 다섯 가지를 두텁게 하시며, 하늘의 차례에 예가 있어 우리에게 오례(五禮)를 쫓게 하셨으니, 이 다섯 가지를 떳떳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이를 만들고 서로 공경하며 화합하고 착하게 하십시오. 하늘이 덕 있는 이를 명하시거든 다섯 가지 복장으로 다섯 가지를 나타나게 하시며, 하늘이 죄 있는 이를 치시거든 다섯 가지 형벌로 다섯 가지를 쓰시어 오직 정사에 힘쓰십시오.

하늘이 듣고 보시는 것이 우리 백성들을 통해 듣고 보시며, 하늘이 밝히고 위압하시는 것이 우리 백성을 통해서 밝히고 위압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늘과 백성을 통하는 것이니 공경하소서. 땅을 다스리는 이들이여.”

고요가 이어서 말하였다.

“저의 말은 사리에 맞아 가히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가 “그렇소. 그대의 말은 실행하여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고요가 말하였다.

“저는 아는 것은 없으나 날로 도와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臯陶曰：“都! 在知人, 在安民。”禹曰：“吁! 咎若時, 惟帝其難之, 知人則哲, 能官人, 安民則惠, 黎民懷之, 能哲而惠, 何憂乎驩兜? 何遷乎有苗? 何畏乎巧言令色孔壬?”

臯陶曰：“都! 亦行有九德, 亦言其人有德, 乃言曰：“載采采。”禹曰：“何?”臯陶曰：“寬而栗, 柔而立, 愿而恭, 亂而敬, 撫而毅, 直而溫, 簡而廉, 剛而塞, 疊而義, 彰厥有常, 吉哉。”

日宣三德, 夙夜浚明有家, 日嚴祗敬六德, 亮采有邦, 翁受敷施, 九德咸事, 俊乂在官, 百僚師師, 百工惟時, 撫于五辰, 庶績其凝。

無教逸欲有邦, 賴就業業。一日二日萬幾。無曠庶官。天工人其代之。

天敍有典, 勅我五典五惇哉。天秩有禮, 自我五禮有庸【馬本作五庸】哉! 同寅協恭, 和衷哉! 天命有德, 五服五章哉。天討有罪, 五刑五用哉。政事, 懇哉懇哉!

[통석] 고요는 다시 우의 말을 이어 다하지 못한 뜻을 넓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임금이 덕을 수행하는 데는 진실로 몸을 닦고 집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화평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알지 못하면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분별하여 올바른 자리에 임명하지 못할 것이니 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임금의 일은 사람을 아는 데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면 은택이 두루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덕(仁德)이 부족하여 모든 신하들이 제각기 돌아가리니, 어떻게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임금의 일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고요의 말을 의심스럽게 생각하여 “지(智)와 인(仁)을 겸하여 행하는 것은 요 임금께서도 오히려 어렵다 하셨소. 사람의 재능은 같지 않은데, 어떻게 알 수 있겠소.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명철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라

야 훌륭한 인물을 적합한 관직에 등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임금의 큰 은택이 세상에 두루 미쳐서 백성들 모두가 저마다 안락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니, 이렇게 되면 만방의 백성들이 그 임금을 마치 부모처럼 떠받들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명철한 지혜로 사람을 알고, 자애로운 은혜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면 모든 현명하고 재능 있는 이들이 조정에 모여 들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것이니, 아무리 환두의 악당과 묘족의 어리석음과 교언영색(巧言令色)하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다스리는 정사를 감히 해하지 못할 것이오.”

이에 고요가 사람을 아는 방법에 대해 말하였다. “아아! 인재는 진실로 알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을 관찰하는 데 또한 법이 있으니, 그 사람의 덕을 볼 뿐입니다. 대개 사람은 덕이 속에 쌓이면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 아홉 가지가 있으니, 덕은 근거가 있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만약 그 사람이 덕이 있다고 말한다면 반드시 무슨 일은 어렵고, 무슨 일은 어렵다고 말할 것이니, 한 가지 일이라도 거짓된 사심이 드러나 명실(名實)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가 물었다.

“아홉 가지 덕목이란 무엇인지요?”

고요가 대답했다.

“그 덕목은 너그러우면서 장엄하고, 부드러우면서 의연히 끽끽하고, 삼가면서 능히 공경하며, 예(禮)가 있고 다스리는 재주가 있으면서 능히 경외하고, 온순하면서 능히 의연하고, 정직하면서 온화하고, 성격이 간략하면서 세심한 데가 있고, 강단이 있으면서 성실하고, 강직하고 용기 있으면서 의리를 좋아함이니, 이것이 아홉 가지 덕목입니다. 사람이 이 아홉 가지 덕목 가운데 혹 한 가지 장점을 가진 이도 있으며, 혹은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겸해서 갖춘 이도 있어서 일을 행하는 데에 뚜렷이 나타납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야 참으로 덕을 이룬 아름다운 선비가 되는 것이니, 사람을 알려면 먼저 이런 데서 분별할 것입니다.

사람이 이 아홉 가지 덕을 반드시 다 갖출 수가 없은즉 그 중에 세 가지 덕을 가지

고 날로 밝혀 새로운 공이 더욱 나타나게 할 것이니, 대부는 집에 있어서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아 집안일을 밝게 다스리고, 제후는 아홉 가지 덕 중에서 여섯 가지 덕을 가지고, 삼가고 게으름이 없이 나랏일을 밝게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비록 덕이 많고 적음이 같지 않더라도 임금이 능히 합하여 받아들이는, 재주와 역량을 따라서 백관의 책임을 나누어 맡길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천하의 인사들이 각각 그의 장점을 가지고 맡은 일에 재능을 다 바칠 것입니다. 천 사람 가운데 뛰어난 사람, 백 사람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이 모두 다 관청에 쓰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정에 있는 모든 관리들의 뜻이 합쳐져 서로 배우고 서로 공경하여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심이 없은즉 모든 관리들은 잘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요, 사철을 따라 사람의 일을 닦아 가면 모든 공작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고요는 또 말하였다. “무릇 임금은 신하의 표준이 되므로 마땅히 근검으로써 제후들을 통솔해야 할 것이며, 안일과 탐욕으로써 교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환난의 조짐은 항상 사소한 데서부터 싹트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은 예견하지 못하고 발생한 뒤에야 알고 걱정하나니, 이것은 비록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그 뒤를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일이 되어가는 형편을 미리 조심스럽게 도모하여 안일과 탐욕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한 몸으로써 능히 천하의 기틀을 살필 수는 있으나 한 몸으로써 천하의 일을 겸해서 다스리지 못하므로 그 직무를 여러 관리에게 나누어 맡기는 것이니, 임금은 반드시 어질고 능한 인물들을 가려서 그 직책을 맡게 하여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임금은 하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백관의 다스림이 곧 하늘의 일이 아님이 없으니, 만약 한 가지 일이라도 폐한다면 하늘의 일을 폐함과 같게 될 것이니, 어찌 깊이 경계하지 않으리까?

하늘이 사람을 내었을 때 오륜을 두셨으니 오륜에는 친(親) · 의(義) · 서(序) · 별(別) · 신(信)의 뜻뜻한 법이 있는지라, 가르침을 세워서 이 다섯 가지 법을 바르게 하시어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들 두텁고 후하도록 하고, 또 오륜에는 존비(尊卑) · 귀천(貴賤) · 응살(隆殺) 등의 예를 두셨으니 법식을 만들어 이 다섯 가지 예를 바로잡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따르게 하여 서로 문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러나 임금은 이 전례(典禮)를 주관하는 분이시고, 신하는 이 전례를 보필하는 사람 이오니, 반드시 같이 공경하고 조심하여 경솔하지 마시고, 서로 공경하고 계을리 하지 않아 백성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십시오. 백성 중에서 이 전례를 잘 따르는 자는 덕이 있음이니, 임금은 하늘이 착한 이를 돋는 명을 본받아 다섯 가지 등급의 옷을 마련하여 나타내시고, 이 전례를 어긴 자는 죄가 있음이니, 임금은 하늘이 악을 벌하는 명을 본받아 다섯 가지 등급의 형벌을 마련하여 징계하십시오. 이 오복(五服)과 오형(五刑)은 정사(政事)의 요체이오니 상은 반드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고 벌은 반드시 죄 있는 사람에게 주도록 더욱 힘쓰십시오.

하늘이 보고 듣는 것은 백성들의 보고 들음을 따라 총명을 삼는 것이고 하늘이 좋 아하고 미워함은 백성들의 찬동하고 벼림을 따라 밝고 두려움을 삼는 것이니, 그렇다면 하늘이 진실로 무슨 마음이 있으리오. 다 사람의 마음에 있을 뿐이라 어찌 상하의 간격이 있겠습니까? 백성들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 되니, 나라를 가진 이는 마땅히 스스로 극진히 할 것입니다.”

고요는 다시 말하기를 “내가 말씀드린, 사람을 알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법은 다 다스리는 이치에 적절하니 부질없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는 고요의 말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그렇소. 그대의 말을 그대로 행한다면 공을 이룰 수 있겠구려.”

고요가 말하였다. “공을 이루는 것은 내 알 바가 아니나, 오직 생각만은 날마다 임금을 돋고 도와서 치적(治積)을 이루는 데 힘을 다할 뿐입니다.”

官(관) : 벼슬시킨다는 동사.

驪兜(환두) : 사흉의 하나.

孔(공) : 심하다는 뜻.

壬(임) : 간사하다는 뜻.

九德(구덕) : 아홉 가지 덕목을 말함.

載(재) : 여기서는 행한다는 뜻.

采(재) : 일의 뜻.

栗(율) : 엄숙하다는 뜻.

愿(원) : 성실히.

亂(난) : 다스린다는 뜻.

擾(요) : 여기서는 순(順)하다는 뜻.

廉(염) : 사리를 날카롭게 분별한다는 뜻.

塞(새) : 독실히.

三德(삼덕) : 아홉 가지 덕 중에서 세 가지 덕을 말함.

浚(준) : 다스린다는 뜻.

亮(양) : 밝음.

翕(音) : 합한다는 뜻.

百工(백공) : 백관의 뜻임.

師師(사사) : 앞의 사는 동사. 뒤의 사는 명사로 스승에게 배운다. 즉 백관의 잘함을 보고 본받아 배운다는 뜻.

五辰(오진) : 세성(歲星 : 봄) · 혼혹성(熒惑星 : 여름) · 진성(填星 : 늦은 여름) · 태백(太白 : 가을) · 진성(辰星 : 겨울)의 다섯 개 별이란 뜻으로 사철을 다스린다 해서 사철이라 풀이함.

兢兢(궁궁) : 조심하고 삼가는 것.

業業(업업) : 두려워하다.

幾(기) : 기미(幾微) · 만기(萬幾)는 여러 가지 일의 단서.

天工(천공) : 하늘의 일.

秩(질) : 품질, 곧 계급의 뜻.

自(자) : 죽는 뜻.

有(유) : 오례의 뜻.

五禮(오례) : 천자 · 제후 · 경대부 · 사 · 서민 다섯 가지 계급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예.

五服(오복) : 천자 · 제후 · 경대부 · 사 · 서민 다섯 가지 계급의 사람들이 입는 옷.

惠(혜) : 순리의 뜻.

底行(지행) : 행함으로 이루게 됨.

贊贊(찬찬) : 돋고 돋는다는 뜻.

襄(양) : 이룬다는 뜻.

익직(益稷)

이 장은 금문과 고문에 다 있으나 금문에는 〈고요모〉 속에 붙어 있다. 이 장은 우가 익과 직 두 사람의 공로를 찬양했다 해서 〈익직〉이란 편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러나 내용은 주로 순임금과 우와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순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오시오, 우여! 그대 또한 좋은 말을 해 보오.”

우가 절하고 아뢰었다.

“아아, 임금님이시여! 제가 무슨 말씀을 아뢰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부지런히 일을 것을 생각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고요가 말하였다.

“오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가 대답하였다.

“홍수가 하늘에까지 닿을 듯이 불어 질편한 물이 산을 삼키고 언덕을 잡기게 하니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물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저는 네 가지 탈것을 타고, 산에 이르러 나무를 베어 젖히고 익과 더불어 여러 가지 날것 먹는 법을 일러 주며, 아홉 고을의 강물을 터서 사해에 이르게 하였고, 도랑과 운하를 깊게 파서 강 물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직(稷)과 함께 씨 뿐여 어려울 때 먹는 음식과 생선 먹는 법을 일러 주고, 힘써 없는 것과 있는 것들을 서로 바꾸게 하며 쌓여 있는 물건들을 날라다 팔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쌀밥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온 나라가 잘 다스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요가 말하였다.

“그렇소. 그대의 훌륭한 말씀을 배워야겠습니다.”

우가 아뢰었다.

“아아, 임금님이시여, 당신의 자리를 삼가 지키소서.”

임금이 대답하셨다.

“그리하겠소.”

우가 아뢰었다.

“당신이 머문 곳을 편계 하시어 여러 가지 일의 빌미를 잘 살피시고 나라를 편안케 하시며 돋는 신하들이 곧으면 행동하는 대로 뜻을 따라 크게 세상이 호응하여 밝게 하늘에 받아들여지고, 하늘은 거듭 명을 내리심으로써 축복하실 것입니다.”

임금이 말씀하셨다.

“아아, 신하여 내 옆에서 보좌하구려! 내 옆에서 보좌하는 자여, 신하로다!”

우가 아뢰었다.

“그리하옵니다.”

임금이 말씀하셨다.

“신하는 바로 내 다리요 팔이요 귀요 눈이라, 내가 내 백성들을 도와주려 하거든 그대는 나를 도우시오. 내가 사방에 힘을 펴려 하거든 그대가 대신하시오. 내가 옛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 해와 달과 별과 산과 용과 꿩을 무늬로 만들고, 종묘의 술잔과 물풀과 불과 흰쌀과 보무늬와 불무늬를 수놓아 다섯 가지 채색을 써 다섯 가지 빛깔로 분명히 칠하여 옷을 만들고자 하거든 그대는 분명하게 만드시오. 내가 여섯 가지 악물과 다섯 가지 소리와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악기 소리를 듣고, 다스려지지 않음을 살펴 다섯 가지 덕에 맞는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고자 하거든 그대가 듣고 살펴서 잘하시오.

내가 그릇되면 그대들이 도울 것이니 그대들은 면전에서만 따르고 물러나서는 뒷 말이 있어서는 안 되며 앞뒤와 좌우의 동료들을 공격하도록 하오.

여러 어리석은 참소의 말을 하는 자들에게 옳지 않음이 있거든, 범으로써 그것을 밝히고 매질로써 그것을 징계하며 관의 장식을 떼고 등에 나쁜 점을 기록해 주어다 같이 잘 살도록 해 주기 바라오. 관리는 임금에게 전하는 것이 옳을 때에는 그들을 등용해 주며 잘못을 고치면 곧 그들을 받아들여 주고 그렇지 못하면 곧 그들을 위압하여야 하는 것이오.”

우가 아뢰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임금님! 그러하오나 임금께서 천하에 빛나시어 바다 끝 백성

들에게까지 이르도록 하시면 온 나라의 여러 어진 사람들이 모두 임금님의 신하가 되고자 할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이들을 등용하셔서 말을 널리 받아들이고, 공을 백성들에게 밝히시며 쓰임을 수레와 옷으로써 구별하면 누가 감히 사양치 않겠으며, 누가 감히 공경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임금님께서 이러지 못하시면 모두가 다 같아서 나날이 공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단주(丹朱)처럼 거만하지 마소서. 오직 아무것도 안하고 놀기만을 좋아하며, 거만하고 포악한 짓만을 하고,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물이 없는 곳에 배를 띄우며 떼를 지어 집안에서 음탕하게 놀아, 그의 후손도 끊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훈계로 삼아, 도산(塗山)으로 장가들었으나 신(辛) · 임(壬) · 계(癸) · 갑(甲) 날의 나흘밖에 함께 못 있었고, 계(啓)가 앙양 울었으나 나는 아들로서 귀여워할 틈도 없이 오직 온 힘을 흙일에 바쳤습니다. 이처럼 보필하여 다섯 가지 지역을 이루어 오천 리에 이르게 하였고, 주(州)마다 열 두 명의 사(師)를 두었고 밖으로는 사방의 바다까지 이르러 이곳에는 모두 다섯의 나라마다 장(長)을 한 사람씩 세웠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일하는 대로 따랐으나 오직 묘족(苗族)만이 어리석어 일을 돋지 않았습니다. 임금께서는 이 일을 굽어 살피소서.”

순임금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덕을 따르게 된 것은 모두 그대의 공이 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니, 고요는 바야흐로 그 일을 받들어 방금 형벌을 표시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밝게 다스려야 할 것이오.”

帝曰：“來禹！汝亦昌言！禹拜曰：“都，帝！予何言？予思日孜孜。”臯陶曰：“吁！如何？”禹曰：“洪水滔天，浩浩懷山襄陵，下民昏墊，予乘四載，隨山刊木，暨益奏庶鮮食。予決九川，距四海，濬畎、澮，距川。暨稷播，奏庶艱食鮮食，懋遷有無化居。烝民乃粒，萬邦作乂。”臯陶曰：“俞！師汝昌言。”

禹曰：“都！帝！慎乃在位。”帝曰：“俞！”禹曰：“安汝止，惟幾惟康，其弼直。惟動丕應溪志，以昭受上帝。天其申命用休。”

帝曰：“吁！臣哉隣哉，隣哉臣哉！”禹曰：“俞！”

帝曰：“臣作朕股肱耳目，予欲左右有民。汝翼，予欲宣力四方。汝爲，予欲觀古人之象。日月星辰山龍華蟲作會宗彝藻火粉米黼黻絲繡以五采彰施于五色，作服，汝明。予欲聞六律，五聲，八音，在治忽，以出納五言，汝聽。”

予違汝弼，汝無面從，退有後言，欽四隣。

庶頑讒說，若不在時，侯以明之，撻以記之，書用識哉。欲竝生哉。工以納言，時而颶之，格則承之庸之，否則威之。”

禹曰：“俞哉！帝光天之下，至于海隅蒼生，萬邦黎獻，共惟帝臣，惟帝時舉。敷納以言，明庶以功，車服以庸，誰敢不讓，敢不敬應？帝不時，敷同日奏罔功。

無若丹朱傲！惟慢遊是好，傲虐是作，罔晝夜額額，罔水行舟，朋淫于家，用殄厥世。予創若時，娶于塗山，辛、壬、癸、甲，啓呱呱而泣，予弗子。惟荒度土功，彌成五服，至于五千，州十有二師，外薄四海，咸建五長，各迪有功，苗頑弗卽工，帝其念哉！”帝曰：“迪朕德，時乃功惟敍。臯陶方祇厥敍，方施象刑惟明。

[통석] 우와 고요가 순임금 곁에 같이 있었는데 임금은 우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이 오오, 우여! 그대도 또한 고요와 마음을 같이 하여 나의 다스림을 보좌한 사람이니 고요처럼 나에게 할 말이 있을 것인즉, 숨기지 말고 말하오.”

우는 엎드려 절하며 아뢰었다. “아! 임금님이여! 고요가 드린 계책이 이미 극진하니 저야 임금께 무슨 말씀을 아뢰겠습니까? 저는 오직 날마다 부지런히 힘써 일할 것만을 생각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옆에서 고요가 물었다. “그런데 부지런히 힘써 일할 것이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는 전년에 치수한 일을 들어 오늘날의 다스리는 일에 힘쓰겠다는 의견을 말하였다. “지난날에 흥수가 나서 하늘에까지 닿을 듯이 넘쳐흐르는 물이 산을 삼키고 언덕을 잠기게 하여,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하다가 물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저는 수레와 배와 썰매와 가마를 타고 다니며 산에 다다르면 기세를 살펴 나무를 베어 길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물과 흙이 아직 평정되지 못하였기 때문

에 백성들은 식생활에 본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 백익(伯益)과 함께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 같은 것을 잡아먹는 법을 알려 주어 우선 굶어 죽는 것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홉 주의 강물을 터서 사방의 바다로 잘 흘러내리게 하고 도량과 운하를 파서 강으로 물이 잘 빠져 흐르게 하였습니다. 이런 뒤에야 물과 흙이 다스려져 밭이랑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곧 직(稷)과 함께 백성들에게 밭에 씨 뿌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한편으로는 양식이 없을 때는 나무나 나무 열매를 먹도록 하고, 또 새와 짐승과 물고기를 잡아먹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힘써 다른 고장 사람들과 물건들을 서로 바꾸도록 하고 많이 쌓여 있는 물건들은 서로가 팔도록 하여 곤궁을 구제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모든 백성들은 쌀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온 나라는 비로소 기강이 서고, 시정의 방침을 제대로 따라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

고요가 말하였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당신의 훌륭한 말씀을 배워 본받아야겠습니다.”

우가 또 말하였다. “아, 임금님이시여! 임금의 자리는 지극히 중요한 자리이고, 이를 보전하기가 심히 어려우니 조심하셔서 임금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였다. “그리하겠소. 진실로 그대의 말대로 하겠소.”

우는 또 말하였다. “민심은 지극히 허령(虛靈)하여 사물 하나하나를 각각 지선의 경지에 이르게 할 수 있으니, 임금님의 뜻이 머문 곳을 편안히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늘의 공리를 따르고, 사람의 사욕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일의 빌미를 잘 살피시고, 모든 일에 미리 대비하셔서 나라를 평안히 하십시오. 또 좌우의 보필하는 사람들이 모두 충직함에 힘쓰면, 하시는 일에 천하가 흔연히 호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뜻대로 이루어져 밝게 하늘에 받아들여지고 하늘은 다시금 명을 내리시어 아름다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임금이 말씀하였다.

“오, 충성스러운 신하여! 여러분의 임무는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오. 나를 도와주는 이들이여! 여러분이야말로 나의 신하들이오.”

우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임금이 또 말씀하셨다. “임금과 신하는 신분의 존비(尊卑)는 다를지라도 신하는 바로 내 다리요, 팔이요, 그리고 귀요, 눈입니다. 내가 백성을 도와 잘 살게 하려 하니 그대들은 나를 도우시오. 내가 사방으로 나의 위력을 펼치려 하니 여러분은 바로 그 일을 하시오. 나는 또 옛사람의 모습을 본받아 해·달·별·산·용 및 꿩 등의 무늬를 그려서 예복 상의를 만들고 호랑이와 원숭이의 무늬와 종묘의 술 그릇·물·풀·불·쌀·도끼 모양의 보(黼) 무늬와 기(己)자를 합친 모양의 불(黻) 무늬 등을 수놓아 예복의 아래옷을 만들겠소. 그리고 또 다섯 가지 빛깔(파랑·노랑·빨강·흰빛·검정)을 거기에 맞추어 물들여 여러 가지 신분을 밝히는 옷을 만들고자 하니, 여러분은 분명히 법도대로 일을 해주시오. 내가 열두 가지 악률(樂律)과 다섯 가지 음률과 여러 가지 악기 소리를 들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안 다스려짐을 살피며,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의 다섯 가지 덕에 맞는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려 하니 여러분은 이를 잘 듣고 살펴 주시오.

내가 도리에 어긋남이 있으면 여러분은 마땅히 그릇된 일을 바로잡아 주어야 하오. 여러분은 내 앞에서만 말을 듣는 체 아첨하고 물러가서는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마오. 주위의 여러 신하들을 삼가 공격하시오.

사람의 마음은 똑같지 않으므로 신하들 가운데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 모함하는 말을 꾸미고 어진 사람을 해치는 옳지 않은 짓을 하는 자가 있을 것이오. 이들은 법으로 밝히고 매질로 징계하며 등에 그와 잘못을 기록해 주어 다 같이 잘못을 뉘우치고 잘 살도록 해주시오. 관리란 백성들의 일을 임금에게 전할 의무가 있소. 그들 가운데 누구나 올바른 일을 하면 곧 등용하시오. 나쁜 사람이라도 잘못을 고치면 그를 받아들여 써 주고 그렇지 못하면 곧 그를 위엄으로 억누르시오.”

우가 다시 아뢰었다.

“옳은 말씀입니다. 임금님! 그러나 임금께서 먼저 덕을 천하에 두루 비추시어 저 면 바다 모퉁이 백성들까지도 감화가 두루 미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온 나라의 여러 어진 이들이 모두 임금의 신하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임금께서는 그 중에 가장 어진 사람을 뽑아서 등용하시어 그들의 의견을 널리 받아들이고 그들의 일한 공을 살펴 그 능력을 여러 사람에게 밝게 알리십시오.

그들의 신분을 수레나 옷 같은 거의 모양·무늬·색깔로 분명히 구별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감히 덕 있는 이에게 사양하는 태도를 갖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히 임금님의 뜻을 공경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만일 임금께서 이러지 못하신다면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속이고 계을러져서 날로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임금의 아들 단주(丹朱)처럼 오만하고 계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는 계을러 놀기만 좋아하였고, 오만한 행동과 포악한 짓만을 일삼았으며 밤낮 없이 이런 짓을 쉬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배를 띄울 만큼 얹지와 행패를 부리고, 떼지어 집안에서 음탕하게 놀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주의 집안은 그의 대에서 끊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훈계삼아 일을 힘써 해나갔습니다. 도산(塗山)의 제후 따님에게 장가들었으나 아내와 함께한 때는 신일·임일·계일·갑일 나흘 동안이었고 아들 계(啓)의 앙앙 우는 소리를 들었지만 집안으로 들어가 자식을 거들떠보지도 못하고, 오직 땅과 물을 다스리는 일에만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임금님을 보좌하여 나라에 다섯 가지 지역을 이루어 놓으니 그 땅의 넓이가 사방 오천 리까지 미쳤습니다. 그리고 주(州)마다 그 고을의 여러 제후 중에서 어진 사람 열두 명을 뽑아 고을을 다스리는 주목(州牧)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나라 밖의 땅은 그 끝이 사방의 바다에 거의 닿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다섯 제후 나라마다 가장 어진 사람을 한 사람씩 방백(方伯)으로 뽑아, 그들을 거느리는 장(長)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라 안팎으로 모든 나라가 임금님께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묘족만이 난폭하고 완고하여 제 일을 돋지 않았습니다. 임금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두루 살펴 힘써 주십시오.”

순임금은 우를 찬양하여 말씀하셨다.

“이제 천하의 백성들이 나의 덕을 따르게 된 것은 그대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믿소. 고요는 그대를 본받아 형별을 표시만 하는 방법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있소. 오직 밝게 법도대로 잘 다스려 주길 바라오.”

汝亦昌言(여역창언) : 임금님이 우에게 앞의 고요의 말에 뒤이어 좋은 말을 하여 보라는 뜻.

孜孜(자자) : 부지런히 일하는 모양.

浩浩(호호) : 넓은 모양.

懷山襄陵(회산양릉) : 물이 산을 삼키고 언덕 위까지 오르는 것.

昏塾(흔점) : 정신이 혼미해서 어찌 할 바를 몰라 물에 빠진다는 말.

四載(사재) : 네 가지의 물건을 싣는 것을 말함. 땅에는 수레, 물에는 배, 진흙에는 썰매, 산에는 가마를 탄다는 말.

隨山刊木(수산간목) : 산에 가서는 나무를 베어 길을 냈다는 뜻.

暨益(기익) : 기(暨)는 여(與)와 뜻이 같아 익(益)과 더불어의 뜻.

庶鮮食(서선식) : 여러 가지 고기를 먹는 것. 홍수로 말미 맘아 곡식이 없으므로 산짐승과 물고기를 잡아 먹는 법을 가르쳐 줌.

畎澗(견하) : 물이 막힌 곳을 터놓은 봇도랑이란 뜻.

艱食(간식) : 어려울 때 곡식 대신 먹을 수 있는 나무 열매 같은 음식.

遷有無(천유무) :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남이 가진 것을 서로 바꾸는 것. 교역의 뜻.

化居(화거) : 쌓아둔 곡식을 이리저리 옮긴다는 뜻.

烝民(증민) : 모든 백성들.

作人(작인) : 다스렸다는 뜻.

幾(기) : 빌미의 뜻.

丕應(비응) : 크게 호응하는 것.

篤志(혜지) : 뜻을 기다렸다는 듯이 곧 뜻을 싉아 해나감.

昭受(소수) : 밝게 받아들임.

休(휴) : 축복한다는 뜻.

鄰(인) : 이웃, 즉 가까이서 보좌하는 것.

股肱(고굉) : 팔다리와 같은 신하를 말함.

左右(좌우) : 돋는다는 뜻.

華蟲(화충) : 꿩(雉(치)). 옛사람은 해·달·별·산·용·꿩의 무늬를 상의에 수놓아 입었다 함.

會(회) : 회(繪)와 같은 뜻.

彝(이) : 종묘에 쓰던 제기의 이름.

黼(보) : 검은빛과 흰빛으로 된 도끼머리 모양의 무늬.

黻(불) : 푸른빛과 검은빛으로 된 '근'자 두 개가 합해 있는 모양의 무늬.

五采(오재) : 오색과 같은 뜻. 청·황·적·백·흑의 다섯 빛깔.

六律(육률) : 12율 중의 양진(陽津).

五聲(오성) :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의 5음.

八音(팔음) : 여덟 가지 악기의 소리.

在(재) : 살핀다는 뜻.

忽(홀) : 여기에서는 치(治)의 반대로 어지럽다는 뜻.

五言(오언) : 인(仁) · 의(義) · 예(禮) · 지(智) · 신(信)에 맞는 말.

侯(후) : 활 쏘는 과녁이란 뜻으로 법 또는 규율을 말함.

記(기) : 기(記)와 통하여 징계한다는 뜻.

識(지) : 그 잘못을 알려 줌.

納言(납언) : 백성의 뜻이나 말을 임금에게 전달함.

廳(廳) : 선양한다는 뜻. 여기서는 등용의 뜻.

俞(유) : 여기서는 입으로는 동의하고 마음으로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

蒼生(창생) : 백성을 뜻함.

黎獻(여현) : 백성의 어진 사람. 여(黎)는 여민(黎民), 현(獻)은 현인.

共(공) : 다 같이의 뜻.

時舉(시거) : 이에 들어 씀. 여기서는 수시로 등용한다는 뜻.

敷納(부남) : 널리 받아들인다는 뜻.

丹朱(단주) : 요임금의 아들.

額額(액액) : 쉬지 않는 모습.

塗山(도산) : 산 이름. 또는 나라 이름. 우의 처가가 살던 곳. 지금 안휘성 회원(安徽省 懷遠)에 있음.

辛壬癸甲(신임계갑) : 회일(回日)을 말함. 우는 장가든 지 겨우 나흘 만에 물을 다스리러 갔었다.

呱呱(고고) : 어린 아이가 우는 모양. 맹자는 말하기를 우는 8년 동안 밖에서 물을 다스릴 때 세 번 집 앞을 지났으나 들르지 않았다 함. 여기서 말한 고고는 우가 장가든 지 나흘 만에 집을 나가 일을 하다가 집 앞을 지날 때 그 아들 계의 울음소리가 들렸으나 거들떠보지도 못했다는 뜻임.

荒度(황탁) : 크게 힘을 다하여 일을 꾀하였다는 뜻.

五服(오복) : 후(侯) · 전(甸) · 수(綏) · 요(要) · 황(荒)의 다섯 지역.

五千(오천) : 5천 리. 일본(一服)마다 5백 리 거리의 땅이어서 합치면 동서남북의 직경이 사방으로 5천 리였음.

州十有二師(주십유이사) : 매 주마다 열 두 사람을 뽑아 스승을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주목을 돋게 하여 여러 제후들을 규합하게 했음.

外薄四海(외박사해) : 9주 밖의 땅엔 각 나라마다 다섯 사람을 세워 장을 삼아서 통솔케 함.

象刑(상형) : 형벌을 실제로 가하지 않고 그가 위법을 한 것만 표시하는 방법.

惟明(유명) : 오직 형벌을 밝게 다스려야 한다는 뜻.

2 기(夔)가 말하였다.

“구슬 경(磬)을 가볍게 또는 세게 치며, 금(琴)과 슬(瑟)을 두드리고 치면서 노래하니 조상들의 혼이 내려오시며, 순임금의 손님이 제자리에 서고 여러 제후들이 덕으로 사양하였습니다.

뜰 아래엔 피리와 작은 북과 큰 북이 있고, 축(柷)과 어(敔)로 음악을 시작하고 끝

나게 하며, 생(笙)과 용(鏞)을 간간이 쓰니, 새와 짐승들도 춤추며, 소소(簫韶)를 아홉 번 연주하니, 봉황새도 날아와 법식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기가 또 말하였다.

“오오! 제가 경(磬)을 치고 두드리니 온 짐승이 다 같이 춤을 추며, 여러 관장(官長)들이 진실로 화합하게 되었습니다.”

夔曰：“憂擊鳴球，搏拊琴瑟以詠，祖考來格，虞賓在位，羣后德讓，下管鼗鼓，合止柷敔，笙鏞以間，鳥獸踴躍，簫韶九成，鳳皇來儀。”

夔曰：“於！予擊石拊石，百獸率舞，庶尹允諧。”

[통석] 기(夔)가 말하였다.

“잘 울리는 구슬 경(磬)을 가벼이 또는 세게 두드리고 거문고와 비파를 타고 뜯으며 노래를 부르니 종묘에 조상들의 영혼이 강림하셨습니다. 순임금의 손님으로 요 임금의 아들 단주(丹朱)도 제사를 도우러 와서 자리를 같이 하고 여러 제후들과 함께 엄숙히 서서 덕으로써 사양하며 윗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권하곤 했습니다. 또 뜰 아래에서는 피리를 불고 작은 북과 큰 북을 치고 축(柷)으로 음악의 합주를 시작하게 하고 어(敔)로 음악을 그치게 하며, 생(笙)과 큰 종을 번갈아 사이사이 연주하니, 새와 짐승들도 춤을 추었습니다. 순임금의 음악 소소(簫韶)를 아홉 번 가락을 바꾸어 연주하니, 봉황새도 날아와서 법도에 맞추어 춤을 추었습니다.”

기(夔)가 또 말하였다.

“아아! 제가 석경(石磬)을 세게 치기도 하고 가벼이 두드리기도 하니, 온갖 짐승들 까지도 와서 치는 소리에 따라 춤을 추었고 여러 백관의 우두머리들은 이 음악의 영향으로 서로 화목하며 일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憂擊(알격) : 가벼이 치는 것을 알, 세게 치는 것을 격이라 함.

鳴球(명구) : 구슬로 만든 경(磬).

搏拊(박부) : 두드리고 치는 것.

琴(금) : 현악기. 옛날엔 다섯 줄이었는데 뒤에 일곱 줄로 늘임.

瑟(슬) : 금보다 약간 큰 현악기. 15현 · 19현 · 25현 · 27현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음.

來格(내격) : 강림의 뜻.

虞賓(우빈) : 순임금의 손님이란 뜻으로 요임금의 아들 단주를 가리킴. 단주는 제후로서 제사 지내는 일을 도우러 와서 조제자(助祭者)의 자리에 섰던 것임.

下(하) : 당하.

管(관) : 관악기.

鼗(도) : 작은 북.

鼓(고) : 큰 북.

合(합) : 합주.

止(지) : 음악을 멈춤.

柷(柷) : 나무로 만든 타악기. 합주가 시작될 때 침.

敔(어) : 호랑이 모양의 나무로 만든 타악기. 주악이 끝날 때 침.

蹠蹠(창창) : 춤추는 모양.

簫韶(소소) : 순임금의 음악.

九成(구성) : 아홉 번 다른 악조로 연주함.

儀(의) : 용모와 예의를 말함.

尹(윤) : 관명의 우두머리.

3 임금은 이에 노래를 지으시면서, “하늘의 명을 받들어 어느 때건 힘쓰고 무슨 일 이건 빌미를 살펴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노래를 부르셨다.

“신하들이 즐거우면 임금은 흥성하고 모든 관리들은 화락해지리로다.”

고요가 땅에 손을 짚고 머리를 조아리며 크게 아뢰었다.

“굽어 살피소서! 신하를 거느리고 일을 일으키시되 법을 삼가고 공경하십시오. 이 룬 일을 자주 살피시어 공경하소서.”

그리고 이어 그 뜻을 노래하였다.

“임금님이 밝으시면 신하들도 어질어서 모든 일마다 편안해지리로다.”

또 노래하기를

“임금의 일이 번거롭고 자질구레하면 신하들이 게을러져서 일마다 실패하리로다.”

임금이 답례하여 말씀하셨다.

“그렇소, 가서 공경하오.”

帝庸作歌曰：“勅天之命，惟時惟幾。乃歌曰：“股肱喜哉，元首起哉，百工熙哉。”
臯陶拜手稽首，颺言曰：“念哉。率作興事，慎乃憲，欽哉！屢省乃成，欽哉！”乃賡
載歌曰：“元首明哉，股肱良哉，庶事康哉。”又歌曰：“元首叢脞哉，股肱惰哉，萬
事墮哉。”帝拜曰：“俞！往欽哉！”

[통석] 임금은 이에 노래를 지으면서 “하늘의 명을 잘 받들어 어느 때나 힘쓰고 무
슨 일이나 미리 빌미를 살펴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시고 다음과 같이 노래
를 부르셨다.

“팔다리와 같은 신하들이 즐겁게 힘을 다하여 일을 하니 임금의 일은 흥성해지고
모든 관리들도 서로 화락하게 되리로다.”

이에 고요가 큰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아뢰었다.

“잘 굽어 살피소서! 임금님께서 신하들을 거느리고 일을 흥성하게 하실 때에 당신
의 법을 삼가 지키도록 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당신께서 한 일을 자주 반성하시고 공경하는 태도로 일을 하셔야 합니
다.”

그리고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

“임금님이 밝으시니 신하들이 훌륭해지고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리로다.
임금님이 자잘하고 번거로우시면 신하들이 계을리 모든 일에 실패하리로다.”

이 노래를 듣고 임금은 허리를 굽히면서 말하였다.

“옳은 말이오! 여러분은 이제 가서 맡은 일을 힘써 잘해 주시오!”

惟時(유시) : 어느 때건 일에 힘쓴다는 말.

惟幾(유기) : 무슨 일이고 빌미를 미리 잘 살핀다는 말.

股肱(고꽁) : 다리와 팔. 신하를 말함.

起(기) : 흥성의 뜻.

百工(백공) : 백관. 모든 관리.

颺言(양언) : 큰 소리.

乃成(내성) : 당신이 이루어 놓은 일.

叢脞(총좌) : 번잡하고 자잘하다는 뜻.

墮(타) : 타락하여 실패함.



하서(夏書)

하서(夏書)

하서(夏書)는 우(禹)임금과 그의 자손들이 다스리던 하(夏) 왕조의 치적을 그때의 사관(史官)들이 기록한 것이다. 하 왕조는 왕위를 자손에게 계승하는 제도를 이어왔으며 4백여 년간 그 왕업(王業)을 누렸다.

우공(禹貢), 감서(甘誓), 오자지가(五子之歌), 윤정(胤征)의 4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우공편이 가장 중심을 이룬다.

중국 하남성(河南省)에서 갑골문(甲骨文)이 출토되면서 이 시대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우공(禹貢)

임금이 전세(田稅)를 받는 것을 부(賦)라 하고 백성이 조세(租稅) 및 토산물을 바치는 것을 공(貢)이라 한다. 이 편에는 공(貢)도 있고, 부(賦)도 있는데 다만 공만으로 편의 이름을 삼은 것은 맹자가 ‘하후씨(夏后氏)는 오십에 일을 공(貢)하였다’고 말한 것처럼 공이란 여러 해의 것을 비교 상량해서 조세의 올바른 기준을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은 하후씨의 전세 부과(賦課)를 모두 일컬어 말한 것이다. 금문과 고문에 다 함께 들어 있다.

1 우가 땅을 다스리고, 산을 따라 나무를 베고 높은 산과 큰 강을 정하였다.

기주(冀州)의 호구산(壺口山)에서 시작하여 양산(梁山)과 기산(岐山)까지 다스리시며, 태원(太原) 땅을 닦아서 악산(岳山) 남쪽 기슭에 이르렀으며, 담회(覃懷) 땅에 서 일을 마치고 장수(漳水)가 가로지르는 곳에까지 이르렀다. 그곳 흙은 희고 냉이가 없는 땅이고, 그 부세(賦稅)는 상(上)의 상이 섞였으며, 그 밭은 중(中)의 중이었다. 항수(恒水)와 위수(衛水)가 잘 다스려지자, 대륙(大陸)의 호숫가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되었다. 동북쪽 오랑캐들은 가죽옷을 바쳐 왔다. 그들은 오른편으로 갈석산(碣石山)을 끼고 황하로 들어왔다.

제수(濟水)와 황하(黃河) 사이가 연주(兗州)이다. 아홉 갈래의 황하를 인도하고 뇌하(雷夏)를 뭇으로 만들어 옹수(灘水)와 저수(沮水)를 그곳으로 모았다. 뽕나무가 자랄 땅에는 누에를 치게 하니, 이에 언덕에서 내려와 평지에서 살게 되었다. 그곳의 흙은 검고 걸차니 풀은 무성하고 나무는 길게 자랐다. 그곳의 밭은 중(中)의 하(下)이고 그 부세는 바르니, 다스린 지 십삼 년이 되어서야 부세가 다른 주와 같아졌다. 그곳의 공물(貢物)은 칠(漆)과 명주실이었고, 그 공물 바구니는 무늬를 넣어 짠 비단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제수(濟水)와 탑수(漯水)에 배를 띄워 황하에 이르렀다.

바다와 태산(泰山) 사이가 청주(青州)이다. 우이(嵎夷)지방을 이미 다스리니 유수(濘水)와 치수(淄水)를 인도하였다. 그 곳의 흙은 희고 걸차며 바닷가엔 넓은 개펄

이 있었다. 그곳의 밭은 상의 하이고 그 부세는 중의 상이었다. 그 공물은 소금과 칡베였는데 바다물건이 섞여 있었다. 태산 골짜기에서는 명주실과 삼베와 검은 쇠와 소나무와 괴석(怪石)이 났다. 내산(萊山)의 오랑캐들에게는 가축을 기르게 하니 그들의 공물 광주리에는 산누에고치실을 담아 바쳐 왔다. 그들은 문수(汶水)에 배를 띄워 제수(濟水)에 이르렀다.

바다와 태산과 회수(淮水) 사이가 서주(徐州)이다. 회수와 기수(沂水)를 다스리니, 몽산(蒙山)과 우산(羽山) 지방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큰 저수지를 잘 막아 놓으니 동원(東原) 땅이 평평하게 되었다. 그곳의 흙은 붉고 차지고 걸차서 풀과 나무가 점점 자라서 떨기가 무성하였다. 그곳의 밭은 상의 중이고, 그 부세는 중의 중이었다. 그 공물은 오색(五色)의 흙과 우산(羽山)의 골짜기에서 나는 오색의 꿩털, 역산(嶧山)의 남쪽 기슭에서 외로이 자란 오동나무, 사수(酒水)가에 떠 있는 경석(磬石)을 바쳤다. 회수가의 오랑캐들은 진주와 물고기를 바쳤고 그들의 공물 광주리에는 검은 비단과 흰 비단을 담아 바쳤다. 그들은 회수와 사수에서 배를 띄워 황하에 이르렀다.

회수(淮水)와 바다 사이가 양주(揚州)이다. 팽려호(彭蠡湖) 물을 잘 막아 놓으니 칠새들의 사는 곳이 되었다. 세 갈래의 물을 바다로 인도하니 진택(震澤)의 못물이 일정하여져 살대와 큰 대가 이미 퍼져 자라니 그 풀은 싱싱하고 길게 자랐으며 나무는 높다랗게 자랐고, 그곳의 흙은 진흙이 많았다. 그 밭은 하의 하이고, 그 부세는 하의 중과 하가 섞여 있었다. 그 공물은 세 가지 쇠붙이와 구슬과 옥돌과 살대와 큰 대와 상아와 짐승 가죽, 새 깃, 쇠꼬리털과 나무였다. 섬에 사는 오랑캐들은 풀옷을 바쳤고, 그들의 공물 바구니에는 조개 무늬의 비단이 담겨 있었고, 그들은 보파리에 굴과 유자를 싸서 공물로 바쳤다. 그들은 강수(江水)를 따라 바다로 나가서 다시 회수와 사수로 올라왔다.

형산(荊山)과 형산(衡山) 남쪽 기슭 사이가 형주(荊州)이다.

강수(江水)와 한수(漢水)를 모아 바다로 흐르게 하니 아홉 강의 물결이 크게 바로 잡혔고 타수(沱水)와 잠수(潛水)를 잘 인도하니 운택(雲澤)의 땅이 드러나 보이고, 몽택(夢澤)의 물이 잘 다스려졌다. 그곳의 흙은 진흙이 많으니 그 밭은 하의 중이

요, 그 부세는 상의 하였다. 그 공물은 새 깃과 짐승 텔과 상아와 가죽과 세 가지 쇠붙이와 참나무, 산뽕나무와 향나무며 잣나무와 거친 숫돌, 고운 숫돌, 살촉돌과 단사(丹砂)였다. 조릿대와 화살대 및 호(楳)나무는 세 나라에서 바치는 이름 있는 것이었다. 공물 광주리에는 궤짝 속엔 청모(菁茅)가 들어 있고, 대그릇에는 검은 비단과 구슬과 끈이 담겨 있고 아홉 갈래의 강수에서는 큰 거북을 바쳤다. 그들은 강수와 타수와 잠수와 한수에 배를 띄워 낙수(洛水)를 거쳐 남쪽 황하에 이르렀다. 형산(荊山)과 황하 사이가 예주(豫州)였다. 이수(伊水)와 낙수(洛水)와 전수(瀍水)와 간수(澗水)가 이미 황하에 들어가니 형파(滎波)의 못물이 잘 막혔고, 가택(滻澤) 못물을 끌어 맹저(孟豬) 못에 이르게 하였다. 그곳의 흙은 둉이가 없으나 밀흙은 걸고 차지며 굳었다. 그 밭은 중의 상이고 그 부세는 상의 중이 섞여 있었다. 그 공물은 칠과 모시와 칡베와 모시 옷감이었고, 그 공물 대그릇에는 가는 솜이 들어 있었고, 명에 따라 경을 가는 숫돌을 바치기도 하였다. 그들은 낙수에 배를 띄워 황하에 이르렀다.

화산(華山) 남쪽으로부터 흑수(黑水) 사이가 양주(梁州)이다.

민산(岷山)과 파산(嶓山) 근처를 농사짓게 하였으며 타수와 잠수를 잘 인도하였다. 채몽(蔡蒙) 두 산을 잘 다스렸으며, 화수(和水) 지방 오랑캐들도 말을 잘 들어 일하게 되었다. 그곳의 흙은 푸르고 검으니 그 밭은 하의 상이고, 그 부세는 하의 중인데 세 가지로 섞였다. 공물은 황금과 철과 은과 강철과 살촉 돌과 경석과 곰이며 말곰과 여우와 너구리 등의 가죽과 짐승털로 짠 융단이었다. 서경산(西傾山)의 것은 환수(桓水)를 거쳐 와서 잠수(潛水)에 배를 띄워 면수(汭水)를 지나 위수(渭水)에 들어와서 황하를 질러 건너왔다.

흑수(黑水)와 서하(西河) 사이가 옹주(雍州)이다. 약수(弱水)를 서쪽으로, 경수(涇水)를 위수(渭水)와 예수(汭水)에 끌어 붙이고, 칠수(漆水)와 저수(沮水)를 다스리고 풍수(豐水)와 위수도 함께 합쳤다. 형산(荊山)과 기산(岐山)에 제사하시고, 종남산(終南山)과 돈물산(惇物山)을 거쳐 조서산(鳥鼠山)에 이르렀으며 들과 진펄에도 공을 이루시고 저야호(豬野湖)에까지 미쳤다. 삼위산(三危山) 사람과 삼묘족(三苗族)들이 크게 다스려졌다. 그곳의 흙은 누렇고 둉이가 없었으니, 그 밭은 상

의 상이고, 그 부세는 중의 하요, 그 공물은 경 만드는 아름다운 구슬과 옥돌이었다. 그들은 적석산(積石山) 아래서 배를 띠워 용문산(龍門山) 서하(西河)에 이르러 다시 위예(渭汭)로 모였다. 짐승털로 짠 융단은 곤륜(崑崙)과 석지(析支)와 거수(渠搜) 지방에서 났으며 서쪽 오랑캐 나라들도 다스린 대로 나갔다.

禹敷土, 隨山刊木, 奠高山大川。

冀州

既載壺口,

治梁及岐。

既修太原, 至于岳陽。

覃懷底績, 至于衡漳。

厥土惟白壤。

厥賦惟上上, 錯。厥田惟中中。

恒、衛既從, 大陸既作。

島夷皮服。

夾右碣石, 入于河。

濟、河惟兗州。

九河既道。

雷夏既澤,

灘、沮會同。

桑土既蠶, 是降丘宅土。

厥土黑墳, 厥草惟繇, 厥木惟條。

厥田惟中下, 厥賦貞。作十有三載, 乃同。

厥貢漆絲, 厥篚織文。

浮于濟、漯, 達于河。

海岱惟青州。

嵎夷既略,

灑、淄其道。

厥土白墳，海濱廣斥。

厥田惟上下，厥賦中上。

厥貢鹽絲，海物惟錯。岱畎絲枲，鈔松怪石。萊夷作牧，厥筐厯絲。

浮于汶，達于濟。

海岱及淮惟徐州，

淮、沂其父，

蒙、羽其藝。

大野既豬，

東原底平。

厥土赤埴墳，草木漸包。

厥田惟上中，厥賦中中。

厥貢惟土五色。羽畎夏翟，嶧陽孤桐。泗濱浮磬，淮夷蠻珠暨魚。厥筐玄纓縞。

浮于淮、泗，達于河。

淮海惟揚州，

彭蠡其豬，

陽鳥攸居。

三江既入，

震澤底定。

篠簜既敷。厥草惟夭，厥木惟喬。厥土惟塗泥。

厥田惟下下，厥賦下上上錯。

厥貢惟金三品。瑤琨篠簜。齒革羽毛惟木。島夷卉服。厥筐織貝。厥包橘柚錫貢。

沿于江海，達于淮、泗。

荊及衡陽惟荊州。

江、漢朝宗于海。

九江孔殷。

沱、潛既道。

雲土，夢作父。

厥土惟塗泥，厥田惟下中，厥賦上下。

厥貢羽毛齒革，惟金三品。柂鵠栝柏。礪砥砮丹。惟箇箇楨，三邦底貢厥名。包匱菁茅。厥筐玄纁璣組。九江納錫大龜。

浮于江、沱、潛、漢，逾于洛，至于南河。

荊、河惟豫州，

伊、洛、瀍、澗，既入于河。

滎、波既豬。

導菏澤，被孟豬。

厥土惟壤，下土墳壚。

厥田惟中上，厥賦錯上中。

厥貢漆枲絲紵，厥筐纖纊。錫貢磬錯。

浮于洛，達于河。

華陽黑水惟梁州。

岷、嶓既藝，

沱、潛既道。

蔡、蒙旅平，

和夷底績。

厥土青黎。

厥田惟下上，厥賦下中三錯。

厥貢璆鐵，銀鏤砮磬。熊羆狐狸織皮。

西傾因桓是來，浮于潛，逾于沔。入于渭，亂于河。

黑水、西河惟雍州。

弱水既西。

涇屬渭、汭。

漆、沮既從，

灊水攸同。

荊、岐既旅。終南、惇物，至于鳥鼠。
原隰底績，至于豬野。
三危既宅，三苗不敍。
厥土惟黃壤，
厥田惟上上，厥賦中下。
厥貢惟球琳、琅玕。
浮于積石，至于龍門、西河。會于渭、汭。
織皮岷崙，析支、渠搜，西戎即敍。

[통석] 우(禹)는 홍수 다스리는 일을 끝냄에 따라 사람을 널리 보내어 구주(九州)의 토지를 다스렸다. 스스로 모든 산을 순행(巡行)하며 나무를 베어 새로 길을 닦으면서, 높은 산과 큰 냇물의 위치를 정하고 각 주(州)마다 표지를 세워 그 경계를 구별하게 하였다. 이때에 물난리가 황하만큼 심한 곳이 없었는데 기주(冀州)는 바로 황하가 지나는 곳이고 또 서울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우는 물을 다스릴 때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우는 호구산(壺口山)에서부터 다스리기 시작해 양산(梁山)과 기산(岐山)까지의 모든 산을 정리하였다. 분수(汾水)를 인도하여 먼저 태원(太原) 지방을 다스려 악산(岳山)의 남쪽까지 이르렀다. 담회(覃懷) 지방으로부터 황하를 따라 내려가서 일을 마치고 장수(漳水)가 황하로 들어오는 곳까지 다스렸다. 구주의 흙이 각각 다름에도 흙빛과 성질을 분별하여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다.

이곳 기주의 토질은 희고 부드러운 흙이었다. 구주의 밭과 구실을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기주에 대한 조세는 1등의 세율(稅率)을 정하고 때로는 2등을 섞어서 받기도 했다. 그곳 밭의 등급은 5등에 속하였다. 항수(恒水)와 위수(衛水)는 제 물길을 따라 흐르니 대륙의 땅은 경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기주 동북쪽의 오랑캐들도 모두 감화되어 가죽으로 만든 의복을 바쳐 왔다. 기주에서 공물을 바칠 때에는 갈석산(碣石山)의 서쪽을 끼고 돌아와 황하에 배를 띠워 공물을 서울로 운반하였

다.

제수(濟水)로부터 황하까지의 사이가 연주(兗州)이다. 아홉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황하의 물길이 이미 정해졌고, 넘쳐흘렀던 뇌하(雷夏)는 형수로 모아들고, 옹수(灘水)와 저수(沮水)는 합류하여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이 근처는 뽕나무를 심기에 알맞은 땅이어서 누에치기를 시작하니 홍수를 피해 구릉에 살던 사람들도 평지에 주택을 지어 옮겼다. 이곳의 토질은 거의 검고 걸찬 흙이어서 그곳에 나는 풀은 무성하고, 나무는 잘 자랐다. 그곳 밭의 등급은 6등에 속하고 조세는 9등에 해당한 정도였다. 우가 13년간 치수에 힘쓴 공적이 있어 이젠 다른 고장과 세울이 같게 되었다. 그곳의 공물은 옷칠과 견사(絹絲)이고, 대광주리에 넣어 바치는 공물은 무늬가 있는 비단이었다.

그곳 사람들이 공물을 운반할 때는 제수로부터 탑수(漯水)에 배를 띄운 뒤에 황하로 내려와 서울에 이르렀다.

동쪽 바다로부터 태산(泰山)까지의 사이가 청주(青州)이다. 우는 먼저 우이(嵎夷)의 지방을 다스려 유수(濰水)와 치수(淄水)가 본래의 물길을 찾아 흐르게 하였다. 이곳의 토질은 희고 걸찬 흙이었고, 바닷가의 땅은 넓고 넓은 개펄로서 염분이 들어 있었다. 그곳 밭의 등급은 3등이었고, 그곳에 부과한 조세는 4등에 속했다. 그 공물은 소금과 칡으로 짠 배와 여러 종류의 해산물 등이었다. 그곳은 태산의 골짜기에서 나는 명주실과 모시와 납과 소나무 및 괴이하게 생긴 돌을 바쳤다.

또 내산(萊山)의 오랑캐들에게는 가축을 치도록 가르치니 그들은 감동하여 대광주리에 산누에고치실을 넣어 공물로 바쳤다. 그곳 사람들이 풍물을 운반할 때는 문수(汶水)에 배를 띄워 제수(濟水)로 나와 다시 황하를 통하여 서울에 이르렀다.

동쪽은 바다로부터 북쪽은 태산, 남쪽은 태산으로부터 회수(淮水)에 이르는 땅이 서주(徐州)이다. 회수와 기수(沂水)의 범람한 홍수를 이미 다스리니 몽산(蒙山)과 우산(羽山) 지방에 곡식을 심게 되었다. 대야(大野)의 못에 제방을 쌓아 큰 호수를 만들어 놓으나, 동원(東原) 지방은 물이 빠져 평야로 화하였다. 서주의 토질은 붉고 차지고 걸찬 흙이었다. 그곳에는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우부룩한 숲을 이뤘다. 그곳 밭의 등급은 2등이고 부과한 조세는 5등에 속했다.

그곳의 공물은 오색의 흙(계단을 만드는데 씀)을 바쳤고, 우산 골짜기에서 나는 오색의 꿩털(깃대에 꽂았음)과 역산(嶧山)의 남쪽 기슭에서 나는 외롭게 자란 오동나무(거문고를 만듬), 사수(泗水)가에서는 흙 속에 떠 있는 경(磬) 만드는 돌을 바쳤다.

회수 근처의 오랑캐들은 조개와 진주와 물고기를 바쳤었는데 그밖에도 대광주리에 넣어 바쳐 온 물건은 검은 비단과 흰색과 검은색을 섞어 짠 비단들이었다. 그곳 사람들이 공물을 바칠 때에는 회수로부터 사수에 배를 띄워 황하를 나와서 서울에 이르렀다.

북쪽 회수로부터 남쪽 바다까지의 사이가 양주(楊州)이다. 팽려호(彭蠡湖)의 돌을 막으니 새들이 호수에 와 살게 되었다. 북강(北江)과 중강(中江)과 남강(南江)의 세 강물을 바다로 흘러들게 하니, 진택(震澤)의 위치가 정해졌다. 이에 그 진택의 못 가에 작고 큰 대나무가 널찍하게 많이 자랐으며, 풀은 싱싱하게 자라고 나무도 높다랗게 자랐다. 이곳 토질은 대부분 진흙이었고 그곳 밭의 등급은 9등에 속하고, 부과한 조세는 7등이었지만 때론 6등을 섞어 받았다. 그 공물은 금·은·동의 세 가지 쇠붙이와 구슬·돌·옥돌·가는 대·굵은 대·상아·물소 가죽·새 깃·쇠 꼬리·재목 등이었다. 섬에 사는 오랑캐들도 모두 감화되어 풀 옷을 입게 됐다.

그들의 공물 대광주리에는 그밖에도 조개무늬의 비단이 들어 있었고, 공물 보자기에 싸서 바친 물건은 굽과 유자 따위였는데 그것은 명령이 있을 때만 바쳤다. 그곳 사람들이 공물을 바칠 때는 배에 물건을 싣고 강을 따라 바다로 들어갔다가 다시 회수와 사수를 거쳐 황하를 통하여 서울에 이르렀다 형산(荆山)으로부터 형산(衡山)의 남쪽에 이르는 사이가 형주(荊州)였다. 강수(江水)와 한수(漢水)를 바다로 잘 흘러나가게 하니, 아홉 갈래로 갈라 흐르는 양자강(楊子江)의 지류들이 모두 바른 물길을 찾아 흘러 안정되었다. 또 타수(沱水)와 잠수(潛水)의 강물도 본래의 물길을 찾아 흐르게 하니 운택(雲澤)과 몽택(夢澤)의 물들은 줄어들어 일정하여졌다. 그곳의 토질은 대부분 진흙이었다. 그곳의 밭의 등급은 2등이었고 구실은 3등이었다. 부과한 조세도 3등에 속하였다. 그곳의 강물에는 새 깃·상아·짐승 가죽 및 금·은·동 세 가지의 쇠붙이와 참나무(수레를 만드는 나무), 산뽕나무(활을 만

드는 나무), 향나무와 잣나무와 거친 숫돌과 고운 숫돌, 살촉돌과 단사(丹砂) 등이 었다.

운택과 몽택 근처의 세 나라에서는 화살을 만드는 균(菌)과 노(籜)와 호(楨)를 공물로 바쳤다. 그밖에도 공물 보따리에는 궤짝에 넣은 가시 달린 띠풀(청모 : 제사 때 술을 거르는 데 씀)이 있었고 공물 대광주리에는 검은 비단과 붉은 비단, 둑글지 않은 구슬, 구슬 퀘는 끈 등이 담겨 왔다. 또 강수의 아홉 갈래의 지류에서는 명령이 있으면 큰 거북을 바치기도 했다. 형주 사람들은 공물을 바칠 때 강수와 타수, 잠수와 한수 등에서 배에 물건을 싣고 내려와 육지를 통하여 낙수(洛水)로 나온 다음 남쪽 황하로 나와 서울에 이르렀다.

형산(荊山)으로부터 황하까지의 사이가 예주(豫州)였다. 이수(伊水)와 낙수와 전수(瀍水)와 간수(澗水)의 물을 모두 황하로 모아 흐르게 하였다. 물결이 거센 혁택(滌澤)에도 제방을 쌓아 물을 막았다. 또 가택(菏澤)의 물을 맹저호(孟豬湖)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하여 예주 땅의 물이 모두 다스려진 것이다. 그곳의 토질은 대부분 부드럽고, 얕은 지대의 흙은 걸차면서도 검고 굳었다. 그곳 밭의 등급은 4등이었고, 부과한 조세는 2등이었는데, 곳에 따라서는 1등도 섞여 있었다. 그곳의 공물은 윗칠과 삼과 허베와 모시베 등이었다. 그러나 대광주리에 넣어 바치는 공물은 가는 섬유의 면(綿)이 들어 있었다. 명에 따라서 경을 가는 숫돌을 바치기도 했다. 예주 사람들이 공물을 바칠 때는 낙수에 배를 띄워 황하로 나가 서울에 이르렀다.

화산(華山)의 남쪽으로부터 흑수(黑水)까지의 사이가 양주(梁州)였다.

민산(岷山)과 파산(幡山) 근처의 땅도 이미 농사짓기에 알맞도록 만들었다. 또 타수와 잠수의 물도 본디의 물길을 따라 흐르게 하였다. 채산(蔡山)과 몽산(蒙山), 두 산이 가장 험하여 힘들여 공을 이루었다. 따라서 평정하였음을 제사하여 치수의 완성을 고하였다. 화수(和水) 지방의 오랑캐들까지도 치수의 공로에 감화되어 말을 잘 듣게 되었다.

그곳의 토질은 검푸르고 비옥한 흙이었다. 그곳의 밭의 등급은 7등이었고 그 부과한 조세는 8등이었으나 곳에 따라 7등과 9등 삼단계의 부세를 섞어 받았다. 그 지방에서 바치는 공물들은 황금 · 철 · 은 · 강철 · 돌살촉 · 곰 · 말곰 · 여우 · 너구리

등의 가죽과 짐승털 가죽으로 짠 용단 등이었다. 그곳 사람들이 공물을 바칠 때에는 서경산(西傾山)으로부터 환수(桓水)를 거쳐 잠수에 배를 띠워 면수(沔水)를 건너 위수(渭水)로 들어와 황하를 거슬러 서울에 이르렀다.

서북쪽 흑수로부터 동쪽 서하(西河)에 이르는 땅이 옹주(雍州)였다. 우는 약수(弱水)를 서쪽으로 향해 흐르게 하고 경수(涇水)는 북쪽에서 위수와 예수(汭水)로 흘러들게 하였다. 칠수(漆水)와 저수(沮水)를 본디의 물길을 따라 흐르게 하고, 풍수(灋水)도 그곳에 모아 같이 흐르게 했다. 그런 뒤에 형산(荊山), 기산(岐山)에 나아가 제를 지내고 종남산(終南山)과 돈물산(惇物山)을 거쳐 조서산(鳥鼠山)에 이르는 모든 지방을 다스렸다. 그리하여 고원지대나 저습지대도 치수의 공이 잘 이루어져 저야(豬野)의 못까지도 물이 넘치지 않게 하였다.

삼위산(三危山)에도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였고, 말 안 듣기로 이름난 삼묘(三苗)의 사람들도 우의 공에 감복되어 제대로 다스려졌다. 그곳의 토질은 누렇고 부드러운 흙이었다. 그곳 밭의 등급은 1등이었고, 그 부과한 조세는 6등에 속했다. 그곳에서 바치는 공물들은 경을 만드는 옥돌과 구슬이었다. 옹주 사람들이 공물을 바칠 때에는 적석산(積石山) 기슭 강물에서 배에 짐을 싣고 용문산(龍門山) 기슭 서하(西河)로 내려와 다시 위수 북쪽의 물굽이로 모였다가 황하를 거쳐 서울에 달았다. 또 옹주의 곤륜(崑崙)과 석지(析支)와 거수(渠搜), 세 지역의 오랑캐들도 짐승의 털가죽으로 만든 용단을 바쳐 왔다. 이처럼 우의 공덕은 곤륜과 석지와 거수의 서쪽 오랑캐들에게까지 미쳐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하였다.

敷土(부토) : 땅을 나눈다는 뜻. 곧 토지를 정리하여 다스린다는 뜻.

隨山刊木(수산간목) : 산에 다다르면 나무를 베어 길을 내고 흙을 날라서 땅과 물을 다스렸다는 말.

奠(전) : 정한다는 뜻이니 고산과 대천을 정하여 구주의 경계를 구별함의 뜻.

冀州(기주) : 요순의 도읍지로서 구주의 다스림을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였다는 뜻.

載(재) : 다스림을 시작한다는 말.

賦(부) : 중앙에서 정하여 받아들이는 세. 이에 관해 공(貢)은 제후가 바치는 세. 구체적으로 부는 미곡을 중심으로 병거까지도 내게 하고, 공은 그 지방의 특산물을 내게 했다.

衡漳(횡장) : 장수(漳水)가 황하로 가로질러 들어가는 곳.

上上(상상) : 등급을 뜻함.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의 9등급에서 1등에 해당

하는 등급.

錯(착) : 1등의 부세에 2등도 섞어 내게 했다는 뜻.

作(작) : 농사를 경작한다는 뜻.

九河(구하) : 옛날 황하의 아홉 갈래의 지류.

墳(분) : 걸고 차지다는 뜻. 비옥의 뜻.

懿(요) : 무성하다.

條(조) : 길게 자랐다는 뜻.

濱斥(빈척) : 넓은 개펄. 곧 염분이 많은 땅.

繩(차) : 고운 칡으로 짠 천.

父(예) : 다스림.

藝(예) : 곡식을 심음.

繫絲(염사) : 산누에 고치실.

豬(저) : 물을 막아 모았다가 다시 흐르게 하는 방죽.

埴(식) : 찰흙.

漸包(점포) : 더부룩하게 자란다는 뜻.

羽畎(우건) : 우산(羽山) 골짜기.

夏翟(하적) : 5색의 꽁 텔. 깃대 맨 끝에 꽂는 데 쓰였음.

蠻珠(빈주) : 조개에서 나온 진주.

玄(현) : 적흑색의 비단.

纖縞(섬호) : 섬(纖)은 검은 실과 흰 실을 섞어 짠 비단. 호(縞)는 흰 비단.

陽鳥(양조) : 해 따라 옮겨 다니는 철새.

篠(소) : 조릿대와 왕대.

夭(요) : 싱싱하고 길게 자란 것.

喬(교) : 높다랗게 자란 것.

金三品(금삼품) : 금 · 은 · 동의 세 가지.

瑤琨(요곤) : 옥돌.

島夷(도이) : 섬의 미개인들.

卉服(췌복) : 여러 가지의 풀로 짜 만든 옷.

籩(비) : 대로 만든 광주리.

包(포) : 공물을 싼 보따리.

錫貢(석공) : 공물을 바쳤다는 뜻.

孔殷(공은) : 크게 바로잡았다는 뜻.

柵(僮) : 참나무로 수레 만드는 데 쓰임.

榦(간) : 산뽕나무로 활 만드는 데 씀.

礪(여) : 거친 수돌.

砥(지) : 고운 수돌.

磬(노) : 살촉을 만드는 돌.

箇籜(균로) : 조릿대. 화살을 만드는 대.

楨(호) : 호나무로 가늘고 단단하여 화살대를 만드는 데 씀.

底貢厥名(저공궐명) : 공물로 그 이름을 이루었다는 뜻.

菁茅(청모) : 옛날 종묘의 제에 푸른 떠풀로 술을 걸러 썼다 함. 이 청모는 가시가 달렸기 때문에 궤짝 속에 넣어 가지고 다시 보자기로 썼던 것이다.

玄纁(현홍) : 검은 비단과 붉은 비단.

璣(기) : 둥글지 않은 구슬.

組(조) : 수실 달린 끈.

納錫(납석) : 공물을 바쳤다는 뜻.

旛(자) : 모시 배.

棄(시) : 배를 짜지 않은 모시 실.

纖纊(섬광) : 가는 목면사.

錫貢(석공) : 명에 따라 공물을 바쳤다는 뜻.

磬錯(경작) : 경석(磬石)을 가는 숫돌.

旅平(여평) : 잘 다스렸다는 말. 여(旅)는 산에 제사 지내는 의식으로서 치수의 일이 끝나 산에 제를 지냄.

青黎(청려) : 검푸른 빛깔.

下中三錯(하중삼작) : 8등과 7등과 9등의 세 가지 등급이 섞여 있다는 뜻.

亂(난) : 하수를 똑바로 가로질러 건너오는 것.

球琳琅玕(구림랑간) : 옥돌.

2 견산(岍山)과 기산(岐山)을 인도하여 형산(荊山)에 이르렀고, 황하를 건너 호구산(壺口山)과 뇌수산(雷首山)을 거쳐 태악(太岳)에 이르렀으며, 지주산(底柱山)과 석성산(析城山)을 거쳐 왕옥산(王屋山)에 이르렀으며, 태행산(太行山)과 항산(恒山)을 거쳐 갈석산(碣石山)에 이르러 바다에 들어가게 했다.

서경산(西傾山)과 주어산(朱圉山)과 조서산(鳥鼠山)을 거쳐 태화산(太華山)에 이르렀으며, 웅이산(熊耳山)과 외방산(外方山)과 동백산(桐栢山)을 거쳐 배미산(陪尾山)에 이르렀다.

파총산(蟠冢山)을 인도하여 형산(荊山)에 이르게 했으며, 내방산(內方山)을 거쳐 대별산(大別山)에 이르렀으며, 민산(岷山)의 남쪽 기슭을 거쳐 형산(衡山)에 이르렀고, 구강(九江)을 지나 부천원산(敷淺原山)에 이르렀다.

導岍及岐, 至于荊山。逾于河。壺口、雷首, 至于太岳。底柱、析城, 至于王屋。太行、

恒山, 至于碣石, 入于海。

西傾、朱圉、鳥鼠。至于太華。熊耳、外方、桐柏, 至于陪尾。

導嶓冢。至于荊山。內方至于大別。

岷山之陽, 至于衡山。過九江, 至于敷淺原。

[통석] 앞의 장은 우가 아홉 주를 다스린 업적을 각 주에 따라 기술했고, 이 장은 크게 중국 전체에서 본 산계(山系)를 우가 친히 치수하면서 돌아다닌 것을 기술한 것이다. 견(岍)과 형(荊)과 기(岐)는 모두 옹주(雍州) 땅에 있는 산 이름이다. 우가 산을 다스림에 상류로부터 하였기 때문에 견산(岍山)에서 시작한 것이다. 견산과 기산을 다스리고 거기에서 다시 형산을 다스렸다. 황하를 건너 호구산(壺口山)과 뇌수산(雷首山)으로 가서 이를 다스리고, 태악(太岳)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지주산(底柱山)과 석성산(析城山)을 뚫어 황하의 물을 통하게 하여 왕옥산(王屋山)에 이르게 하고 또 항수(恒水)가 거치는 태행산(太行山)과 항수가 나오는 항산(恒山)을 인도하여 갈석산(碣石山)에 이르게 하니, 이제야 견산 이하에서 흘러 나오는 모든 물이 다 갈석산을 거쳐 바다에 들게 하였다.

우는 옹주의 산을 서경산(西傾山)으로부터 인도하여 동쪽으로 주어산(朱圉山)과 조서산(鳥鼠山)의 두 산을 거치게 하고, 또 바꾸어 남쪽으로 태화산(太華山)에 이르게 했으며, 우는 예주(豫州)에 도착하여 웅이산(熊耳山)으로부터 인도하여 동쪽으로 외방산(外方山)과 동백산(桐柏山)의 두 산을 거치게 하고, 또 물길을 돌려 남쪽으로 배미산(陪尾山)에 이르게 하였다.

우는 파종산(嶓冢山)을 인도하여 그 수원(水源)을 파서 형산(荊山)과 내방산(內方山)과 대별산(大別山)에 이르게 하고 그 흐르는 물을 끌어내 양자강에 들게 하였다. 우는 또 민산(岷山) 남쪽으로부터 형산(衡山)에 이르기까지 강수(江水)의 상류를 통하여 하고, 또 그 남쪽 한 지류는 구강(九江)을 건너 부천원산(敷淺原山)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導(도) : 여기서는 다스린다는 뜻.

敷(淺)原山(부천원산) : 주자와 청대(清代)의 호위(胡渭) 등은 지금의 여산(廬山)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설이 구구하다.

3 약수(弱水)를 인도하여 합려산(合黎山)에 이르러 남은 물을 유사(流沙)로 흘러들게 하였다.

흑수(黑水)를 인도하여 삼위산(三危山)에 이르러 남해(南海)로 흘러가게 했다.

황하를 인도하여 적석산(積石山)을 거쳐 용문산(龍門山)에 이르며, 남쪽으로는 화산(華山)에 이르며, 동쪽으로는 지주산(底柱山)에 이르며, 또 동쪽으로는 맹진(孟津)에 이르며, 동쪽으로 낙수(洛水) 북쪽 물굽이를 지나 대비산(大伾山)에 이르며, 북쪽으로 강수(洚水)를 지나 대륙호(大陸湖)에 이르며, 또 북쪽으로 황하를 아홉 갈래로 갈라서 그것을 다시 한 가지로 역하(逆河)가 되게 하여 바다로 흘러들게 하였다.

파총산에서 양수(漾水)를 인도하여 동쪽으로 흘러 한수(漢水)를 이루고 동쪽으로 나가 창랑(滄浪)의 물을 이루며 삼서수(三瀨水)를 지나서 대별산에 이르러 남쪽으로 강수(江水)에 들게 하였으며, 동쪽으로 못에 물이 고이 팽려호(彭蠡湖)를 이루었고, 동쪽으로 북강(北江)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게 했다.

민산에서 강수(江水)를 인도하여 동쪽으로 따로 타수(它水)를 이루었고, 동쪽으로 예수(澧水)에 이르렀으며, 구강(九江)을 지나 동릉(東陵)에 이르렀고, 동쪽으로 돌아 북쪽으로 모아 회(匯)를 이루었으며 동쪽으로 중강(中江)이 되어 바다로 흘러들어 갔다.

연수(沇水)를 인도하여 동쪽으로 흘러 제수(濟水)가 되어 황하로 들어갔고 물이 넘쳐 형파호(滻波湖)가 되었으며, 동쪽으로 도구(陶丘) 북쪽에 나와 다시 동쪽으로 가택(滌澤)에 이르렀으며, 또 동북쪽으로 문수(汶水)와 합쳐 다시 북동쪽으로 꺾어 흘러 바다로 들게 했다.

회수(淮水)를 인도하여 동백산(桐栢山)으로부터 시작하여 동쪽으로 사수(泗水)와 기수(沂水)와 합쳐 동쪽으로 흘러 바다에 들어가게 하였다.

위수(渭水)를 인도하되 조서(鳥鼠)와 동혈(同穴)로부터 시작하여 동쪽으로 풍수(灋水)와 합쳤으며, 또 동쪽으로 흘러 경수(涇水)와 합쳤고, 다시 동쪽으로 칠수(漆水)와 저수(沮水)를 지나 황하로 들게 했다.

낙수(洛水)를 인도하되 웅이산(熊耳山)으로부터 인도하여 동북쪽으로 흘러 간수(澗水)와 전수(瀍水)에 모이게 하며 또 동쪽으로 이수(伊水)와 합쳐서 다시 동북쪽으로 흘러 황하로 들게 했다.

導弱水，至于合黎。餘波入于流沙，

導黑水，至于三危，入于南海。

導河，積石至于龍門。南至于華陰，東至于底柱，又東至于孟津。東過洛汭，至于大伾。北過洚水，至于大陸。又北播爲九河，同爲逆河，入于海。

嶓冢導漾，東流爲漢。又東爲滄浪之水。過三澨，至于大別，南入于江，東匯澤爲彭蠡，東爲北江，入于海。

岷山導江，東別爲沱。又東至于灔。過九江，至于東陵。東迤北，會于匯。東爲中江，入于海。

導汎水，東流爲濟。入于河，溢爲滎。東出于陶丘北。又東至于澗，又東北會于汝，又北東入于海。

導淮自桐柏。東會于泗、沂，東入于海。

導渭自鳥鼠、同穴。東會于灔，又東會于涇，又東過漆、沮，入于河。

導洛自熊耳，東北會于澗、瀍，又東會于伊，又東北入于河。

[통석] 다음은 앞장의 산을 인도함과 같이 우가 온 나라의 물을 다스린 사업을 행함에 있어 그 순서 즉 아홉 갈래의 물줄기를 기술한 것이다.

우는 먼저 약수(弱水)를 인도하여 합려산(合黎山)에서 흐르는 강물과 합류하게 하고, 그 넘쳐흐르는 물을 유사(流沙), 즉 간숙성(甘肅省) 동쪽의 사막으로 모아 흐르도록 하였다. 다음에는 흑수(黑水)를 잘 흐르게 하여 삼위산(三危山) 기슭으로 끌

어내어 남해로 흘러가게 하였다.

그 다음에는 황하를 적석산(積石山)에서부터 인도하여 용문산(龍門山)까지 이르게 하였다. 그리하여 남쪽으로 내려와 화산(華山)의 북쪽에 이르게 하고, 그로부터 방향을 바꾸어 지주산(底柱山) 근처에 이르게 하였다. 또 동쪽으로 나가 맹진(孟津)에 이르고, 동쪽으로 다시 나가 낙수(洛水)의 합류점을 지나 대비산(大伾山)에 이르게 했다.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나가 강수(滻水)를 지나 대륙호(大陸湖)에 이르게 하고 다시 북쪽으로 합류하여 구강을 이루고 다시 합류시켜 역하(逆河)를 이루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하였다.

다음에 우는 파총산에서 양수(漾水)를 인도하여 동쪽으로 분류시켜 한수(漢水)를 이루게 했으며, 또 동쪽으로 나가 창랑지수(滄浪之水)를 이루게 했고 삼서(三瀨)의 냇물을 합쳐 대별산(大別山)에 이르게 하여 다시 남쪽으로 양자강에 들어가게 하였고, 동쪽으로 돌아 물을 모아 팽려호(彭蠡湖)를 이루게 하였다. 동쪽으로 북강(北江)이 되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하였다.

민산(岷山)에서부터 양자강을 인도하여 동쪽으로 분류시켜 타수(沱水)를 이루게 한 뒤 다시 동쪽으로 나가 예수(澧水)를 합쳐 구강을 지나 동릉(東陵)의 땅에 이르게 하였다. 그곳에서 동쪽으로 돌아 흐르게 하여 북쪽으로 모아 물굽이를 이루었으며, 다시 동쪽의 중강(中江)을 바다로 흘러가게 하였다.

다음에는 연수(沇水)를 인도하여 동쪽으로 흘러 제수(濟水)가 되어 황하로 흘러들게 했다. 연수가 넘쳐 흘러 형파호(滎波湖)를 이루고, 동쪽으로 나가 도구(陶丘)의 북쪽에 이르게 하였고, 다시 동쪽으로 나가 가택(淇澤)에 이르게 하며, 또 동쪽으로 나가 연수를 문수(汶水)와 합치도록 하였고, 다시 북쪽으로 나가 동쪽으로 돌아 바다에 흘러 들어가게 하였다.

위수(渭水)를 인도하는 일은 조서산(鳥鼠山)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위수를 동쪽으로 흘러가게 하여 풍수(灋水)와 합류시켰다. 또 동쪽으로 흘러 경수(涇水)와 합치게 하고, 또 동쪽으로 나가 칠수(漆水)와 저수(沮水)를 합쳐 황하로 흘러들게 하였다.

끝으로 낙수(洛水)를 인도하는 일은 웅이산(熊耳山)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낙수를

동북쪽으로 흐르게 하여 간수(澗水)와 전수(瀍水)와 합류시키고, 다시 동쪽으로 흘러 이수(伊水)와 합치고, 낙수를 동북쪽으로 흐르게 하여 바다로 들어가게 하였다.

導(도) : 물길을 잘 다스려 잘 흐르도록 함.

餘波(여파) : 넘쳐흐르는 물.

合黎(합려) : 산 이름. 감숙성 장액현(甘肅省 張掖縣)에 있음.

流沙(유사) : 사막의 뜻. 감숙성 정신현(甘肅省 鼎新縣) 동쪽의 사막을 말함.

黑水(흑수) : 금사강(金沙江)이 남해로 흘러가는 물.

播爲九河(파위구하) : 황하의 상류를 아홉 갈래로 나누어 지류를 만들었다는 말.

滄浪之水(창랑지수) : 한수(漢水)의 일부분. 호북성 균현(湖北省 均縣)의 한수를 뜻함.

迤(의) : 물이 이리저리 비스듬히 흐른다는 뜻.

匯(회) : 물이 굽이쳐 모나다는 뜻.

4 아홉 고을이 다 같이 다스려지니 사방의 구석까지도 자리 잡혀 사람이 살게 되었다. 모든 산의 나무를 베어 길을 내며, 모든 강물의 근원을 파서 흐르게 하고 모든 뜻에 방죽을 막아 놓았으니 사해(四海)의 물이 모여 함께 하였다.

육부(六府)가 크게 다스려져 모든 땅이 서로 바르거늘 재물과 부세를 신중히 다루되 모두 세 가지 등급의 땅을 기준으로 삼아 중국의 부세를 정하였다. 땅을 백성들에게 내려주고 먼저 떡을 공경히 하니 나의 행하는 일을 아무도 거역하지 않았다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오백 리 땅은 전복(甸服)이니 백 리 안의 부세엔 곡식을 베어 묵은 채로 바치게 하고 이백 리 안은 이삭을 따서 바치게 하고 삼백 리 안은 짚과 수염만을 딴 곡식을 바치게 하고 사백 리 안은 짧지 않은 곡식을 바치게 하고 오백 리 안은 짧은 곡식을 바치게 하였다. 또 그밖의 오백 리 땅은 후복(侯服)이니 일백 리 안은 경대부들의 땅이요, 이백 리 안은 남작(男爵)들의 나라요, 삼백 리 안은 제후들의 나라였다. 또 그 밖의 오백 리 땅은 수복(綏服)이니 삼백 리 안은 교육으로 교화함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이백 리 땅은 무력을 떨쳐 나라를 보위하였다.

또 그 밖의 오백 리는 요복(要服)이니 삼백 리 안은 오랑캐들이 살았고, 나머지 이 백 리는 가벼운 죄인을 귀양 보내는 곳이었다.

또 그 밖의 오백 리는 황복(荒服)이니 삼백 리 안은 오랑캐들이 살았고 나머지 이 백 리는 중한 죄인을 귀양 보내는 곳이었다.

동쪽으로는 바다에 다다랐고 서쪽으로는 유사(流沙)에 미쳤으며 북쪽으로부터 남 쪽까지 명성과 교화가 온 세상에 퍼져, 우(禹)는 검은 구슬로 만든 흙을 바치고 그의 일을 모두 이루셨음을 고하였다.

九州攸同, 四隩既宅。九山刊旅, 九川涤源, 九澤既陂。四海會同,

六府孔修, 庶土交正, 底慎財賦, 咸則三壤, 成賦中邦。

錫土姓, 祇台德先, 不距朕行。

五百里甸服。百里賦納總。二百里納銓。三百里納秸服。四百里粟, 五百里米。

五百里侯服。百里采。二百里男邦。三百里諸侯。

五百里綏服。三百里撫文教。二百里奮武衛。

五百里要服。三百里夷, 二百里蔡。

五百里荒服。三百里蠻。二百里流。

東漸于海, 西被于流沙, 肅南暨聲教, 訖于四海。禹錫玄圭, 告厥成功。

[통석] 이 장은 앞장을 총괄해서 말한 것이다. 우가 8년 동안 풍우를 무릅쓰고 집에 한 번 들를 틈도 없이 힘써온 결과, 이제는 구주(九州)의 지역이 모두 다 같이 안정되었다. 즉 사방의 토지에 주택을 세워 사람이 살게 되었고, 구주의 모든 산은 나무를 베고 길을 내어 여제(旅祭)를 지냈다. 구주의 모든 냇물은 그 근원까지 깊이 파서 잘 흐르게 하였으며, 구주의 모든 강과 못에는 각각 제방을 쌓아 놓았다. 이렇게 되니 천하의 물이 같이 모여 바다로 돌아갔다.

이리하여 온 세상이 임금에게 복종하게 되었다. 물·불·쇠·나무·흙·곡식 등 여섯 가지 자원에 대한 중앙의 시책이 크게 닦아져 백성들의 생활이 풍요하게 되

었다. 모든 나라의 토지는 모두 다 지력(地力)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토지는 높고 낮으며 비옥하고 척박한 등급의 차이가 있으니 서로 참작하고 비교해서 어떤 물건은 어느 고을 어느 땅에서 생산하며, 어떤 물건을 어디에다 공급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재정의 지출과 조세의 징수를 신중히 다루었다. 그리하여 천하의 토질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부세의 제도를 중국 전토에 확립해 놓았다.

그런 뒤에 덕이 있는 사람을 제후로 봉하여 토지를 내주어 나라를 세우게 하고 성씨(姓氏)를 주어 종족을 정하게 하였다.

우는 스스로 말하였다.

“이제 천하가 다스려져 별다른 일이 없으니 이제부터는 오직 나의 덕을 공경히 닦아 나라를 거느려 간다면, 온 나라의 백성들이 자연히 마음을 기울여 교화(教化)에 따라서 나의 행하는 일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제도(帝都)로부터 5백 리까지의 땅을 전복(甸服)이라 하였다. 전복의 안쪽 1백 리 까지는 볏단을 부세로 바치게 하고, 그 밖의 2백 리 까지는 이삭을 부세로 바치게 하고, 또 그 밖의 3백 리 까지는 짚과 수염을 딴 곡식을 바치게 하였고, 또 그 밖의 1백 리 까지는 짧지 않은 알곡을 바치게 하고, 맨 끝 5백 리 까지는 짧은 쌀을 바치도록 하였다.

전복의 밖의 5백 리를 후복(侯服)이라 하였다. 후복의 안쪽 방 1백 리 까지는 경대부들에게 공로에 따라 하사한 채읍(采邑)과 식읍(食邑)들이었고, 그 밖의 2백 리 까지는 남작들의 조그만 나라들이었고 나머지 3백 리는 제후들의 나라였다.

후복의 밖 5백 리를 수복(綏服)이라 하였다. 그 안쪽 땅 3백 리 까지는 교화로써 해아려 실행하게 하였고, 그 밖의 2백 리는 무력(武力)을 펼쳐 나라를 지키게 하였다.

수복 밖의 5백 리는 요복(要服)이라 불렸다. 그 안쪽 3백 리 까지는 오랑캐들이 살고 있었으니, 문교와 법제를 지켜 임금을 따르게 하였고 그 밖의 2백 리 안쪽 땅은 죄인들을 귀양 보냈다. 요복의 밖의 5백 리는 황복(荒服)이라 부른다. 황복의 첫 3백 리 안쪽 땅은 아주 황막한 지대라서 만인(蠻人)들의 거주(居住)를 허용하였고, 나머지 2백 리 땅은 무거운 죄인들을 이곳에 귀양 보냈다.

우는 이미 5복(五服)의 땅을 정하니, 그 땅이 사방으로 각각 5천 리가 되었다. 그러나 교화가 미치는 곳은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동쪽으로는 덕화가 바다에까지 미쳤고 그 서쪽으로는 다스리는 힘이 유사라는 사막지대까지 펼쳐졌다. 그리고 북쪽 끝과 남쪽 끝까지 하나도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어, 우의 명성과 교화가 온 천하에 넘쳐흘렀다.

이와 같이 우는 8년 동안이란 긴 세월에 걸쳐 물과 땅을 다스리고 전부(田賦)를 정하고 제후를 봉하여 세우고 5복(五服)의 땅을 나누어 정하는 여러 가지 큰일을 다 마치자 검은 훌(玄圭(현규))을 순임금에게 바치고 치수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였다.

攸同(유동) : 모두 제대로 다스려져 질서를 찾게 됨.

九山(구산) : 구주의 모든 산.

刊旅(간려) : 나무를 베어 길을 내고 제사하여 고함.

九川(구천) : 구주의 모든 강.

滌源(척원) : 물의 근원을 파서 잘 흐르게 한다는 말.

會同(회동) : 사해의 물이 바다로 모여 같아한다는 뜻.

六府(육부) : 수·화·목·금·토·곡을 말하는데 민생에 필수적인 것임.

庶土(서토) : 재물이 생산되는 모든 토지.

底(지) : 이룬다는 뜻.

成賦(성부) : 부세를 내게 함.

錫土姓(식토성) : 천자가 제후를 봉할 때에 영토를 주어 나라를 세우게 하고, 성씨를 주어 종족을 정하게 하였다는 말.

祗(지) : 공경의 뜻.

台(이) : 나의 뜻.

甸服(전복) : 경기 지역을 말함.

五百里(오백리) : 서울에서 동서남북 5백리 거리의 땅.

總(총) : 둑다. 짚채로 묶어 놓은 곡식.

銍(질) : 곡식의 이삭.

稈(갈) : 곡식의 짚과 수염만 따낸 것.

粟(속) : 짧지 않은 곡식.

米(미) : 짧은 곡식.

侯服(후복) : 제후들의 영지.

采(채) : 경대부의 식읍(食邑). 식읍이란 공이 있는 신하들에게 나누어 준 땅임.

男邦(남방) : 남작의 나라. 곧 제후들의 조그마한 나라.

綏服(수복) : 나라를 안정시키고 지키는 데 필요한 지역.

撲(규) : 해아린다는 뜻.

要服(요복) : 오랑캐의 지역으로서 얹매어 다스리는 땅이란 뜻.

蔡(살) : 귀양살이 보내는 것.

荒服(황복) : 거칠어 다스려지지 않는 땅으로서 죄인을 유배시킨 지역을 말함.

漸(겹) : 잡긴다는 뜻으로 우의 덕화가 흡족히 젖어 나갔다는 뜻.

訖(혹) : 미쳐갔다는 뜻.

玄圭(현구) : 겹은 훌. 물빛이 겹기 때문에 훌을 겹은 것으로 하였음.

감서(甘誓)

우임금의 아들 계(啓)가 제위에 오른 뒤 유호(有扈)가 복종하지 않으므로 감(甘)이란 들판에서 토벌하였다. 이때 계왕이 군사를 모아 놓고 맹세의 말을 하였는데 이 말이 곧 감서이다. 서(書)에 여섯 가지 문체가 있는데 서(誓)는 그 중의 하나이다. 금문과 고문에 모두 실려 있다.

감(甘)에서 크게 싸우실 때, 임금은 육경(六卿)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오오! 육군(六軍)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여! 내 그대들에게 맹세하여 고하오. 유호씨(有扈氏)가 오행(五行)을 경멸하고 삼정(三正)을 게을리하여 저버리니 하늘이 그들의 명을 끊으려 하고 있소. 나는 삼가 하늘의 별주심을 대행할 것이오. 윈편 군사들이 윈편 적을 치지 않는다면 그대들이 명을 받들지 않는 것이며, 오른 편 군사들이 오른편 적을 치지 않는다면 그대들이 명을 받들지 않는 것이며, 수레 모는 사람이 말을 제대로 몰지 않는다면 그대들이 명을 받들지 않는 것이오. 명을 잘 받드는 사람은 조상들 앞에서 상을 내릴 것이요, 명을 받들지 않는 사람은 땅의 신 앞에서 죽이되 나는 그 사람들의 처자까지도 죽여 버리겠소.”

大戰于甘，乃召六卿。

王曰：“嗟！六事之人。予誓告汝。

有扈氏威侮五行，怠棄三正。天用勦絕其命。今予惟恭行天之罰。

左不攻于左，汝不恭命；右不攻于右，汝不恭命；御非其馬之正，汝不恭命；

用命賞于祖，不用命戮于社，予則孥戮汝。

[통석] 우임금의 아들 계가 임금의 자리를 이어받은 뒤에 유호(有扈)가 강포함을 믿어 함부로 천자에게 항거하고 명을 따르지 않으므로 계왕은 친히 육군을 거느리고 감(甘)에 나가서 정벌하였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계왕은 여섯 사람의 장수를 불

러 훈시를 하였다.

“오오! 육군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이여! 나는 여러분께 경계할 것을 선언하오. 저 유호씨가 인(仁) · 의(義) · 예(禮) · 지(智) · 신(信)의 오상(五常)을 함부로 멸시하고 자축인(子丑寅)의 삼성을 폐기하여 정삭(正朔)을 쓰지 않으며, 아래로는 백성을 학대하고, 위로는 임금을 배반하니 그 죄가 하늘에까지 미쳤소. 그러므로 하늘은 큰 벌을 내려 그 명을 끊어 버리려 하고 있소. 이제 나는 몸소 육군의 장병을 이끌고 하늘의 뜻을 대신해서 그들을 치려 하오.

여러분들은 수레의 원편에 있어서 활로 쏘는 일을 맡은 사람은 오로지 원편의 일을 도모할 것이오. 만약 사격의 일에 미숙하여 적을 쏘지 못했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내 명을 받들지 않는 것이오. 수레 오른쪽에 있어서 칼로 치고 찌르는 일을 맡은 사람은 오로지 오른쪽의 일만을 도모할 것이오. 만약 치고 찌르는 법에 적중하지 못한다면 이는 내 명을 받들지 않는 것이오. 수레 안에 있어서 말 모는 일을 맡은 사람은 마음을 오로지 법도에 맞게 할 것이오. 만약 그 말을 모는 데 바르지 못하여 달리는 법에 어긋난다면 이는 내 명을 받들지 않는 것이 될 것이오. 여러 장병들은 내 명령을 잘 따라 공이 있는 자는 조상의 위패를 실은 수레 앞에서 상을 받을 것이오. 만약 내 명령을 거슬러 일을 패하게 한 자는 땅의 신의 위패를 실은 수레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오. 이런 자들은 죽음을 그 몸에 한할 것이 아니라 그의 처자까지 아울러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니 명심하오.”

六卿(육경) : 여섯 고을 관장. 《주례(周禮)》에 의하면 경대부는 한 고을에 경 한 사람씩을 두므로 육경이면 경이 여섯 사람이 된다. 평소 싸움이 없을 때는 각각 그 고을의 정치와 법률을 맡아 행하고, 싸움이 있을 때는 각각 그 고을의 향병(鄉兵)을 인솔하고 출정했다.

六事(육사) : 육경 외에 육군(六軍)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有扈氏(유호씨) : 감 땅의 제후.

威(위) : 멸(蔑)의 오각(誤刻)으로 멸시한다는 뜻.

五行(오행) : 금 · 목 · 수 · 화 · 토. 사람에게는 오상, 곧 인 · 의 · 예 · 지 · 신에 해당하며 여기서는 후자의 뜻.

三正(삼정) : 자축인(子丑寅)의 정삭을 말함.

怠棄(태기) : 정삭(正朔)을 쓰지 않는 것.

賞于祖戮于社(상우조륙우사) : 천자가 친히 정벌하러 나갈 때는 반드시 조묘(祖廟)의 신주와 사(社)의 신주

를 싣고 갔는데, 상우조(賞于祖)는 조상의 신주를 실은 수레 앞에서 상주는 것, 육우사(戮于社)는 땅의 신주 앞에서 죽이는 것을 말함.

孥(孥) : 처자의 뜻.

오자지가(五子之歌)

이 노래는 계임금의 아들 태강(太康)이 정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날마다 사냥만을 일삼다가 예(羿)에게 쫓겨나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 나라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읊은 것이다. 태강의 다섯 아우들과 그 어머니는 낙수(洛水)의 물가에서 돌아오지 않는 태강을 기다리다 원망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만 있다. 오자(五子)는 계임금의 아들 태강의 다섯 아우를 말한다.

1 태강(太康)은 하는 일 없이 임금 자리에 앉아서 놀며 게으름만 피워 그 덕을 망쳤다. 백성들은 모두 두 마음을 갖게 되었으나 그는 절도 없이 돌아다니며 놀기만 하여, 낙수(洛水)의 남쪽 기슭으로 사냥을 떠나 백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궁(窮)나라의 제후 예(羿)가 백성들이 참지 못함을 이유로 하여 그를 황하에서 막았다. 그의 아우 다섯 사람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따라가 낙수의 물굽이에서 기다렸다. 다섯 아우들이 모두 원망하여 우임금의 훈계를 서술하여 노래를 지었다.

太康尸位, 以逸豫滅厥德。黎民咸貳, 乃盤遊無度, 畎于有洛之汭, 十旬弗反。

有窮后羿, 因民弗忍, 距于河。

厥弟五人, 御其母以從, 畕于洛之汭, 五子咸怨, 述大禹之戒以作歌。

[통설] 계임금의 아들 태강이 왕위에 오르자 나랏일을 돌보지 않고 제사의 시동처럼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안일과 향락에만 빠졌다. 그는 마침내 하나라 왕실의 덕망을 망치게 되고 포악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온 나라의 백성들은 삶의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모두 두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태강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돌아다니며 놀기만을 일삼아 아무런 절도가 없었다. 이러한 중 멀리 낙수(洛水)의 남쪽 기슭에 사냥 나가서 백 날이 지나도 돌아올 줄을 몰랐다.

이때에 궁(窮)나라의 제후 예가 있었다. 그는 본래부터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백성들이 태강의 어지러운 정치에 견디지 못하여 명령을 따르지 않음을 구실로 병사를 내어 태강을 황하의 남쪽에서 막았다. 그를 나라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예는 하 나라의 정치를 자기 마음대로 하였다. 이렇게 되자 태강의 다섯 아우들은 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냥을 따라 갔다가 낙수의 북쪽 물굽이에 남아 태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섯 아우들은 종묘사직이 망해감을 규제하지 못하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각각 흩어져야함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자 근심하며 태강의 지나친 행동을 원망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할아버지 우임금이 내리신 훈계를 서술하고, 또 부연하여 노래를 지어 불렀다.

太康(태강) : 계왕(啓王)의 아들.

尸位(시위) : 신주를 모셔 놓은 것처럼 임금의 자리만 차지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貳(이) : 두 마음을 갖게 됨, 곧 임금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갔다는 뜻.

盤遊(반유) : 돌아다니며 놀기만 하는 것.

無度(무도) : 절도가 없는 것.

畋(전) : 사냥하는 것.

洛之表(낙지표) : 낙수의 남쪽.

十旬(십순) : 순은 10일, 곧 100일을 말함.

距(거) : 거(拒)와 통하며 막는 것.

2 그 첫째가 노래하였다.

“할아버지께서 훈계가 계셨나니, 백성들은 가히 가깝게 할지언정 얕잡아보면 안 되는 것,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어야 나라가 편안하리. 내 천하를 들려보니 어리석은 사내, 어리석은 계집도 모두 나보다 훌륭하게 보였도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실수할 수 있는 것, 원망이 어찌 분명해지길 기다리라? 나타나지 않을 때에 곧 도모해야 하느니. 내 만백성을 대함에 두려움이 마치 썩은 고삐로 여섯 마리의 말을 모는 것처럼 느껴졌나니 남의 윗자리에 앉은 사람이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둘째가 노래하였다.

“훈계가 있으시니, 안으로 여색에 빠지거나 밖으로 사냥질에 빠지거나 술을 좋아하고 음악을 즐기거나, 집을 높게 하거나 담을 아로새기거나 여기 어느 한 가지에 만 빠져도 망하지 않는 이가 없으리라.”

그 셋째가 노래하였다.

“저 요임금으로부터 이 기주 지방을 다스렸으나 이제 그 도를 잊어 나라와 기강을 어지럽혀 멸망함에 이르렀구나.”

그 넷째가 노래하였다.

“밝고 밝으신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모든 나라의 임금으로 법이 있고 규율이 있어 그 자손에게 물려 주셨도다. 석(石)으로 재는 물건을 통용케 하고 고르게 하여 임금의 창고는 그득하였는데, 그분의 유업을 함부로 떨어뜨려 나라를 뒤엎고 후사를 끊어지게 하였구나.”

다섯째가 노래하였다.

“오오! 어디로 돌아갈건가? 나의 슬픔이여! 온 백성들이 우리를 원수로 대하나니 우리는 장차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답답하고 슬프도다, 내 마음이여! 얼굴이 뜨거워 부끄러울 뿐이로다. 그 분의 덕을 삼가지 못한 탓이니 비록 후회한들 쫓아갈 수 있으랴.”

其一曰：“皇祖有訓，民可近，不可下。民惟邦本，本固邦寧。

予視天下，愚夫愚婦，一能勝予，一人三失，怨豈在明，不見是圖。予臨兆民，凜乎若朽索之馭六馬，爲人上者，柰何不敬？”

其二曰：“訓有之內，作色荒，外作禽荒。甘酒嗜音，峻宇彌牆，有一於此，未或不亡。”

其三曰：“惟彼陶唐，有此冀方。今失厥道，亂其紀綱，乃底滅亡。”

其四曰：“明明我祖，萬邦之君，有典有則，貽厥子孫。關石和鈞，王府則有，荒墜厥緒，覆宗絕祀。”

其五曰：“嗚呼！曷歸，予懷之悲。萬姓仇予，予將疇依。鬱陶乎予心。顏厚有忸怩。弗

慎厥德, 雖悔可追。”

[통석] 그 첫째 아우가 노래하였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 우임금께서 훈계의 말씀이 계셨다. ‘임금과 백성은 높고 낮음은 있어도 정이 서로 통하면 한 몸과 같은 것이니, 마땅히 정을 가지고 친근할 것이요, 위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얕잡아보고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백성은 지극히 낮은 존재이지만 오직 나라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근본이 견고한 뒤에야 나라가 편안하고 존망의 근심이 없게 된다. 내가 천하의 백성들을 둘러봄에 어리석은 남녀들도 모두 나보다 훌륭하게 보이나니 경솔히 대하지 말 것이며, 만약 그들의 마음을 잃는다면 곧 그들은 하나로 뭉쳐 나를 이길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이 한 번이라도 백성들에게 실수를 저지르면 그들은 원망하는 것이니, 어찌 여러 번 원망을 쌓고 허물을 저지를 것인가? 이런 원망의 소리가 꼭 밖으로 드러난 뒤에야 알 수 있으랴? 일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을 때 미리 도모하여 환란을 막아야 한다.

내 천하 백성들을 대함에 두렵고 조심하는 마음이 마치 썩은 새끼줄을 가지고 수레의 여섯 말을 모는 듯하였다니, 백성들을 두려워함이 이와 같으면 임금된 사람이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하셨다.”

그 둘째 아우가 노래하였다.

“할아버지 우임금께서 훈계하신 중에 ‘안으로 여색에 빠져 사랑하는 계집에 고혹되고, 밖으로 짐승을 쫓아 사냥하는 데 탐닉하며, 맛있는 술을 달게 마시고, 음악을 즐겨 그칠 줄 모르며 국고를 털어 궁실을 높이 짓고 채색을 다하여 담장과 벽을 꾸미는 일들이 하나만 있더라도 망하지 않는 자 없다’고 하셨다.”

그 셋째 아우가 또 노래하였다.

“저 요임금으로부터 이 기주 땅을 다스려 한 번 전하여, 우순(虞舜)에 이르고, 두 번 전하여 우임금에 이르렀다. 세 분 성인이 다 한길로 주고 지켰기 때문에 온 천하의 백성들이 돌아왔었다. 이제 안일과 향락으로 그 덕을 멸하고, 삼성(三聖)이 전하신 도를 잃어 크고 작은 기강을 어지럽게 하였다. 이에 역신이 나라를 빼앗아

왕업이 멸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어찌 슬프지 아니하랴?”

그 넷째 아우가 노래하였다.

“밝고 밝으신 우리 우임금 할아버지는 우순(虞舜)에게 선위(禪位)함을 받아 만방 임금이 되셨다. 친하를 다스림에 예교(禮教)와 정교(政教)를 행하셨고, 봉건(封建)과 공부(貢賦)를 정립하며 후세 자손에게 물려주었다. 그 제도의 작은 것도 일일이 갖추어서 수(銖) · 양(兩) · 근(斤) · 균(鈞) · 석(石)의 오권(五權)의 법을 정하시니 그 양의 무거운 것은 삼십 근의 균과 백이십 근의 석이었다. 그 석을 다 같이 통용 시켜 손해되는 일이 없게 하고, 그 균은 서로 공평하게 하여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 이와 같이 경중을 균일하게 하시어 백성들에게 신의를 보인 일이 왕부(王府)에 또한 있으니, 그 후세 자손을 염려하신 것이 자세하고도 원대하셨다. 그런데 태강은 어찌하여 그 할아버지의 유업을 함부로 떨어뜨려 하(夏)나라의 종묘사직을 뒤엎고, 하늘에 합할 조상의 제사를 끊어 버리는가?”

그 다섯째 아우가 노래하였다.

“오오! 어디로 가야만 내 마음의 슬픔을 달랠 수 있을까? 모든 백성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고 있나니, 우리는 장차 누구를 믿어야 좋을까? 이 슬픈 심정을 누를 길 없고, 화끈거리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구나. 임금이 되어 그 덕을 삼가 닦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결과만을 부를 뿐이니, 아무리 뉘우쳐 본들 돌이킬 땅이 어디 있을 것인가? 후회한들 쫓을 수 있으랴.”

皇祖(황조) : 우임금을 가리킴.

三失(삼실) : 실수가 많음.

馭(어) : 말을 부립.

六馬(육마) : 여섯 마리의 말. 임금의 수레는 여섯 말이 끌었다.

訓(훈) : 우임금의 훈계.

嗜音(기음) : 음악을 즐겨서 듣는다는 말.

唆宇鬱獮(준우조장) : 호화로운 궁전을 말함.

陶唐(도당) : 요임금이 처음에 당후가 되었다가 뒤에 천자가 되어 도(陶)에 도읍하였으므로 도당이라 함.

冀方(기방) : 기주지방을 가리킨 것인데 요 · 순 · 우가 다 기주에 도읍하였다. 그러므로 기방은 제도를 들 어 나라 전체를 말한 것임.

關(관) : 적용의 뜻.

和(화) : 평준의 뜻.

石(석) : 120근임.

鈞(균) : 30근임.

王府(왕부) : 임금의 곳집. 고(庫).

宗(종) : 나라의 뜻.

祀(사) : 조상의 제사.

鬱鬱(울도) : 답답하고 슬픈 마음으로 형제를 생각하는 모습.

狃泥(눅니) : 마음으로 부끄럽다는 뜻.

可追(가추) : 쫓아갈 수 있으랴의 뜻이니 바꾸어 말하면 어찌할 수가 없다는 자탄의 말.

윤정(胤征)

윤(胤)은 나라 이름이고 정(征)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죄를 들어 치는 것이다. 윤정은 윤후(胤侯)위 정벌에 관한 기술이다. 중강(仲康)이 하나라 중쇠(中衰)의 운을 만나니 예(羿)가 나라의 정치를 손에 쥐고 나라를 위망에 몰아넣었다. 또한 희씨(羲氏)와 화씨(和氏)는 악당들과 함께 예에게 협조하니 중강이 윤후에게 명하여 그들을 정벌하게 한 것이다.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만 있다.

중강(仲康)이 비로소 천하를 다스리는 임금 자리에 나가자, 윤후에게 명하여 육군을 장악하게 하였는데, 희씨와 화씨들이 그 직책을 버리고 그들의 고을에 서술에 빠져 지내므로 윤후가 왕명을 받들어 정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여러 군사들에게 말하였다.

“오오, 나의 군사들이여! 성인의 교훈이 있으시니, 밝게 증험하여 안정되고 보전될 것이오. 옛날 임금들이 하늘의 경계를 능히 삼가시니 신하들은 능히 떳떳한 법을 지니고 있어 모든 관리들이 그 직책을 닦아 임금을 보좌하였으므로 그 임금은 밝고 밝으셨소.

매년 이른 봄에는 전령관이 목탁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관리들은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을 가지고 간하라. 만약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라에는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알려 주었소.

이제 희씨와 화씨는 그 덕을 뒤엎고 술에 빠져 관직을 저버리고 자리를 떠나서 마침내 하늘의 기강을 어지럽혔소. 그 맡은 바 일을 멀리 저버려 늦은 가을 달 초하룻날에 해와 달이 제자리를 잊어 모이지 않으니 눈 먼 악관은 북을 치고 아래 신하들은 달리고, 백성들은 달아났소. 그럼에도 희씨와 화씨는 그 관직을 저버리고 듣지도 알지도 못한 채 하늘의 현상에 혼미하여, 선왕도 베실 죄를 범하였소. 정전(政典)에 이르되 ‘때에 앞서는 자도 죽여 용서하지 않으며, 때에 미치지 못하는 자도 죽여 용서하지 않는다’ 하였소. 이제 내가 그대들과 함께 하늘의 형벌을 받들어 행하려 하니 여러 군사는 왕실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나를 힘껏 도와서 천자의 위

명을 삼가 받들도록 하오.

불이 곤강(岷岡)에 일어나면 구슬과 돌이 함께 탈 것이나 천자의 관리가 덕을 저버리는 것은 사나운 불길보다 더 심한 것이오. 저들 괴수를 죽이되, 협박에 의해 따르는 자는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예전에 물든 더러운 풍속을 모두 새롭게 할 작정이오.

오오! 위엄이 동정심을 이기면 진실로 일을 성공시킬 것이고, 동정심이 위엄을 이기면 진실로 공이 없을 것이니 그대 여러 군사는 힘써 경계해야 할 것이오.”

惟仲康肇位四海, 肅侯命掌六師, 羲、和廢厥職, 酒荒于厥邑, 肅后承王命徂征。

告于衆曰：“嗟予有衆！聖有謨訓，明徵定保。先王克謹天戒，臣人克有常憲，百官修輔，厥后惟明，每歲孟春，邇人以木鐸徇于路：‘官師相規，工執藝事以諫。其或不恭，邦有常刑。’

惟時羲、和，顛覆厥德，沈亂于酒，畔官離次，俶擾天紀，遐棄厥司，乃季秋月朔，辰弗集于房。瞽奏鼓，嗇夫馳，庶人走。羲、和尸厥官，罔聞知，昏迷于天象，以干先王之誅。《政典》曰：‘先時者殺無赦。不及時者殺無赦。’

今予以爾有衆，奉將天罰，爾衆土同力王室，尚弼予，欽承天子威命。

火炎岷岡，玉石俱焚。天吏逸德，烈于猛火，殲厥渠魁，脅從罔治，舊染汙俗，咸與惟新。

嗚呼！威克厥愛允濟，愛克厥威允罔功，其爾衆土懋戒哉。”

[통석] 중강(仲康)이 비로소 임금 자리에 앉게 되자 윤후(胤侯)가 왕명을 받아들여 육군(六軍)을 지휘하였는데, 이때에 천문(天文)을 맡아보던 희씨(羲氏)와 화씨(和氏)가 그 직무를 버리고 그들의 영토 안에서 술에 빠져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에 윤후는 왕명을 받들고 가서 예(羿)의 우익(羽翼)인 희씨와 화씨를 정벌하기에 이르렀다.

윤나라의 제후는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 모인 여러 군사들 앞에서 훈시하였다.

“오오! 우리 군사들이여! 우리 성조(聖祖) 우임금께서 깊으신 법과 위대한 훈계를 자손들에게 보이신 것을 모름지기 알아야 할 것이오. 그 말씀이 너무도 명백하여 모두 징힘이 있었소. 이에 의하여 나라는 안정되고 백성은 보전되어 왕업의 기틀을 이룩했던 것이오. 이것은 선왕 때부터 임금 된 분들이 하늘의 경계를 삼가 지키고, 신하된 사람들은 일정한 법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였고, 모든 관리들까지도 그 직책을 부지런히 닦아 그 임금을 도왔기 때문이오. 그러므로 임금은 안으로는 덕을 잃지 않으며 밖으로는 실정이 없어 더욱 밝고 밝은 임금이 되시었소.

또 선왕의 융성한 때에는 해마다 봄이 되면 교명(敎命)을 전하는 사람이 목탁을 울리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임금의 교명을 알립과 동시에 백성의 소리를 구하였다. 그 말에 이르기를 ‘여러 관리들은 임금의 허물을 보면 서로 경계하고 바로잡을 것이며, 모든 공예인(工藝人)들은 일에 당하여 기예(技藝)의 일을 가지고 직접 임금님께 아뢰을 것이오. 만약에 이 교훈을 따르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라에서는 그들에게 일정한 형벌을 내릴 것이오’ 하였소.

선왕이 선포하신 교령(敎令)이 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희씨와 화씨는 그의 덕을 뒤엎어 버리고 술과 여색에 빠져 마음과 뜻이 어두워졌으며 그 직무를 저버리고 자리를 비우고 있소. 선왕 때로부터 대대로 천문을 맡아보아 일찍이 한번도 문란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하늘의 일정한 기율을 어지럽혀 그 맡은 일을 멀리 저버렸소. 그리하여 지난 가을 9월 초하루에는 해와 달의 궤도가 어긋나 일식(日蝕)이 되고 말았소. 일식의 재앙을 구제하기 위하여 임금님은 바야흐로 위에서 두려워하고, 모든 신하들은 다 같이 구제하는 데 힘썼소. 이때에 장님 악사들은 북을 쳐 알리고 낮은 관리나 백성들은 폐백(幣帛)을 가지고 이리저리 사방으로 달리고 분주하여 해를 구제하는 일을 돋고 있었소. 이와 같이 급급한 때에 희씨와 화씨는 천문의 일을 맡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그 일에 관해서는 듣지도 알지도 못했으며 하늘의 현상엔 어두웠소. 그리하여 선왕들 앞에서 죽음을 면치 못할 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오.

옛 임금의 나라 다스리는 법전에 기록되어 있기를 ‘천문을 잘못 추산하여 때를 그르쳐 절후를 앞당긴 자는 용서 없이 죽이고, 때를 그르쳐 절후를 늦춘 자도 용서하

지 않고 반드시 죽인다'고 하였소.

이제 나는 그대들 여러 군사들을 거느리고 하늘의 형벌을 받들어 행하려 하는 것 아니, 그대들 여러 군사들은 마땅히 충성과 용맹을 떨쳐 왕실에 힘을 다할 것이며, 또한 나를 도와 천자의 위엄과 명령을 만들어 따라야만 할 것이오.

그러나 군사를 일으키는 때에 마땅히 일의 경중(輕重)을 분별하여 살육(殺戮)을 함부로 자행해서는 안 되오. 비유하자면 모진 불길이 옥(玉)이 나는 곤강(崑崙)을 휩싸며 타오를 때 옥석(玉石)의 아름다움과 주함을 가리지 않고 모두 태워 버리는 것과 같소. 진실로 임금이 되어 덕의 과실로 인해 선악(善惡)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해악이 모진 불길이 옥석을 분별하지 않고 태워 버리는 것보다 더 가혹한 일이고.

이제 나는 다만 크나큰 악을 저지른 그 괴수를 죽여 없앨 뿐 협박에 못 이겨 따라붙은 무리들은 다스리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옛날에 물든 더러운 풍속에 빠져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는 자도 또한 용서할 것이니 다 같이 서로 허물을 고치고 스스로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오.

오오! 장수된 자는 엄정하고 공명한 위엄이 사사로운 개인의 마음을 이겨야 하오. 그리하면 군사들이 모두 그 장수를 두려워하여 앞장서 용맹을 떨쳐 싸워 진실로 나라의 큰일을 이겨낼 것이오. 하지만 만약 사사로운 개인의 마음이 엄정하고 공명한 위엄을 어긴다면 군사들이 적을 무서워하여 나랏일을 망치게 될 것이오. 여러 군사들은 이제 내가 한 말을 명심하여 힘써 경계하시오.”

仲康(중강) : 태강(太康)의 아우.

肇(조) : '비로소'의 뜻.

掌(장) : 관장, 장악의 뜻.

六師(육사) : 6군. 천자의 군대는 6군임.

羲和(희화) : 천문과 역법을 다스리는 세습 관리임.

荒(황) : 미혹에 빠진다는 뜻.

聖(성) : 우왕을 가리킴.

明徵(명징) : 명백한 증험.

孟春(맹춘) : 정월. 이른 봄.

遁人(추인) : 명령을 전달하는 관리.

木鐸(목탁) : 옛날에 교령을 전달할 때 흔들며 다니던 방울.

官(관) : 백관.

工(공) : 백공.

藝事(예사) : 기예에 종사함.

常刑(상형) : 일정한 형벌.

畔(반) : 저버림.

房(방) : 28숙(宿)의 하나. 9월 초하루에 방(房)에서 해와 달이 만나게 되는데 이 날은 해와 달이 서로 모임
이 맞지 않아서 방숙(房宿)에서 멀어져 일식(日蝕)이 되었다는 말.

瞽(고) : 맹인 악사.

嗇夫(색부) : 소신(小臣).

干(간) : 범한다는 뜻.

峴岡(곤강) : 곤산의 산등성이.

天吏(천리) : 천자의 관리.

脣從(瞽종) : 위협에 못 이겨 따라다닌 것.



상서(商書)

상서(商書)

상서(商書)는 상(商)왕조 때의 역사를 사관(史官)이 기록한 것이다. 하왕조는 그 말기에 폭군桀의 출현으로 그 당시 제후이던 탕(湯)에 의해 멸망되고 말았다. 탕임금은 나라를 세운 뒤 선조가 다스리던 땅의 이름을 따 국호를 상(商)이라 불렀다.

상왕조는 전후기(前後期)로 나뉘는데, 위대한 덕을 지녔던 탕임금으로부터 3백 60여 년간을 전기로, 그 뒤 17대 임금인 반경(盤庚)이 은(殷)으로 도읍을 옮기고 멸망할 때까지를 후기로 본다. 도읍을 은으로 옮긴 뒤로는 은나라로 더 많이 불리기도 했다.

탕서(湯誓)

탕(湯)은 이름이라고도 하고, 혹은 시호(諡號)라고도 한다. 탕임금의 이름은 이(履)고, 성은 자씨(子氏)라고 한다. 하(夏)나라 결왕(桀王)의 포악함이 극도에 이르자 탕임금은 할 수 없이 군사를 일으켜 이를 치게 되었다. 이때 탕임금의 영지인 박(亳)의 백성들이 정벌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탕임금은 정벌 해야만 하는 자기의 뜻을 타일러 군사를 일으킨 후, 박의 도읍지에서 전군을 모아 놓고 훈시를 하였다. 사관이 그 훈시를 기록한 글이 이 편이다. 금문과 고문에 있다.

“그대 여러 사람들이여! 모두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내가 감히 난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 임금이 죄가 많아 하늘이 명하시니 그를 치려는 것이오.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임금은 우리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시어, 우리에게 농사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치게 한다’고 말할 것이오. 나는 여러분의 말을 잘 듣고 있소. 하지만 하나님 임금이 죄가 있으니, 나는 하느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히 바로 잡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오.

이제 여러분이 말하기를, ‘하나라의 죄는 어떤 것이오?’ 할 것이오. 하나라 임금은 백성들의 힘을 다 빼지게 하고 하나라 고을을 망쳐 버렸소. 백성들은 모두 계을러 협력하지 않고 말하기를 ‘이 날은 언제 없어질 것인가? 우리는 너와 함께 망하고 밀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게 되었소. 하나라의 덕이 이 같은지라 이제 나는 반드시 치려 가야만 되겠소.

여러분들은 나 한 사람을 도와서 하늘의 벌을 이루게 하시오. 나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상을 줄 것이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소. 여러분이 나의 훈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곧 여러분의 처자까지 모두 죽여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王曰：“格爾衆庶，悉聽朕言！非台小子，敢行稱亂。有夏多罪，天命殛之。

今爾有衆。汝曰：‘我后不恤我衆，舍我穡事，而割正夏。’予惟聞汝衆言，夏氏有罪，予畏上帝，不敢不正。”

今汝其曰：‘夏罪其如台？’夏王率遏衆力，率割夏邑，有衆率怠弗協，曰：‘時日曷喪？予及汝皆亡。’夏德若茲，今朕必往。

爾尚輔予一人，致天之罰。予其大賚汝，爾無不信。朕不食言。爾不從誓言，予則孥戮汝，罔有攸赦。”

[통석] 당임금이 하나라 임금 결왕을 치러 갈 때 싸움을 앞두고 군사들에게 훈시하였다.

“여러 군사들에게 고하노니 모두 내가 하는 말을 똑바로 들으시오. 지금 내가 갑자기 군사를 일으켰는데, 그것은 나 같은 작은 사람이 감히 나라에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서서가 결코 아니오. 지금 하나라의 결왕이 하늘을 공경하지 않고 백성을 학대하고 있으니 실로 그 죄가 많소. 하늘은 그의 악덕을 싫어하여 나에게 명하여 이를 치게 한 것이오.

이같이 막중한 일인데도 여러분들은 말하기를, ‘지금 우리 논밭에는 모든 곡식이다 익어 수확할 때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농사를 버리고 하나라의 죄를 치려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오.

나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말을 들어 잘 이해하고 있소. 그러나 하나라 결왕이 하늘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오.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하늘이 나까지 별을 내릴 것이오. 나는 하늘의 명을 두려워하므로 결왕을 쳐서 죄를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소.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라의 죄가 어떤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 이가 있을 줄 아오. 내가 이것을 밝히겠소. 하나라 임금은 무거운 역사(役事)를 일으켜 백성의 힘을 쇠진하게 하였고, 또 그 신하들은 엄중한 형벌로써 하나라 백성들을 잔학하게 죽이고 있소. 그리하여 하나라 고을의 백성들은 모두 마음이 들뜨고 계을러져 임금의 일에 협력하지 않을뿐더러, 하나라가 빨리 망하기를 바라고 있소. 그러나 하나라

임금은, ‘내가 나라를 두고 있는 것은 마치 하늘에 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해가 없어 져야 나도 망한다’고 말하면서 백성을 더욱 괴롭히기만 하고 있소. 그리하여 백성들은 드디어 해를 가리키며 원망하기를 ‘저 해가 언제 없어지려나! 나도 하나님과 임금과 함께 망해 버리면 좋겠다’고 통탄하고 있소.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울고 있는 것을 앓아 보고만 있겠소. 하나님과 임금의 덕이 이러하니 나로서는 지금 그를 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는 것이오.

여러분은 나를 힘껏 도와서 하늘의 뜻을 하나님에 이루고 용맹을 떨쳐 그 공을 세우시오. 나는 그 공에 따라 후한 상을 내려 보답하겠소. 여러분들은 조금도 내 말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오. 나는 결코 헛된 말을 하지 않을 것이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내 훈시를 따르지 않고 머뭇거리는 자가 있다면 그의 처자까지도 함께 죽여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格(격) : 알린다는 뜻.

台小子(이소자) : 나 작은 사람. 탕임금이 자신을 낮추어 한 말.

舍(사) : 사(捨)와 같은, 버린다는 뜻.

穡(색) : 가색(稼穡)의 준말로 심고 거둔다는 것.

割正(할정) : 할(割)은 끊음. 정(正)은 정(征), 정벌한다는 뜻.

如台(여이) : 여하(如何)의 뜻.

率(솔) : 모두 다의 뜻.

割(할) : 분할의 뜻.

曷(감) : 하(何)와 통하여 언제의 뜻.

皆亡(개망) : 함께 망함.

大賚(대뢰) : 크게 상을 준다는 뜻.

食言(식언) : 말을 먹어치운다는 뜻으로 거짓말이란 뜻.

중훼지고(仲虺之誥)

중훼(仲虺)는 신하 이름. 설(薛) 땅의 제후 해중(奚仲)의 후손으로서 탕임금의 좌상(左相)이 되었다.

고(誥)는 고(告)한다는 뜻으로 지금 말로는 연설이다. 탕임금이 걸왕을 정벌함에 옛날 요임금과 순임금처럼 서로 읍양하는 덕이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중훼는 탕임금의 부끄러움을 풀어 주는 취지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상세하게 알렸다. 위고문에는 있고, 금문에는 없다.

공을 이룬 탕임금은 걸(桀)을 남소(南巢)에 내치시고 덕(德)에 부끄러움을 느껴 말씀하셨다.

“나는 후세에 나로써 구실을 삼을까 두렵소.”

중훼가 고(誥)를 지어 말하였다.

“오오! 하늘이 백성을 내심에 욕심을 갖게 하였으니 임금이 없으면 바로 어지러워 지므로 하늘은 총명한 이를 내셔서 이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라 임금은 덕에 어두워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하늘은 이에 임금에게 용기와 지혜를 내리셨습니다. 온 나라의 의표로서 바르게 다스리시어, 우임금 일을 이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분의 법을 따라서 하늘의 명을 받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라 임금은 죄가 있으니, 하늘을 속이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늘은 이를 옳지 않게 여기시어, 상나라로 하여금 명을 받아 모든 백성들을 밝혀 주게 하신 것입니다.

어진 이를 소홀히 하고 권세에 아부하는 무리들이 많아서, 처음부터 우리나라하는 하나라 임금에게는 곡식 짹 가운데 가라지 풀과 같았고, 곡식알 가운데 쪽정이와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모두 떨면서 죄 없이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임금의 덕에 관한 말씀은 듣기에 흡족한데 어찌하겠습니까?

임금께서는 노래와 여색을 가까이하지 않으시고, 재물과 이익을 불리지 않으시며,

덕이 많은 사람에게는 힘써 벼슬을 주시고, 공이 많은 사람에게는 힘써 상을 내리셨으며, 사람을 쓸 때는 자기와 같이 대우하시고, 허물을 고치심에는 인색하지 않으셨으며, 진실로 너그럽고 어지셨고 밝게 나타나시어 백성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갈(葛) 땅의 제후가 밥 나르던 아이와 원수가 되니, 정절하심을 갈나라에서부터 시작하여 동쪽을 치시면 서쪽 사람들이 원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들만을 뒤로 미루시는가?"고 하였습니다. 가시는 곳의 백성들은 집집마다 서로 경쟁하여 말하되, '우린 임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임금께서 오셨으니 이젠 살았구나!' 하였으니, 백성들이 상나라를 떠받든 것은 오래였습니다.

어진 이를 돋고 덕 있는 사람을 도우시며, 충성된 사람을 나타내시고 어진 사람을 끌어올리시며, 약한 자는 어우르시고 어두운 자는 치시며, 어지러운 자는 취하고 망할 짓을 하는 자는 욕을 주시며, 도를 망치는 자는 밀어뜨리고 도를 살리는 자는 굳게 하셔야 나라가 창성해질 것입니다.

덕이 날로 새로워지면 온 나라가 따라올 것이요, 뜻이 가득함을 자부하면 온 집안이 떠나갈 것이니, 임금께서는 큰 덕을 힘써 밝히시어 백성에게 중도(中道)를 세우십시오. 의로써 일을 바로잡으시고, 예로써 마음을 바로잡으시어 후세 자손에게 여유를 남겨 주십시오. 내 듣자오니 이르되 능히 '스스로 스승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왕 노릇을 할 것이요, 남이 자기만 같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다. 문기를 좋아하면 넉넉하여지고 자기의 뜻만을 쓰면 작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오오! 그의 마지막을 삼가려거든 그 처음부터 하여야 한다하니, 예가 있는 사람은 길러 주고, 어둡고 포악한 자는 뒤엎으십시오. 하늘의 도를 공경하고 높이시어 하늘의 명을 길이 보전하십시오."

成湯放桀于南巢，惟有慙德。曰：“子恐來世以台爲口實。”

仲虺乃作誥。曰：“嗚呼！惟天生民有欲，無主乃亂。惟天生聰明時乂。有夏昏德，民墜塗炭。天乃錫王勇智，表正萬邦，續禹舊服。茲率厥典，奉若天命。”

夏王有罪，矯誣上天，以布命于下。帝用不臧，式商受命，用爽厥師。

簡賢附勢，寔繁有徒，肇我邦于有夏，若苗之有莠，若粟之有秕，小大戰戰，罔不懼于

非辜，矧予之德言足聽聞？

惟王不邇聲色，不殖貨利。德懋懋官，功懋懋賞，用人惟己，改過不吝，克寬克仁，彰信兆民。

乃葛伯仇餉，初征自葛，東征西夷怨，南征北狄怨。曰：‘奚獨後予。’攸徂之民，室家相慶。曰：‘溪予后，后來其蘇’，民之戴商，厥惟舊哉。

佑賢輔德，顯忠遂良。兼弱攻昧，取亂侮亡。推亡固存，邦乃其昌。

德日新，萬邦惟懷，志自滿，九族乃離。王懋昭大德，建中于民。以義制事，以禮制心，垂裕後昆。予聞曰：‘能自得師者王，謂人莫己若者亡。好問則裕，自用則小。’

嗚呼！慎厥終，惟其始，殖有禮，覆昏暴。欽崇天道，永保天命。’

[통석] 탕임금은 우리나라 걸왕을 정벌하여 그가 도망간 남소(南巢) 땅으로 내쫓고, 드디어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나 탕임금은 자기의 덕이 옛날 요임금과 순임금처럼 서로 겸양했던 미덕에 비교해서 너무도 부끄러움이 많다고 느껴 아래 사람들에게 “후세 사람들이 나의 오늘 일을 들어 구실을 빙자할까 두렵다”고 말하였다.

이에 탕임금의 좌상(左相) 중嘲(仲虺)가 바로 고문(誥文)을 지어 탕임금의 부끄러워하는 뜻을 풀어서 말하였다.

“오오! 하늘이 백성을 내심에 사람마다 제각기 욕망을 갖게 하셨으니, 만약 백성을 다스릴 임금이 없다면 곧 다투어 어지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총명한 성인을 내시어 이분으로 임금을 삼아 어지러움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임금 걸왕은 백성의 임금이 되자 혼란을 자행하고, 폭정과 극형으로써 백성의 생명을 짓밟았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 해독을 입어 도탄 속에 떨어져 죽고 있습니다. 하늘은 이에 백성을 가엾게 생각하여, 우리 탕임금에게 지혜와 용기의 덕을 내려 주시어, 걸왕을 쳐서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고, 온 나라의 표가 되어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우임금의 옛날 행하신 업적을 계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탕임금은 오직 그 법도를 쫓아 하늘의 명

하신 바를 받들어 결을 치셨으니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라 결왕은 죄가 많습니다. 백성들이 그가 무도하여 따라오지 않음을 알고, 그는 백성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거짓으로 꾸며 자기 멧대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은 더욱 그의 행동을 옳게 여기지 않아, 우리 상나라로 하여금 천명을 받들어 백성들에게 덕을 밝혀 주도록 하셨습니다.

또 결왕의 조정을 살펴보면 모두 소인들로 가득 차 어진 사람을 업신여기고 권세에 아부하며 붕당(朋黨)을 만들고 결탁하여 못된 무리들만 들끓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하나라 임금은 덕으로 다스리는 우리 상나라를 마치 곡식 짹 가운데에서 피를 뽑아내듯이, 곡식 알 가운데에서 쪽정이를 골라내듯이 없애 버리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나라 백성들은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벌벌 떨면서 혹시나 무고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탕임금님의 훌륭하신 덕에 대하여 말한다면,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또 만족하게 여기니, 이 사실이 결왕의 귀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였겠습니까? 그러기에 결왕은 탕임금을 까닭 없이 하대(夏臺)에 가두어 놓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임금께서는 음악이나 여색을 가까이하여 마음을 유혹당하는 일이 없으셨고, 재물과 이익을 늘리기 위해 백성의 재물을 빼앗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본원적으로 맑고 밝아서 욕심이 없었으므로, 덕행이 많은 사람에게는 벼슬을 내리기에 힘쓰셨고, 공로가 많은 이들에게는 상을 내리기에 힘쓰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있으면 즐거이 취하여 쓰되, 마치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허물이 있으면 자기를 버리고 남의 의사를 따라서 고치는 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대할 때는 참으로 너그러우셨으나 마음에는 절제가 있었고 참으로 자애하셨으나 마음에는 엄숙하셔서, 스스로 모든 백성들에게 믿음을 보이셨습니다.

이때에 갈(葛) 땅의 제후가 있었는데 그가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으므로, 탕임금께서는 박읍의 백성을 거느리고 갈에 가서 농사를 지어 주셨습니다. 이때

박 땅의 늙은이나 어린아이들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날라다 주었는데, 갈 땅의 제후는 잔학하게도 어린아이를 죽이고, 그 밥을 빼앗아 먹었습니다. 이에 탕임금님은 할 수 없이 천하의 옳지 못한 제후들을 치기로 결심하고, 먼저 갈나라부터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방의 백성들은 우리 임금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모두 자기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구제해 줄 것을 바랐습니다. 그리하여 임금님이 동쪽을 향해서 정벌하면 서쪽 사람들이 원망하고, 남쪽을 향해서 정벌하면 북쪽 사람들이 원망하여 서로 입을 모아 말하기를, ‘우리들은 다 같이 폭군의 해독을 입고 있는데, 임금님은 어째서 저들을 먼저 구제하고, 우리들을 뒤로 미루는 것일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정벌하시는 지역의 백성들은 온 집안이 서로 경축하여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께서 오시기를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제 오셔서 폭정을 제거하고 어진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를 도탄의 구덩이에서 구출해 주시니, 우리는 죽은 자로서 되살아났다’ 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모든 백성들이 우리 상나라를 떠받들어 돌아가기를 원한 지가 이미 오랜 세월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임금께서는 천하를 얻었음을 부끄러이 생각지 마시고, 오직 임금의 도를 극진히 하여 하늘의 명을 받들어 갈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진 이를 돌보아 주시고, 덕 있는 사람을 도우시며, 충성된 사람을 드러내시고, 선량한 사람은 등용하십시오. 나약하여 스스로 보존하지 못하는 자는 그 땅을 어우르시고, 혼미하여 자립할 능력이 없는 자는 치시며, 어지러운 나라는 그의 땅을 쳐서 빼앗으시고, 위망한 짓을 하는 자는 죽여 없애십시오. 따라서 그 스스로 망하려는 자는 넘어뜨리고, 스스로 보존하려는 자는 굳게 해주실 것이니, 임금님께서 이같이 하신다면 온 나라가 곧 창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 된 도리는 마땅히 덕을 닦고 몸을 살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덕 이 날로 새로워지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그 임금을 사랑하고 추대하여 귀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뜻에 자만심을 갖는다면, 구족(九族)이 비록 친한 것 같지만 결국엔 또한 이탈하고 만방은 해체될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대덕(大德)을 밝히는 데 힘쓰시고, 중도(中道)의 법을 천하에 세우셔서

항상 의(義)에 의하여 사물을 바로잡고, 예(禮)에 의하여 마음을 절제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중정(中正)의 도를 후세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주십시오.

나는 들었습니다. ‘임금님이 신하 중에 스승으로 삼을 만한 자를 구하여 섬기면 반드시 천하의 임금 노릇을 할 것이고, 만약 어떤 사람이고 자기만 같지 못하다고 말한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스승을 높이고 물기를 좋아하는 자는 덕이 높고 견문이 넓어질 것이요, 스스로 잘난 체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는 총명이 날로 어두워져 마침내 소심해질 것입니다.

오오! 모든 일의 끝맺음을 잘하려면 그 시작부터 잘해야 할 것이니, 이제 임금님은 비로소 천명을 받으셨으니, 예를 이행하는 사람은 길러 주고, 어리석고 포악한 자는 벼리십시오. 하느님의 도를 공경하고 높이시어 영원히 천명을 보전하십시오.”

成湯(성탕) : 탕임금이 무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음.

放(방) : 내쳐 버림.

南巢(남소) : 땅 이름. 걸임금이 도망간 곳.

慙德(참덕) : 탕임금이 신하로서 임금을 치고 나니 그 덕이 옛날 요순과 같지 못함을 부끄러워함.

口實(구실) : 입에 오르내리는 말거리.

錫(석) : 준다는 뜻.

表(표) : 의표(儀表)의 뜻.

服(복) : 여기에서는 행동.

奉若(봉약) : 받들어 따라감.

矯謹(교무) : 속인다는 뜻.

帝(제) : 상제, 곧 하느님.

臧(장) : 착하다는 뜻.

非辜(비고) : 죄 없는 것. 무고와 같음.

言足聲聞(언족성문) : 탕임금의 덕이 사람들이 듣는데 너무도 흡족하니 이 일은 결왕으로서는 더욱 시기하고 미워할 일이라는 뜻.

懋懋(무무) : 위의 것은 성할 무로서 많다는 뜻. 아래 것은 힘쓴다는 뜻.

葛伯(갈백) : 갈나라의 제후.

仇讐(구향) : 밥 나르던 아이와 원수가 되었다는 뜻. 갈백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 탕임금이 사람을 시켜 물었다. 갈백은 제사 지낼 식량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탕임금은 박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갈 땅으로 가서 농사를 지어 주도록 하였다. 늙은이와 어린아이들은 일하는 사람에게 밥을 날라다 주었는데, 갈 백은 어린아이를 죽이고 밥을 빼앗아 먹었으므로, 탕임금의 무리들과 원수가 되었다. 탕임금은 이에 느끼시고 천하의 부정을 정벌하러 나섰는데 갈로부터 시작하였다.

溪(혜) : 기다린다는 뜻.

蘇(소) : 깨어난다는 뜻.

亡(양) : 망도자(亡道者)로서 위의 약매란망(弱昧亂亡)의 뜻을 모두 가졌음.

存(존) : 존도자(存道者)로서 앞의 현덕충량(賢德忠良)을 모두 가리킴.

建中(건종) : 예의의 중도를 백성들에게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라는 뜻.

自用(자용) : 자기 뜻대로 일하는 것.

탕고(湯誥)

탕임금이 하나라를 정벌하고 박도(亳都)에 돌아오니 천하의 제후들이 모두 와서 조회하였다. 탕임금이 이에 고(誥)를 지어 신하와 백성들에게 크게 선포하였다.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만 있다.

탕임금이 하나라를 정복하고 돌아와서 박에 이르러 온 세상에 크게 고하였다.

탕임금이 말씀하셨다.

“아아! 그대들 만방의 백성들이여! 나 한 사람의 말을 밝게 들으시오. 위대한 하느님께서 충을 아래 백성에게 내리시어 떳떳한 성품을 따르게 하셨으니, 능히 그 도를 따라야 임금 노릇을 할 것이오.

하나라 임금은 덕을 멀하고 위엄을 떨쳐 그대들 만백성에게 학정을 떴으니, 그대들 만백성은 그의 흉악한 해를 입어 씀바귀와 별레의 독을 참지 못하여 죄 없음을 하늘과 땅의 신들에게 고하였소. 하늘의 도는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화를 내리는 것이니, 하나라에 재앙을 내리시어 그 죄를 밝힌 것이오. 그러므로 나 같은 작은 사람이 하늘이 명하신 밝은 위엄을 받들게 되어 감히 용서하지 못한 것이오. 이에 감히 검은 소를 제물로 써서 하느님께 밝게 고하고, 하나라의 죄를 청하였소. 그리고 위대한 성인을 구하여 그와 함께 힘을 합쳐 백성들과 더불어 하늘의 명을 청하였소.

하느님은 진실로 백성들을 도우시어 죄인을 내치고 굴복시켰소. 하늘의 명이 어그러지지 않음은 찬연한 풀과 나무 같으니, 모든 백성들은 참으로 변성하게 된 것이오.

나 한 사람에게 그대들의 나라를 화하여 편안하게 하도록 하였소. 내가 하늘과 땅에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 두렵고 걱정스럽기가 깊은 뜻에 떨어지는 것 같소.

무릇 우리 새 나라는 법이 아닌 것은 좋지 말고, 방자하고 방탕함에 나아가지 말고 각각 그대들의 법도를 지켜 하늘의 아름다운 명을 받들도록 하오.

그대들이 착하면 나는 숨겨 두지 않을 것이며, 죄가 내게 있으면 감히 스스로 용서

하지 않을 것인 바, 오직 살펴보심은 하느님의 마음에 달려 있소. 그대들 온 세상에 죄가 있다면 나 한 사람에게 있고, 나 한 사람에 죄가 있다면 온 세상 사람은 상관이 없을 것이오.

“오오! 일을 정성껏 할 수 있어야 끝이 좋을 것이오.”

王歸自克夏, 至于毫。誕告萬方。

王曰：“嗟爾萬方有衆！明聽予一人誥。惟皇上帝，降衷于下民，若有恒性，克綏厥猷惟后。

夏王滅德作威，以敷虐于爾萬方百姓，爾萬方百姓，罹其凶害，弗忍荼毒。竝告無辜于上下神祇。天道福善禍淫，降災于夏，以彰厥罪。

肆台小子，將天命明威，不敢赦。敢用玄牡，敢昭告于上天神后，請罪有夏。聿求元聖，與之戮力，以與爾有衆請命。

上天孚佑下民，罪人黜伏。天命弗僭，責若草木，兆民允殖。

俾予一人，輯寧爾邦家。茲朕未知獲戾于上下。慄慄危懼，若將隕于深淵。

凡我造邦，無從匪彝，無卽慆淫。各守爾典，以承天休。

爾有善，朕弗敢蔽，罪當朕躬，弗敢自赦，惟簡在上帝之心。其爾萬方有罪，在予一人，予一人有罪，無以爾萬方。

嗚呼！尚克時忱，乃亦有終。”

[통설] 탕임금이 하나라를 정벌하여 이기고, 박 땅으로 돌아와 만백성들에게 크게 고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오오! 모든 나라 대중들이여! 나 한 사람의 고사(誥詞)를 분명히 들으시오. 거룩하신 하느님께서는 착한 마음을 백성에게 내려 주셨소. 언제나 변함없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백성의 생활을 안정하게 하는 길을 세우는 사람만이 천하의 임금이 될 수 있소.

그런데 하나라 임금은 자기에게 부여한 덕을 없애 버리고, 다만 살육의 위엄을 마

구 떨치고 그 흉악한 폭정을 만백성들에게 함부로 자행하였소. 그리하여 만백성들이 이 흉악한 해독에 걸려들게 되었소. 그 불행과 고통은 마치 씹바귀가 입맛에 쓴 것 같이 독사가 사람을 무는 것같이 참을 수가 없었기에, 백성들은 입을 모아 그 원통하고 죄가 없음을 천지신명에게 호소하기에 이르렀소. 천도(天道)는 지공무사(至公無私)하여 선한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음란한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는 법이오. 이제 하나라 임금이 음탕하고 포악하여 백성들에게 원망을 샀으므로, 하느님은 재앙을 하나라에 내려서 그 죄악을 천하에 밝히게 된 것이오.

그러므로 나는 하늘이 명하신 위엄을 받들어 하나라의 죄악을 결코 용서하지 못하게 되었소. 이에 검은 황소를 희생으로 바쳐 거룩하신 하느님에게 명백히 고하여 그 죄상을 폭로하고, 하나라에 별을 내려 주실 것을 빈 것이오. 그러나 나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드디어 위대한 성인 이윤(伊尹) 같은 이를 구하여, 이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여 그 죄를 정벌하고 백성을 위로하려는 것이오. 그리하여 그대들 백성과 함께 간구할 수 있기를 하늘에 간절히 빌게 된 것이오.

하늘은 천하의 백성을 진실로 도와 주셨소. 그래서 죄인 하桀(夏桀)을 남소(南巢)의 먼 곳에 내쳐 버렸던 것이오. 하느님의 명령은 결코 어그러지지 않을 것이오. 이 봄에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하듯이 얹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살아나게 하셨소.

이제 죄인을 이미 내쳐 버렸으나 백성의 임금이 없으므로, 하느님은 나에게 그대들 나라와 집안을 화목하고 편안하게 하는 책임을 맡기신 것이오. 그러나 나는 하나라 걸을 친 것이 도리어 천지의 귀신에게 죄를 짓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에, 두렵고 위태로운 마음이 마치 깊은 뜻에 떨어지는 것 같았소.

우리가 새로 만든 나라의 여러 제후들은 법이 아니면 죽지 말 것이며, 욕심에 매어 방자하고 음탕한 데로 나가지 말 것이며, 모두 공경하여 떳떳한 법도를 지켜 나의 화목하고 편안히 하려는 일을 도와, 다 함께 하느님의 아름다운 명을 받도록 할 것이오.

그대들이 만약 착한 일이 있으면 나는 숨기고 가리지 않을 것이며, 만약 나에게 죄가 있다면 또한 감히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착한 것이 있고, 죄가 있는 것을 하나

하나 살펴 가리심은 오직 하느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니, 우리는 모두 다 그 바른 길을 힘껏 따라갈 뿐이오. 그러나 하느님은 이미 나에게 만방(萬方) 임금으로 명하셨으니, 나의 책임은 더욱 중차대(重且大)함을 느끼고 있소. 그러므로 그대들 만방에 죄가 있을 때는 그것은 나 한 사람의 책임이지만, 나 한 사람이 죄가 있을 때는 그대를 만방의 임금에게 그 죄를 전가하지 않을 것이오.

오오! 나와 그대들이 다 진실하여 시작은 하였으나 그 끝을 보전하기 쉽지 않음을 알아 저마다 성실히 노력해야만 왕업의 융성을 영원히 기약할 것이오.”

皇上帝(황상제) : 대천제의 뜻.

衷(충) : 하늘이 내린 명으로 인의예지신의 이치를 갖춘 것.

猷(유) : 도(道)를 말함.

荼毒(도독) : 도(荼)는 쓈바귀. 독(毒)은 별이나 독사의 독. 쓈바귀처럼 쓰고 독충의 독처럼 지독한 괴로움을 이름.

上下神紙(상하신기) : 천지의 귀신.

肆(사) : 고(故)와 같음.

玄牡(현모) : 검은 황소. 제물로 쓸.

昭告(소고) : 밝게 고함.

元聖(원성) : 대성. 다음에 나오는 이윤(伊尹)을 가리킴.

獲戾(획려) : 죄를 지음.

慄慄(율률) : 두려워하는 모양.

造邦(조방) : 새로 만든 나라.

惛淫(도음) : 방자하고 음탕함.

天休(천휴) : 아름다운 명.

尙(상) : 그리고의 뜻.

이훈(伊訓)

이(伊)는 이윤(伊尹)이니, 탕임금이 후한 예(禮)로 세 번이나 반계(磻溪)에 나아가 이윤을 찾아보고 보필해 줄 것을 간청하여 승낙을 얻은 후 재상을 삼았다. 훈(訓)은 교훈의 뜻이다.

이 편은 태갑(太甲)이 왕위에 오른 뒤 이윤이 글을 지어 훈계한 것이다.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 있다.

태갑 원년 십이월 을축(乙丑)일에 이윤이 선왕께 제사를 지냈는데, 뒤를 이은 임금을 받들어 그 조상을 경건히 뵙게 하였다. 후복(侯服)과 전복(甸服) 여러 제후들이 모두 있었고, 모든 관리들도 자기 직무를 가지고 재상의 말을 들었다. 이윤이 공이 빛난 조상이 이루어 놓으신 덕을 밝게 말하며 임금에게 교훈하였다.

“오오! 옛날 하나라의 선대 임금은 그 덕을 힘쓰셨기에 하늘의 재앙이 있지 않았고, 산과 내의 귀신들도 모두 편안했으며, 새와 짐승과 물고기와 자라들까지도 다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 자손에 이르러 선왕을 따르지 않자, 하늘이 재앙을 내려 천 명을 받은 우리 손을 빌려 명조(鳴條)에서부터 정벌하도록 하였고, 우리는 박(毫)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상나라 임금님은 그 성덕과 위무(威武)를 펴 밝히시고, 너그러움으로써 포학함을 대신하시니, 모든 백성들이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임금님은 그분의 덕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처음 하기에 달렸으니 사랑을 세우시되 어버이로부터 하시며, 공경함을 세우시되 노인으로부터 하십시오. 집과 나라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에 두루 미치도록 하셔야 합니다.

오오! 선왕께서는 사람의 기강을 닦으시어 간함을 쫓아 어김이 없으셨으며 선현들을 따르게 하셨으며, 윗자리에 계셔서는 총명하셨으며 아랫자리에서는 충성을 다 하셨으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갖추기를 구하지 않으셨으며, 몸을 거두심에는 부족함 있는 것 같이 하시어 온 나라를 거느리기에 이르셨으니, 이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널리 어진 사람을 구하시어 후손을 돋게 하셨습니다.

국가의 형법을 제정하시고 벼슬하는 이들에게 경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궁중에서 춤을 추고 실내에서 취하여 노래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무당 바람이라 부르는 것이요, 재물과 여색을 따르고 항상 놀이와 사냥을 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음탕한 바람이라 부르는 것이요, 성인의 말씀을 모욕하고 충직한 말을 거스르며 덕 있는 노인을 멀리하고 오만하고 사나운 사람을 친하게 사귄다면 이는 어지러운 바람이라 이르는 것이오. 이 세 가지 바람과 열 가지 허물을 벼슬하는 선비들이 한 가지라도 몸에 지니고 있다면 집안이 반드시 망할 것이며, 나라 임금이 한 가지라도 몸에 지니고 있다면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니, 신하가 이 일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형벌은 묵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오! 뒤를 이은 임금님께서는 자신을 공경하여 잘 생각하십시오. 선인의 법은 크고 넓어서, 아름다운 말씀은 심히 밝습니다. 하느님은 일정하지 않으셔서, 착한 일을 하면 그에게 온갖 복을 내리시고 착하지 않은 일을 하면 그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십니다. 당신께서 덕을 행하시되 작은 것이라 하여 소홀히 생각지 않으신다면 온 나라가 경사스러울 것입니다. 당신께서 덕이 아닌 일을 행하시되 큰 것이 아니라고 소홀히 생각하신다면 종사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惟元祀，十有二月，乙丑，伊尹祠于先王。奉嗣王祇見厥祖。侯甸羣后咸在，百官總己以聽冢宰。伊尹乃明言烈祖之成德，以訓于王。

曰：“嗚呼！古有夏先后，方懋厥德，罔有天災。山川鬼神，亦莫不寧，暨鳥獸魚鼈咸若。于其子孫弗率，皇天降災，假手于我有命，造攻自鳴條，朕哉自毫。

惟我商王，布昭聖武，代虐以寬，兆民允懷。

今王嗣厥德，罔不在初，立愛惟親，立敬惟長，始于家邦，終於四海！

嗚呼！先王肇修人紀，從諫弗咶，先民時若。居上克明，爲下克忠，與人不求備，檢身若不及。以至于有萬邦，茲惟艱哉。

敷求哲人，俾輔于爾後嗣。

制官刑，儆于有位，曰：‘敢有恒舞于宮，酣歌于室，時謂巫風。敢有殉于貨色，恒于

遊畋, 時謂淫風。敢有侮聖言, 逆忠直, 遠耆德, 比頑童, 時謂亂風。惟茲三風十愆。卿士有一于身, 家必喪。邦君有一于身, 國必亡。臣下不匡, 其刑墨。' 具訓于蒙士。嗚呼! 嗣王祇厥身, 念哉。聖謨洋洋, 嘉言孔彰。惟上帝不常, 作善降之百祥, 作不善降之百殃。爾惟德罔小, 萬邦惟慶。爾惟不德罔大, 墜厥宗。"

[통석] 태갑이 즉위하여 원년 십이월 을축일에 이윤이 선왕 탕임금께 제사를 지냈는데, 뒤를 이을 임금 태갑을 인도하여 공경히 그 조부의 영전에 나아가 뵙게 하였다. 이때, 기내(畿內) 영주들과 여러 나라의 제후들이 다 태갑의 뒤를 따르고 백관이 저마다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재상 이윤의 명을 따랐다. 이에 공훈이 많은 선왕 탕임금의 완전하고 훌륭한 덕을 분명히 말하여, 임금 태갑을 가르쳐 일렀다.

"오오! 옛날 우리나라의 선군들은 언제나 덕을 힘써 닦았으므로 하느님은 재해를 내린 일이 없었습니다. 산천의 귀신들도 또한 화순하여 편안하지 않음이 없었고, 새와 짐승과 고기와 자라까지도 다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 결왕의 때에 이르러, 선조께서 닦아온 바른 길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거룩하신 하느님은 우리나라에 재앙을 내리고, 다시 우리나라의 천명을 받으신 탕임금의 손을 빌어 결을 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왕들이 덕을 힘써 닦을 때에는 하느님의 돌보아 주심이 저려하셨는데, 그 자손들이 바른 도를 따르지 아니함에 뒤엎어 버리는 재화가 또 이어했습니다. 임금(태갑)께서 탕임금의 덕을 따르지 않으신다면, 우리나라 결왕의 멸망한 재화에 거울삼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탕임금께서 결을 칠 수 있는 틈을 만든 것은, 결이 명조(鳴條)에서 악을 쌓았고, 우리 임금께서는 박(毫)에서 덕을 닦아 나라를 잘 다스린 데서 유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상나라 임금 성탕께서 의리로 용력을 떨쳐 결왕을 쳐서 위덕을 펴 밝히시고, 우리나라의 포악한 학정을 제거하고 너그럽고 어진 정치로써 대신하심에, 모든 백성들은 진심으로 믿어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임금께서는 선왕 탕임금의 덕을 이어받으려 하시매, 무엇보다도 임금 자리에

나가는 처음을 삼가셔야 합니다. 처음을 삼가는 길은 효제(孝悌)만큼 큰 것이 없으니, 임금님께서 백성들에게 자기 어버이를 사랑하게끔 하려면, 먼저 내 부모에게 효성을 극진히 함으로써 사랑함이 여기서부터 일어날 것이요, 백성들에게 어른을 공경하게끔 하려면 먼저 내 어른에게 공경을 극진히 함으로써 공경함이 여기서부터 세워질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집안과 나라에서부터 감화되기 시작하여 마침내 온 세상에 퍼지는 것입니다.

오오! 선왕 탕임금께서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지켜 행할 법도를 정돈하고 신하들이 간하는 말을 거스르지 않고 따랐으며, 사람을 쓸 때에는 덕이 있는 늙은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윗자리에 서서 사람을 다스릴 때에는 말을 듣고 일을 결단함에 있어서, 의혹함이 없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도리를 살펴 다하셨고, 사람의 아랫자리에 있을 때에는 어진 사람을 추천하고, 또 어려운 일에도 회피하지 않고 윗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사람의 착한 것을 취하는 데는 완전히 갖추기를 구하지 않으셨으며, 자신을 살피시는 데는 항상 미치지 못했는가를 반성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심으로써 덕이 더욱 높아지고 다스리는 일이 넓어져 하느님이 돌보시고 백성들이 따르게 되어 칠십 리의 제후로서 온 천하를 거느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탕임금께서는 현철한 인재를 널리 구하시어 뒤를 이을 후손 임금님을 보좌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관청의 형벌을 제정하여 사람을 다스리는 직위에 있는 이들을 경계 하셨습니다. 절도가 없이 감히 궁중에서 춤을 주고 방에서는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고 하는 짓을 무당 바람(巫風(무풍))이라고 합니다. 재화와 여색을 쫓아 구하고 제한 없이 사냥놀이를 일삼는 짓을 음탕한 바람(淫風(음풍))이라고 합니다. 또 한 성인들의 말씀을 모독하고 충성되고 정직한 사람의 간하는 말을 듣지 않으며, 나이가 많고 덕이 높은 사람을 멀리하고 사물의 이치에 어두운 어리석은 자를 친근히 하는 그러한 짓을 어지러운 바람(亂風(난풍))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바람의 열 가지 허물 가운데 삼공(三公)이나 사대부들이 그 한 가지라도 지니게 되면, 그 집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나라의 제후들이 한 가지라도 지니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신하가 된 사람 중에 그의 임금이나 윗사람을 충간하여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그 자에게는 얼굴에 먹을 넣어 새기는 형벌(墨刑(목형))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 여러 가지 사항을 아래에 있는 어린 선비들에게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도록 하셨습니다.

“오오! 뒤를 이은 임금이시여! 마땅히 세 가지 바람과 열 가지 허물의 교훈으로써 자신을 삼가고 마음에 늘 생각하시어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선왕 탕임금의 교훈은 크고 밝으시니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은 언제 까지나 변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온갖 복을 내리시고, 착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온갖 재앙을 내리십니다. 임금님께서 덕을 행하실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천하의 여러 나라는 그것에 힘입어 경축할 것이요, 임금님께서 덕이 아닌 일을 행할 때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조부터 내려온 나라를 망치고 말 것입니다.”

元祀(원사) : 원년, 즉 태갑(太甲)이 즉위한 원년. 하(夏)는 세(歲)로, 상(商)은 사(祀)로, 주(周)는 연(年)으로 불렀다.

祠(사) : 태갑이 즉위함을 고하는 제사임.

先王(선왕) : 탕임금을 가리킴.

厥祖(厥조) : 탕임금을 가리킴.

後甸(후전) : 후복과 전복(<우공>편 참조).

總己(총기) : 백관들이 각각 자기의 직책을 가지고의 뜻.

冢宰(총재) : 재상의 뜻.

烈祖(열조) : 공이 많은 조상. 곧 탕임금.

弗率(불솔) : 따르지 않음.

鳴條(명조) : 하나라의 도읍지.

哉(재) : 시작의 뜻.

布昭(포소) : 펴서 밝힘.

人紀(인기) : 사람의 기강. 곧 삼강오륜.

檢身(검신) : 몸을 살핌.

三風(삼풍) : 무풍(巫風) · 음풍(淫風) · 난풍(亂風)을 가리킴.

蒙士(몽사) : 어리고 배우는 선비.

謨(모) : 법, 곧 교훈.

不常(불상) : 일정하지 않음.

罔小(망소) : 작게 여기지 않음. 망대(罔大)는 크게 여기지 않음.

宗(종) : 종사, 곧 나라의 뜻.

태갑 상(太甲 上)

태갑 상 · 중 · 하 세 편은 상나라 사관이, 이윤(伊尹)이 태갑에게 고계(告戒)한 말과 태갑과 주고받은 대화를 기록한 글이다. 이 글은 앞뒤 문장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간간이 사관의 말을 붙여 넣어 전편의 뜻이 통하게 하였다. 이훈(伊訓) · 사명(肆命) · 조후(徂后) · 태갑(太甲) · 함유일덕(咸有一德)은 모두 이윤이 태갑에게 고계한 것인데, 다 이훈이라고 이름할 수 없으므로 그때마다 사실에 따라 명칭을 붙인 것이다. 이 편도 교훈의 문체로 되어 있는데, 금문에는 없고 위고문에 들어 있다.

대를 이은 임금이 아형(阿衡)을 따르지 않았다.

이윤이 글을 지어 아뢰었다.

“선왕께서는 하늘의 밝은 명하심을 돌보시어 천지의 신들을 받드셨으며 사직과 종묘에 공경하지 아니하심이 없었으니, 하늘은 그분의 덕을 보시고 큰 명을 모으시어 온 나라를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셨습니다. 저 윤은 몸소 그 임금님을 도와서 백성들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기업(基業)을 크게 이으시게 되었습니다.

저 윤이 몸소 서읍(西邑) 하나라를 살펴보니, 임금님이 충신(忠信)으로써 끝을 잘 맺으니 돋는 신하들도 또한 끝을 잘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임금님들이 능히 끝을 맺지 못하자 돋는 신하들도 끝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경계하시어 당신의 그 법도를 공경하소서. 임금께서 임금 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그 조상을 욕되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이 평범히 여겨 들을 생각도 하지 않자, 이윤이 또 말하였다.

“선왕께서는 이른 새벽부터 크게 밝히시려 하여 앉아서 아침을 기다리셨고, 두루 뛰어나고 어진 사람들을 구하여 뒷사람들에게 길을 열어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의 명을 저버려서 스스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검소한 덕을 삼가 닦으시어 영원한 계획을 생각하소서.

우인(虞人)이 쇠뇌의 활시위를 잡아당겨 놓고 가서 화살꼬리를 살펴 법도에 맞으면 쏘는 것처럼 하시어, 그 멈추는 곳을 공경하시고, 당신의 조상께서 행하신 바를 따르시면 저 윤이 기뻐할 것이오며, 만세토록 기립을 받으실 것입니다.”

임금이 그래도 달라지지 않자 이윤이 말하였다.

“이분의 불의는 습관적인 성격이 되었으니 나는 의를 쫓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하지 않으리라. 동궁(桐宮)을 세우고 선왕을 가까이하게 하여 그분을 교훈함으로써 평생토록 미혹되지 않게 해드리리라.”

이에 임금은 동궁으로 가서 거상(居喪)하게 되고 마침내 그 덕을 믿게 되었다.

惟嗣王不惠于阿衡。

伊尹作書, 曰：“先王顧諟天之明命, 以承上下神祇。社稷宗廟, 囂不祇肅, 天監厥德, 用集大命, 撫綏萬方。

惟尹躬克左右厥辟, 宅師。肆嗣王不承其緒。惟尹躬先見于西邑夏, 自周有終, 相亦惟終, 其後嗣王, 囂克有終, 相亦囂終。嗣王戒哉, 祇爾厥辟。辟不辟, 忝厥祖。王惟庸罔念聞。

伊尹乃言曰：“先王昧爽不顯, 坐以待旦, 旁求俊彥, 啓迪後人, 無越厥命以自覆。慎乃儉德, 惟懷永圖!

若虞機張, 往省括于度, 則釋, 欽厥止, 率乃祖攸行。惟朕以懼, 萬世有辭。王未克變。”

伊尹曰：“茲乃不義, 習與性成。予弗狎于弗順。”營于桐宮, 密邇先王其訓, 無俾世迷。

王徂桐宮居憂。克終允德。

[통석] 뒤를 이은 임금 태갑은 아형 이윤의 가르침을 쫓지 아니했다. 이에 이윤은 글을 지어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선왕께서는 하늘이 부여하신 밝은 명을 언제나 삼가 생각하시어, 하늘과 땅의 신

기(神祇)들을 받들어 따르고, 또 사직과 종묘의 제사를 엄숙히 거행하셨습니다. 하늘은 탕임금의 덕을 돌보시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임금이 되라는 대명을 탕임금에게 내리시어, 온 세상을 다스려 편안하게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저 윤도 자신이 정려하여 임금님을 도와서 백성 대중들로 하여금 저마다의 생업을 안정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뒤를 이은 임금께서 선왕의 기업을 크게 계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윤이 몸소 처음 서쪽 하나님 나라의 도읍을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임금들은 진심으로 충신을 다하여 왕업을 계승하였고, 이분들을 돋는 신하들도 각자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임금들은 왕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분들을 돋는 신하들도 맡은 일을 끝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뒤를 이은 임금님이시여! 스스로 경계하십시오. 임금의 자리에 있는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임금이 임금으로서의 덕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분의 조상 곧 성당을 욕되게 할 뿐입니다.”

그래도 임금 태갑은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조금도 달라지는 일이 없었다. 마음으로 이윤의 충언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이윤은 거듭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왕께서는 착한 덕을 힘써 닦으심에 편안히 계실 겨를이 없어,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 정신을 맑게 하시어, 모든 잡념을 씻어 버리고 그 덕을 크게 밝히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에 얹는 바와 사리의 마땅히 행할 것이 있으면 급급연(汲汲然)히 앓아 날 새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그 후대 자손들이 연안(宴安)과 일락(逸樂)에 빠져 선왕의 도를 따르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널리 사방의 어진 인물을 구하여 후세 임금이 될 사람을 가르쳐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뒷사람(太甲(태갑))은 마땅히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 그 덕을 공경히 따를 뿐, 그분이 어진 이를 구하여 후손을 가르치신 명을 뒤엎어 스스로 멸망함을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하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검소한 덕을 삼가 닦으시며 일체 호사 일락의 일이란 모두 다 끊어 버리시고 왕업을 영구히 계승할 것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마치 우인(虞人)이 쇠뇌의 활시위를 잡아당겨 놓고, 반드시 가서 화살 꼬리를 살펴 법도에 맞는가를 조정한 뒤에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이, 반드시 그 중정(中正)의 도리를 닦아 마땅히 멈출 곳에 공경히 멈추고, 조상 탕임금의 행하신 일을 따라 죽으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저 윤의 마음도 크게 기뻐할 것이며, 후세에 옛일을 의논하는 사람들도 임금님을 찬상할 것입니다.”

그래도 임금은 이제까지의 행동을 조금도 뉘우치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이윤은 한숨을 쉬며 혼잣말로 말했다.

“내 이제 임금의 한 바를 살펴보건대 불의한 일이 많았으니 그 습성이 깊어 천성을 이루었다. 이것은 분명히 돋는 신하들이 임금을 불의로 인도한 것이다. 나는 임금이 이러한 불의한 소인들과 친압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이에 궁실을 동(桐) 땅에 짓고, 임금으로 하여금 선왕 성탕의 묘소 가까이 거처하여 아침저녁으로 애모하게 해야겠다. 그리되면 자연히 선왕의 신령에 감화되어, 일생토록 미혹하여 깨치지 못함이 없게 되리라.”

그 결과 태갑이 동궁에 가서 삼 년간 거상하게 되었고, 과연 스스로 원망하고 스스로 다스려 인(仁)에 처하고 의(義)로 옮아가, 지난날의 잘못을 깨달아 드디어 윤신(允信)의 덕으로 마치게 되었다.

惠(혜) : 순종의 뜻.

阿衡(아衡) : 이윤의 관명. 《사기》에는 이윤의 이름으로 되어 있음.

諦(시) : 시(是)와 통하는 조사.

上下(상하) : 상천하지(上天下地)의 준말.

神祇(신기) : 천지의 신을 통틀어 하는 말. 천신지기.

社稷(사직) : 사(社)는 토신, 직(稷)은 곡신을 의미하는데, 옛날 임금은 반드시 사직단을 세워 신에게 제사 하였던 바, 뒤에는 나라의 뜻으로 쓰였음.

左右(좌우) : 보좌의 뜻.

基緒(기서) : 기업(基業)과 유서(遺緒)의 뜻.

周(주) : 충신의 뜻.

相(상) : 돋는 재상.

庸(옹) : 상(常)과 같아, 변함이 없이 전과 같다는 뜻.

昧爽(매상) :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이른 새벽.

丕顯(비현) : 크게 밝힘.

俊彥(준언) : 뛰어나고 착한 선비.

虞人(우인) : 사냥을 감독하는 사람.

機(기) : 쇠뇌(鷦鷯(노야))의 시위.

張(장) : 시위를 잡아당겨 놓는 것.

省括(성괄) : 오늬를 살펴보는 것. 오늬는 화살의 꼬리.

釋(석) : 쇠뇌를 쓰는 것. 쇠뇌의 시위를 잡아당겨 놓고 그 화살이 제대로 매어졌는가 살펴본 뒤에 제대로 매어졌으면 쓰는 것처럼, 정치도 임금 자신이 덕을 닦은 뒤에 신하나 백성들의 동정을 살펴서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이 내려지거든 시행하라는 뜻.

厥止(궐지) : 땀추어 머물러 있어야 할 곳. 〈의직〉편의 '안궐지(安厥止)', 《대학》의 '군지어인 자지어효(君止於仁 子止於孝)'의 '지(止)'와 같음.

朕(침) : 나라는 뜻으로 이윤 자신을 가리킴.

習與性成(습여성성) : 습성이 오래 가면 천성을 이룬다는 뜻.

弗順(불순) : 순종하지 않음.

桐(동) : 산서성 영하현의 지명. 탕(湯)의 묘가 있던 곳.

居憂(거우) : 거상(居喪)의 뜻.

태갑 중(太甲 中)

이 편은 태갑이 개과천선한 뒤에 이윤이 그분을 격려한 글이다.

태갑 삼년 십이월 초하룻날, 이윤은 관면(冠冕)과 예복을 가지고 가서 임금을 받들어 박(毫)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글을 지어 아뢰었다.

“백성은 임금이 아니면 서로 바로잡아 살 수가 없고, 임금은 백성이 아니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상나라 왕실을 돌보시어 임금으로 그 덕을 다할 수 있게 하셨으니, 실로 만세토록 그지없는 축복입니다.”

임금은 손을 이마에 대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하셨다.

“나 소자(小子)는 덕에 밝지 못하여 스스로 불초한데 이르러 욕심으로 법도를 어기고 방종함으로 예를 떨어뜨려 이 몸에 죄를 불러들였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어길 수가 있으되 스스로 지은 재앙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 지난날에 스승이면서 보호자이신 분의 가르침을 어겨 나의 처음을 삼가지 못하였습니다. 바로잡아 구하여 주신 덕에 힘입어 마지막까지 잘해보려 생각합니다.”

이윤이 손을 이마에 대고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몸을 닦아 미더운 덕이 아래와 화합하는 이는 밝은 임금님이신 것입니다.

선왕께서는 곤궁한 사람들을 아들처럼 사랑하시니 백성들은 그분의 명을 복종하여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던 이웃 제후들의 백성들까지도 ‘우리 임금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임금님이 오시면 별이 없어질 텐데’라고 말하였습니다.

임금님께오서는 당신의 덕을 힘쓰시고 당신의 빛나신 할아버지를 본받아 한때도 편안하고 계을려지려 하지 마십시오.

선조를 받들 때는 효도로 생각하시고 신하를 받들 때는 공손함을 생각하시며, 먼 데를 보시되 밝음을 생각하시고 덕을 들으시되 귀밝음을 생각하시면, 저는 임금님의 아름다움을 받드는 데 싫어함이 없을 것입니다.”

惟三祀，十有二月朔，伊尹以冕服，奉嗣王歸于亳。

作書曰：“民非后，罔克胥匡以生。后非民，罔以辟四方，皇天眷佑有商，俾嗣王克終厥德，實萬世無疆之休。”

王拜手稽首曰：“予小子不明于德，自底不類，欲敗度，縱敗禮，以速戾于厥躬。天作孽猶可違，自作孽不可逭。既往背師保之訓，弗克于厥初，尚賴匡救之德，圖惟厥終。”

伊尹拜手稽首，曰：“修厥身，允德協于下，惟明后。

先王子惠困窮，民服厥命，罔有不悅，竝其有邦，厥隣乃曰：‘溪我后，后來無罰？’

王懋乃德，視乃烈祖，無時豫怠！

奉先思孝，接下思恭。視遠惟明，聽德惟聰。朕承王之休無斁。”

[통석] 태갑 3년 12월 초하룻날에 태갑이 이미 허물을 뉘우쳐 덕을 닦았으며 또 상기(喪期)도 이미 마쳤다. 이윤은 곤룡포와 면류관, 길복(吉服)을 가지고 태갑을 받들어 동궁으로부터 박도(亳都)에 돌아왔다.

이윤은 이에 글을 지어 경사로운 뜻을 올렸다.

“백성은 임금이 있어서 다스리지 않으면 서로 부정을 바로잡아 생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임금은 백성이 있어서 받들지 않으면 천하에 군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하늘은 우리 상나라를 도와서 뒤를 이은 임금님을 가르쳐 하루아침에 번연히 깨달아 그 덕을 영원히 보전하게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만대에 이르도록 그지없는 아름다운 경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임금 태갑은 올린 글월을 읽고 심심히 전일의 허물을 뉘우쳐 큰절을 하고 이윤에게 말하였다.

“나 소자는 혼매하여 덕에 밝지 못해 스스로 착하지 못한 일을 저질렀소. 욕심은 절제가 없어 일을 처리하는 법도를 무너뜨렸고, 방종함은 제한이 없어 몸을 닦아가는 예를 어지럽혀 스스로 내 몸에 죄를 불러들였소. 무릇 하늘이 내린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가 있지만, 사람이 스스로 착하지 못한 짓을 하여 저지른 재앙은 피할

수 없는 것이오. 내 지난날에 사보(師保)의 밝은 가르침을 어겨 왕업의 처음을 삼가지 못하였소. 지금부터는 사보의 바로잡아 주시는 덕에 힘입어 유종의 미를 도모할 것을 생각할 뿐이오.”

이에 이윤은 큰절을 올리고 말하였다.

“자신의 덕을 바르게 닦아 그 진실한 덕이 아래 백성의 마음에 화합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현명한 임금이란 우리 선왕 탕임금보다 더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선왕께서는 어진 정치를 펴시어 곤궁한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시되 훌아비와 훌어미, 고아와 자식 없는 늙은이, 그리고 질병에 고통 받는 사람을 더욱 불쌍히 여기시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읍(亳邑)의 백성들은 모두 다 그분의 명령을 기쁘게 복종하여 마치 아들이 부모를 떠받들 듯하였던 것입니다. 이 박읍의 백성뿐만 아니라 당시 이웃 제후들과 그 나라의 백성들도 서로들 말하기를, ‘우리들은 곤궁하여 살 수가 없으니 우리 탕임금이 오셔서 구해주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임금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들을 포악과 혹멸(酷罰)의 괴로움에서 건져 주실 텐데’ 하고 우러러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선왕께서는 성심으로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천하와 인심을 이렇듯이 얻었던 것입니다.

이제 임금께서도 임금 자리에 오르셨으니 선왕의 업을 이어가시는 처음이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당신의 조상이신 탕임금의 하신 바를 보시고 모범을 삼으십시오. 오직 날로 힘쓰시어 한때라도 편안하고 게을리 마소서. 조상을 반드시 받드실 때는 효도를 다할 것을 생각하시고, 아래 신하들을 대하실 때는 공경할 것을 생각하여 주소서. 먼 곳의 일까지 밝게 보심을 생각하실 것이며 덕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총명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임금님께서 이 네 가지 일에 진실로 깊이 생각하시고 힘써 행하시면 저희들은 임금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어받들어 싫어함이 없을 것입니다.”

拜水稽首(배수계수) : 두 손을 이마에 대고 허리를 깊이 굽혀 이마를 땅에 갖다 대는 큰절.

不類(불류) : 불초(不肖)와 같음.

師保(사보) : 스승이며 보호자가 되는 것, 즉 이윤을 가리킴.

有邦(유방) : 나라를 다스리는 제후.

僕我后(혜아후) : 우리 탕임금을 기다림.

無罰(무벌) : 별이 사라질 것이다. 형벌뿐 아니라 모든 근심 걱정을 통틀어 이른 말.

休(휴) : 훌륭한 업적을 아름다움이라 표현하였다.

태갑 하(太甲 下)

태갑 상편은, 태갑이 허물이 있을 때 이윤이 지나치게 격려하지 않고 그윽히 그 기심(機心)을 돌리려 하였으므로 그 말이 완곡하셨다. 그리고 중편은 태갑이 잘못을 뉘우치려는 처음이기에 이윤이 스스로 기뻐서 위로가 되었으므로 그 말이 온화하였다. 마지막 하편은 태갑이 허물을 고친 뒤에 이윤이 혹시나 태갑이 그 끝을 마치지 못할까 염려하여 지었으므로 그 말이 깊고 또 염격하다.

이윤이 거듭 임금에게 아뢰었다.

“오오! 하늘은 특별히 친함이 없으시어 공경하는 사람만 친하시며, 백성들은 일정한 생각이 없어 어진 이를 생각하며, 귀신은 일정한 누림이 없어 정성을 다하는 데 흠향합니다. 천자의 자리란 어려운 것입니다.

덕으로 하면 다스려지고, 덕이 아니면 어지럽습니다. 다스린 이들과 도를 같이 하면 흥하지 않는 이가 없고, 어지러운 이와 도를 같이 하면 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같이 하는 도를 삼가는 이는 밝고 밝은 임금이 됩니다. 선왕께서는 때때로 그 덕을 힘쓰고 공경하시어 능히 하느님을 찍하셨습니다. 지금 임금께서는 훌륭한 유서(遺緒)를 이어 받으셨으니 바라옵건대 이를 살펴보실 것입니다.

높은 데 오르려면 반드시 아래서부터 시작하고, 먼 데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일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시며, 임금 자리를 편안히 여기지 마시고 위태롭게 생각하소서. 끝을 삼가려면 처음부터 잘하소서.

당신의 마음에 거스르는 말이 있거든 반드시 도에 맞는가 생각해 보시고, 당신의 뜻에 맞는 말이 있거든 반드시 도에 맞지 않나 생각해 보소서.

오오! 생각지 않으면 무엇을 얻고, 하지 않으면 무엇을 이루리오. 한 사람이 크게 어질면 온 나라가 바르게 될 것입니다.

임금은 말을 교묘히 하여 옛 정치를 어지럽히지 아니하며, 신하는 총애와 이익으

로 이룬 공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나라가 영원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伊尹申誥于王曰：“嗚呼！惟天無親，克敬惟親。民罔常懷，懷于有仁，鬼神無常享，享于克誠，天位艱哉！”

德惟治，否德亂。與治同道，罔不興。與亂同事，罔不亡。終始慎厥與，惟明后。

先王惟時懋敬厥德，克配上帝。今王嗣有令緒，尚監茲哉！

若升高，必自下。若陟遐，必自邇。

無輕民事惟難，無安厥位惟危，

慎終于始。

有言逆于汝心，必求諸道。有言遜于汝志，必求諸非道！

嗚呼！弗慮胡獲，弗爲胡成？一人元良，萬邦以貞。

君罔以辯言亂舊政，臣罔以寵利居成功。邦其永孚于休。”

[통석] 이윤은 마지막으로 태감에게 왕자(王者)의 도를 가르치려고 다음과 같이 거듭 아뢰었다.

“오오! 하늘의 명(命)은 혹은 주고, 혹은 빼앗아 한 사람의 임금에게만 항상 친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임금이 몸가짐을 공경하여 한 가닥이라도 계으름이 없으면 하늘은 이분을 돌보시어 친하게 합니다. 백성들은 특별히 한 사람의 임금만을 따르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진 덕이 있는 임금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귀신도 항상 한 사람의 임금에게만 제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정성을 다하여 제사하는 이에게 흠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경하고, 어질고, 정성스러운 것은 임금으로서 마땅히 다할 도리인즉 천자의 자리를 보전한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덕을 행하면 자연히 하늘이 친히 하고 백성이 따르고 귀신도 흠향하여 나라가 다스려지거니와, 만일 덕이 아닌 일을 행하면 반드시 하늘은 성내고 백성은 배반하고 귀신은 원망하여 나라는 어지러워지고 말 것입니다.

다스려지는 길은 옛사람들이 이미 행한 바가 있으니, 지금 나라의 행하는 것과 옛 사람의 다스리는 바가 그 길이 같으면 흥륭하여 태평해질 것이요, 어지러워지는 길도 또한 옛사람이 행한 바가 있으니, 지금 사람의 행하는 것이 옛사람의 어지러운 것과 같으면 멸망할 것입니다.

임금의 자리에 올라서부터 오래도록 시종 어김이 없고, 항상 삼가며, 한결같이 정치를 잘하는 자를 구하고, 그 치란(治亂)의 기틀을 밝게 살피는 이만이 밝은 임금이 될 것입니다.

옛날 우리 선왕 탕임금께서는 하늘의 밝은 명을 받으시어 아침저녁으로 덕을 닦는 데 힘써, 덕이 하늘에 합하여 온 나라의 임금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임금께서는 선왕의 적손으로서 탕임금의 끼치신 통서(統緒)를 물려받아 그 덕을 공경하고 하늘에 합한 도리를 생각하시면, 모든 백성이 스스로 따르고 귀신이 스스로 흠향하게 될 것인즉 밝은 임금이 되시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는 길은 지극히 높고 멀어서 쉽게 이를 수 없는 것인즉 마땅히 앞뒤의 차례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높은 산에 오르려면 반드시 아래로부터 올라가야 할 것이요, 먼 데를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데로부터 가야 하는 것이나 마찬 가지입니다.

임금이 되신 분은 백성의 농사일을 가벼이 생각지 마시고 항상 그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임금의 자리를 안온하게 생각지 마시고 항상 그 자리를 보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사람의 정은 처음만을 생각하고 끝을 소홀히 하는 수가 많습니다. 임금께서 끝까지 선왕의 유서를 보전하여 떨어뜨리지 않을 것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임금 자리를 이어받으신 처음부터 삼가 일하셔야 합니다.

임금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으시면 감정대로 기뻐하고 성내지 마시고, 반드시 사리를 따져 옳고 그름을 판단하십시오. 사람이 진언할 때 임금의 마음에 거스르는 것이 있거든, 반드시 마음과 생각을 고요히 가져 그것이 도에 맞는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사람이 진언할 때 당신의 아름다움만 칭송하고 뜻만을 순종하는 말을 하거든, 반드시 도에 어긋나는 말이 아닌가를 생각하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오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모두 다 다스리는 방법에 있어 적절한 것이니, 임금께서 이를 들어 넘기지 말고 사례를 깊이 하시면 무슨 일인들 못 이루겠습니까? 또 생각하여 얻은 바가 있더라도 실지로 행하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실로 깊이 생각하시어 이 이치를 깨달아 얻고, 능히 행하여 이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천자가 큰 덕이 있으면 온 나라의 백성은 저절로 감발(感發)하여 서로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되신 분은 변다한 말로 옛날 탕임금의 훌륭한 정치를 바꾸거나 어지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또 신하된 이는 총애와 이익을 탐하기에 연연하고 자기의 성공에 도취돼 있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임금과 신하가 각각 그 도리를 닦아나가면, 나라는 영원토록 아름답고 화평함을 누릴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깊이 통촉하소서.”

無親(무친) : 일정하게 친한 사람이 없다는 뜻.

享(향) : 귀신이 제사를 받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는 것.

天位(천위) : 하늘의 자리로 곧 임금의 위치.

配(배) : 임금의 덕이 하늘과 합치된다는 뜻.

令緒(영서) : 탕임금의 훌륭한 유업.

陟遐(척하) : 먼 곳에 나아감.

厥位(궐위) : 임금의 자리.

諸(지) : 지어(之於)의 준말로 ‘구저도(求諸道)’는 구지어도(求之於道), 즉 말이 도에 맞는가를 생각하는 것.

遜(손) : 겸손해서 따라감.

元良(원량) : 크게 착함.

居成功(거성공) : 공을 이루어 놓은 곳에 머물러 있음.

함유일덕(咸有一德)

이 편은 이윤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글을 지어 태갑을 훈계한 것이다. 사관이 이 편 가운데 ‘함유일덕(咸有一德)’ 네 글자를 취하여 제목으로 삼았으나 별 뜻은 없다. 이 편 역시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만 있다.

이윤이 그의 임금에게 정사를 돌려 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덕으로 훈계하였다.

“오오! 하늘을 믿기 어려운 것은 천명이 떳떳하지 않아서입니다. 덕이 떳떳하면 그 자리를 보전하고, 덕이 떳떳하지 못하면 아홉 주(州)도 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임금은 덕을 힘쓰지 아니하여 신을 업신여기고 백성을 학대하였으니, 하늘이 보호하지 않으시고 온 나라를 둘러보아 명이 있는 사람을 열어 주시며, 순일한 덕이 있는 사람을 돌보아 구하시어 신(神)의 어른을 삼으셨습니다. 저 윤(尹)은 몸소 탕임금과 함께 순일한 덕을 가지고 하늘의 마음을 맞출 수 있어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 아홉 주의 백성을 다스리게 되었고 이에 우리나라의 정삭(正朔)을 바꾸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이 우리 상나라에 사사로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은 우리의 순일한 덕이 있음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상나라가 아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순일한 덕이 있는 이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덕이 순일하면 하는 일마다 길하지 않은 것이 없고, 덕이 두세 가지로 섞이면 하는 일마다 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긋나지 아니한 길함과 흉함이 사람의 행동에 달려 있고, 하늘은 재앙과 상서로움을 내리심이 덕에 있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새로이 그 명을 행하시게 되었으니, 오직 임금님의 덕을 새로이 하여 처음과 끝이 순일하면 날로 새로워지실 것입니다.

관리를 임용하되 오직 어질고 능한 사람을 쓰시며, 임금을 보필할 대신은 그에 맞는 사람을 쓰소서. 신하는 윗사람을 위해서는 덕을 닦아야 하고 아래 백성을 위해서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삼가야 할 것이니 오직 화합

하시고 오직 한결같이 하소서.

덕에는 일정한 스승이 없어 선(善)을 오로지 하는 것이 스승이며, 선에는 일정한 주인이 없어 순일한 이에게 화합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위대하도다, 임금님의 말씀이시여!’ 하게 하실 것이며, 또 ‘순일하도다, 임금님의 마음이시여!’ 하게 하셔서 선왕의 일을 편안히 받들어 영원히 백성들의 삶을 이루도록 하소서.

오오! 7대의 종묘에서 가히 그 덕을 볼 수 있으며, 만민의 어른에서 그 정치를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은 백성이 아니면 부릴 사람이 없고, 백성은 임금이 아니면 섬길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넓게 여겨 남을 좁히지 마소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다행을 얻지 못하면 백성과 임금이 다 같이 그 공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伊尹既復政厥辟，將告歸，乃陳戒于德。

曰：“嗚呼！天難謀，命靡常，常厥德，保厥位，厥德靡常，九有以亡，

夏王弗克庸德，慢神虐民，皇天弗保，監于萬方，啓迪有命，眷求一德，俾作神主。惟尹躬暨湯咸有一德，克享天心，受天明命。以有九有之師，爰革夏正，

非天私我有商，惟天佑于一德。非商求于下民，惟民歸于一德。

德惟一，動罔不吉，德二三，動罔不凶。惟吉凶不僭在人，惟天降災祥在德。

今嗣王新服厥命。惟新厥德，終始惟一，時乃日新。

任官惟賢材，左右惟其人！臣爲上爲德，爲下爲民，其難其慎，惟和惟一！

德無常師，主善爲師，善無常主，協于克一。

俾萬姓咸曰：‘大哉，王言！’又曰：‘一哉，王心！’克綏先王之祿，永底烝民之生。

嗚呼！七世之廟，可以觀德。萬夫之長，可以觀政。

后非民罔使，民非后罔事，無自廣以狹人。匹夫匹婦，不獲自盡，民主罔與成厥功。

[통석] 태갑이 임금의 덕을 이미 이루어 탕임금의 업을 충분히 계승할 수 있게 되자, 이윤은 대행했던 정사를 그의 임금 태갑에 돌려드린 뒤 고향으로 은퇴하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벼슬을 떠난 뒤에 태갑이 혹시나 덕을 손상시키지 않을까 염려되어, 이에 태갑에게 순일한 덕으로 마지막 훈계를 하였다.

이윤이 말하였다.

“오오! 임금이 천하를 다스리게 됨은 진실로 하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믿기가 어렵고 하늘의 명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임금의 덕이 어떠한 가를 보아서 진실로 임금이 사특한 것을 끊고 한시도 그 덕을 닦음을 중단함이 없으면 오래 그 자리를 보전할 것이요, 만약에 임금의 덕이 일정하지 않아 사욕에 흔들려 빠지게 되면 하늘의 명도 또한 가고, 천하도 또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하나라 걸왕은 그 덕이 일정하지 못하여 신명(神明)을 업신여기고 제사를 공경히 받들지 않으며 백성을 학대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아 민심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이를 싫어하여 도와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딴 곳에서 천명을 받은 분을 살펴보시고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 임금의 자리에 올려, 모든 신(神)의 어른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하에 이 큰 책임을 당할 사람이 없고 오직 저 윤과 탕임금이 다 같이 순일한 덕을 가졌으므로, 하늘이 주시는 뜻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 천하의 넓은 영토와 모든 백성들이 선왕 탕임금에게 모두 돌아가 따랐습니다. 이에 하나라의 건인(建寅)의 정삭(正朔)을 개혁하고 건축(建丑)의 정삭을 정했던 것입니다.

하늘은 사사로이 우리 상나라를 후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친한 이를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오직 순일한 덕이 있는 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나라는 임금과 신하가 다 같이 순일한 덕이 있었으므로 천심(天心)이 도우신 것입니다. 상나라가 천하의 백성을 얻은 것은 백성에 구해서인 듯하지만, 민심은 지극히 공평하니 어찌 구한다고 따라오겠습니까. 오직 순일한 덕에 백성이 돌아간 것일 따름입니다. 진실로 순일한 덕일 뿐 어찌 백성의 따라옴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의 덕이 천리(天理)에 순일하면 모든 동작이 자연히 천심(天心)에 합하고 백성

의 마음을 얻어서 길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요, 임금의 덕이 조잡하여 두세 가지로 갈라지면 모든 동작이 천리에 어긋나고 백성의 마음을 거슬러 흉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길하고 흉함은 한 가닥이라도 어긋남이 없고 오직 사람의 행동하는 바에 있습니다. 하늘이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는 것은 그 덕의 순일하고 조잡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동(桐)에서 박(毫)으로 돌아오시어 새로 천자의 명을 행하게 되었으니, 이는 천명과 민심이 매어 있는 처음이라, 마땅히 이전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고 스스로의 덕을 새롭게 하여 덕과 명이 함께 새로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덕을 새롭게 하는 요체는 일정하여 변함이 없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만약 처음에는 새롭게 하다가 끝에 가서 중단하면 새롭던 것도 다시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시종 한결같아 중단함이 없어야 날로 그 덕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취하는 요법(要法)이 있으니, 사람은 반드시 스승삼아 본받을 바가 있어야 그 덕을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착한 것을 취하여 스승으로 하면, 그 덕이 좁으므로 덕에는 일정한 스승이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선(善)을 주로 하는 사람을 곧 취하여 나의 사법(師法)을 삼을 것입니다. 또 선에는 일정한 주장이 없으니 반드시 그 사법이 될 만한 선을 널리 구하여, 이것을 다시 요약해서 근본이 되는 지일(至一)의 원리에 화합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새로운 덕이 이에 이르면 민심이 자연히 감동되어 모든 백성들이 ‘훌륭하시도다, 임금님의 말씀이여! 천하의 이치를 다 포함하셨도다’라고 칭송할 것이요, 또 ‘순일하시도다, 임금님의 마음이여!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덕이로다’라고 칭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왕께서 지켜오신 녹(祿)을 능히 편안히 누릴 것이요, 또 백성들의 생활이 영원히 안정될 것입니다.

아아! 일곱 대의 할아버지 종묘에서 그분들의 충성된 덕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모든 백성의 어른으로서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면 임금님으로 추대할 것이나, 백성을 잔악하게 다스리면 원수로 여길 것이니, 민심의 따름이 반드시 선정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과 백성은 부리고 섬김에 있어 귀하고 천한 것이 다르지만 임금은 백성이 아니면 고립하여 도움이 없을 것이요, 백성은 임금이 아니면 이리 저리 흘어져 통일이 없을 것이니, 임금과 백성은 서로 기다리고 요구함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진실로 백성을 소홀하게 생각지 말고 마음가짐을 겸손히 하여 천하의 모든 선을 받아들일 것이요, 스스로 크고 총명한 체하여 좁은 소견으로 백성을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백성일지라도 단 한 사람이 스스로 그 정성을 다하지 않음이 있으면 선은 부족하고 덕은 갖추지 못함이 있을 것이니, 임금이 어떻게 그 순일한 덕의 온전한 공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厥辟(궐벽) : 그의 임금. 즉 태갑.

天難譴(천난심) : 하늘은 믿기 어려운 것임. 곧 명을 내렸던 사람이라도 그가 덕을 잃으면 곧 재앙을 내린다는 뜻.

靡常(미상) : 일정하지 않음. 곧 하늘의 명은 임금의 덕을 따라 바뀐다는 뜻.

常厥德(상궐덕) : 언제나 그의 덕을 닦음.

九有(구유) : 구주의 뜻.

庸(용) : 상(常)의 뜻.

監(감) : 돌려보는 것.

啓迪有命(계직유명) : 천명을 받은 사람에게 길을 열어 이끌어 주셨다는 말.

眷(관) : 돌려본다는 뜻.

一德(일덕) : 함유일덕의 일덕으로 순일한 덕.

神主(신주) : 신들의 우두머리 위에서 지배하는 우두머리가 아니라 신들을 제사하는 우두머리. 옛날 임금은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기도 하였음.

師(사) : 백성을 가리킴.

夏正(하정) : 하나라의 정초. 하나라는 봄의 첫날(인(寅)날)이 정초였는데 탕임금은 겨울의 마지막 달 축(丑)날을 정초로 하였다.

二三(이삼) : 덕이 두셋으로 섞여서 순일하지 못한 것.

惟一(유일) : 덕이 순일한 것.

其難其慎(기난기신) : 위의 그 일은 어렵고도 신중히 하여야만 될 일이라는 뜻.

克(극) : 덕이 순일될 수 있는 것.

烝民(증민) : 민중.

七世之廟(칠세지묘) : 7대 조상들의 묘. 삼소(三昭)와 삼목(三穆), 즉 태조 이상의 6대조와 태조를 합친 7묘.

萬夫(만부) : 만민. 만부지장(萬夫之長)은 천자(天子)를 가리킴.

無(무) : 무(母)와 같은 뜻의 금지사.

自廣以狹人(자광이협인) : 자기 자신의 재능이나 덕을 넓고 크게 보고, 남들의 것은 좁고 작게 본다는 뜻.

匹夫匹婦(필부필부) : 일반 백성 중의 남녀.

不獲(불획) : 불능 · 부득의 뜻.

自盡(자진) : 스스로 임금에게 자기의 능력이나 덕을 전부 발휘하는 것.

民主(민주) : 백성과 임금.

반경 상(盤庚 上)

반경은 성탕(成湯)의 팔세손으로서 조을(祖乙)의 아들이요, 양갑(陽甲)의 아우이다. 반경이 그 도읍지인 경(耿)이 하수(河水)의 재해를 입음으로써 도읍을 은(殷)에 옮기고자 하였는데 대가세족(大家勢族)들은 경도(耿都)에 살기를 편히 여기고 황하를 건너 옮아감을 싫어하였다. 그리하여 서로 들뜬 소문을 퍼뜨렸고 백성들도 이리저리 분산하여 살기를 싫어하므로 반경은 이 글을 지어 천도(遷都)의 이로움과 옮기지 않는 해로움을 깨우쳐 말하였다. 상·중 두 편은 아직 옮기지 않은 때의 말이요, 하편은 이미 옮긴 뒤의 말이다. 금문, 고문에 다 있는데 다만 금문에는 세 편이 합쳐져 하나로 되어 있다.

반경이 은 땅에 옮기려 하니 백성들이 가서 살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여러 근심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맹서하는 말씀을 하셨다.

“임금인 내가 와서 이미 이곳에 정도(定都)한 것은 우리 백성들을 중히 여겨 모두 죽이고자 하는 일이 아니건만, 서로 바로 잡아 살 수가 없게 되었소. 이에 점(占)을 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고 물었던 것이오.

선왕들께선 일이 있으시면 천명(天命)을 공경하고 삼가셨으나 그래도 오히려 떳떳이 편안치 못하여 그 도읍을 일정하게 갖지 못하셨으니, 지금까지 다섯 번 도읍을 옮겼소.

이제 옛일을 이어가지 아니하면 하늘이 명을 끊을지도 모르겠거든, 하물며 능히 선왕의 공을 따를 수 있다 할 수 있겠소?

넘어진 나무에 새싹이 나는 것과 같은지라 하늘이 우리 명을 새 도읍에 길게 하셔서, 선왕의 큰 유업을 잊고 회복시키며 세상을 편안하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오.”

반경이 백성들을 깨우치시되 벼슬에 있는 이들부터 시작하여, 떳떳한 옛일로써 법도를 바로잡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감히 소인의 경계하는 바를 숨기지 말라”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명하셔서 모두 궁정으로 모이게 하셨다.

임금님은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대들이여! 내 그대들에게 훈계를 하노니, 그대들은 그대들의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기에 힘쓸 것이며, 거만하고 편안함을 따르지 마시오.

옛 우리 선왕께서는 오직 옛사람을 등용해서 함께 정치를 하고자 하셨으며, 임금이 그대들에게 닥을 바를 포고하시면 그 가르침을 숨기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이들을 크게 공경하셨던 것이오. 또한 허물의 말을 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크게 교화 되었던 것이오. 이제 그대들이 그릇된 얇은 말들을 떠들썩하게 고하고 있으니, 나는 그대들이 쟁론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소.

내가 스스로 덕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덕을 버려서 나 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을 나는 불을 보는 것처럼 잘 알고 있소. 그러나 나도 꾀가 졸렬하여 그대들의 허물을 이루게 한 셈이오.

그물에 줄이 있어야 조리가 있어 어지럽지 않음과 같으며, 농사짓는 이는 밭에서 일함에 있어 힘써 심어야만 또한 풍성한 가을이 있음과 같은 것이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진실한 덕을 백성들에게 베풀되 친척과 벗들에게 미친 뒤에야 감히 그대들이 쌓은 덕이 있다고 크게 장담하게 될 것이오.

그대들은 멀거나 가까운 날에 있는 해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소. 게으른 농부가 스스로 편안하여 일에 힘쓰지 않고 밭이랑에서 일하지 않으면 메기장과 찰기장을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오.

그대들은 화길(和吉)한 말을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대들 스스로가 해독을 낳게 하고 있소. 이는 파괴와 재화와 간사함과 간악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재앙을 만들어, 그대들이 이미 백성들에 앞서 악을 행하여 그 슬픔을 받고 있음이오. 그대들이 자신을 뉘우친들 어찌 미치리오.

이 낮은 백성들을 보면 오히려 경계하는 말로 돌보고 있으나, 그들의 의견을 말하려 하면 오히려 그대들은 허물된 말만 하고 있으니, 하물며 그대들의 짧고 긴 목숨을 다스리고 있는 나야 어찌할는지 아오? 그대들은 어찌 나에게 고하지 않고 서로 뜬소문으로써 충동질하여 백성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오?

불이 들에 타올라서 가까이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꺼 버릴 수가 있는 것이오. 다만 그대들이 스스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내게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오.

지임(遲任)이 일찍이 말하기를 ‘사람은 옛사람을 구하나 그릇은 옛 그릇을 구하지 말고 오직 새것을 구한다’고 하였소.

옛날 우리 선왕들은 그대들의 할아버지와 그대들의 아버지들과 서로 편안하고 수고로움을 함께 하셨거늘 내 감히 부당한 벌을 함부로 쓰겠소? 대대로 그대들의 수고로움을 헤아려 왔으니, 나도 그들의 하는 일을 덮어 주지만은 않겠소. 이에 나는 선왕께 크게 제향을 드림으로써 그대들의 조상들도 거기에 따라서 제향을 받아 복을 주기도 하고 재앙을 주기도 할 것이니, 나도 또한 덕 아닌 것을 감히 움직여 쓰지는 않겠소.

나는 그대들에게 어려움을 고하노니, 마치 활 쏘는 사람들이 과녁을 맞힘에 뜻이 있음과 같소. 그대들은 노성(老成)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며, 외롭고 어린 사람을 양보지 말고 각각 그들의 사는 곳을 영원하게 하여, 그대들의 힘을 내어 나 한 사람이 지은 계획을 들으시오.

멀고 가까움이 없이, 죄를 지은 이는 그를 죽음으로 배고, 덕을 행하는 이는 그의 착함을 밝힐 것이오. 그러나 나라가 잘됨은 오직 그대들에게 달려 있고,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못함은 오직 나 한 사람이 형벌을 그릇되게 쓴 까닭인 것이오.

무릇 그대들은 이 고한 말을 이루어 이제부터 뒷날에 이르기까지 각자 그대들의 일을 삼가고, 그대들의 자리를 정제하며, 그대들의 입을 법도에 맞게 쓰시오. 벌이 그대들 몸에 미치면 후회할 수도 없게 될 것이오.”

盤庚遷于殷，民不適有居，率籲衆惑，出矢言。

曰：“我王來，既爰宅于茲。重我民，無盡劉，不能胥匡以生。卜稽曰：‘其如台？’

先王有服，恪謹天命，茲猶不常寧，不常厥邑，于今五邦。今不承于古，罔知天之斷命。

矧曰：‘其克從先王之烈？’

若顛木之有由【作粵】麋。天其永我命于茲新邑，紹復先王之大業，底綏四方。”

盤庚數于民，由乃在位，以常舊服，正法度，曰：“無或敢伏小人之攸箴。”王命衆悉

至于庭。

王若曰：“格汝衆！”予告汝訓，汝猷黜乃心，無傲從康。

古我先王，亦惟圖任舊人共政。王播告之脩，不匿厥指。王用丕欽，罔有逸言，民用丕變。今汝聒聒，起信險膚，予弗知乃所訟。

非予自荒茲德，惟汝含德，不愬予一人，予若觀火。予亦拙謀，作乃逸。

若網在綱，有條而不紊，若農服田力櫧，乃亦有秩。

汝克黜乃心，施實德于民，至于婚友，丕乃敢大言：‘汝有積德。’

乃不畏戎毒于遠邇。惰農自安，不昏作勞，不服田畝，越其罔有黍稷。

汝不和吉言于百姓，惟汝自生毒。乃敗禍姦宄，以自災于厥身。乃既先惡于民，乃奉其恫，汝悔身何及？相時儉民，猶胥顧于箴言，其發有逸口，矧予制乃短長之命！汝曷弗告朕，而胥動以浮言，恐沈于衆？若火之燎于原，不可嚮邇其猶可撲滅，則惟爾衆，自作弗靖，非予有咎。

遲任有言曰：‘人惟求舊，器非求舊，惟新。’

古我先王暨乃祖乃父，胥及逸勤，予敢動用非罰？世選爾勞，予不掩爾善。茲予大享于先王，爾祖其從與享之，作福作災。予亦不敢動用非德。

予告汝于難，若射之有志。汝無侮老成人，無弱孤有幼。各長于厥居，勉出乃力，聽予一人之作猷。

無有遠邇，用罪伐厥死，用德彰厥善。邦之臧，惟汝衆，邦之不臧，惟予一人有佚罰。

凡爾衆，其惟致告，自今至于後日，各恭爾事，齊乃位，度乃口。罰及爾身，弗可悔。”

[통석] 반경이 도읍을 경(耿) 땅으로부터 은(殷) 땅으로 옮기려 하였는데 그 당시의 백성들은 현재 사는 곳을 편안히 여겨 은 땅으로 가기를 싫어하였다. 이에 반경은 부득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도읍을 옮겨야 하는 까닭을 하나하나 들어 맹세하고 타일렀다.

“우리 선왕 조을(祖乙)이 경 땅으로 도읍을 옮겨 이제까지 살아 온 것은, 진실로 우리 백성들의 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이지 결코 다 죽이려는 뜻이 아니었음

을 나는 알고 있소. 그러나 이 경이라는 곳은 황하에 접해 있으므로 홍수의 재난이 잣아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가 없는 곳이오. 그래서 부득이 점을 쳐보았는데 점에 또한 이 땅은 좋지 않았소. 그러하니 우리들이 이 땅에 어떻게 머물러 살겠소? 마땅히 옮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오. 예로부터 우리 선왕께서는 일이 있을 때는 친명을 삼가 지키고 사심을 갖지 않으며 하늘의 뜻에 어긋남이 없었소. 그럼에도 언제나 안심하고 살 수가 없었으므로 도읍을 여러 곳으로 옮겨, 이제까지 다섯 번이나 천도를 했던 것이 아니오.

지금에 와서 선왕이 백성을 위해 힘써 도읍을 옮긴 사실을 따르지 않으면 하늘은 그 명을 끊어 버릴지도 모르오. 하물며 선왕께서 정성을 다하시어 노력한 것을 알면서도 그 뒤를 따르지 않으면 어찌 선왕의 공을 이어가고 유지를 따른다 할 수 있겠소?

그러므로 어떠한 곤란을 무릅쓰고라도 천도하는 일을 결정했던 것이오. 비유하자면 나무가 오래되어 쓰러지면 그 나무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나무를 대신하는 것이나 같은 이치요.

하늘도 우리들의 뜻을 보호하시어 새로운 도읍에서 길이 번창하게 할 것이오. 그렇게 되면 선왕의 큰 유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더욱 사방에 편안히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이오.”

이에 반경 임금은 백성을 가르쳐 잘못된 것을 고치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우선 조정에 있는 관원들로부터 시작하였다. 관원들이 불평을 하고 스스로의 생각을 주장하고 임금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이에 움직이게 된다. 이러한 생각에서 반경 임금은 선왕들이 했던 천도의 일을 들어서 나라의 법도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관원들은 백성들이 아뢰는 의견을 혹시라도 감히 숨기지 마시오.” 임금은 이렇게 훈계하고 나서 모든 관원과 백성들을 왕궁 안의 넓은 뜰에 모이게 하고 다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모든 관원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나는 그대들에게 중대한 훈계를 하니, 그대들은 사사로운 마음을 물리치고 모두 나라의 장래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오.

그대들 자신의 생각은 틀림이 없다는 오만한 생각들은 하지 말 것이며 또한 일시적 안락을 구하는 마음을 버리시오. 옛날 우리 선왕들께서는 오직 정치에 익숙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등용하여 그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정치를 하였던 것이오. 임금이 자신의 정책을 행하기 위해 널리 포고하면 신하들은 이를 잘 받들어 그 의견을 숨김없이 임금에게 아뢰었소. 그리하여 임금은 그들을 크게 공경하였으며 또한 신하들은 교화를 온 나라에 베풀고, 함부로 그릇된 말을 하여 백성들의 듣고 보는 것을 어지럽히는 일을 하지 않았소. 그리하여 백성들은 크게 교화가 되었소. 그러나 지금 그대들은 안으로는 백성들의 의견을 숨기고 밖으로는 화목하지 못하며 험악하고 천박한 말을 함부로 떠들썩하게 지껄이고 있으니, 나는 그대들의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소.

내가 스스로 경솔히 도읍을 옮겨 덕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대들이 덕을 폐지 않으며 나의 망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오. 나는 그대들의 심정을 불을 보는 것처럼 훤히 알고 있소. 나 또한 계획이 졸렬해서 능히 명령을 시행치 못하여 그대들에게 과실을 저지르게 하였소.

그물에 벼리가 있어 한 가닥 한 가닥 그물눈이 헝클어지지 않는 것처럼, 나라에는 기울이 있어 그대들도 임금인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리라 믿소. 농부가 농사일을 부지런히 하면 풍성한 추수의 보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도읍을 옮기는 것은 그대들로서는 무척 괴롭고 수고롭게 생각되겠지만 그대들의 영원한 안락과 행복을 세우기 위해서는 천도(遷都)를 해야만 하는 것이오.

그대들은 서로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실체의 덕을 백성에게 시행하도록 할 것이며, 친척이나 교제하고 있는 친우들에게 모두 행복이 미치도록 힘써야 할 것이오. 그리함으로써 그대들은 친척과 친구를 위해 세상에 덕을 쌓았노라고 큰소리로 말할 수 있을 것이오.

그대들은 머지않은 앞날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니, 괴로움을 꺼려 도읍을 옮기지 않으면 마침내 위태함을 면하고 편안하게 살 날은 없을 것이오. 비유한다면 계으른 농부가 스스로 한때의 편안함만을 생각하고, 농사일에

힘쓰지 않으면 가을에 가서 곡식을 거둘 희망이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요.

그대들은 백성의 마음이 걱정과 의심으로 어지러운 때에 좋은 말로 교화하는 대신 오히려 백성들과 어울려서 천도를 저해하고 있소. 이것은 백성을 해칠 뿐만이 아니고, 그대들 스스로가 화를 부르고 있는 셈이오. 파괴와 재앙을 자초하고 있다는 말이오. 그대들이 앞에 서서 나쁜 일을 선전하여 죄를 얻은 뒤에야 잘못했다고 후회한들 이미 때는 늦을 것이오. 지금이라도 잘 생각하여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하오. 내 이에 백성들을 살펴보니, 백성들은 오히려 내 훈계한 말을 조심히 들어 서로 의견을 아뢰려 하는데 그대들은 바로 그릇된 말로 막아서 나에게 들리지 못하게 하고 있소.

그대들은 스스로의 입만을 믿고 백성들의 의견을 억제하고 있는데, 나에게 그대들의 목숨을 좌우할 권한이 있음이 두렵지 않다는 말이오? 왜 그대들은 나에게 고하지 않고 서로 경박한 말을 퍼뜨려 나라의 장래를 위협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여 불행에 빠뜨리는 것이오?

들판에 불이 붙었을 때 가깝게 갈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끄려 하면 끌 수가 있게 마련이오. 그와 같이 백성을 선동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어떠한 세력도 이를 제재하려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이오. 이렇게 말함에도 듣지 않고 명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위태로움을 저지른 것이라 부득이 형벌을 내릴 것이니, 나에게는 허물이 없는 일이란 점을 잘 명심들 하오.

옛날 지임(遲任)이라는 어진 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소.

‘나라에서 사람을 쓰는 데는 고사(古事)에 익숙하고 인정에 통달한 옛사람을 구해 쓸 것이요, 그릇을 구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새로운 것을 쓸 것’이라고 하였소.

이처럼 옛날 우리 선왕은 그대들의 조상이나 친부모와 함께 서로 즐거울 때는 함께 즐기고, 괴로울 때는 함께 괴로워했소. 그러므로 나는 결코 도에 어긋나는 벌을 그대들에게 내리진 않을 것이오. 또 우리 선왕께서는 그대들의 조상의 공로를 대대로 계승하셨으니 나의 대에 와서 그 자손인 그대들의 잘하는 일을 덮어 두겠소? 힘써 하는 일은 인정할 것이고, 착한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용할 것이오. 그리고 내가 옛 임금님을 제사 지낼 때에 그대들의 할아버지들도 선왕을 따라 함께 제

사를 받게 될 것이오. 그리하여 그대들의 공로에 의하여 혹은 복을 내리기도 하고 혹은 재앙을 내리기도 할 것이오. 나는 또한 절대로 덕에 어긋나는 일을 강행하여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오.

나는 도읍을 옮기는 것이 진실로 쉬운 일이 아님을 말하였소. 또 그대들과 백성들이 임금의 뜻을 무시하고 일시적인 안락에만 만족하여 도읍 옮기는 일을 기꺼이 따르려 하지 않고 있음도 잘 알고 있소. 그러나 내가 이미 도읍을 옮기기로 결정한 것은, 마치 활을 쏘는 사람이 반드시 표적 가운데를 쏘아 뚫겠다는 뜻을 세운 것과 같소.

내가 도읍을 옮기려는 결의는 나라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야겠다는 뚜렷한 목표 아래 이루어진 계획이오.

그대들은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나이 어리고 의로운 사람이라 해서 경멸하지 말 것이오. 늙은이나 젊은이나 각자 사는 곳을 영구히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힘껏 기울여 나의 마련한 계획을 잘 따라 주기 바라오.

먼 사람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용서 없이 벌할 것이니, 덕에 힘쓰는 이가 있으면 세상 사람에게 널리 보여 주고 본받도록 할 것이오. 그대가 잘 되면 그대들 많은 사람의 공으로 이룩된 것이며 나라가 잘 되지 않으면 오직 나의 책임이 되는 것이니, 이것은 내가 형벌을 적절히 행하지 못한 탓이라 믿고 있소.

여러분들은 서로 충고하고 또한 훈계하여 허물이 없도록 해야 하오. 지금으로부터 그대들은 저마다 맡은 일을 삼가 힘쓰고 직위를 잘 지킬 것이며, 더욱이 입을 삼가서 사람들을 미혹시키지 않도록 하오. 벌이 그대들의 몸에 미치면 용서 없이 처단할 것이니 그때엔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오.”

籲(유) : 호(呼)와 통하여 호소하는 것.

無盡剉(무진류) : 물자의 부족과 재해로 인하여 백성들이 다 죽지 않도록 한다는 뜻.

胥匡以生(서광이생) : 서로 돋고 바로 잡아 주어 올바로 사는 것.

卜稽(복계) : 점을 쳐서 앞일을 물어보는 것.

如台(여이) : 여이(如以), 곧 여하(如何)의 뜻.

五邦(오방) : 다섯 번 도읍을 옮기며 나라를 다스렸다는 뜻.

承于古(승우고) : 옛날 백성들을 위하여 도읍을 옮겼던 일을 받들어 따르겠다는 뜻.

矧(신) : 그러면서도의 뜻. 불승우고(不承于古)를 받는 말.

藁(얼) : 나무를 베고 남은 부분.

舊服(구복) : 옛일.

無或(무혹) : 아무도~않는다의 뜻.

播告(파고) : 포고의 뜻.

丕欽(비흠) : 백성들의 의견을 솔직하고 크게 공경하여 참작한다는 뜻.

逸言(일언) : 그릇된 말.

詬詬(괄괄) : 말이 많은 모습.

起信險膚(기신험부) : 기(起)는 쟁(更)의 뜻. 신(信)은 신(申)과 통함. 험(險)은 사(邪)의 뜻. 부(膚)는 얇은 말의 뜻으로 그 위에 그릇되고 천박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뜻.

作乃逸(작내일) : 그대 관리들을 그르치게 만들었다는 뜻.

若網在綱(야망재강) : 그물의 것이나 끝에 줄이 매어 있어 그물을 잘 다룰 수 있게 되어 있는 것과 같다느 뜻.

究(궤) : 나라 밖으로부터 일어나는 반란.

儉民(협민) : 낮은 백성들.

箴言(잠언) : 경계하는 뜻으로 훈계의 말.

逸口(임구) : 그릇된 말.

嚮邇(향이) : 가까이 가는 것.

選(선) : 산(算)과 통하여 셈의 뜻.

享(향) : 제사를 받는 것.

若射之有志(약사지유지) : 활 쏘는 사람이 과녁만을 맞히려 하듯이 도읍을 옮기려고 하는데도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다는 뜻.

老成人(노성인) : 나이 많고 경험에 있는 사람.

用罪(용죄) : 죄를 짓는 것.

臧(장) : 선(善)의 뜻.

佚罰(일벌) : 형벌을 잘못 쓰는 것.

齊乃位(제내위) : 그대들의 직위를 정하고 바르게 잘 지키라는 뜻.

度乃口(도내구) : 말을 올바로 하라는 뜻.

반경 중(盤庚 中)

이 장도 반경 상에 이어 황하를 건너 도읍을 옮기는 일에 불만을 갖고 있는 백성들을 달래기 위하여 도읍을 옮기기 직전에 반경 임금이 훈계한 말이다.

반경은 일어나시어 황하를 건너 백성들을 옮기려 했다. 이때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설복하기 위해 크게 고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 쓰셨다. 그의 백성들이 모두 왔었는데 임금의 궁정에서는 벼룩없이 구는 사람이 없었다. 반경이 이에 그 백성들을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한 뒤에 말씀하셨다.

“밝게 내 말을 들어 나의 명을 저버리지 마오.

오오! 옛날 우리 임금이 백성들을 공경하지 않음이 없으셨으니, 백성들은 임금을 보전하여 서로 근심하였으므로 하늘의 재앙에도 이기지 못하는 일이 드물었소.

은나라에 큰 재앙이 내려 선왕들께서도 미련이 없게 되었고 그분들은 백성들의 이익을 돌보아서 도읍을 옮기셨소. 그런데 그대들은 어찌 우리의 옛 임금님에 대해 들은 바를 생각하지 않소. 나는 그대들을 공경하고 그대들을 이롭게 하여 편안함을 함께 누림을 기뻐하는 것이지, 그대들에게 혀물이 있어 별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오.

내가 이렇듯이 새 도읍으로 갈 것을 호소하는 것은 역시 그대들 때문이니, 그대들의 큰 뜻을 모두 쫓아서 하려는 것이오.

이제 장차 그대들을 옮겨서 그대들의 나라를 안정하려 하거늘 그대들은 내 마음의 괴로운 바를 걱정하지도 않고, 모두 그대들의 생각을 펴서 정성스럽게 공경하고 생각하여 나 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소.

그대들은 오직 스스로 궁하여지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소. 배를 타고 그대들이 건너지 않으면 배에 실은 물건이 썩어 버리게 될 것인데, 그대들의 정성이 부족하니 서로 물에 빠지게 될 것만 같소. 그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성난 들틀 어찌 병이 나을 수 있겠소?

그대들은 오랜 일을 꾀함으로써 그대들의 재앙을 생각지 않고, 크게 걱정만을 조

장하고 있소. 지금 현재만 있고 훗날이 없다면 그대들의 삶을 하늘이 용납하겠는가?

이제 나는 그대들에게 명하노니 마음을 한결같이 하오. 나쁜 짓을 하여 스스로 씩 허지 말도록 하오. 사람들이 그대들의 몸을 기울어뜨리고, 그대들의 마음을 굽히게 할까 두려워하시오. 나는 그대들의 명을 하늘로부터 맞아서 이으려고 하니, 내가 어찌 그대들을 위협하리오? 그러므로 그대들을 받들어 부양하려는 것이오.

나는 우리의 옛 선후(神后)께서 그대들의 조상들을 수고롭게 하셨던 일을 생각하고 있으니, 나도 크게 능히 그대들을 부양하려 함은 그대들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오.

정치에 실패하여 이에 오래되면 고후(高后)께서 크게 죄질(罪疾)을 내리시고 말씀 하시기를, ‘어찌 나의 백성들을 학대하는고?’ 하실 것이오.

그대들 모든 백성이 생업에 힘써 나 한 사람의 계획에 마음을 함께 하지 않으면, 선후(先后)께서 그대들에게 크게 죄질을 내리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의 자손과 화합하지 않는가’라고 하실 것이오. 그러므로 덕을 잊음이 있으면 하늘이 그대들을 벌하실 것이니, 그대들은 도망할 길도 없게 될 것이오.

옛날 우리 선왕들께서 이미 그대들의 할아버지와 그대들의 아버지를 수고로이 하셨소. 그대들은 모두 내가 길러야 할 백성들인데, 그대들의 마음에는 해치려는 생각만이 있소. 우리 선왕들께서 그대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편안케 해주셨으나 그대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그대들을 끊고 버려, 죽음에서 구해 주지 않을 것이오.

이에 나와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벼슬하는 사람들이 패(貝)와 옥(玉)을 모으기만 하면 그대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크게 우리 고후(高后)께 고하여 말씀하기를, ‘우리 손자들에게 큰 형벌을 내리십시오’ 하고, 고후께 나아가 아뢰면 크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게 될 것이오.

오오! 지금 나는 그대들에게 쉽지 않은 일을 고하노니, 크게 걱정함을 길이 공경하여 서로 끊고 멀리하지 말도록 하시오. 그대들은 함께 꾀하고 서로 죽어 각각 중도(中道)를 그대들의 마음에 베풀도록 하시오. 그대들 중에 길(吉)하지 않고 순종하

지 않는 자가 있어 타락하여 공손하지 않고 짧은 혼란기에 간사하고 간악한 짓을 하면, 나는 그를 베어 멸망시키고 자손까지 남기지 않음으로써 이 새로운 도읍으로 씨가 옮겨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오.

가서 생업에 길이 힘쓰오. 지금 나는 그대들을 옮겨 영원히 그대들의 집을 세워 주려는 것이오.”

盤庚作，惟涉河以民遷，乃詰民之弗率，誕告用亶其有衆，咸造勿夔在王庭。盤庚乃登進厥民。

曰：“明聽朕言，無荒失朕命。

嗚呼！古我前后，罔不惟民之承，保后胥懲，鮮以不浮于天時。

殷降大虐，先王不懷。厥攸作視，民利用遷，汝曷弗念我古后之聞，承汝俾汝，惟喜康共，非汝有咎，比于罰。

予若籲壞茲新邑，亦惟汝故，以不從厥志。

今予將試以汝遷，安定厥邦，汝不憂朕心之攸困，乃咸大不宣乃心，欽念以忱，動予一人，爾惟自鞠自苦。若乘舟，汝弗濟，臭厥載。爾忱不屬，惟胥以沈，不其或稽，自怒曷瘳？

汝不謀長，以思乃災，汝誕勤憂。今其有今罔後，汝何生在上？

今予命汝，一無起穢以自臭。恐人倚乃身，迂乃心。

予迓續乃命于天，予豈汝威？用奉畜汝衆。

予念我先神后之勞爾先，予不克羞爾，用懷爾然。

失于政，陳于茲，高后丕乃崇降罪疾曰：‘曷虐朕民。’

汝萬民乃不生生，暨予一人猷同心，先后丕降與汝罪疾。曰：‘曷不暨朕幼孫有比？’故有爽德，自上其罰汝，汝罔能迪。

古我先后，既勞乃祖乃父。汝共作我畜民，汝有戕則在乃心，我先后綏乃祖乃父，乃祖乃父乃斷棄汝，不救乃死。

茲予有亂政同位，具乃貝玉，乃祖乃父，丕乃告我高后曰：‘作丕刑于朕孫！’迪高后，丕乃崇降弗祥。

嗚呼! 今予告汝不易, 永敬大恤, 無胥絕遠。汝分猷念以相從, 各設中于乃心!
乃有不吉不迪, 頽越不恭, 暫遇姦宄, 我乃劓殄滅之, 無遺育, 無俾易種于茲新邑。
往哉生生! 今予將試以汝遷, 永建乃家。”

[통석] 반경 임금이 도읍을 옮기는 일을 관철하기 위하여, 황하를 건너 백성을 거느리고 신도읍인 은(殷)으로 가려 했다. 여기에 아직도 불평하고 따르지 않는 자가 있었으므로, 반경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스스로의 정성을 다하여 천도의 취지를 거듭 설복하였다. 이때 백성들은 점차로 모여들었으나, 임금의 궁정에는 가까이 오지 않았다. 반경은 이에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대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말을 밝게 들어 나의 명령을 저버리지 마시오. 우리 선대의 임금님들은 백성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 백성들을 부양하는 데 힘쓰지 않은 분이 없었소. 그러므로 백성들도 임금을 따라 함께 걱정하고 생각하며 또한 믿고 따르지 않는 일이 없었소.

그리하여 모든 나랏일이 하늘의 뜻과 부합되었소. 그러나 은나라에는 황하의 수재가 자주 일어났소. 옛 임금님들께서도 이런 홍수의 피해가 너무 커서 옛 도읍에선 안심하고 살 수가 없으므로, 깊이 상심하여 이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다섯 차례나 도읍을 옮기는 것을 단행한 바가 있었소. 우리 선왕들께서는 그하시는 바가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옮겼을 뿐이오. 그대들은 어찌하여 옛 선왕들의 남기신 교훈을 생각지 않고 있는가? 내가 괴하는 일도 그대들을 구원하고 그대들을 도와서 화평한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일 뿐, 그대들이 죄가 있어 벌을 주어 귀양살이처럼 괴롭히려는 것이 결코 아니오. 내가 지금 새로운 도읍으로 옮겨 편안히 살자고 호소하는 것도 모두가 그대들을 위함이니 나 역시 선왕들의 뜻을 따르려는 것이오.

지금 내가 그대들을 거느리고 도읍을 옮기는 것은 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함이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들은 나의 괴로운 마음을 걱정하기는커녕, 자기의 의견을 솔직히 말하지 않고, 진심으로 나랏일을 생각하여 나 한 사람을 깊이 감동시

키려 하지 않고 있소. 오히려 스스로가 자신을 궁하게 만들며 괴롭히고 있소. 그대들이 하는 일은 마치 배를 타는 것과 같소. 배를 타고 제때에 건너지 않으면 반드시 배에 실린 물건은 썩어 버릴 것이오. 지금 그대들이 임금을 따르는 정성이 끊어 져 붙지 않으니 어찌 건널 수가 있겠는가? 다만 서로 물에 빠질 뿐이오. 이로움과 해로움이 이처럼 환함에도 그대들은 조금도 생각지 않으니 아무리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하고 성낸다 한들 이 곤궁한 괴로움을 어떻게 덜 수가 있으랴?

그대들은 먼 장래를 위한 계획보다는 눈앞의 안일만을 생각해 그 뒤의 재앙을 잊고 있소. 이는 필시 그대들이 큰 근심에 스스로 말려들어가는 격이오. 오늘만이 있고 내일이 없다면 이는 하늘이 그대들의 생명을 끊어 버리는 것이니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이제 나는 그대들에게 명령하오. 그대들은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임금의 말을 듣도록 하오. 더럽고 나쁜 짓을 일으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지 말 것이오. 그대들이 나쁜 마음을 일으키면 다른 사람들도 그대들의 몸에 재화를 줄 것이며 그대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들 것이오.

내가 도읍을 옮기는 것은 그대들의 생명을 하늘로부터 영원히 이어 주려는 것일 뿐 내 어찌 멋대로 그대들을 위협함이겠는가? 하늘의 명을 받들어 그대들을 부양 할 뿐 다른 뜻은 전혀 없소.

나는 또한 우리 선왕들께서 그대들의 선조를 수고롭게 하셨음을 생각하여, 그대들을 크게 길러 모두가 행복하게 살도록 힘쓰고 있는 것이오. 그렇기 때문에 그대들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도읍을 옮기는 것이오.

경(耿) 땅은 흥수의 재해가 심하오. 그로 인하여 백성이 병고에 신음하거늘, 도읍을 옮기지 않음은 정치의 바른 길을 잃은 처사가 될 것이오. 이에 우리 탕임금께서 반드시 크게 죄질을 나에게 내리며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우리 백성들을 학대하는가?’라고 꾸짖을 것이오. 또한 그대들이 생업에 안락하고 일에 흥기하고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도읍을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 선조 탕임금께서 큰 죄별을 그대들에게 내리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의 어린 자손과 함께 도읍을 옮기지 않느냐고 꾸짖을 것이오. 덕을 잊으면 누구나 하늘로부터 벌을 받을 것

이니 그대들 또한 스스로 면할 길이 없을 것이오.

옛날 우리 탕임금께서는 그대들의 할아버지들과 함께 힘을 다하여 도읍을 옮긴 수고로운 공적이 있었소. 그대들은 모두 내가 부양하여 행복하게 살아야 할 백성이 아닌가. 그런데도 그대들이 그 마음을 해하여 사과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 선왕께서는 그대들의 조부의 영혼을 하늘로부터 물리치실 것이며, 그대들 조부들의 영혼도 그대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 죽음을 구원하지 않게 될 것이오.

이에 나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신하가 백성의 생활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자개나 구슬 따위만을 모아 부(富)를 도모한다면, 그대들의 조부들이 또한 우리 선왕께 아뢰어, ‘우리 자손들을 크게 벌하여 주시오’ 할 것이며, 우리 선왕들께서도 그 말을 들으면 바로 그대들에게 크게 재앙을 내려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 믿소.

오오! 이제 나는 그대들에게 천도의 어려움을 말하였소. 그대들은 마땅히 나의 큰 걱정과 염려하는 바를 공경하여, 그대들이 나나 마음을 한 가지로 하여야만 이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오. 만약 서로 멀리하여 성실하게 꾀하지 않는다면 위태로울 뿐이오. 그대들은 나의 도모하는 것을 함께 도모하고 나의 생각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여 서로 노력하고 서로 쫓아서 각각 지극한 이치를 마음속에 간직해야만 하오. 그리하면 천도는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것임을 알게 되고, 이에 따라 허황된 말이나 황당한 이론에 흔들려 움직이는 일이 없게 될 것이오.

이래도 그대들이 착하지 못하고 도를 따르지 않으며 배반, 불공, 거짓, 간사한 일을 일삼는 자가 있다면, 나도 그대들에게 형벌을 가하여 죽이고 그 자손까지도 남기지 않을 것이며, 이 새로운 도읍에 그 씨가 옮아가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오.

어서 가서 생업에 힘써 주오. 지금 나는 그대들을 인솔하고 도읍을 옮겨 그곳에 그대들의 영원히 살아갈 집을 세워 줄 작정이오.”

河(하) : 황하. 엄(奄)에서 은(殷)으로 옮기려면 황하를 꼭 건너야만 했다.

亶(단) : 곧 정성의 뜻.

夔(설) : 여기서는 설압(夔狎), 곧 벼룩없이 군다는 말.

登進(등진) : 사근전(使近前), 곧 가까이 앞으로 나오게 한다는 말.

荒失(황실) : 저버린다는 뜻.

前后(전후) : 선대의 임금님들.

感(척) : 쳐(戚)과도 통하여 상친(相親)한다는 뜻.

浮于天時(부우천시) : 하늘의 때와 부합된다는 뜻.

大瘞(대학) : 횡하의 범람으로 인한 수재를 가리킨 말.

不懷(불회) : 살던 땅에서 머물러 살며 옮기지 않았다는 뜻.

厥(궐) : 선왕을 가리킴.

用遷(용천) : 이천(以遷)과 같아 도읍을 옮겼다는 뜻.

古后(고후) : 선왕과 같은 말.

俾(비) : 비(裨)와 통하여 비의(裨益)의 뜻. 곧 이롭게 하여 주는 것.

比于罰(비우벌) : 벌을 주는 것처럼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도읍을 옮기려는 것은 아니라는 뜻.

籲(유) : 호(呼)와 통하여 호소의 뜻.

懷(회) : 옮겨오는 것.

將試(장시) : ~을 하려 하는 것.

攸困(유곤) : 괴로워하는 것.

自鞠自苦(자국자고) : 스스로 자신을 궁하게 만들고 또 괴롭게 만든다는 뜻.

厥載(궐재) : 그 배에 실은 물건.

不屬(불속) : 부족의 뜻.

或稽(혹계) : 조금만 생각한다는 뜻.

瘳(추) : 여기서는 고통이나 걱정이 모두 없어진다는 말.

有今罔後(유금망후) : 지금만 있고 뒷날은 없는 것.

起(기) : 작(作)과도 통하여~한 짓을 하는 것.

臭(취) : 멀망하는 것.

乃身(내신) : 그대의 처신.

奉畜(봉축) : 봉양 또는 부양의 뜻.

先神后(선신후) : 선대의 신성한 임금. 탕임금.

勞爾先(노이선) : 도읍을 옮김으로써 그대들의 조상들을 수고롭게 하였다는 뜻.

羞(수) : 이곳에서는 양(養)의 뜻.

懷爾(회이) : 그대들을 위하여 생각한다는 말.

陳(진) : 오래되는 것.

高后(고후) : 높은 임금. 탕임금을 지칭한 말.

罪疾(죄질) : 죄에 대하여 벌로써 괴로움을 당하는 것.

比(비) : 곧 화합하여 친하게 지내는 것.

爽德(상덕) : 패덕의 뜻.

迪(적) : 여기서는 도망한다는 뜻.

共作(공작) : 다 같이~이 된다는 뜻.

畜民(죽민) : 먹여 살리는 백성.

有戕(유장) : 해치려는 생각.

則(즉) : 지(只)와 통하여 오직의 뜻.

同位(동위) : 함께 벼슬하는 여러 사람들.

具(구) : 여기서는 많은 물건을 주워 모으는 것.

作(작) : 행한다는 뜻.

迪(적) : 여기서는 계(啓)와 통하여 아뢰.

弗祥(불상) : 상서롭지 않은 것. 곧 재앙.

胥絕遠(서절원) : 훈계를 따르지 않고 서로 벼려 멀리 한다는 뜻.

分畱念(분유념) : 계획과 생각을 나누어 한다. 곧 함께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

不迪(부적) : 불순, 곧 순종하지 않는 것.

顛越(전월) : 엎어지고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 것.

暫遇(잠우) : 도읍을 옮기려 하고 있는 짧은 동안의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의 뜻.

姦宄(간궤) : 간악한 짓을 하는 것.

剷殄滅之(의진멸지) : 그를 베어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뜻.

遺育(유육) : 후손.

易種(역종) : 나쁜 사람들의 씨가 옮겨온다는 말.

반경 하(盤庚 下)

이 장은 도읍을 온 땅으로 옮긴 뒤 반경이 백성들에게 한 훈시이다.

반경이 이미 도읍을 옮겨 사는 곳을 정하시고 그들의 벼슬을 바로잡아 이에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다.

“놀며 게으르지 말고 힘써 위대한 명을 세우시오. 이제 나는 마음과 뱃속의 오장까지 다 드러내서 그대들 백성들에게 내 뜻을 모두 고하겠소. 나는 그대들에게 죄를 내리지 않을 것이오. 그대들은 함께 무리를 이루어 사람을 참소하는 말에 따르지 마시오.

옛 우리 선왕은 전대의 공보다 많은 것을 이루고자 산으로 옮겨 우리의 흥한 덕을 줄이시고,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공을 이루셨소. 지금 우리 백성들은 흘러 다니고 흘어져 살 곳을 떠나 정주하지 못하거늘, 그대들은 나에게 ‘어찌하여 온 백성을 진동시키면서 이에 옮기는가’고 말할 것이오. 그러나 하느님은 장차 우리 고조(高祖)의 덕을 회복하시어 다스림이 우리 집에 미치게 하시거늘, 나는 돈독하고 공경한 이로 백성의 명을 공손히 이어서 길이 새로운 도읍에서 살게 하였소.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이 그대들을 위한 계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이를 쓰에 지극하였으며 모두가 감히 점을 어기지 않음으로써, 이 아름다운 일을 크게 할 수 있었소.

오호, 방백(方伯)들과 사장(師長)과 백집사(百執事)의 사람들은 바다 건너 거의 모두가 걱정하여 주오. 나는 힘써 그대들을 골라 벼슬을 주어 우리 백성들을 생각하고 공경하게 하겠소.

나는 재물을 좋아하는 이를 쓰지 않고 생업에 힘쓰는 사람을 공경하며, 사람들을 기르고 그들의 보전함을 꾀하는 인물에게 벼슬을 주어 중용할 것이오.

이제 나는 이미 그대들에게 나의 뜻을 분별하여 고하였으니, 공경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시오. 재물과 보배를 모으지 말고 생업에 힘써 자급자족하시오. 공경하여 백성들에게 덕을 펴서 길이 한마음을 갖도록 하시오.”

盤庚既遷，奠厥攸居，乃正厥位，綏爰有衆。

曰：“無戲怠，懋建大命！

今予其敷心腹腎腸，歷告爾百姓于朕志，罔罪爾衆，爾無共怒，協比讒言予一人！

古我先王，將多于前功，適于山，用降我凶德，嘉績于朕邦。

今我民用蕩析離居，罔有定極。爾謂朕曷震動萬民以遷？

肆上帝將復我高祖之德，亂越我家。朕及篤敬，恭承民命，用永地于新邑。

肆予沖人，非廢厥謀，弔由靈，各非敢違卜，用宏茲貢。

嗚呼！邦伯師長，百執事之人，尚皆隱哉。

予其懋簡相爾，念敬我衆。

朕不肩好貨，敢恭生生，鞠人謀人之保居，敘欽！

今我既羞告爾于朕志，若否，罔有弗欽！

無總于貨寶，生生自庸！

式敷民德，永肩一心！

[통석] 반경 임금은 마침내 백성을 데리고 새 도읍 은(殷) 땅으로 옮겨 백성들의 살 곳을 안정시켰다. 또한 임금과 신하의 위아래의 자리를 바로잡고 관리와 백성들의 옮겨온 노고를 위로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이젠 수도가 정해졌으니 온 국민은 부지런히 힘을 다해 나라와 무궁한 계획을 세우고 영원히 안녕을 누리도록 하오.

이제 나는 마음에 있는 생각을 모두 털어놓아 그대들에게 그 뜻을 알리는 것이오. 나는 그대들에게 죄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오. 그 동안은 명을 듣지 않아서 부득이 벌을 내렸던 것이오. 그대들은 격하고 노해서 당파를 만들어, 나 한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오. 나는 임금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공연히 그대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오.

옛날 탕임금께서도 조상보다 많은 공을 세우려고 산 곧 박(毫) 땅으로 도읍을 옮기셨으니, 이는 우리에게 산의 험고(險固)에 의하여 성곽을 쌓는 노고를 없애고, 아

래로 흉악한 덕을 제거하여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업적을 세우기 위한 까닭이었던 것이오.

이제 경(耿) 땅이 흥수의 재해가 많아서 백성들은 이리저리 흘러 다니며 흘어져 살고 흥덕에 빠져 해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온 백성을 진동시켜 도읍을 옮겼는가’라고 그대들은 물을 것이오.

이제 하늘은 장차 우리 탕임금의 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줄 것이오. 그래서 나는 하늘의 명을 따라 도읍 옮기는 일을 단행한 것이오. 나는 한두 사람 돈독하고 공경하는 신하와 함께 서로 계획하고 협력하여, 삼가 백성들의 목숨을 지키면서 이곳에 새로운 도읍을 세워 영구히 안락하게 살고자 한 것이오.

내 비록 어린 사람으로서 경험에 적지만 그대들을 위한 계획을 버리지 않고 최선의 경지에 이르도록 힘썼다고 믿고 있소. 그래서 점을 친 바 점도 길하였소. 나는 깊히 점괘를 어길 수 없어 도읍을 옮긴 것이니, 그것은 나라의 대업(大業)을 크게 하고자 함이지 다른 뜻이 있어 그러한 것이 아님을 알아주오. 오오! 제후들과 관장들, 다른 관원들이여! 모두 백성을 측은하게 생각할지어다. 백성들이 천도한 처음이라 생활이 안정되지 못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오.

나는 재덕이 있는 사람을 간택하여 우리 백성들을 힘써 돋고 공경히 생각하도록 노력할 것이오. 나는 재물을 탐내는 사람에게는 벼슬을 주지 않을 것이고, 오직 백성을 공경하는 데 용감하고 백성의 생활을 이룩하여, 곤궁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들을 편안하게 보호하여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어 중용할 것이오.

이제 나는 나아가서 모든 것을 말하였소. 그대들은 나의 뜻이 옳고 그른 것을 깊이 생각하여 나의 말한 것을 모두 따라 주기 바라오.

그대들은 재물과 보배를 모을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백성들의 생업을 두텁게 하여 백성들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한다면 공덕을 이룰 것이오.

언제나 백성들을 위하여 덕을 폄서 지금으로부터 뒷날까지 영원히 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맙아 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오.”

奠(진) : 안정.

攸居(유거) : 소거(所居). 사는 곳.

厥位(궐위) : 백성들의 지위. 곧 여러 가지 계급의 벼슬자리를 말함.

大命(대명) : 국가의 운명.

心腹賢腸(심복신장) : 마음 속의 모든 것을 통틀어 일컬은 말.

歷(역) : 전부.

罔罪爾衆(망죄이중) : 그대들에게 죄를 내리지 않겠다의 뜻.

協比(협비) : 힘을 합쳐 무리를 이름.

前功(전공) : 선조들의 공.

蕩(탕) : 여기서는 떠다니는 것.

析(석) : 여기서는 흩어지는 것.

定極(정극) : 안정된 살 곳.

肆(사) : 말끝을 바꾸는 것. 그러나의 뜻.

越(월) : 어(於)의 뜻.

民命(민명) : 백성들의 생활.

永地(영지) : 영원히 사는 것.

冲人(충인) : 임금이 자기를 낮추어서 한 말.

厥謀(궐모) : 도읍을 온 땅으로 옮겨 잘 살아 보려는 계획.

吊(격) : 숙(叔)으로 보고 숙은 숙(淑)과 통하여 선(善)의 뜻.

靈(영) : 영(令)과 통하여 명(命)의 뜻. 적유령(吊由靈)은 선용명(善用命). 명을 잘 따랐다는 뜻.

邦伯(방백) : 나라의 우두머리. 제후.

師長(사장) : 여러 관리들의 우두머리.

百執事之人(백집사자인) : 여러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 벼슬아치들.

簡(간) : 간택의 뜻임.

相(상) : 곧 임금을 돋는 일을 시키겠다. 다시 말하여 벼슬을 주겠다.

肩(견) : 임용의 뜻.

生生(생생) : 생업에 힘쓰는 사람.

鞠人(국인) : 사람들을 길러주는 사람.

謀人之保居(모인지보거) : 사람들의 편안한 삶을 꾀하는 사람.

敍(서) : 차례에 따라 벼슬을 주겠다는 뜻.

羞(수) : 봉(奉)과 뜻이 통하여 받는다는 뜻.

自庸(자옹) : 자급자족의 뜻.

永肩(영견) :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

一心(일심) : 충성된 마음.

열명 상(說命 上)

열명은 고종(高宗)이 부열(傳說)에게 명한 말을 기록한 글이다. 상편은 고종이 부열을 재상에 등용할 때의 말을 기록한 것이고, 중편은 부열이 재상이 되어 임금에게 경계의 말을 고한 것이고, 하편은 부열이 학문을 논한 말을 기록한 것이다. 고종은 반경의 아우인 소을(小乙)의 아들로서 이름은 무정(武丁)이다.

덕이 높아 존경할 만한 임금이라 하여 고종(高宗)이라 불렸다. 고종은 어진 재상을 얻는 꿈을 꾸고 백관을 시켜 사방에 찾았던 바, 부암(傅巖)의 계곡에서 열(說)을 얻었다 하여 부열(傳說)이라 하였는데, 곧 부열에게 명하여 재상을 삼고, 그로 하여 금 정사를 대행하게 하였다 한다.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 있다.

임금이 거상(居喪)하시어 삼 년을 움막에서 지내시다가 상(喪)을 이미 면하고도 말을 하지 않으셨다. 군신(群臣)들이 임금께 간하였다.

“오오! 아는 것을 이르되 명철이라 하고 명철하면 진실로 법을 만들게 되오니, 천자께서는 온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으로 백관들이 법을 받들고 공경하여, 임금님 말씀은 곧 명령이 됩니다. 말씀하지 않으시면 신하들이 명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금이 글을 지어 고하셨다.

“나로써 온 세상을 바로잡도록 하셨으나, 내 덕이 훌륭하지 못함을 두려워하여 이 때문에 말하지 않고 공경하고 침묵하며 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꿈에 하느님이 나에게 보조자를 보내 주셨으니 그가 나를 대신하여 말하게 될 것이오.”

이에 그 형상을 더듬어 그려 널리 천하에 찾게 하였다. 이때 열(說)이 부암(傅巖)의 들에서 흙을 다지고 있었는데 그 형상과 같았다. 이에 그를 세워서 재상을 삼고 임금은 어진 그를 좌우(左右)에 두셨다.

그리고 그에게 명하여 말씀하셨다.

“아침저녁으로 가르침을 올려 나의 덕을 도와주오. 만약 내가 쇠라면 그대를 숫돌로 삼겠으며, 만약 큰 낯물을 건너거든 그대를 배와 둑대로 삼겠으며, 만약 크게 가뭄이 드는 해가 왔다면 그대를 단비로 삼겠소. 그대의 마음을 열어 나의 마음을

운택하게 하여 주기 바라오.

만약 약이 독하지 않으면 그의 병이 낫지 않을 것이며, 만약 맨발로 가면서 땅을 보지 않으면 그 발을 다칠 것이오.

그대의 동료들과 마음을 함께 하지 않는 일 없이 그대 임금을 바르게 하여 선왕들을 따르고, 우리 고후(高后)를 뒤쫓아서 온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오.

오오! 나의 이 명을 공경하여 훌륭한 끝이 있도록 힘써 주오.”

열(說)이 임금께 아뢰었다.

“나무는 먹줄을 따르면 곧아지고, 임금은 간함을 따르면 성인(聖人)이 되오니, 임금께서 능히 성스러워지시면 신하는 명하지 않으셔도 그 뜻을 받들 것이니 누가 감히 임금님의 아름다운 명을 공경하고 따르지 아니 하겠습니까?”

王宅憂，亮陰三祀。既免喪，其惟弗言。羣臣咸諫于王曰：“嗚呼！知之曰明哲，明哲實作則，天子惟君萬邦，百官承式，王言惟作命，不言，臣下罔攸稟令。”

王庸作書以誥曰：“以台正于四方，台恐德弗類，茲故弗言，恭默思道，夢帝賚予良弼，其代予言。”

乃審厥象，俾以形旁求于天下，說築傅巖之野，惟肖。

爰立作相，王置諸其左右。

命之曰：“朝夕納誨，以輔台德。

若金，用汝作礪，若濟巨川，用汝作舟楫，若歲大旱，用汝作霖雨。

啓乃心，沃朕心！

若藥弗瞑眩，厥疾弗瘳。若跣弗視地，厥足用傷。

惟暨乃僚，罔不同心，以匡乃辟，俾率先王，迪我高后，以康兆民！

嗚呼！欽予時命，其惟有終！”

說復于王曰：“惟木從繩則正，后從諫則聖，后克聖，臣不命其承，疇敢不祗若王之休命？”

[통석] 고종 임금이 부왕 소을(小乙) 임금의 상(喪)을 입고 삼 년 동안 여막(蘆幕)에 서 근심에 잠겨 지냈다.

고종은 이미 상을 벗은 뒤에도 정치에 관한 말이 없었다. 이에 여러 신하들은 임금께 간하여 말했다.

“모든 사리를 먼저 아는 덕이 있는 이를 명철(明哲)하다고 하는 것이니, 명철한 사람�이야말로 실로 천하의 법도(法度)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천자는 온 나라에 군림하시는 분이니, 모든 관리들은 그분의 법령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의 말씀은 바로 명령이 되는 것인 바 임금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신하들은 명령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고종은 이에 글을 지어 여러 신하에게 자기가 말을 하지 않은 뜻을 알렸다.

“나는 온 세상을 바로잡게 할 책임이 중대하지만 내 덕이 전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하므로, 감히 경솔하게 발언을 하지 못하고 오직 공경한 태도로 침묵을 지켜 다스리는 도를 생각하고 있었소. 그런데 지난 밤 꿈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진 보필자를 를 내려 주셨으니, 그 사람이 장차 나를 대신하여 말하게 될 것이오.”

그리고 임금은 꿈에서 본 사람의 형상을 자세히 생각하여 그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천하에 널리 구하였다. 그때 부열(傅說)이라는 사람이 부암(傅巖)이란 시골에서 담을 쌓는 노동을 하고 있었다. 이 부열의 형상이 고종의 꿈에 본 모습과 꼭 같았다. 고종은 이에 부열을 기용하여 재상을 삼고 자기의 곁에 두고 모든 일을 자문하였다.

고종은 부열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그대는 아침저녁으로 좋은 가르침을 올려서 나의 덕을 돋도록 하오. 만약 내가 쇠라 하면 그대는 숫돌이 되어 잘 갈아서 날카로운 그릇을 이루게 해주어야 하오. 나는 그대의 의견을 들어 덕을 닦는 데 더욱 힘쓰겠소. 만약 나라에 큰 냇물을 건너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나는 그대를 배와 노로 삼아 냇물을 건널 것이오. 또 만약 큰 가뭄이 드는 흥년과 같이 나라에 심한 재난이 닥친다면, 나는 그대를 단비로 삼아 가뭄을 구제할 것이오. 바라건대 그대의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고 나의 마음에 흡족한 가르침을 주어 바른 정치를 하게 해주시오.”

만약 약이 어지럼증을 일으키지 않으면 중병을 고칠 수 없을 것이오. 또 맨발로 길을 갈 때 지면(地面)을 보고 가지 않으면 발을 다치게 되오. 나랏일도 그와 같은 것이오.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나라의 정치를 크게 쇄신하여야 하고, 정당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어떠한 잘못에 빠지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것이오. 그대는 나를 잘 보필하여 말하고 행하는 일에 차질이 없게 해주오.

그대는 동료들과 함께 합심하여 그대의 임금인 나를 바로잡아 선왕의 도를 따르도록 잘 인도해 주오.

그리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옛 어진 임금님의 행한 길을 따르고, 높으신 탕임금의 발자취를 쫓아온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길 간절히 바라오.

오오! 나의 이 명령을 공경히 받아들여 유종의 미를 맷도록 도와주오.”

이에 부열이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남의 신하된 사람이 간언을 올리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임금 된 분이 간언을 받아들임이 어렵다 합니다. 비유해서 말한다면, 나무는 대장(大匠)의 먹줄을 따라 도끼와 자귀로 쳐서 다듬으면 곧고 바르게 되어 하나의 그릇이 됩니다. 임금도 이와 같이 신하의 간언을 쫓으면 행하심에 허물이 없어서 성인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겸손하신 마음으로 간언을 들으시어 성인의 경지에 이르시면, 모든 신하들은 명하시지 않더라도 충성을 다하여 임금님의 뜻을 떠받들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임금님의 명령이 이러하시니 누가 감히 임금님의 아름다운 명령을 공경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宅憂(택우) : 거상의 뜻.

亮陰(양암) : 중문 밖에 움막을 치고 복상하는 것을 의미함.

知之(지지) : 사리를 잘 아는 사람.

作則(작칙) : 규범을 만드는 것.

君(군) : 동사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

罔攸稟令(망유풀령) : 무소수명(無所受命). 곧 명령을 받을 곳이 없다는 뜻.

弗類(불류) : 불초와 비슷한 말로서 옛사람과 같지 못하다. 곧 훌륭하지 못함의 뜻.

恭默思道(공묵사도) : 공손한 태도로 입을 다물고 올바른 도만을 생각하였다는 뜻.

審(심) : 머리 속으로 꿈에 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내는 것.

諸(저) : 지어(之於)의 준말.

諱(회) : 교훈.

若金(약금) : 쇠붙이를 갈아 예리하게 하듯이 나를 돋고 쟁고하여 훌륭한 임금으로 만들어 달라는 뜻이다.

沃(옥) : 마음을 윤택하게 하는 것.

瞑眩(명현) : 약효가 독하여 머리가 아찔해진다는 뜻. 이것은 신하가 임금에게 직간함을 비유한 말이다.

僚(요) : 함께 벼슬하는 사람들.

迪(적) : 쫓아가는 것.

兆民(조민) : 만민.

繩(승) : 목수들이 쓰는 먹춤.

不命其承(불명기승) : 명령하지 않아도 임금님의 뜻을 받드는 것.

休命(휴명) : 올바르고 위대한 명령.

열명 중(說命 中)

이 장은 제목이 열명(說命)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은 부열이 재상이 되어 임금에게 나라 다스리는 방법을 말한 것이다.

열(說)이 임금님의 명으로 백관을 거느렸다. 이에 임금님께 나아가 아뢰었다.

“오오! 밝으신 임금은 하늘의 도를 받들고 쫓아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마련하며, 천자와 제후의 법도를 세우시고 여러 벼슬과 관청의 우두머리들을 임명하여, 오직 편안히 놀지 않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늘은 총명하시니 성군(聖君)께서 이를 본받으시면, 신하들은 공경하고 따를 것이며 백성들은 따라서 다스려질 것입니다.

입은 수치를 일으키며 갑옷과 투구는 전쟁을 일으키니, 옷과 치마는 장 속에 두었다 잘 쓰며, 방패와 창은 그의 몸을 돌보고 쓰셔야 합니다. 임금께서는 오직 이들을 경계하시어, 이를 믿어 능히 밝으시면 아름답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짐이 여러 관리들에게 달려 있으니 벼슬을 사사로이 가까운 사람에게 주지 않도록 하시고, 그 능력을 따라 주십시오. 작위는 악덕한 자에게 주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어짐에 따라 주십시오.

착함을 생각하며 행동하시고 행동함을 때에 맞춰 하십시오. 스스로 그가 착함이 있다고 하면 그의 착함을 잊고 스스로 그 가능함을 자랑하면 그의 공을 잊을 것입니다.

모든 일마다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총애함을 열어 업신여김을 받게 하지 마시고, 과실을 부끄러워하시어 그릇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오직 머물러야 할 곳에 계시면 정사가 순후하여질 것입니다.

제사를 더럽히는 것은 이를 공경하지 않음이라 이르오니, 예가 번거로워지면 어지러워지고, 이처럼 신을 섬기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말씀하셨다.

“훌륭하오, 열이여! 그대의 말을 실행할 것이오. 그대가 말을 잘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행할 바를 듣지 못하였을 것이오.”

열은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아뢰었다.

“알기가 어려움이 아니라 행함이 어려우니, 임금님께서 정성껏 일하시어 어렵지 않게 되신다면, 진실로 성왕의 성덕(盛德)에 화합하게 될 것입니다. 열이 말씀드리지 않으면 그 허물을 책임지겠습니다.”

惟說命總百官。

乃進于王曰：“嗚呼！明王奉若天道，建邦設都。

樹后王君公，承以大夫師長。不惟逸豫，惟以亂民。

惟天聰明，惟聖時憲，惟臣欽若，惟民從乂。

惟口起羞，惟甲胄起戎，惟衣裳在笥，惟干戈省厥躬。王惟戒茲，允茲克明，乃罔不休。

惟治亂在庶官，官不及私昵，惟其能，爵罔及惡德，惟其賢！

慮善以動，動惟厥時！

有其善，喪厥善，矜其能，喪厥功。

惟事事乃其有備，有備無患。

無啓寵納侮。無恥過作非！

惟厥攸居，政事惟醇。

贊于祭祀，時謂弗欽，禮煩則亂，事神則難。”

王曰：“旨哉說！乃言惟服。乃不良于言，予罔聞于行。”

說拜稽首曰：“非知之艱，行之惟艱，王忱不艱，允協于先王成德，惟說不言有厥咎。”

[통석] 부열은 마침내 고종 임금의 명령을 받아 모든 관리들의 직무를 통솔하는 재상의 직위에 올랐다. 이에 부열은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밝고 어진 임금은 하늘의 법도를 받들고 쫓으며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베풀어 정하였으며, 천자와 제후의 지위를 바로 제정하고 그 명령을 받들 사람으로 여러 벼

슬과 관청의 장들을 임명합니다. 이렇게 군신과 상하의 예를 제정하여 높은 이로 써 낮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고, 아랫사람으로써 윗사람을 받들게 했음은 어느 한 사람의 일하고 노는 계획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총명하시어 듣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공무사(至公無事)하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은 하늘의 총명을 본받아 한결같이 공정한 데로만 나가신다면 신하는 공경하여 따르며, 백성들은 또한 신하들을 따라 다스려질 것입니다.

맡은 몸을 빛나게 하는 것이지만 경솔하게 말을 하면 수치를 일으킬 근심이 있고, 갑옷과 무기는 몸을 방위하는 것이나 함부로 움직이면 전쟁을 일으킬 근심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자기 몸을 위한 것이지만 마땅히 다른 사람에 근심을 끼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으로 내리시는 옷 같은 것은 덕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니, 반드시 장 속 깊이 간직하여 함부로 내주는 것을 삼가시고, 창과 방패 같은 무기는 죄 있는 자를 토벌하는 병권(兵權)을 갖게 하는 것이니, 반드시 몸을 살피는 자에게 엄숙히 맡겨야 하며 함부로 움직임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람에게 주고 맡기는 것이지만 마땅히 자기 몸에 관계됨을 살피셔야 합니다. 임금님께서 진실로 이 두 가지 일을 경계하시어 이 말씀을 믿고 능히 밝혀 가시면 정치는 바로 모두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나라가 잘 다스려지느냐 어지러워지느냐는 공정한 인물을 벼슬에 맡기고 안 맡기는 데 달려 있습니다.

모든 관리는 치란(治亂)의 근원이 되오니 사람을 등용할 때는 사사로운 관계를 중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능력에 따라 등용하십시오. 직위를 내리실 때에는 악덕한 사람에게 내리지 마시고 오직 어진 사람에게만 내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인가 또는 선하지 않은 일인가를 잘 생각하여 행동하셔야 합니다. 행동하심에는 오직 그 때를 맞춰 하십시오. 스스로 그 착함을 자랑하면 자신이 힘쓰지 않아 덕만 더욱 잃을 것이며, 스스로 그 능함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그 힘을 받치지 않아 공이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준비가 있으면 뜻밖의 변이 있

더라도 또는 돌연히 비상한 일이 생기더라도 이에 대처할 여력이 있으므로 근심할 바가 못되옵니다.

신하들을 지나치게 총애하시어 사람들의 모독을 들이지 마실 것이며, 허물을 부끄럽게 여기시고 스스로 비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오직 임금께서 지키고 행하실 바를,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시면 나라의 정치는 순수하여질 것입니다.

제사를 더럽혀서는 안 될 것이니 더럽히면 귀신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되고, 예는 번거롭게 하지 않을 것이니 번거로우면 흔들리고 어지럽게 됩니다. 이는 다 귀신을 섬기는 도가 아닙니다.”

임금은 부열의 간하는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대의 말은 훌륭하고 아름답구려. 만약 그대가 좋은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디에서 그 같은 말을 듣고 행하겠는가?”

부열은 머리를 조아려 큰절을 하고 아뢰었다.

“귀로 들어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정성껏 믿으신다면 실행함이 또한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진실로 선왕 성탕(成湯)의 훌륭한 덕에 합치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저 열이 만일 간하는 말을 아뢰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죄책을 져야 할 줄 압니다.”

進(진) : 여기선 진언의 뜻으로 봄이 옮다.

后王(후왕) : 천자.

君公(군공) : 제후.

樹后王君公(수후왕군공) : 천자와 제후의 법도를 세우는 것.

師長(사장) : 여러 관청의 우두머리.

從父(종예) : 임금과 신하들의 어진 정치를 따라서 다스려진다는 뜻.

起羞(기수) : 입을 함부로 놀리면 수치스러운 일만을 가져오게 된다는 뜻.

起戎(기옹) : 전쟁을 일으킴.

衣裳(의상) : 저고리와 치마. 임금이 신하들의 공에 따라 내리는 옷.

干戈(간과) : 갑주처럼 무비를 총칭한 말.

千戈省厥身(천과성궐신) : 병권을 맡길 때에는 그 사람이 덕이 있는가 그의 행동을 살펴보고 맡기라는 뜻.

茲(자) : 입을 조심할 것.

克明(극명) : 총명하게 행동하는 것.

休(휴) : 정사가 위아래로 잘 다스려지는 것을 가리킴.

不及私昵(불급사님) : 사사로이 친한 사람에게 내리지 않는다는 것.

厥時(궐시) : 그 적절한 때를 찾아 어떤 일이든 행하라는 뜻.

有其善(유기선) : 스스로 그가 착하다고 인정하는 것.

啓寵(계총) : 총애의 문을 연다. 곧 어떤 사람을 총애하여 과분한 권력이나 벼슬을 주기 시작한다는 뜻.

恥過(치과) : 허물을 부끄러이 여겨 감추고 회개하지 않음.

作非(작비) : 더 나쁜 짓을 하게 됨.

條居(조거) : 소지(所止). 곧 사람이 꼭 처신하여야만 할 올바른 곳에 몸을 두는 곳.

良于言(양우언) : 훌륭한 말을 잘하는 것.

聞于行(문우행) : 행동을 잘하는 데 대한 말을 듣는다는 뜻.

忧(침) : 정성을 다해 일함.

有厥咎(유궐구) : 자기가 임금님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말씀드리지 못하여 임금이 허물을 지게 되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로 오게 된다는 뜻.

열명 허(說命 下)

이 장은 임금의 요구에 따라 부열이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임금께 올린 글이다.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오! 그대 열(說)이여! 나 소인(小人)은 옛날에 감반(甘盤)에게 배웠는데, 후에 황야에 물러나 살게 되었고 안쪽으로 들어가 살았으며 황하로부터 박(亳)에 가서 있었으니, 마침내 밝아지지 못하고 말았소.

그대는 나와 뜻에 대해 훈계하여 만약 술과 단술을 빚을 것 같으면 그대가 오직 누룩과 옛기름이 되며, 만약 화갱(和羹)을 만들 것 같으면 그대가 오직 소금과 식초가 되어 주오. 그대는 나를 여러 모로 닦아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오. 나는 능히 그대의 가르침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오.”

열이 아뢰었다.

“임금님이여! 사람이 많이 듣기를 구하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오. 옛 교훈을 배워야 얻음이 있을 것이니, 옛 일을 본받지 않고서도 능히 세대를 영원히 이었다는 말을 열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오직 배움에 있어서는 뜻을 결손히 해야 하고 때로 민첩하게 힘쓰면 그 닦음이 올 것이니, 진실로 이를 품고 있다면 도가 그의 몸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배움의 반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배움에 힘쓴다면 그의 덕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닦아질 것입니다.

선왕들의 이루신 법을 살피시어 영원히 허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오직 열은 그렇게 하심을 공경히 받들고, 널리 뛰어난 어진 사람을 불러 여러 벼슬 자리에 임명하겠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아! 열이여,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의 덕을 우러름은 그대의 가르침 때문이오. 팔과 다리가 있어야 오직 사람이 되듯 어진 신하가 있어야 오직 성군(聖君)이 되오. 옛날의 재상 보형(保衡)이 우리 선왕을 일으키신 분인데 그분은 말씀하시되 ‘내 능히 그 임금으로 하여금 요순(堯舜)이 되게 못한다면, 그 마음의 부끄러움이

시장에서 종아리 맞음과 같은 것이리라' 하였으며, 한 남자라도 옳게 되지 않는 이가 있으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허물이라' 하여, 우리 열조를 하늘에까지 알려지게 하였소. 그대는 바라건대 나를 밝게 보호하여 아형(阿衡)으로 하여금 상나라를 다스린 아름다움을 혼자만이 갖지 못하도록 해주오.

오직 임금은 어진 신하가 아니면 다스리지 못하고, 어진 신하는 임금이 아니면 녹을 먹지 못하나니, 그대는 능히 그대의 임금으로 하여금 선왕들을 잊게 하여 영원 토록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주오.”

열이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감히 천자의 아름다운 명을 대응하여 선양토록 하겠습니다.”

王曰：“來汝說。台小子舊學于甘盤。既乃遯于荒野，入宅于河。自河徂毫，暨厥終罔顯。

爾惟訓于朕志，若作酒醴，爾惟麴蘖，若作和羹，爾惟鹽梅。爾交修予，罔予棄。予惟克邁乃訓。

說曰：“王！人求多聞，時惟建事，學于古訓，乃有獲，事不師古，以克永世，匪說攸聞。

惟學遜志，務時敏，厥修乃來。允懷于茲，道積于厥躬。

惟數學半，念終始典于學，厥德修罔覺。

監于先王成憲，其永無愆。

惟說式克欽承，旁招俊乂，列于庶位。”

王曰：“嗚呼！說！四海之內，咸仰朕德，時乃風。

股肱惟人，良臣惟聖。”

昔先正保衡，作我先王。乃曰：‘予弗克俾厥后惟堯、舜，其心愧恥，若撻于市，一夫不獲，則曰時予之辜。’佑我烈祖，格于皇天，爾尚明保予，罔俾阿衡，專美有商！”

惟后非賢不乂，惟賢非后不食，其爾克紹乃辟于先王，永綏民。說拜稽首曰：“敢對揚天子之休命。”

[통석] 임금님이 또 부열을 향하여 말하였다.

“가까이 오오, 그대 열(說)이여! 나는 옛날 감반(甘盤)을 스승으로 삼아 학문을 한 일이 있었소. 그러나 중도에 학문을 폐하고 부왕의 명령에 의하여 거친 들판에 물러가 살았고, 또 황하의 북쪽에 살아 백성들의 생활과 노고를 보고 들어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은 하였소. 그 후 황하로부터 다시 박(毫)에 돌아왔소. 그러나 이리저리 읊겨 다니는 동안에 끝내 배움을 깨우치지 못하고 말았소.

이제 그대는 내가 자신의 뜻을 이루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오.

예를 들면 술과 단술을 빚으려면 반드시 누룩과 엿기름이 있어야 하듯이, 그대는 나를 돋고 인도하여 나의 덕을 이루게 할 누룩과 엿기름의 역할을 하여 주오. 또 국을 만들려면 반드시 소금과 식초가 있어야 하듯이, 그대는 짜고 신맛을 고르게 맞춰 주는 나의 소금과 식초가 되어 주오. 그대는 나에게 마땅히 유(柔)와 강(剛), 가(可)와 부(否)를 잘 조정하여 여러 가지로 경계하고 바로잡아 그 덕을 닦게 해주오. 내가 나타남이 없다 해서 버리고 가르쳐 주지 않아서는 안 되오. 나는 오직 돈독히 믿고 힘써 행하여 그대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오.”

부열은 다음과 같이 간하였다.

“임금님이시여! 임금이 신하에게 아침저녁으로 가르침을 받고 여러 가지로 덕을 닦아 견문을 넓히는 것은, 오직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일을 세우려 함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옛사람의 가르침을 배워서 깊이 의리의 소재를 체득한 뒤에야 얻음이 있는 것이오니, 옛사람의 교훈을 본받지 않고서 능히 영원토록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안녕하게 할 자가 있다는 걸 저는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오직 배우는 길은 항상 그 뜻을 겸손히 하여 능함이 있더라도 능치 못한 듯하고, 배움에 기민하여 노력하되 항상 미치지 못하는 듯하여, 언제나 겸허한 마음으로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근면한 태도로 자신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닦아 얻은 바가 마치 샘물이 솟아나는 듯 끊이지 않고 흘러올 것입니다. 이에 독실하게 믿고 깊이 생각한다면 바른 도가 몸 안에 쌓여 해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임금의 학문이 어찌 다만 수신에 그칠 수 있습니까? 배운 바를 미루어 세상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것도 또한 배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학(自學)은 스스로의 덕을 밝히는 것이며 교인(教人)은 백성의 덕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배움에 뜻을 두어 조금도 중단함이 없으면 그 덕의 닦아지는 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 덕이 아무리 자신도 모르는 심오한 영역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선왕들의 이루어 놓으신 법을 살펴 따라 영원히 과오가 없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덕이 진실로 이러한 허물이 없는 데에 이르신다면, 열은 공경히 뜻을 받들어서 널리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을 찾아 구하여, 벼슬에 앉히겠습니다.”

임금은 부열의 가르침을 듣고 이어 부열의 도움을 바라면서 탄식하여 말씀하셨다.
“아! 열이여! 나는 그대의 도움을 힘입음이 또한 깊었소.

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나를 우러러봄은, 이 모두 그대 가르침의 덕이라 생각하오. 손발을 갖춰야 사람이 되듯, 어진 신하가 보필하여야 임금도 훌륭하게 되는 것이오.

옛 재상인 보형은 탕임금을 도와 그 왕업을 이루하였는데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우리 임금님을 요임금이나 순임금처럼 성군을 만들지 못하면 나는 마음의 부끄러움을 마치 장마당 뭇사람 가운데서 종아리를 맞는 것과 같이 생각한다’고 하였소.

또한 한 사람의 어리석은 남자라도 살 곳을 얻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것은 나의 죄다’라고 하였소. 이와 같이 우리 열조 탕임금을 도운 그 공적은 너무도 위대하여 하늘과 대등할 정도까지 이르렀던 것이오. 바라건대 그대 열도 우리나라의 왕업을 빛나게 도와서 저 이윤만이 상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아름다운 명예를 차지하게 만들지 마오.

임금은 어진 신하가 아니면 정치를 함께 할 수 없고 어진 신하는 임금이 아니면 함께 녹(祿)을 먹을 수 없나니, 그대도 그대의 임금이 선왕들의 뒤를 이어 영원히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힘써 일해 줄 것을 바라는 바이오.”

부열이 머리를 조아려 큰절을 하고 아뢰었다.

“감히 천자의 아름다운 명을 받들어 거행하고 또 그것을 온 백성들에게 높이 선양 하겠습니다.”

甘盤(감반) : 은나라의 어진 신하.

旣(기) : 어떤 일이 다 끝난 뒤라는 뜻.

遜(돈) : 여기서는 은둔. 곧 피하여 숨어 사는 것을 말함.

暨厥終(기궐종) : 끝에 이르기까지의 뜻.

罔顯(망현) : 머리가 깨우쳐지지를 못하였음을 뜻함.

體(예) : 미처 다 익기 전에 뜯 술.

麴蘖(국蘖) : 누룩.

和羹(화羹) :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만든 국을 말함.

梅(매) : 여기에서는 초(醋)의 뜻.

邁(매) : 실행의 뜻.

建事(건사) : 일을 이루는 뜻.

遜志(손지) : 겸허한 마음을 갖고 배우는 것.

時敏(시민) : 언제나 민첩한 것.

厥修(궐수) : 배우는 사람의 학문. 교양을 닦는 뜻.

數學半(효학반) : 가르침은 배움의 반이라는 뜻.

典(전) : 상(常)의 뜻으로도 쓰여서 언제나 힘쓰는 것.

德修罔覺(덕수망각) : 덕의 닦임을 깨닫지 못하다. 곧 모르는 사이에 덕이 닦아진다는 뜻.

憲(현) : 여기서는 본보기의 뜻.

俊乂(준예) : 남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

例(열) : 여기서는 동사로 쓰며 반열에 서게 한다. 즉 벼슬을 준다는 뜻.

庶位(서위) : 여리 벼슬 자리.

風(풍) : 풍교(風敎)의 뜻으로 많이 해석하나 바람이 풀과 나무를 한쪽으로 쓰러뜨리듯 영향을 준다는 뜻으로 봄이 옳다.

先正(선정) : 선대의 재상.

保衡(보衡) : 태갑 상에 나온 이정과 같은 말로 이윤(伊尹)을 가리킴.

獲(회) : 뜻대로, 옳게 행동하는 것.

格于皇天(격우황천) : 이윤이 탕임금을 도와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 덕이 하늘에까지 알려졌다는 말.

阿衡(아衡) : 이윤을 가리킴.

食(식) : 녹(祿)을 먹는 것.

乃辟(내벽) : 그대의 임금. 곧 임금 자신을 가리킴.

對(대) : 임금님의 하시는 일에 대응함.

고종융일(高宗彤日)

고종이 융제(彤祭)를 지내던 날에 한 마리 꿩이 날아와 그 솔에 앉아 우는 이변이 있었다. 이것을 본 조기(祖己)라는 신하가 심상치 않은 일이라 여기고, 탕(湯)임금이 지금의 임금님을 훈계하기 위해 이런 일을 나타나게 했으니, 임금님은 스스로 반성하여 선조의 뜻에 배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임금에게 고했다. 이 장은 이때의 말을 당시 사관이 기록한 훈체(訓體)의 글이다. 훈(訓)이라 말하지 않음은 이미 고종의 훈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글머리에 있는 넉 자로서 제목을 삼았다. 금문과 고문에 다 있는 글이다.

고종이 융제를 지내시던 날에 우는 꿩이 나타났는데, 조기(祖己)가 말하기를, “먼저 임금을 바로잡아야 그 일을 바로잡을 것이다” 하며 임금께 훈계하였다.

“하늘이 아래 백성들을 살피시되 그들의 의리를 주로 하시어, 해를 내리심에 긴 것이 있고 길지 않음이 있으니 하늘이 백성들을 일찍 죽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마음으로 명을 끊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덕을 따르지 않으며 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늘이 이미 명을 내려 그들의 덕을 바로잡게 하셨거늘, 이에 ‘그가 어찌라’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오오! 임금님은 백성들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며, 하늘의 후손이 아님이 없으시니, 제사를 지낼 때는 주로 자기 아버지 사당에만 풍성하게 마십시오.”

高宗彤日，越有雉雉。

祖己曰：“惟先格王，正厥事。”

乃訓于王曰：“惟天監下民，典厥義。降年有永有不永，非天夭民，民中絕命。

民有不若德，不聽罪，天既孚命正厥德。乃曰：‘其如台？’

嗚呼！王司敬民，罔非天胤，典祀無豐于昵！”

[통석] 고종이 선조인 탕임금을 제사하고 그 다음날 다시 제사(용제(彤祭))를 지냈다. 그날 한 마리의 꿩이 날아와 솔귀에 앉아 우는 변고가 생겼다. 이때 조기가 옆에 있다가 스스로 말하였다.

“제사에 이런 변고가 일어남은 임금께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마땅히 먼저 임금의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은 뒤에야 그 괴이한 일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자 조기는 임금 앞에 나아가 간하였다.

“하늘이 아래 백성들을 살펴보시는데 그 재앙과 행복을 주고 빼앗는 것을 오직 의리를 행하고 행하지 않음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이 그 사람에게 주는 수명은 의로우면 길고 의롭지 못하면 길지 않은 것이니, 하늘이 그 백성을 일찍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의롭지 않은 일을 자행하여 그 목숨을 끊어 버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덕을 따르지 않고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늘이 요얼(妖孽)을 내리시어 밀게 하여 꾸짖어 알리나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허물을 반성하고 두텁게 하여 덕을 바로잡아 나가도록 함인데 백성들이 ‘하늘이 나에게 어찌랴’하고 버티면 하늘은 반드시 멸망시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 직책이 백성을 공경하는 일을 주로 하셔야 합니다. 마땅히 정사에 힘쓰고 근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조상들은 하늘의 아들이 아님이 없거늘, 제사를 주장하되 오직 가까운 아버지 사당에만 풍성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厥事(궐사) : 제사 지내는 일.

監(감) : 감시.

中(중) : 사람의 마음을 말함.

聽罪(청죄) :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음.

天胤(천운) : 천자 또는 천손.

典祀(전사) : 제사를 맡아 지냄.

서백감려(西伯戡黎)

서백은 주(周)의 문왕(文王)이니 이름은 창(昌)이고 성은 희씨(姬氏)이다. 《사기》에 의하면 문왕이 유리(羑里)의 감옥에서 벗어나 낙서(洛西)의 땅을 천자인 주(紂)에게 바쳤다. 주 임금은 궁시(弓矢)와 부월(斧鉞) 등 무기를 내주어 정벌하는 일을 오로지 맡기고 서백(西伯)을 삼았다. 문왕이 명을 받자 여(黎)나라가 무도하게 천자의 수도에 접근해 왔다. 이에 문왕은 군사를 일으켜 쳐서 이겼다. 조이(祖伊)는 주나라 덕이 날로 성하여 여를 쳐서 이겼고, 주임금은 포학하여 개전의 빛이 없었으니, 그 형세는 반드시 은(殷)에까지 미칠 것이므로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주왕에게 달려가 알리고, 주왕의 개오를 바랐다. 사관이 그 말을 기록해 이 편을 만든 것이다. 금문과 고문에 다 들어 있다.

서백(西伯)이 이미 여(黎)나라를 쳐서 이기자, 조이(祖伊)가 두려워하여 임금께 달려가 고하였다.

“천자시여! 하늘이 이미 우리 은나라의 명을 끊으셨으니 지극한 사람과 큰 거북도 감히 길함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 임금님들이 우리 뒷사람들을 돋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음란하고 방탕하게 행동하심으로써 스스로 그것을 끊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이 우리를 버리시어 편안히 먹게 두지 않으며, 천성을 해아리지 않으며 떳떳한 법을 밟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백성들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는 이가 없이 모두 ‘하늘은 어찌하여 위엄을 내리시지 않을까? 비상한 명이 내리지 않으니 지금의 임금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말씀하셨다.

“오오! 우리의 삶은 명이 하늘에 있지 아니한가?” 조이가 대답하였다.

“오오! 당신의 죄가 하늘에 많이 나열돼 있거늘, 그 명을 하늘에 책하십니까? 은나라가 곧 망하여 하고 있음은 바로 당신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 나라에 죽음이 없을 수 없겠습니다.”

西伯旣戡黎。祖伊恐，奔告于王。

曰：“天子！天旣訖我殷命。格人元龜，罔敢知吉。非先王不相我後人，惟王淫戲用自絕。

故天棄我，不有康食，不虞天性，不迪率典。

今我民罔弗欲喪，曰：‘天曷不降威？大命不摯？今王其如台？’”

王曰：“嗚呼！我生不有命在天？”

祖伊反曰：“嗚呼！乃罪多參在上，乃能責命于天？

殷之即喪，指乃功，不無戮于爾邦。”

[통석] 서쪽 제후 주나라의 문왕이 무도한 여나라를 토벌하여 이기고 그 국토를 영지로 했다. 이때 은나라의 어진 신하 조이는 서백의 덕과 세력이 날로 성대해 감을 보고, 두려워 달려가 주임금에게 아뢰었다.

“천자님이시여! 하늘이 이미 우리 은나라의 명을 끊으셨습니다. 지인(至人)께 물어 보나 큰 거북이에게 점을 쳐보나 다 그 길함을 말하지 않으니 흥화가 반드시 닥치고야 말 것입니다. 이같이 은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선왕의 신령이 우리 후손을 도우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인 임금께서 음탕하고 희롱만 하시어 스스로 은나라의 명을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편안히 먹지 못하게 하시니, 흥년과 기근이 거듭 이르러 백성들은 양심을 잃고 나라 법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백성들은 모두 임금의 학정을 괴로워하여 은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하늘은 어찌하여 은나라에 위엄을 내리지 아니하시는가? 또 큰 명을 받은 자가 어찌 오지 않는가? 지금 임금은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주임금은 탄식하여 말씀하였다.

“백성들이 비록 나를 망하게 하려 들지만 나의 삶은 오직 그 명이 하늘에 있지 아니한가? 그리 걱정할 것은 없소.”

조이가 대답하였다.

“당신의 죄가 하늘에 별처럼 너무 많이 드러나 있거늘, 어이 그 명을 하늘에 책망 하려들니까? 은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 당신의 하신 일을 지적하건대 어찌 그 죽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祖伊(조이) : 주왕(紂王)의 신하이며 어진 사람.

格人(격인) : 지(至)와 통하여 지인. 곧 지극한 도에 통한 사람으로 사람의 앞길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

元龜(원귀) : 점칠 때 쓰는 거북.

罔敢知吉(망감지길) : 길함을 알지 못한다는 뜻.

自絕(자절) : 스스로 자명(茲命)을 끊는 것.

不有康食(불유강식) : 흥년이 들어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뜻.

迪率(직술) : 법을 따라 행동하라는 뜻.

大命(대명) : 하늘의 큰 명을 받는 사람.

如台(여이) : 여이, 여하의 뜻.

參(참) : 쭉 나열돼 있음을 뜻함.

責命于天(책명우천) : 자기의 목숨의 길고 짧은 것을 하늘에 책임 지우는 것.

指乃功(지내공) : 그대와 한 일을 손꼽아야 한다는 뜻으로 그대가 한 일 때문의 뜻.

미자(微子)

미(微)는 나라 이름이고 자(子)는 벼슬이다. 미자(微子)의 이름은 계(啓)이며 제을(帝乙)의 장자요, 주(紂)임금의 서모(庶母)에서 난 형이다. 미자는 서자였기 때문에 왕이 못되었지만 신의와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다. 주임금의 폭정으로 은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음을 생각하여 기자(箕子)와 비간(比干)에게 그 일을 상의하였다. 이들의 대화를 사관이 기록한 글이 이 장이다. 금문과 고문에 모두 실려 있다.

미자가 이렇게 말하였다.

“보사(父師)와 소사(少師)여! 은나라가 세상을 다스려 조금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조상들이 이루어 놓은 것이 윗대에 베풀어져 있으나, 우리는 술에 빠져 주정을 일삼아 그 분들의 덕을 아랫대에 와서 어지럽히고 망쳐 놓았습니다.

은나라는 작은 사람, 큰 사람 할 것 없이 노략질과 도적질과 반란과 소란함을 좋아 하거늘, 경사(卿士)는 법도가 아닌 것을 본받으며,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떳떳이 잡지 않고 있으니 낫은 백성들은 바야흐로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대적하여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은나라가 멸망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큰 강물을 건넘에 그 나루와 언덕 없음과 같으니 은나라가 드디어 망함이 이에 이르렀습니다.”

또 말하였다.

“보사와 소사여, 나는 그 미친 것을 피하여 떠나가 버릴까요? 우리 집에서 늙도록 있을까요? 거친 들에 숨어서 살까요? 지금 당신들이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보사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왕자여! 하늘이 호되게 재앙을 내리시어 은나라를 황폐하게 하시거늘, 바야흐로 모두 들고 일어나 술에 빠져 주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노성(老成)한 사람들과 오랫동안 벼슬한 사람들 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제 은나라 백성들은 하늘과 땅의 신에게 올리는 희(犧) · 전(牲) · 생(牲)의 제물을 흡쳐가도 그대로 용납되며, 또 가져다 먹어도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습니다. 은나라 백성들을 내려다보면, 원수를 다스리듯 거둬들이니 적대하고 원수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가 합하여 한결같으니 괴로움이 크고 많아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상나라는 이제 재앙이 있을 것이니 저는 일어나 그 망함(敗(패))을 받겠습니다. 상나라가 멸망에 빠져도 저는 다시는 신하가 되지 않겠습니다. 왕자에게 아뢰오니, 도망하십시오. 나는 오래 전부터 당신을 해치려 한다고 아뢰어 왔습니다. 왕자께서 나가지 않으면 사직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자중하여 사람마다 옛 임금께서 스스로 공헌해야 합니다. 저는 도망갈 생각은 없습니다.”

微子若曰：“父師少師。殷其弗或亂正四方，我祖底遂陳于上，我用沈酗于酒，用亂敗厥德于下。

殷罔不小大，好草竊姦宄，卿士師師非度，凡有辜罪，乃罔恒獲，小民方興，相爲敵讎，今殷其淪喪，若涉大水，其無津涯，殷遂喪越至于今。”

曰：“父師！少師！我其發出狂。吾家耄遜于荒。今爾無指，告予顛墮，若之何其。”

父師若曰：“王子！天毒降災荒殷邦，方興沈酗于酒。

乃罔畏畏，咷其耆長，舊有位人。

今殷民，乃攘竊神祇之犧牲，用以容，將食無災。

降監殷民，用乂讎斂，召敵讎不怠，罪合于一，多瘠罔詔。

商今其有災，我興受其敗。商其淪喪，我罔爲臣僕，詔王子出迪，我舊云刻子。王子弗出，我乃顛墮。

自靖，人自獻于先王，我不顧行遜。”

[통석] 은나라 주왕(紂王)의 포학무도한 짓이 날로 더욱 심해져 천하를 다스릴 희망이 없었다. 이에 미자(微子)는 보사(父師)인 기자(箕子)와 소사(少師)인 비간(比干)

두 사람에게 자기의 거취를 의논하였다.

“보사와 소사여, 이제 은나라는 더 이상 천하를 바르게 다스릴 수 없게 되었소. 임금의 위광도 없어지고 나라의 제도도 문란하게 되었소. 우리 조상 탕임금은 빛난 업적을 이미 이루어 놓았건만, 그 자손은 술에 빠져 주정을 일삼다가 그분이 이룩하신 훌륭한 덕을 망쳐 놓고 말았소.

은나라의 백성들은 임금의 부덕함으로 인해 지위의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 도적질과 반란과 사악을 일삼고 있소. 그런가 하면 경대부나 선비들도 법도에 어긋나는 일을 서로 본받고 있소. 그리고 위아래가 서로 용납하고 숨겨 주니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죄값을 받는 자가 없소. 그리하여 미천한 백성들은 아무 두려움이 없이 마구 들고 일어나, 강한 자는 약자를 능멸하고, 많은 무리는 적은 무리를 포학하여 원수처럼 적대하여 투쟁과 침탈(侵奪)을 마음대로 자행하고 있소. 이렇게 되니 강상(綱常)과 기율(紀律)은 극도로 문란해져 은나라가 멸망의 구렁에 빠짐이 마치 큰 강물을 건널 때 나루와 물가가 없는 것처럼 절망 상태가 되고 말았소. 은나라의 망할 날이 이제 마침내 눈앞에 닥쳐왔소.”

미자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보사와 소사여, 임금님이 저토록 발광적이고 포학무도하니 우리나라의 노성(老成)한 사람들이 다 황막한 들판으로 도망치고 있소. 나라의 위망의 형제가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거늘, 나는 어찌하면 좋겠소? 나라를 떠나 버려야 할는지 또는 초야에 숨어 늙도록 집에서 여생을 보내야 할는지 지금 두 분께서 내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오. 나라가 멸망하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사인 기자가 대답하였다.

“왕자시여! 주임금으로 말하면 주임금 자신이 도를 망쳤으므로 하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며, 천하로 말하면 주임금의 포학무도는 또한 하늘의 운명이 아니겠소? 그러나 우리 임금은 밤낮으로 술에 빠져 주정만 일삼고 있으니, 나라의 멸망하는 형세는 인력으로써 능히 구출할 바가 아니라 생각하오. 이렇게 되니 주임금은 마땅히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노성(老成)한 분들과 대대로 벼슬한 분들의 말도 아예 들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쫓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은나라와 백성들은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는 여러 가지 제물을 도둑질해 가고 있지만, 관리들은 아랑곳없이 서로 용납하고 숨겨 주며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은나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보건대, 윗사람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마치 원수에게 하듯 가혹한 과세를 거둬들일 뿐이니, 모든 백성들은 윗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금이나 관리들은 모두 죄짓는 일만을 일삼고 있으니, 백성들은 술한 괴로움을 당하여도 호소할 곳조차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상나라는 이제 멸망하는 재앙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나가서 상나라의 패망을 몸소 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상나라가 만일 망한다 하더라도 저는 다른 사람의 신 하나 종이 될 생각은 단연코 없습니다. 제가 전날에 제을임금님에게 미자 왕자님을 천자로 세울 것을 권했지만, 듣지 않고 주(紂)를 천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 임금은 이 사실을 알고 심히 왕자를 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전날에 말한 것이 도리어 왕자님을 해롭게 함이 되었습니다. 왕자님께서 만일 도망가지 않으면 화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상나라 조상의 제사가 끊어져 마침내는 의탁할 곳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각각 의리의 소재를 밝혀 편안히 처하여 이 뜻을 스스로 선왕님께 전달하고 천지신명께 부끄러움이 없게 할 뿐입니다. 다시 어디로 나가서 도망쳐 숨을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微子(미자) : 이름은 계(啓)로 제을의 아들. 미(微)는 기내(畿內)의 나라 이름이며 자(子)는 작위라 함.

父師(보사) : 《사기》에 태사(太師)로 되어 있으며 이때 기자가 태사의 벼슬에 있었다.

箕子(기자) : 이름은 서여(胥餘). 주(紂) 임금의 제부(諸父). 주 임금의 무도함을 여러 번 간하였으나 듣지 않으므로 뒤에는 미친 체하며 살아갔다 한다.

底遂(지수) : 이루어 놓은 것.

上(상) : 뒤의 하(下)와 대를 이루어 윗대의 뜻.

我(아) : 아조(我祖)의 반대로 지금의 우리.

厥德(궐덕) : 조상들의 덕.

小大(소대) : 적은 사람과 큰 사람. 곧 신분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草(초) : 초(鈔)와 통해 노락질.

姦(간) : 안에서 난리를 일으키는 것.

宄(궤) : 밖에서 난리를 일으키는 것.

卿士(경사) : 경과 대부와 사.

師師(사사) : 서로 스승으로 삼고 배우는 것.

方興(방흥) : 병기(並起). 다 같이 들고 일어난다는 뜻.

越(월) : 어조사. 이에의 뜻.

狂(광) : 『사기』에는 왕(往)으로 되어 있어 뜻이 더 잘 통한다. 은나라를 떠난다는 뜻.

家耄(가모) : 벼슬을 않고 집안에서 늙는 것.

荒(황) : 이곳에서는 거친 들의 뜻.

指告(지고) : 가리켜 말하는 것.

顛濟(전제) : 멸망의 뜻.

毒(독) : 호되다는 뜻.

耆長(구장) : 늙고 나이 많은 사람.

舊有位人(구유위인) : 대대로 벼슬한 경험 많은 사람.

神(신) : 천신.

祈(기) : 땅의 신.

犧(희) : 한 가지 색깔의 제물로 쓰는 짐승.

牲(진) : 통째로 제물로 쓰는 짐승.

牲(생) : 제사에 쓰이는 소·양·돼지 같은 짐승.

將食無災(장식무재) : 그것을 먹어도 형별이 없다는 뜻.

將(장) : 훔친 제물을 가리킴.

災(재) : 형별을 뜻함.

降監(강감) : 밑을 내려보는 것.

用父(용예) : 다스리는 데 쓰임.

讎斂(수령) : 원수를 대하듯 지나치게 부세를 많이 거둬들이는 것.

召(소) : 초래. 곧 하게 만든다는 뜻.

不怠(불태) : 불기(不己). 곧~하며 마지않는다는 뜻.

罪合于一(죄합우일) : 임금과 관리들이 하나가 되어 죄를 짓는다는 뜻.

瘠(척) : 여기서는 고난의 뜻.

詔(조) : 여기서는 고(告)와 통하여 호소의 뜻.

興受其敗(흥수기패) : 나라가 망함을 일어나 받겠다는 뜻. 곧 현실을 피하지 않고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함을 뜻함.

罔爲臣僕(망위신복) : 다른 왕조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는 뜻.

舊云(구운) : 옛날부터 말하였다는 뜻.

刻子(각자) : 임금이 당신을 해친다는 뜻.

我乃顛濟(아내전제) : 우리나라 왕실의 후손까지 완전히 망하여 끊어진다는 뜻.

自靖(자정) : 스스로 자중함.

不顧行遜(불고행돈) : 달아날 것은 생각지도 않는다는 뜻.



주서(周書)

주서(周書)

주서(周書)는 주(周)나라의 사적을 그때의 사관(史官)이 기록해 놓은 글이다. 주나라의 시조는 순임금 때의 후직(后稷)으로 태(邰) 땅에 봉(封)함을 받았던 기(棄)이다. 그 뒤 9대째인 고공단보(古公亶父)에 이르러 기(岐) 땅으로 나라를 옮기면서 주(周)라고 불렀다.

이때는 이미 상나라의 말기로, 고공단보의 손자인 창(昌), 곧 문왕(文王)에 이르러 천하의 3분의 2가 주의 땅이 되었다. 문왕의 아들 발(發), 곧 무왕(武王)이 마침내 상나라를 완전히 정벌한 뒤 호(鎬) 땅에 도읍을 정하고 정식으로 주라고 불렀다. 이 편에는 무왕, 성왕(成王), 강왕(康王), 그리고 목왕(穆王)의 시대에 관한 기록이 대부분이다.

태서 상(泰誓 上)

무왕(武王)이 은나라의 주왕(紂王)을 칠 때 맹진(孟津)에서 모든 제후들을 모아놓고 크게 훈시하였다. 태서(泰誓)는 사관이 이 훈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상편은 황하를 건너지 않았을 때 지은 것이고, 중·하 두 편은 이미 황하를 건너 뒤에 지은 것이다.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만 있다. 태서의 태(泰)는 대(大)와 같은 뜻이며 서(誓)는 맹세 곧 훈시의 뜻이다.

1 십삼 년 봄에 크게 맹진(孟津)에 모였다.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오! 우리 우방의 임금들과 나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여러 분들이여, 밝게 훈시를 들으시오. 천지는 만물의 부모요 사람은 만물의 신령이니, 진실로 총명하면 원후(元后)가 되고, 원후는 백성들의 부모가 되는 것이오.

이제 상(商)나라 임금 수(受)가 위로 하늘을 공경하지 않아서 밑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하고 있소.

술에 빠지고 여색에 탐닉하여 포학한 짓을 행하며 사람들을 죄줌에 친족들까지 하 고 사람들에게 벼슬을 줌에 있어서는 대대로 하며, 궁실과 대사(臺榭)와 피지(陂池)와 옷사치를 함으로써 그대의 온 백성들을 잔학하고 해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을 불태워 죽이며 잉태한 부인의 배를 가르고 뼈를 발라 죽였소. 하늘은 크게 노하사 나의 아버님 문왕에게 명하시어 하늘의 위엄을 삼가 행하도록 하셨으나 큰 공을 이루지는 못하고 말았소.

그래서 이 소자 발(發)이 그대 우방의 임금으로서 상나라 정사를 살펴보았으나 수(受)는 마음을 뉘우쳐 고치지 않았소. 오히려 걸터앉아 하늘과 땅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의 조상들의 사당을 버려두고 제사 지내지 않으며, 제물과 제수들은 흉악한 도적들이 다 훔쳐가건만 그래도 ‘나는 백성을 거느리고 있으며 명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오만을 뉘우쳐 고치려 하지 않고 있소.

하늘이 아래 백성들을 도우사 임금을 마련해 주시고, 스승을 마련해 주셔서 그들

이 능히 하느님을 도와 온 세상을 사랑하며 편안하게 하도록 하시니, 죄 있고 죄 없는 것에 대하여 내가 어찌 감히 그 뜻에 넘침이 있으리오. 힘이 같거든 덕을 해 아니고 덕이 같거든 의를 해아릴 것이거늘, 수(受)는 억만(億萬)의 신하를 두었으나 억만의 마음이 있고, 나는 신하 삼천(三千)을 두었으나 오직 한 마음이오. 상나라의 죄가 온통 가득 차 있는지라, 하늘이 명하여 그를 베게 하셨으니, 내가 하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죄가 같을 것이오.

이 소자는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돌아가신 아버지 문왕의 명을 받아 하느님에게 제사(類(류)) 지내고 큰 땅에도 제사(宜(의))를 지냈으며, 그대 무리들을 거느리고 하늘의 별하심을 이루려는 것이오.

하늘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지라,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하늘이 반드시 죽으실 것이니 그대들은 바라건대 나 한 사람을 도와 길이 사해(四海)를 맑게 하오. 때가 왔으니 잃어서는 안 되오.”

惟十有三年春，大會于孟津。

王曰：“嗟，我友邦冢君、越我御事庶士！明聽誓。

惟天地萬物父母，惟人萬物之靈，亶聰明作元后，元后作民父母。

今商王受弗敬上天，降災下民。

沈湎冒色，敢行暴虐，罪人以族，官人以世。惟宮室臺榭陂池侈服，以殘害于爾萬姓，焚炙忠良，剗剔孕婦。皇天震怒，命我文考肅將天威，大勳未集。

肆予小子發，以爾友邦冢君觀政于商，惟受罔有悛心，乃夷居弗事上帝神祇，遺厥先宗廟弗祀，犧牲粢盛既于凶盜，乃曰：‘吾有民有命’，罔懲其侮。

天佑下民，作之君，作之師，惟其克相上帝，寵綏四方，有罪無罪，予曷敢有越厥志？

同力度德，同德度義，受有臣億萬，惟億萬心，予有臣三千，惟一心。

商罪貫盈，天命誅之，

予弗順天，厥罪惟鈞。

予小子夙夜祗懼，受命文考，類于上帝，宜于冢土，以爾有衆底天之罰。

天矜于民，民之所欲，天必從之，爾尚弼予一人，永清四海。時哉！弗可失。”

[통석] 주나라 무왕(武王)이 하늘의 명을 받은 지 13년째 되던 해 봄 정월에 상나라 주왕(紂主)을 치려고 군사를 일으켰다. 이때 무왕은 맹진을 건너기 전에 따르는 제후들과 전 장병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훈시하였다.

“오오, 나의 우방의 여러 제후와 그리고 우리 본국의 어사(御事)인 경대부 및 중사(衆士)와 모든 군려(軍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여, 모두 마음을 합해 내가 여러분께 고하는 훈시를 들으시오.

오직 하늘과 땅은 장양(長養)하고 애육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곧 만물의 부모가 되는 것이고, 만물은 천지의 사이에 다 함께 나서 자라지만 사람만이 오직 그 중에 빼어난 기운을 타고났으므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이오. 그러니 성실하고 총명한 사람을 임금으로 삼아 온 백성들을 다스리게 한 것이오. 그러므로 임금은 자기의 부귀영화만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고 기르는 백성들의 부모 노릇을 해야 하는 것이오.

지금 상나라 주(紂) 임금 수(受)는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늘을 공경할 줄 모르고 백성들을 학대하여 백성들의 부모된 의리를 버리고 있소.

주(紂)의 흉악한 행동은 실로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이제 그 큰 것만 들어 말한다면 술에 빠져 깔 줄을 모르고, 여색에 미쳐 포학한 일을 자행하여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소. 사람에게 별을 주는 데 있어서도 그 한 몸에 그치지 않고 죄 없는 그 친족들 까지 죽이며, 사람에게 벼슬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능력이나 사람 됨됨에는 아랑곳없이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대대로 벼슬하던 집안 자식들에게만 벼슬을 주었소. 그리고 화려한 궁실과 누각을 짓고 뜻을 파고 사치한 옷을 입는 데만 힘을 씀으로써 백정들을 들볶고 있소. 어찌 이뿐이랴? 포락(炮烙)의 형벌을 만들어 충직하고 선량한 신하들을 불태워 죽이고, 잉태한 부인의 배를 가르고 뼈를 밟아 죽이는 등 그의 잔인 포학이야말로 이제는 극도에 이르러 있소.

이러므로 하느님은 크게 노하셔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문왕에게 명하시어 하늘의 위엄을 공경히 받들어 이 사특하고 포학한 무리를 정벌하여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하셨던 것이오. 그러나 문왕께서는 애석하게도 이 큰 공을 미쳐 이룩하지 못한 채 돌아가시고 말았소.

나 못난 발(發)은 문왕의 뒤를 이은 뒤에, 상나라의 정치를 살펴보았으나 주임금은 조금도 뉘우치거나 반성하여 허물을 고치려는 마음이 없었소. 그는 해야 할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만하게 걸터앉아서 하느님과 모든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있소. 조상의 종묘도 버려둔 채 제사를 지내지 않았고, 제사 지낼 때 쓰는 동물이나 물건들은 흉악한 도적들이 훔쳐가 버리고 말았소. 그럼에도 주임금은 ‘나는 백성을 거느렸고 하늘의 명을 받았다’고 큰소리치면서 남을 업신여기며 방자한 행동을 조금도 뉘우치거나 고치려 하지 않고 있소.

하늘은 아래 백성들을 도우려는 생각에서 다스릴 임금을 마련하시고 백성들을 이끌 스승을 마련하셨소. 그리하여 임금과 스승은 오직 하느님을 잘 받들어 온 세상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다스리도록 하였소. 그러니 죄 있는 사람이나 죄 없는 사람들을 다스릴 때 내 어찌 감히 하늘의 뜻을 어기고 내 멋대로 할 수 있겠소?

사람이나 나라가 힘이 같다면 그 평소의 행적에 덕이 있고 없음을 헤아려서, 덕이 높으면 비록 병력이 우세하더라도 능히 대처하지 못할 것이오. 만일 덕이 서로 같으면 의(義)가 있고 없음을 헤아릴 것이니, 의리가 타당하면 덕이 있는 자라도 능히 대적할 순 없는 것이오. 상나라 주임금 수(受)에겐 신하가 억만 무리가 있으나, 그 억만 명이 서로 시기와 의혹으로 제각기 딴 마음을 품어 억만의 마음이 되고, 그 반면에 나의 신하는 겨우 삼천 명 밖에 없지만, 사람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하나로 뭉쳐 나를 도와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소.

상나라 주왕의 죄악은 하늘에 닿도록 가득 차 있소. 하늘이 나에게 명하여 주벌하게 하시니, 내가 만일 이 하늘의 명을 거슬러 주왕을 베지 않는다면 이는 악인을 용서하여 놓아 줌이 되고, 천명을 반항하여 어김이 되니 그 죄 또한 주임금과 다름이 없게 될 것이오.

이 못난 나는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며, 돌아가신 아버님 문왕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늘의 명을 따르려고 하오. 그리하여 마침내 하느님께 제사 지내고 땅에 제사하여 군사를 일으킬 것을 고하였소. 이제 여러분들을 거느리고 하늘의 별하시려는 뜻을 이루어 드리려 하오.

하늘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소.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하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니, 그대들은 나 한 사람을 보필하여 영원토록 사해를 맑게 하여 그 사특하고 더러운 근심을 제거하시오. 이것이 바로 하늘과 사람이 합쳐 순응할 시기인즉 잊지 않도록 해야 하오.”

十有三年(십유삼년) : 무왕이 천명을 받은 지 13년째가 되던 해. 이 해에 무왕은 주임금을 쳐부숨.

春(춘) : 첫봄. 정월달임.

大會(대회) : 주임금을 치기 전에 무왕의 장병들과 그를 따르는 제후들의 장병들을 한 곳에 크게 모음.

冢君(총군) : 대군의 뜻으로 제후들을 가리킴.

越(월) : 여(與)와 통하여~및의 뜻을 지님.

御事庶士(어사서사) : 일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靈(영) : 여기서는 영장(靈長)의 뜻.

元后(원후) : 대제. 곧 천자.

受(수) : 주(紂)임금의 이름.

沈酒(침면) : 술에 빠짐.

冒色(모색) : 여색에 혹하여 빠져 벼림.

罪人以族(죄인이족) :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의 집안 사람들까지 죽이거나 벌함.

官人以世(관인이세) : 사람들에게 벼슬을 줌에 있어서 그의 재능은 생각하지 않고 벼슬한 사람의 자손들에 무조건 벼슬을 주는 것.

臺(대) : 흙을 높이 쌓아올려 사방을 볼 수 있게 만든 것.

榭(사) : 대 위에 지은 정자.

焚炙(분직) : 태워 죽이는 것. 주임금은 구리기둥을 솟불에 달군 뒤 기름을 바르고 죄인으로 하여금 그 기둥을 오르다 타죽게 하였는데, 이것을 포락지형(炮烙之刑)이라 했다.

刳剔(고적) : 살을 갈라 뼈를 바르는 것.

震怒(진노) : 하늘이나 임금이 크게 노하는 것.

文(문) : 문왕(文王).

大勳(대훈) : 천명을 행하는 일.

發(발) : 무왕(武王)의 이름.

觀(관) : 여기서는 여러 제후들의 동향을 통하여 상나라의 정치를 살렸다는 뜻.

悛心(전심) : 마음을 뉘우치고 고침.

夷居(이거) : 편히 책상다리하고 앉아서 아무것도 할 일을 않는 것. 거(居)는 거(踞)와 통함.

神(신) : 천신.

粢盛(자성) : 제사에 쓰는 기장의 뜻이나. 여기선 희·생을 제외한 제수를 총칭하는 말.

旣(기) : 다 훔쳐감.

懲(징) : 여기서는 정개(懲改), 곧 잘못을 뉘우쳐 고침.

侮(모) : 여기서는 오만, 곧 남을 업신여기고 혼자 잘난 체하는 것.

有罪無罪(유죄무죄) : 죄가 있는 사람과 죄가 없는 사람을 가려서 치별함.

越厥志(월월지) : 그분의 뜻. 하늘의 뜻을 넘어 멋대로 하는 것.

同力度德(동력탁덕) : 힘이 같은 나라나 개인들이 있을 때에는 덕을 헤아려서, 덕이 더 훌륭한 쪽이 이기게 된다는 뜻.

億萬心(억만심) : 억만인이 제각기 딴 마음들을 먹고 있다는 뜻.

貫盈(관영) : 죄가 어느 곳이고 깨뚫도록 가득하다는 뜻.

厥罪(월죄) : 천명을 따라 주임금을 치지 않은 죄의 뜻.

鈞(균) : 주임금의 죄와 같아진다는 뜻.

夙夜(숙야) :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類(유) : 제사 이름. 하늘에 지내는 제사.

宜(의) : 제사 이름. 땅의 신에 지내는 제사.

冢土(총사) : 대사(大土), 곧 큰 땅의 신의 뜻.

時哉(시재) : 마침 좋은 때가 왔다는 뜻.

태서 중(泰誓 中)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 주임금을 치기 전에 맹진을 건너서 그를 따르는 여러 제후와 장병들에게 행한 훈시이다.

무오(戊午) 날에 임금은 황하 북쪽에 머무르셨다. 여러 제후들도 군사를 이끌고 모두 모였는데 임금은 군사들을 돌보고 훈시하셨다.

“오오! 서쪽 땅의 여러분이여! 모두 나의 말을 들으시오.

내가 들으니 ‘길한 사람은 선을 행하되 날이 부족하다 하고 흉한 사람은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하되 역시 날이 부족하다’고 하였소. 지금 상나라 임금 수(受)는 법도에 어긋나는 일을 힘써 행하며, 노인들을 버리고 죄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며, 술 주정과 방종과 포학을 일삼으니 신하들도 이에 동화되어 무리를 이룬 집안들이 원수를 짓고 권세로 협박하여 서로 멸하고 있습니다. 이에 죄 없는 백성들이 하늘에 부르짖어 그 더러운 행동이 밝게 들려지게 되었소.

하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거든 임금은 하늘을 받들어야 하오. 하나라 걸(桀)이 하늘을 따르지 못하고 하국(下國)에 해독을 끼치니 하늘은 탕임금께 명을 내리시고 도우셔서 하나라의 명을 내쳐 버리셨던 것이오.

수의 죄는 걸보다 더하여 착하고 어진 이를 떨어뜨려 망하게 하고, 간하고 돋는 이를 해치고 학대하였으며, 자기는 천명을 갖고 있다 뽐내며 공경은 족히 행할 것이 아니라고 말했으며, 제사는 유의함이 없는 것이라 하였고, 포학은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소. 이러한 본보기는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저 하나라 임금이 바로 그 사람이오. 하늘이 나에게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나의 꿈은 나의 점과 맞고 아름다운 조짐이 겹쳐지고 있으므로 상나라와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오.

수는 억조의 평범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으나 마음이 떨어지고 덕에서 떠났거나 와 나는 다스리는 신하 열 사람이 있으나 마음이 같고 덕이 같소. 그러니 비록 지극히 친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진 사람만 같지 못한 것이오.

하늘이 보실 때는 우리 백성들을 통하여 보시며, 하늘이 들으실 때도 우리 백성들

을 통하여 들으시오. 백성들에게 허물이 있음은 나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음이니, 이제 나는 반드시 가려는 것이오.

나의 무위(武威)를 드날려 그 지역으로 쳐들어가 저 흉악한 해독을 끼치는 자를 잡아 나의 정벌이 베풀어진다면 탕임금에게도 빚이 있게 될 것이오.

힘쓸지어다, 장사들이여! 혹시라도 두려움이 없다고 하지 마오. 차라리 잡을지언정 대적치 못하리라고 마음먹으시오.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그 머리를 늘어뜨리고 죽은 듯하니, 오오, 그대들은 덕을 한결같이 하며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큰 공을 세워 세상이 영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오.”

惟戊午, 王次于河朔。羣后以師畢會, 王乃徇師而誓。

曰：“嗚呼！西土有衆！咸聽朕言！

我聞, 吉人爲善惟日不足, 凶人爲不善亦惟日不足。今商王受力行無度, 播棄犁老, 眇比罪人, 淫酗肆虐, 臣下化之, 朋家作仇, 與權相滅, 無辜籲天, 穢德彰聞。

惟天惠民, 惟辟奉天, 有夏桀弗克若天, 流毒下國, 天乃佑命成湯, 降黜夏命。

惟受罪浮于桀, 剝喪元良, 賊虐諫輔, 謂己有天命, 謂敬不足行, 謂祭無益, 謂暴無傷。

厥鑑惟不遠, 在彼夏王。天其以予乂民, 朕夢協朕卜, 袞于休祥, 戎商必克。

受有億兆夷人, 離心離德, 予有亂臣十人, 同心同德, 雖有周親, 不如仁人。

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百姓有過在予一人, 今朕必往。

我武惟揚, 侵于之疆, 取彼凶殘, 我伐用張, 于湯有光。

勗哉！夫子罔或無畏, 寧執非敵。百姓凜凜, 若崩厥角。嗚呼！乃一德一心, 立定厥功, 惟克永世！”

[통석] 이 해 정월 무오(戊午 : 28일)날에 무왕이 맹진을 건너 황하 북쪽에 진을 쳤다. 이때 여러 제후들이 군사를 이끌고 모두 모여들었다. 무왕은 군대들을 사열하면서 장병에게 훈시를 하였다.

“오오, 나의 서쪽 땅 백성들이여! 모두 나의 말을 들으시오!

내가 듣건대 옛사람의 말에, ‘좋은 사람은 착한 일을 행하기에 시간이 모자랄까 걱정하고, 반대로 흉악한 사람은 나쁜 일을 행하기에 역시 시간이 모자랄까 걱정한다’ 하였소. 지금 은나라 주임금 수가 그러한 사람이오. 법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에도 힘써 당연히 친하고 가까이해야 할 노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마땅히 추방해야 할 죄인들만을 친히 여기고 가까이하고 있소. 그리고 술과 계집에 빠져 술주정하고 음란하여 백성들을 괴롭히는 등 포학한 짓을 일삼고 있소. 신하들도 이런 주임금의 행동에 동화되어 나쁜 짓을 일삼고 있소. 저마다 집안에 붕당을 만들어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권세로써 서로 협박하고 상대방을 멸망케 하고 있는 것이오. 이에 죄 없는 백성들은 괴로움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고, 오직 하늘에 부르짖어 원통함을 호소하니, 그 더럽고 추한 주임금의 행동이 하늘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소.

무릇 하늘의 도(道)는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음란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내리는 것이니, 어찌 이러한 흉악한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겠소?

하늘은 백성들을 은혜로이 사랑하시나니, 오직 임금은 그러한 하늘의 뜻을 받들어 임금으로서 스승으로서 다스리고 가르치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오. 그러나 옛날 하나라 결왕은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음란과 포학함을 행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기만 하였소. 하늘은 이에 짚어하여 곧 탕임금에게 명을 내리사, 하나라의 명을 끊어 버리게 하고 하나라의 명을 은나라에 옮기게 하였소.

지금 은나라 임금 수의 죄는 하나라 결왕보다 더 지나치오. 착하고 어진 미자 같은 사람을 괴롭혀 멸망시키고, 충간과 보필을 극진히 하는 비간 같은 사람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있소. 이러하니 하늘은 그 악덕을 미워하건만, 그는 오히려 나는 천명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교만과 방종이 여전하오. 임금은 공경하는 일보다 더 큰 것이 없건만 그는 ‘공경은 족히 행할 것이 못 된다’고 말하면서 방자하기 이를 데가 없소. 또 제사는 조정의 큰 법이거늘 그는 ‘제사란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여 감히 귀신을 모독하고 있으며, 포학함은 임금으로서의 큰 죄악이거늘 그는 ‘포학은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여 백성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있

소. 그러나 이런 행동을 하는 임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본보기는 바로 가까운데 있소. 저 하나라 걸임금이 바로 그 본보기요.

하늘은 나에게 상나라를 쳐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소. 우리 군대가 일어날 때 일찍이 길한 점을 얻었고, 이제 또 길한 꿈을 얻었으니 아름다운 상서가 거듭 나타나고 있소. 상나라를 지금 친다면 우리가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오.

지금 주임금 수가 통솔하고 있는 무리가 억조나 되게 많다 하더라도 모두 마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오. 이 반면에 내가 통솔하는 사람은 겨우 열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들 모두 마음과 행동이 같소.

그렇기 때문에 수는 아주 친한 신하가 많다고 하지만 모두 흉악하고 추악한 무리들인지라, 나의 어진 열 사람의 인후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따르지는 못할 것이오. 하늘은 보고 들음이 모두 우리 백성들의 보고 들은 바를 죽여 시험한 것이오. 지금 백성들이 나에게 책임하는 것은 내가 상나라의 죄를 바로잡아 자기들을 구출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오. 이 백성들의 마음으로써 하늘의 뜻을 살펴본다면 우리 군대는 반드시 가서 상나라를 쳐야만 하오.

우리의 위무를 떨치고 드날려 그의 나라로 쳐들어가 저 흉악한 사람을 잡아 죽이고 백성들을 구출해야겠소. 우리의 정벌이 성공한다면 죄 많은 그의 자손을 벌주는 것이니, 주임금의 조상 탕임금에게도 빛을 더하는 일이 될 것이오.

아, 여러 장사(將士)들이여, 힘써 주기 바라오. 주왕의 무리들이 마음이 변하여 배반한다 해서 가볍게 여겨 양잡아보지 말고 모두 두렵게 생각하오. 은나라 백성들이 주왕의 포학함을 두려워하여 벌벌 떨고 있음이 마치 그들 머리를 쳐부순 듯하오. 이토록 민심은 위태롭고 두려우니 여러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승리의 공을 바로 세워서, 백성들을 흉악한 데에서 구출하여 영원히 이 세상에 안녕을 누리도록 해주오.”

戊午(무오) : 무왕이 황하를 건넌 날짜. 무왕이 천명을 받은 지 13년째 되는 해의 1월 임진(壬辰 : 2일)날, 주(紂)임금을 치러 출발하여 같은 달 무오(戊午)에 맹진에서 황하를 건너고 옛새 뒤인 갑자(甲子)날에 주왕(紂王)을 죽였음.

以師(이사) : 군사를 거느린다는 뜻.

西土(서토) : 서쪽 땅. 무왕과 그의 아버지 문왕(文王)은 서쪽 땅의 제후인 서백(西伯)이었음.

吉人(길인) : 뒤의 흥인(凶人)의 반대니 좋은 사람이란 뜻.

犁老(이로) : 피부에 검버섯이 난 노인.

化(화) : 동화.

之(지) : 주(紂)임금.

朋(朋) : 봉당.

脅(협) : 위협, 협박.

籲(유) : 호소의 뜻.

德(덕) : 행동이라고 봄이 좋음.

流毒(유독) : 해독을 끼치는 것.

下國(하국) : 그의 밑에 예속된 나라들.

浮(부) : 더한다는 뜻.

諫輔(간보) : 임금의 잘못을 간하고 임금을 도와주는 훌륭한 신하.

厥鑒(궐감) : 그러한 짓을 하는 자의 본보기.

夏王(하왕) : 하나라의 결(桀)임금.

朕夢協朕卜(집몽협집복) : 나의 꿈도 나의 점괘와 같이 모두가 길하기만 하다는 뜻.

戎商(옹상) : 상나라를 치는 것.

夷人(이인) : 보통 사람, 범인.

周親(주친) : 지극히 친한 사람.

自我民(자아민) : 우리의 백성들을 통하여의 뜻.

武(무) : 무위 또는 무덕.

凶殘(흉잔) : 흉악하게 해독을 끼치는 사람.

張(장) : 성공.

夫子(부자) : 장사(將士). 보통은 존칭으로 선생님의 뜻으로 쓰이기도 함.

罔或(망혹) : 아무도~하지 마라의 뜻.

執(집) : 마음먹고 있다는 뜻.

角(각) : 여기서는 이마의 뜻.

崩厥角(봉궐각) : 그의 이마가 쓰러져 땅에 떨어지는 것. 맹자에는 '약봉궐각계수(若崩厥角稽首)'라 하였으니 뜻이 더 명확하다.

厥功(궐공) : 주(紂)임금을 치는 일.

태서 하(泰誓 下)

황하 북쪽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주임금과의 결전을 하려 가기에 앞서 무왕이 군사들에게 내린 훈시이다.

때는 그 이튿날, 임금은 육사(六師)를 순시하며 여러 군사에게 밝게 훈시하셨다.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오오! 우리 서쪽 땅 군자들이여! 하늘은 밝은 도가 있어 그 궐류(厥類)가 오직 밝으니, 지금 상나라 임금 수가 오상(五常)을 업신여기고 계을리하며 공경하지 않아서 스스로 하늘로부터 끊고 백성들과 원수를 맺고 있소.

아침에 물 건너는 사람의 정강이를 자르고, 어진 사람의 심장을 갈랐으며 포학한 짓과 살육으로써 온 세상에 해독을 끼쳐 병들게 하며, 간사한 사람을 높이고 믿으며, 스승과 보호자를 내치며, 법과 형벌을 물리쳐 버리고 올바른 선비를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며,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지 않으며, 종묘에도 제사 지내지 않고 기이한 재주와 음란한 기교를 부리면서 부인을 즐겁게 하고 있소. 상제께서 따르지 않으시어 단호히 이 망함을 내리셨으니, 그대들은 힘써 나 한 사람을 밭들어 하늘의 별을 삼가 행하여 주기 바라오.

옛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를 어루만져 주면 임금이고, 우리를 학대하면 원수’라 하였소. 외톨이인 수는 크게 포학을 일삼고 있으니 그대들 대대의 원수요. 덕을 심으려면 자라도록 힘쓰고, 악을 제거하려면 뿌리째 없애도록 힘써야 하오. 이러므로 나 소자는 크게 그대들 여러 군사들로써 그대들의 원수를 섬멸하려는 것이니, 그대들 여러 군사들은 바라건대 과단한 굳셈을 쫓아서 그대들 임금의 일을 이루어 주오. 공이 많은 사람에겐 후한 상이 있고, 나아가지 않는 자는 여럿 앞에서 죽일 것이오.

오오! 나의 아버지 문왕께서는 해와 달이 비추는 것 같으셔서, 그 빛은 온 세상을 비추어 서쪽 땅을 밝혔으니, 우리 주(周)나라는 많은 나라를 크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오.

내가 수를 이기더라도 내 무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돌아가신 나의 아버님 문왕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오. 수가 나를 이기게 된다면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 문왕께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소자가 어질지 못한 탓이오.”

時厥明，王乃大巡六師，明誓衆土。

王曰：“嗚呼！我西土君子！天有顯道，厥類惟彰，今商王受，狎侮五常，荒怠弗敬，自絕于天，結怨于民。

斬朝涉之脛，剖賢人之心，作威殺戮，毒痛四海，崇信姦回，放黜師保，屏棄典刑，囚奴正士，郊社不修，宗廟不享，作奇技淫巧，以悅婦人，上帝弗順，祝降時喪，爾其孜孜奉予一人，恭行天罰！

古人有言曰：‘撫我則后，虐我則讎。’獨夫受洪惟作威，乃汝世讎。樹德務滋，除惡務本，肆予小子，誕以爾衆土殄殲乃讎，爾衆土其尚迪果毅，以登乃辟。功多有厚賞，不迪有顯戮。

嗚呼！惟我文考，若日月之照臨。光于四方，顯于西土，惟我有周，誕受多方。

予克受，非予武，惟朕文考無罪。受克予，非朕文考有罪，惟予小子無良。

[통석] 주나라 군사가 무오(戊午)일에 이미 맹진을 건넜고, 그 다음날 기미(己未)에 장차 상나라의 땅으로 떠나려 할 때 무왕은 전군을 돌아보고 여러 장병들에게 훈시하였다.

“오오! 우리 서쪽 땅 군자들이여! 하늘에는 지극히 밝은 이치가 있어서 그 의로운 종류가 매우 명백하오. 지금 상나라 임금 수는 군신·부자·형제·부부·붕우 등 오륜의 도를 더럽히고 업신여기며, 폐기하고 계을리하여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에 위로는 수 자신이 스스로 하늘의 명을 끊어 버리고 아래로는 백성들과 원수를 맺게 되었소.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이 그를 배반하고 있소.

그리고 수는 겨울 아침에 옷을 걷고 물을 건너는 사람을 보고는 '저 사람은 추위를 잘 견디니 다리의 근육과 뼈가 보통 사람보다 다르구나' 하고, 그의 정강이를 칼로

쪼개어 보이게 했소. 충신 비간(比干)이 옆에 있다가 그의 잘못을 거듭 간하자, 수는 성내어 말하되 ‘충신의 마음은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라’ 하며 그의 가슴을 갈라 심장을 꺼내 보았소. 이처럼 그는 포악하게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 온 세상을 해치고 괴롭히고 있소. 그는 간사하고 교활한 소인들을 신임하여 존중하고, 바르게 인도해 줄 스승을 내쫓았소. 선왕들이 행한 법과 형벌을 폐기하고 제멋대로 형벌을 정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은 잡아 가두고 노예로 삼았으며,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지 않으며, 조상을 섬기는 종묘의 제사도 지내지 않았소. 그리고 기이한 기술로 음란하고 사치한 물건들을 만들게 하여, 달기(妲己)라는 사랑하는 요부를 즐겁게 하였소.

하느님은 그가 하는 바 온갖 짓을 못마땅히 여기시어, 드디어 하늘의 명을 끊어 버려 그를 망하게 하였소. 그러니 오늘의 우리의 거사는 곧 하늘의 형벌을 봉행할 뿐이오. 그대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힘쓰고 나 한 사람을 받들어 하늘의 형벌을 대신 이루게 하오.

나는 들으니 옛사람의 말에 ‘우리 백성들의 감정은 은혜로써 어루만져 보살피면 임금이요, 만약 위압과 세력으로써 우리를 능멸하고 학대하면 원수와 같이 미워한다’고 하였소. 이 말을 살펴보면, 지금 하늘과 백성 모두가 그를 벼린 외로운 사나이가 상나라 임금 수는 포학한 짓만을 일삼고 있으니, 이는 대대로 온 백성의 원수가 될 뿐이오. 나는 또 들으니 무릇 사람이 덕을 이루려면 힘써 배양하여 자라나게 할 것이며, 악을 제거할 때에는 뿌리째 뽑아 뺀어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하였소. 그리하여 이 사람이 대의를 위하여 군사를 일으켰으니, 그대들은 대대의 원수를 섬멸하여 화근을 제거해야 하오. 그대들 여러 장병은 바라건대 적을 죽이는 데 과감하고, 또 굳세게 나아가 그대들의 임금인 내가 폭군을 정벌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공을 이룩하도록 힘써 주오. 공적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후한 상을 내릴 것이고, 만약 씩씩하게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여러 사람 앞에서 목을 벨 것이오.

아! 나의 아버지 문왕의 성덕이 천하에 널리 미치심이 마치 밝은 해와 달이 천지에 크게 비치는 것 같았소. 그리하여 그 빛난 덕이 멀리 사방에 미쳤고 서쪽 땅에는 더욱 그 덕을 드높이셨소. 그래서 백성들은 떠받들고 천명은 주나라에 돌아와 많

은 나라들을 거느리게 되었던 것이오.

이제 내가 상나라와 싸워 수를 이기면 그것은 나의 위무가 뛰어난 때문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 문왕께서 아무런 허물없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신 때문이요, 반대로 상나라 주임금 수가 나를 이기게 된다면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님 문왕께 허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소자가 덕이 모자라서 착하지 못한 탓일 것이오.”

時厥明(시궐명) : 때는 명일(明日)이었다의 뜻.

六師(육사) : 육군(六軍), 곧 전군의 뜻.

君子(군자) : 여기에서는 장병들을 추켜서 한 말. 옛날에는 벼슬하는 사람들을 군자라 했음.

顯道(현도) : 사람들이 지켜야 할 밝은 길. 뒤의 오상(五常)을 뜻함.

厥類(궐류) : 하늘의 현도(顯道)의 종류.

五常(오상) : 오륜(五倫).

絕于天(절우천) : 곧 천명을 끊었다는 뜻.

作威(작위) : 위압을 한다. 곧 포학한 짓을 한다는 뜻.

毒庸(독부) : 해를 끼쳐 괴롭히는 것.

姦回(간회) : 간사.

師保(사보) : 천자 또는 태자를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

郊(교) : 하늘에 지내는 제사.

社(사) : 땅에서 지내는 제사.

奇技(기기) : 괴상한 재주.

淫技(음기) : 지나치게 교묘하게 만든 물건.

婦人(부인) : 달기(妲己)를 가리킴. 달기는 주임금의 비로서 주의 포학을 도와 은나라를 망하게 함.

弗順(불순) : 하느님이 주임금의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뜻.

孜孜(자자) : 부지런히 쉬지 않고 힘쓰는 모습.

獨夫(독부) : 주임금. 하늘도 버리고 백성도 버려서 외롭게 된 남자라는 뜻.

滋(자) : 자라남.

乃辟(내벽) : 그대 임금의 일의 뜻.

顯戮(현륙) :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죽이는 것.

誕受(탄수) : 크게 받아들여 복종시키는 것.

多方(다방) : 여러 나라.

목서(牧誓)

목(牧)은 땅 이름으로 지금 하남성 기현(淇縣) 남쪽이다. 이 편은 주나라 무왕이 목야(牧野)에 군사를 주둔하고 싸움에 앞서 장병에게 한 훈시이다. 금문과 고문에 다 들어 있다.

때는 갑자(甲子)날 새벽에, 임금은 아침 일찍 상나라 교외 목(牧) 땅에 이르러 훈시 하셨다. 임금은 왼쪽에는 누런 도끼를 잡으시고 오른쪽에는 흰 기를 들고 지휘하면서 “멀리 왔도다. 서쪽 땅의 사람들이여!” 하고 말씀하셨다.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오오, 나와 우방의 제후들과 일을 맡은 사도(司徒)와 사마(司馬)와 사공(司空)과 아려(亞旅)와 사씨(師氏)와 천부장(千夫長)과 백부장(百夫長)과 용(庸)과 촉(蜀)과 강(羌)과 무(彝)와 미(微)와 노(盧)와彭(彭)과 복(濮)의 사람들이여!

그대들의 창을 들고, 그대들의 방패를 나란히 하며, 그대들의 긴 창을 세우시오. 내 훈시를 하리다.”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옛사람의 말에 ‘암탉은 새벽을 알리지 않는 것이니, 암탉이 새벽을 알리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였소.

지금 상나라 임금 수는 오직 여인의 말만 듣고 그가 마땅히 제사 지내야 할 분들을 버리고 보답하지 않으며, 살아 계신 임금의 부모 동생들도 버리고 거들떠보지 않고 있소. 오직 사방에서 죄를 짓고 도망해 온 자들을 높이고 공경하며, 이를 믿고 등용하여 대부와 경사를 삼아 백성들에게 포악한 짓을 하게 하며, 상나라의 고을에서 간사하고 악독한 짓을 하게 하였소.

지금 나 벌(發)은 오직 하늘의 벌을 삼아 행하노니, 오늘의 일은 여섯 발자국 일곱 발자국을 넘지 않고, 머물러서 정제히 해야 하오. 장사들이여! 힘써 주오.

네 번 공격, 다섯 번 공격, 여섯 번 공격, 일곱 번 공격을 넘지 않고, 멈춰서 정제히 하여야 하오. 힘써 주오, 장사들이여!

바라건대 상나라 교외에서 용맹하기 범 같으며, 비휴(貔貅) 같으며, 곰 같고 말곰
같이 하되, 도망해 오는 자는 맞아서 싸우지 말 것이며, 그럼으로써 서쪽 땅을 위
해 일해 주시오. 힘써 주오! 장사들이여!

그대들이 힘쓰지 않는다면 그대들의 몸에 죽음이 내려질 것이오.”

時甲子昧爽，王朝至于商郊牧野，乃誓。王左杖黃鉞，右秉白旄以麾，曰：“逖矣，西
土之人！”

王曰：“嗟！我友邦冢君，御事司徒、司馬、司空，亞旅、師氏，千夫長、百夫長，
及庸、蜀、羌、髧、微、盧、彭、濮人！”

稱爾戈，比爾干，立爾矛！予其誓！”

王曰：“古人有言曰：‘牝雞無晨，牝雞之晨，惟家之索。’

今商王受，惟婦言是用，昏棄厥肆祀弗答，昏棄厥遺王父母弟不迪，乃惟四方之多罪
逋逃，是崇是長，是信是使，是以爲大夫卿士，俾暴虐于百姓，以姦宄于商邑。

今予發，惟恭行天之罰。今日之事，不愆于六步七步，乃止齊焉。夫子，勗哉！

不愆于四伐五伐六伐七伐，乃止齊焉。勗哉，夫子！

尚桓桓如虎如貔如熊如羆于商郊，弗迓克奔，以役西土。勗哉，夫子！

爾所弗勗，其于爾躬有戮。”

[통석] 때는 무왕이 주임금을 치기 위해 맹진을 떠나온 지 옛새 만인 2월 4일 갑자
(甲子)날이었다. 무왕은 이른 새벽 상나라의 교외에 있는 목(牧)이라는 들에 와서
상나라 군사와의 결전을 눈앞에 두고 온 장병들을 모아 놓고 훈시하였다.

무왕은 이때 왼손에는 황금으로 장식한 도끼를, 오른손에는 흰빛 소꼬리로 장식한
깃발을 들고 장병들을 지휘하면서 말했다.

“멀리 왔도다, 서쪽 땅 사람들이여！”

아, 우리 이웃나라 우방의 제후들과 본국의 일을 맡아 다스리는 신하들과 백성들
을 맡은 사도(司徒)여, 병사(兵事)를 맡은 사마(司馬)여, 토지를 맡은 사공(司空)이

여, 상대부여, 아려(亞旅)여, 문을 지키는 사씨(師氏)여, 천 명 군사를 거느리는 천부장(千夫長)이여, 백 명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百夫長)들이여! 그리고 용(庸) · 촉(蜀) · 강(羌) · 무(髦) · 미(微) · 노(盧) · 팽(彭) · 복(濮)나라 사람들이여! 모두 창을 들고 방패를 나란히 하고 긴 창을 세우시오. 내가 이제 훈시와 명을 내리겠소. 그대들은 모두 잘 들으시오.

옛사람의 말에 ‘닭은 새벽을 맑은 것이지만 암탉은 새벽에 우는 일이 없다. 만약 암탉이 새벽에 우는 일이 있으면 음(陰)과 양(陽)이 상도(常道)를 벗어남이니 이것은 요얼(妖孽)이 일어나서 집안이 망하는 것이다’고 하였소.

이제 상왕 수는 요첩 달기에 빠져 좋은 술과 음란한 음악으로 달기의 곁을 떠나지 않고 달기가 천거하는 사람은 높은 벼슬에 올리고, 달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목을 베며, 오직 달기의 말만을 듣고 있소. 그는 정신이 혼미하여 마땅히 지내야 할 제사를 집어치우고 신들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있소. 또한 부모가 낳은 자기의 아우들도 버리는 등 친척을 멀리하고 있소.

그는 오히려 사방에서 많은 죄를 짓고 도망해 온 사람들을 높이고 믿어 대부나 경사의 자리를 주었소.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포악한 짓을 하게 하니 상나라 도읍에선 간악한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소. 이제 나는 하늘이 주는 별을 공경히 대신 행하려 하오. 우리가 오늘 주의 군사와 싸우는 데 있어서, 육 보 칠 보를 전진하기 전에 일단 멈추고, 대열을 정비한 다음 신중히 전진해야 될 것이오. 여러 장사들이여! 분발해 주기 바라오.

싸움터에서는 너댓 번 또는 예닐곱 번 상대방 적을 공격하기 전에 손을 멈추고 기율을 정비한 뒤에 신중히 공격하여야 하오. 분발하시오, 여러 장사들이여!

바라건대 여러분은 위무를 떨쳐 범 같고 비후 같고, 곰 같고 말곰 같이, 상나라 교외에 나아가 용맹을 떨치시오. 달려와 항복하는 자는 죽이지 마오. 우리 서쪽 주(周)나라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하오. 분발하오! 여러 장사들이여!

여러분이 만약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에는 죽음이 있을 것이오.”

甲子(갑자) : <태서> 중편의 무오(戊午)보다 엿새 뒤인 2월 4일.

昧爽(매상) :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이른 새벽.

朝(조) : 조(早)와 통하여. 일찍이.

商郊(상교) : 상나라 도읍지의 교외.

左杖(좌장) : 왼손에 든 것.

黃鍼(황월) : 누런 금으로 만든 무기로 쓰는 도끼.

旄(모) : 쇠꼬리로 만든 손에 들고 지휘하는 데 쓰는 기.

逖(적) : 멀리 았다는 뜻.

御事(어사) :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들로 사도 이하 여러 벼슬하는 사람들을 가리킴.

司空(사공) : 토지를 다스리는 사람.

司徒(사도) :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司馬(사마) : 군사를 다스리는 사람.

亞旅(아려) : 상대부.

師氏(사씨) : 중대부로, 이는 군사를 다스리는 장관.

千夫長(천부장) : 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

百夫長(백부장) : 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

庸(옹) : 땅 이름. 지금의 호북성 운양현(雲陽縣).

蜀(촉) : 지금의 사천성(四川省) 북부.

羌(강) : 서쪽의 유목민.

髡(무) : 산서성 남부에 있었음.

微(미) : 미(眉)와 통하여 미(郿)라고 불렀는데 지금의 섬서성 미현에 있었음.

廬(노) : 오랑캐의 일종으로 지금의 호북성 양남현에 있었음.

彭(팽) : 지금의 사천성 팽현에 있었음.

濮(복) : 호북성 형주부(荊州府)에 있었음.

戈(과) : 자루의 길이가 여섯 자인 창.

干(간) : 적을 막기 위해 방패를 나란히 잇대는 것.

矛(모) : 자루 길이가 1장 6척 또는 2장 4척인 긴 창.

牝雞(빈계) : 암탉.

晨(신) : 새벽에 닦아 우는 것.

索(삭) : 이 구절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뜻.

昏(흔) : 혼미의 뜻.

肆(사) : 여기에서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뜻.

王父母弟(왕부모제) : 임금의 부모들이 낳은 아우의 뜻으로 봄.

不迪(부직) : 불사진(不使進) 또는 불용, 곧 쓰지 않았다의 뜻.

逋逃(포도) : 도망 온 사람.

姦宄(간궤) : 여기서는 간사하고 악독하다는 뜻.

今日之事(금일지사) : 주(紂)와의 싸움.

愆(겁) : 과(過)와 통함.

止齊(지제) : 멈추어 대열을 정비함.

夫子(부자) : 장사의 뜻.

桓桓(환환) : 용맹스런 모습.

貔(비) : 표범과 비슷한 맹수. 수컷을 비(貔), 암컷을 휴(貅)라 한다.

逐(아) : 맞아 싸우는 것.

克奔(극분) : 도망쳐 나와 항복하려는 사람.

役西土(역서토) : 서쪽 땅의 주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

무성(武成)

이 편은 무왕이 은나라를 정벌하여 이기고 말과 소들을 놓아 주고 여러 신들에게 제사하여 고한 것과 함께 나라를 잘 다스린 정사에 대하여 사관이 기록한 것이다. 편 가운데 ‘무성(武成)’이란 두 글자가 있으므로 그것을 따 편 이름을 붙인 것이다.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만 있다. 그러나 이 편은 문장이 난삽하고 순서가 고르지 않으며 오탈(誤脫)이 많아 이해하기 힘들다. 송(宋)나라 채침(蔡沈)이 이를 정돈하여 다시 썼다 하나 문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 곳에서의 문장은 원전(原典)을 따랐다.

일월(一月) 임진(壬辰) 초이튿날, 다음 계사(癸巳)에 임금이 아침에 주(周)나라로부터 출발하여 상나라를 치러 갔다. 그 사월 초사흗날 임금이 상나라로부터 오시어, 풍(豐)에 이르러 무력을 거두고 문교(文教)를 닦아, 말을 화산(華山)의 남쪽 기슭으로 돌려보내고 소는 도림(桃林)의 들에 풀어놓아 천하에 다시 쓰지 않음을 보이셨다.

정미(丁未)날에 주나라 사당에 제사 지내시니, 나라 안과 전복(甸服)과 후복(侯服)과 위복(衛服)의 제후들이 빨리 달려와서 제기(祭器)를 날랐다. 사흘 뒤 경술(庚戌) 날에 시제(柴祭)와 망제(望祭)를 지내시어 무공(武功)의 이름을 크게 고하셨다. 십육 일에 여러 나라 제후들 및 여러 관원들이 주나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오오, 여러 제후들이여! 선왕께서 나라를 세우고 땅을 여시었고, 공류(公劉)께서는 앞의 많은 공을 두터이 할 수 있으셨으며, 태왕(大王)에 이르러 비로소 임금의 터전을 마련하셨고, 왕계(王季)께서도 왕업을 부지런히 돌보셨으며, 나의 문덕 많은 아버지 문왕께서는 그분들의 공을 이으시어 크게 하늘의 명을 받아 온 중화(中華) 땅을 어루만지셨소. 이에 큰 나라는 그 힘을 두려워하고 작은 나라는 그 덕을 그리워한 지 아홉 해였으나 큰 통업(統業)을 이루지는 못하셨소. 그리하여 이 소자가 그 뜻을 이었던 것이오.

상나라의 죄를 드러내어 하느님과 땅의 신과 지나는 바 명산과 대천에 고하여 이를되, ‘도가 있는 분의 자손인 주나라 임금 밭은 장차 상나라를 크게 바로잡으려 합니다. 지금 상나라 임금 수는 무도하여 하늘의 물건들을 함부로 없애며 여러 백성들을 해치고 학대하며 천하의 도망치는 자들의 임금이 되었는지라, 고기가 못과 수풀에 모이듯 하였습니다. 소자가 이에 어진 사람을 얻어서 감히 공경하여 하느님을 받들어 어지러운 계략을 막으니, 중화 땅의 오랑캐들이 따르고 말을 듣지 않음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공경하여 명(命)을 이루고저 져는 동쪽을 쳐서 그곳 남녀들을 편안하게 하니, 그곳 남녀들이 검고 누런 비단을 광주리에 담아 와서 우리 주나라 임금을 밝혔습니다. 하늘의 기뻐하심이 진동한지라 우리 큰 고을 주나라로 귀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들 신(神)께서 저를 도우셔서 온 백성들을 구제하고 신으로서 부끄러움이 될 만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였소.”

이미 무오날에 군사가 맹진을 건너서 계해(癸亥)날엔 상나라 들에 진을 치고 하늘의 아름다운 명을 기다리셨다. 갑자날 새벽에 수는 숲 같은 그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목땅의 들에서 만나 싸웠다. 그러나 우리 군사들에 전혀 대적하지 못하였으니, 앞에 있던 무리들은 창을 거꾸로 잡아들고 뒷사람을 쳐서 달아나게 하니 피가 흘러 절굿공이가 떠다녔다. 군복을 한 번 입으니 천하가 크게 안정되어, 이에 상나라 정치를 뒤집고 옛날 정사를 따르며 간힌 기자(箕子)를 풀어 주고 비간(比干)의 무덤에 봉분을 만들었다, 상용(商容)의 마을을 공경하며 녹대(鹿臺)의 재물을 흘어 주고, 거교(鉅橋)의 곡식을 내주어 온 세상에 크게 물건을 내려 주시니, 온 백성들이 기뻐하여 복종하게 되었다.

벼슬을 벌리되 다섯 가지로 하고, 땅은 세 가지로 나누었으며, 관리를 쓸 때에는 오직 어진 이만을 쓰고, 일을 맡기시되 오직 능력 있는 이로 하며, 백성들에게는 오륜(五倫)을 중히 여기게 하고, 먹는 것과 장사 지내는 것과 제사를 중히 여기게 하였다. 믿음을 두터이 하며 의를 밝히며 덕을 높이며 공에 보답하니, 옷깃을 늘어뜨리고 팔짱을 끼고 있어도 천하가 잘 다스려지게 되었다.

惟一月壬辰旁死魄，越翼日癸巳，王朝步自周于征伐商。

厥四月哉生明，王來自商至于豐，乃偃武修文，歸馬于華山之陽，放牛于桃林之野，示天下弗服。

丁未祀于周廟，邦·甸·侯·衛，駿奔走，執豆籩。越三日庚戌，柴望，大告武成。

既生魄，庶邦冢君暨百工，受命于周。

王若曰：“嗚呼羣后！惟先王建邦啓土，公劉克篤前烈，至于大王肇基王迹，王季其勤王家，我文考文王，克成厥勳，誕膺天命，以撫方夏，大邦畏其力，小邦懷其德。惟九年，大統未集。予小子其承厥志。”

底商之罪，告于皇天后土，所過名山大川曰：“惟有道曾孫周王發，將有大正于商。今商王受無道，暴殄天物，害虐烝民，爲天下逋逃主，萃淵藪。予小子旣獲仁人，敢祇承上帝，以遏亂略，華夏、蠻貊罔不率俾。

恭天成命，肆予東征，綏厥士女，惟其士女，篚厥玄黃，昭我周王。天休震動，用附我大邑周。

惟爾有神，尚克相予，以濟兆民，無作神羞。旣戊午，師渡孟津，癸亥，陳于商郊，俟天休命。甲子昧爽，受率其旅若林，會于牧野。罔有敵于我師，前徒倒戈，攻于後以北，血流漂杵。一戎衣，天下大定。乃反商政，政由舊。釋箕子囚，封比干墓，式商容闈。散鹿臺之財，發鉅橋之粟，大賚于四海，而萬姓悅服。

列爵惟五，分土惟三，建官惟賢，位事惟能。重民五教，惟食喪祭，惇信明義，崇德報功，垂拱而天下治。

[통석] 무왕이 하늘의 명을 받은 지 13년 째 되는 해 1월 임진(壬辰) 초이튿날 새벽에 군사를 이끌고 주나라 도읍을 출발하여 상나라 폭군 주왕을 치러 갔다. 그 해 사월 초사흘날 무왕이 상나라를 쳐부수고 도읍지인 풍(豐)으로 돌아왔다.

무왕은 돌아와서 무기를 거두고 문덕(文德)을 닦아 도(道)로 천하를 다스릴 준비를 시작했다. 싸움에 쓰던 말은 화산(華山) 남쪽 기슭으로 돌려 보내고, 짐바리를 신던 소는 도림(桃林)의 들에 놓아 먹이게 하여, 온 천하의 백성들에게 다시는 무력

을 쓰지 않을 뜻을 밝게 보여 주었다.

이 해 4월 정미(丁未)일 19일에 무왕은 제전(祭典)을 주나라의 종묘에 거행하고 상나라를 정벌하는데 성공했음을 고하였다. 이때 가까이는 방전(邦典)과 멀리는 후위(侯衛)의 여러 제후들이 모두 달려와서 변두(籩豆)의 제기를 들고 종묘의 제사를 도왔다. 그 뒤 3일 경술(庚戌)날에 무왕은 다시 나무를 태워 하늘에 시제를 지내고 명산대천에 망제(望祭)를 지내어 무공(武功)이 이루어졌음을 고하였다.

이 달 17일에 사방의 제후와 그리고 조정에 있는 백관들이 다 무왕을 추대하여 천자로 받들어 모시고, 다 함께 새 임금을 조알(朝謁)하고 나서 주나라로부터 새로 임명을 받았다.

이때 천자가 된 무왕은 이들에게 말하였다.

“아! 여러 제후들이여! 옛날 우리 선왕 후직(后稷)께서 요순시대에 계시면서 처음으로 나라를 세워 토지를 태(邰) 땅에 여셨고, 그분의 증손 공류(公劉)께서는 선조의 뜻을 이어 나라를 크게 발전시켰고, 그의 9세손(九世孫) 대왕(大王) 고공단보(古公亶父)께 이르러 덕을 쌓고 어진 정치를 명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와 귀복하니 이에 비로소 임금의 터전을 마련하셨소. 다시 그분의 아드님 왕계(王季)에 전해서 이분 또한 왕가의 공업(功業)을 부지런히 닦아 발전시키셨소. 다시 그분의 아드님이고 나의 아버지이신 문왕에 이르시어 그 덕이 더욱 용성하고 그 공업이 크고 높아 선조님들의 공훈을 더욱 이룩하시고 서백(西伯)이 되셨소.

그리하여 하늘의 큰 명을 받으시어 중화 땅을 잘 다스려 백성들을 어루만져 편안케 하시니, 큰 나라들은 그분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감히 방자하지 못하고 작은 나라들은 그분의 은덕을 사모하여 스스로 존립하게 되었소. 문왕께서는 스스로 서백이 되시어 위덕이 날로 더욱 천하에 드러났지만 애석하게도 9년 만에 돌아가셨으므로 대통(大統)을 이루지 못하셨소. 그러므로 오늘날 나의 거사는 선왕의 뜻을 이어받아 포악한 무리를 제거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을 뿐이오.

나는 상나라의 죄를 드러내어 하늘과 땅의 신과 내가 지나는 곳의 모든 명산대천의 신에게 고하였소.

‘훌륭한 도를 지켜 온 분들의 자손인 주나라 임금 밭은 장차 군사를 일으켜 크게

상나라의 죄를 바로잡으려 합니다. 지금 상나라 주임금 수는 무도하여 하늘이 내신 생물들을 악독하게 죽이고 백성들을 해치며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의 죄를 짓고 도망 다니는 악당들의 임금이 되어, 악한 자들이 모여들기를 마치 고기나 짐승이 못과 숲에 모여들듯 상나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소자는 이미 어질고 덕 있는 태공망(太公望) 같은 분을 얻었으므로, 하늘의 명을 공경히 받들어 저 흉악하고 잔인한 무리들이 들끓고 있는 상나라의 어지러운 정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중화 땅 사람은 물론이고 사방의 오랑캐들까지도 모두가 나를 따랐고 나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공경하며 그분이 내리신 명령을 이룩하고자 나는 동쪽의 상나라를 정벌하여, 그곳의 남녀들을 편안케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의 남녀들은 주나라 군대가 오는 것을 몹시 기뻐하여 각자 광주리에 검은색 노란색의 비단 폐백을 담아 가지고 와서 우리 주나라 군대를 열렬히 환영하여 주나라 임금의 덕을 온 천하에 널리 밝혔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아름다운 뜻이 온 세상에 알려져 우리의 큰 주나라를 모든 백성들이 따르게 된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 신들께서는 저를 도와, 싸우면 이기게 하고, 만인을 구제하여 신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오."

이에 앞서 이 해 정월 28일 무왕이 군사를 이끌고 맹진을 건넜고, 2월 3일 계해일에는 상나라의 도읍의 교외에 진을 치고 하늘의 명을 기다렸다. 이튿날 새벽에 상나라 임금 수는 숲처럼 많은 군사를 이끌고 나와 목 땅의 들에서 무왕의 군사를 맞아 싸웠다. 그러나 상나라의 군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모두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주나라의 군사들을 대적하지 못했다. 상나라의 앞선 군사들은 창끝을 돌려 잡고 자기편의 뒷사람을 공격하여 도망치게 하였다. 상나라 군사들은 크게 패하여 그들이 흘리는 피로 절굿공이가 떠다닐 지경이었다.

무왕이 한번 군복을 입고 싸우자 천하가 크게 안정되었다. 무왕은 천하를 평정하자 이에 상나라의 학정을 뒤엎고 옛 어진 임금들처럼 나라를 다스렸다. 주임금에게 잡혀 노예가 되어 있던 기자를 풀어 주고, 또 어진 신하로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비간의 무덤을 잘 다듬어 표를 세워 주었고, 주임금에게 쫓겨난 상용의 마을을

지날 때에는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다. 녹대에 쌓아 둔 재물을 흘어서 가난에 우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거교에 저장한 곡식을 꺼내어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처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은택을 내려주시니 온 백성들은 기뻐하여 무왕에게 복종하였다.

무왕이 상나라를 이긴 뒤에 천하를 경륜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제후들의 작위는 공(公) · 후(侯) · 백(伯) · 자(子) · 남(男)의 다섯 가지로 정하고, 이들에게 토지를 나눠 주는 땅은, 공과 후는 백 리를, 백은 칠십 리를, 자와 남은 각각 오십 리의 삼등급으로 정했다. 관리는 오직 어진 사람만 골라 써서 불초한 자는 나가지 못하게 하고, 벼슬은 오직 능력 있는 사람만 골라 주고, 재능이 없는 자는 등용하지 않았다. 백성들에게 오륜의 가르침을 중히 여기고, 먹는 일과 장사 지내는 일과 제사 지내는 일들을 소중히 하게 하였다. 이 다섯 가지 가르침과 세 가지 일은 백성들의 기강을 세우고 풍속을 돈후하게 하였다. 믿음을 돈독히 하고 의리를 밝혀 세상의 풍속을 격려하고, 덕이 있는 이는 관리로 존대하고 공이 있는 이는 포상으로 보답하니, 세상이 착한 데로 모두 나갔다. 이렇게 하니 옷을 드리우고 팔짱을 끼고 편히 앉아 있어도 천하가 스스로 다스려졌다.

壬辰(임진) : 날짜.

旁死魄(방사백) : 달빛이 거의 없는 때로 '초이튿날'을 말함.

翼(익) : 익(翌)과 통하여 익일(翼日)은 다음날을 말함.

于征(우정) : 가서 침.

哉生明(재생명) : 달이 비로소 밝아진다는 말로 초 3일.

歸馬(귀마) : 군용으로 쓰던 말을 돌려보냈다는 뜻.

華山(화산) : <우공(禹貢)>편에 나옴.

桃林(도림) : 땅 이름. 도원(桃原)이라고도 함.

邦甸侯衛(방전후위) : 방(邦)은 기내(畿內)를 가리키며, 전(甸) · 후(侯) · 위(衛)는 주례(周禮)의 육복(六服)

중의 일부. 육복이란 왕성을 중심으로 5백 리 사방 땅이 기내, 기내에서 밖으로 5백 리가 후복, 다시 밖으로 5백 리가 전복. 다시 5백 리마다 남복(男服) · 채복(采服) · 위복(衛服) · 요복(要服)이 있었다.

방전후위(邦甸侯衛)는 온 나라를 가리킴.

籩豆(변두) : 대나무로 엮은, 굽 높은 과일 담는 제사 그릇.

柴(시) : 나무屑을 불사르며 하느님께 지내는 제사.

望(망) : 산천에 지내는 제사 이름.

既生魄(기생백) : 달그림자가 생겨나는 16일.

后稷(후직) : 주(周)의 시조.

公劉(공류) : 후직(后稷)의 증손.

大王(대왕) : 고공단보(古公亶父). 문왕의 조부.

迹(적) : 여기서는 공적의 뜻.

王季(왕계) : 문왕의 부.

誕膺(탄옹) : 크게 받음.

方夏(방하) : 중국을 가리킴.

大統(대통) : 대업의 뜻.

天物(천물) : 하늘이 만드신 만물.

逋逃主(포도주) : 죄를 짓고 도망 온 자들의 임금.

萃淵藪(췌연수) : 고기나 짐승이 못이나 숲에 모여든다는 뜻.

亂略(난략) : 주(紂)의 어지러운 정략.

玄黃(현황) : 검은 비단과 누런 비단.

天休(천휴) : 하늘의 아름다운 축복.

大邑(대읍) : 대국인 주나라.

一戎戎(일무옹) : 한번 군복(병갑(兵甲))을 입는 것.

政由舊(정유구) : 상나라 팽임금의 정법을 따름.

率俾(솔비) : 따라 쫓아옴.

商容(상용) : 상(商)의 혼인.

閭(여) : 친족이 사는 마을 문간.

列爵惟五(열작유오) : 공 · 후 · 백 · 자 · 남의 작위로 별림.

五教(오교) : 오륜(五倫) · 오상(五常).

三事(삼사) : 식(食) · 상(喪) · 제(祭)를 말함.

홍범(洪範)

《한지(漢志)》에는 우임금이 홍수를 다스릴 때 하늘이 낙서(洛書)를 주었는데 우임금이 이를 본받아 진술한 것이 곧 홍범이라 하였다. 《사기(史記)》에는 무왕(武王)이 은나라를 정벌하고 기자(箕子)를 찾아가 하늘의 도를 물으니, 기자는 홍범으로 대답했다고 했다. 이 편 안에 ‘이(而)’ ‘여(汝)’ 등의 말을 쓴 것은 기자가 무왕에게 여준 말이다. 홍범은 우임금이 발표한 것을 기자가 부연해 한 편을 이룬 것이 아닌가 한다. 금문과 고문에 모두 있다.

1 십삼 년째 되는 해에 왕이 기자를 찾아갔다.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오오, 기자여! 하늘이 가만히 백성들을 정해 놓고 그들의 삶을 도우시고 화합하게 하시나, 나는 그 뜻뜻한 윤리가 베풀어지는 바를 알지 못하고 있소.”

기자가 아뢰었다.

“제가 듣건대 옛날에 곤(鯀)이 홍수를 막아 그 오행(五行)의 배열을 어지럽히니, 하느님이 크게 노하시어 홍범구주(洪範九疇)를 주시지 않으므로 뜻뜻한 윤리가 멀망하였습니다. 곤이 귀양 가서 죽고 우(禹)가 이에 이어 일어나니, 하늘은 우에게 홍범구주를 내리사 일정한 윤리가 베풀어졌습니다.

첫째는 오행이요, 둘째는 다섯 가지 일을 공경히 행하는 것이요, 셋째는 여섯 가지 정사를 힘써 행하는 것이요, 넷째는 다섯 가지 기율을 조화 있게 쓰는 것이요, 다섯째는 임금의 법칙을 세워 쓰는 것이요, 여섯째는 세 가지 덕을 다스려 쓰는 것이요, 일곱째는 의문을 물은 것을 밝혀 쓰는 것이요, 여덟째는 여러 징험을 생각하며 쓰는 것이요, 아홉째는 다섯 가지 복을 길러 쓰는 것과 여섯 가지 궁함을 위압하여 쓰는 것입니다.”

惟十有三祀, 王訪於箕子。

王乃言曰：“嗚呼箕子！惟天陰驚下民，相協厥居，我不知其彝倫攸敍。”

箕子乃言曰：“我聞，在昔，鯀陘洪水，汨陳其五行，帝乃震怒，不畀洪範九疇，彝倫攸斁。鯀則殛死，禹乃嗣興，天乃錫禹洪範九疇，彝倫攸敍。”

初一日五行，次二日敬用五事，次三日農用八政，次四日協用五紀，次五日建用皇極，次六日父用三德，次七日明用稽疑，次八日念用庶徵，次九日嚮用五福威用六極。

[통석] 무왕이 임금의 자리에 오른 지 13년 되던 해 봄에 이미 상나라를 정벌하여 이기고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에 어진 이를 구하여 도리를 묻는 것으로 최초의 업무를 삼았다. 상나라의 어진 이, 기자는 옛날의 성덕을 갖춘 임금이 어떻게 천하를 다스렸는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무왕이 마침내 기자를 찾아가 그 도리를 묻게 된 것이다.

무왕은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하늘은 말없는 가운데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히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항상 그들의 행동하는 바를 살펴보시고, 서로 침해하고 약탈하며 어그러지고 분란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있지만, 나는 진실로 이 책임을 맡은 임금으로서 하늘의 이 떳떳한 이치가 어떻게 베풀어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소.”

이에 대하여 기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제가 일찍이 들으니, 옛날에 요임금께서 홍수의 재해를 걱정하시어 곤으로 하여금 이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곤은 좁은 소涧으로 둑을 만들어 홍수를 막으려 했습니다. 대체로 물이란 것은 오행 가운데 하나로서 하늘이 운용해야 되는 것인데 곤이 물의 흘러내리는 성질을 잘 알지 못하고 이를 막아서 거슬렸으니 곤 오행을 어지럽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크게 노하시어 그에게 큰 규범 아홉 가지를 내려 주시지 않았으므로, 하늘의 떳떳한 이치는 시행되지 못하고 곤은 죄를 얻어 사형을 받고 죽게 된 것입니다.

우가 곤의 뒤를 이어 이를 막아서 물의 성질에 순응하여 홍수를 다스리니, 땅은 평정되고 하늘은 뜻을 이루게 되었으며, 따라서 오행도 차서를 따라 펴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우임금의 덕을 보살피셔서 홍범구주를 내려 떳떳한 윤

리가 베풀어지게 하셨으니, 이 이치는 우임금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다스리는 대경대법으로 전해 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임금이 낙수(洛水)를 다스릴 때에 등에 문채를 아로새긴 신기한 거북이 나타났는데, 그 등에 1에서 9까지의 숫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임금은 속마음에 그윽이 깨달은 바가 있어 이를 표준삼아 차례로 구주(九疇)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 첫째는 오행이니, 하늘이 오행을 운용함에 모든 백성이 이를 본받아 하루도 떠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다섯 가지 일을 조심해서 활용하는 것이니, 이는 몸을 닦아가는 데 있어서 유품가는 요체(要諦)가 되는 것입니다. 임금으로서 그 덕을 닦고자 하면 모름지기 이 다섯 가지 일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여덟 가지 정사에 힘쓰는 것이니, 이는 백성을 다스리는 요긴한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으로서 백성들의 후생을 도모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이 여덟 가지 정사를 실현해야 될 것입니다.

넷째는 다섯 가지 기강으로써 조화시킴이니, 하늘의 이치는 고르고 일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된 사람은 다섯 가지 역법에 따라서 그 기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임금의 표준을 세움이니, 임금이 천하를 다스림에 마땅한 중도와 지극히 바른 도리를 찾아서 표준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늘의 도리에 순응하며, 아래로는 널리 민간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곧 중庸의 도리에 맞는 정치인 것입니다.

여섯째는 세 가지 덕으로 다스림이니, 임금이 세 가지 덕을 갖추어 때를 따라 알맞게 활용하면 자연히 천하가 태평하게 다스려질 것입니다.

일곱째는 의심을 밝히는 일이나, 인간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의심도 없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점을 쳐서 순리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덟째는 하늘에서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깊이 생각해서 처리함이니, 인간사에 있어서의 이득과 손실에 대하여 하늘에서는 길흉의 징후로써 대응하는 것이므로, 임

금이 행동할 바를 깊이 살펴 반드시 천도의 길흉에 합치하도록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홉째는 다섯 가지 복으로써 교화해서 지도하고 육극(六極)의 위엄을 가지고 백성을 복종하게 할 것이니, 대체로 인간사에 있어서의 선악에 대하여 하늘에서는 재앙과 복록으로써 대응하는 것이므로, 임금이 온 천하에 선을 베풀고자 하면 반드시 오복을 얻도록 권장할 것이며, 두려워서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반드시 여섯 가지 궁합(宮合)으로써 이를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十有三祀(십유삼사) : 무왕이 즉위한 지 13년째 되던 해. 골(汨)은 연(年)과 같음.

鷙(啄) : 정(定)의 뜻.

彝(이) : 상(常)과 통하며 일정하여 변함이 없는 것.

鯀(곤) : 우의 아버지임.

殛(극) : 어지럽힘.

洪範九疇(홍범구주) : 천하를 다스리는 큰 법 아홉 가지. 뒤에 조목별로 설명이 나온다.

斁(도) : 멸망함.

殛死(극사) : 극(殛)은 죽임. 극사라 하면 단순한 사형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귀양살이 시키는 것.

2 “첫째, 오행의 처음은 물이고 둘째는 불이고 셋째는 나무고 넷째는 쇠고 다섯째는 흙이니, 물은 적시고 내려가는 것이고, 불은 타고 올라가는 것이고 나무는 굽고 곧은 것이고 쇠는 따르고 바뀌는 것이고 흙은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적시고 내려가는 것은 짠 것을 만들고 타고 올라가는 것은 쓴 것을 만들고 굽고 곧은 것은 신 것을 만들고 따르고 변화하는 것은 매운 것을 만들고 심고 거두는 것은 단 것을 만듭니다.

둘째, 다섯 가지 일이란 처음은 외모요 둘째는 말이요 셋째는 보는 것이요 넷째는 듣는 것이요 다섯째는 생각하는 것이니, 외모는 공손해야 하는 것이고 말은 이치를 따라야 하는 것이고 보는 것은 밝아야 하는 것이고 듣는 것은 분명해야 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은 슬기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공손함은 엄숙함을 만들고 이치를 따름은 조리를 만들고 밝음은 지혜를 만들고 분명함은 꾀를 만들고 슬기로움은 성

인(聖人)을 만듭니다.

셋째, 여덟 가지 정사라는 것은 처음은 먹는 것이요 둘째는 재화요 셋째는 제사요 넷째는 땅을 다스리는 것이요 다섯째는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요 여섯째는 범죄를 다스리는 것이요 일곱째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여덟째는 군대입니다.

넷째, 다섯 가지 기율이라는 것은 처음은 해요 둘째는 달이요 셋째는 날이요 넷째는 법이요 다섯째는 역법의 계산입니다.

다섯째, 임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다스리는 법을 세우는 것으로서, 다섯 가지 복을 모아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면 그 백성들도 당신의 법칙을 따라 법칙을 지켜 줄 것입니다. 대체로 백성들이 음란한 벗을 두지 않고 관리들도 사사로운 덕을 두지 않음은 임금이 법칙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백성들이 계책을 생각하는 이가 있고 뜻 있는 일을 하는 이가 있고 자기 행동을 잘 지키는 이가 있으면 당신은 곧 그들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법칙에 맞지 않더라도 죄악에 빠지지 않았으면 임금은 곧 그를 받아들여 부드러운 얼굴빛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바는 덕이다’고 말하거든 당신은 곧 그들에게 녹을 내려 주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임금의 법칙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의지 없는 의로운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높고 밝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지닌 능력과 뜻을 발전시켜 행하게 한다면 나라는 창성하여 모든 올바른 사람들은 부하고 선하여집니다. 당신께서 그들로 하여금 국가에 좋은 일을 할 수 없게 한다면 이 사람들은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덕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비록 그들에게 녹을 내린다 해도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여 죄를 지을 것입니다.

비뚤어지지 않고 치우침 없이 임금의 의로움을 따르며, 혼자만 좋아하는 일 없이 임금의 도를 따르며, 혼자만 싫어하는 일 없이 임금의 길을 따르시오. 비뚤어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면 임금의 길은 넓으며, 치우치지 않고 비뚤어지지 않으면 임금의 길은 평평하며, 뒤집히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으면 임금의 길은 바르고 곧으며, 법칙을 지키는 이들만 모으면 법칙을 지키는 이들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임금

의 법칙을 펴는 말은 뜻뜻하고도 교훈이 되며 하느님께서도 가르치신 것이니, 모든 백성들이 법칙을 펴는 말을 가르침으로 하여 행한다면 천자의 빛에 가까워져서, ‘천자께서는 백성들의 부모가 되시어 천하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세 가지 덕이라는 것은 처음은 바르고 곧은 것이요 둘째는 강함으로 이기는 것이요 셋째는 부드러움으로 이기는 것이니, 평화롭고 안락함에는 바르고 곧음으로 하고 강하고 따르지 않음에도 강함으로 이기게 하고 화하고 따름에는 부드러움으로 이기게 하고 숨으려 함에는 강함으로 이기고 높고 밝음에도 부드러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임금만이 복을 내릴 수 있고 오직 임금만이 위세를 부릴 수 있고 오직 임금만이 진귀한 음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하가 복을 내릴 수 있고 위세를 부릴 수 있고 진귀한 음식을 받을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하가 복을 내릴 수 있고 위세를 부릴 수 있고 진귀한 음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 해독이 집안에 미치게 되고 흥함이 나라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관리들이 기울어지고 비뚤어지고 치우쳐지면 백성들은 넘보고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의심을 묻는다는 것은 거북점과 시초점 치는 사람을 골라 세우고 이에 거북점과 시초점 치기를 명하는 것입니다. 비 오겠다, 비 개겠다, 안개 끼겠다, 밝겠다, 흐렸다 맑았다 하겠다는 등 정쾌(貞卦)니 회쾌(悔卦)니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는 거북점에 다섯 가지 시초점에 두 가지가 쓰이며, 변화를 이루어 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세워 거북점과 시초점을 치되, 세 사람이 점을 쳤거든 두 사람의 말을 따르십시오. 당신에게 큰 의문이 있으면 당신의 마음에 물어 보고 귀족과 관리들에게 물어 보고 거북점과 시초점으로 물어 보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이 좋고 거북이 따르고 시초가 따르며 귀족과 관리들이 따르고 백성들이 따르면, 이것을 일러 대동(大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신은 안락하고 자손들은 창성하게 될 것이니 길한 것입니다. 당신이 좋고 거북이 따르고 시초가 따르면 귀족과 관리들이 거스르고 백성들이 거스른다 해도 길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따르고 거북이 따르고 시초가 따르면 당신이 거스르고 귀족과 관리들이

거스른다 하여도 길한 것입니다. 당신이 좋고 거북이 따르되 시초가 거스르고 귀족과 관리들이 거스르고 백성들이 거스른다면 안에서 하는 일은 길하고 밖에서 하는 일은 흉합니다. 거북과 시초가 다 같이 사람을 어기면 가만히 있으면 길하고 움직이면 흉합니다.

여덟째, 여러 가지 징험(徵驗)이라는 것은 비 오고 햇빛 나고 덥고 춥고 바람 불고 철이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다섯 가지가 갖추어지고 각기 그 질서대로 되어지면 모든 풀도 무성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너무 갖추어져도 흉하고 한 가지만 너무 없어도 흉합니다. 이른바 아름다운 징험이란 공경함에 철에 맞는 비가 따르는 것과 다스림에 철에 맞는 햇빛이 따르는 것과 지혜로움에 철에 맞는 더위가 따르는 것과 꾀함에 철에 맞는 추위가 따르는 것과 성인 같음에 철에 맞는 바람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른바 나쁜 징험이란 경망함에 오랫동안 비가 따르는 것과 어긋남에 오랫동안 햇빛이 따르는 것과 편히 높에 오랫동안 더위가 따르는 것과 조급함에 오랫동안 추위가 따르는 것과 봉매함에 오랫동안 바람이 따르는 것입니다.

임금은 오직 해를 살펴야 하고 귀족과 관리들은 오직 달을, 낮은 관리들은 오직 날을 살펴야 합니다. 해와 달과 날을 통하여 철의 돌아감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곡식이 잘 여물고 다스림이 밝아지며 뛰어난 백성들이 드러나고 집안이 안락해질 것입니다. 날과 달과 해가 때를 어기면 모든 곡식이 잘 여물지 않고 다스림이 어둡고 밝지 않게 될 것이며 뛰어난 백성들은 숨겨지고 집안이 평안하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별과 같은 것이니 별에는 바람을 좋아하는 것이 있고, 별에는 비를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과 달의 운행은 겨울과 여름을 있게 하였습니다. 달이 별을 따름으로써 바람과 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홉째, 다섯 가지 복이라는 것은 처음은 오래 사는 것, 둘째는 부유하게 되는 것, 셋째는 안락함, 넷째는 훌륭한 덕을 닦는 것, 다섯째는 천명을 다하고 죽는 것입니다. 여섯 가지 궁한 것은 처음은 횡사나 일찍 죽는 것, 둘째는 병드는 것, 셋째는 근심하는 것, 넷째는 가난한 것, 다섯째는 흉악한 것, 여섯째는 약한 것입니다.”

一, 五行：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金, 五曰土。水曰潤下, 火曰炎上, 木曰曲直, 金曰從革, 土爰稼穡。潤下作鹹, 炎上作苦, 曲直作酸, 從革作辛, 稼穡作甘。

二, 五事：一曰貌, 二曰言, 三曰視, 四曰聽, 五曰思。貌曰恭, 言曰從, 視曰明, 聽曰聰, 思曰睿。恭作肅, 從作乂, 明作哲, 聰作謀, 睿作聖。

三, 八政：一曰食, 二曰貨, 三曰祀, 四曰司空, 五曰司徒, 六曰司寇, 七曰賓, 八曰師。

四, 五紀：一曰歲, 二曰月, 三曰日, 四曰星辰, 五曰曆數。

五, 皇極：皇建其有極, 斂時五福, 用敷錫厥庶民, 惟時厥庶民, 于汝極, 錫汝保極。凡厥庶民, 無有淫朋, 人無有比德, 惟皇作極。

凡厥庶民, 有猷有爲有守, 汝則念之。不協于極, 不罹于咎, 皇則受之, 而康而色曰：“予攸好德, 汝則錫之福。時人斯其惟皇之極。

無虐勞獨, 而畏高明。

人之有能有爲, 使羞其行, 而邦其昌, 凡厥正人, 旣富方穀。汝弗能使有好于而家, 時人斯其寧, 于其無好德, 汝雖錫之福, 其作汝用咎。

無偏無陂, 遵王之義, 無有作好, 遵王之道, 無有作惡, 遵王之路。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 無反無側, 王道正直, 會其有極, 歸其有極。

曰皇極之敷言, 是彝是訓, 于帝其訓,

凡厥庶民, 極之敷言, 是訓是行, 以近天子之光, 曰：“天子作民父母, 以爲天下王。”

六, 三德：一曰正直, 二曰剛克, 三曰柔克, 平康正直, 弢弗友剛克, 變友柔克, 沈潛剛克, 高明柔克。

惟辟作福, 惟辟作威, 惟辟玉食。

臣無有作福作威玉食, 臣之有作福作威玉食, 其害于而家, 凶于而國, 人用側頗僻, 民用僭忒。

七, 稽疑：擇建立卜筮人, 乃命卜筮。

曰雨, 曰霽, 曰蒙, 曰驛, 曰克,

曰貞, 曰悔。

凡七，卜五，占用二，衍忒。

立時人作卜筮，三人占，則從二人之言。

汝則有大疑，謀及乃心，謀及卿士，謀及庶人，謀及卜筮。

汝則從，龜從，筮從，卿士從，庶民從，是之謂大同，身其康彊，子孫其逢吉。

汝則從，龜從，筮從，卿士逆，庶民逆，吉。

卿士從，龜從，筮從，汝則逆，庶民逆，吉。

庶民從，龜從，筮從，汝則逆，卿士逆，吉。

汝則從，龜從，筮逆，卿士逆，庶民逆，作內吉，作外凶。

龜筮共違于人，用靜吉，用作凶。

八，庶徵：曰雨，曰暘，曰燠，曰寒，曰風，曰時，五者來備，各以其敍，庶草蕃蕪。

一極備，凶，一極無，凶。

曰休徵，曰肅，時雨若，曰乂，時暘若，曰哲，時燠若，曰謀，時寒若，曰聖，時風若。

曰咎徵，曰狂，恒雨若，曰僭，恒暘若，曰豫，恒燠若，曰急，恒寒若，曰蒙，恒風若。

曰：“王省惟歲，卿士惟月，師尹惟日。歲月日，時無易，百穀用成，乂用明，俊民用章，家用平康。

日月歲，時既易，百穀用不成，乂用昏不明，俊民用微，家用不寧。

庶民惟星，星有好風，星有好雨。日月之行，則有冬有夏，月之從星，則以風雨。

九，五福：一曰壽，二曰富，三曰康寧，四曰攸好德，五曰考終命。

六極，一曰凶短折，二曰疾，三曰憂，四曰貧，五曰惡，六曰弱。

[통석] “1. 오행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① 물은 그 형체가 가장 미약한 것이요 ② 불은 그 형체가 점차 나타나는 것이요 ③ 나무는 그 형체가 대단히 충실한 것이요 ④ 쇠는 그 형체가 아주 견고한 것이요 ⑤ 흙은 그 형체와 바탕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그 바탕이 한 가지씩이므로 각기 한 가지씩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물의 성질은 적시면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며, 불의 성질은 뜨거우면서 위로 오르는 것이며, 나무의 성질은 휘어지면서도 곧은 것이며, 쇠의 성질은 순종하면서 그

형태가 바뀌는 것이며, 흙의 성질은 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것이니, 그 덕이 오곡을 풍성하게 자라나도록 하므로 씨 뿌리고 가꾸고 북돋아 거두어들이는 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질이 하나씩이므로 한 가지씩의 맛을 가지는 것이니, 물의 성질은 윤택하고 아래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라앉아서 짠맛을 이루고, 불의 성질은 위로 오르기 때문에 졸이고 태워서 쓴맛을 이루고, 나무의 성질은 휘어지고 곧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운이 답답해서 신맛을 이루고, 쇠의 성질은 순종하면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운이 매서워서 매운맛을 이루는 것이고 흙의 성질은 씨 뿌리고 거둠에 그 기운이 중화를 얻으면 아주 단맛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자연의 조화로서 백성의 생활에 요긴한 것들입니다.

2. 다섯 가지 일의 범주에 대하여 사람은 오행의 조화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 기운이 엉겨서 형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세목으로는 ① 용모는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윤택한 정기를 닮은 모양과 빛깔을 띠게 되는데 이는 물이 젖어들어 미끄러움과 같은 것이요 ② 말은 이미 태어난 사람이 부풀어 오르는 기운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소리로서 불기운이 위로 오르는 것과 같은 것이요 ③ 보는 것은 나타난 사물을 정밀하게 살피는 작용으로서 이는 빛나는 것과 같은 것이요 ④ 듣는 것은 어떠한 소리든지 귀에 닿으면 바로 알아듣는 것인데 이는 쇠와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는 것과 같은 것이요 ⑤ 생각은 정기가 마음에 모이면 하나의 판단이 서게 되는 것인데 이는 오행 가운데 흙의 기운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섯 가지 형체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다섯 가지 덕이 저절로 갖추어지는데, ① 용모의 덕은 엄숙함이니 말끔하고 씩씩하며 중도에 맞고 바른 것이요 ② 말의 덕은 순종함이니 이치에 맞게 말씨를 곱게 하는 것이요 ③ 보는 덕이 밝음이니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요 ④ 듣는 덕은 총명함이니 들리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요 ⑤ 생각의 덕은 슬기로움이니 아주 세밀한 것까지 두루 통달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덕이 이미 갖추어지면 저절로 다섯 가지 활용이 나타나는 것이니, ① 용모가 엄숙하면 백성을 대할 때에 정중하고 엄할 것이며 ② 말이 이치에 맞으면 내리는 명령이 질서정연해서 잘 다스려질 것이며 ③ 보는 덕이 밝으면 한 가지도 가려진 바가 없어서 지혜가 명석해질 것이며 ④ 듣는 덕이 총명하면 사물의 이치에 의

혹됨이 없어서 미리 헤아려서 계책을 세울 수 있으며 ⑤ 생각이 슬기로우면 통달하지 않은 바가 없어서 성자(聖者)가 될 것이니, 임금으로서 위에 말한 다섯 가지로 사물을 대하여 그 도리를 다하면 자연히 몸은 닦아지고 도덕은 확립되어 천하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3. 여덟 가지 정치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① 먹는 문제는 논밭을 잘 다스려 곡식을 심고 가축을 길러 식생활의 원천이 되게 하는 것이요 ② 재물은 상공업을 장려하여 화폐를 유통시켜 백성들이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요 ③ 제사는 선조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요 ④ 사공(司空)은 논밭의 경계를 만들고 주택을 건립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요 ⑤ 사도(司徒)는 널리 교육을 실시하여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요 ⑥ 사구(司寇)는 법률로써 민중의 교화를 돋는 것이요 ⑦ 빙객에 대한 예는 제후들을 맞아들이고 면 나라 사람들을 내왕하게 함으로써 천하의 정의가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요 ⑧ 군사는 조공을 바치지 않고 모반하는 나라를 정벌하고 죄 짓은 자를 쳐서 천하의 근심을 방지하는 일이니, 이 여덟 가지 정사를 실시함에 있어 급하고 느림과 앞에 할 일과 뒤에 할 일은 일정하지 않으나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요긴한 것입니다.

4. 다섯 가지 기강(五紀(오기))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① 세시(歲時)의 차서에 있어서 천도가 운행하여 봄·여름·가을·겨울의 네 철이 이루어지고 네 철이 합하여 한 해가 되는 것이 천도운행의 기강이요 ② 달이 하늘에서 운행되어 초하루, 그믐이 되고 반달과 망월을 이루는 가운데 30일이 지나면 한 달을 이루는 것이니 이는 달 운행의 기강이 되는 것이요 ③ 날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저물어가는 가운데 밤과 낮이 구별되면서 태양 운행의 기강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④ 별들의 운행에 있어 철도가 있고 해와 달이 서로 융화하며, 따로 경성(經星)과 위성(緯星)이 있고 이것이 다시 하늘의 열 두 별의 차례를 정함으로써 별들의 기강이 되는 것이요 ⑤ 역수(曆數)는 해(歲(세))와 달과 날과 별들이 기울었다, 쌌다, 느렸다, 빨랐다 함에 모두 일정한 수가 있으므로 자연의 수에 따라 일정한 책력을 만들어 천도가 운행하는 기강을 삼는 것입니다.

5. 임금의 표준 되는 법칙에 따른 범주에 대하여 임금 된 사람의 한 몸은 만 가지

교화(教化)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바가 모름지기 크게 중도에 맞아야 되고 지극히 바른 표준(極(극))을 세워 천하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여러 가지로 순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많이 생겨, 오복(五福)을 그 몸에 갖추고 또한 반드시 천하를 교화해서 선도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이를 본받도록 하여 덕을 쌓고 선을 행하게 함으로써 복을 여러 백성에게 넓혀 줄 것입니다. 백성은 언제나 그 임금이 중도(中道)를 잡는 것을 보고 감동하여 자신도 이를 잘 간직하여 임금과 함께 중도를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서민들이 예를 따르고 법을 지켜서 음란하고 간사한 무리를 만들거나 몹쓸 행동을 하지 않고, 조정에서 벼슬하는 사람들은 공사에 충실하고 나라에 몸 바쳐 일할 뿐 사사로이 파당을 지어 서로 빌붙거나 악덕을 자행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임금이 중용을 잡아 바른 도리를 지키며 몸소 윗자리에서 모범된 행동을 하면 만민이 본받고 백관이 법(法)을 받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고난 자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에는 식견이 높아서 사리를 잘 판별하는 사람도 있으며, 재주가 있어 무슨 일이나 잘 해내는 사람도 있으며, 지조가 있고 청렴해서 의리를 잘 지키는 사람도 있으니 이들은 상등의 인재라, 들어와서는 조정에서 임금을 보좌하고 나가서는 사방으로 나라의 힘을 뻣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무왕)은 더욱 더 뜻을 돋독히 하여 이들을 잘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질이 편협해서 크게 표준 되는 중도와 정도의 이치에는 잘 걸맞지는 않지만, 방종하거나 비행을 저질러 큰 죄를 짓지는 않는 사람이 있으니 이들은 중등의 인재라, 이들을 잘 발전시키면 더불어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그냥 버려두면 간혹 악에 빠질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니 임금은 모름지기 이들을 너그럽게 용납해서 물리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안정되고 화기 넘친 부드러운 얼굴빛을 나타내며, 속마음으로부터 덕을 좋아한다 하여 화기 있는 말을 하게 될 것인 바, 이는 앞으로 향상하는 사람이나 당신(임금)은 마땅히 이러한 사람에게는 벼슬을 높여 주고 복록을 내려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누구나 감홍을 잘 일으키고 선행하기를 즐겨 결국 임금의 표준 된 법칙에

따라갈 것입니다.

치하하고 상주며 내치고 벌줌에 있어 조금도 사사로움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니, 아주 외롭고 미천한 백성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어질고 고결한 인격자라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꺼려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관직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재능이 뛰어나 맡은 일에 잘 적응해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실무에 능해서 일을 잘 처리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금 된 사람은 마땅히 이를 고무하고 진작해서 그 행하는 바를 더욱 진전시켜 그 재질을 모두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이 모두 실천하기를 좋아하며 따라서 나라가 크게 창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노력하는 사람은 중등 사람의 감정이라, 벼슬하는 사람에게 봉급을 넉넉히 주어서 집안 걱정으로 마음이 얹매이지 않게 한 연후에, 바야흐로 한걸음 더 나아가 선을 행하도록 권장해야 될 것입니다. 진실로 당신이 이런 사람에게 봉급을 계속해 주지 않고 당신의 나라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장차 자신도 모르게 큰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구태여 그 관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무런 능률도 올리지 못하고 활동도 하지 않으며 덕을 좋아하지도 않는지라, 이러한 사람에게 당신이 복록을 주려 하면 그것은 바로 허물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쓴 결과가 되어 도리어 나라에 크게 해를 끼칠 것이므로 마땅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임금이 이미 잇자리에서 표준을 세워 신하와 백성들의 모범이 되고, 또 그 신하와 백성들로서 이를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이 중용을 지키지 않고 치우치는 사람이 없으며, 평평하지 않고 기울어지는 사람이 없어서 오직 임금이 행하는 정의에 따라 갈 뿐으로, 좋아하는 바가 개인의 사사로운 희열에 탐nik하지 않고, 임금이 행하는 바른 도리에 따라 마땅히 좋아할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또한 미워하는 바가 개인의 사사로운 노여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임금이 행하는 바른 도리에 쫓아서 마땅히 미워할 것을 미워할 것이니, 이를 매사에 실현하는 사람은 치우쳐 중용에 벗어나는 일이 없고, 파당을 지어 공변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왕자의 도리가 그 얼마나 호호탕탕하여 넓고 먼 도리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 준 것입니까? 공변되

지 못해서 편당을 짓는 일을 않으면, 중용을 지키지 못해서 치우치는 일을 않을 것 이니, 왕자의 도리가 그 얼마나 평평하고 탄탄해서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고 드넓은 도리를 보여 준 것입니까? 평상의 도리에 거슬러 위배됨이 없고 기울어져 정당한 도리를 잃는 일이 없을 것이니 왕자의 도리가 그 얼마나 바르고 곧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사로움이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까? 오직 따라가는 바가 의리와 도리일 뿐으로 중도에 합당할 것이며 탕탕하고 평평하고 정직해서, 그 표준 세움에 따라 갈 것이니 이를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항상 옳고 노래하게 하여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세워야 할 법칙의 원리를 거듭 부연해서 말하면, 떳떳한 이치와 큰 교훈을 세우는 것이니 이치는 하늘에서 나와 백성을 가르치는 법인 것입니다.

무릇 백성들은 임금이 세워야 할 법칙에 대하여 풀이한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힘써 행하며 여기에 흠뻑 젖어들어 오래도록 감화되어 더욱 깊어지면, 또한 천자의 훌륭한 덕이 훨씬 빛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이를 칭송해서 '지금 임금님께서 베푸신 말씀은 우리 백성들을 고루 가르치시고 은혜롭게 길러 주시어 우리 백성들의 부모가 되시며 임금님께서는 온 천하의 임금이 될 것이다'고 말할 것입니다.

6. 세 가지 덕목의 범주에 드는 것은, ① 정직하고 중도에 맞아서 편벽되고 사곡됨이 없게 하는 것이요 ② 강(剛)으로 다스림이니 그 정치는 엄중하고 공명함을 위주로 하고 교육은 세상을 일깨워 떨쳐 일으킴이 으뜸 되는 것이요 ③ 부드러움을 가지고 다스림이니 그 정치는 관용을 위주하고 교육은 극진함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은 때에 따라 여러 가지로 활용되는 것이니, 만일 천하가 태평하고 풍속이 전전하면 스스로 바른 도리를 가지고 바른 도리를 기다리며 곧은 도리를 가지고 곧은 도리를 기다릴 뿐 거짓을 일삼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다만 사람의 습속과 기품이 달라 매양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와 교육 및 너그럽고 엄숙함을 다르게 활용할 것입니다. 만약 억세고 꿋꿋해서 유순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곧 강으로 대치하여야 될 것이니 곧 법률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만약 화락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만나면 곧 부드럽게 대해야 할 것이니 곧 이에 대하

여는 복록을 내려줄 것입니다. 또한 타고난 성품이 침착하고 차분하여 지나치게 부드러운 사람이 있으면 곧 강으로 극복하여 이를 격리해서 전진하게 할 것이며, 쾌활하고 명랑해서 지나치게 강한 사람이 있으면 곧 부드러움으로 극복하여 이를 억제해서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은 마땅히 벼슬을 주고 치하하는 복록을 내려야 하며, 임금은 마땅히 형벌을 주고 꾸짖는 위엄을 가질 것이며, 임금은 마땅히 진귀한 음식의 봉양을 받을 것입니다. 신하된 사람은 감히 임금에 대하여 참람한 일을 하거나 복을 내리거나 위엄을 부리거나 진귀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임금의 권한이 신하에게 옮겨져 신하로서 감히 복록을 주거나 위엄을 부리거나 옥식(玉食)을 하면 이는 곧 법을 무너뜨리고 기강을 문란케 해서, 대부는 그 환난을 당신의 집안에 끼칠 것이며 제후는 반드시 흉측한 재앙을 당신의 나라에 줄 것입니다. 또한 조정에 있는 사람이 이를 익혀 풍습을 이루어 기울어지고 치우쳐서 그 분수에 편안하지 못하면 아래에 있는 작은 백성이 망령되어 그 분수를 어기고 그 평상의 도를 넘는 것입니다.

7. 의심을 밝히는 일의 범주는,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임금이 거북점을 쳐서 그 징조를 살필 것이며, 혹은 시초점을 쳐서 쾌를 뽑아 길흉을 판단하여 나아가고 피할 바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사람을 간택해서 큰 점치는 관리로 임명하고, 이 사람에게 오로지 점치는 일을 주관하도록 명할 것입니다.

거북점 치는 방법은 불로 거북의 등을 지져서 그 갈라지는 자리에 있는 글자를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섯 가지 현상이 있는데, ① 비(雨) : 윤기 있고 부풀어서 비와 같은 현상은 그 징조가 물에 속하고 ② 캠(靄) : 맑고 밝아서 갠 날과 같은 현상은 그 징조가 불에 속하고, 어두움(蒙) : 어두컴컴해서 밝지 않은 현상은 그 징조가 나무에 속하고 ③ 잇따름(驛) : 잇따라서 연속되지 않음이 없는 것은 그 징조가 쇠(金)에 속하고 ④ 이김(克) : 엇갈려서 서로 이기는 것 같음은 그 징조가 흙에 속합니다. 시초점 치는 방법은 시초(蓍草)를 가지고 이것을 세 효(爻)로 나누어 내쾌(內卦)를 만들고, 또 다른 세 효를 가지고 외쾌(外卦)를 만듭니다. 내외 두 쾌를

합하여 한 패를 만들고 그 안패를 정(貞)이라 하는데 곧음(貞)은 바름(正)을 뜻하는 것이요, 바깥 패를 회(悔)라 하는데 고침(悔)은 움직임(動)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북점(卜)의 징조와 시초점(筮)의 패에 대한 체제는 모두 일곱 가지인데, 이를 분류해서 말하면 거북점은 다섯 가지이고 시초점은 두 가지이니, 이것을 빌어서 국가 대사의 길흉을 미루어 따르고 피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극히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사람을 세워서 점치는 책임을 맡기고, 또 점칠 때를 당하여 반드시 매사에 세 사람이 점쳐서 서로 참고해서 그 길흉의 징조에 대하여 같고 다름이 어떠한가를 대조해 볼 것입니다. 만약 세 사람이 똑같다면 확연히 결단할 것이요, 혹은 둘은 같은데 하나만 다르면 마땅히 두 사람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은 큰일을 당하여 의심된 바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반드시 도리와 일의 형편을 잘 참작하여 꾀함이 당신의 마음에 미치고 관리들의 마음에 미치며 나아가 백성들에게 미친 뒤에 점을 치고, 다시 이것을 귀신에 물어 자신이 따르고 피할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만일 크게 의심된 일이 있을 때에는 당신의 마음에 이것을 헤아려 보면 곧 쫓아서 행하라고 하며, 거북점을 쳐도 길하여 흉함이 없고 시초점을 쳐도 아름다움이 있고 허물됨이 없으며, 관리들에게 물어 봐도 군말이 없으며 백성에게 물어봐도 다른 의논이 없을 경우 크게 동화했다 하여, 이로써 매사를 거행하면 행하는 일이 마땅치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곧 많은 복이 당신에게 모여 들어 몸은 편안하고 강건할 것이며 복이 후세에까지 미쳐 자손들이 길하고 경사스러울 것입니다.

또 당신의 마음에도 합당하며 거북점에도 길한 징조가 있으며 시초점에도 허물되는 말이 없으나, 다만 관리들이 반대하고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길한 것입니다. 또는 관리가 따르고 거북점도 따르며 시초점도 따르나, 다만 당신의 마음에 합당치 않고 백성들이 반대하더라도 또한 길한 것입니다. 또는 백성들이 따르고 거북점도 따르며 시초점도 따르나, 다만 당신의 마음에 합당치 않으며 관리들이 반대하더라도 이는 길한 걸로 칩니다. 또는 당신의 마음에는 합당하나 거북점에는 거스르고 시초점에도 거스르며 관리들도 반대하고 백성들도 반대하면, 오

직 안으로 가만히 진행시킴으로써 길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밖으로 일을 벌이게 되면 흥해질 것입니다. 만약 거북점이나 시초점이 다 사람의 뜻에 벗어나면 다만 조용히 평상의 도리를 지킴으로써 마침내 길(吉)을 얻도록 할 것이니, 만일 어떠한 일을 벌이게 되면 반드시 크게 흥한 허물을 짓게 될 것입니다.

8. 여러 가지 징후의 범주는 하늘과 인간의 이치가 서로 느껴서 통함으로써 이루 어지는 것인데, 다만 하늘 이치의 길흉을 보아서 인간의 일에 대한 소득과 손실을 징험하는 것입니다. 그 조목을 들면, ① 비 : 음양의 기운이 서로 합쳐져 무더우면서 축복함이요 ② 해돋음(暘) : 음양의 기운이 흩어져서 맑게 깨이요 ③ 따뜻함(燠) : 음은 사라지고 양이 돌아 올라 따뜻함이요 ④ 추위(寒) : 양은 사라지고 음이 자라나서 싸늘함이요 ⑤ 바람(風) : 기운이 서로 불이 되고 서로 떨쳐서 두루 돌고 날뛰이요 ⑥ 때(時) : 비 오고, 해 뜨고, 따뜻하고, 춥고, 바람 부는 것이 모두 알맞은 시기가 있으니 무릇 다섯 가지가 모두 완전히 갖추어져 모자람이 없고, 각각 그 시기를 따라 서로 응해서 화기가 넘쳐흘러야 만물이 나고 자라며, 여러 가지 풀잎들까지 아무리 미약한 것이라도 무성하게 뻗어 나가 그 번성함을 다하거든 하물며 다른 것들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한편으로 치우쳐서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만물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요, 만일 한편이 너무 모자라서 지나치게 적으면 만물이 그 본성을 다 발휘할 수 없어서 모두 흥한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도의 어떤 것은 아름답고 어떤 것은 허물됨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래를 잘 닦으면 반드시 하늘이 위에서 아름다운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그 조목을 들면, ① 엄숙함 : 용모를 움직일 때에 단정하고 씩씩하며, 엄숙하고 진실하게 하면 때에 맞는 비가 내려 이에 순응하고 ② 다스림 : 말로 표현되는 것이 이치에 맞아서 빛나면, 때에 맞게 해가 비치고 날이 개어 이에 순응할 것이요 ③ 맑음 : 밝게 보고 소명한 지혜가 있으면 시기에 맞게 따뜻함으로써 이에 순응할 것이요 ④ 꾀함 : 총명하게 들어서 넓게 꾀함이 있으면 시기에 맞게 차고 서늘함으로써 순응할 것이요 ⑤ 거룩함 : 임금의 생각이 능히 이치에 통달해서 슬기롭고 성스러우면 때에 맞는 바람이 불 것이요 ⑥ 허물의 징조 : 인간이 아래에서 실수하면

하늘이 위에서 반드시 죄악의 징협을 나타낼 것이니, 그 눈은 미친 듯하며 용모는 엄숙하지 못하여 아주 거칠어지면 곶은비가 내릴 것이요 ⑦ 참람(僭) : 말이 이치에 맞지 않고 어그러지면 항상 가뭄이 들 것이며 ⑧ 머뭇거림(豫) : 가부를 명석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결단하지 못하면 무더운 날씨가 될 것이며 ⑨ 조급함 : 총명함이 시비를 살피지 못하고 조급하게 서두르면 춥고 싸늘할 것이요 ⑩ 어두움 : 슬기로움이 기미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혼혹되면 항시 거친 바람이 불 것입니다.

임금과 신하가 아름다운 징조와 허물된 징조를 보고 그 득실을 살펴야 될 것이니, 임금이 그 손실과 소득을 징협하고자 하면 마땅히 다섯 가지 기운의 길흉에 있어 한 해 동안의 이해에 관한 것을 징협할 것이요, 귀족들은 한 달 것을 징협할 것이요, 관리들은 응당 하루 것을 징협해야 될 것입니다.

한 해, 한 달, 하루의 사이에 비 오고, 해 뜨고, 뜨겁고, 차고, 바람 부는 때가 모두 절후에 따라 알맞고 변태가 없는 것은 인간의 일을 잘 다스림으로 해서 하늘에서 아름다운 징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한 해의 공덕은 여러 가지 곡식이 잘 성숙함이요, 정치의 공덕은 그 효력이 밝게 드러나는 것이니, 조정에서는 숨은 인재가 모두 밝게 드러날 것이요, 평민의 입장으로는 모두 평안하고 강건할 것입니다.

하루, 한 달, 한 해 동안에 다섯 가지 기운이 모두 어긋나고 이변이 일어나고 인간의 일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한 해의 공덕으로 보아 여러 가지 곡식이 잘 여물지 않을 것이며, 정치적으로 혼란해져서 인재는 은둔 생활을 즐길 것이며, 백성은 곤란과 고통을 겪을 것이며, 각 가정은 파탄에 이를 것입니다.

임금이나 귀족이나 관리들의 소득과 손실이 해와 달과 날에 징협되어 백성들에게 미치면 살피고 징협할 수가 없으니, 그 형상은 뜻별들이 하늘에 흘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별들은 기운이 서로 통하여 각각 좋아하는 바가 있으니 ‘기성’은 바람을 주재하기 때문에 그 성질이 바람을 좋아하고, ‘필성’은 비를 주재하기 때문에 그 성질이 비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추우면 옷을 입고자 하며 배가 고프면 먹고자 하며 홀아비와 과부와 고아와 자식 없는 사람이 각각 그 욕망을 채우려는 것과 같이 그 욕망은 각기 일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와 달의 운행에 있

어 여름과 겨울이 그 절도를 어기지 않는 것은, 귀족과 관리들이 항상 변동 없는 직책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달이 별에 따라가는 것을 본다면 달이 동북으로 가서 ‘기성’에 들어가면 그 좋아함에 따라서 바람이 불고 서남으로 가서 ‘필성’에 들어가면 비가 내리는 것이니, 이는 마치 귀족들이 관리들의 욕구에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9. 오복(五福)과 육극(六極). 아홉째로 다섯 가지 복과 여섯 가지 궁함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는 먼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다섯 가지 복을 내려 주는 것이니, ① 오래 사는 것(壽) : 사람이 반드시 수명이 장구한 연후에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② 부함(富) : 사람은 반드시 재산이 충족된 연후에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이요 ③ 강녕(康寧)함 : 몸이 먼저 건강하여야 수(壽)도 부(富)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요 ④ 덕을 좋아함(攸好德) : 식견이 높고 덕을 좋아하면 마음이 편안하여 스스로 많은 복을 얻게 될 것이요 ⑤ 늙어서 생을 마침(考終命) : 모든 복을 이미 갖추었다 하더라도 끝을 잘 마치기가 더욱 어려운 바이니, 모름지기 타고난 명을 온전히 마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여섯 가지 궁함을 내리는 것이니, ① 흉단절(凶短折) : 횡액을 만나서 제명에 죽지 못하고 중도에 일찍 죽는 것이요 ② 질병 : 언제나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하지 못함이요 ③ 근심 :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쓸쓸해서 언제나 편안하지 못함이요 ④ 가난함 : 가난하고 궁색해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없음이요 ⑤ 사나움 : 타고난 성질이 흉악하여 앞뒤를 살피지 않고 날뛰다가 재앙을 받게 됨이요 ⑥ 나약함 : 타고난 성질이 나약하고 겁이 많아 항상 굴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이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 반면에 악을 행하면 재앙을 받는 것이니, 이와 같음을 거울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潤下(윤하) : 물의 성질은 아래로 내려감을 뜻함.

作鹹(작함) : 바닷물에서 소금이 남.

炎上(염상) : 불.

作苦(작고) : 불에 탄 음식은 맛이 씀.

曲直(곡직) : 나무.

作酸(작산) : 나무에 맛이 신 과일이 달림.

從革(종혁) : 쇠.

作辛(작신) : 쇠가 불에 달면 맛이 맵다.

稼穡(가색) : 흙.

作甘(작감) : 흙에서 단 곡식이 많이 남.

食(식) : 먹는 것을 다스리는 관리.

司空(사공) : 땅과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

司徒(사도) : 백성을 가르치는 관리.

司寇(사구) : 범죄를 다스리는 관리.

賓(빈) : 제후들이 임금을 뵈러 들어오는 것 같은 귀한 손님의 접대를 맡은 관리.

師(사) : 군대의 일을 맡은 관리.

于汝極(우여극) : 당신의 법칙을 따라서.

比德(비덕) : 덕(德)은 행동, 자기 무리만을 위하는 행동.

罹于咎(이우구) : 죄악에 빠지는 것.

康而色(강이색) : 평안하고 부드러운 얼굴빛을 하는 것.

熒獨(경독) : 경(熒)은 형제가 없는 것, 독(獨)은 자식이 없는 것, 곧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사람.

方穀(방곡) : 비로소 더욱 좋아지는 것.

蕩蕩(탕탕) : 넓은 모습.

歸其有極(귀기유극) : 그 법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따르게 되리라는 뜻.

彝(이) : 변하지 않고 언제나 일정한 것.

弗友(불우) : 친하게 따르지 않는 것.

變友(섭우) : 화친. 화하고 친하게 따르는 것.

筮(서) : 시초로 점치는 것.

用靜(용정) :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

極備(극비) : 한 가지만 지나치게 많이 갖추어진 것.

休徵(휴징) : 좋은 징후.

咎徵(구징) : 나쁜 징후.

好德(호덕) : 미덕.

考終命(고종명) : 늙어서 자연히 죽는 것. 자연사.

凶(흉) : 흉사의 뜻.

短折(단절) : 요절. 곧 일찍 죽는 것.

여오(旅獒)

중국 서쪽에 있는 여(旅)나라에서 개(獒)를 바쳐왔다. 그 개는 그곳 영물로서 중원(中原)에는 없는 진기한 선물이어서 무왕이 기꺼이 받았다. 이를 본 소공(召公)이 글을 지어 받는 것이 온당하지 못함을 경계하였다. 주(周)나라의 덕에 감복되어 공물을 바치는 것은 좋으나 임금이 그런 것에 탐혹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계한 것이다.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는 있다.

1 상나라를 쳐부수니 드디어 구이(九夷)와 팔만(八蠻)에 길이 트이게 되었다. 서쪽 여족이 큰 개를 공물로 바치니 태보(太保)가 이에 여오라는 글을 지어 임금께 훈계하였다.

“오오! 밝으신 임금님께서 덕을 삼가시어 사방의 오랑캐들이 모두 굴복하니, 먼 곳 가까운 곳 할 것 없이 모두 그들 고장의 산물을 바쳐왔으나 오직 늘 쓰이는 옷과 음식과 그릇 뿐이었습니다. 임금이 이에 덕으로 이루게 한 것들은 성이 다른 나라들에게 밝히시어, 그들의 할 일을 버리지 못하게 하시어 보배와 구슬을 아저씨뻘이 되는 분들의 나라에 나누어 주시고 이로써 친함을 더욱 두터이 하시니, 사람들 은 물건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오직 그 물건들을 덕으로 여겼습니다.

덕이 성하면 친압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니, 군자를 친압하고 업신여기면 사람의 마음을 다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소인을 친압하고 업신여기면 그들의 힘을 다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귀와 눈의 부림을 당하지 않으면 모든 법도가 올바로 될 것입니다.

사람을 희롱하면 덕을 잃고 물건을 희롱하면 뜻을 잃을 것입니다. 뜻은 도로써 편안히 해야 하고 말은 도로써 주고받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 유익한 일을 해치지 않으면 공이 이루어질 것이며, 괴이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고 늘 쓰는 물건을 천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풍족해질 것입니다. 개나 말은 그의 풍토에 성질이 맞는 것이 아니면 기르지 마시고 진기한 새나 짐승들을 나라에서 기르지 마십시오. 먼 곳의 물건을 보배로 여기지 않으면 먼 곳 사람들이 올 것이고, 보배

로 여기는 바가 오직 어진 이라면 가까운 사람들이 편하게 될 것입니다.

오오! 새벽부터 밤까지 혹시라도 게으름을 부리지 마십시오. 자잘한 행동을 삼가지 않으면 마침내는 큰 덕에 누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아홉 길 높이의 산을 만들다가 한 삼태기의 흙이 자라도 일을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를 행하신다면 백성들은 그들의 사는 곳을 보전하게 되고 당신께서는 대대로 임금 노릇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惟克商, 遂通道于九夷、八蠻, 西旅底貢厥獒, 太保乃作《旅獒》, 用訓于王。

曰：“嗚呼! 明王慎德, 四夷咸賓, 無有遠邇, 畢獻方物, 惟服食器用。

王乃昭德之致于異姓之邦, 無替厥服, 分寶玉于伯叔之國, 時庸展親, 人不易物, 惟德其物。

德盛不狎侮, 狎侮君子, 罔以盡人心, 狎侮小人, 罔以盡其力。

不役耳目, 百度惟貞!

玩人喪德, 玩物喪志,

志以道寧, 言以道接!

不作無益, 害有益, 功乃成, 不貴異物, 賤用物, 民乃足。犬馬, 非其土性不畜, 珍禽奇獸, 不育于國。不寶遠物, 則遠人格, 所寶惟賢, 則邇人安。

嗚呼! 夙夜罔或不勤。不矜細行, 終累大德, 爲山九仞, 功虧一簣。

允迪茲, 生民保厥居, 惟乃世王。

[통석] 사관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무왕이 이미 상나라를 이기고 천하를 다스림에 그 위덕이 널리 미쳐, 마침내 변방의 야만족의 나라에까지 도로를 개설하니 모두 복종하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 이에 서쪽 오랑캐인 여(旅)에서 그곳 토산물인 큰 개를 바쳐 공경하는 뜻을 표하였다. 이에 태보(太保) 벼슬에 있던 소공(召公)이 임금의 취미는 단정해야 되는 것인데, 진현(進獻)의 문을 열었다가 자칫 성덕에 누를 끼칠까 저어하여 이에 여오(旅

煞)라는 글을 지어 임금을 가르쳤다.

“오오! 옛날부터 명철한 임금은 그 덕을 닦지 않음이 없어서 다만 중국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방 야만족들도 모두 찾아와서 복종하게 되었으니, 멀고 가까움을 막론하고 누구나 자기 지방의 생산물을 진현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납하는 바가 오직 의복을 바치고 음식을 드리며 기물을 현납할 때로이지 기이한 노리개나 이상한 물건을 바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에 왕은 덕을 삼가서 지방에서 바친 공물을 다른 성을 가진 제후에게 똑똑히 보여 주시고, 인하여 이것을 하사해 주심으로써 각기 맡은 바 직책을 변동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공물 가운데 진귀한 보배나 구슬은 성이 같은 제후들 가운데 아저씨 뺄 되는 나라에 나누어 주시어 더욱 더 그 친애를 두터이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후들은 그 물건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오직 덕으로 생각할 때로이지 보통 물건으로 여기지 못하였습니다.

무릇 덕이 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반드시 공경하고 엄숙함을 다할 뿐, 감히 추호라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할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군자를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면 군자로서 반드시 나라를 위하여 사람의 마음을 다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소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면 소인된 사람으로서 장차 나라를 위하여 그 힘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임금으로서 마음이 담담하고 욕심이 없어서 눈이나 귀가 다 마음의 명령을 듣고, 마음이 눈이나 귀가 즐기는 데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모든 일의 행함이 자연히 절도에 맞아서 각기 곧고 바를 것입니다.

사람을 희롱하면 교만하여 공경심이 없어져 자기의 심덕을 잊을 것이요, 물건을 즐겨 희롱하면 지나친 욕심이 생겨 자기의 뜻을 잊을 것입니다.

나의 뜻을 도로써 편안히 하면 망발함이 없고 남의 말을 도로써 대하면 잘못 받아들이지 않는 게 상례입니다.

그 행하는 바가 무익한 유람을 즐기다가 유익한 국가시책을 해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정치적으로 큰 성과를 거둘 것이요, 특이한 물건의 괴상하고 교묘함을 귀히 여기거나 필수품인 의복과 음식을 천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재산이 풍족해

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나 말은 유용한 가축이지만 만일 다른 지방으로부터 들여와 기후 풍토에 맞지 않으면 기르지 마시고, 아름다운 새나 기이한 짐승은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데 불과한 것이니 나라 안에서 기르면 수고와 비용만 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을 청정히 하고 욕심을 적게 하여 먼 곳의 물건을 귀에하지 않는다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듣고 심복할 마음을 먹고 쫓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배로 여기는 것을 오직 어진 신하에 준다면 어진 인재가 모여들 것이며 나라 안의 가까운 신하들이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오오! 임금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일에 마음을 놓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세한 일을 조심하지 않으면 마침내 큰 덕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이니, 비유컨대 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미 아홉 길 높이는 쌓았으나 계으른 마음이 생긴다면 한 삼태기의 흙으로 인하여 그 공이 무너지는 것과 같으리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덕을 섬기는 일을 쫓아가면 백성들은 편안히 살게 되고 무궁한 복을 받을 것이며, 임금은 영원토록 천하를 보유하실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이것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九夷八蠻(구이팔만) : 사방의 모든 오랑캐들을 통칭한 말. 동쪽 오랑캐를 이(夷), 서쪽 오랑캐를 융(戎), 남쪽 오랑캐를 만(蠻), 북쪽 오랑캐를 적(狄)이라 함. 9·8은 많은 숫자.

底貢(지贡) : 공물로 바치는 것.

太保(태보) : 삼공 중의 하나로 이때의 태보는 주 문왕의 서자인 소공이었음.

賓(빈) : 여기서는 복종하고 찾아오는 것.

方物(방물) : 그 지방의 주산물.

異姓之邦(이성지방) : 친자와 성이 다른 제후의 나라.

無替厥服(무체궐복) : 그들의 일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

伯叔之國(백숙지국) : 이성지방의 반대로 임금의 아저씨뻘 되는 제후들의 나라.

時庸(시옹) : 시이(是以 이로써)의 뜻.

役耳目(역이목) : 이목의 즐거움에 부림을 당하는 것.

百度(백도) : 모든 법도.

土性(토성) : 그 고장 풍토에 맞는 성질.

格(격) : 덕에 굽복하여 오는 것

細行(세행) : 자잘한 행동.

爲山九仞(위산구인) : 아홉 길이나 되는 산을 만드는 것.

功虧一簣(공휴일궤) : 훅 한 삼태기기 모자라서 지금까지의 모든 공이 무너짐.

금등(金縢)

무왕이 병이 깊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주공(周公)은 왕실이 아직 안정되어 있지 못한데도 은나라 백성 중에 따라오지 않는 이가 있었으므로 자칫하면 근본이 동요 될까 걱정하고 있었다. 이에 태왕(太王) · 왕계(王季) · 문왕(文王) 세 임금에게 무왕 대신 자기가 죽게 해 달라고 빌었는데, 사관이 그 비는 글을 기록하고 아울러 그때 일의 전말을 서술하여 이 한 편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금등(金縢)의 궤짝에다 넣어 간직하였기 때문에 편집하는 이가 편명을 삼았다. 금문 · 고문에 다 들어 있다.

1 이미 상나라를 쳐부수고 이 년째 되던 해에 왕이 병이 나서 편안치 못하니, 이공(二公)이 아뢰었다. “우리가 왕을 위해 삼가 점을 치겠습니다.”

주공(周公)이 “우리 옛 임금들의 마음을 근심스럽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고 이에 스스로 자기의 일이라 여겨 한 자리에 세 단을 만들고, 단을 남쪽으로 하여 북쪽을 향해 주공이 서고, 구슬을 놓고 홀(笏)을 들고서 태왕과 왕계와 문왕께 아뢰었다.

사관이 축판(祝版)을 들고 말하기를 “당신들의 큰 손자 아무개가 나쁜 병이 들어 위태롭게 되어 있으니, 만약 당신들 세 임금께서 하늘에 계시며, 그 자손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시다면 이 단(旦) [주공의 이름]으로 아무개의 몸을 대신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저는 어질어 돌아가신 아버님의 뜻을 따르며 재능이 많고 예능(藝能)이 많아 귀신을 섬길 수가 있을 것이나, 당신들의 큰 손자는 이 단(旦)처럼 재능과 예능이 많지를 못하여 귀신을 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곧 하느님의 뜰에서 명을 내리시와 온 세상을 널리 도우시어 밑의 땅에서 당신들의 자손을 안정시킬 수 있게 하셨으니, 온 세상의 백성들은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오오! 하늘 이 내리신 보배로운 명을 떨어뜨리지 말게 하시어, 우리 옛 임금들께서 영원히 의지할 곳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 저는 다 큰 거북에게 점을 쳐 보겠으니, 당신들께서 제게 허락하면, 저는 그 구슬과 홀을 바치고서 돌아가 당신들의 명하심을 기다

리겠습니다. 당신들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구슬과 홀을 거두겠습니다.”

이에 세 거북에게 점을 치니 다 같이 거듭 길하였다. 열쇠를 열어 점책을 보니 모두 역시 길하였다. 주공이 말하였다.

“점의 조짐은 임금에게 해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소. 나 같은 작은 사람이 세 임금으로부터 새로 명을 받았으니, 오직 영원토록 잘 꾀하여 주실 것이니 이제 기다려 볼 것이나, 우리의 그 한 분을 잘 돌보아 주실 것이오.”

주공이 돌아가 쇠로 봉한 궤짝 안에 축문(祝文)을 넣어 두니 임금은 이튿날 병이 나았다.

既克商二年，王有疾，弗豫，

二公曰：“我其爲王穆卜。

周公曰：“未可以戚我先王。

公乃自以爲功，爲三壇，同墠，爲壇於南方，北面，周公立焉，植璧秉珪，乃告太王、王季、文王。

史乃冊祝曰：“惟爾元孫某，遘厲虐疾，若爾三王，是有丕子之責于天，【疑有缺文。】以旦代某之身！

予仁若考，能多材多藝，能事鬼神，乃元孫，不若旦多材多藝，不能事鬼神。

乃命于帝庭，敷佑四方，用能定爾子孫于下地，四方之民，罔不祗畏。嗚呼！無墜天之降寶命。我先王亦永有依歸。

今我卽命于元龜，爾之許我，我其以璧與珪，歸俟爾命，爾不許我，我乃屏璧與珪。”

乃卜三龜，一習吉，啓籥見書，乃并是吉。

公曰：“體，王其罔害。予小子新命于三王，惟永終是圖，茲攸俟，能念予一人。”

公歸，乃納冊于金縢之匱中，王翼日乃瘳。

[통석] 사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무왕이 상나라를 쳐서 이긴 지 겨우 2년 되던 해에, 왕이 사나운 병마에 걸려 신고하게 되시니 늘 기쁜 마음이 없으셨다.

이에 태공(姜太公)과 소공(召公)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임금님의 한 몸엔 우리 주나라의 종묘와 사직의 안전하고 위태로움이 달려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지금 사나운 병에 걸려 신음하시는 데 신하된 저희들로서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 두 사람이 임금님을 위하여 삼가 점을 쳐서 그 안부를 알아 하느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주공이 이를 만류하며 “오늘날 임금님께서 이같이 되신 것은 반드시 종묘에 무슨 일이 있는 까닭이니, 우리 선왕들께서 이로 인하여 근심을 가질까 두렵고, 또 한 이런다 하여 우리 선왕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는 못할 것이오” 하니 태공과 소공은 곧 자기들의 뜻을 거두었다.

이에 주공이 스스로 무왕을 위하여 기도 드릴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고서, 흙을 쌓아 세 단을 만들고 땅을 다듬어 제사터를 만들어 귀신이 깃들일 곳으로 하였다. 또 따로 남쪽에 한 단을 만들고 북쪽을 향하여 주공이 서고, 구슬을 단 위에 놓고 홀을 손에 들고서 글을 지어 태왕·왕계·문왕의 영전에 고백하였다.

태사(太史)가 제문을 지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우리 태왕·왕계·문왕의 원손 아무개(武王)가 몹시 사나운 질병에 걸려 병세가 심히 위독합니다. 원손 아무개는 종사를 받들고 왕업을 이어나갈 하늘의 큰 아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세 왕의 영령이시여, 마땅히 이를 보호하여 그 죽음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 세 임금님께서 기필코 이 원자를 하늘나라에서 보호하시려 한다면, 이 단(且)(주공)으로 하여금 원손 아무개의 몸을 대신해 주셔서 원손이 결코 큰일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어질고 착하여 능히 조상의 뜻을 받들 수 있으며, 재간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무엇이나 시키는 대로 잘할 것이며, 귀신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원손의 재주는 저의 재주 많은 것에 비하면 도저히 시키시는 일을 다 해낼 수 없으며 귀신을 섬기는 일도 능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원손의 할 일이 아닙니다.

원손은 귀신을 섬기는 데는 능하지 못하지만, 천명을 하늘의 뜰에서 받아 임금이

되고 스승이 되어 덕과 가르침을 널리 퍼서 사방의 백성을 돋고 능히 우리 세 임금님의 차손을 이 땅 위에 안정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천하의 임금이 되고 스승이 되니 사방의 백성이 법을 받들고 명령을 지켜 지극히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바쳐 복종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하오니 원손 한 몸이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오, 우리 세 임금님이시여! 마땅히 조용하게 돋고 보호하시어 하늘이 내리신 보배로운 명령을 길이 떨어뜨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나라와 선왕 후직(后稷) 아래의 종사가 또한 길이 의탁해서 돌아갈 곳이 있게 하옵고, 영원무궁토록 제사를 받들도록 하옵소서.

이제 제가 큰 거북에게 명을 점쳐서 그 길흉의 징조를 보겠습니다. 만약 길조를 얻으면 이것은 우리 세 임금님들께서 원손을 보호하도록 저에게 허락한 것이오니, 제가 구슬과 홀을 가지고 돌아가서 당신들의 명을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저에게 보호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나라의 왕업은 이로써 끝난 것이오니, 저는 구슬과 홀을 거두고 귀신을 섬기는 일도 그만두겠습니다.”

이에 세 사람이 주관하는 거북에게 점을 쳐서 참고하니 세 거북의 징조가 한결같이 길함을 거듭 나타내었다. 또한 금등의 궤짝을 열어 그 속에 든 점책을 보니 모두 길하였다. 이것은 세 임금님들께서 말없는 가운데 그윽이 도와주심을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주공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거북이 점의 형상을 보니 모두 길조를 나타내고 있소. 결코 임금님의 병에 해가 없으리다.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세 임금님으로부터 새로이 명을 받았으니, 나에게 원손을 보호할 것을 허락하심이라 영원토록 잘 도모해 주시리라 믿소. 다만 기다릴 것은 세 임금님들께서 우리 원손 한 분을 염려하여 편안히 해주시는 일 뿐이오. 내가 원손을 위하여 대신 죽을 것을 원하여 기도 드린 뜻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 확실하오.”

주공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니 사관이 기도 드린 그 축문을 쇠로 봉한 궤짝 속에 집어넣었다. 무왕은 그 이튿날에 깨끗이 나았다.

既克商二年(기극상이년) : 상나라를 쳐부순 지 2년째 되던 해(1121 B.C.).

二公(이공) : 태공과 소공. 태공은 문왕(文王) 때부터의 재상인 태공망 여상(太公望呂尚), 소공은 문왕의 서자(庶子).

公(공) : 주공(周公)을 가리킴. 무왕의 동생.

自以爲功(자이위공) : 자기가 할 일로 생각하는 것.

三壇(삼단) : 태왕(太王) · 왕계(王季) · 문왕(文王)을 위한 세 개의 제단.

壇(단) : 제사터로서 땅을 깨끗이 한 곳.

壇(단) : 제사 지내는 주공 자신이 설 단.

植(치) : 치(置)와 통함.

璧(벽) : 옛날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예물로 쓰였던 동근 구슬.

冊祝(책축) : 사관에게 글을 짓게 하면서 비는 것.

元孫(원손) : 막손자.

某(모) : 무왕을 가리킴.

邁厲(구려) : 위태롭게 되어 있는 것.

祚(비) : 보호하는 것.

能多材多藝(능다재다예) : 재능과 예능이 많다는 말. 주공이 자신을 이처럼 내세운 것은 자기가 무왕보다 죽어서 귀신들을 위하여 봉사하기 적합한 인물이니 자기를 무왕 대신 죽게 해달라는 뜻임.

命于帝庭(명우제정) : 하느님의 뜰에서 무왕에게 명을 내리셨다는 뜻.

寶命(보명) : 보배로운 하늘의 명을 받은 주나라의 국운.

依歸(의귀) : 의지 또는 의뢰하는 것.

三龜(삼귀) : 세 마리의 거북. 세 임금에게 벌기 때문에 세 마리의 거북에게 점친 것임.

啓籥(계籥) : 열쇠로 책궤를 여는 것.

體(체) : 점의 결과가 거북의 등에 나타난 모양.

永終(영종) : 영구의 뜻.

2 무왕이 이미 돌아가신 뒤에 관숙(管叔)과 그의 여러 아우들이 나라에 뜬소문을 퍼뜨리기를, “주공은 장차 어린아이에게 이롭지 않은 짓을 할 것이다” 하였다.

주공이 이에 이공(二公)에게 말하였다. “내가 피하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 옛 임금님들께 아릴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주공이 동쪽에 산 지 이 년 만에 죄인들이 잡히게 되었다. 그 뒤 주공은 시를 지어 임금님께 바쳤는데 그 제목은 ‘올빼미’였으니, 임금님도 또한 감히 주공을 꾸짖을 수가 없었다. 가을에 크게 곡식이 여물었는데 거둬들이지 않고 있을 때에 하늘

에서 크게 벼락과 번개가 치며 바람이 불어 곡식이 모두 넘어지고 큰 나무가 뽑혀 지니 나라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임금은 대관들과 더불어 모두 예복을 갖추고서 쇠로 봉해 놓은 글을 열어 보니, 주공이 자신이 하여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무왕에 대신하겠다고 한 말이 적힌 것을 얻었다.

이공과 임금이 이에 사관들과 여리 일하는 관리들에게 그것에 대하여 물으시니 그들은 대답하였다. “정말입니다. 아아! 주공께서 명하시어 우리들은 감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임금은 글을 들고 옮면서 말씀하였다.

“그것은 삼가 점쳐 볼 필요도 없소. 옛날에 주공께서는 왕가를 위하여 부지런히 수고하셨으나 오직 나만이 어려서 알지 못하고 있어 지금 하늘은 위엄을 나타내어 주공의 덕을 밝히신 것이오. 그러니 이 작은 사람이 그분을 친히 맞아들이는 게 우리 국가의 예의에도 합당할 것이오.”

임금이 교외로 나가니 하늘은 비를 내렸고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부니 곡식은 모두 일어났다. 이공은 나라 사람들에게 명하여 넘어진 큰 나무들을 모두 일으켜 복돋아 주게 하였다. 그 해에 큰 풍년이 들었다.

武王既喪，管叔及其羣弟，乃流言於國曰：“公將不利於孺子。”

周公乃告二公曰：“我之弗辟【讀爲避】，我無以告我先王。”

周公居東二年，則罪人斯得。

于後公乃爲詩以貽王，名之曰鵲鵠，王亦未敢誚公。

秋大熟未穫，天大雷電以風，禾盡偃，大木斯拔，邦人大恐，王與大夫盡弁，以啓金縢之書，乃得周公所自以爲功，代武王之說。

二公及王，乃問諸史與百執事，對曰：“信。噫！公命我勿敢言。”

王執書以泣曰：“其勿穆卜。昔公勤勞王家，惟予沖人弗及知，今天動威，以彰周公之德，惟朕小子其新【當作親】逆，我國家禮亦宜之。”

王出郊，天乃雨，反風，禾則盡起。二公命邦人，凡大木所偃，盡起而築之，歲則大熟。

[통석] 그 뒤에 무왕이 이미 세상을 뜨고 성왕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주공이 섭정을 행하였다. 이때에 주공의 형 관숙선(管叔鮮)과 그 여려 아우 채숙도(蔡叔度), 관숙처(霍叔處) 등으로 하여금, 바야흐로 은나라의 무경(武庚)을 살피도록 하였다. 한데 이들은 모반할 것을 꿈꾸고 근거 없는 말을 날조하여 나라 안에 퍼뜨려서 “주공이 장차 왕위를 빼앗으려 하니 어린 성왕에게 불리하다”고 하였다.

주공이 이 유언비어로 인하여 스스로 마음 가운데 불안한 생각이 들어 태공과 소공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물러나 피하지 않고, 참소하고 비방하도록 놓아두면 곧 변란이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서 재앙이 사직에 미칠 것입니다. 이는 뒷날 내가 죽어서 지하에 돌아가 선왕들께 아뢸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주공이 피하여 동쪽에 거처한 지 2년 만에 관숙과 채숙의 죄상이 드러났다.

그 뒤에 주공이 시 4장을 지어 성왕에게 바쳤다. 이 시의 제목을 ‘올빼미’라 하였으니, 대략 왕업의 어려움과 그 왕업이 무너지려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다는 뜻을 깊이 나타내었다. 그 뜻이 충성스러움과 억울함을 나타내었고, 글은 간절하고 곧은 것이었으므로 성왕이 또한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 감히 주공을 꾸짖지 못하였다. 이 해 가을 논밭에 곡식이 한창 무르익어 아직 거두어들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놀성벽력이 치고 폭풍이 불어 벼는 모두 쓰러지고 나무뿌리가 뽑히는지라 나라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성왕은 이 천변을 당하여 대부를 비롯한 모든 신하와 함께 예복을 갖추고 쇠로 봉한 궤짝을 열어 장차 천변을 점치려 했다. 이때 주공이 몸소 무왕을 대신하여 죽으려 함을 자기의 임무로 삼은 내용의 글을 얻게 되니 이것은 곧 무왕이 계실 때 기도 드린 축문이었다.

태공과 소공, 성왕이 이것을 보고 그 일의 전말을 사관과 일을 맡은 여러 신하에게 물으니 모두 대답하기를 “진실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주공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셔서 행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축문을 기록하던 당시에 인심이 동요될까 저어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감히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고 하였다.

성왕이 주공의 책서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대부에게 말하기를, “오늘날 천변을 불러일으킨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겠으니 삼가 점칠 것을 중단하오. 옛날 주공께서 아버님 계실 때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청하여 목숨을 바

쳐 부왕에 대신하여 죽으려 했었소. 왕가를 위하여 부지런히 수고하심이 이와 같았거늘 내가 아직 나이 어려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주공으로 하여금 유언비어의 횡액을 당하시게 하여 불안하게 하였으니, 모두가 나의 불명한 소치였소. 이제 하늘이 폭풍과 우뢰로써 나를 일깨워 주공의 덕을 밝게 드러내려 한 것이오. 이제 천변을 몇게 하자면 하루빨리 공을 조정에 모셔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몸소 주공을 맞아들이려 하오. 우리나라가 어진 이를 포상하고 승상하는 예의 지침을 도리로 여겼거늘 이는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소” 하였다.

성왕이 이에 주공을 친히 맞아들이기 위하여 교외에 나가니, 때마침 하늘에서 비를 뿐리고 바람을 되돌려 불게 하여 바람에 쓰러진 전답의 곡식이 바람 따라 일어나서 다시 소생하였다. 태공과 소공이 백성들을 시켜 쓰러진 큰 나무를 일으켜 세워서 굳게 다지고 복돋아 주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 해에 크게 풍년이 들었다. 무릇 성왕이 주공을 알지 못하니 하늘이 위력을 보여 감동시키고, 이미 주공을 맞아들이니 하늘이 순하게 도와 그 재앙을 돌려 상서를 만든 바가 이와 같았던 것이다.

既喪(기상) : 죽은 뒤. 무왕(武王)은 기원전 1115년에 죽고 열세 살 된 성왕(成王)이 즉위하였다.

管叔(관숙) : 문왕의 셋째 아들로 이름은 선(鮮). 주공의 형.

羣弟(군제) : 채숙(蔡叔)과 과숙(霍叔)을 가리킴.

孺子(유자) : 어린아이. 성왕을 가리킴.

鶴鳴(치효) : 올빼미. 이 시는 《시경》〈민풍(豳風)〉에 실려 있다.

其勿穆卜(기물목복) : 성왕이 하늘의 재난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주공이 쇠로 봉해 놓은 궤짝을 조사하였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는 삼가 점을 쳐서 재난의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없다’는 뜻.

재난의 원인이 충성된 주공을 의심한 때문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임.

冲人(충인) : 어린 사람.

新(신) : 친(親)으로 보아 친히의 뜻.

禮亦宜之(예역의지) : 예에 따르더라도 또한 그분을 잘 모시는 것이 옳다는 뜻.

築(축) : 나무에 복을 돋아 주는 것.

대고(大誥)

무왕이 은나라를 쳐서 이긴 뒤에 은나라의 남은 백성들을 모아 주(紂)의 아들 무경(武庚)을 제후에 봉하고, 관숙·채숙·곽숙 등 삼숙에게 명하여 은나라를 감시하게 하였다. 무왕이 죽고 성왕이 즉위하자 주공이 재상이 되어 성왕을 도왔다. 삼숙이 뜬소문을 퍼뜨려 ‘주공이 장차 어린이를 해칠 것이다’고 하여 주공이 재상의 자리를 그만두고 동쪽으로 피해 가서 살았다. 그 뒤에 성왕이 주공의 진의를 알아차리고 주공을 맞아들이자, 삼숙이 드디어 무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성왕은 할 수 없이 주공으로 하여금 이들을 치게 하였는데, 이때 천하에 이들을 쳐야만 하는 이유를 밝힌 것이 <대고>이다. 《서경》에 무경만 말하고 삼숙을 말하지 않은 것은 주공과 친형제이기 때문이다. 편 머리에 대고(大誥) 두 자가 있기 때문에 편집하는 이가 <대고>로 이름을 삼았다. 금문과 고문에 다 들어 있다.

1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아! 그대들 여러 나라와 신하들에게 널리 고하오. 불행히 하늘은 우리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어 조금도 유예하지 않고 있소. 크게 생각해 보건대 이 어린 사람이 끝없이 큰 운명과 일을 계승하였으나 지혜를 발휘해 백성들을 편안히 이끌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의 명을 궁리하였다고 할 수 있겠소?

이리하여 나 소자(小子)는 깊은 물을 건너는 것과 같으니 나는 오직 내가 건널 바를 찾았소. 아름다움을 시행하며 옛사람들이 받은 명을 펴서 이에 큰 공을 잊지 말아야, 나는 감히 하늘의 위엄을 내리려 하심을 거역하지 못할 것이오.

나라를 편하게 하신 임금께서는 나에게 크고 보배로운 거북을 남겨 주시어 하늘의 밝으심을 이어받게 하셨으니, 곧 점을 쳤는데 ‘서쪽 땅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서쪽 땅 사람들은 또한 안정되지 못하고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었소.

조그마한 은나라가 감히 크게 그의 기강을 바로잡아 보겠다 벼르고 있어 하늘이 위엄을 내리셨소. 저들은 우리나라에 흠이 있어 백성들이 편안치 못함을 알고서 ‘내가 되찾겠다’고 큰소리치며 도리어 우리 주나라를 업신여기고 있소.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니, 그 다음날 백성들이 바친 사람 열이 있어 나를 돋게 함으로써 나라를 편하게 하신 무왕께서 꾀하시던 일을 이어 다스리도록 하였소. 나에게 큰일이 생기면 좋은 결과일 것이니, 내 점은 언제나 길하기 때문이오. 고로 나는 나의 후방 제후들과 장관들, 관리들,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에게 고하였소. ‘나는 길한 점을 얻었소. 나는 당신들 여러 나라들과 함께 은나라의 도망 다니는 신하들을 치러 가려 하오’라고.

그대들 여러 나라의 제후들과 여러 관리 및 일을 맡은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는 이가 없이 말하기를, ‘어렵고 큰 일입니다. 백성들이 안정치 못한 것은 오직 임금의 궁전 사람과 제후들 집안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 작은 사람들은 윗사람을 공경한다는 뜻에서 정벌을 하면 안 된다고 여깁니다. 임금께서는 어찌 하여 점을 여기지 않으려 하십니까?’ 하였소.

그러므로 이 어린 사람은 오래 갈 어려움을 생각하고 ‘오오! 정말로 소동을 일으킨다면 홀아비와 과부들이 불쌍하도다’고 말했소. 내 일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며, 나의 몸에 큰일을 내려 어려움을 맡기신 것이오. 이 어린 사람은 나를 스스로 근심할 틈도 없소. 옳기로 말하면, 당신들 제후들과 장관이나 일을 맡아보는 여러 사람들은 나를 위안하여 ‘걱정을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나라를 편히 하신 아버님께서 꾀하시던 일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고 말해야만 될 것이오.

그래서 나 소자는 감히 하느님의 명을 저버리지 못하겠으니, 하늘은 나라를 편하게 하신 임금님을 아름답게 여겨 우리 작은 주나라를 일으키셨는데, 나라를 편하게 하신 임금님께서는 오직 점을 따르시어 이 명을 편히 받으셨으며, 지금 하늘은 백성을 돋고 계시니 어떻든 또 점을 따라야만 하겠소. 오오! 하늘이 두려움을 밝히려함은 우리의 크고 큰 터전을 도우시려는 때문이오.”

王若曰：“猷！大誥爾多邦越爾御事！弗弔天降割于我家不少，延洪惟我幼冲人，嗣無疆大歷服，弗造哲迪民康，矧曰其有能格知天命？”

已！予惟小子，若涉淵水，予惟往求朕攸濟。敷貲，敷前人受命，茲不忘大功，予不敢閉于天降威用。

寧王遺我大寶龜，紹天明，卽命，曰：‘有大艱于西土。西土人亦不靜，越茲蠢。’
殷小腆誕敢紀其敍，天降威，知我國有疵，民不康，曰：‘予復’，反鄙我周邦。
今蠢，今翼日，民獻有十夫予翼，以于敉寧武圖功。我有大事休，朕卜并吉。
肆予告我友邦君越尹氏庶土御事，曰：‘予得吉卜，予惟以爾庶邦，于伐殷逋播臣。’
爾庶邦君越庶土御事，罔不反曰：‘艱大。民不靜，亦惟在王宮邦君室。’越予小子考
翼，不可征。‘王害不違卜？’
肆予沖人永思艱，曰：“嗚呼！允蠢，鰥寡哀哉。予造天役，遺大投艱于朕身。越予沖
人不卬自恤。義，爾邦君越爾多士尹氏御事綏予曰：‘無惄于恤。不可不成乃寧考圖
功。’
已！予惟小子，不敢替上帝命，天休于寧王，興我小邦周，寧王惟卜用，克綏受茲命，
今天其相民，矧亦惟卜用。嗚呼！天明畏，弼我不不基。”

[통석] 사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주공이 임금의 말씀을 받들어 무경의 죄를 토벌함에 왕명을 전하여 다음과 같이
천하를 일깨웠다.

“임금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소. 아아, 그대들 여러 나라의 제후와 그대들 여
러 신하들에게 말하오. 하늘은 우리 주나라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집안
에 재앙을 내려 무왕을 잃게 되어 조금도 명을 연장해 주지 아니하였소. 크게 생
각해 보니 내 어린 사람으로 끝없는 명을 이어받고 높은 천자가 되어 오복(五服)의
땅을 받아 지키게 되었소. 사해(四海)를 보유하고 나서 스스로 생각하니, 아는 것
이 적고 어두워서 밝은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여 백성들을 편한 곳으로 이끌어 주
지 못하였소. 어린 나로서는 소상히 드러난 인간의 일도 능히 다 알지 못하거늘,
하물며 헤아리기 어려운 천명을 헤아려서 궁구하여 안다고야 하겠소?

나 같은 작은 사람이 어리고 어두운 처지로 왕이 되니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조심조심 깊은 물을 건널 때에 그 건너편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소. 나는 부지런히
힘써 가서 건널 바를 구할 뿐이오. 참람한 신하를 치지 않을 수 없어 내가 이제 정

별하려 하오. 제도와 문물과 법도가 있는 아름다운 장식을 펴서 선조들께서 명을 받아 닦아 놓은 기업을 더욱 더 확대하려 하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또한 무왕의 큰 공을 잊지 않으려는 뜻이기도 하오. 하물며 무경은 반드시 하늘의 토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 내 감히 하늘이 내린 위엄을 거역하지 못하겠소.

옛날에 나라를 편안히 다스린 무왕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크고 보배로운 거북을 남겨 주시어, 하늘의 밝은 뜻을 이어받아 길흉을 판단하게 하였소. 전날에 일찍이 거북의 명하는 바에 나아가 그 징조를 보니, 다른 날에 동방의 제후가 일어나 죄를 저질러 서쪽 땅에 크게 어려운 일이 있으리니 서쪽 사람도 또한 안정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였소. 이는 아직 무경이 반역하지 않은 때에 큰 거북의 경조에 미리 나타난 것이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무경이 과연 꿈틀거리고 있소. 오늘의 일은 하늘이 정한 바이니 어길 수 없는 것이오.

무경은 특히 은나라 마지막 왕인 주의 후예로 미미한 존재인데, 감히 이미 망한 실마리를 크게 이어 다시 일으키려 하고 있소. 이는 하늘이 이미 은나라에 위엄을 내려 스스로 멸망케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경이 우리나라가 삼숙(관숙·채숙·곽숙)의 유언비어로 민심이 동요됨을 엿보고 큰 소리로, ‘내가 장차 은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나라를 낮은 고을로 만들겠다’고 외치고 있소.

무경이 오늘 준동하니 다음날 우리 백성들 가운데 의리에 밝고 시와 형세를 잘 판단하여 아는 어진 이 열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도와 은나라를 어루만져 안정시키도록 하여 무왕이 뜻한 공업을 잊게 하였소. 나는 나에게 크게 아름다운 일이 있으리라 믿고 있소. 내가 이것을 점쳐 본 결과 세 거북이 모두 길하오. 사람의 괴함이 저와 같고 귀신의 뜻이 이와 같으니 그 승리는 의심할 것이 없소.

그러므로 나는 일어나 우리 우방의 제후들과 장관들 그리고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에게 고하였소. 동쪽 정벌의 거사에 내가 이미 길조를 얻었소. 천명이 밝게 나타남을 어길 수가 없소. 내가 오직 그대들 여러 나라의 군사들과 함께 은나라의 도망다니는 신하를 쳐서 반드시 흉악한 죄를 소탕하여 동쪽 나라를 안정시키겠소.

그러나 여러 나라의 제후들과 여러 관리 및 일을 맡은 사람들은 내가 군사를 동원하는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모두 말하기를 ‘동쪽을 정벌하는 일은 어렵고도 중대

한 일인데 어찌 경솔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안정되지 못한 것은 무경이 난을 일으킨 까닭도 있지만 그 근거를 따져 보면 실로 삼숙이 틈을 만든 것이니, 이는 왕궁 안의 임금님 집안의 친근한 살붙이들에게 있습니다. 마땅히 스스로 돌이켜서 소멸시킬 일입니다. 어찌 갑자기 군사를 동원할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작은 사람들은 윗사람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보더라도 정별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 점을 어기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십니까?” 할 것이오.

그러나 어찌 그대들 여러 신하들의 말을 기다릴 수 있겠소? 그러므로 나 어린 사람은 일찍이 오래 걸릴 어려움을 생각하고는 있으나 오직 형편이 어찌할 수 없는 실정이오. 오오! 진실로 이 네 나라가 소동을 일으키면, 그 해가 홀아비와 과부에게 미칠 것을 심히 애달피 여기는 바이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은 모두 하늘이 시키는 일이니 그만둘 수는 없소. 하늘이 실로 너무 큰일을 나에게 끼쳤고 너무 어려운 일을 내 몸에 맡겼소. 나는 어린 사람으로서 자신을 근심할 겨를조차 없소.

또한 신하의 도리로 말하면 그대들 여러 나라의 제후들과 관리들은 마땅히 나를 편안하도록 위로하여 ‘일이 어렵고 크다 하더라도 임금님께서는 지나치게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진실로 나라를 편안히 다스린 당신의 아버지 무왕께서 뜻하신 공업을 이루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해야 될 것이었소.

나 어린 사람이 감히 하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길한 점을 어길 수는 없소. 옛날에 하늘이 나라를 편안히 다스린 임금에게 아름다운 은총을 베풀시어, 사방 백 리밖에 안되는 우리 주나라를 홀륭하게 하여 드디어 천하를 다스리게 되니, 이때를 당할 때마다 나라를 편안히 다스린 임금은 오직 점을 쳐서 거기에 따랐던 것이오.

그러므로 능히 편안히 천명을 받은 것이오. 이제 하늘이 아래의 백성을 도와서 길함에 따르고 흉함을 피하게 하였소. 하물며 이제 점을 치니 길조가 나타났는데 그 대로 있을 수 있겠소? 이는 하늘이 명한 것이 분명하오. 늠름하고 두려운 명령이오. 이는 모두 내가 크나큰 왕업의 터전을 닦아서 성공을 거둘 것을 나타냄이니 어찌 이를 어길 수 있으리오?”

御事(어사) :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사람.

弗弔(불조) : 불행의 뜻.

無疆(무강) : 끝없다는 것.

歷(역) : 역수(歷數)로 운명의 뜻.

大歷服(대력복) : 나라의 운명과 나랏일.

造哲(조철) : 어질게 하다. 또는 지혜를 발휘하다의 뜻.

格知(격지) : 궁리하여 아는 것.

威用(위용) : 위엄을 나타내는 것으로, 무도한 무경과 관숙 · 채숙을 별하려 하는 것.

寧王(영왕) : 나라를 편케 하신 임금이란 말로 무왕(武王)을 가리킴.

紹天明(소천명) : 하늘의 밝으심을 이어받게 하셨다는 뜻.

小腆(소전) : 은나라 주왕(紂王)의 아들 녹부(祿父). 곧 무경.

今翼日(금익일) : 무경이 반란을 일으키려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날.

十夫(십부) : 열 사람의 유능한 사람.

逋播臣(포파신) : 도망 다니는 신하란 뜻으로 죄를 지은 신하. 무경과 그 신하를 가리킴.

艱大(간대) : 어렵고도 큰일로 무경을 치는 일.

惟在王宮(유재왕궁) : 백성들이 안정치 못하는 까닭이 오직 임금의 친족인 관숙이나 채숙에게 있다는 말.

그들은 왕실의 사람들임.

邦君室(방군실) : 제후의 집안. 곧 무경의 집안을 가리킴.

允蠢(윤준) : 정말로 소동을 일으키게 그냥 둔다면의 뜻.

遺大(유대) : 큰일을 내려 주었다는 뜻.

投顛(투간) : 어려움을 맡기는 것.

寧考(영고) : 나라를 편케 하신 아버지. 곧 무왕.

綏受(수수) : 편히 받는 것.

丕丕(비비) : 크고 큰 모양.

2 임금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대들 옛 관리들은 나라를 편히 한 임금께서 어떻게 부지런하셨는가를 알 것이다. 하늘이 막아 어렵게 하는 것은 나의 공을 미루게 하는 것이니, 나는 감히 나라를 편히 하신 임금께서 꾀하시던 모든 일을 끝맺지 않을 수가 없소. 그래서 나는 우리 우방 제후들을 크게 깨우쳐 이끌려는 것이니, 하늘이 정성스런 말로 도우셨고 그것을 우리 백성들에게서 살펴 알아내었으니, 내 어찌 옛 나라를 편히 하신 분들이 꾀하시던 일을 끝맺지 않을 수 있겠소? 하늘도 역시 우리 백성들을 부지런하

고 삼가게 하시기를 병이 있는 것처럼 하고 계시오. 내 어찌 옛 나라를 편히 하신 분들이 받은 아름다움을 감히 끌맺어 드리지 않을 수 있겠소?”
임금께서 또 말씀하셨다.

“옛날 내가 가려 했을 때에는 나도 어려움을 말하고 날마다 생각하여 보았는데, 만약 아버지가 집을 지으려 하여 이미 방법을 이루어 놓았으나 그의 아들은 집터도 밖으려 하지 않고 있다면 집이 없어 만들어지겠소? 그의 아버지가 땅을 일구어 놓았으나 아들은 씨도 뿌리려 하지 않고 있다면 거둬들여지겠소? 그를 도와주는 아버지라 하더라도, ‘나는 후손이 있다. 터전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려 들겠소? 그러니 내 어찌 감히 나라를 편케 한 임금님의 큰 명을 내 자신이 잘 다스리지 않을 수가 있겠소?

만약 형이나 아버지의 친구가 있어서 그분의 자식을 치려 한다면, 그분의 신하가 그것을 전하고 그를 구하여 주지 않겠소?”

王曰：“爾惟舊人，爾丕克遠省，爾知寧王若勤哉。天閼慙我成功所，予不敢不極卒寧王圖事。肆予大化誘我友邦君，天棐忱辭，其考我民，予曷其不于前寧人圖功攸終？天亦惟用勤慙我民，若有疾，予曷敢不于前寧人攸受休畢？”

王曰：“若昔朕其逝，朕言艱日思，若考作室既底法，厥子乃弗肯堂，矧肯構？厥父菑，厥子乃弗肯播，矧肯穫？厥考翼，其肯曰：‘予有後，弗棄基。’肆予曷敢不越印敕寧王大命？

若兄考乃有友，伐厥子，民養其勸弗救？”

[통석] 그대들은 오직 오래된 신하들이라 모두 일찍이 무왕을 섬겼으니, 크게 멀리 살펴서 앞일을 내다볼 수 있을 것이오. 그대들은 본래 나라를 편안히 하신 임금께서 기업을 창조함이 이렇듯이 수고로움을 알고 있지 않소? 무왕이 또한 어려움을 이기고 이를 이루어 냈는데, 이제 네 나라가 꿈틀거리나 하늘이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막아 주고 있으니 우리는 기필코 성공할 것이오.

내가 감히 우러러 천명을 받들고 환난을 이겨 국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전에 나라를 편히 하신 임금께서 뜻하신 바를 잘 끝맺지 않을 수 없소. 그러므로 나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우방의 제후들을 크게 인도하고 권유하니, 바라건대 모두 함께 호응하여 백성들이 바친 열 사람으로 하여금 정벌하게 함은 하늘이 이미 나를 정성스럽게 돋고 있는 바이니, 이것은 우리 백성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이오.

내가 어찌 옛날에 나라를 안정시킨 무왕을 보필함에 있어서 그 왕업의 끝맺음을 도모하지 않으리오? 하늘이 또한 이 네 나라의 동란으로 인하여 우리 백성들이 수고롭게 됨을 안타깝게 여기시어 이를 제거해 주고자 함이, 마치 사람에게 병이 있음에 속히 치료하려는 것과 같소. 내 어찌 하늘의 뜻을 어기고 옛날에 백성을 안정시킨 무왕께서 받으신 아름다운 천명을 받들어 감에 이 일을 마치지 않을 수 있으리오?

내가 동쪽으로 가서 정벌하려 함에 스스로 그 일의 어려움에 대하여 말한 바도 있고 날마다 생각도 해보았으니, 이는 결코 경솔한 행동이 아니오. 집짓는 일에 비유하면, 그 아비가 이미 넓고 좁고 길고 짧은 법도를 마련하였는데도 그 아들이 집짓기를 꺼려하여 집터도 다듬지 않고 있다면 어찌 가옥을 건축할 수 있겠소? 또 밭 가는 일에 비유한다면, 그 아비가 이미 땅을 파헤쳐 밭을 일구어 놓았는데도 그 아들이 농사일에 게을러서 씨를 뿌리지도 않고 있다면 어떻게 수확할 수 있겠소? 자식의 불초함이 이와 같다면, 애쓰는 아버지로서 나에게는 후손이 있으니 닦아 놓은 터전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소? 그러므로 내 몸이 살아 있는 동안 난을 쳐서 백성을 안정시킴으로써, 백성을 편히 다스린 임금님의 큰 명을 받들어 잘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겠소.

비유컨대 한집안에 아버지와 형이 있는데 벗이 와서 그 아들을 해치는 것과 같으니, 사람의 신하된 자로서 마땅히 몸을 바쳐 구해야 될 것이오. 어찌 치도록 권하고 구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이제 네 나라가 난리를 일으켜 무왕의 백성들에게 독약을 주고 있소. 이때에 신하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힘을 내어 달려가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오.”

舊人(구인) : 옛 무왕 때부터 일해 온 관리들.

遠省(원성) : 멀리 과거를 되새겨 봄의 뜻임.

寧人(영인) : 나라를 편하게 한 사람, 곧 무왕(武王).

若有疾(약유질) : 병이 있는 것처럼 하늘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잘 보살펴 인도하였다는 뜻.

其逝(기서) : 동쪽으로 옛날 무경을 치러 가려 하였을 때에.

孝翼(고익) : 그를 도와주려는 아버지.

兄考(형고) : 형과 아버지. 무왕에 비유한 것.

3 임금께서 또 말씀하셨다.

“오오! 마음을 놓으시오! 그대 여러 나라 제후들과 일을 맡은 사람들이여! 나라가 밝아짐은 어진 이로 말미암은 것인데, 또한 그 열 사람이 하느님의 명을 아는 사람들이오. 하늘은 성실히 돋고 계시니, 그대들이 이때 감히 법도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면, 하물며 지금 하늘에서 주나라에 재난까지 내리셨겠소? 크게 어려움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싹 달라붙어 그들의 집안에서 서로 치고 있고, 그대들도 또한 하늘의 명은 가벼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소.

내 오랫동안 생각하고 말하오. 하늘이 온나라를 멸하셨음은 농사꾼과 같은 것이니, 내 어찌 감히 나의 밭일을 끝내지 않을 수 있으리오. 하늘은 또한 옛 나라를 편하게 한 분들을 아름답게 여기고 계시오.

내 어찌 자주 점쳐 볼 필요가 있겠으며, 감히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소? 나라를 편하게 한 분들을 따르려 하니, 나라 땅을 잘 다스리라 가르치셨소. 하물며 지금 점이 모두 길하지 않소? 그래서 나는 크게 그대들과 더불어 동쪽을 정벌하려는 것이오. 하늘의 명은 어긋나지 않을 것이고, 점도 이렇게 하라고 일러 주고 있소.”

王曰：“嗚呼！肆哉。爾庶邦君越爾御事。爽邦由哲，亦惟十人迪知上帝命。越天棐忱，爾詩罔敢易法，矧今天降戾于周邦。惟大艱人，謳躋胥伐于厥室，爾亦不知天命不易！”

予永念曰：‘天惟喪殷若穡夫，予曷敢不終朕歎？天亦惟休于前寧人。’

予曷其極卜，敢弗于從。率寧人，有指疆土。矧今卜并吉。肆朕誕以爾東征，天命不僭，卜陳惟若茲。”

[통석] “오오! 마음을 방탕히 함으로써 위축되는 일이 없게 하시오. 그대들 여러 나라의 제후들과 일 보는 사람들이여! 주(紂)를 정벌한 일을 알고 있으시오? 옛날에 주가 천하를 어지럽힘에 무왕이 정벌하여 큰 명을 주나라에 밝게 하였소. 또한 그 당시의 명철한 신하는 이를 보필하였소. 명철한 신하는 누구인가? 이는 어진 신하 열 사람이니, 하늘이 은나라를 내치는 명을 살펴서 알았고 하늘이 우리 주 무왕의 정성을 돋고 있음을 알아차린 것이오.

그대들 여러 신하들은 이때를 당하여 감히 무왕의 법제를 어기고 정벌을 꺼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오. 하물며 이제 하늘이 주나라에 재앙을 내림에 있어서랴. 이제 앞장서서 크게 난을 책동하는 나라는 네 나라 사람들이니, 그들은 아주 가깝게 그 집안끼리 서로 치고 있어 위태롭고 형세가 급박하오. 그대들 옛날 신하들은 마땅히 열 사람으로 표준을 삼아야 하오. 그런데 모두 정벌하지 말라고 하니, 하늘이 죄인을 토멸하라는 명령에 위배됨을 알지 못하는 탓이오.

내가 또한 오랫동안 생각해 보니, 하늘이 은나라를 멸망시킴은 농부가 잡초를 제거함에 있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겠소. 이제 내가 무왕의 업적을 이어받아 어찌 근본에 힘써, 내 밭의 공효를 이루지 않을 수 있겠소? 이것은 특히 하늘이 백성을 다스린 왕을 아름답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옛날에 나라를 편안히 다스린 분들을 모두 아름답게 한 것이오.

내가 또한 어찌 모든 일에 점(占)을 이용하려 하며, 그대들이 정벌하지 말자고 함에 구태여 따르지 않으려 하겠소? 내가 나라를 편히 다스린 분들의 공에 따르고자 하면, 마땅히 성왕의 강토를 질정할 책임이 있소. 그러기 위해서 네 나라의 동란을 평정해야 되겠소. 그러므로 내가 동쪽을 정벌하는 일은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일이오. 하물며 점괘가 아울러 길하지 않소? 그러니 그대들과 더불어 동쪽 정벌의 거사를 크게 단행하려 하오. 나는 하늘이 분수에 넘친 자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어김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소. 점괘에 나타난 바를 보면 그 징조가 분명히 드러나 있소. 점괘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천명이라 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하늘의 명령을 어길 수 있겠소.”

由哲(유철) : 어진 이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뜻.

十人(십인) : 앞에 나온 십부로 백성들 가운데서 자진하여 성왕을 둡겠다고 나온 어진 사람들.

大艱人(대간인) : 크게 어려움을 만드는 사람, 즉 무경과 관숙과 채숙.

誕鄰(탄린) : 바싹 달라 붙는 것.

穡夫(색부) : 농부.

不終朕敵(부종침묘) : 나의 밭일을 끝맺지 않는 것.

矧今卜并吉(신금복병길) : 선조께서도 나라 땅을 잘 다스리라고 하셨고, 지금 점쳐 봄도 길한데, 간사한 무리들을 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뜻.

미자지명(微子之命)

미(微)는 나라 이름이고, 자(子)는 벼슬을 말한다. 성왕(成主)이 이미 무경을 죽이고 미자(微子)를 송나라에 봉하여 성탕(成湯)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사관이 성왕이 미자에게 고한 명령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편이다. 금문과 고문에 모두 들어 있다.

성왕(成王)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아! 은나라 임금의 큰 아들이여! 오직 옛일을 생각하고 덕을 높이며 어진 이를 본받아, 옛 임금들의 전통을 이어받고 그 예의와 문물을 닦으시오. 왕가에 손으로 찾아오고 나라와 더불어 아름다움을 누려 영세무궁토록 하시오.

오오! 그대 할아버지인 탕임금은 바르고 성스럽고 넓고 깊은 분이어서, 하늘이 돌보고 도우시어 크게 그 명을 받으시었소. 너그러움으로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그 악하고 사나운 자들을 쫓아내니 공이 날로 더해져서 덕이 후손들에게까지 드리웠소.

그대는 오직 그분들의 일을 따르고 닦아서 오래 전부터 아름다운 소문이 있었으니 공경하고 삼가 효도를 하며 신과 사람들을 공경하므로, 나는 그대의 덕을 가상하여 ‘두터우니 잊지 않으리’라 말하였소. 하느님은 이에 흠향하실 것이며 아래 백성들도 삼가 화합할 것이니, 이에 그대를 상공(上公)으로 세워서 이 동쪽 중화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오.

공경하여 가서 그대의 교훈을 펴고 그대의 옷과 명령을 삼가며 떳떳한 법을 따라서 왕실의 울타리가 되시오. 그대의 공 많은 조상의 덕을 넓히고 그대와 백성들을 법도로 다스리며, 그 자리를 영원히 편안하게 하여 나 한 사람을 도우시오. 대대로 덕을 누려온 나라의 모범이 되어, 우리 주나라로 하여금 싫어지지 않도록 하시오. 오오! 가서 오직 아름답게 하여 내가 명한 말을 저버리지 마시오!”

王若曰：“猷，殷王元子！惟稽古崇德象賢，統承先王，修其禮物。作賓于王家，與國咸休，永世無窮。

嗚呼！乃祖成湯，克齊聖廣淵，皇天眷佑，誕受厥命。撫民以寬，除其邪虐，功加于時，德垂後裔。

爾惟踐修厥猷，舊有令聞，恪慎克孝，肅恭神人，予嘉乃德曰：‘篤不忘。上帝時欽，下民祗協，庸建爾于上公，尹茲東夏！’

欽哉！往敷乃訓，慎乃服命，率由典常，以蕃王室。弘乃烈祖，律乃有民，永綏厥位，毗予一人。世世享德，萬邦作式，俾我有周無斁！

嗚呼！往哉惟休，無替朕命！”

[통석] 사관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성왕이 미자를 송(宋)에 봉하고 이를 임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오! 은나라의 원자여! 내가 옛날의 법률과 제도를 참고하고서 덕을 이룬 탕임금을 존경하고 숭배하게 되었소. 그대는 능히 그의 어진 것을 본받았으므로 그의 제사를 주관하도록 명하는 바이니 선왕의 계통을 이어받아 그 예절과 문물을 잘 닦아가도록 하오. 또 은나라의 후예는 현재의 신하와는 다른 것이오. 그러므로 그대에게 명하여 왕실의 손님이 되게 하고, 신하와 예로써 대우하지 않으려 하오. 일대가 지난 뒤에 주나라와 함께 영세무궁토록 행복을 누리도록 하오.

오오! 그대의 조상이신 탕임금의 덕은 바르고 엄숙해서 공경치 않음이 없었고, 슬기롭고 성스러워 통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넓고 커서 헤아릴 수가 없었고, 한없이 깊어서 측량할 길이 없었소. 오직 이렇게 용성한 덕을 갖추었으므로 하늘이 돌보고 도와서 큰 명을 받아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백성들을 너그럽게 어루만졌으며 하나라 말기의 사악한 정치를 개선하게 되었으니, 그 공은 백성들에게 두루 입혀지고 그 덕은 후손들에게 길이 드리워진 것이오.

그대는 오직 능히 탕임금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실천하고 닦아 갔으므로, 옛날부터 이미 어질고 착한 소문이 있었소. 그대는 정성스러우면서 두려워하고 또한

조심하고 삼가서 능히 선조들에게 효도를 다했으며, 그대는 엄숙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신을 섬기고 사람을 다스리는 도리를 다했소. 나는 그대의 참다운 덕을 가상히 여기오. 그대는 능히 조상이 행한 바를 돈독히 해서 그 근본을 잊지 않았으니 제사를 받들면 하늘이 반드시 거기에 흠향할 것이며, 이로써 백성을 다스리면 아래 백성들이 반드시 공경하고 화합할 것이오. 그러므로 나는 그대를 상공(上公)의 자리에 세우고 동하(東夏)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여, 선왕을 받들고 주나라 왕실의 빙객이 되도록 하겠소.

공경하오! 모름지기 가서 그대의 가르침을 펴고 닦지 않음이 없도록 할 것이며, 그대의 관복과 명령을 삼가서 참림한 일이 없도록 하고, 일정한 법의 규례에 따름이지 감히 가벼이 변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오. 능히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 왕실의 울타리가 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 주나라에 힘입어 나라가 잘 다스려질 것이오. 이는 또한 그대의 선조들의 공덕을 넓히는 길이 될 것이며, 그대가 다스리는 송나라의 백성을 법으로 규제해서 길이 상공의 위(位)를 보전하는 길이 될 것이오.

그대는 특히 왕실의 울타리가 될 뿐 아니라 능히 교회를 선양해서 오직 나 한 사람의 정치적 공덕을 넓히도록 하시오! 특히 선조들의 덕을 넓힐 뿐만 아니라, 능히 후손에게 계통을 드리워 그대의 자손이 대대로 그 덕택을 누리도록 하오. 특히 송나라의 백성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만방의 제후들도 그대를 본받도록 하오! 특히 영원토록 그 위를 보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나라에서 그대를 은혜와 예로써 대우하고 결코 싫어하지 않도록 하오!

오오! 이제 그대는 떠나오! 가서 오직 그대의 나라를 복되게 다스리고 삼가 나의 명한 바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오!”

元子(원자) : 큰아들.

禮物(예물) : 예의와 문물.

篤不忘(독불망) : 그대의 덕행이 두터우니 잊지 않으리라는 뜻.

歆(흡) : 여기서는 향(享)의 뜻으로 받들어 모심.

服命(복명) : 명령, 상공의 복색과 명령.

藩(번) : 번(藩)과 통해 종주국을 지키는 주변 제후국의 뜻.

강고(康誥)

강숙(康叔)은 문왕의 아들이요 무왕의 아우이다. 무왕이 강숙을 위(衛)에 봉했는데 위나라를 잘 다스렸고, 성왕 때 사구(司寇)까지 되었다. 강숙을 위나라 제후로 봉하면서 고명(誥命)한 말이 이 편이다. 금문과 고문에 다 들어 있다.

1 삼월 열엿새 날, 주공이 처음 터를 닦아 동쪽 땅 낙(洛)에 새로 큰 도읍을 만들었다. 이에 사방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모여 후복(侯服) · 전복(甸服) · 남복(男服) 및 채복(采服) · 위복(衛服)의 여러 관원들이 다 같이 주나라 일을 위하여 힘썼다. 주공이 모두들 부지런함을 위로하며, 이에 널리 크게 다스리는 법을 고하였다.

惟三月哉生魄, 周公初基, 作新大邑于東國洛。四方民大和會, 侯、甸、男、邦、采、衛, 百工播民, 和見士于周。周公咸勤, 乃洪大誥治。【此洛誥之文, 當在“周公拜手稽首”之上。】

[통석] 주공이 섭정한 지 7년째의 3월, 달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한 열엿새 날, 주공은 은나라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웅거할 거처가 필요하였으므로 비로소 터를 닦기 시작하여 동쪽에 있는 낙 땅에 큰 도읍을 만들었다. 왕성(王城)을 세우는 공사에 낙 땅에 거주하는 사방의 백성들이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동쪽 들에 가득히 모이게 되었다.

후복(侯服) · 전복(甸服) · 남복(男服) · 채복(采服) · 위복(衛服) 등 여러 지방의 관리들이 모두 백성들의 마음을 화합하도록 고무하여 주나라에서 일을 보도록 하였다. 주공이 모든 일을 주관하니 백성들과 관리들이 모두 부지런히 일하였다. 이에 주공은 백성들에게 낙읍을 다스리게 됨을 크게 일깨워 가르쳤다.

哉生魄(재생백) : 달빛에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16일.

侯(후) · 甸(전) · 男(남) · 采(채) · 衛(위) : 오복(五服)을 가리킴. 후복(侯服)은 왕성으로부터 천 리, 전복(甸服)은 천오백 리, 남복(男服)은 이천 리, 채복(采服)은 이천 오백 리, 위복(衛服)은 삼천 리 거리의 사방 안의 땅.

誥治(고치) : 나라 다스리는 방법을 고함.

2 주공이 왕명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였다.

“제후의 우두머리이며 나의 동생인 작은 사람 봉(封)이여! 그대의 크게 나타나신 아버지 문왕께서는 덕을 밝히고 벌을 삼가셨소. 감히 홀아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으셨으며, 쓸 것을 쓰고 공경할 것을 공경하시고 위엄 있는 일에 위엄을 베푸시어 백성들을 밝히셨소.

그리하여 중화 땅에 구역을 처음으로 만드시니, 우리 한두 나라들도 그것을 본떠 다스렸으며, 우리 서쪽 땅은 이분을 의지하고 떠받들게 되어 하느님께 알려지니 하느님도 아름답게 여기셨소. 하늘은 이에 문왕에게 크게 명하시어 은나라를 쳐 멀망게 하시어 크게 그 명을 받았던 것이니, 그 나라 백성들이 모두 질서가 잡혔소. 이에 나의 형님께서 힘쓰시니, 그 때문에 그대 작은 사람 봉이 이 동쪽 땅에 있게 된 것이오.”

王若曰：“孟侯，朕其弟，小子封！

惟乃丕顯考文王，克明德慎罰。

不敢侮鳏寡，庸庸祗祗威威顯民。用肇造我區夏，越我一二邦以修，我西土惟時怙冒，聞于上帝，帝休，天乃大命文王，殞戎殷，誕受厥命，越厥邦厥民惟時敍。乃寡兄勗，肆汝小子封，在茲東土。”

[통석] 주공이 왕명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으뜸가는 제후이며 나의 아우인 작은 사람 봉(封)이여! 무릇 정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덕으로써 따르도록 하며 법률로써 다스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오. 오직 크게 밝으신 그대 아버지 문왕께서 다스린 바를 통찰하여 마음을 정치하는 법에 두고, 능히 밝은 덕을 밝히며 능히 형벌을 삼가도록 하여 주오. 국가의 터전을 닦는 것이 모두 이 두 가지에 있을 따름이오.

그 일을 열거하면 문왕께서는 곧 홀아비와 과부 등 말할 수 없이 외로운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으셨으며, 항상 행해야 할 것을 행하되 지나친 행동을 않으셨으며, 마땅히 공경할 것을 공경하되 사사로운 정에 따르지 않으셨으니, 그 덕을 밝힘이 이와 같으셨던 것이오. 마땅히 이를 바를 이루게 하여 백성들을 속이지 않으셨으니, 그 형벌을 삼가는 일이 이와 같으셨던 것이오. 이로 말미암아 성한 덕이 백성들에게 널리 드러나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와, 비로소 우리 중화의 땅에 한 구획의 나라를 만들어 기주풍호(岐周風鎬)의 땅을 어루만지게 된 것이오.

그리고 우리 이웃 나라가 하나둘씩 덕을 사모하고 위엄을 두려워하여 점차 다스려지게 되었소. 우리 서쪽 땅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처럼 믿었고 하늘처럼 받들었소. 이로 말미암아 밝은 덕이 드러나 하늘에 사무치게 된 것이오. 이에 하늘이 그 행하는 바를 어여쁘게 여겨 크게 문왕에게 명하여 온나라를 멸망시키니, 문왕이 큰 명을 받아 천하를 가지게 된 것이오. 여러 나라와 여러 백성들이 모두 그 덕화에 귀복해 그 법률을 지키지 않음이 없었소. 우리 주나라의 왕업은 이미 문왕 때에 이루어졌으니, 그대의 형(무왕)께서도 힘써 선왕의 덕을 잇고 선왕의 왕업을 완수하려 하셨소. 그러니 작은 사람 봉은 그 음덕을 힘입어 벼슬을 받고 이 동쪽 땅에 있게 된 것이오.”

王若曰(왕약왈) : 주공(周公)이 왕명을 받아 한 말임.

朕其弟(침기제) : 나의 동생.

封(봉) : 강숙의 이름.

庸庸(용용) : 부지런히 일하는 모양.

祗祗(지지) : 공경하는 모양.

威威(위위) : 위엄 있는 모양.

夏(하) : 중화 땅.

一二邦(일이방) : 서쪽 몇 나라의 뜻.

寡(과) : 자기를 낮추는 말. 과형(寡兄)은 나의 형님 무왕(武王).

3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오오! 봉이여! 그대는 생각하오. 지금 백성들은 그대 아버지 문왕을 공경하고 따르는 데 달렸으니, 들은 바를 이어나가고 덕이 될 말을 하오. 가서 은나라 옛 어진 임금들에게 널리 구하여 백성들을 보전하고 다스려 주오. 그대는 크게 멀리 상나라의 연로하고 경험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 마음을 정하고 교훈을 삼으시오. 옛 어진 임금을 구하여 듣고 행해서 백성들을 편안히 보호하여 하늘처럼 크게 돼주시오. 덕이 그대 몸에 넉넉하여야 임금의 명령을 지키고 저버리지 않게 될 것이오.”

임금께서 또 말씀하셨다.

“오오, 작은 사람 봉이여! 아픔과 병이 그대 몸에 있듯이 하여 공경하오. 하늘은 두렵지만 진실하면 돋는 법이오. 백성들의 정은 대략 알 수가 있으나 낮은 백성들은 보호하기가 어려운 것이니, 가서 그대 마음을 다하고 편히 놀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그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오. 내가 듣건대 ‘원망은 큰 데 있지 않고 또한 작은 데도 있지 않으니, 따르고 따르지 않는 데 있고, 힘쓰고 힘쓰지 않는 데 있다’고 하였소.

그러니 그대 작은 사람이여! 그대는 오직 임금의 뜻을 넓히고 은나라와 백성들을 받아들여 보호하고 또 오직 임금을 도와 하늘의 명을 안정시키며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오.”

王曰：“嗚呼！封！汝念哉。今民將在祇遹乃文考，紹聞衣德言。往敷求于殷先哲王，用保乂民。汝不遠惟商耆成人，宅心知訓。別求聞由古先哲王，用康保民，弘于天若。德裕乃身，不廢在王命。

王曰：“嗚呼！小子封！恫瘞乃身，敬哉。天畏棐忱，民情大可見，小人難保，往盡乃心，無康好逸豫，乃其乂民。我聞曰：‘怨不在大，亦不在小，惠不惠，懋不懋。’已汝惟小子！乃服惟弘王，應保殷民。亦惟助王，宅天命，作新民。

[통석] “오오! 봉이여! 그대는 마땅히 생각하오! 이제 그대가 백성을 다스림은 바로 그대 아버지이신 문왕의 업적을 공경히 따라가며, 그 들은 바를 이어받아 덕스러운 말을 실천함에 있소. 그러나 이는 특히 당대에 있어서의 일이오. 또 그대를 봉하는 땅은 온나라의 옛 도성이오. 그러므로 이제 그대가 가서 백성들을 다스림엔 마땅히 저 온나라의 어진 임금들이 세상을 경영한 자취를 널리 구하여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표준을 삼아야 할 것이오.

그대는 마땅히 크게 멀리 상나라의 늙고 경험 많은 사람, 곧 이윤(伊尹)이나 부열(傅說)과 같은 신하를 생각하고 이를 본받아 마음을 정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길로 삼도록 하시오. 그러나 이는 특히 근대에 있어서일 뿐이오. 더 멀리 마땅히 옛날의 어지신 임금 요·순·우께서 서로 전한 도리에 대하여 들은 바를 구하여 백성을 편안히 보호하는 모범을 삼아야 될 것이오. 이렇게 하면 무릇 모든 이치가 두루 통해서 하늘 가운데 널리 퍼지고 가득 차 있어 남음이 없게 될 것이오. 따라서 모든 이치가 그대 몸에 풍족해져서 곳곳마다 마땅치 않음이 없을 것이오. 동시에 반드시 임금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길이 그 국가를 간직하게 되리다.”

“오오! 작은 사람 봉이여! 마땅히 만백성들과 더불어 한 몸이 되시오. 백성들의 편안치 않음을 보면 그대 몸이 아프고 괴로운 것처럼 생각하오.

공경하오! 하늘의 명은 항상 한 사람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 심히 두려운 바이오. 그러나 하늘은 정성이 있는 사람을 돋는 것이오.

백성들의 마음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대강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백성들은 보호하기가 어려운 것이오. 이제 그대가 그대 나라에 가서 그대 마음을 다하오. 결코 스스로 편안함을 즐겨 놀기를 좋아하지 마시오. 이와 같이 하면 능히 그 백성을 다스리게 되어, 보호하기 어려운 백성들도 거의 보호하게 될 것이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옛사람이 말하기를, 윗자리에서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게 되는 것은 큰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일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오직 도리에 있어서 순하고 순하지 못함과, 정치에 있어서 힘쓰고 힘쓰지 않음을 볼 때를 따름인 것 이오.

그대 작은 사람이여! 그대가 오늘의 직책을 맡게 된은 왕실의 덕을 널리 퍼서 온나

라의 남은 백성을 따뜻이 받아들여, 강경하고 불순한 태도를 버리도록 함에 있는 것이오. 또한 위로는 왕실을 도와 길이 하늘의 명을 보전하도록 고무하고 흥기시켜 백성들의 풍속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이오.”

耆成人(구성인) : 나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

宅心(백심) :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 마음을 정하라는 뜻.

弘于天若(홍우천야) : 하늘처럼 달리 백성들을 덮어 감싸 주라는 뜻.

小人(소인) : 낮은 백성들을 가리킴.

怨不在大亦不在小(원부재대 역부재소) : 크건 작건 잘못하기만 하면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다는 뜻.

惠不惠(혜불혜) : 따르지 않는 자를 따르게 하라는 뜻

弘王(홍왕) : 임금의 뜻을 널리 퍼는 것.

新民(신민) :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것.

4 임금께서 또 말씀하셨다.

“오오! 용이여! 그대 형벌을 삼가고 밝히시오. 사람의 조그만 죄가 있다 하더라도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면 죽여야 할 것이오. 스스로 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 나이 본뜰 것이니, 그의 죄가 작다 하더라도 죽이지 않을 수 없소. 큰 죄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지 않으면, 과실과 재난으로 우연히 한 것이니, 이미 그의 죄를 다 자백하였다 해도 이는 죽여서 안 되오.”

임금께서 또 말씀하셨다.

“오오, 봉이여! 질서가 있어야 이에 밝게 복종하게 되어, 백성들은 경계하고 화목하기에 힘쓰게 될 것이오. 병이 있는 것 같이 하면 백성들은 모두 허물을 버릴 것이고, 어린 아기를 보호하듯 하면 백성들은 편안히 다스려질 것이오.

그대 봉이 사람을 형벌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니, 혹시라도 사람을 벌주거나 사람을 죽이지는 마시오. 그대 봉에게 사람의 코나 귀를 자르라고 하지는 않았으니, 멋대로 사람의 코나 귀를 자르지 마시오.”

왕명으로 이르셨다.

“바깥일에는 그대 이 법을 베풀어서 일을 맡은 이는, 이 은나라 형벌의 차례가 있

는 것을 본받게 하오. 중요한 죄수는 대엿새 생각을 할 것이며, 열흘이나 석 달에 이르러서야 크게 처단하오.

그대는 이 법과 일을 베풀고, 법은 온나라의 떳떳한 법으로 정하오. 그 옳은 형벌과 옳은 죽임을 쓰고, 그대 봉의 멋대로 행하지 마오. 이에 그대를 따라 질서가 잡혔다 하더라도, 오직 순조롭게 일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오.

그리고 그대 작은 사람이여, 그대 봉의 마음과 같은 사람은 있지 않은 것이오. 내 마음 내 행동은 오직 그대가 알 것이오. 대체로 백성이 스스로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소란과 반란을 일삼으며, 재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억지를 쓰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을 수 없소.”

임금께서 또 말씀하셨다.

“봉이여! 크게 악한 자는 크게 죽어야 하는데, 하물며 효도를 하지 않고 우애 없는 자이라?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일을 공경하며 행하지 않아서 크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아버지로서도 그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오. 아우가 하늘의 밝은 도리를 생각하지 않고 이에 그의 형을 공경하지 않으면, 형도 또한 어린 동생의 가련함을 생각지 않고 동생에게 크게 우애 하지 못하게 될 것이오. 이렇게 되면 우리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백성들과 더불어 법도가 크게 망하고 어지러워졌다는 것으로서, 이에 하늘은 속히 문왕에게 별을 내리시어 이를 별주어 용서치 마시라고 말할 것이오.

따르지 않는 자는 크게 법으로 다스릴 것이니, 하물며 사람들을 가르치는 관리와 관장들과 낮은 신하들과 부절(符節)을 갖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에게 달리 명령을 펴서 백성들에게 큰 기림을 받도록 만들어야 하오. 그리고 할 일은 생각도 않고 하지도 않아 그의 임금을 마음 아프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는 곧 악을 자라게 하는 무리이니 내가 미워하는 것이오. 그러니 그대는 이 뜻을 따라서 속히 모두 죽이시오.

그대는 임금이요 어른으로서 그대의 집안사람들과 낮은 관리 및 가르치는 관리와 관장들을 잘 다루지 못하면, 오직 위세를 쓰고 포악한 짓을 하게 되어 크게 임금의 명을 저버리게 되고 덕이 아닌 것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오.

그대는 또 법을 공경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며 백성들을 풍족하게 해주시오. 오직 문왕께서 공경하고 조심하시던 대로만 하면 백성들이 풍족해질 것이오. ‘나는 오직 그에 미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 곧 나 한 사람은 기뻐하게 될 것이오.”

임금께서 또 말씀하셨다.

“봉이여! 밖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훌륭하고 편안하게 인도될 것이오. 나는 그래서 오직 은나라의 옛 어진 임금들의 덕으로 백성들을 편안히 다스리고 그같이 되려고 힘쓰고 있소. 더욱이 지금 백성들을 인도하여 따르지 않는 자가 없지 않은가? 인도하지 않으면 곧 그의 나라에는 정치가 없다고 할 것이오.”

王曰：“嗚呼！封！敬明乃罰。人有小罪，非眚乃惟終，自作不典式爾，有厥罪小，乃不可不殺。乃有大罪，非終，乃惟眚災，適爾。既道極厥辜，時乃不可殺。”

王曰：“嗚呼！封！有敍，時乃大明服，惟民其勑懋和。若有疾，惟民其畢棄咎，若保赤子，惟民其康乂。非汝封刑人殺人，無或刑人殺人。

非汝封又曰【“又曰”當在“無或刑人殺人”之下。】劓刑人，無或劓刑人！

王曰：“外事，汝陳時臬，司師茲殷罰有倫！”

又曰：“要囚服念五六日，至于旬時，不蔽要囚！”

王曰：“汝陳時臬事，罰蔽殷彝。用其義刑義殺，勿庸以次汝封。乃汝盡遜，曰時敍，惟曰未有遜事。

已？汝惟小子，未其有若汝封之心。朕心朕德，惟乃知。

凡民自得罪，寇攘姦宄，殺越人于貨，暨不畏死，罔弗憝。”

王曰：“封！元惡大憝，矧惟不孝不友！子弗祗服厥父事，大傷厥考心，于父不能字厥子，乃疾厥子。于弟弗念天顯，乃弗克恭厥兄，兄亦弗念鞠子哀，大不友于弟。惟弔茲，不于我政人得罪，天惟與我民彝大泯亂，曰：‘乃其速由文王作罰，刑茲無赦！

不率大憂，矧惟外庶子訓人，惟厥正人越小臣諸節，乃別播敷，造民大譽，弗念弗庸，壞厥君！時乃引惡，惟朕憝。已汝乃其速由茲義，率殺！

亦惟君惟長，不能厥家人越厥小臣外正，惟威惟虐，大放王命，乃非德用乂。

汝亦罔不克敬典，乃由裕民，惟文王之敬忌，乃裕民。曰：‘我惟有及’，則予一人以

懲。”

王曰：“封！爽惟民，迪吉康。我時其惟殷先哲王德，用康父民作求。矧今民罔迪不適。不迪則罔政在厥邦。”

[통석] “오오! 봉이여! 형벌은 백성들의 생명에 관계된 것이니, 모름지기 조심하여 그대 형벌을 밝게 살피도록 하오. 그 방법은 마음의 경중에 근거해서 그 죄의 경하고 중함을 정하는 것이오. 작은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나, 그 마음이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일부러 끝까지 하며, 다시 일부러 범행을 하고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죄가 비록 작다고 하더라도 크게 벌하지 않으면 안 되오. 또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나 그 마음이 일부러 끝까지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무심한 가운데 실수로 인하여 불행한 과실이 우연히 생겼고 또 이미 스스로 고백하고 그 혀물을 다 드러내어 숨김없는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되오.

오오! 봉이여! 형벌은 본래 당연한 차서가 있는 것이오. 그대는 마땅히 자세히 살펴서 가볍고 무거우며 취하고 버릴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이오. 아랫사람의 뜻을 밝게 비추어 백성의 마음을 두렵게 복종하도록 하면, 오직 백성들이 서로 조심하여 화합하고 순종하지 않음이 없으리다. 악을 버리되 몸에 병이 있을 때 각방으로 주선하여 치료하듯 하면 마침내 백성들이 평상시에 범하는 허물을 버리고 새롭게 고쳐갈 것이오. 그 쟈함을 간직함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벌거숭이 어린아이를 보호함에 진심으로 애호하듯이 하면 백성들이 서로 권장하고 면려해서, 드디어 다 함께 편안하게 다스려지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오.

무릇 대체로 벌에는 형벌과 죽임이 있으나 모두 조정의 법을 받들어 따라가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오. 그대 봉은 마음대로 사람을 쳐벌하고 죽이지 마오. 모름지기 지극히 공정한 법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오. 위엄만을 내세워 함부로 사람을 벌주거나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오.

작은 벌은 코 베고 귀 자르는 것이니, 그대 봉은 모름지기 공정한 입장에 서서 잘 듣고서 판단할 것이요, 분한 마음으로 자칫 사람의 코를 베거나 귀를 자르는 일이

없도록 하오.”

왕이 계속하여 이르셨다.

“그대가 이제 위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밖에서 유사가 맡은 송사를 혼자서 다스리겠소? 다만 그대는 법령을 베풀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해야만 하오. 그러나 그 법조문을 새로 세우지 말고, 옛 법에 따라서 유사와 상의하여 은나라에서 시행하던 형벌을 표준삼도록 하오.”

왕의 명은 계속되었다.

“이제부터는 중대한 죄수를 다룰 때에 죄상이 명백하더라도, 그럴수록 더 깊이 생각해서 대엿새 혹은 열흘 내지 석 달이 지난 뒤에 마음에 중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형을 가해야 하오.

또 그대가 바깥일에 있어서 법을 펴놓고 벌을 줄 때에는 은나라에서 항상 쓰던 법대로 하오. 그러나 옛 법에 너무 집착하면 두루 통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이오. 그러므로 옳은 형벌과 옳은 죽임을 때에 맞게 하오. 그렇다고 너무 때만 따르다 보면 혹 감정에 치우치기 쉬우니, 마땅히 사심 없는 마음으로 심문할 것이오. 결코 그대의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결단하지 않도록 하오. 그대가 옛 법에 얹매이거나 자기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 옳은 일을 죄아서, 이미 질서가 잡혔다 하더라도 오히려 모두가 옳은 일에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을 하도록 하오.

작은 사람 봉이여! 그대는 나이는 젊으나 그대 마음은 한없이 착하오. 내가 여러 신하를 보나 그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지라 그대를 미덥게 여기는 바이오. 나의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은 생성시키기를 좋아하는 덕과 같으니 또한 오직 그대가 내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오.

무릇 백성들이 남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오히려 용서할 수 있소. 그러나 스스로 즐겨서 법망을 피하여 돌고 죄를 범하며, 혹은 사람에게 겁을 주어 도둑질을 하고, 혹은 억지로 빼앗으며, 혹은 밖으로 간음하고 안으로 간악한 짓을 하며, 남의 재물을 빼앗기 위하여 죽이고 상해하고 거꾸러뜨려 억지를 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형벌을 내림이 마땅할 것이오.

봉이여! 도둑질하고 약탈하며 간통하고 소란을 피우며 재물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본디 크게 악한 죄이므로 대단히 증오할 일이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윤리 기강에 곧잘 관심을 두지 않는 수가 있소. 효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식으로서 그 아버지를 섬김에 공경한 마음으로 순종치 못하여 크게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아버지도 또한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어 부자 간에 서로 의를 상하게 될 것이오. 아우로서 하늘이 정한 바 어른과 어린이의 밝은 윤리를 생각하지 않고 공손하게 형을 받들지 못하면, 형도 또한 아우를 사랑하지 않게 되어 형제간에 서로 해를 끼치게 될 것이오. 진실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별을 받지 않는다면 사람이 내리는 별은 피할 수 있으나 오직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떳떳한 윤리는 크게 파멸되고 문란하게 될 것이오. 그러니 그대는 곧 문왕이 세운 법도에 따라서, 효도하지 않고 우애하지 않는 사람부터 엄하게 벌하여 용서치 않도록 하오.

효도하지 않고 우애하지 못하여 교회에 따르지 않는 사람도 엄한 법률로 다스려야 되는 것인데, 하물며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 직책을 맡은 관리나 관장 혹은 백성들의 부절을 맡은 사람은 평민과 달리 따로 법령을 펴야 하오. 도리를 어기고 백성들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고자 하여 임금이 맡긴 뜻을 생각하지 않고, 관리가 지킬 모든 규칙을 저버리고, 그 임금에게 근심을 끼치고 인심을 어지럽히는 사람은 곧 악업을 조장하는 사람이니, 내가 심히 미워하는 터이라 어찌 엄하게 벌하지 않을 것인가? 그대는 빨리 문왕이 만든 옳은 법에 따라 이런 사람을 용서 없이 처단도록 하오.

또한 그대는 제후들 가운데 우두머리이오. 그러므로 한집안을 다스리고 나라 사람의 모범이 될 처지이니, 낫은 관리나 관장 혹은 신하들을 가르쳐서 공을 받들고 나라에 몸 바쳐서 일하게 하지 못하고, 다만 위세만 부리고, 법에 의지해서 학정을 일삼아 크게 군왕의 지중한 명령을 저버린다면, 스스로 임금의 명령을 받들지 못함이니 무엇으로서 백성을 꾸짖을 것인가?

그대도 또한 국가의 떳떳한 법을 삼가 지킬 뿐만 아니라, 마땅히 이로 말미암아서 백성을 유족하게 하는 길을 찾도록 하오. 오직 문왕이 삼가 소홀히 하지 않은 바가

있으며, 꺼려서 감히 하지 않는 바가 있으니, 이에 그 백성을 넉넉하게 다스릴 것을 기약하고서 ‘오직 문왕에 미쳐 가리라’고 다짐한다면 나 한 사람이 그대에게 바라는 마음도 또한 기쁘지 아니하랴.

봉이여! 나는 백성들을 길하고 편안한 데로 이끌어갈 것을 똑똑히 생각하오. 스스로 형벌 내리는 것을 일삼지 않고 온나라의 어진 임금의 덕을 사모하고 백성을 편안히 다스려, 그 어진 임금과 대등한 짹이 될 것을 기약하오. 이것이 오늘날 나의 책임이오. 이제 온나라의 백성이 아직 옛날의 습관에 젖어 있기는 하지만, 그 양심에 착한 성품이 오히려 남아 있으니, 잘 인도하면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오. 진실로 이들을 잘 인도하지 않는다면 나라에 정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리라.”

不典(부전) : 법을 지키지 않음.

式爾(식이) : 이것을 본받음.

眚災(생재) : 과실과 재난.

適爾(적이) : 우연.

道極(도극) : 모두 자백하는 것.

若有疾(약유질) : 병이 있는 사람을 돌보듯 백성을 위하는 것.

赤子(적자) : 갓난아기.

外事(외사) : 옥(獄)은 조정 밖에 있었기 때문에 옥을 다스리는 일을 바깥일이라 함.

有倫(유륜) : 이치에 맞는 것.

陳時臬(진시얼) : 이 법을 적용한다는 뜻.

要囚(요수) : 죄수를 심문하여 가두는 것.

罰蔽殷彝(벌폐은이) : 죄인을 벌하는 데는 온나라의 엿벗한 법에 따라 결판하라는 뜻.

義刑義殺(의형의살) : 올바르게 벌하고 올바르게 죽임.

于貨(우화) : 재물 때문에.

天顯(천현) : 하늘의 바른 도리, 즉 오륜.

鞠子(국자) : 어린 동생을 가리킴.

于我攻人得罪(우아정인득죄) : 우리 정치하는 사람에게 죄를 지음. 곧 국법을 어기는 것.

正人(정인) : 관청의 장.

小臣(소신) : 사무를 처리하는 낮은 관리.

諸節(제절) : 여러 부절(符節)을 가지고 출사하는 관리.

造民大譽(조민대예) :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만을 기리도록 만든다는 것.

弗念(불념) : 할 일은 생각도 않는 것.

弗庸(불용) :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速由茲義(속유자의) : 속히 이 뜻을 따라서의 뜻.

敬典(경전) : 법을 공경하는 것.

5 임금께서 또 말씀하셨다.

“봉이여! 나는 오직 살피지 않을 수 없으니 그대에게 덕에 대한 말과 벌에 관한 행동을 고하는 것이오. 지금 백성들은 안정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 또한 일정치 못 하며 거듭 인도하고 있으나 화합하지를 못하고 있소. 하늘이 나를 벌하실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나는 그것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오. 오직 그 죄는 큰 것에만 있지 않으며 또 많은 것에만 있는 것도 아니오. 더욱이 그것은 하늘에 밝게 들려진다고 말하지 않는가?”

임금께서 또 말씀하셨다.

“오오, 봉이여! 공경하오. 원망 살 일은 하지 말고, 계책이 아니고 법이 아닌 것은 행하지 말며, 정성으로 결단하여 민첩한 덕을 크게 본받도록 하오. 그럼으로써 그대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대 덕을 돌아보게 하고, 그대 계책이 멀리 미치게 하여, 그대가 여유 있게 됨으로써 백성들이 편안해지면 그대를 꾸짖거나 멸하지 않을 것이오.”

임금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오오! 힘써 주오. 그대 작은 사람 봉이여! 오직 명이란 일정한 것이 아니니, 그대는 생각하여 내가 누림을 끊지 않도록 하오. 그대가 행해야 할 명령을 밝히며 그대의 들음을 높여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려 주오.”

임금께서 또 말씀하셨다.

“가시오. 봉이여! 공경히 하여 법을 어기지 마오. 그대는 내가 고한 말을 들어야 은나라 백성을 대대로 누리게 될 것이오.”

王曰：“封！予惟不可不監，告汝德之說于罰之行。今惟民不靜，未戾厥心，迪屢未同，爽惟天其罰殛我，我其不怨。惟厥罪無在大，亦無在多，矧曰其尚顯聞于天！”

王曰：“嗚呼！封！敬哉。無作怨，勿用非謀非彝，蔽時忱，不則敏德。用康乃心，顧乃

德, 遠乃猷, 裕乃以民寧, 不汝瑕珍。”

王曰：“嗚呼! 肆, 汝小子封! 惟命不于常, 汝念哉, 無我殄享。明乃服命, 高乃聽, 用康乂民!”

王若曰：“往哉, 封! 勿替敬典, 聽朕告汝, 乃以殷民世享。”

[통석] “봉이여! 내가 지금 천하를 보유함에 진실로 은나라의 옛 어진 임금들을 살피지 않음이 없소. 그대도 함께 은나라 백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소. 이에 그대에게 먼저 덕에 대하여 말하고, 연후에 별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별이 덕화가 미치지 못함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쓰는 일임을 말하려 하오.

이제 은나라의 백성이 안정을 못 찾고 있는 것은 마음속의 깊은 병의 뿌리를 뽑지 못하기 때문이오. 여러 차례 극진히 인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옛날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어 옛날의 선왕들이 다스리던 때처럼 되지 못하고 있소. 하늘이 장차 나를 별하려 해도 나는 조금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생각하오.

대개 낫은 백성들의 죄는 큰 것에만 있지도 않고 많은 것에만 있지도 않은 것이오. 곧 아주 기늘고 몹시 작은 것도, 또 윗사람이 가르침을 잃는 것도 커다란 책임인 것이오. 하물며 크게 죽일 만큼 큰 악과, 효도하지 않고 우애하지 않는 풍속이 드러나게 하늘에 들린다고 하면 별을 내려도 무엇이라고 변명할 것인가?

오오! 봉이여! 그대는 공경하오! 그리고 삼가 원망될 일을 하지 마오! 착하지 못한 계책과 뜻뜻하지 못한 법을 쓰지 마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옛사람의 민첩한 덕을 크게 본받아 그대 마음을 편안히 정돈시키며 그대 덕을 돌이켜 그대의 꾀함을 넓혀 주시오. 우직스럽게 하고 촉박하게 하지 말아, 백성들이 스스로 편안하여지기를 기다리시오. 그러면 그대에게 어떠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멸시키지는 않을 것이오.

오오! 그대 작은 사람 봉이여! 하늘의 명은 주고 빼앗음이 언제나 정해 있는 것은 아니오. 착하게 하면 이를 얻을 것이요, 착하지 못하면 이를 잃을 것이오. 그대는 깊이 생각하오! 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에게서 받은 나라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오. 마땅히 그대의 관복과 명령을 분명하게 하고 나에게서 들은 말을 존중하여 백성들을 편안히 다스려 주오. 거듭 말하지만 임금의 명령을 어기지 말고 하늘의 명령을 길이 보전하오.”

끝으로 임금은 정중한 말로 이렇게 매듭지었다. “그대는 이제 그대의 나라로 가시오. 작은 사람 봉이여! 마땅히 지킬 바 떳떳한 도리를 버리지 마오! 내가 그대에게 말한 바를 꼭 들어서 잘 실천하도록 하오! 그리하여 은나라 백성들과 더불어 대대로 그 나라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오.”

德之說(덕지설) : 덕에 관한 이야기.

迪屢(직루) : 거듭 인도하는 것.

爽惟(상우) : 똑바로 생각하는 것.

無在大 亦無在多(무재대 역무재다) : 죄는 크거나 많아야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

無作怨(무작원) : 원망 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말.

裕乃(유내) : 네 자신이 여유있게 되는 것.

命不于常(명불우상) : 천명은 항상 일정히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

服命(복명) : 행하여야 할 명령, 즉 이 강고(康誥)를 가리킴이라 보나 칠색(七色) 옷과 칠명(七命)의 뜻.

高乃聽(고내청) : 견문을 높고 크게 넓히라는 뜻.

주고(酒誥)

상나라 임금 수(受)가 술을 좋아하여 술주정을 부리니 온 세상이 따라서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부렸다. 매(妹)라는 땅은 상나라의 도읍지였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 이 수의 영향을 받아 더욱 심하였다. 그래서 무왕이 이곳에 강숙(康叔)을 봉하면서 특히 술에 대한 경계의 글을 지어 가르쳤다고 한다. 금문과 고문에 다 들어 있다.

1 주공이 왕명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매나라에 큰 명령을 밝히겠소.

그대들이 공경하는 아버지 문왕께서 서쪽 땅에 나라를 여시었는데, 그분은 여러 제후나 여러 관리들과 관청의 부관들과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아침저녁으로 말씀 하시기를, ‘제사에만 술을 쓰라’고 하셨소. 하늘이 명을 내리시어 비로소 우리 백성 들에게 만들게 한 것은 오직 큰 제사 때문인 것이오.

하늘이 위엄을 내리신 것은 우리 백성들이 크게 어지러워져서 덕을 잃었기 때문인 데 술이 원인이 아닌 것이 없고, 또 작고 큰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 역시 술이 죄가 아님이 없소.

문왕께서 젊은이와 관장과 관리들에게 교훈하시기를 언제나 술을 마시지 말라 하셨소. 이에 여러 나라들이 오직 제사 때에만 마시니 덕이 있어 취하지 않았소.

또 말하기를 ‘우리 백성들은 젊은이들을 인도함에 오직 땅에서 나는 물건만을 아끼게 하면 그들의 마음이 착해질 것이니, 조상들의 법과 훈계를 밝게 들어 작고 큰 행동에 젊은이들이 오직 한마음으로 따르도록 하라’고 하셨소.

매(妹) 땅 사람들이여! 그대들 대신들의 뜻을 이어받아 오로지 곡식을 가꾸기에 힘 써서 그대들 아버지와 그대들 윗사람을 부지런히 섭기며, 힘써 수레와 소를 끌고 멀리 가 장사하고, 그대들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 봉양하여 그대들 부모님이 기꺼워하시면 스스로 깨끗하고 풍성히 하고 술을 드시도록 하오.

여러 관리들과 관장 등과 여러 제후들이여! 그대들은 내 가르침을 언제나 잘 들으시오. 그대들이 노인들과 임금에게 크게 음식을 드릴 수 있게 되면, 그대들은 그때

에야 음식을 취하도록 마시고 배불리 먹어도 되는 것이오. 크게 말하면 그대들이 언제나 돌보고 살펴 올바른 땅에 합당할 수 있게 되어야, 그대들은 음식을 바쳐 제사 지낼 수 있게 되고 그대들은 스스로 도와 즐길 수 있게 될 것이오. 이렇게 되면 진실로 임금에게 올바른 일을 하는 신하가 될 것이며 또한 하늘에서도 큰 덕을 따라 왕가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게 될 것이오.”

王若曰：“明大命于妹邦！”

乃穆考文王肇國在西土，厥誥毖庶邦庶土越少正御事，朝夕曰：‘祀茲酒。惟天降命肇我民，惟元祀。’

天降威，我民用大亂喪德，亦罔非酒惟行，越小大邦用喪，亦罔非酒惟辜。

文王誥教小子有正有事：‘無彝酒。越庶國飲惟祀，德將無醉。’

惟曰：‘我民迪小子，惟土物愛，厥心臧，聰聽祖考之彝訓，越小大德，小子惟一！’

妹土！嗣爾股肱，純其藝黍稷，奔走事厥考厥長，肇牽車牛遠服賈，用孝養厥父母，厥父母慶，自洗腆，致用酒！

庶土，有正，越庶伯君子！其爾典聽朕教！爾大克羞耆惟君，爾乃飲食醉飽。丕惟曰：‘爾克永觀省，作稽中德，爾尚克羞饋祀，爾乃自介用逸。茲乃允惟王正事之臣，茲亦惟天若元德，永不忘在王家。’”

[통석] 임금께서 이미 강숙을 위 땅에 봉하셨다. 위는 본래 온나라 주왕의 악에 물들어 신하와 백성이 술에 빠져 덕을 잃었다. 그러므로 임금은 강숙에게 “그대 가서 마땅히 내가 가르친 큰 명령을 매(妹)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선양하라”고 경계하였다.

왕명으로 주공이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옛날에 그대의 훌륭한 아버지이신 문왕께서 처음에 서쪽 땅에 나라를 세우고 명을 받아 방백이 되었소. 일찍이 술에 빠지는 것을 걱정하여 여러 나라의 관리나 관장과 부관들에게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경계하셨소.

‘오직 제사에만 이 술을 쓰도록 하라. 하늘의 명을 받아 내가 처음으로 백성에게 술을 만들게 하여 사직과 종묘의 큰 제사에만 이를 가지고 강신의 예를 행하도록 할 것이다’고 하셨소.

그런데 뒷사람이 그 본의를 잊고 절제하지 않고 술을 마구 마시게 되니 하늘이 벌을 내리셨소.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어지러워지고 덕행이 무너졌을 때, 그 원인을 추구해 보면 모두 술 마시는 데에 빠져서 절도를 잊었기 때문이오. 작은 나라나 큰 나라의 제후가 방종해서 그 정치의 기강이 흩어졌을 때, 그 원인을 추구해 보면 또한 술 마시는 데 빠져 해어나지 못한 것에서 오지 않음이 없소.

우리 문왕께서 이미 여러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훈계하고 또한 여러 신하의 아들들에게 훈계하여 말하기를 ‘그대들이 나이 젊지만 관직에서 일을 보고 있으니 술로 인하여 관작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도 술은 오직 제사 때에만 쓰도록 하라. 그러나 이때에도 절도 있게 마셔서 덕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니, 술에 취하여 마음과 뜻을 거칠게 하거나 위의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셨소.

문왕은 또 백성들의 젊은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백성들 가운데 나이 많은은 어른들이 평상시에 그 젊은이들에게 오직 토산물을 아끼 줄 알고 심고 가꾸기에 힘쓰게 한다면, 총명한 마음으로 선조들의 뜻뜻한 교훈을 받들고 일용 음식의 작은 덕과 인륜강상의 큰 덕에 있어서, 너희 젊은이들은 항상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훈계하라’고 하셨소.

이제 그대 매 땅의 백성들은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은 물론이요, 또한 농사에 힘써 곡식을 많이 심고 부지런히 가꾸어 그 부모나 어른들을 섬기도록 하오. 장사하는 사람은 무역활동을 민활히 하여 그 소득으로 부모를 봉양하면 부모는 맛있는 음식을 들게 되므로 기뻐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오. 이때에 몸소 그릇을 깨끗이 씻어 가득 담아서 부모님께 드리고 나서 술을 집안에서 쓰도록 하오.

그대들 매 땅의 신하와 관리 및 관장과 제후들은 마땅히 나의 가르침을 잘 들으시오. 나는 그대들에게 술을 금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오. 다만 그대들이 능히 노인들에게 음식을 드리고 임금을 모시고 술을 마실 때에, 그대들의 잔을 들어 정성을 다

한 뒤에 취하게 마시고 배부르게 먹되,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하오. 크게는 그대들이 만약 스스로 반성해 보아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가 모두 중정(中正)의 덕에 합당하면, 천지신명의 뜻과 통하게 되리라 믿소. 그대들이 제사에 음식을 드리고 나서 스스로 귀신 앞에 나아가 편안한 즐거움을 누리면 또한 해가 없을 것이오. 이와 같이 하면 진실로 임금을 위하여 진실로 바른 일을 하는 신하라 하늘이 또한 그 큰 덕에 따라서 길이 보살펴 줄 것이며, 임금 집안에 있도록 함을 잊지 않을 것이라 나는 믿는 바이오.”

妹(매) : 땅 이름. 주왕(紂王)의 도읍이 있던 곳으로 지금 기현(淇縣) 근처.

誥毖(고비) : 고하여 삼가게 함. 즉 훈계한다는 뜻.

祀茲酒(사자주) : 제사에만 이 술을 쓰라는 뜻.

肇我民(조아민) : 우리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술을 만들게 함.

惟元祀(유원사) : 큰 제사에만 술을 써야 한다는 뜻.

酒惟辜(주유고) : 오직 술 때문에 죄를 짓는 것.

有正(유정) : 관청의 장.

有事(유사) : 일을 맡아보는 관리.

彝酒(이주) : 술을 들 마시는 것.

土物(토물) : 땅에서 나는 물건. 즉 곡식.

彝訓(이훈) : 멋진 교훈.

妹土(매토) : 매 땅의 사람들.

奔走(분주) : 부지런한 모양.

遠服賈(원복고) : 멀리 가 장사하는 것.

洗腆(서천) : 음식을 깨끗하고 풍성하게 마련하는 것.

庶伯(서백) : 여려 제후의 뜻.

羞饋祀(수궤사) : 음식을 바치고 제사 지내는 것.

用逸(용일) :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

2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봉이여! 우리 서쪽 땅을 돋던 지난날의 제후들과 일을 맡아 본 사람들과 젊은이들은 문왕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어 술을 들 많이 마시지 않았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나라의 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오.

봉이여! 나는 들으니 옛날 온나라 어진 임금들은 하늘을 두려워하고 낮은 백성들을 밝혀서 덕을 쫓고 어짐을 지켜 성탕(成湯)으로부터 제을(帝乙)에 이르기까지 모두 임금의 할 일을 이루고 재상들을 공경하였다 하오. 일을 맡은 사람들은 공손히 도와 스스로 한가하고 편안하지를 못하였으니, 하물며 감히 술 마시는 일을 송상하였다고 하겠는가.

또한 바깥 지방의 후복 · 전복 · 남복 · 위복의 제후들과 나라 안의 모든 관리들, 여러 관장들, 부관들, 일하는 사람들, 높은 관리들 및 마을에 사는 은퇴한 백성들이 모두 감히 빠지지 않았으니, 감히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 할 겨를이 없었고, 오직 임금의 일을 이루고 덕을 밝히도록 도와 다스리는 사람들과 함께 법을 공경하였소.

내가 들으니 또 이르되, 그 뒤를 이은 임금은 몸에 흠뻑 술이 배어 그의 명령이 백성들에게 밝혀지지 않았고, 오직 원망 받는 일만을 계속하여 고치지 않고, 크게 법도에 어긋나게 방종하고 지나치게 즐김으로써 위엄 있는 태도를 잃으니, 백성들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지 않은 이가 없었소. 술에 너무 빠져 스스로 그만둘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즐기기만 하였으며, 그의 마음은 악독하고 잔인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죄가 상나라 도읍에 쌓여 온나라가 망하게 되어도 근심하지 않았소.

덕의 향내와 향기로운 제사가 하늘에 올라가 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크게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었으며, 여러 무리들이 스스로 술을 마시니 더러운 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렸소. 그래서 하늘은 온나라에 별을 내려 온나라를 아끼시지 않았소. 이는 지나치게 즐긴 탓으로, 하늘이 잔인한 것이 아니었소. 오직 백성들이 스스로 이러한 죄를 불러 들였기 때문이오.”

王曰：“封！我西土棐徂邦君御事小子，尙克用文王教，不腆于酒。故我至于今，克受殷之命。”

王曰：“封！我聞惟曰：‘在昔殷先哲王，迪畏天，顯小民，經德秉哲，自成湯咸至于帝乙，成王畏相。惟御事，厥棐有恭，不敢自暇自逸，矧曰其敢崇飲？’”

越在外服侯、甸、男、衛、方伯，越在內服百僚庶尹、惟亞、惟服、宗工，越百姓里居，罔敢湎于酒，不惟不敢，亦不暇。惟助成王德顯，越尹人祗辟。

我聞亦惟曰：“在今後嗣王酣身，厥命罔顯于民，祗保越怨不易，誕惟厥縱淫泆于非彝，用燕喪威儀，民罔不靈傷心。惟荒腆于酒，不惟自息乃逸，厥心疾狠，不克畏死，辜在商邑，越殷國國滅無罹。弗惟德馨香祀，登聞于天，誕惟民怨，庶羣自酒，腥聞在上。故天降喪于殷，罔愛于殷，惟逸，天非虐，惟民自速辜。”

[통석] “봉이여! 우리의 옛 나라 서쪽 땅에서 문왕을 도와준 전날의 제후와 일을 맡은 젊은이들은 일찍이 술을 삼가도록 한 문왕의 가르침에 따라서 감히 술을 마시지 않았소. 이에 하늘이 돌보시어 우리가 오늘에 이르러 온나라의 명을 받아 천하를 다스리게 된 것이오.

봉이여! 내가 들으니 그전 사람들이 말하기를, 옛날에 온나라의 어지신 탕임금께서는 하늘의 밝은 명과 낮은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서 항상 삼가고 두려워하며 그 덕을 지켰다고 하오. 또한 외부의 사물로 인하여 변하는 일 없이 그 밝음을 지킴으로써 낮은 백성들의 의혹되는 바가 있지 않았소. 탕임금으로부터 제을에 이르기까지 중간 7대(七代)가 다 성현의 임금으로서 왕덕을 성취하여, 보필하는 재상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함께 나라의 정치를 도모하였소. 그리고 당시에 일을 맡은 신하는 그 임금을 보필함에 어려움을 책하는 공경심이 있었소. 이처럼 상나라의 임금과 신하는 감히 한가롭게 놀지도 않았거늘 하물며 술 마시기를 즐겼을 것인가?

오직 임금의 일을 맡은 신하 뿐 아니라 왕기(王畿)의 바깥 지방에 있는 후복·전복·남복·위복 등 네 등급의 제후와 여러 고을의 관장과 관리장, 부관, 일을 맡은 사람, 높은 관리들, 그리고 은퇴하여 시골에 사는 백성들이 모두 술에 빠지는 일이 없었소. 뿐만 아니라 한가로이 술을 마시는 일도 없었소. 오직 위로는 그 임금을 도와 왕덕을 성취하여 밝게 드러내고자 했으며, 아래로는 관리들을 격려하여 임금을 공경하도록 하였소.

내가 들으니 은나라의 대를 이은 주(紂)는 선왕들의 공경하고 두려워함을 본받지 않고 취한 몸으로 정사를 하니, 명령하는 바가 모두 혼란되고 전도되어 백성을 밖에 인도하지 못하고, 혹독한 형벌을 가하고, 가혹한 세금을 거두어 원한을 맺는 정치를 하면서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소. 인륜에 어긋나는 짓을 일삼았으며 기이한 재주와 음란한 놀이를 즐겼고 술로 뜻을 이루고 고기로 숲을 이를 정도로 못하는 짓이 없었소. 이렇게 안일한 데 빠져 그 위의를 잊으니 백성들이 보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오.

주는 바야흐로 거만하게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 방종하고 거칠고 게을러져, 점점 술만 더 마실 뿐 조금도 안일한 생활을 그치려 하지 않고 그 마음이 더욱 포악해져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소. 그리하여 사나운 죄가 은나라의 도읍에 가득하여 결국 멸망하게 되었어도, 오히려 이것을 달게 여겨 걱정하는 빛이 없었소. 제사를 지내도 덕의 향기가 하늘에 오르지 않았고 백성들의 마음은 원망과 배반으로 가득 차 하늘에 닿았소.

그러므로 하늘이 상나라의 주를 버리고, 어지러워진 은나라를 조금도 애석히 여기지 않았소. 이는 오직 주가 방탕하여 도리를 잊고 스스로 하늘의 뜻에 배반한 것이라 할 수 있소. 이는 또 하늘이 은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은나라 백성이 술에 빠져 거칠고 음란하여 그 죄벌을 재촉한 것이라 할 수 있소.”

腆於酒(전어주) : 술을 많이 마심.

迪畏天(직외천) : 하늘을 두렵게 생각하며 백성을 인도하는 것.

秉哲(병철) : 명철함을 지키다.

成王(성왕) : 왕업을 이름.

畏相(외상) : 재상들을 공경함.

棐有恭(비유공) : 공손한 태도로 드는 것.

自暇(자가) : 스스로 한가히 지냄.

自逸(자일) : 스스로 편안히 지방.

外服(외복) : 나라 바깥 지방.

惟亞(유아) : 관청의장을 드는 부관.

惟服(유복) :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

宗工(종공) : 높은 관리.

百姓里居(백성리거) : 관계에서 은퇴하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尹人(윤인) : 다스리는 사람.

後嗣王(후사왕) : 뒤를 이은 임금으로 주왕(紂王)을 가리킴.

酣身(감신) : 온 몸이 술에 흡뻑 젖는 것.

保越怨(보월원) : 원망 받을 일만 계속하는 것.

不易(불의) : 행동을 고치려 하지 않는 것.

淫泆(음일) : 지나친 행동을 하는 것.

用燕(용연) : 편안하게 즐기는 것.

德馨(덕馨) : 덕의 향내.

3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봉이여! 내가 말을 많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들의 말에 ‘사람은 물을 거울 삼지 말고 마땅히 백성들을 거울삼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제 은나라는 그의 명을 잃었는데, 내 어찌 크게 거울삼아 어루만져 편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말하노니, 그대는 은나라 어진 신하들과 후복 · 전복 · 남복 · 위복의 제후들에게 힘써 삼가도록 해야 할 것이니, 하물며 태사(太史) 친구들, 내사(內史) 친구들과 어진 신하와 여러 높은 관리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대를 섭기는 잔치 일을 맡은 관리와 제사일을 맡은 관리, 그리고 그대 친구들인 어긋난 자를 치는 사마(司馬)와 보호하는 사람 같은 사도(司徒)와 임금님을 안정시키는 사공(司空), 그리고 그대가 술을 엄격히 절제하는 것이야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이오.

혹 누가 여럿이 술을 마시고 있다고 알리거든 그대는 놓치지 말고 모두 붙들어 주 나라로 보내면 나는 그들을 죽여 버리겠소.

또 은나라의 옛 신하와 관리들이 술에 빠져 있다면 그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시오. 이것을 잊지 않으면 밝게 누릴 것이나, 내가 가르치는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 한 사람도 동정하지 않을 것이오. 그대 하는 일을 밝게 하지 않는다면, 이에 죽을죄와 같게 될 것이오.”

임금께서 또 말씀하셨다.

“봉이여! 그대는 언제나 나의 훈계를 따르오. 관리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술에 빠지게 될 것이오.”

王曰：“封！予不惟若茲多誥。古人有言曰：‘人無於水監，當於民監，今惟殷墜厥命，我其可不大監，撫于時？’”

予惟曰：“汝勤毖殷獻臣，侯、甸、男、衛，矧太史友內史友，越獻臣百宗工。矧惟爾事，服休服采。矧惟若疇，折父薄違，農父若保，宏父定辟！矧汝剛制于酒！”

厥或誥曰：“羣飲，汝勿佚，盡執拘，以歸于周，予其殺。

又惟殷之迪諸臣惟工，乃湎于酒，勿庸殺之，姑惟教之。

有斯明享，乃不用我教辭，惟我一人弗恤，弗蠲乃事，時同于殺。”

王曰：“封！汝典聽朕毖，勿辯乃司民湎于酒。”

[통석] “봉이여! 나는 말을 많이 하고 훈계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오. 다만 모두 옛사람에게서 들은 옳은 도리를 말하는 것이오. 사람은 물을 거울삼지 말라고 했소. 물에 비추어 보아야 자신의 외면만을 보는 데에 지나지 않으니, 그보다는 마땅히 사람을 거울삼도록 하오. 사람에게 비추어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의 이득과 손실을 명백히 알게 될 것이오. 이제 은나라 사람이 술에 빠져 스스로 그 죄를 재촉하여 하늘의 명을 떨어뜨렸소. 내가 은나라의 과오를 크게 거울삼아 이때에 그들을 편안하도록 어루만지지 않을 수 없소.

나는 다시 말하오. 그대는 마땅히 힘써 은나라의 어진 신하와 이웃에 있는 후복·전복·남복·위복 등의 여러 제후들에게 술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오. 그러나 이 것은 오히려 면 일이니 가까운 데서부터 감화시켜 가도록 하오. 하물며 육전(六典)·팔법(八法)·팔칙(八則)을 관장하는 태사 친구들과 팔병(八柄)의 법을 관장하는 내사 친구들은 물론, 다른 어진 신하와 높은 관리들을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지위가 낮은 사람들아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인도하시오! 하물며 앉아서 도리를 의논하는 신하와 서서 일을 시행하는 신하들을 경계하

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대 무리로서 삼경(三卿)의 자리에 있는 자가 명령을 어기면 징벌하는 직책을 맡은 사마와 만민을 순하게 보호하는 책임을 맡은 사도와 토지의 경계를 만들고 법을 제정하는 책임을 맡은 사공은 더욱 삼가고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모두 남을 책하는 일이오. 먼저 그대 몸을 굳건히 보전하여 술 마시는 습관을 절제함으로써 모범이 되어야 하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일러 주기를, 은나라 백성이 연고 없이 떼지어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하면, 이들은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끝까지 고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니 그대는 놓치지 말고 잡아서 주나라로 보내시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죽음의 벌을 내리겠소.

그러나 주로 인하여 악에 물든 여러 신하와 관리들이 술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들을 갑자기 잡아서 가두거나 죽이지 말고 잘 훈계하여 뉘우치게 만들도록 하오. 그대가 이 밝은 가르침을 따르면 그대 나라에서 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소.

이제 은나라 신하에 대해서 내 말을 잘 따르겠소? 그렇다면 내가 그대에게 벼슬과 녹을 주어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려니와. 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술 마시는 습관에 젖어서 고치지 않는다면 나는 아껴 주지 않을 것이오. 옛날의 더럽혀진 습속을 깨끗이 씻고 그대가 맡은 일을 완수하지 못하면, 술마시는 무리들과 같은 죄목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오.

봉이여! 그대는 항상 내가 훈계한 말을 잘 듣고 이를 봉행함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오. 그대가 만일 관리들의 술 마시는 행위를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백성이 술에 빠져서 다스릴 길이 없게 되리니 그대 봉은 거듭 명심하도록 부탁하오.”

監(감) : 감(鑑)과 통해 살펴봄의 뜻.

撫于時(무우시) : 이때에 나라가 편안토록 어루만져 잘 다스리는 것이란 뜻.

劼毖(할비) : 힘써 삼가도록 하는 것.

獻臣(현신) : 어진 신하.

宗工(종공) : 높은 관리.

服休(복휴) : 잔치 또는 놀이를 맡은 관리.

服采(복재) : 조회나 제사 음식을 맡은 관리.

若疇(약주) : 너의 친구들.

折父(기보) : 사마로서, 국경의 방비를 맡고 군사를 관장하는 사람.

農父(농보) : 사도로서, 농사일을 맡은 관리.

宏父(굉보) : 백성들이 사는 곳과 땅을 맡은 관리.

剛制(강제) : 엄격하게 절제하는 것.

明享(명향) : 밝게 나라를 누리는 것.

同于殺(동우살) : 사형에 해당하는 죄와 같다는 뜻.

자재(梓材)

이 편도 무왕이 강숙에게 일러 준 글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를 깨우쳐 주어 윗 사람과 아랫사람의 정을 소통하게 하고 형별과 법률의 사용을 너그럽게 하려 한 것이다. 편 가운데 나오는 자재(梓材) 두 자가 계전(稽田)이나 작실(作室)보다 고상하기 때문에 편명을 삼은 것일 뿐 특별한 뜻은 없다. 금문과 고문에 다 들어 있다.

1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봉이여! 그 백성들과 그 신하로써 큰 집안에 통하게 하며, 그 신하들로써 임금에게 통하게 하는 것이 제후인 것이오. 그대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오. ‘내가 스승으로 받드는 사람은 사도·사마·사공과 관장들 및 여러 관리들이니 나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겠노라.’ 또 그 임금이 먼저 공경하고 위로하게 되면 마침내는 그들도 가서 공경하고 위로하게 될 것이오. 그러니 가거든 간사하고 간악한 자와 사람을 죽인 자와 난동을 부리는 자라도 용서할 자는 용서하며, 또 그의 임금을 본떠 일하는 자라면 남을 상처 입히고 해친 자라도 용서하시오.

임금이 보살필 사람을 임명함은, 다스림이 백성을 위한 것이니, ‘서로 해치지 말고 서로 사나운 짓을 하지 말며, 약한 자를 공경함에 이르고, 여인들을 돌봄에 이르러 모두들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오.

임금이 제후들과 관리들에게 힘쓰도록 했는데, 그 명령을 무엇 때문에 내렸는가? 인도하여 부양하고, 인도하여 편안히 해주기 위해서이오. 예부터 임금이 이와 같으면 보살피는 사람은 잘못될 바가 없었소.”

또 말씀하시기를, “밭을 다스릴 때 애써 널리 땅을 일구어 놓았으면 그것을 질서 있게 정리하여 그 경계와 도랑을 만들어야 함과 같소. 집을 지을 때에 애써 담을 세웠으면 벽에 흙을 바르고 지붕을 잇도록 하여야 함과 같소. 가래나무 재목으로 물건을 만들 때 애써 다듬고 깎았으면 붉은 색이나 다른 색칠을 하여야 함과 같소” 하셨다.

“지금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왕께서 밝은 덕을 힘써 펴심으로써 달래어 가깝

게 만드시니 여러 나라들이 곡물을 바쳐 오게 되었다'고 하셨소.
하늘이 이미 중국 백성과 그 땅을 선왕께 주시니, 지금 임금님은 오직 덕을 펴시어
미혹된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고 뒤에서 밀며 화합하고 기쁘게 하시고, 선왕께서
받으신 명을 완성시키고 계시오.”
“그러니 그대는 이것을 거울삼도록 하오. 다만 말하려는 것은 만년토록 오직 임금
노릇을 하여 자자손손 영원히, 백성들을 보전하도록 하라는 것이오.”

王曰：“封! 以厥庶民暨厥臣達大家, 以厥臣達王, 惟邦君。

汝若恒越曰：‘我有師師, 司徒、司馬、司空、尹旅。’曰：‘予罔厲殺人。’亦厥君先敬
勞, 肆徂厥敬勞。肆往, 犀宄殺人歷人宥, 肆亦見厥君事, 狀敗人宥。

王啓監, 厥亂爲民, 曰：‘無胥戕, 無胥虐, 至于敬寡, 至于屬婦, 合由以容。’王其效
邦君越御事, 厥命曷以? 引養引恬。自古王若茲, 監罔攸辟。”

惟曰：“若稽田, 旣勤敷蒞, 惟其陳修, 爲厥疆畎。若作室家, 旣勤垣墉, 惟其塗塈茨。
若作梓材, 旣勤樸斲, 惟其塗丹匱。”

今王惟曰：“先王旣勤用明德, 懷爲夾, 庶邦享, 作兄弟方來。亦旣用明德, 后式典
集, 庶邦不享。”【此章以後若臣下進戒之辭, 疑簡脫誤於此。】

皇天旣付中國民越厥疆土于先王,

肆王惟德用和懌先後迷民, 用懌先王受命!

已若茲監! 惟曰：“欲至于萬年惟王, 子子孫孫永保民。”

[통석] 임금은 강숙에게 훈계하여 말씀하셨다.

“봉이여! 나라를 다스리는 데엔 반드시 상하의 뜻이 서로 통함을 으뜸으로 삼아야
하오. 제후에게는 온 나라의 백성들이 바라다보는 큰 집과 같은 경대부가 있으니,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무엇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반드시 나라 안의
백성과 여러 신하의 뜻이 자신에게 통하는 바로써, 신들에게 통하게 해야 될 것이
니 이를 가로막아 통하지 않게 해서는 안 될 것이오.”

제후는 반드시 그 대신들의 뜻이 자신에 맞는 것을 가지고 임금에게 통하게 하여 이를 가로막아 통하지 않게 해서는 안 되오. 제후에게는 위로 천자가 있고 아래로 대신이 있으므로, 능히 그 위아래의 뜻을 통하게 하는 것이 그 임무요.

봉이여! 그대는 마땅히 항상 너그러운 법령을 베풀어 신하들을 일깨우도록 하오. 자신에게 스승이 될 만한 사도와 사마와 사공 등 삼공과 관장과 여러 대부들에게 이렇게 말해야만 하오. ‘백성의 생명은 지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위압으로 학대하여 함부로 죽이려 하지 않는다’고.

또 그대 봉은 이제 제후가 되었으니 먼저 백성들을 공경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언제나 동정심을 가지고 삼가면, 아랫사람들은 이를 본받아 마침내 공경과 수고로움을 다하리라 믿소. 이후부터는 간악한 사람과 사람을 죽인 사람과 사실을 알고도 숨겨 두며 혹은 자금을 대어 보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 실정을 살펴 동정할 바가 있으면 용서하고 죽이지 마오. 그리하여 스스로 고치게 하면 아랫사람이 임금의 하는 일을 보고 이를 본받아서 사람을 상해한 작은 죄를 불쌍히 여겨 능히 용서하고 죽이지 않을 것이오.

임금이 나라를 보살피는 사람을 임명하는 까닭은 백성을 잘 다스리려는 데 있소. 그러므로 보살피는 사람을 임명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 제후와 진하가 백성을 할부로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백성을 학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외로운 부녀자를 돌보도록 하라. 그리고 온 나라 백성을 모두 이와 같이 받아들여 사람마다 자기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오.

무릇 선왕들께서 제후와 관리들에게 이와 같이 격려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인가? 그것은 백성을 부양하여 이끌어 주고 편안한 경지에 인도해 주기 위해서이오.

옛날부터 임금이 나라를 보살피는 사람에게 명령함이 이와 같았으니 그대가 이제 나라를 보살피는 사람이 된 바, 마땅히 형별을 지나치게 하거나 백성들에게 학정을 행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오.

비유하건대 정치란 논밭을 다스림에 있어 힘들어서 땅을 일구어 놓았으면 풀뿌리를 캐어내고 잘 다듬어 두둑을 짓고 도량을 파서 물이 통하게 된 뒤에야 그것이 완

성되는 것과 같으며, 집을 지을 때에 힘써서 사방에 담을 쳐놓았으면 흙을 바르고 지붕에 이엉을 인 뒤에 비로소 집짓는 공사가 완성되는 것과 같으며, 가래나무로 그릇을 만들 때에 힘들여 거친 것을 깎고 다듬어 붉은 색칠을 한 뒤에 그 공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으리니, 그대 나라에 돌아가거든 힘써 그 공을 이루도록 하오.”

“문왕 등 옛 임금들이 변방의 소중함을 깨닫고 밝은 덕을 펴서 천하의 제후들을 맞아들여 먼 나라를 가까이 하니, 여러 나라의 제후들이 그 임금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형제와 같은지라 모두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 선왕들의 덕화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소. 그러므로 제후들이 옛날의 법에 따라 아래 백성을 안아 들이면 모든 나라가 또한 그 임금을 크게 받들 것이오.

은나라 주왕이 포악하여 하늘에서 죄를 받으니 하늘은 우리 주나라의 덕을 살피시고 중화의 백성과 강토를 우리 선왕이신 문왕에게 부축하여 은나라 대신으로 천하를 맡게 하신 것이오.

지금 임금께서는 밝은 덕을 펴시어 미혹해서 악에 물든 백성을 기뻐서 화합하도록 인도하시고, 착한 행동을 즐기게 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선왕의 영을 위로하시었소.”

왕명으로 다음과 같이 끝맺는다. “거듭 말하거니와 오직 선왕을 거울삼아 법을 펴서 만년토록 자자손손이 길이 그 백성을 보전하여 큰 복을 누리도록 하오.” (주공의 말)

大家(대가) : 거실(巨室)과 같은 뜻으로, 경대부의 집안이란 뜻.

達大家(달대가) : 백성과 관리들의 사정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통하도록 한다는 뜻.

厥臣(궐신) : 모든 신하.

師師(사사) : 관사(官師)로써 스승을 삼음.

司徒(사도) : 농사와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맡은 관리.

司馬(사마) : 군사를 맡은 관리.

司空(사공) : 땅의 일을 맡은 관리.

尹(윤) : 관장.

旅(여) : 여러 관리들.

歷人(역인) : 난동을 하는 자.

戕敗人(장폐인) : 남을 상하고 해치는 사람.

胥戕(서장) : 서로 해치는 것.

至于敬寡(지우경과) : 힘없는 사람들까지도 공경해 주는 경지에 이르는 것.

曷以(같이) : 하이(何以)와 같음.

引養(인양) : 백성을 인도하여 잘 먹고 살도록 해주는 것.

陳修(진수) : 질서 있게 정리 하는 것.

作梓材(작자재) : 가래나무로 그릇을 만드는 것.

今王(금왕) : 이 편은 무왕이 강속에게 고한 글이라고는 하나 '금왕(今王)~' 구절부터는 착간(錯簡)으로 인해 주공이 성왕에게 전연한 글로 보는 설이 유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주공의 말로 보았다.

先王(선왕) : 문왕(文王).

肆王(사왕) : 성왕(成王)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음.

소고(召誥)

무왕이 은나라를 이긴 뒤에 호경(鎬京)에 도읍을 하였다가 마땅치 않아 낙수(洛水) 북쪽 이른바 낙양(洛陽)에 도읍을 옮겼다. 낙양의 국도가 이루어지자 성왕이 이 도읍에서 정사를 보기 시작했다. 소공(召公)이 주공(周公)의 돌아옴을 계기로 글을 지어 성왕에게 올렸다. 그 글에 하나라와 상나라의 망하고 흥함을 여러 번 되풀이 하여 말했다. 이는 백성을 화합하게 함으로써 천명을 비는 근본을 삼았고 덕 있는 이를 공경함으로써 백성을 화합하게 하는 근본을 삼아, 한 편 가운데 여러 번 정성의 뜻을 이루어 놓은 것으로 옛날의 대신이 그 국가를 위한 염려가 얼마나 깊고 원대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소공이 지은 글이기 때문에 <소고(召誥)>로 편명을 삼았다. 금문과 고문에 다 들어 있다.

1 이월 십육일에서 옛새 지난 을미일 아침 임금님이 주(周)나라 도읍으로부터 걸어서 풍(豐) 땅에 이르셨다.

태보(太保)가 주공보다 먼저 집터를 보고, 그 다음 삼월 병오일부터 사흘 지난 무신일 아침에 태보가 낙(洛)에 이르러 살 곳을 점쳤다. 그는 점괘를 얻고는 곧 측량하여 설계하기 시작하였다. 사흘 지난 경술일에 태보가 여러 은나라 사람들과 함께 낙수 물굽이에 터를 닦기 시작하여 오 일 지난 갑인일에 터가 다 이루어졌다. 이튿날 을묘일에는 주공이 아침에 낙 땅에 이르러 새 고을의 집터를 두루 살펴보았다.

사흘 지 난 정사일 교제(郊祭)에 소 두 마리를 희생으로 썼다. 이튿날 무오일에 새 도읍에서 사제(社祭)를 지냈는데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를 희생으로 썼다.

칠 일이 지난 갑자일에 주공이 아침에 글을 써서 여러 은나라 제후와 후복·전복·남복의 제후들에게 명하였다. 그가 이미 은나라 여러 백성들에게 명을 내리니 은나라 여러 사람들이 크게 일어나 일을 시작하였다.

惟二月旣望越六日乙未，王朝步自周，則至于豐。

惟太保先周公相宅，越若來三月惟丙午朏越三日戊申，太保朝至于洛，卜宅，厥其得卜，則經營。

越三日庚戌，太保乃以庶殷，攻位于洛汭，越五日甲寅位成。

若翼日乙卯，周公朝至于洛，則達觀于新邑營。

越三日丁巳，用牲于郊，牛二。越翼日戊午，乃社于新邑，牛一羊一豕一。

越七日甲子，周公乃朝用書，命庶殷侯、甸、男、邦伯。

厥旣命殷庶，庶殷不作。

[통석] 낙읍이 이미 이루어지고 2월 열엿새를 지나 옛새째인 을미일(21일)，성왕은 아침 일찍이 주나라 호경(鎬京)으로부터 풍(豐) 땅에 이르러 낙 땅에 도읍하게 된 사유를 문왕·무왕의 사당에 고하였다.

태보인 소공은 주공에 앞서 낙읍에 가서 택지를 보게 되었다. 소공이 풍으로부터 당도하니 때는 병오 초사흘 지난 무신일(5일)이었다. 태보는 이날 아침에 낙읍에 도착하여 큰 거북에게 명하여 도읍할 터를 점쳐 보았다. 길한 점괘를 얻으면 마침내 성곽과 종묘와 교사와 궁정과 시장의 위치를 설계하여 측량하려는 것이었다.

그 후 사흘이 지난 경술일(6일)에 태보는 이미 낙 땅에 옮겨 사는 여러 사람들의 온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낙수의 물굽이에 도읍할 터를 낚게 하였다. 닷새가 지난 갑인일(11일)에 원편에 종묘, 오른편에 교사, 앞에는 궁전, 뒤에는 시장의 위치를 비로소 정하였다.

그 이튿날 을묘일(12일)의 아침에 주공이 낙 땅에 도착하여 새로 정해진 도읍터를 두루 자세히 살펴보았다.

사흘이 지난 정사일(14일)에는 낙읍을 경영하게 된 사유를 들어, 천지신명(교제사)에게 제사를 지낼에 소 두 마리를 희생(제물)으로 썼다.

다음날인 무오일(15일)에는 사직에 새로 도읍한 사유를 들어 제사를 지냈는데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를 희생으로 썼다.

이래가 지난 갑자일(11일)에 주공이 친히 글을 써서 은나라의 여러 백성과 사방의 후복과 전복과 남복의 구역에 있는 제후들에게 부역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미 은나라 백성들에게 부역의 명령이 하달되니 모두 기쁜 마음으로 부역에 나갔다.

二月(이월) : 성왕 7년. 기원전 1109년 2월.

既望(기망) : 16일.

越六日乙未(월류일을미) : 옛새가 지난 을미일, 즉 21일.

太保(태보) : 벼슬 이름으로 삼공의 하나. 소공(召公)을 가리킴.

越若(월악) : 월악(粵若)이라고도 쓰며 밭어사.

越三日戊申(월삼일무신) : 3일이 지난 무신일(戊申日), 즉 5일.

卜宅(복택) : 도읍지에 대하여 길흉을 점치는 것.

得卜(득복) : 길하다는 점괘를 얻음.

越三日庚戌(월삼일경술) : 초 7일.

庶殷(서은) : 여러 은나라 사람들.

攻位(공위) : 터를 닦는 것.

洛汭(낙예) : 낙수의 북쪽에 해당.

越五日甲寅(월오일갑인) : 3월 11일.

翼日(익일) : 다음날.

越三日丁巳(월삼일정사) : 14일.

越翼日戊午(월익일무오) : 15일.

越七日甲子(월칠일갑자) : 21일.

用書(용서) : 공문으로서의 뜻. 여러 제후들에게 새로 도읍을 짓는 데 관한 명령을 내린 것.

2 태보가 이에 여러 나라 제후들과 같이 나아가 폐백을 가지고 다시 들어와 주공께 바친 뒤 말하였다.

“손을 머리에 대고 큰절을 하며 임금님과 공에게 바칩니다. 여러 은나라 사람들과 당신들 관리들에게 훈계를 하려 합니다.

오오! 하늘에 계신 상제께서 그분의 큰아들과 이 대국 은나라의 명을 바꾸셨습니다. 그리하여 임금이 명을 받으심이 더 없는 복이긴 하나 또한 걱정이 되오니, 오오!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이 이미 큰 나라인 은나라의 명을 멀리 끊어 버리긴 하셨지만, 은나라의 많은

옛 어진 임금들이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 뒤의 임금 아래에서 백성들이 그 명을 잘 따라야 했을 것이나, 지혜 있는 이는 숨어 버리고 병폐가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들의 처자를 안고 끌고 하며 슬픔으로 하늘에 호소하여 도망쳐 달아나다가 붙잡혔습니다. 오오! 하늘이 온 세상 백성들을 가엾이 여기시고 명을 내려 힘쓰게 하였으니, 임금은 민첩하게 덕을 공경하셔야 합니다.

옛날 백성들과 하나라 임금들을 보면 하늘이 인도하시고, 아들을 쫓아 보존하게 하니 하늘을 우러러 따랐습니다. 지금은 그 명을 이미 잊고 있습니다. 지금 은나라 임금을 보면 하늘이 인도하시고 바로 밭들었고 하늘을 우러러 따랐으나, 지금은 이미 그 명을 잊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 임금께서 자리를 이으셨으니, 늙은이를 버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옛사람의 덕을 생각하라 하였거늘, 하물며 하늘과 의논하여야 한다는 것은 더 말 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오! 임금님은 비록 어리시나 큰아드님이니 백성들과 화합할 수 있으며, 지금의 복입니다. 임금님은 감히 뒤로 미루심이 없이 백성의 어려움을 돌보고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임금님은 오셔서 하늘의 뜻을 이어 스스로 천하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太保乃以庶邦冢君，出取幣，乃復入錫周公，曰：“拜手稽首，旅王若公。誥告庶殷越自乃御事。

嗚呼！皇天上帝改厥元子茲大國殷之命，惟王受命，無疆惟休，亦無疆惟恤，嗚呼！曷其柰何弗敬？

天既遐終大邦殷之命，茲殷多先哲王在天。越厥後王後民，茲服厥命，厥終智藏壞在。夫知保抱攜持厥婦子，以哀籲天，徂厥亡出執。嗚呼！天亦哀于四方民，其眷命用懋，王其疾敬德。

相古先民有夏，天迪從子保，面稽天若，今時既墜厥命。今相有殷，天迪格保，面稽天若，今時既墜厥命。

今沖子嗣，則無遺壽焉。曰其稽我古人之德，矧曰其有能稽謀自天。

嗚呼！有王雖小，元子哉，其不能諒于小民，今休。王不敢後，用顧畏于民磬！

王來紹上帝, 自服于土中。

[통석] 낙읍을 설계하고 측량하는 일을 이미 마친 뒤, 주공이 호경에 돌아가려 함에 태보인 소공이 먼저 여러 나라의 제후들을 거느리고 밖에 나가 폐백을 들고, 다시 들어와 성왕에게 경계하는 글을 주공한테 드리면서 말하였다.

“제가 이제 손을 이마에 대고 머리를 조아리며 글과 폐백으로 어리석은 뜻을 임금님과 주공에게 펴는 바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새로운 도읍이 건설됨에 온나라 백성들에게 훈계하여, 우애하는 풍습을 만들고 사치하는 풍습을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 근본은 임금님의 처사에서 비롯됩니다.”

소공은 성왕에 다시 경계하여 아뢰었다.

“오오!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내리는 명은 언제나 일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주(紂)가 천명을 받아 천자가 되어 크나큰 온나라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도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린 죄를 받아 드디어 천자의 귀한 자리와 크나큰 온나라의 명을 바꾸어, 우리 주나라가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문왕과 무왕의 뒤를 이어 천명을 받아 천자가 되신 것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언제까지나 친근한 것은 아닙니다. 착하면 얻고 착하지 못하면 잃는 것이 하늘의 명이니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오오! 임금님께서는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늘이 큰 나라인 은의 명을 멀리 끊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온나라의 당임금을 비롯한 어진 임금의 영이 하늘에 계십니다. 어찌 하느님께 빌어서 그 자손을 보우하지 못할 리 있습니까? 다만 그 뒤의 임금과 백성이 주와 같이 타락하였으므로 그 밝은 명을 받아서 덕을 삼가지 못한 것입니다. 마침내 어질고 지혜 있는 이가 숨어 버리고,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가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으니, 백성들은 학정에 시달리면서도 호소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의 처자를 안고 끌면서,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고 슬퍼 울며 도망가다가 붙잡히곤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슬픔이 이에 이르니, 오오! 하늘도 또한 사방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온나라를 돌보시

던 명을 돌려 힘써서 덕을 닦는 문무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이를 잘 살피시고 이어받아 덕을 닦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의 백성들과 하나라 우임금을 살펴보건대, 이미 하늘이 인도해 주는 대로 그 덕을 이루고 또 그 아들도 이에 따라 잘 보우했습니다. 당시에 우임금도 하늘을 우러러 그 뜻을 살펴 공경하여 따르고 어기지 않았습니다. 뒤에 결(桀)이 무도하여 이미 천명을 떨어뜨리니 상나라가 이에 대신한 것입니다. 이제 은나라 탕 임금의 성스러움을 살펴보면 하늘이 인도하는 대로 이미 그 덕을 이루고, 또 하나라의 명을 바꾸어서 잘 보우하여 천하를 다스렸습니다. 당시에 탕임금도 하늘을 우러러 그 뜻을 살펴 공경하여 따르고 어기지 않았습니다. 뒤에 주가 무도하여 하늘의 명을 떨어뜨리니 우리 주나라가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어려서 왕위를 이어받으셨으니, 나이 많은 신하를 버리지 말고 임용하십시오. 능히 옛 제왕들의 도덕을 참고하시라고 함은 그 견문을 넓히라는 뜻입니다. 하물며 그 생각하고 꾀함이 하늘의 뜻에 말미암는 분이라면, 그 지식이 높고 밝을 것이니 어찌 버리겠습니까?

오오! 우리 임금님께서는 나이 어리시나 하느님의 원자이시기 때문에 천명을 받아 하늘의 주인이 되셨으니 그 책임이 큽니다. 임금님께서는 백성들을 화합하게 하시고, 서로 어기고 원망하는 마음을 없게 하시니 실로 오늘의 아름다운 복이 올시다. 낮은 백성들은 지극히 어리석은 듯하지만, 그 마음이 두려우리만큼 험준한 것이니, 임금님께서는 마땅히 덕을 공경하여 늦추는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부디 명념 하옵소서.

이제 낙음이 이루어졌으니 임금님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이 중원의 땅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은 저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주공단(周公旦)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冢君(총군) : 임금이나 또는 제후.

誥告(고고) : 훈계하는 것. 이곳에서의 소공의 말은, 주공에게만이 아니라 은나라 백성 및 여러 관리들 앞에서 행한 것임.

厥元子(궐원자) : 천자를 가리킴.

王(왕) : 성왕을 가리킴.
遐終(하종) : 완전히 끝마쳤다는 말.
厥終(궐종) : 주(紂) 임금 때.
智藏(지장) : 지혜 있는 사람이 물려나 숨어 버림.
癡在(환재) : 병폐 많은 사람들이 벼슬자리에 있는 것.
保抱(보포) : 품에 안듯 보호하는 것.
携持(휴지) : 손을 잡아 끄는 것.
婦子(부자) : 처자.
徂厥亡(조궐망) : 그 나라를 도망쳐 가는 것.
用懋(용무) : 정당한 일에 힘쓰도록 하는 것.
子保(자보) : 자식처럼 보호하는 것.
稽天(계천) : 하늘의 명하심을 되새기는 것.
壽耇(수구) :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사람
稽謀(계모) : 의논하는 것.
元子(원자) : 하늘의 큰아들, 즉 천자의 뜻.
土中(토중) : 중토, 즉 중화 땅이라는 뜻.

3 “주공도 말씀하기를 ‘그가 큰 도읍을 이루었으니 이로부터 하늘을 짹하게 되었으며, 하늘과 땅에 삼가 제사 지냈으니 이로부터 천하가 잘 다스려질 것이다. 임금님 이 받으신 명을 성취하시면 이제는 백성을 다스림이 아름답게 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임금님은 먼저 온나라의 관리들을 다스려 우리 주나라의 관리들과 친하게 하시고, 성질을 조절해 주시면 날로 그들이 발전할 것입니다.

임금님은 처신을 삼가 덕을 공경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라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고 또한 온나라를 살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감히 아는 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천명을 받아 여러 해를 누렸습니다. 제가 감히 아는 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계속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덕을 공경하지 않아 천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선 그 천명을 이어받으셨습니다. 우린 이들 두 나라의 천명을 생각하여 공을 이어받았으니 임금님은 이에 일을 시작하셔야 하겠습니다.

오오! 아들을 낳아 놓은 것과 같으니, 처음 낳았을 때 스스로 어진 명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이 그분에게 어질게 명하실 것이고, 길하게 또는 흥하게 명하실 것이고, 여러 해 누리도록 명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읍에서 첫 정사를 행하게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빨리 덕을 공경하소서. 임금님께서 그의 덕을 쓰시는 것은 하늘에 명이 영원하기를 비는 것입니다.

임금은 백성들이 법 아닌 것을 함부로 쓴다고 하여 감히 죽여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백성을 잘 인도하여야 공이 있을 것입니다.

임금 자리에 계시는 분의 덕이 유품다면 백성들은 본받아 천하에 쓰여질 것입니다. 위아래가 부지런하고 걱정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맡은 천명이 하나라 임금의 여러 해 누렸던 꿈과 같으며, 은나라 임금이 여러 해 누렸던 때와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백성들로 하여 하늘의 영원한 명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손을 머리에 대고 큰절하며 말하였다. “이 작은 신하는 감히 임금님의 원수였던 백성과 여러 관리와 친한 백성과 더불어 왕의 위엄 있는 명령과 밝은 덕을 이어받으려 하오니 임금님께서 끝내 명을 이루시면, 임금님 또한 밝아지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감히 부지런하다고 할 수 없으나 삼가 폐백을 받들어 임금께서 하늘에 영원한 명을 비는 데 이바지하려 합니다.”

旦曰：‘其作大邑，其自時配皇天，毖祀于上下，其自時中乂。’王厥有成命，治民今休。

王先服殷御事，比介于我有周御事，節性惟日其邁。

王敬作所，不可不敬德。

我不可不監于有夏，亦不可不監于有殷。我不敢知曰：‘有夏服天命，惟有歷年。’我不敢知曰：‘不其延？’惟不敬厥德，乃早墜厥命。我不敢知曰：‘有殷受天命？’惟有歷年。我不敢知曰：‘不其延？’惟不敬厥德，乃早墜厥命。

今王嗣受厥命：‘我亦惟茲二國命，嗣若功。’王乃初服？

嗚呼！若生子，罔不在厥初生，自貽哲命。今天其命哲，命吉凶？命歷年？知今我初服。

宅新邑, 肆惟王其疾敬德! 王其德之用, 祈天永命。

其惟王勿以小民淫用非彝, 亦敢殄戮用乂! 民若, 有功。

其惟王位在德元, 小民乃惟刑, 用于天下, 越王顯。

上下勤恤, 其曰 : '我受天命, 不若有夏歷年, 式勿替有殷歷年。' 欲王以小民受天永命。"

拜手稽首曰 : "予小臣, 敢以王之讎民百君子越友民, 保受王威命明德, 王末有成命, 王亦顯。我非敢勤, 惟恭奉幣, 用供王能祈天永命。"

[통석] "주공단(周公旦)은 '이제 큰 도읍이 마련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마땅히 임금이 되고 스승이 되어 하늘에 짹하여 천지의 귀신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제부터는 마땅히 중원에 자리 잡고 다스림에 백성들을 화합하게 해야 되리라, 다행히 임금께서 힘써 행하시니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늘의 뜻을 얻게 되었다. 이제 한번 이룬 명을 바꾸는 일 없이 백성들을 아름답게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선 이제 백성들을 교화함을 임무로 삼으셔야 합니다. 먼저 은나라의 신하를 굽복시켜 우리 주나라의 신하에게 친근하게 하여 점차 착함이 스며들게 함으로써, 지난날의 교만하고 음란한 성질을 억제하고 날로 착해지도록 이끄셔야 합니다.

임금님의 몸은 여러 신하들의 본받는 바이니 임금님께서는 공경함으로써, 몸을 편안히 하여 잠시도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덕을 공경함으로써 백성을 교화하고 굽복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울삼으시고 은나라를 거울삼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임금이 하늘의 명을 받들어 사백 년을 이어 가게 한 까닭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걸왕이 멸망함에 이르러 조금도 늦추어 주지 않은 까닭도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위압으로 살육하고 그 덕을 공경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명을 떨어뜨린 것을 알 뿐입니다.

또한 은나라의 탕임금이 하늘의 명을 받들어 육백 년을 지내온 까닭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며, 은나라의 주왕이 멸망함에 이르러 조금도 연장할 수 없었음이 무슨 까닭이라고 말씀드리지도 못하겠습니다. 다만 주가 술에 빠져 포학한 정치를 하고 그 덕을 공경하지 않음으로써, 그 명을 빨리 떨어뜨렸다는 사실만을 알 뿐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왕위를 이어 받으셨으니 분명히 그 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받은 명은 우리나라나 은나라에서 받은 그 명입니다. 우임금과 탕임금은 모두 큰 공덕을 끼쳤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마땅히 이와 같은 공덕을 이어 받아야 합니다. 하물며 임금님께서 이제 처음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함에 있어서 더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오! 아들을 처음 낳아서 어렸을 때부터 밝은 명을 받지 않음이 없으니, 능히 선행을 익혀 가면 누구나 스스로 어진 명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늘이 임금님에게 밝은 덕으로써 명하는가, 길함을 명하는가, 흥함을 명하는가 혹은 장구하게 명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바는, 오직 처음에 실시하는 정치 여하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낙양에 오셔서 새로 도읍을 정하시어 빨리 덕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덕을 공경해야 백성이 회할 것이며, 덕을 공경해야 하늘의 장원(長遠)한 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오직 덕을 빨리 공경하고 법령은 느리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래 백성들이 무지하여 인륜을 어기고 음란하다 하여 바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백성은 어리석으면서도 근본이 있으니, 그 성질에 따라서 이끌어 주면 자연히 교화되어 덕을 닦고 공을 이룰 것입니다.

임금의 자리는 덕을 공경함이 으뜸이 되는 것이니 덕과 지위가 일치하면 아래 백성이 감화되어 이를 본받아 덕을 천하에 베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은 더욱 더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임금과 신하가 마땅히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힘쓰고 염려하여, 우리 주나라가 천명을 받들어 반드시 우리나라와 은나라의 오랜 역사와 어긋나지 않도록 힘써서 둘을 다 겸할 수 있도록 감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낮은 백성을 화하게 하고 하늘의 긴 명을 받으려 함에 있는 것입니다.”

소공이 손을 모아 머리에 대고 이마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저는 감히 원수의 처지인 은나라 백성과 은나라의 여러 신하와 유순한 백성들을 거느리고, 임금님의 존엄한 명령과 밝은 덕을 받드는 것이 저의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덕을 공경하고 백성을 화하게 하여 하늘에서 내리신 명을 잘 간직하셔야 합니다. 저는 감히 부지런히 일한다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공손히 폐백을 바치오며, 임금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명을 잘 받들도록 기원할 따름입니다.”

旦(단) : 주공(周公)의 이름.

土中(토중) : 여기서는 낙읍(洛邑)을 말함. 천하의 중심이라고 해서 토중이라 한 것임.

中爻(중예) : 중토(中土)가 다스려진다는 뜻.

比介(비개) : 친근의 뜻.

節性(절성) : 은나라 관리들의 성품을 조정하는 것.

歷年(역년) : 여러 해.

在厥初生(재궐초생) :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떤 운명을 받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

自貽哲命(자이철명) : 어릴 때의 행동 여하에 따라 장래에 어질게 천명을 받을 수 있게 됨을 말함.

在德元(재덕원) : 덕에 있어서 으뜸가는 것.

用于天下(용우천하) : 천하에 덕을 베풀.

罇民(수민) : 원수였던 은나라 백성들.

百君子(백군자) : 은나라의 모든 관리들.

友民(우민) : 주(周)나라의 유순한 백성들.

낙고(洛誥)

낙양에 도읍이 정해지자 주공이 사람을 보내어 점친 결과를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사관이 이 일을 기록해서 〈낙고〉를 만들었다. 거기에 주공이 임금과 문답한 말과 성왕이 주공에게 명하여 낙양에 머무르게 하여 낙읍을 다스리게 한 일을 아울러 기록하였다. 금문과 고문에 다 들어 있다.

1 주공이 손을 이마에 대고 큰절을 하며 아뢰었다.

“저는 밝으신 당신 임금님께 복명합니다.

임금님께서는 감히 천명의 터전을 닦고 또 명을 안정시킨 일에 미치시지 못하는 것 같기에 제가 태보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 동쪽 땅을 크게 둘러보니, 그 터전이 백성들의 밝은 임금이 될 터전이었습니다.

저는 을묘(乙卯)일 아침에 낙(洛) 땅으로 와서 황하 북쪽의 여수(黎水)를 점쳐 보았으며 또 간수(澗水) 동쪽과 전수(瀍水)의 서쪽을 점쳐 보았으나 오직 낙 땅만이 길했습니다. 저는 또 전수의 동쪽을 점쳐 보았으나 역시 낙 땅이 길하였으므로, 사자(使者)에게 지도와 함께 점친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임금도 손을 이마에 대고 큰절을 하며 말씀하셨다.

“공께서는 하늘이 내리신 복을 공경하시어 도읍지를 가 보시고 주나라에 합당한 아름다움을 만드셨습니다. 공께서 이미 집터를 정해 놓으시고 사자로 와서 점이 아름답고 언제나 길한 것을 보이시니, 우리 두 사람 다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공께서는 제게 억만년토록 하늘이 내리신 복을 공경하라 하셨으니, 손을 이마에 대고 큰절을 하며 가르치신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周公拜手稽首曰：“朕復子明辟。【此上有脫簡在《康誥》自“惟三月哉生魄”至“洪大誥治”四十八字。】

王如弗敢及天基命定命，予乃胤保，大相東土，其基作民明辟。

予惟乙卯，朝至于洛師，我卜河朔、黎水，我乃卜澗水東瀍水西，惟洛食，我又卜瀍水

東, 亦惟洛食, 俾來, 以圖及獻卜。

王拜手稽首, 曰: “公不敢不敬天之休, 來相宅, 其作周匹休。公既定宅, 俾來, 來視予卜休恒吉, 我二人共貞。公其以予萬億年, 敬天之休, 拜手稽首誨言。”

[통석] 주공이 낙읍에 도읍할 것을 점치고 나서 성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보고함에, 손을 이마에 대고 머리를 조아리며 글을 바쳐 이렇게 아뢰었다.

“이제 낙읍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감히 조카이신 밝은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 어리시어 하늘에서 처음 내리신 명의 터전과 끝으로 명을 안정 시킨 일에 대하여 미처 아시지 못하므로 이를 태보와 저에게 부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태보에 이어 동쪽 땅에 가서 낙읍을 시찰하고 구획을 정하여, 임금님께서 백성의 밝은 임금이 되실 터전을 거의 완성하였습니다.

제가 삼월 을묘일 아침에 낙양에 도착하여 먼저 황하 북쪽의 여수(黎水)가 교류하는 사이를 점쳐 보니 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수(澗水)의 동쪽과 전수(瀍水)의 서쪽을 점쳐 왕성의 조회할 터를 잡았습니다. 거북에 나타난 징조는 오직 낙수(洛水)에 가까운 것이 길하였습니다. 이어 전수의 동쪽을 점차 온나라 백성이 거주할 도시를 삼으니 거북의 징조가 또한 낙수에 가까운 쪽이 길하였습니다.

이 두 길조를 얻었으니 이 곳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에 호경(鎬京)에 사신을 보내어 낙 땅의 지도를 바치오며 점친 바 길조를 바치옵니다.”

성왕도 손을 이마에 대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신에게 답하였다.

“공께서는 하늘이 내리신 아름다운 명을 감히 공경치 않을 수 없다 하시고 친히 낙 읍에 가 도읍터를 살펴보시고 신하와 백성이 거처하게 하시어, 우리 주나라가 하늘의 아름다운 명에 보답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셨습니다. 공께서는 이미 도읍 터를 완성하시고 사자를 보내어 저에게 아름다운 점괘로써 항상 길할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두 사람이 그 아름다운 명에 합당한 때문이옵니다. 제가 지 도를 살펴보니 규모가 아주 홍대(弘大)합니다. 이는 한갓 한때의 짧은 계책이 아님 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나로 하여금 억만 년토록 하늘에서 내리

신 복을 공경히 받들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 손을 이마에 대고 머리를 조아리며 공의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基命(기명) : 천명의 터전을 이룩한 것, 곧 문왕의 공을 말함.

定命(정명) : 하늘의 명을 안정시킨 것으로 무왕의 공을 말함.

胤保(윤보) : 주공이 문왕·무왕을 보좌하고 또 이어 성왕을 보좌함을 뜻함.

乙卯(을묘) : 성왕 7년 3월 12일.

洛師(낙사) : 낙읍(洛邑).

師(사) : 경사(京師).

黎水(여수) : 지금의 하남성 위휘부 준현(衛輝府 濟縣) 동북쪽에 있음.

澗水(간수) : 하남성 민자현(澗池縣)에서 발원하여 낙양에서 낙수와 합수됨.

瀍水(전수) : 하남성 맹진현(孟津縣)에서 발원하여 언사(偃師)에서 낙수와 합수됨.

併來(팽래) : 성왕으로 하여금 오시도록 한 것.

戲卜(현복) : 복조(卜兆)를 바치는 것.

作周(작주) : 주(周)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匹休(필휴) : 하늘의 복 주심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

卜休恒吉(복휴항길) : 점쳐 본 바 점괘가 길하다는 말.

誨言(회언) : 가르침을 받들겠다는 뜻.

2 주공이 아뢰었다.

“임금님께서는 처음으로 은나라 예를 행하시어 새 도읍에서 제사를 지내시되 모두 질서를 따라 문란하지 않게 하십시오. 저는 여러 관리들과 함께 주나라로부터 임금님을 따르게 하고 저는 다만 아마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만 말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바로 명하시기를 ‘공이 높은 사람을 기록하여, 공으로써 크게 제사 지내도록 하라’하고 ‘그대들은 명을 받아 착실히 도우라’ 명하십시오. 크게 공을 보아 기록하여야 할 것이니, 그것은 당신께서 모든 일을 스스로 관리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사람은 패거리를 이루기 쉽습니다. 앞으로는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활활 타게 되면 차츰 그것을 끌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법을 따르는 일과 어루만지는 일을 저처럼 하소서. 오직 주나라 관리들을 데리고 새 도읍으로 가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면, 밝게 공이 이루

어질 것이며, 두텁고 크고 넉넉하도록 이루어 당신은 영원토록 칭송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공은 아뢰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어린 분이니 끝까지 잘하셔야 합니다.

당신께서 공경하시면 모든 제후들이 공물 바치는 일을 분별하게 될 것이며, 성실히 바치지 않음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공물을 바치는 데는 예절이 많으니 예절이 물건을 따르지 못하면 성실하게 바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공물을 바치는 데 있어 뜻을 쓰지 않으면, 모든 백성들도 공물을 바치지 않겠다고 하게 되어 일이 어긋나고 얕보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젊은 분이시니, 거를 없어 다하지 못한 일을 저와 나누어 맡아 주시고, 제가 당신에게 가르친 백성들을 돋는 법을 잘 들어 주십시오. 당신께서 만약 힘쓰지 않으시면 당신의 세상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관장들을 독실하게 질서를 잡아 따르지 않은 이가 없게끔 하시면 저도 감히 당신의 명을 저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을 잘 감싸주면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周公曰：“王肇稱殷禮，祀于新邑，咸秩無文。

予齊百工，俾從王于周，予惟曰：‘庶有事。’

今王卽命曰：‘記功宗，以功作元祀！’惟命曰：‘汝受命篤弼！’

丕視功載，乃汝其悉自教工。

孺子其朋。孺子其朋。其往無若火始燄燄。

厥攸灼，敍弗其絕。

厥若彝及撫事如予。惟以在周工往新邑，俾嚮卽有僚，明作有功，惇大成裕，汝永有辭。”

公曰：“已汝惟沖子，惟終。

汝其敬，識百辟享，亦識其有不享，享多儀，儀不及物，惟曰不享。惟不役志于享，凡民惟曰不享，惟事其爽侮。

乃惟孺子，頒朕不暇，聽朕教汝于棐民彝！汝乃是不穢，乃時惟不永哉。篤敍乃正父，罔不若，予不敢廢乃命，汝往敬哉。茲予其明農哉，彼裕我民，無遠用戾。”

[통석] 주공이 장차 성왕을 낙읍에 맞아들이기 위하여 낙양에 편안히 자리 잡음을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는 마땅히 성대한 예식을 갖추어 천지의 귀신과 종묘와 사직에 제사 지내시되, 제사의 예전(禮典)에 있는 일은 빠짐없이 시행하려니와 예전에 없는 일도 상하와 존비(尊卑)의 차례를 챙겨 모두 제사 지내도록 하여, 성사됨을 고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 관리들을 절제하고 삼가게 하여 주나라로부터 임금을 따라 낙 땅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저는 백성들에게 저의 뜻을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맨 처음 정치를 하실 때에 반드시 정사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일하시는 바가 있으리니, 그대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왕명을 따르도록 하라'고.

이제 임금님께서는 여러 관리들에게 이렇게 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로가 높게 드러난 사람을 책에 기재했다가 다른 날 큰 제사 때에 공이 가장 높은 사람을 제사 지내도록 하라. 너희 여러 신하들 가운데 공 있는 사람은 이에 표창을 받으면 더욱 더 왕실을 잘 보필하도록 하라’고.

이제 크게 이 공을 기록한 서책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서 그 공변되고 사사로움을 본받게 하면, 임금님께서는 스스로 여러 관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책임을 다하신 것입니다.

어린 임금님께서는 총애하고 친근함에 따라 파당을 짓는 일에 따라가서는 안 되옵니다. 어린 임금께서 파당을 짓는 일이 있으면, 여러 관리들이 본떠서 모두 사사롭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불이 타들어 갈 때 불꽃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차츰 활활 타오르면 겉잡을 수 없는 것처럼 모두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낙(洛) 땅에서 다스림을 펴 갈 때에 뜻뜻한 도리에 따라서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의 윤리를 밝히며, 나라의 일을 어루만짐에 법률과 기강을 떨

쳐서 마땅히 제가 설정할 때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나라에 있는 여러 관리들을 데리고 새 도읍지에 가셔서 백관들에게 임금의 생각을 알게 하고 나아가 여러 동료들에 밝히도록 하며, 부지런히 힘써서 공을 세우게 하여 두텁고 넓고 크며 너그러운 덕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임금을 기리는 아름다운 찬사가 길이 후세까지 미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공은 또 아뢰었다.

“당신께서는 어린 임금이시니 대업을 창조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헤아려서 끝맺음을 잘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제후들이 낙읍에 조공을 바침에 있어 성실함과 불성실함이 있습니다. 임금께서는 삼가고 조심해서 사사로운 정으로 미워하거나 사랑함이 없이, 여러 제후들이 성실한 마음으로 바치는지 성실하지 못한 마음으로 바치는지 아셔야 합니다. 예절은 폐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의가 폐백에 미치지 못함은 모두 혀된 겉치레일 뿐으로 성실하게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후가 그 마음을 바치는 데 힘쓰지 않으면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그 허물을 본 데서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오직 폐백으로써 사귀게 되고, 반드시 예절로 바칠 필요가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하면 자연 위에 바치는 정성이 없게 되고 사람의 마음이 방자하여 그 행하는 바가 반드시 어긋나고 참람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오직 짚으시니 마땅히 힘써 제가 바빠서 틈이 없음을 반포해 주시고, 또한 제가 당신께 백성의 윤리를 드는 길에 대하여 교훈함을 잘 들으십시오. 당신께서 이에 힘쓰지 않으시면 백성들의 기강이 문란해져서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아버지 무왕의 도리를 독실히 펴서 제가 다스리던 때와 같이 하시면, 사람들이 또한 감히 당신의 명령을 저버리시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이신 당신께서 낙읍에 가시면 더욱 삼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차 전원으로 돌아가 농사일을 강구할까 합니다. 임금이신 당신께선 낙읍에서 우리 백성을 화합하고 너그럽게 하시면 사방의 백성들이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찾아올 것입니다.”

記功宗(기공종) : 낙읍(洛邑)에 도읍한 공을 기록하여 높인다는 뜻.

元祀(원사) : 하늘에 제사 지내고 그 해를 원년으로 삼는 의식. 성왕은 이 해를 다시 원년으로 삼았다.

其悉自教工(기실자교공) : 모든 일은 자기가 관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뜻.

畿畿(염염) : 불이 타오르는 모양.

在周工(재주공) : 주나라에 있는 관리.

百辟(백벽) : 모든 제후들.

役志(역지) : 뜻을 씀. 즉 성의를 다함.

頗朕不暇(반집불가) : 할 일이 너무 많아 내가 다 해낼 틈이 없으니 좀 나누어 맡아 처리해 달라는 말.

遠(원) : 먼 곳의 사람.

3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공께서는 이 어린 사람을 밝게 보호하시고 크고 밝은 덕을 나타내게 해주시며, 이 작은 사람이 문왕과 무왕의 많은 공을 발양할 수 있도록 하며 하늘의 명을 받들어 보답하게 하며, 사방의 백성들을 한결같이 화합하게 하여 경사(京師)에 살도록 해주오.

큰 예절을 후히 숭봉(崇奉)하고 큰 제사를 행하되, 모두 질서가 있어 어지럽지 않게 해주오.

공의 덕은 그 밝고 빛남이 천지를 뒤덮고, 그 공로가 사방에 미쳐 널리 아름답도록 하오. 정사를 맡으시어 문왕과 무왕의 간곡한 가르침을 어기지 않게 하시니, 이 어린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삼가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임금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공은 나를 돋고 나라를 열어 주심이 지금 하시듯 이렇게 하지 않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공이여! 이 작은 사람은 물러가 주나라의 임금 자리로 되돌아가고 공께서는 여기 머무르시기를 명합니다. 세상을 인도하고 다스리고는 있으나, 아직도 큰 예절이 정해지지 못했고, 또한 공의 공업(功業)도 아직 안정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남아, 인도하고 도와서 나의 관리들을 보살펴 주시어, 문왕과 무왕께서 하늘로부터 받은 백성들을 크게 보호하여 다스림으로써 사보(四輔)의 사람이 되십시오.”

임금님이 또 말씀하셨다.

“공은 머무시고 나는 가겠습니다. 공의 공업을 공경하며 따르고 존경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은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내가 계으르지 않으면 일이 편히 될 것입니다. 공이 법도를 바꾸지 않으신다면 사방에서 대대로 공물을 바쳐 오게 될 것입니다.”

주공이 손을 이마에 대고 큰절을 하며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저에게 오도록 명하시어 당신 할아버지 문왕께서 천명으로 받으신 백 성들과 당신의 빛나는 공을 이룬 아버지 무왕을 받들어 보호하게 하시니, 저는 삼 가겠습니다. 어린 분이 오셔서 살 곳을 살피시고 은나라 어진 백성들에게 법을 후 히 하게 하시니 사방의 새로운 제후들을 잘 다스려서 주나라를 바로 세우심에 공 경함을 먼저 하십시오.”

이어 아뢰었다. “이로부터 중화 땅을 다스려 온 천하가 다 아름다워지면, 임금님은 공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旦)은 많은 경대부들과 관리들을 거느리고 옛사람들이 이루신 공을 후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보답할 것이며, 주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믿음을 먼저 하여 밝은 임금의 법을 이루어 할아버지 문왕의 덕을 다하겠습니다.

사신을 보내 은나라 사람들을 삼가게 하시고, 또 명하여 저를 위안하시되 검은 기 장술을 두 병 보내시고 ‘정결하게 제사를 지내되 손을 이마에 대고 큰절을 하여 잘 제사 지내도록 하라’고 하십시오. 저는 바로 문왕과 무왕께 정결히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질서를 따라 하고 스스로 병폐를 만나게 하지 않으면, 만년토록 당신의 덕에 만족하여 은나라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님이 은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받들고 따르게 하신다면, 만년토록 우리 임금님을 돌보며 그의 덕을 따를 것입니다.”

王若曰：“公明保予沖子，公稱不顯德，以予小子揚文、武烈，奉答天命，和恒四方民居師。

惇宗將禮，稱秩元祀，咸秩無文。

惟公德明光于上下，勤施于四方，旁作穆穆。逐衡不迷文、武勤教，予沖子夙夜恭祀

。”

王曰：“公功棐迪篤，罔不若時。”

王曰：“公！予小子其退卽辟于周，命公後。

四方迪亂，未定于宗禮，亦未克敉公功。

迪將其後，監我土師工，誕保文、武受民，亂爲四輔。”

王曰：“公定，予往已。公功肅將祗歡，公無困哉。我惟無斁，其康事。公勿替刑，四方其世享。”【《前漢書》兩引“公無困哉”皆以“哉”作“我”，當以我爲正。】

周公拜手稽首，曰：“王命予來，承保乃文祖受命民越乃光烈考武王，弘朕恭。

孺子來相宅，其大惇典殷獻民，亂爲四方新辟，作周恭先。”曰：“其自時中乂，萬邦咸休，惟王有成績。

予旦以多子越御事，篤前人成烈，答其師，作周孚先，考朕昭子刑，乃單文祖德。

俾來毖殷乃命寧，予以秬鬯二卣，曰：‘明禋，拜手稽首休享。’

予不敢宿，則禋于文王、武王。

惠篤敍無有遘自疾，萬年厭于乃德，殷乃引考。

王俾殷乃承敍，萬年其永觀朕子懷德！”

[통석] 성왕이 주공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공께서 어린 저를 밝게 도우심에 저는 크게 힘입었습니다. 공께서는 임금으로서 크게 덕을 나타낼 일을 들어 서린 저에게 문왕·무왕의 빛나는 업적을 크게 떨치게 하시오. 또 저에게 하늘이 돌보는 명에 보답하게 하시며 사방의 백성을 화합하게 하여, 모든 무리를 낙읍에 편히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공께서는 저에게 큰 예절을 두터이 하고 높이시며, 공로가 드러난 사람의 큰 제사를 질서 있게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저에게 먼저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큰 예절에 따라 제사의 예문(禮文)이 없는 것까지 질서를 세워 제사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모두 공께서 저를 일깨워 주신 바인데, 어찌 갑자기 농사일에 뜻을 두시옵니까?

오직 공의 성한 덕이 천지상하에 밝게 빛나서 부지런한 정사가 베풀어지고, 널리 화하고 씩씩하고 공경하는 덕을 닦게 함으로써 온 나라가 평안하게 다스려져, 옛 날에 문왕·무왕께서 힘써서 천하에 가르치신 바를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는 아직 어리니 새삼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삼가 제사 지내는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공께서 저를 돋고 이끌어 주신 공덕이 실로 두텁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보살펴 주시기 바라오니 물러가신다는 말씀은 아예 거두시기 바랍니다.

공께서 제사를 지내고 정사를 행함이 이미 베풀어졌으니 저는 주나라의 임금자리로 되돌아가겠사오며, 공께서 낙읍에 머물러 이를 진압하고 안무(按撫)해 줄 것을 명하는 바입니다.

이제 사방이 다스려져 이미 태평해졌습니다. 제가 그 공적에 따라 상을 주기로 하면 공께서 으뜸이 되십니다. 다만 아직 공적을 높이는 예가 정해 있지 않으므로 공의 크신 공적을 판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공께서 낙읍에 계시면서 남은 사업을 더욱 확충하시고 저의 관리들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께서 크게 문왕 무왕께서 하늘로부터 받으신 백성들을 잘 보호하여, 우리 주나라의 사방 울타리가 되게 하십시오!”

성왕이 주나라로 돌아가려 할 즈음 다시 정중하게 주공에게 말씀하셨다.

“공께서는 여기에 머물러 계십시오. 저는 이제 주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공의 큰 공은 모든 사람이 엄숙하게 받들고 환영하며 공경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공께서는 삼가 물러가 쉬려는 생각으로 저에게 근심을 끼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주에 돌아가 백성을 다스림에 계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공께서 낙 땅을 다스림에 변함없이 여러 관리들의 모범이 되시면 대대로 공의 은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공은 성왕의 간곡한 만류에 두 손을 이마에 대고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하였다.

“임금께서는 저에게 낙읍의 온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명하셨습니다. 제가 어찌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당신의 할아버지 문왕의 명으로 받으신 백성과 당신의 빛나는 아버지 무왕의 뜻을 받들어 간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장차 머물러서 임금을 받드는 공경을 넓히겠습니다.

어린 임금님께서는 주나라에 돌아가실지라도 마땅히 항상 낙읍에 오셔서 국가의 법규와 은나라와 어진 백성들에게 더욱 두터이 하여, 정치의 공덕이 밝게 드러나 사방의 새로운 임금이 되시고 주나라 후세의 임금들에게 덕을 공경하는 모범이 되시길 바랄 뿐입니다. 또한 임금께선 낙읍으로부터 중원 땅을 다스리는 도리를 다 하면 모든 나라가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러 임금님의 공덕이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저 단은 감히 많은 경대부 및 일을 맡은 신하들과 더불어 전에 문왕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공적을 두터이 하여 백성들이 우러러봄에 보답함으로써, 주나라의 후세 신하들로 하여금 미덥게 하는 데에 솔선하겠습니다. 저는 임금님의 밝으신 법도를 이루고, 문왕의 덕택을 고루 입히지 않는 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공이 낙 땅에 머무르게 된 뒤에 성왕이 사신을 보내어 은나라 백성을 훈계하고, 주공에게 기장으로 빚은 술을 하사하였다. 이에 주공이 임금님께 복명하여 아뢰었다.

“특별히 사자를 보내시어 은나라 백성들을 훈계하시고 은혜로운 명을 내려, 저를 위로해 주시고 기장술 두 병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 기장술은 맑고 깨끗하여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물건이니, 저는 손을 이마에 대고 머리를 조아리며 이 아름다운 물건을 가지고 제사를 받들겠습니다. 저는 감히 잔을 들어 술을 마시지 않고 서둘러 우리 문왕·무왕에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사 축문에 이렇게 말하였다.

“바라건대 임금님께서는 문왕·무왕의 도리에 순응해서 돋독하고 질서 있게 하여 덕을 잃는 일이 없게 하시며, 몸이 강건하시어 재해와 병마에 걸리지 않게 하시며, 자손만대에 문무의 덕에 흠헤 젖도록 하시며 은나라 백성이 덕에 따르도록 오래 장수하도록 하옵소서.”

축문 읽기를 마치고 이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은나라 백성에게 오늘 가르치신 법도를 만년토록 잘 받들게 하십시오. 저는 길이 어린 임금님께서 행하시는 바를 살펴드려 그 덕에 감복하도록 하겠

습니다.”

師(사) : 경사, 즉 낙읍을 가리킴.

稱秩(칭질) : 질서 있게 행하는 것.

穆穆(목목) : 아름다운 모양.

迓衡(아衡) : 어행(御衡)과 같이 정사를 맡아보는 것.

卽辟(즉벽) : 임금의 자리로 되돌아가 지킴.

宗禮(종례) : 백성들이 높이 밟들어야 할 의례.

四輔(사보) : 사방을 돋는 사람.

大惇典(대돈전) : 법을 크고 두텁게 지키는 것.

子(자) : 경대부를 가리킴.

子(자) : 성왕을 가리킴.

俾來(팽래) : 사신을 보내오는 것.

秬鬯(거창) : 제사 때 쓰는 검은 기장으로 빚은 술.

4 무진(戊辰)날에 임금은 새로운 도읍에서 제사를 지내니 문왕에게는 붉은 소 한 마리, 무왕에게도 붉은 소 한 마리를 제물로 썼다. 왕은 문서 만드는 관리 일(逸)에게 글을 지어 빌게 하고, 주공이 여기 남아 있게 되었음을 고하였다. 왕이 제사 지내는 짐승을 죽여 정결히 제사를 지내니 모든 신이 강림하였다. 왕은 큰 방으로 들어가서 검은 기 장술을 땅에 뿌렸다. 왕이 주공에게 명하여 여기 남아 있게 한 일을 문서 만드는 관리 일에게 널리 고하게 하니, 때는 십이월의 일로 주공이 문왕과 무왕께서 받은 천명을 계승한 지 칠 년 되는 해다.

戊辰，王在新邑，烝祭歲，文王驛牛一，武王驛牛一。王命作冊逸祝冊，惟告周公其後。王賓殺禋，咸格，王入太室裸。

王命周公後，作冊逸誥，在十有二月。

惟周公誕保文、武受命，惟七年。

[통석] 선달 무진일에 성왕이 새로 도읍한 낙양에서 겨울 제사를 지내고 한 해를 보내는 예식을 행하였다. 그리고 주공이 남아서 낙양을 다스리게 된 일을 조상의 사당에 고하였다. 문왕의 앞에 붉은 소 한 마리, 무왕의 앞에도 붉은 소 한 마리씩을 각각 제물로 바치고, 성왕이 사관인 일에게 명하여 축문을 짓게 해서 주공이 이후에 머물러서 다스리게 된 뜻을 고하였다. 임금의 빈객이 될 만한 제후가 희생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일을 도우니, 임금은 큰방에 들어가 기장술을 잔에 부어 땅에 뿌리고 귀신들을 강림하게 하였다.

성왕이 주공에게 명하여 뒤에 남아 낙읍을 다스리게 하고, 문왕과 무왕에게 이를 고하고 사관에게 명하여 책을 만들게 하니 사관 일이 이를 기록하였다. 때는 이 해 십이월의 일이었다.

주공이 낙읍에 남은 후 문왕·무왕의 명을 받아 백성을 보우한 지 칠 년째 되던 해 였다.

戊辰(무진) : 성왕 7년 12월 그믐.

作冊(작책) : 문서 만드는 관리.

逸(일) : 사람 이름.

祝冊(축책) : 글을 지어 읽으며 빌게 하는 것.

惟告周公其後(유고주공기후) : 문왕과 무왕에게 제사할 때 주공을 뒤에 남겨 놓은 일을 고하였다는 말.

太室(태실) : 묘당 가운데의 큰 방.

裸(관) : 강신제로 검은 기장술을 뿌리는 것.

七年(칠년) : 주공이 어린 성왕을 위하여 섭정한 지 7년째 되는 해.

다사(多士)

상나라 백성 가운데 낙읍에 옮겨와서 직위에 있는 인사가 많았다. 이 편은 주공(周公)이 낙읍에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성왕을 대신해 그 여러 관리들을 불러 놓고 고한 말이다. 금문과 고문에 다 들어 있다.

1 삼월에 주공이 처음으로 도읍인 낙에서 상나라 임금의 관리였던 사람들에게 고하였다.

“왕명으로 말하노니, 그대들 은나라가 남긴 여러 관리들이여! 불행히 하늘은 은나라를 크게 멸하였소. 우리 주나라는 천명을 도와 하늘의 밝은 위엄을 행하시고, 임금의 별을 이루시어 은나라의 운명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끝맺게 하였소.

그러니 그대들 여러 관리여! 우리 작은 주나라가 감히 은나라의 명을 빼앗은 것은 아니오. 하늘이 진실로 굳게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 우리를 도우신 것이오. 우리가 어찌 감히 자리를 구하였겠소? 하느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음은 우리 낮은 백성들의 마음가짐과 행동 때문일 것이니, 하늘의 두려움을 밝힌 것이라 하겠소.

나는 들으니 ‘하느님은 안락하도록 이끈다’ 하셨소. 하나라 임금은 크게 안락함에 빠져 곧 하느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라로 향하셨는데도 하느님의 뜻을 펴지 못하고 너무 즐기기만 하며 나쁜 평판이 생겼으므로, 하늘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큰 명을 폐하여 별을 내리셨던 것이오.

이에 그대들의 선조 탕(湯)임금에게 명하여 하나라를 개혁하게 하시고 뛰어난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던 것이오.

탕임금으로부터 제을에 이르기까지는 덕을 밝히고 제사를 삼가지 않은 이가 한 사람도 없었소.

또 하늘도 은나라를 크게 세우고 보호하여 다스리니, 은나라 임금도 감히 하늘의 뜻을 잊지 않아 하늘을 찍하여 백성에게 은택을 입히지 않은 이가 없었소.

그 뒤를 이은 임금들은 크게 천명에 밝지 못하였으니, 하물며 그가 옛 임금들이 국

가를 위하여 부지런하였던 것을 듣고 생각하려 하였겠소? 즐거움에 빠져 하늘의 밝은 도와 백성들을 공경하는 일을 돌아보지 않았소. 그래서 하느님은 보호해 주지 않으시어 이러한 큰 멸망을 내리셨던 것이오.

하늘이 함께 하지 않으신 것은 그의 덕을 밝히지 않았던 데 깨닭이 있소. 세상의 작고 큰 나라들이 멸망된 것은 모두 나쁜 평판이 일어 하늘의 별을 받아 그리된 것 이오.”

惟三月，周公初于新邑洛，用告商王土。

王若曰：“爾殷遺多士！弗弔旻天大降喪于殷，我有周佑命，將天明威致王罰，勑殷命終于帝。

肆爾多士！非我小國敢弋殷命。

惟天不畀允罔固亂，弼我，我其敢求位。

惟帝不畀，惟我下民秉爲，惟天明畏。

我聞曰：“上帝引逸。有夏不適逸，則惟帝降格，嚮于時夏，弗克庸帝，大淫泆，有辭，惟時天罔念聞，厥惟廢元命，降致罰。

乃命爾先祖成湯革夏，俊民甸四方。

自成湯至于帝乙，罔不明德恤祀。

亦惟天不建保乂有殷，殷王亦罔敢失，帝罔不配天其澤。

在今後嗣王誕罔顯于天，矧曰其有聽念于先王勤家。誕淫罔泆，罔顧于天顯民祇。

惟時上帝不保，降若茲大喪。

惟天不畀，不明厥德。

凡四方小大邦喪，罔非有辭于罰。”

[통석] 성왕이 주나라에 돌아가고 주공이 낙읍에 남아서 정사를 펴기 시작하였다.

삼월에 주공은 은나라를 섬기던 신하들을 모아놓고 임금의 명령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그대들 은나라를 섬기는 많은 신하들은 매양

반대하는 뜻을 가지고 잘 순복하지 않고 있소. 옛날 은나라 주왕이 포학해서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므로 은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소. 이에 우리 주나라가 하늘의 돌보시는 명을 받아서 하늘의 밝은 위엄을 받들어 가지고 왕자로서 꾸짖고 벌주는 법을 시행하여 은나라의 명을 바르게 개혁함으로써 하늘의 사업을 끝맺은 것이오.

그러므로 그대들 많은 신하들은 우리 주나라가 사방 백 리의 작은 나라로서 감히 빼앗고자 하여 은나라를 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은나라와 함께 하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하오. 하늘은 진실로 은나라의 어지러움을 굳게 해주지 않았소. 그리하여 밝은 덕을 보살펴서 우리 주나라를 도운 것이오. 우리가 어찌 감히 자리를 구할 마음을 가졌겠소?

이제 하느님께서 은나라와 같이 하지 않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소. 억조창생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덕이 흩어져서, 팔백이나 되는 제후들이 은나라를 배척하고 주나라에 돌아온 것을 보면 하느님이 함께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잖소. 곧 하늘의 위엄과 밝음을 두려워해야 하오. 그대들 여러 관리들은 어찌 하나라와 상나라의 일을 보지 않소?

내가 옛 말을 들으니 하느님께서는 사람에 착함을 내려 주시고, 거듭 스스로 닦아 가도록 해서 편안한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했소. 하나라의 걸(桀)은 양심을 잃고 스스로 편안한 자리에 가지 않았소.

이에 하느님께서는 재해를 내려 걸왕에게 하느님의 뜻을 암시하여 두려워하고 반성하도록 했소. 그러나 하나라의 걸은 하느님의 명을 쓰지 않고 하느님을 속이는 말을 하였소.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이를 보살펴 들어 주시지 않았소. 그리고 끝내는 큰 명을 버리고 꾸짖고 벌하게 되었소.

하늘이 그대들의 선조이신 탕임금에게 명하여 하나라의 명을 바꾸어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소. 덕을 이룬 탕임금께서는 뛰어난 백성들을 높이 기용해서 사방을 다스렸던 것이오.

성탕(成湯)으로부터 제을(帝乙)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성현의 임금이 예닐곱 분이 나서 덕을 밝혔으니 그 몸을 닦고 공경한 마음으로 제사 지내어 신을 잘 받들었소.

또한 하늘이 그 명을 보살펴 크게 천자의 자리를 정하여 은나라를 도와서 잘 다스리게 하였소. 은나라 임금도 조심조심 하느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만백성을 어루만져 하늘의 넓고 큼에 짹하여 힘써 그 덕에 젓지 않는 사람이 없게 하였소.

그 뒤에 왕통을 이은 주(紂)가 혼미해서 덕을 잃고 크게 하늘의 도리를 밝히지 못하고 밀았소. 하물며 선왕의 왕가에 부지런히 노력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소? 상나라 주왕이 음탕하고 방탕해서 하늘의 밝은 도리와 백성을 공경함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오.

하느님께서는 이를 보호해서 다스리지 않으시고 이렇듯이 큰 재해를 내려, 나라를 망하게 하고 몸을 멸하도록 한 것이오.

하늘은 무엇 때문에 은나라를 돋지 않았던가? 그것은 덕을 밝히지 않고 하늘의 밝음을 공경하지 않고 백성을 돌보지 않은 때문이었소. 무릇 사방의 크고 작은 나라가 멸망함은 별을 내릴 만한 나쁜 일이 있지 않음이 없었던 것이오.”

惟三月(유삼월) : 성왕 개원 원년(성왕 8년) 3월. 이때 주공이 낙읍을 다스렸고 성왕은 친정을 했었다.

士(사) : 관리.

弗弔(불조) : 불행의 뜻.

降農(강상) : 천벌을 내림.

終于帝(종우제) : 하느님의 뜻을 따라 끝맺는 것.

秉(병) : 마음가짐.

畏(외) : 하늘이 위엄을 내리는 것.

引逸(인일) : 백성들이 잘 살도록 이끄는 것.

不(불) : 비(조 크다) 와 통함.

適逸(적일) : 백성들을 안락하게 이끌고 나아가는 것.

降格(강격) : 강림, 강복의 뜻.

有辭(유사) : 나쁜 평판이 나도는 것.

元命(원명) : 천명.

革(혁) : 명을 바꾸는 것.

丕建(비건) : 크게 세움.

今後嗣王(금후사왕) : 주왕(紂王)을 가리킴.

顯于天(현우천) : 하늘의 뜻을 밝히는 것.

家(가) : 국가.

天顯(천현) : 하늘의 밝은 도.

민祗(민지) : 백성을 공경하며 다스리는 것.

2 왕명으로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들 은나라 여러 관리들이여! 지금 우리 주나라 임금은 크게 하느님의 일을 잘 받들고 계시오.

명이 있어 ‘은나라를 빼앗으라!’ 하셨으니, 하느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었소.

우리는 일함에 두 가지로 나아가지 않으니 그대들의 나라는 우리를 따라야 하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대들에게는 큰 범도가 없었소. 우리가 그대들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대들 스스로가 도읍에서 그런 일을 만들었던 것이오.

나는 또 하늘이 은나라에게로 가서 크게 벌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오.”

왕명으로 말하였다.

“아아! 그대들 여러 관리들에게 고하노니, 나는 그대들을 서쪽으로 옮겨 살게 하겠소. 나 한 사람이 덕을 받아들여 편안히 해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명이니 어기지 마시오!

나는 감히 뒤로 미루지 못하겠으니 나를 원망하지 마시오.

그대들에게 은나라 옛 분들의 문서와 책이 있으니, 은나라가 하나라의 명을 바꾼 일을 잘 알 것이오.

지금 그대들은 말하리라. ‘하나라에서는 사람을 선택하여 임금의 궁전에 있게 하셨고, 일을 맡겨 여러 관직에 있게 하셨다’고. 나 한 사람은 덕 있는 사람만을 따라 쓰고 있으니, 그래서 나는 감히 그대들의 큰 상나라 도읍에서 그것을 구하려는 것이오. 나는 옛 일을 따라 그대들을 가엾게 여기고 있으니 이것은 내 죄가 아니라 천명인 것이오.”

왕명으로 또 말하기를, “많은 관리들이여! 옛날 내가 엄(奄) 땅에서 올 때 나는 그대들 네 나라 백성들의 목숨을 크게 도와 준 일이 있었소. 나는 하늘의 처벌을 밝게 이루어 그대들을 멀리 이곳으로 옮기려 하니, 그것은 신하로서 우리 종실(宗室)

을 가까이 섬겨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오” 하였다.

왕명으로 또 말하였다.

“그대들 은나라의 여러 관리들에게 고하오. 지금 나는 그대들을 죽이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거듭 일러 주겠소. 또 지금 내가 큰 도읍을 이 낙에 만든 것은 사방의 손님을 맞아들이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또한 그대들 여러 관리가 복종하여 나의 신하로서 부지런히 일하며 따르기를 바랐기 때문이오.

그대들은 이제 그대들의 땅을 갖게 될 것이며, 그대들은 이제 편안히 몸을 쉬게 될 것이오.

그대들이 공경할 수 있다면 하늘이 그대들을 가엾게 여겨 주실 것이지만, 그대들이 공경하지 못한다면 그대들의 땅을 갖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도 또한 하늘의 벌을 그대들에게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오.

이제 그대들은 그대들의 고을에 가 살며, 그대들의 삶을 이곳에서 이어나가 오래도록 수를 누리도록 하오. 그대들의 젊은이들이 흥하게 되는 것은 그대들이 이곳으로 옮김으로부터가 될 것이오.”

왕명으로 또 말했다.

“내가 이토록 말하는 것은 그대들의 살 곳을 위해서이오.”

王若曰：“爾殷多士！今惟我周王，不靈承帝事。

有命曰：‘割殷。’告勅于帝。

惟我事不貳適，惟爾王家我適。

予其曰：“惟爾洪無度，我不爾動，自乃邑。’

予亦念天即于殷大戾，肆不正。”

王曰：“猷！告爾多士！予惟時其遷居西爾。非我一人奉德不康寧，時惟天命，無違。朕不敢有後，無我怨！”

惟爾知惟殷先人有冊有典，殷革夏命。

今爾其曰：‘夏迪簡在王庭，有服在百僚。’予一人惟聽用德，肆予敢求爾于天邑商。予惟率肆矜爾，非予罪，時惟天命。”

王曰。多士！昔朕來自奄，予大降爾四國民命。我乃明致天罰，移爾遐逖，比事臣我宗多遜。”

王曰：“告爾殷多士。今予惟不爾殺，予惟時命有申。今朕作大邑于茲洛，予惟四方罔攸賓，亦惟爾多士攸服，奔走臣我多遜。

爾乃尚有爾土，爾乃尚寧幹止。

爾克敬，天惟畀爾，爾不克敬，爾不啻不有爾土，予亦致天之罰于爾躬。

今爾惟時宅爾邑，繼爾居，爾厥有幹有年于茲。洛爾小子乃興從爾遷。”

王曰：“【當有闕文】。”又曰：“時予乃或言，爾攸居。”

[통석] 임금님은 또 이와 같이 말씀하셨소.

“그대들 은나라의 많은 관리들이여! 이제 우리 주나라 왕은 하느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받들어 죄 있는 이를 토벌하게 되었소. 하느님께서 주나라의 왕에게 명하기를 ‘은나라 왕이 그 덕을 밝히지 않으니 네가 가서 은나라의 명을 끊어 버리라’고 하였소. 그러므로 우리가 정벌할 군사를 일으켜 은나라를 바로잡게 된 것을 하느님께서 고하지 않음이 없소.

우리가 정벌하는 일은 하느님 명령에 한결같이 따라간 것 뿐이오. 그대들 은나라 왕실은 스스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오.

나는 본래 그대들을 옮길 계획이 없었소. 관숙·채숙 등과 무경이 난동을 일으킴에 그대들은 포악을 도와 크게 법도를 잃었소. 오늘날 내가 여러분을 옮기는 것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오.

또한 하늘이 그대들 은나라에 나가 점차로 큰 죄업(罪孽)을 내렸으되 주(紂)가 이미 죽고 무경도 죽었소. 그러므로 나는 사특하고 바르지 못함을 염려하여, 그대들에게 흉함을 피하고 길함을 얻도록 하는 바이오.”

임금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소.

“오오! 그대들 많은 신하에게 고하오. 나는 은나라에 더욱 큰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고, 그 거처를 옮겨 그대들을 상나라의 서쪽 낙읍에 살도록 하는 것이니, 나 한

사람이 덕을 받들어 편안하도록 힘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오. 그러니 그대들도 하늘의 명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오. 나는 감히 뒤에 또 명을 내려 벌하지 않겠거니와 이를 어긴다면 스스로 죄를 취하는 것이니 날 원망하지 않도록 하오.

그대들이 어찌 온나라의 옛 일을 알지 못하리오? 온나라의 선인들이 남긴 서책이 있고 전적이 있어 온나라가 하나라의 명을 바꾼 일이 기록되어 있소. 주나라가 온나라의 명을 바꾼 것도 온나라가 하나라의 명을 바꾼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오.

그대들이 온나라의 일을 알면서도 나를 의심하는 것은, 상나라가 하나라의 명을 바꾸었을 때에 하나라의 관리들이 다 온나라의 조정에 등용되어 벼슬아치들의 서열에 끼어 있었는데, 주나라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소. 그러나 나는 오직 덕이 있는 이를 들어 쓸 뿐이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히 상나라에서 그대들을 낙읍으로 옮기는 바이오. 그대들이 덕을 따르고 행실을 고쳐 등용될 수 있는 입장이 되기를 바라오. 내가 상나라의 옛 일을 쫓아서 그대들을 궁휼히 여길 뿐 등용하지 않는 것은 나의 죄가 아니라 오직 하늘의 명인 것이오.”

임금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소.

“내가 전날에 상의 엄 땅으로부터 올 때는 그대들의 죄가 모두 사형에 해당하였소. 내가 그대들의 네 나라, 곧 온나라·관숙·채숙·곽숙(葛叔)의 백성들의 생명을 아껴 차마 죽이지 않은 것이오.

나는 오직 밝게 천벌을 시행하였소. 그대들을 먼 곳으로부터 가까운 낙읍에 옮겨 왕가에 가까이 하고 주나라에 신하노릇 하게 하니 이로써 사납게 거스르는 벼를을 고쳐 공손한 미덕을 행하도록 하여 주오.”

임금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소.

“그대들 온나라의 관리들에게 말하오. 이제 내가 그대들을 구태여 죽이지 않았고 거듭 명하고 거듭 당부하였소. 이제 내가 낙 땅에 큰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소. 그 하나는 사방의 제후들이 조정에 찾아오면 손님의 예를 행할 터전이 없기 때문에 왕성을 세워 접대하려는 것이오. 그 둘은 그대들 여러 신하가 부지런히 일하여 우리 주나라에 신하 노릇을 함으로써 순박한 미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편안히 거처할 땅이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도시를 만드는 것이오.

그대들은 거의 그대들의 논밭을 가지게 되고 씨 뿌려 거두어들일 수 있게 되었으니, 맡은 일에 충실히 살아갈 터전이 마련된 것이오.

그대들이 능히 공경하면 올바른 사리에 따르게 되어 하늘이 복을 내려 줄 것이며, 스스로를 안보할 수 있게 될 것이오. 그러나 능히 공경치 못하면 올바른 사리에 어긋나 하늘이 재앙을 내려 그대들의 논밭을 지닐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또한 하늘의 벌을 이루어 그대들 몸에 사형을 가하게 될 것이오.

이제 그대들이 주나라에 따르면 그대들의 고을에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종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며, 나이 많은 노인을 이곳에 모실 수 있고, 어린 자손들에게 장래의 터전을 마련해 주게 될 것이니, 그 일은 여러분의 이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오.”

임금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소.

“내가 그대들 여러 관리들을 간곡하게 일깨우는 일이 그대들의 거쳐할 땅과 논밭에 관한 일이 아님이 없으니, 그대들은 나의 뜻을 체득하여 잘 헤아려 주기 바라오.”

告勅于帝(고칙우제) : 하느님께서 고하신 명령.

貳適(이적) : 하늘이 명한 일 외에 또 다른 일을 하는 것.

王家(왕가) : 왕국의 뜻.

自乃邑(자내읍) : 너의 도읍에서 스스로가 망하도록 만들었다는 말.

肆不正(사부정) :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의 뜻.

西(서) : 낙읍을 가리킴.

後(후) : 은나라 백성들을 낙읍으로 옮기는 일을 뒤로 미루겠다는 말.

冊(책) : 옛날 대쪽에 쓴 문서.

殷革夏命(은혁하명) : 은나라가 하나라의 명을 바꾼 일. 책과 전에 써어 있는 것을 가리킴.

迪簡(직간) : 우수한 인재를 선출하여 들여보내는 것.

在王庭(재왕정) : 임금의 궁정에서 일하게 하는 것.

天(천) : 대(大)의 뜻.

奄(엄) : 땅 이름. 지금의 산동성 곡부현(曲阜縣) 동쪽에 있었다. 엄 땅에서 왔다는 것은, 성왕 3년에 무경·관숙·채숙이 엄나라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을 때 주공이 이를 평정하고 엄 땅으로부터 개선하였음을 말함.

比事(비사) : 친근하게 섬김.

多遜(다손) : 주나라가 겹양의 덕이 많다는 말.

四方(사방) : 사방의 제후들.

寧幹止(영간지) : 몸을 편히 쉬는 것.

不啻(불시) : 비단. 즉 그뿐 아니라의 뜻.

有幹(유간) : 몸을 보전하는 것.

무일(無逸)

무일(無逸)이란 편히 놀기만 하지 말라는 뜻이다.

주공(周公)이 섭정하다가 성왕에게 집정을 맡기면서, 성왕이 안일에 빠질까 걱정하여 이 글을 지어 훈계한 것이다. 금문과 고문에 다 있다.

1 주공(周公)이 아뢰었다.

“오오! 지위에 있는 군자는 놀이를 즐기지 않는 법입니다. 먼저 농사짓는 어려움을 알고서 편히 놀 줄을 안다면 백성들은 의지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을 보건대 그의 부모들이 부지런히 일하여 씨 뿌리고 거둬들이는 어려움을 알지 못한다면 편히 놀고 상말을 하며 방종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부모를 업신여겨 ‘옛날 사람들이라 듣고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周公曰：“嗚呼! 君子所其無逸。

先知稼穡之艱難乃逸, 則知小人之依。

相小人, 厥父母勤勞稼穡, 厥子乃不知稼穡之艱難, 乃逸乃諺既誕, 否則侮厥父母, 曰: ‘昔之人無聞知。’

[통석] 주공이 글을 써서 성왕에게 경계하여 아뢰었다.

“오오! 임금은 천하를 주재하고 일반의 기틀을 모두 다스리는 처지라 한 생각이 어긋나면 천하에 근심을 끼치게 되고, 한 일을 잘못 처리하면 천만 년의 환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공경하고 부지런할 것이며 계으로 편안한 데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괴로운 일로 농사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임금은 마땅히 백성들의 덕을 잘 살펴야 합니다. 먼저 갈고 심고 가꾸어 거두어들임에 있어서 농부

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안 뒤에야 천자의 안일한 지위는 백성들의 경작하는 수고에 의해 그 삶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일을 중하게 여기고 백성들의 괴로움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하루도 게으른 생각이 들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들에서 일하는 낮은 백성들을 보니 그 부모는 농사일에 바쁘게 서두르며 온갖 괴로움을 다 겪고 있는데 그 아들은 양육을 받아 살아가면서 그 안락함이 부모가 몸소 경작한 수고의 혜택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편하게 놀면서 시정의 거리에서 속된 말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일삼아 그 행동이 법도가 없고, 부모가 거절하면 옛사람이라 듣고 아는 것이 없다고 업신여기면서 아무 즐거움도 없이 혗고생한다고 비웃습니다. 그러니 더욱이 임금은 농사짓는 어려움을 잘 알아야 합니다.”

稼穡(가색) : 농사짓는 일.

依(의) : 의지해 사는 것.

昔之人(석지인) : 옛날 사람. 구세대의 사람.

2 주공이 아뢰었다.

“오오! 제가 듣건대 옛 은나라 임금 중종(中宗)은 엄숙하고 삼가고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하늘의 명을 스스로 헤아렸습니다. 백성을 다스림에는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편안하지 못하였으니, 그럼으로써 은나라를 칠십오 년 동안이나 누렸습니다.

저 고종(高宗) 때에는 오랫동안 밖에서 일하며 백성들과 더불어 지내셨고, 그가 즉위하여 상(喪)을 입으시고는 삼 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말을 하기로 하면 온화하였으며, 감히 게으르고 놀이에 빠지지 않았으니 은나라가 아름답고, 편안히 다스려져 크고 작은 일에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고종은 나라를 오십구 년 동안이나 누렸습니다.

조감(祖甲)은 왕이 되는 것이 의롭지 않다 해서 오래 낮은 백성으로 있었으며 즉위

해서는 백성들의 의지함을 알고 보호하고 사랑하며, 홀아비나 과부들도 감히 업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조갑은 나라를 삼십삼 년 동안이나 누렸습니다.

이 뒤에 선 임금들은 편히 살려고만 하였습니다. 편히 살려고만 하니 씨 뿌리고 거두는 어려움을 알지 못했고 백성들의 수고로움을 듣지 못하였으며 오직 마음껏 즐기는 일만을 추구하였습니다. 이 뒤로부터는 아무도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여 어떤 이는 십 년, 어떤 이는 칠팔 년, 어떤 이는 오륙 년, 어떤 이는 삼사 년, 그 자리를 누렸을 따름입니다.

주공이 아뢰었다.

“오오! 우리 주나라 태왕(太主)과 왕계(王季)께서는 스스로 삼가고 두려워하실 줄 아셨습니다.

문왕께서는 허름한 옷을 입으시고 백성을 편히 해주는 일과 백성을 기르는 일에 힘썼습니다. 아름답고 부드럽고 훌륭하고 공손하시어 백성들을 아끼고 보호해 주셨으며, 홀아비와 과부들도 사랑하고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아침부터 한낮을 거쳐 해가 지기까지 밤 잡수실 틈도 없이 만백성들을 모두 화평케 하셨습니다.

문왕께서는 감히 놀이와 사냥을 즐기지 않으셨고, 여러 나라를 다스리심에 바른 공물로써 하셨으니, 문왕께서는 중년에 하늘이 명을 받으시어 나라를 오십 년 동안이나 누리셨습니다.”

주공이 또 아뢰었다.

“오오! 지금으로부터 왕위를 잇는 임금은 구경하고 즐기고 놀고 사냥하기를 지나 치게 마시고, 만백성들을 다스림에 바른 공물로써 하십시오.

‘오늘은 마음껏 즐겼다’고 말할 틈이 없게 하십시오. 이것은 백성들이 본받을 바 못 되고 하늘이 따를 바도 아니며 이런 사람은 크게 허물을 지게 마련입니다. 은나라 임금 수처럼 미혹되고 어지러워져 술주정하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周公曰：“嗚呼！我聞曰：“昔在殷王中宗，嚴恭寅畏，天命自度，治民祗懼，不敢荒寧，肆中宗之享國七十有五年。

其在高宗時，舊勞于外，爰暨小人，作其卽位，乃或亮陰，三年不言。其惟不言，言乃

雍，不敢荒寧，嘉靖殷邦。至于小大，無時或怨，肆高宗之享國五十有九年。

其在祖甲，不義惟王，舊爲小人，作其卽位，爰知小人之依，能保惠于庶民，不敢侮鳏寡，肆祖甲之享國三十有三年。

自時厥後立王，生則逸，生則逸，不知稼穡之艱難，不聞小人之勞，惟耽樂之從，自時厥後，亦罔或克壽，或十年，或七八年，或五六年，或四三年。”

周公曰：“嗚呼！厥亦惟我周太王、王季，克自抑畏。

文王卑服卽康功田功，

徽柔懿恭，懷保小民，惠鮮鳏寡。自朝至于日中昃，不遑暇食，用咸和萬民。

文王不敢盤于遊田，以庶邦惟正之供，文王受命惟中身，厥享國五十年。”

周公曰：“嗚呼！繼自今嗣王，則其無淫于觀于逸于遊于田，以萬民惟正之供！

無皇【遑通】曰：‘今日耽樂。乃非民攸訓，非天攸若，時人丕則有愆。無若殷王受之迷亂，酗于酒德哉！’”

[통석] 주공은 옛날의 어진 임금이 안일하지 않은 일을 들어 성왕에게 아뢰었다.

“오오! 제가 들으니 옛날 은나라의 임금 중종(中宗) 태무(太武)는 그 몸가짐을 엄하면서 장중하게 하였고, 공경하면서 겸손하게 하였으며, 두렵게 하면서 삼가서 하늘이 명한 이치로써 법도를 삼아 그 몸을 규제하고, 백성을 다스림에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텔끝만큼도 태만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와 같이 공경하였으므로 오래 장수하게 돼 75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고종 무정(高宗 武丁)은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의 아버지인 소을(小乙)이 격정과 수고로움을 알지 못할까 저어하여, 일찍이 낫은 백성들과 함께 가난하고 고달픈 생활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백성들의 실정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즉위하여 삼년상을 모실 때에 공경해서 삼 년 동안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다스림에 밝게 닦아서 한번 호령하면 화(和)해서 하늘의 도리에 맞고 사람의 일에 합당했습니다. 또한 텔끝만큼도 태만하지 않았으며 은나라를 아름답게 다스려 여러 나라의 백성에게 미치니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고종은 59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조갑(祖甲) 때에는 처음에 무경이 조경(祖庚)을 폐하고 서자를 세우는 것은 불의로 왕이 되는 것이라 하여, 민간으로 도망가서 오랫동안 평민이 되어 갖은 어려운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 뒤에 왕이 되어 평민이 의지하는 바가 오로지 농사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뜻 백성을 보호하고 은혜로움으로 다스렸습니다. 또한 홀아비와 과부 등을 업신여기지 않고 더욱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겼습니다. 그 러므로 조갑은 재위 33년 동안 선정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이 삼종(三宗) 이후에 왕위에 오른 사람은 모두 부귀하게 자라서 안일한 생활을 즐기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일찍이 평민들이 경영하고 일하는 수고로움을 알지 못하고, 다만 노래와 여색을 즐기다가 성품을 거칠게 하여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 삼종 이후로는 장수를 누리지 못하고 멀리는 7·8년에서 10년, 가까이는 3·4년에서 5·6년 동안 왕위에 있었을 따름입니다. 근심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장수하게 되고 욕심을 함부로 낸 사람은 단명했습니다.”

주공은 또 아뢰었다.

“오오, 우리나라 선조들이 처음에 왕업의 기초를 닦을 때에 태왕(太王)께서 터를 닦으셨고, 왕계(王季)께서는 왕가(王家)에 부지런하였습니다. 이 두 조상은 성덕을 갖추어 그 마음에 스스로 겸양하고 삼가고 두려워해서, 위로는 하늘의 명을 엄하게 받들고 아래로는 낫은 백성을 돌보아 안일하게 지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황고(皇考)이신 문왕께서는 또한 깊이 농사일의 어려움을 아시고 스스로 몸을 낫추고 절약하여, 백성들을 편안히 하는 공덕과 백성들을 기르는 농사의 공덕에 대하여 법령을 만들고 논밭과 마을을 규제하여 서로 돋도록 하였습니다.

문왕의 덕은 아름답고 부드러우며, 공손하고 화하므로 쉽게 백성들과 가까워져 낫은 백성들을 돋고 보호함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였습니다. 더욱이 홀아비나 과부들에게 은혜롭게 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해 줌으로써 삶의 의욕을 돋우었습니다. 아침부터 낫까지, 낫부터 해질 때까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노력하여 만백성을 화하게 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문왕께서는 감히 사냥을 즐기지 않고 수용품을 절약하며, 세금을 줄여 여러 나라

의 백성들이 바치는 정당한 공물만 받을 뿐, 조금도 부당한 잡부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능히 몸가짐을 단정히 해서 수명의 근원을 북돋우고 백성들을 궁휼히 여겨 하늘이 돌보심을 굳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왕께서 명을 받아 제후가 되나 그 때 나이 마흔 여덟의 중년이었습니다. 그 뒤에 50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주공은 또 아뢰었다.

“오오! 임금님께서는 무왕께서 지나치게 사냥을 즐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근검해서 만백성들로부터 해마다 바치는 정당한 공물만 받아들인 것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항상 조심하시어, 겨를이 있으니 좀 즐거움을 누려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 안 되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아래로는 백성들의 법이 될 수 없으며, 위로는 하늘의 명에 어긋나는 것이 되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그 허물을 본받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이를 경계하시어 은나라 주왕처럼 미혹하고 혼란하여 술에 빠지는 흉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中宗(중종) : 조을(祖乙)이라고도 함. [태평어람(太平御覽)]

寅(인) : 진심으로 하늘과 조상을 공경하는 것.

畏(외) : 나라를 그르칠까 조심하는 것.

寧(영) : 편히 놀며 즐기는 것.

享國(향국) : 나라를 다스림.

高宗(고종) : 무정(武丁).

亮陰(양암) : 양암(諒陰)《논어》· 양암(諒闇)《예기》· 양암(崩陰)《한서 오행지》· 양암(梁闇)《상서 대전》 등으로도 쓰며 상을 입었을 때 움막에서 상을 치르는 것.

雍(옹) : 온화한 것.

靖(정) : 안정의 뜻.

小大(소대) :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五十有九年(오십유구년) : 《사기》에는 55년, 《한서경(漢右經)》에는 100년으로 되어 있다.

祖甲(조갑) : 무정(武丁)의 아들. 조갑에겐 형 조경이 있었으나 조갑이 더 어질어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니 조갑이 임금 되기를 꺼려 한동안 민간에 숨어 살았음.

立(입) : 즉위나 같다.

壽(수) : 여기선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리는 것.

抑(억) : 겸손한 것.

卑服(비복) : 허름한 옷을 입는 것.

康功(강공) : 백성을 편안히 다스리는 것.

田功(전공) : 백상을 기르는 공.

徽柔(휘유) : 백성들을 잘 희유하여 화락하게 하는 것.

懿恭(의공) : 훌륭한 언동으로 삼가 정치하였다는 뜻.

鮮(선) : 선(善)과 통하여 잘 돌봐 줌.

中(중) : 해가 가운데 있는 한낮.

田(천) : 천(畋)과 통하여 사냥함.

惟正之供(유정지공) : 다스림에 오직 공손하였다의 뜻.

中身(중신) : 중년의 뜻. 문왕은 48세에 즉위하였음.

繼自今(계자금) : 지금으로부터의 뜻.

觀(관) : 구경하는 것.

皇(황) : 황(遑)과 통하여 겨를, 틈.

受(수) : 주왕(紂王)의 이름.

3 주공이 아뢰었다.

“오오! 제가 듣건대 ‘옛날 사람들은 서로 훈계하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가르쳐서, 백성들은 아무도 서로 속이려 들지 않고 어리둥절하게 하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으시면, 관리들은 바로 그것을 본받아 선왕의 올바른 법을 바꾸고 어지럽혀 작고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니,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어기고 원망하게 되어 크게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공이 또 아뢰었다.

“오오! 은나라 임금 중종으로부터 고종과 조갑과 우리 주나라 문왕, 이 네 분들은 밝은 지혜로 실천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에게 누가 아뢰기를 ‘백성들이 당신을 원망하고 당신을 욕하고 있다’고 하면 바로 스스로 행동을 삼가시고 그 허물을 ‘나의 허물이다’고 말하여 자인했습니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하시면 감히 노여움을 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으시면 관리들은 바로 누구든 속이려들며 어리둥절하게 만들 것입니다.

‘백성들이 당신을 원망하고 당신을 욕하고 있다’고 말하면 바로 그것을 믿으십시오. 만약에 임금의 할 일을 언제나 생각지 않고, 마음을 크고 너그럽게 못 갖거나 함부로 죄 없는 사람을 벌하고 허물없는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원망이 합쳐져 이것이 그의 몸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주공이 아뢰었다.

“오오! 뒤를 잊는 임금님은 이런 것을 살피셔야 합니다.”

周公曰：“嗚呼！我聞曰：“古之人猶胥訓告，胥保惠，胥教誨，民無或胥譸張爲幻。此厥不聽，人乃訓之，乃變亂先王之正刑，至于小大。民否則厥心違怨，否則厥口詛祝。”

周公曰：“嗚呼！自殷王中宗及高宗及祖甲及我周文王，茲四人迪哲。

厥或告之曰：‘小人怨汝詈汝’，則皇自敬德。厥愆！曰朕之愆允若時，不啻不敢含怒。

此厥不聽，人乃或譸張爲幻。曰：‘小人怨汝詈汝’，則信之。則若時，不永念厥辟，不寬綽厥心，亂罰無罪，殺無辜。怨有同，是叢于厥身。”

周公曰：“嗚呼！嗣王其監于茲。”

[통석] 주공이 아뢰었다.

“제가 들으니 옛날 임금들은 덕행이 훌륭했음에도 나아가 신하들의 간함을 받아들여 훈계하고 일깨웠습니다. 또한 서로 힘을 다하여 보호하고 은혜로써 따르게 했으며 마음을 다하여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그 임금은 그 말을 잘 활용하니 백성들은 이를 본받아 분수를 지키고 한 사람도 서로 속이며 거짓말로 임금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일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에 있어서 미덥게 잘 들어서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성의가 없으면, 벼슬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본받아서 충성으로 간하지 않고 선왕의 바른 법도를 어지럽혀, 작고 큰일을 모두 분란시킬 것입니다. 위에서 정사를 어지럽히면 백성들은 삶

을 온전히 영위할 수 없으므로 백성들이 그 윗사람을 그르다고 하면 그 마음이 거슬러져 원한을 가질 것이며, 재차 그르다 하면 반드시 입으로 신명에게 저주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마음과 입으로 원망하면, 그 나라는 결국 위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공이 또 아뢰었다.

“은나라의 중종과 고종과 조갑과 우리 문왕 등 네 분은 모두 그 밝은 지혜로 농사일의 어려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밝음을 따라서 안일하지 않은 도리를 다했던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낮은 백성이 당신을 원망하고 비방한다’ 하면 스스로 조심하고 더욱 몸을 닦아서 ‘그 허물은 모두 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삼종(三宗)과 문왕의 마음은 진실로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감히 노여워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 수양의 계기를 삼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천하지 못한다면 임금의 도리를 생각지 않고 너그럽지 못한 것으로 도리어 속이는 말을 믿고 무죄한 백성을 함부로 벌주며 무고한 백성을 살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재앙을 받지는 않더라도, 모두 원망하게 되어 임금의 몸에 원망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주공은 은근하게 또 아뢰었다.

“오오! 이제 삼종이나 문왕과 같은 임금님들의 밝음을 따라감에 있어서, 잘 듣고 믿지 않으며 다만 남의 옳지 못한 것만 발견하여 스스로 돌이켜 책하지 않으면, 간신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없는 사실로 속이기도 하고 진실과 거짓을 뒤바꾸어 놓기도 하며 소인들이 당신을 원망하고 비웃는다고 고하면 당신께서는 경솔히 그것을 벌주려 할 것입니다.

무릇 임금은 관용을 베풀어야 하니 이런 말을 들어 일을 행하매 마땅히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상나라 주와 같은 일은 마땅히 경계하십시오. 임금님께서는 이를 거울삼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譏張(주장) :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

爲幻(위환) :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

人(인) : 관리들을 지칭함.

小大(소대) : 작고 큰 일을 가리킴.

違(위) : 법을 어기는 것.

祝(주) : 저주함.

皇(황) : 황(遑)과 통하여 몹시 급함.

辟(벽) : 임금의 할 일.

叢(총) : 한 곳으로 모이는 것.

군석(君奭)

군석(君奭)의 군(君)은 존칭이고, 석(奭)은 소공(召公)의 아름이다. 소공이 늙었음을 이유로 은퇴하여 하자 주공(周公)이 만류하였다. 왕이 아직 나이가 어려 나라의 장래가 걱정스러우니 함께 힘을 합해 왕을 보좌해 줄 것을 당부하였던 것이다. 사관은 주공이 소공에게 만류하는 말을 기록하여 이 편을 만들었다. 금문과 고문에 다 들어 있다.

1 주공이 이렇게 말하였다.

“석공(奭公)! 불행히도 하늘이 은나라에 멸망을 내리시어, 은나라는 그의 명을 잃었고 우리 주나라가 그 명을 받았소. 나는 감히 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들의 터 전은 아름답게 복 주심에 합당하였고 하늘은 진정으로 도왔다고 할 수 있소. 나는 감히 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들은 마침내 상서롭지 못한 데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오오! 그대가 이미 나에게 달려 있다고 말하였거니와, 나도 감히 하느님의 명을 편안히 하지 못하고 하늘의 위엄이 우리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어김이 없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으니 그것은 오직 사람에게 달린 것이오. 우리 뒤를 이을 자손이 하늘과 백성을 크게 공경하지 못하게 되면 옛사람들이 나라에 빛냈던 것을 그만 잊게 될 것이오.

하늘의 명이 쉽지 않다는 것과 하늘을 믿고만 있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명을 잊어 옛 분들이 삼가 밝힌 덕을 영원토록 이어 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오.

지금 이 작은 사람 단은 정의롭다 할 수는 없으나 오직 옛 분들의 빛을 행하여 우리 어린 임금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오.”

또 말하기를 “하늘은 믿고 있을 것만은 아니오. 나의 도리는 오직 나라를 편하게 하신 임금님의 덕을 연장시켜 문왕께서 받으신 명을 하늘이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오” 하였다.

周公若曰：“君奭！

弗吊天降喪于殷，殷既墜厥命，我有周既受。我不敢知曰厥基永孚于休？若天棐忱？我亦不敢知曰其終出于不祥。

嗚呼！君已曰：‘時我’，我亦不敢寧于上帝命，弗永遠念天威越我民，罔尤違，惟人。在我後嗣子孫，大弗克恭上下，遏佚前人光在家不知？

天命不易，天難謙，乃其墜命，弗克經歷嗣前人恭明德。

在今予小子旦，非克有正，迪惟前人光，施于我沖子。”

又曰：“天不可信。我道惟寧王德延，天不庸釋于文王受命。”

[통석] 성왕 때에 소공이 태보가 되어 일을 보살피다가 나이 많음을 칭탁(稱託)하고 돌아가고자 함에 주공이 만류하면서 말하였다.

“소공 석(召公奭)이여! 공덕이 이루어진 뒤에는 몸을 물리칠 줄 아는 것이 신하된 사람으로서 스스로 안정하는 길이라 할 수 있소. 그러나 임금을 보필하고 하늘을 받드는 것은 대신으로서 국가를 위하는 더욱 큰 도리인 것이오. 옛날에 은나라 주왕이 무도하였으므로 하늘이 가엾이 여기지 않고 은나라에 멸망의 재앙을 내렸던 것이며, 따라서 은나라는 이미 하늘의 명을 떨어뜨려 버린 것이나 같소. 이에 우리 주나라가 이 명을 이어받아 천하를 맡게 된 것이오.

그러나 하늘의 명은 언제나 일정불변한 것은 아니오. 그러므로 나는 감히 우리 주나라가 이미 하늘의 명을 받았으나 그 왕업을 길이 아름답게 하여 무궁토록 간직 하리라고 단언할 수가 없소. 하늘이 과연 주나라의 정성을 돋고 끊임없이 보살펴 주실는지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일이오. 나는 또한 감히 그 명을 떨어뜨려 그 끝맺음이 상서롭지 못한 쪽으로 나아감을 알지 못하오.

오오, 공이 이미 전에 왕을 돋고 백성들을 화하게 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소? 어찌 공만 그러할 것인가? 나 또한 감히 하느님께서 보살피시는 명을 편안히 하여 영원토록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할 것을 생각하고, 우리 백성들이 원망하고 배반함이 없을 때를 기약하지 않음이 없었소. 하늘의 명이나 백성들의 마음은 오직 사람

에 따라 따라오기도 하고 멀리 떠나기도 하는 것이오.

이제 공이 떠나가려 하니 우리 뒤를 이을 자손들에 있어서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백성들을 공경하지 못함으로써, 문왕과 무왕의 빛나는 덕을 막고 끊고 떨어뜨릴 것이니, 공이 어찌 몸이 늙었음을 평계하여 물러가 집에서 지내면서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짐은 알 바가 아니라 할 수 있겠소?

또한 하늘의 명은 쉽지 않은 것이오. 하늘의 명은 일정하지 않아서 혹은 주기도 하고 혹은 빼앗기도 하므로 실로 믿기 어려운 바가 있소. 무릇 대를 이은 임금이 그 명을 떨어뜨리는 것은 오직 어진 신하의 보필을 받지 못하는 까닭으로, 경력을 쌓아서 옛 어른들의 공경스럽고 빛나는 덕을 이어받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소.

이제 미미한 나, 단은 능히 마음이 바르다 할 수는 없으나 힘써 노력하여 우리 임금님을 바른 일에 인도하며 오직 앞서 가신 문왕과 무왕의 크고 빛나는 덕을 행하여 우리 어린 임금님에게 베풀어 드리려 하오.”

주공이 앞에 말한 바를 거듭 강조하여 말하였다.

“하늘이 명을 주고 빼앗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로서 마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도리가 있으니, 그것은 오직 편안하게 다스리신 무왕의 덕을 더욱 뻗치게 하여, 문왕께서 하늘로부터 받으신 명을 버리지 않도록 함에 있소.”

弗吊(불조) : 불행의 뜻.

基(기) : 기업(基業).

休(휴) : 하늘이 복을 내리시는 것.

不祥(불상) : 좋지 못한 것. 즉 멸망의 뜻.

已日時我(이왈시아) : 이미 그전부터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든 일이나 자신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다는 뜻.

惟人(유인) : 모든 일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다는 말.

家(가) : 국가.

天難諱(천난심) : 하늘은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명을 바꾸기 때문에 믿고 있기가 어렵다는 뜻.

經歷(경력) : 오래 간다는 것.

寧王(영왕) : 나라를 편하게 한 임금으로 무왕.

2 공은 말하였다.

“석공! 내가 듣건대 옛날 탕임금께서 명을 받았을 때엔 이윤(伊尹) 같은 분이 계셔 천명에 맞도록 하셨고, 태갑에게는 그때 보형(保衡) 같은 분이 계셨고, 태무(太戊)에게는 그때 이척(伊陟)과 신호(臣扈) 같은 분이 계셔서 천명에 맞도록 하셨으며 무함(巫咸)이 왕기를 다스렸고, 조을(祖乙)에게는 그때에 무현(巫賢) 같은 분이 계셨고, 무정(武丁)에게는 그때 감반(甘盤) 같은 분이 계셨소.

여기 늘어놓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은나라를 보호하고 다스렸으니, 그래서 은나라의 예는 하늘의 법도와 배합되어 여러 해를 지낼 수 있었던 것이오.

하늘이 명하여 도우니 상나라는 충실해져서 여러 관리들과 임금 집안사람들이 덕을 행하여 인자하지 않은 이가 없었고, 낫은 관리들과 후복·전복의 제후들도 모두 게으르지 않고 섬기게 되었소. 이들은 오직 덕만을 행하여 그의 임금을 위하여 다스렸던 것이오. 그래서 한 사람이 사방을 다스리니 거북점이나 시초점처럼 그분을 믿지 않은 이가 없었던 것이오.”

공이 말하였다.

“석공! 하늘은 공평하게 바로잡는 사람을 오래가게 하는 것이라, 은나라를 보호하고 다스리게 하셨던 것이오. 그러나 은나라를 이어받아 다스린 사람을 하늘이 멸하시어 위엄을 보이셨소. 이제 당신도 잘 생각하여 명을 굳건히 지키며 우리 새로 세운 나라를 밝게 다스려 주기를 바라오.”

公曰：“君奭！我聞，在昔成湯既受命，時則有若伊尹格于皇天，在太甲，時則有若保衡，在太戊，時則有若伊陟、臣扈格于上帝，巫咸乂王家，在祖乙，時則有若巫賢，在武丁，時則有若甘盤。

率惟茲有陳，保乂有殷，故殷禮陟配天，多歷年所。

天惟純佑命，則商實，百姓王人罔不秉德明恤，小臣屏侯甸矧奔走？惟茲惟德稱，用乂厥辟。故一人有事于四方，若卜筮，罔不是孚。”

公曰君奭。天壽平格，保乂有殷。有殷嗣，天滅威。今汝永念則有固命，厥亂明我新造邦。

[통석] 주공은 말하였다.

“소공이여! 공이 급급히 떠나려 하다니 상나라의 여섯 신하에 대한 말을 듣지 못하였소? 내가 들으니 옛날 상나라 탕임금께서 하늘의 명을 받아 천자가 됨에, 그때에 이윤(伊尹)과 같은 신하가 있어서 탕임금을 보좌하여 그 덕으로 다스림이 하늘에 이르게 하였으며, 태갑(太甲) 때에 있어서는 이윤이 보형이 되어 보필하였으므로, 임금은 스스로의 몸을 보호하였다 하오. 태무(太戊) 때에는 이윤의 아들 이척과 신호(臣扈) 같은 분들이 있어서, 서로 도와 하느님의 마음을 미덥게 하는 데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무함(巫咸)은 또한 능히 왕가를 보호하였으며, 조을(祖乙) 때에는 무함의 아들 무현(巫賢) 같은 분이 있었고, 무정(武丁) 때에는 감반(甘盤) 같은 사람이 있어서, 모두 그 임금을 보필하였다 하오. 공은 어찌 이것을 생각지 않으시오?

이윤으로부터 감반에 이르는 여섯 신하들은, 능히 신하된 사람의 도리를 다하여 충성으로 바르게 보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이를 베푸는 공을 이루어 온나라를 보호하였소. 그러므로 온나라의 하늘 제사에 대한 예는 옛 임금들의 공덕이라, 이미 천국에 오르는 분은 하늘에 모시고 제사 지내니 나라의 복조(福祚)는 많고 연대는 무려 6백 년을 헤아리게 된 것이오.

상나라에 여섯 신하가 있어, 하늘은 순일하게 보살피는 명에 의하여, 꼭 많은 어진 사람을 내어 상나라를 충실하게 함으로써 인재의 걱정이 없게 하였었소. 안으로는 여러 관리들 가운데 드러난 이와 왕의 신하 가운데 보잘것없는 사람도 그 덕을 굳게 가지며 가엾은 백성을 구제하지 않음이 없었던 것이오. 밖으로는 미미한 낫은 신하들과 왕의 올타리가 되는 후복 · 전복의 제후까지도 모두 달려와 일을 보살피게 되었소. 오직 이러한 까닭으로 해서 덕이 드러나 그 임금을 보필해서 다스린 것이오. 그러므로 임금 한 사람이 사방에 일이 있으면 거북점과 시초의 점과 같이 천하의 사람이 공경하고 믿지 않음이 없었던 것이오.”

주공은 또 이어 말하였다.

“석공이여! 하늘의 명은 지극히 공정하여 대신으로서 하늘에 평탄하고 용하여 이르게 하는 사람에게는 오래 있게 하는 것이오. 이윤을 비롯한 여섯 신하는 모두 평탄하게 이르는 행실이 있어 능히 온나라를 보호하였던 것이오.

은나라 주왕(紂王)이 천자의 자리를 이어받아 나라를 다스림에, 평탄하게 통하여 이르는 신하가 하늘의 명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오. 때문에 하늘이 벌을 내려 갑자기 멸망의 위엄을 당하게 한 것이오. 이제 그대는 급급히 떠나려는 생각을 버리고 힘써 우리 주나라를 길이 보전할 것을 생각하오. 주나라에 평탄하게 통하여 이르도록 하는 신하가 된다면 하이 반드시 그 명을 굳혀 주고 그 정치의 공덕이 우리 새 나라에 확연히 빛나게 되리라 굳게 믿는 바이오.”

格于皇天(격우황천) : 천명에 알맞게 된다는 뜻.

保衡(보衡) : 이윤(伊尹).

太戊(태무) : 태갑의 손자.

伊涉(이척) : 이윤의 아들.

臣扈(신호) : 서서(書序)에 의하면 탕임금의 신하로 나오는데 태무 때까지 살았을 리 없음. 동명이인의 어진 사람으로 보인다.

巫咸(무함) : 무무(巫/戈)의 잘못으로 보인다.

祖乙(조을) : 《사기》에는 하단갑(河亶甲)의 아들로 나오나 중정(仲丁)의 아들로 보임.

巫賢(무현) : 무함의 아들.

歷年(역년) : 여러 해 지나는 것.

佑命(우명) : 명을 내려 돋는 것.

百姓(백성) : 백관의 뜻.

王人(왕인) : 임금 집안의 벼슬하는 사람.

小臣(소신) : 낮은 관리.

一人(일인) : 임금을 가리킴.

有事于四方(유사우사방) : 사방에 일이 있음의 뜻이니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格(격) :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것.

有殷嗣(유은사) : 은나라를 이어받아 다스린 사람, 즉 주왕(紂王).

厥亂(궐란) : 그렇게 다스리는 것.

3 공은 밀하였다.

“석공! 옛날에 하느님이 벌을 내려 나라를 편케 하신 임금님의 덕을 거듭 권하셨고 큰 명을 그분 몸에 모이게 하셨소.

문왕께서 우리 중화를 다스려 화평케 하신 것은 또한 괴숙(虢叔) 같은 분과 평요

(閔夭) 같은 분과 산의생(散宜生) 같은 분과 태전(泰顛) 같은 분과 남궁괄(南宮括)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이오.”

또 말하였다.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며 떳떳한 가르침을 행하지 않았던들 문왕께서도 백성들에게 아무런 덕도 내리지 못하셨을 것이오.

또한 덕을 가지고 돋고 하늘의 위엄을 알아 행하니 이에 문왕이 밝아지고 하느님께 들리게 되어 온나라의 명을 물려받게 되었던 것이오.

무왕은 이 네 분이 이끌어 주어 하늘의 녹을 보전하게 하였으니, 뒤에 무왕과 더불어 크게 하늘의 위엄을 행하시어 그분의 원수를 모두 죽이도록 하셨소. 이 네 분은 무왕을 밝혀 크게 덕을 다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오.

지금 이 작은 사람은 큰 냇물에서 해엄치고 있는 것과 같아서 앞으로 당신 석과 더불어 그것을 견너려는 것이오. 어린 임금은 자리에 있지 않은 것과 같으니 크게 나를 책하지 마오. 물러서서 미치지 못함을 드지 않으면 늙도록 덕을 펴지 못하게 될 것이오. 나는 우는 새 소리도 듣지 못하는 위인인데 하물며 하늘을 감응시킬 수가 있다고 하겠소.”

공이 말하였다

“오오! 그대여! 이것을 잘 살피시오. 우리가 믿은 명은 한없이 복되나 또한 한없이 어렵소. 그대가 넉넉히 괴해 주기를 바라니 나는 뒷사람들을 미혹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오.”

공이 말하였다.

“옛분들이 마음을 펴시고 모든 일을 당신에게 명하사 백성들의 인도자로 삼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밝게 힘써 임금의 짹이 되어 정성을 다해 이 큰 명을 이끌도록 하라. 오직 문왕의 덕으로 끝없는 근심을 크게 받들라’고 하셨소.”

公曰：“君奭！在昔上帝割，申勸寧王之德，其集大命于厥躬。

惟文王尚克修和我有夏。亦惟有若虢叔，有若閔夭，有若散宜生，有若泰顛，有若南宮括。”

又曰：“無能往來茲迪彝教，文王蔑，德降于國人。

亦惟純佑秉德，迪知天威，乃惟時昭文王，迪見冒聞于上帝，惟時受有殷命哉。

武王，惟茲四人尚迪有祿，後暨武王誕將天威，咸劉厥敵。惟茲四人昭武王，惟冒，不單稱德。

今在予小子旦若游大川，予往暨汝奭其濟。小子同未在位，誕無我責。收罔勗不及，耆造德不降。我則鳴鳥不聞，矧曰其有能格。

公曰：“嗚呼！君。肆其監于茲。我受命無疆惟休，亦大惟艱，告君乃猷裕，我不以後人迷！”

公曰：“前人敷乃心，乃悉命汝，作汝民極，曰：‘汝明勗偶王，在亶乘茲大命。惟文王德不承無疆之恤。’”

[통석] 주공은 말하였다.

“석공이여! 옛날에 온나라 주왕이 무도하니 하늘이 재앙을 내리고, 편안하게 다스린 우리 무왕의 덕을 거듭 권면하고 드디어 이 중대한 명을 그 몸에 모아서 천하를 보유하게 하였소.

그러나 하늘의 명을 밝혔던 것은 문왕으로 말미암은 바이니, 문왕께서 능히 우리 주나라가 소유한 중화의 땅을 빛나게 다스린 데는, 당시 문왕의 명을 도운 신하로 괴숙(虢叔) 같은 사람이 있었고, 평요(閔夭) 같은 사람이 있었으며, 산의생(散宜生) 같은 사람이 있었고, 태전(泰顛) 같은 사람이 있었으며, 남궁括(南宮括)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오.”

주공은 또 말하였다.

“괴숙 등 다섯 사람의 어진 신하들이 부지런히 왕래하면서 힘써 떳떳한 가르침을 널리 베풀고 이끌어 줌이 없었다면, 문왕께서 비록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화평스러운 은택을 온 나라에 내릴 수는 없었을 것이오.

또한 하늘의 뜻이 순일하게 문왕을 도왔으므로 이 밝은 덕을 간직한 어진 신하를 배출시켰고 그 행동하는 바가 하늘의 위엄 있는 명을 밝게 깨달아서 뜻을 같이 하

여 오직 문왕의 덕을 밝게 드러내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하여 그 덕이 위로 드러나고 아래로 힘입게 됨으로써 하느님께 소문이 들리게 되어 드디어 은나라의 명을 이어받은 것이오.

무왕 때에 괴숙은 죽었으나 괭요 등 네 사람이 또한 힘을 합해 무왕을 잘 인도하여 하늘의 녹을 받아서 간직하게 하였으니, 그 뒤에 드디어 무왕이 크게 하늘의 위엄 있는 명을 받들어 상나라를 정벌하고 주나라의 적을 모두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이오. 이 네 사람은 또한 힘을 다하여 무왕의 덕을 밝게 드러내고 천하에 입혀서, 크게 모두 무왕의 신령스러운 덕을 칭송하게끔 했었소.

이제 왕업은 어려움에 처해 있소. 어린 임금님께서 왕위에 계시니 미약한 나, 단은 아침저녁으로 근심되고 걱정되어 큰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물가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것 같소. 어찌 능히 홀로 건널 수 있겠소? 나는 그대 석공과 더불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 문무의 왕업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고 싶소.

임금님께서는 나이 어리시어 왕위에 계시지만 계시지 않은 것과 똑같소. 어진 신하가 곁에서 보필함을 힘입어야 되오. 그대는 이것을 나, 단의 책임이라 하고 물러나려 하지 마오.

만약 그대가 자취를 거두고 물러나 힘써 내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른들이 이루어 놓은 덕이 백성들에게 베풀어지지 않고 나는 교외에서 우는 봉의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니 하물며 하늘이 아름다움을 느껴서 이르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소?”

주공은 또 말하였다.

“오오, 석공이여! 마땅히 크게 살피도록 하오. 우리 주나라의 문왕·무왕이 크게 하늘의 명을 받아 만대의 왕업을 개설한 것은 진실로 끝없는 아름다움인 것이오. 그러나 문무에게서부터 쌓여온 어려움이 있으니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킴에 우리 두 사람의 책임은 더욱 큰 것이오. 이제 공에게 말하오. 마땅히 너그러운 도리를 생각하여 좁은 생각으로 떠나려는 생각을 버려 주시오. 그 까닭은 내가 정성껏 그대를 만류하여 뒷사람으로 하여금 미혹해서 도리를 잊지 않도록 하려는 데에 있소.”

주공은 또 말하였다.

“나는 그전에 그대와 함께 무왕께서 부탁하시는 고명(顧命)을 받았소. 그때에 무왕께서 그대를 마음속에 베풀어 삼공(三公)의 자리에 명하시어 낮은 백성들의 표준이 되게 하셨소.”

또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어린 몸으로 왕위에 계시니 그대는 마땅히 더욱 힘써서 어린 임금님의 짹이 되어 보필함에 피차간에 서로 믿음 있는 일이라 믿소. 그러니 이 큰 명에 따르도록 하오. 마땅히 문왕의 옛 덕을 추모하고, 이 끝없는 근심과 두려움을 이어받도록 하여야 할 텐데, 그대가 떠난다고 하니 그게 무슨 말이오?”

割(할) : 천벌을 내리는 것으로 은나라 멸망을 뜻함.

尙(상) : 서기(庶幾)의 뜻.

有夏(유하) : 중화의 뜻.

虢叔(괴수) : 문왕의 아우며 신하.

泰顙(태전) : 문왕의 어진 신하.

南宮括(남궁括) : 문왕의 어진 신하.

閔夭(굉요) : 문왕의 어진 신하.

往來(왕래) :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며 임금을 섬기는 것.

惟時(유시) : 이시(以是)와 같이 이 때문에의 뜻.

惟茲四人(유자사인) : 문왕의 네 어진 신하. 무왕 때에는 괴숙이 죽어 네 사람만 남아 있었다.

祿(녹) : 천록.

小子(소자) : 어린 임금 성왕.

誕無(탄무) : 전혀 없는 것.

收(수) :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

鳴鳥不聞(명조불문) : 봉황새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말로, 좋은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

格(격) : 하늘을 감동시켜 복을 내리도록 하는 것.

裕(유) : 백성들에게 여유 있게 하는 것.

前人(전인) : 문왕과 무왕을 지칭함.

無疆之恤(무강지휼) : 한없는 근심, 즉 하늘의 명과 나라를 지킬 근심이라는 뜻.

4 공이 말하였다.

“그대여! 그대에게 나의 진심을 말하오. 태보인 석이여! 그대는 공경함으로써 나와 함께 은나라가 악한 짓을 하다가 망했던 일을 살펴, 우리에게도 하늘이 위엄을 내리실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기 바라오.

사람들이 나를 믿어 주지 않아서 이처럼 말하는 줄 아오? 나는 오직 우리 두 사람이 이루어 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소.

그대의 뜻은 어떻소? 말들 하기를, 이 두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하더군요. 하늘의 복 주심이 많으시면 이 두 사람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그대는 행동을 삼가 우리 뛰어난 백성들을 밝혀, 뒷사람들에게 좋은 시대를 물려주어야 할 것이오.

오오! 이 두 사람이 협력하면, 우리는 그려함으로써 오늘의 아름다움을 이루게 할 수 있을 것이오. 우리는 계을리하지 않음으로써 문왕의 공을 이루고, 크게 힘써서 바다 모퉁이 해 뜨는 곳까지 순종하지 않는 곳이 없게 해야 할 것이오.”

공이 말하였다.

“그대여! 내가 이치에 맞지 않음을 가지고 이처럼 많은 말을 하는 줄 아오? 나는 오직 하늘과 백성을 걱정하기 때문이오.”

공이 또 말하였다.

“오오 그대여! 그대는 백성들의 덕을 알고 있으니, 그의 처음은 잘하지 않는 경우가 없으나 끝까지 맷음을 잘해야 하는 것이오. 이처럼 공경하여 앞으로도 삼가 다스려 주오.”

公曰：“君！告汝朕允！保奭。其汝克敬，以予監于殷喪大否，肆念我天威！”

予不允惟若茲誥。予惟曰：‘襄我二人。’汝有合哉。言曰：‘在時二人，天休滋至，惟時二人弗戱’，其汝克敬德，明我俊民，在讓後人于丕時。

嗚呼！篤棐時二人，我式克至于今日休。我咸成文王功于不怠，丕冒海隅出日，罔不率俾。”

公曰：“君！予不惠若茲多誥。予惟用閔于天越民。”

公曰：“嗚呼！君！惟乃知民德，亦罔不能厥初，惟其終。祇若茲，往敬用治。”

[통석] 주공은 말하였다.

“석공이여! 이제 나는 나의 정성을 다하여 그대에게 말하오. 태보 소공이여! 그대는 능히 공경하고 삼가서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은나라 주왕이 멸망하여 크게 어지러워짐을 잘 살피도록 하고, 우리나라가 하늘의 위엄 있는 명을 크게 두려워할 것을 생각하오.

이제 내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러한 말로 그대를 일깨우겠소?

이제 임금님을 도와 왕업을 크게 이룸은 그대와 나 두 사람에게 달려 있을 따름이니, 그대 역시 마음에 그렇게 생각지 않소? 그대도 우리 두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밀한 바 있소. 하늘의 아름다운 명이 풍족하게 내리면 우리 두 사람이 감당하지 못 할까 걱정이오. 그대가 형세가 영만(盈滿)할 것을 두려워한다면, 마땅히 임금님을 보필하며 덕을 공경하고 준재들을 밝게 천거하여 다른 날 크게 성한 때에 뒷사람에게 사양하도록 하오.

오오,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서 임금님을 두터이 보필할 사람은 그대와 나 두 사람 뿐이오. 나는 능히 천명을 안보(安保)하고 견고히 하여 오늘의 아름다움에 이르게 하였소. 그러므로 그대와 내가 마땅히 아침저녁으로 함께 힘써서 문왕의 공업(功業)을 이룩함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오. 백성들에게 은택이 크게 덮여져 어느 곳이든 해 돋는 땅에까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따르고 복종하지 않음이 없도록 해야 되오. 그런 연후에 문왕의 공은 이루어지는 것이오.”

주공은 또 말하였다.

“석공이여, 내가 전에 그대에게 일깨운 말이 괜히 이치에 따르지 않아서, 이처럼 말이 많은 줄 아시오? 나는 오직 하늘의 명은 간직하기 어렵고, 백성들이 의뢰할 곳 없는 것을 근심하고 민망히 여기고 있을 뿐이오.”

주공은 다시 말하였다.

“오오, 석공이여, 그대는 능히 백성들의 덕이 향하여 따르는 까닭을 알 것이오. 오늘날 백성들이 허물과 원망이 없고 또한 진실로 그 처음을 잘하지 않음이 없소. 그러나 그 끝맺음을 생각한다면 삼가 이 말에 따라 이제부터는 더욱 조심하고 공경하여 그 다스림을 도모하도록 하오.”

以予(이여) : 나와 더불어의 뜻.

允(윤) : 남이 믿어 주는 것.

我二人(아이인) : 주공과 소공.

在時二人(재시이인) : 니قات일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이 이 두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말.

弗戇(불감) : 이기지 못한다는 말.

丕時(비시) : 큰 때, 곧 성세의 뜻.

海隅出日(해우출일) : 땅 끝 바다 모퉁이. 해 둘는 땅의 뜻.

채중지명(蔡仲之命)

채(蔡)는 나라 이름이고, 중(仲)은 채숙의 아들이다. 채숙이 죽은 뒤 주공(周公)은 그의 아들 채중의 현명함을 알고, 성왕에게 아뢰어 다시 채에 봉하면서 훈계한 말이다. 고문에만 들어 있다. 이 편은 순서로 보다 〈낙고(洛誥)〉 앞에 있어야 할 것 같다.

1 주공(周公)은 재상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관리들을 거느렸는데, 여러 숙(叔)들이 뜬소문을 퍼뜨리니 관숙을 상나라에서 죽이고 채숙을 과린(郭鄰)에 가두었으되, 수레 일곱 채를 딸려 주었다. 또 과숙은 서인으로 내쳐 삼 년 동안 지위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다. 채중(蔡仲)은 항상 덕을 삼갔으므로 주공이 그를 경사(卿士)로 삼았다. 채숙이 죽으니, 이에 임금께 아뢰어 채나라에 봉하였다.

왕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작은 사람 호(胡)여! 그대는 덕을 따라 행동을 고쳤고, 그 길을 삼갔소.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명하여 동쪽 땅의 제후로 삼으니 그대가 명을 받은 자리에 나아가 공경 하시오.

그대가 전인(前人)의 허물을 덮으려면 오직 충성과 효성이 있어야 하고, 그대는 자신의 올바른 자취를 따라 나아가고 부지런하고 계으르지 않음으로써 그대의 후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오. 그대의 할아버지 문왕의 법과 훈계를 따르되 그대의 아버지처럼 임금의 명령을 절대로 어기지 마오.

하늘은 친함이 없으시어 오직 덕 있는 사람을 도우며, 백성들의 마음은 일정치 않아 오직 사랑해 주는 사람을 따르오. 착한 일도 여러 가지이나 다 같이 다스려지기에 이르고, 악한 짓도 여러 가지이나 다 같이 어지러워지기에 이르는 것이오. 그대는 그것을 꼭 경계해야 하오. 그 처음을 삼가되 끝맺음을 잘 하여야 마침내 곤란하지 않게 될 것이오. 끝맺음을 잘하지 못하면 마침내 곤궁해질 것이오.

그대의 공적이 될 것을 힘쓰고, 그대의 사방 이웃과 화목함으로써 왕실의 울타리가 되고 형제들과 화친하며 백성들을 편히 구제하시오.

중도(中道)의 바른 길을 따르고 총명한 체하여 옛 법칙을 어지럽히지 말며 그대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잘 살펴서 치우친 말로써 그 법도를 고치려 들지 마오. 그러면 나 한 사람은 그대를 아름답게 여길 것이오.”

왕명으로 말씀하셨다.

“오오, 작은 사람 호여! 그대는 가서 나의 명령을 계을리하여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오.”

惟周公位冢宰, 正百工, 羣叔流言, 乃致辟管叔于商, 囚蔡叔于郭隣, 以車七乘, 降霍叔于庶人, 三年不齒。蔡仲克庸祇德, 周公以爲卿士。叔卒, 乃命諸王, 邦之蔡。

王若曰：“小子胡！惟爾率德改行，克慎厥猷。肆予命爾，侯于東土，往卽乃封，敬哉！爾尚蓋前人之愆，惟忠惟孝，爾乃邁迹自身，克勤無怠，以垂憲乃後。率乃祖文王之彝訓，無若爾考之違王命！

皇天無親，惟德是輔，民心無常，惟惠之懷。爲善不同，同歸于治，爲惡不同，同歸于亂，爾其戒哉。

慎厥初，惟厥終，終以不困，不惟厥終，終以困窮。

懋乃攸績，睦乃四隣，以蕃王室，以和兄弟，康濟小民！

率自中，無作聰明，亂舊章，詳乃視聽，罔以側言改厥度。則予一人汝嘉。

王曰：“嗚呼！小子胡！汝往哉，無荒棄朕命。”

[통설] 처음 무왕이 죽었을 때에 성왕은 아직 어려 주공이 총재(冢宰)의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관리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이때에 관숙·채숙·곽숙 등이 주왕(紂王)의 아들 무경을 상나라의 옛 도읍에 보내 감시케 되었다. 세 사람 속은 임금이 어리고 나라가 안정되지 못한 데다가 상나라 사람이 혼란한 틈을 이용해, 마침내 뿌리 없는 유언비어를 조작해 주공을 혈뜯고 서로 어울려 반란을 일으켰다. 주공이 왕명을 받들어 정벌을 단행하고 관숙선(管叔鮮)을 상나라의 옛 도읍에서 사형에 처하니, 그것은 그가 악당들의 괴수노릇을 하였기 때문이다.

채숙도(蔡叔度)는 중원의 바깥인 곽린 땅에 잡아 가두었는데 다만 수레 일곱 채를
딸려 보냈으니 그래도 죄가 가벼운 때문이었다. 곽숙처(霍叔處)는 평민으로 내려
서 그 벼슬과 녹을 빼앗고 삼 년 동안 지위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으니 죄가 좀
더 경미한 때문이었다. 채숙의 아들 채중(蔡仲)은 항상 덕을 공경하고 방종하지 않
으니 주공이 발탁하여 경사가 되게 하였다. 그 뒤에 채숙이 죽으니 성왕으로부터
명을 받아 채중을 채 땅에 봉하여 채숙의 뒤를 잇게 하였다.

주공은 성왕의 명을 받아 다음과 같이 고하였다.

“그대 작은 사람 호는 오직 그대의 할아버지이신 문왕의 덕을 따라서 그대의 아버
지 채숙의 행실을 고쳐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조심스레 행하고 있는지라, 내가
그대에게 명하여 동쪽 땅 제후를 삼으니, 이제부터 그대에게 봉해 준 땅에 가서 더
욱 공경하도록 하오.

그대는 거의 전(前) 사람의 허물을 덮을 만한 사람이라, 오직 충성을 다하고 효도
를 다하여 마땅히 그전 사람의 자취를 뛰어넘어 스스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오. 능히 부지런히 힘쓰며, 감히 게으름이 없게 하며, 그대의 후세 자손에게 법
을 드리워 마땅히 그대의 할아버지이신 문왕의 멋떳한 가르침에 따르게 하고 그대
의 아버지 채숙처럼 왕명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하늘은 사사로이 사람에게 친근함이 없는 것이니 오직 덕이 있으면 도울 것이며,
백성의 마음도 일정하게 향하는 곳이 없는 것이니 오직 은혜롭게 하면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오. 사람이 선을 행하는 바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다스림에 돌아
가는 것은 같고 사람이 악을 행하는 종류도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지러움에 돌
아가는 것은 같은 것이니 그대는 이를 삼가도록 하오.

백성에 임하는 시초(始初)를 삼가고 조심하오. 무릇 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끝마
침을 잘 생각하면 그 끝맺음이 곤궁하지 않고, 그 끝마침을 잘 생각하지 못하면 그
끝맺음이 마침내 곤궁하게 될 것이니 잘하시오.

마땅히 그대의 공적이 되는 일에 힘쓰고 그대의 사방 이웃나라와 친목하여 왕실의
울타리가 되고 형제간에 화친하도록 하며 낫은 백성들을 편안히 구제하도록 하오.
천하에는 큰 중도와 지극한 정도가 있으니, 그대는 마땅히 이 중정의 도리에 따라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도록 하오. 망령되어 조그만 총명으로 옛 법을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마땅히 그대가 보고 듣는 것을 자상히 하여 한편에 치우친 말에 혼혹되어 항상 지키는 법도를 함부로 고치지 않도록 하기 바라오. 이렇게 하면 나 한 사람이 어찌 그대에 대하여 아름답게 기리지 않겠소?”

왕명으로 이렇게 밀하였다.

“오오, 작은 사람 호여. 그대의 나라에 가서 내가 훈계한 명령을 거칠게 폐하고 버리지 않도록 항상 명심하여 실행하오.”

冢宰(총재) : 재상으로 행정의 최고 우두머리.

百工(백공) : 여러 백관.

羣叔(군숙) : 임금의 여러 아저씨들, 곧 관숙 · 채숙 · 광숙을 지칭함.

致辟(치벽) : 사형의 뜻.

郭鄰(곽린) : 땅 이름.

以車七乘(이거칠승) : 수레 일곱 채를 채숙에게 붙여 주었다는 뜻.

庶人(서인) : 벼슬 없는 평민.

卿士(경사) : 임금의 육경 중에서 정사를 맡고 있는 사람.

邦(방) : 봉(封)의 뜻.

蔡(채) : 나라 이름. 지금의 하남성 상채현(上蔡縣) 서남쪽.

胡(호) : 채중의 이름.

東土(동토) : 채나라를 지칭함.

無親(무친) : 특히 친한 사람이 없어서, 누구든 바르지 못하면 천벌을 내린다는 뜻.

爲善不同(위선부동) : 선을 행함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말.

中(중) : 중정한 도.

章(장) : 법칙의 뜻.

側言(측언) : 치우친 말.

다방(多方)

다방(多方)은 여러 나라라는 뜻이다. 성왕이 정사를 맡은 뒤 엄(奄)나라와 회이(淮夷)가 다시 반란을 꾀하였다. 성왕은 이들을 토멸하고 돌아와서 주공(周公)으로 하여금 여러 나라 특히 동쪽 온나라 유민(遺民)들이 많이 사는 나라들을 향해 훈계를 하도록 했다. 그때의 글이 이 편이다. 금문과 고문에 다 들어 있다.

1 오월 정해(丁亥)날에 왕이 엄(奄) 땅으로부터 돌아와 호경(鎬京)에 이르렀다.
주공이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소. ‘아아! 그대들 사방 여러 나라에게 고하오. 특히 온나라 제후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이여! 내가 그대들의 목숨을 크게 돌보아 주었음을 그대들도 모르지는 않으리라 믿소.

천명을 크게 도모하여 늘 제사를 공경히 생각하지 않았소.

하느님은 하나라에 복을 내리셨으나, 하나라 임금은 크게 놀이에만 빠져 백성들에게 걱정하는 말마저도 하려 하지 않았소. 이처럼 너무 어두워 종일토록 하늘의 길로 나아감을 힘쓰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대들도 이미 들은 바일 것이오.

그는 천명을 멀리하고 백성들의 의지(依支)를 개척해 주지 못해서 이에 크게 벌을 받았으나, 하나라 임금은 더욱 어지러워져 그 때문에 내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백성들을 잘 받들지 못하면서 오직 재물만을 바쳐 오게 하여 크게 백성들을 괴롭혔소. 또한 하나라의 백성들은 탐욕과 다툼만이 날로 성하여 하나라 도읍을 엉망으로 만들었소.

하늘은 이에 백성들의 임금을 구하게 되니, 탕임금에게 아름다운 명을 크게 내리시어 하나라 임금을 벌하여 멸망시키게 하였던 것이오.

하늘이 복을 내려 주지 않으신 것은 그대들 여러 나라의 착한 백성들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오. 하나라의 벼슬하는 관리들은 백성들을 밝게 보호하여 행복을 누리게 해주지 못했고, 서로 백성들에게 포악하기만 하여 모든 행위가 크게 풀리지 못하고 말았소.

이에 탕임금은 그대들 여러 나라를 거느리고 하나라에 대신하여 백성들의 임금이 되셨소. 그래서 그 의지함을 삼가고 힘쓰시니 그 백성들도 그를 본받아 힘쓰게 되었던 것이오.

제을에 이르기까지 떡을 밖하고 별을 삼가지 않는 이가 없었고, 또한 선을 행하게 할 수가 있었소. 간힌 죄수 중에서 죄가 많아 죽여야 할 자도 또한 선을 행하게 할 수 있었고, 죄가 없어 풀어 놓아 주는 자도 또한 선을 행하게 할 수가 있었소. 최근의 그대들 임금에 이르러서는 그대들 여러 나라를 거느리고 천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말았소'라고 하셨소.”

惟五月丁亥, 王來自奄, 至于宗周。

周公曰：“王若曰：‘厥！告爾四國多方！惟爾殷侯尹民！我惟大降爾命，爾罔不知。洪惟圖天之命，弗永寅念于祀。’

惟帝降格于夏，有夏誕厥逸，不肯感言于民。乃大淫昏，不克終日勸于帝之迪，乃爾攸聞。【此章上疑有闕文。】

厥圖帝之命，不克開于民之麗，乃大降罰，崇亂有夏，因甲于內亂，不克靈承于旅，罔丕惟進之恭，洪舒于民，亦惟有夏之民，叨憤日欽，剷割夏邑。

天惟時求民主乃大降顯休命于成湯，刑殄有夏。

惟天不畀純，乃惟以爾多方之義，民不克永于多享，惟夏之恭，多士大不克明保享于民，乃胥惟虐于民，至于百爲大不克開。

乃惟成湯，克以爾多方，簡代夏，作民主。

慎厥麗乃勸，厥民刑用勸。

以至于帝乙，罔不明德慎罰，亦克用勸。

要囚殄戮多罪亦克用勸，開釋無辜亦克用勸。

今至于爾辟，弗克以爾多方享天之命。’

[통석] 성왕이 즉위한 이듬해에 상나라 염 땅에서 또 반란이 일어났다. 이에 성왕이 친히 정벌하여 이를 멸하였다.

오월 정해일(丁亥日)에 성왕이 군사를 정돈하여 염나라를 떠나, 주나라 호경에 돌아오니 제후들이 모두 와서 조회하였다.

주공이 성왕의 명을 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그대들 관·채·곽(管蔡霍) 등 은나라 백성과 여러 지방의 백성에게 고하오. 그대들 은나라 제후와 관장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떳떳한 일이 아니나 내가 차마 죽여 버리지 못하고 모든 사람의 목숨을 살려 준 것을 그대들은 깊이 해아려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오.

염나라 사람이 크게 사사로운 뜻으로 하늘의 명을 도모하고자 하여 방자하게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영원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받들 생각을 하지 않고 실패한 그 자취를 다시 밟으려 하는가?

옛날 하나라의 결(桀)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늘이 재앙과 이변을 내려, 하나라의 결을 바르게 일깨워 두려운 마음으로 닦고 살피도록 하였소. 그러나 결왕은 전연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너무나 안일함을 즐기며 백성들을 걱정하는 말조차 하지 않았소. 음란하고 혼미해서 종일토록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조금도 힘쓰지 않았던 것이오. 이로 인하여 하느님께서는 진노하시어 하늘의 명을 거두었으니, 그에 대하여는 그대들 은나라 백성들이 일찍이 들은 바 있을 것이오.

하나라의 결이 하느님을 속이고 하늘의 명을 억지로 도모하려 하여, 백성들의 생활 바탕인 의식(衣食)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던 것이오. 이에 준엄한 형벌을 내려 하나라에 어지러움을 더하게 하였던 것이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안으로 총애 받는 사람이 그 집안을 어지럽히기 시작했던 것이오. 그러므로 어진 정사를 행하여 민중으로부터 공경을 받지 못하고, 또한 스스로 공경을 베풀어 백성들에게 너그러이 대하지 못했던 것이오. 또한 하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탐내고 성내는 사람들이 그를 본받아 하나라의 도읍에 코를 베거나 상해하는 일이 번다하였소.

하늘이 백성들의 주인 될 사람을 구함에 은나라를 돌보시어 크게 밟고 아름다운

명을 성군인 탕임금에게 내려 백성들의 주인이 되게 하고 형벌을 내려 하나라를 진멸시켰소.

하늘이 하나라를 돋지 않고 벌을 내림이 이렇듯 컸던 것이니 그대들이 비록 여러 지방의 의로운 백성이라 하더라도 모두 그 마음을 미루어 오래도록 일을 맡아보고 길이 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 못했던 것이오. 하나라에서 공경하던 많은 관리가 모두 탐욕스럽고 포악스러워 정치에 밝지 못하고 나라의 백성들을 안보하지 못하여, 이에 서로 그 백성들을 학대하고 사농공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방해를 받아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던 것이오.

이에 탕임금이 한결같이 덕을 하늘에 이르게 하니, 능히 그대들 여러 지방을 다스릴 인물로서 마땅하므로, 하나라의 곁에 대신하여 백성들의 주인이 된 것이오.

탕임금은 임금으로서 백성들이 의지할 바 도리를 삼가서 그 백성들에 권면하였으므로, 백성들이 기쁘게 복종하여 탕 임금을 모범으로 삼고 아랫사람을 권면하였던 것이오.

탕임금으로부터 제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집안의 법을 잘 지키고 그 법을 밝혔으며 그 법을 삼가지 않음이 없었소. 따라서 능히 백성들을 부지런히 힘쓰게 하였던 것이오.

상나라의 선왕이 큰 죄를 지은 범인에 대해서는 그 많은 죄수를 사형에 처하되, 감히 경솔하고 방종하지 않았으며 백성들도 또한 능히 부지런히 힘써서 악한 일을 하지 않았소. 또한 무고한 사람을 석방하여 그릇됨이 없게 하니 백성들도 또한 서로 권면해 선행에 힘썼던 것이오.

상나라의 밝으신 임금이 이와 같이 하였으나 이제 그대들의 임금에 이르러 융성하는 여러 지방을 가지고도 앉아서 하늘의 명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으니 깊이 민망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五月(오월) : 주공이 낙읍을 감독한 지 5년째 되던 해(성왕 11년) 5월.

宗周(종주) : 호경(鎬京)을 가리킴.

大降爾命(대강이명) : 그대들의 목숨을 돌봐 주었다는 말.

降格(강격) : 강림의 뜻으로 복을 내리는 것.

甲(갑) : 익숙의 뜻.

靈承(영승) : 잘 받드는 것.

日欽(일흔) : 날로 성해지는 것.

剷割(의할) : 재할(宰割)과 같이 멋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

顯休命(현휴명) : 밝고 아름다운 천명.

大不克開(대불극개) : 백성들의 의지(依支)를 능히 타개해 주지 못했다는 뜻.

享(향) : 안락을 누리는 것.

要囚(요수) : 죄수를 가두는 것.

今(금) : 근자의 뜻. 이즈음의 임금은 주왕(紂王)을 가리킴.

2 “오오! 임금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소. ‘그대들 여러 나라에 고하노니, 하늘이 하나라 임금을 버린 것도 아니고 하늘이 은나라 임금을 버린 것도 아니오. 그것은 그대들 임금이 그대들 여러 나라와 함께 하늘의 명을 너무 멀리하여 나쁜 평판이 있었기 때문이오.

하나라 임금은 그의 정사를 도모하되 그 자리를 누리려 하지 않아, 하늘은 이에 멸망을 내리시어 다른 나라로 그를 대신하게 하셨소.

곧 그대들 상나라 뒷 임금도 즐김에 빠져 정사를 멀리하여 깨끗이 제사 지내지도 않았으니 하늘은 멸망을 내리셨던 것이오.

성인이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고 바보라도 생각할 줄 알면 성인이 되는 것이니, 하늘은 오 년 동안 그 자손들에게 시간을 주어 기다리며 백성들의 임금으로서 크게 되길 바라셨으나, 생각하고 들으려 하지 않았소.

하늘은 그대들 여러 나라를 문책하시고 크게 위엄을 떨쳐서 그들을 깨우쳐 하늘을 돌보게 하셨소. 그러나 그대들 여러 나라는 그것을 감당하며 돌아볼 만하지 못하였소.

우리 주나라 임금은 백성들을 잘 받들고 데성을 행할 만하시어 신과 하늘만을 본받았소. 하늘은 이에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가르치고, 은나라의 명을 크게 주시어 그대들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소.

지금 내가 어찌 감히 여러 말을 하겠소? 나는 오직 그대들 사방 여러 나라 백성들

의 목숨을 크게 돌보아 주려 하오. 그대들은 어찌하여 그대들 여러 나라를 믿게 하여 너그럽게 하지않소? 그대들은 어찌하여 우리 주나라 임금이 누리는 하늘의 명을 도와주어 잘 다스리게 하지 않소? 지금 그대들은 오히려 그대들의 집에 살고 그대들의 밭을 갈고 있으면서, 그대들은 어찌하여 임금에게 순종하여 하늘의 명을 빛내려 하지 않소?

그대들은 자주 정숙한 행동을 하지 못했으며 그대들은 자애롭지 못했소. 그대들은 천명을 크게 편안히 하지 않으려오? 그대들은 천명을 가볍게 버릴 작정이오? 그대들은 법도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서도 올바른 사람에게 믿어 주기를 꾀하오?

나는 오직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들을 조심해서 잡아가두되 두 번은 보아 주고 세 번까지도 보아 주겠소. 그래도 내가 그대들의 목숨을 돌보아 주려는 뜻을 알아주지 못한다면 나는 할 수 없이 그대들을 크게 벌할 것이오. 우리 주나라 임금이 덕으로써 편안히 해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대들 스스로가 죄를 불러들이기 때문이오'라고 하셨소."

嗚呼! 王若曰：‘誥告爾多方，非天庸釋有夏，非天庸釋有殷。

乃惟爾辟，以爾多方，大淫圖天之命，屑有辭。【此章之上，當有闕文。】

乃惟有夏圖厥政，不集于享，天降時喪，有邦間之。

乃惟爾商後王，逸厥逸，圖厥政，不蠲烝，天惟降時喪。

惟聖罔念作狂，惟狂克念作聖，天惟五年須暇之子孫，誕作民主，罔可念聽。

天惟求爾多方，大動以威，開厥顧天。惟爾多方罔堪顧之。

惟我周王靈承于旅，克堪用德，惟典神天，天惟式教我用休，簡畀殷命，尹爾多方。

今我曷敢多誥。我惟大降爾四國民命。

爾曷不忱裕之于爾多方？爾曷不夾介乂我周王享天之命？今爾尚宅爾宅，畋爾田，爾曷不惠王，熙天之命？

爾乃迪屢不靜，爾心未愛？爾乃不大宅天命？爾乃屑播天命？爾乃自作不典，圖忱于正？

我惟時其教告之，我惟時其戰要囚之，至于再，至于三。乃有不用我降爾命，我乃其大

罰殛之。非我有周秉德不康寧，乃惟爾自速辜。”

[통석] 주공은 성왕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하였다.

“그대들 여러 지방 사람에게 고하오. 하늘은 하나라를 버릴 마음이 없었고 또한 온 나라를 버릴 생각도 아니 하였소. 다만 하나라의 걸(桀)과 온나라의 주(紂)가 하늘의 명을 스스로 끊고 스스로 멸망을 불렀던 것이오. 그대들의 임금이었던 상나라의 주가 그대들 여러 지방이 부유하고 번성함을 믿고, 크게 음일(淫佚)하고 방자해서 사사로운 뜻을 가지고 하늘의 명을 도모하려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번다한 속이는 말을 하니 어찌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소?

하나라 걸이 그 나라와 정사를 도모하는 바가 무도함을 일삼아서 그 나라를 향유하지 못하고 멸망을 쫓아가니 하늘이 어지러움을 내려 망하게 하고 상나라로 바꾼 것이오.

그대들 상나라의 뒷 임금인 주가 안일한 임금 자리에서 더욱 거칠고 게을러서 국정을 도모함이 모두 무도하고 정당하게 나아가지를 못하는지라, 하늘이 어지러움을 내려 우리 주나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한 것이오.

오직 통달하고 밝은 성인이 그 타고난 바탕이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살피고 염려하지 않으면 사사로운 뜻이 가로막아 도리어 어둡고 어리석은 광인이 될 것이며, 어둡고 어리석은 광인이 그 바탕은 비록 비루하다 하더라도 능히 잘 살피고 분발하면 그 기질이 변화되어 명철하고 밝은 성자가 될 수 있는 것이오. 주가 어둡고 어리석다고 하더라도 고쳐질 가능성은 있으므로 하늘이 급히 이를 끊어 버리지 않고 5년 동안이나 기다리며 탕나라의 자손으로서 너그러워질 틈을 준 뒤, 그 뜻을 고쳐 크게 백성의 주인이 될 것을 바랐던 것이오. 그러나 주가 마침내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선행도 생각하려 들지 않고, 또한 들으려 하지도 않았었소. 이것이 하늘이 상나라를 버린 까닭이오.

하늘이 크게 일깨우고 재앙과 이변으로 경고하는 위엄을 베풀어 그대들 여러 나라에서 밝은 임금을 구하려 하였었소. 곧 상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을 알려 하늘의 보

살핌을 받을 사람을 찾아내려 했던 것이오. 그러나 그대들 여러 나라의 사람 가운데 하늘의 보살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지라 결국 주나라에 그 명이 돌아온 것이오.

우리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은 어진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또한 존경을 받게 되어 어진 정사를 베풀어 감에 덕을 펴서 여러 귀신과 하늘의 일을 주관하였소. 하늘이 우리 문왕과 무왕에게 가르치니 덕업이 날로 성하여 아름다움에 이르렀소. 이에 은나라의 명으로 간택하고 도와서 천자가 되어, 그대들 여러 나라의 제후들을 다스리게 된 것이오.

이제 내가 어찌하여 여러 말로 그대들에게 훈계하는가? 나는 오직 그 사방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생명을 보전토록 용서하려는 마음에 서요.

그대들은 어찌하여 정성스럽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대들 여러 나라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지 않는가? 그대들은 어찌하여 서로 도와서 우리 주나라를 보호하여 하늘에서 정한 명을 편안히 누리게 하지 않는가? 또한 그대들이 반란함은 마땅히 법에 따라 별을 내릴 일이고.

이제 그대들은 오히려 그대들의 안정된 집에서 살며 그대들의 전답을 가꿀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은덕이 지극히 두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대들은 어찌하여 우리 왕실에 순응하여 하늘의 새로운 명을 밝히려 하지 않는가?

그대들 사방 나라의 백성들이 행하는 일이 점점 더 안정되지 못하고 스스로 죽임을 당하려 하니 그대들은 몸을 아낄 줄 모르는가? 그대들은 크게 하늘의 명에 편안할 줄을 모르는가? 그대들은 하늘의 명을 경솔하게 버리고 믿지 않을 작정인가? 그대들이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여 도리어 바른 사람에게 믿도록 꾀하려 하는가?

내가 오직 가르치고 훈계하여 삼가서 죄를 다스림이 이미 두세 번이었소. 이제부터는 그대들이 만약 생명을 용서하고 살려준 것을 저버리고 반란을 계속한다면 나는 마땅히 크게 형벌을 내려 사형에 처하려 하오. 이는 덕을 가진 주나라의 임금이 편안치 못해서 엄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 자신이 흥측한 역적이 되어 그 죄를 재촉한 것일 따름이오.”

庸釋(용석) : 저버리는 것.

有辭(유사) : 나쁜 평판이 있는 것.

商後王(상후왕) : 주왕(紂王)을 가리킴.

降爾四國民命(강이사국민명) : 그대들 사방 여러 나라 백성들의 목숨을 돌봐주겠다는 뜻.

畋(畋) : 경작의 뜻.

不典(부전) : 법도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것.

教告之(교고지) :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

戰(전) : 두려워하듯 조심함.

有不用(유불용) : 알아주지 않는 자가 있다는 뜻.

速辜(속고) : 속은 초래의 뜻으로 허물을 불러들인다는 말.

3 임금께서 말씀하셨소.

“아아! 그대들 여러 나라의 모든 관리들과 온나라의 여러 관리들에게 고하오. 지금 그대들이 부지런히 우리 감독관을 섬긴 지 오 년이 되었소.

여러 관리들과 높고 낮은 여러 관장들이여! 그대들은 그대들 스스로 법을 지키지 못해서는 안 되오.

스스로 불화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대들은 오직 화합하도록 하오. 그대들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그대들이 오직 화목하게 해야 하오. 그대들의 고을이 밝고서야 그대들의 일을 부지런히 할 수 있을 것이오. 그대들은 바라건대 흉악한 행동을 크게 미워하고 또한 공경함으로써 그대들의 자리를 지키며 그대들의 도읍을 잘 살펴 돌도록 하오.

그대들이 지금부터 낙읍에서 언제나 그대들의 밭을 힘써 갈면 하늘도 그대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엾게 여기실 것이오. 또한 우리 주나라 임금도 크게 도와주며 그대들에게 상을 주고선 선별하여 임금의 궁전에 있게 할 것이오. 바라건대 그대들은 일에 힘쓰시오. 그러면 큰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오.”

임금님이 말씀하셨소.

“오오! 여러 관리들이여! 그대들이 나의 명령을 행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또한 안락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며, 모든 백성들도 안락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오. 그대들이 방탕하고 비뚤어진 짓을 하여 임금의 명령을 어긴다면 그 대들 여러 나라는 하늘의 위엄을 건드리는 것이고, 나도 천벌을 가해 그대들을 사는 땅에서 멀리 쫓아내게 될 것이오.”

임금님이 말씀하셨소.

“나는 여러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삼가 그대들에게 명령을 고하오.”

또 말씀하셨소.

“그대들이 처음부터 화합하기에 공경하지 못한다면 다음에 나를 원망하지는 마오.”

王曰：“嗚呼！猷告爾有方多士暨殷多士！今爾奔走臣我監五祀。

越惟有胥伯小大多正！爾罔不克臬！

自作不和，爾惟和哉！爾室不睦，爾惟和哉！爾邑克明，爾惟克勤乃事。

爾尚不忌于凶德，亦則以穆穆在乃位，克闢于乃邑謀介！

爾乃自時洛邑，尚永力畋爾田。天惟畀矜爾，我有周惟其大介賚爾，迪簡在王庭，尚爾事。有服在大僚。”

王曰：“嗚呼多士！爾不克勸忱我命，爾亦則惟不克享，凡民惟曰不享。爾乃惟逸惟頗，大遠王命，則惟爾多方【疑當作“多士”】探天之威，我則致天之罰，離逖爾土。”

王曰：“我不惟多誥，我惟祇告爾命。”

又曰：“時惟爾初，不克敬于和則無我怨。”

[통석] 주공은 왕명으로 말하였다.

“오오, 그대들 여러 지방 많은 관리들과 온나라의 여러 관리들에게 고하오. 이제 그대들이 내가 명하는 관직에 나아가 신하로서 복종한 지가 어언 5년의 세월이 흘렀소.

온나라 신하들로서 낙읍에서 관직을 받은 관리들과 여러 관장들은 마땅히 계으름

을 부리지 말고 몸소 동화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오.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몸이 화순하지 못하며 몸이 안정되지 못하면 그대들의 집안이 화목하지 못할 것이니, 그대들의 몸을 화하고 순하게 가지도록 하오. 이로 인하여 그대들의 새 도읍 사람들이 보고 느껴서 농히 밝아질 것이니, 그대들의 백성을 교화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오.

그대들 많은 관리들이 거의 마음을 편안하고 넉넉하게 가져서 완악한 백성들의 흥한 덕을 두려워하고 끼리지 않으니, 백성에게 임할 때에는 모름지기 화하고 공경하는 얼굴을 가지도록 하오. 또한 그대들의 벼슬자리에 있음에 다른 사람의 우러름을 받아 패역하는 기운을 눌러 진정시키고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오.

또한 그대들의 고을에 있는 어진 사람을 찾아뵙고 그의 도움을 받으면 관악한 백성들이 변혁되고 동화될 것이니 어찌 두려워할 것인가?

그대들 은나라의 많은 관리들이 이 낙읍에서 영원토록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논밭을 갈게 된 것은 하늘이 그대들을 돋고 가엾게 여기신 바이며 우리 주나라 또한 그대들을 크게 돋고 혜택을 주어 잘 인도하고 발탁해서 조정에 서게 하였으니, 그대들이 맡은 일에 충실함으로써 주나라를 도우면 대신의 자리에 나아가기도 어렵지 않을 것이오.”

주공은 왕명으로 또 말하였다.

“오오, 은나라의 많은 관리들이여, 그대들이 만약 내가 명한 말을 서로 권면하지 않고 또한 믿지 않으면 그대들은 그 직책을 다해 위(位)에 서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며, 낙읍의 백성들도 또한 이를 본받아서 위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그 자리를 누리지 못하리라고 말할 것이오.

그대들이 방탕하고 치우쳐서 크게 하느님의 명에 거스름이 있으면 은나라 많은 지방의 관리들이 스스로 하늘의 위엄을 초래하고 해를 몸에 얹을 것이니, 나는 하늘의 별을 시행하여 그대들의 부모와 처자를 뿔뿔이 헤쳐서 그대들을 고향에서 멀리 떠나게 하겠소.”

성왕은 이어서 말하였다.

“내가 이처럼 많은 말로 훈계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를 즐겨서가 아니라, 다만 공경

하는 마음으로 그대들에게 부지런히 힘쓸 것을 고하기 위해서이오.

이는 그대들이 오직 허물을 고치고 선을 행하는 시초가 될 것이오. 그대들이 만약 몸을 화하고 집안을 화목하게 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오히려 반란하던 옛 습관에 젖어 있으면 스스로 죽음을 초래할 것이며, 따라서 나는 잔인한 일을 행하게 될 것 아니 원망하지 않도록 하오.”

我監(아감) : 우리의 낙읍의 감독관, 즉 주공을 가리킴.

五祀(오사) : 5년.

胥伯(서백) : 여러 관리들.

正(정) : 장관의 뜻.

穆穆(목목) : 삼가 공경하는 모양.

迪簡(직간) : 간택해 내는 것.

在王庭(재왕정) : 왕의 조정에서 일하게 되는 것.

有服(유복) : 직함을 갖게 되는 것.

大僚(대료) : 큰 관리.

頗(파) : 편파된 짓을 하는 것.

探(탐) : 건드린다는 뜻.

離逃(이적) : 멀리 떠나게 하는 것.

입정(立政)

이 편은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어진 인재를 임용하여 정치를 바로잡을 것을 경계한 글이다. 이 편에 나오는 입정(立政)이란 말로 편명을 삼았는데, 그 뜻은 ‘정치를 세운다’, ‘바른 관리를 세운다’는 뜻이다. 금문과 고문에 다 들어 있다.

1 주공이 이렇게 아뢰었다.

“손을 이마에 대고 큰절하며 천자의 자리를 이은 임금님께 고합니다.”

여러 신하들도 모두 임금께 경계하며 아뢰었다.

“임금님의 좌우에는 상백(常伯)과 상임(常任)과 준인(準人)과 철의(綴衣)와 호분(虎賁)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주공이 아뢰었다.

“오오! 모두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근심할 줄 아는 이는 몹시 드뭅니다.

옛날 사람 중에 올바로 행한 것은 오직 하나라 때이니, 곧 왕실이 크게 강성할 때에는 뛰어난 이를 불러 하느님을 공경하며 아홉 가지 덕행을 충실히 행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그들의 임금에게 교훈하여 아뢰기를, ‘손을 이마에 대고 임금님께 큰절을 올립니다’ 하고는 말하기를, ‘당신의 일을 바르게 맡기시고, 당신의 주목을 바르게 임명하시며, 당신의 법을 바르게 맡기면 임금 노릇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얼굴만 보고 취하여 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임명하시면, 세 가지 벼슬을 임명하는 데 옳은 백성이 없게 될 것입니다’ 했습니다.

걸(桀)의 행덕은 옛날 임용하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포악한 행동을 일삼았기 때문에 뒤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탕 임금이 즉위하시어 하느님의 빛나는 명을 크게 다스리시고, 세 가지 벼슬에 임명하니 나아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며, 세 직위의 사람들이 천거한 뛰어난 이들은 나아가 뛰어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엄연히 크게 법이 있어 세 가지 일에 임명된 사람들과 세 사람들이 천거한 뛰어난 사람들을 쓸 수가 있었으니, 그들은 상나라 고을에 있어서는 그 고을에 화협하였

으며, 사방의 나라에 있어서는 크게 본받을 덕을 나타내었습니다.

오오! 주(紂)의 행덕은 강포함이 있어 형벌을 쓰고 포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그의 나라를 함께 다스렸으며, 여러 그릇된 행동이 습관화한 사람들과 함께 다스렸으니, 하느님은 삼가 그를 별하시어 우리 중화 나라로 하여금 상나라가 받았던 명을 대신하여 만백성을 어루만져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또한 문왕과 무왕께서는 세 자리 일을 맡긴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으며, 세 사람이 천거한 뛰어난 사람들의 마음을 환히 보심으로써 하느님을 섬기시고 백성들의 관장을 세우셨습니다.

정사를 세울에는 일을 맡아 할 사람과 법을 맡을 사람과 고을을 다스릴 사람을 임용하여 세 가지 일을 맡도록 하셨습니다.

호분과 철의와 추마와 소윤과 좌우에서 일을 돋는 사람들과 재물과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큰 고을의 장과 작은 고을의 장 및 시중하는 사람들, 나라 땅의 경계를 관장하는 사람들의 여러 관리들이 있었고, 태사(太史)와 관장의 여러 일정한 훌륭한 관리가 있었고, 사도와 사마와 사공과 아려(亞旅)가 있었고, 이(夷) 땅 · 미(微) 땅 · 노(盧) 땅 · 증(烝) 땅 · 삼박(三毫) 땅 · 판(阪) 땅의 윤(尹)이 있었습니다.

문왕께서는 그가 임명한 분들의 마음을 아시어 일정한 정사를 베풀고 고을을 다스릴 사람을 세우시되, 뛰어나고 덕 있는 이를 쓰셨습니다.

문왕께서는 모든 명령과 모든 송사와 여러 삼가게 하는 일을 겸하여 처리하지 않으시고, 일을 맡고 있는 고을을 다스리는 이들을 따르고 어기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송사와 여러 가지 삼가게 하는 일을 문왕은 감히 알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무왕께서도 안정된 공을 쫓으시어 감히 의로운 덕을 잊지 않으셨으며, 너그러운 덕을 도모하고 따르심으로써 이 크나큰 터전을 모두 받게 되셨던 것입니다.”

周公若曰：“拜手稽首，告嗣天子王矣。”用咸戒于王，曰：“王左右常伯、常任、準人、綴衣、虎賁。”周公曰：“嗚呼！休，茲知恤鮮哉。

古之人迪惟有夏，乃有室大競，籲俊尊上帝，迪知忱恂于九德之行，乃敢告教厥后曰：‘拜手稽首后矣。’曰：‘宅乃事，宅乃牧，宅乃準，茲惟后矣。謀面用丕訓德，則乃宅人，茲乃三宅無義民。’

桀德，惟乃弗作往任，是惟暴德，罔後。

亦越成湯陟。丕釐上帝之耿命，乃用三有宅，克卽宅，曰三有俊克卽俊。嚴惟丕式，克用三宅三俊，其在商邑，用協于厥邑，其在四方，用丕式見德。

嗚呼！其在受德暨，惟羞刑暴德之人，同于厥邦，乃惟庶習逸德之人，同于厥政，帝欽罰之，乃俾我有夏，式商受命，奄甸萬姓。

亦越文王、武王，克知三有宅心，灼見三有俊心，以敬事上帝，立民長伯。

立政，任人準夫牧作三事。

虎賁、綴衣、趣馬、小尹、左右携僕、百司、庶府，

大都、小伯、藝人、表臣百司、太史、尹伯、庶常吉士。

司徒、司馬、司空、亞旅，

夷、微、盧烝、三毫阪尹。

文王惟克厥宅心，乃克立茲常事司牧人，以克俊有德，

文王罔攸兼于庶言庶獄庶慎，惟有司之牧夫，是訓用違。

庶獄庶慎，文王罔敢知于茲。

亦越武王率惟敉功，不敢替厥義德，率惟謀從容德，以竝受此丕不基。

[통설] 성왕이 처음 정사를 시작할 때에 주공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임금님께 경계하는 말을 하면서 이와 같이 기렸다.

“우리 모든 신하들은 두 손을 이마에 대고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위를 이어 천자가 되신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여러 관직에 있는 모든 신하들 역시 주공이 기리는 말에 동의하여 임금님께 경계하여 아뢰었다.

“임금이 되신 분은 사람을 등용하는 일을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임금님의 좌우에

있는 신하 가운데 백성을 기르는 상백과 일을 맡은 상임과 법을 지키는 준인 등의 세 관직은 대신 가운데 높은 지위에 있으며 임금이 높이는 신하입니다. 또한 의복과 그릇을 관장하는 철의와 활 쏘고 말 타는 일을 주관하는 호분이 있으니, 이는 가까운 신하의 관장이며 임금의 친근한 신하입니다. 맡은 임무를 삼가서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공이 말하였다.

“오오, 아름답도다. 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여! 그러나 그 자리에 마땅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걱정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옛날에 능히 걱정할 줄 아는 도를 실천한 사람이 있었으니 하나라의 우 임금께서 그리하셨습니다. 당시에 왕실은 이미 크게 경성(競盛)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질고 준결스러운 선비들을 불러들여서 벼슬자리를 주고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시행하였습니다.

허나 다만 임금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대신들도 또한 여러 신하 가운데 고요(阜陶)가 말하는 아홉 가지 덕을 실천하는 사람을 탐지해서 진실로 믿고 그 임금에게 고해 아뢰면서 두 손을 모아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 임금께서는 임금의 도리를 다하고 계십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라의 신하가 또 아뢰기를, ‘이 아홉 가지 덕을 갖춘 사람을 기용하여 일을 맡는 벼슬을 주시고, 백성을 기르는 벼슬을 주시며, 법을 지킬 벼슬자리를 정하여 주심이 오직 임금된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 헛되이 얼굴만 보시고 크게 덕에 따르는 사람이라 하여 그릇되게 이를 믿고 그 사람을 세 벼슬자리에 정하시면, 이는 곧 삼관(三官)을 정하심이 그 사람을 잊게 하는 것이며, 다시 의리를 아는 백성을 없애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라의 걸이 악덕을 자행하여 옛날 선왕들이 세 가지로 임용 하시던 일을 행하지 않고 포악한 사람을 임용함으로써 결국 멸망하여 뒤가 끊기고 만 것입니다.

상나라의 탕임금께서도 제후로부터 천자가 되어 크게 하느님의 빛나는 명을 잘 다스렸습니다. 곧 널리 어질고 밝은 사람을 구하여 상백 · 상임 · 준인 등 삼택(三宅)

의 벼슬로써 능히 그 정한 자리에 나아가 그 직책을 비우지 않았으며, 이른바 세
준재들은 준재로서의 덕을 닦아 그 이름이 흔들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엄하고 공경하게 행할 일을 생각하고 또한 크게 법을 세워 삼택의
위(位)에 있는 사람과 세 준재가 천거한 사람을 임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나라
도읍의 근처에 있는 백성은 그 고을에 협동하였고, 사방의 먼 곳에 있는 사람도 또
한 크게 본받아서 가까이 탕임금의 덕을 보는 듯하였습니다.

오오, 그 후세인 수(受)에 있어서 그 덕이 억세고 사나워서 세 일을 맡은 대신이 형
벌을 승상하고 흉악하고 포학한 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께서는 크게 노하시어 삼가 벌을 내리시어 우리 주나라에 중원의 땅을 맡기시고,
상나라에서 받은 하늘의 명을 가지고 문득 천하의 만백성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나라 문왕·무왕대에는 능히 세 벼슬을 맡은 사람의 마음을 확연히
아셨으며, 밝게 세 준재들의 마음 쓰는 바를 아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삼택·삼
준의 신하와 함께 삼가 하느님을 섬기시고 이들을 백성들의 관장으로 세우셨습니
다.

대개 정사를 세우는 벼슬에는 임인·준부·목부 등이 있어서 일을 맡고 법을 지키
고 백성을 기르는 세 가지 큰일을 실시하였습니다.

가까이 모시는 벼슬로는 호분과 철의가 있으며 말을 주관하는 추마(趣馬)와 작은
벼슬의 관장과 좌우에서 시중드는 사람이 있었으며, 또한 안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사도와 사마의 무리가 있었고, 여러 고을에는 내부와 태부 등이 있었습
니다.

또 고을의 벼슬에는 큰 고을의 관장과 작은 고을의 관장이 있고, 재주를 가지고 임
금을 섭기는 예인이 있었으며, 바깥 신하로 여러 관직 밖에 사복 등이 있었고, 태
사는 언동을 기록하고 윤백(尹伯)은 유사(有司)의 관장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삼택
등 가까운 신하로부터 고을의 여러 벼슬에 이르기까지 모두 떳떳한 덕을 갖춘 훌
륭한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제후의 벼슬로는 사도가 교육을 담당하고 사마가 군사를 담당하고 사공이 토지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경의 밑에는 아려(亞旅)(차관)들이 있었습니다.

왕관(王官)으로서 제후와 사방의 오랑캐를 살피는 사람으로는 오랑캐 나라에 미(微)와 여(廬)와 증(烝)과 삼박(三毫)과 판(阪)이 있었으니, 모두 혐준한 땅으로 제후를 봉하지 못하고 윤(尹)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 바, 모두 마땅한 사람을 얻어 다스리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문왕께서는 그가 임명한 삼택의 마음을 명확히 알았으며 믿고 일정한 일을 맡겨 다스리니 모두 뛰어나고 덕망 있는 군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문왕께서는 이미 쓸 만한 사람을 얻으면 오로지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구태여 스스로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는 일과 송사에 대한 재판과 여러 가지 국법으로 금하는 일을 혼자서 겸하여 처리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일을 맡은 사람들이 명령을 시행하는가 어기는가에 대하여만 훈계하고 감시할 따름이었습니다.

모든 송사와 여러 가지 금지 사항에 대하여, 삼가도록 하는 일에 문왕께서는 스스로 이것을 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태여 마음속에 두지도 않았으니, 그 사람에게만 오로지 함께 맡긴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명령은 임금으로부터 발하는 것 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무왕에 이르러 문왕께서 천하를 안정시킨 공렬(功烈)에 따르고자 하였으므로, 그가 쓰시던 의로운 덕을 갖춘 사람으로서 어지러움을 평정하여 바른 데로 돌아가게 한 사람을 폐하여 교체하지 않았으며, 문왕께서 천하를 안정시킨 계책에 따르고자 하였으므로, 그가 쓰시던 너그러운 덕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선행을 즐기는 도량을 지닌 분을 그전처럼 신임함으로써 커다란 왕업의 터전을 이어받으신 것입니다.”

常伯(상백) : 임금 바로 밑에서 나랏일을 처리하는 삼공 구경(三公九卿) 같은 사람들.

常任(상임) : 지방장관들.

準人(준인) : 법을 맡아 처리하는 관리.

綴衣(철의) : 궁중 의복을 맡은 관리.

虎賁(호분) : 임금을 호위하는 무관.

室(실) : 왕실의 뜻.

迪知(적지) : 행하여 아는 것.

忧恂(침순) : 충실한 것.

九德(구덕) : 고요모(皐陶某)에 나오는 아홉 가지 덕.

宅(택) : 적임자를 임명하는 것.

事(사) : 정사의 뜻.

牧(목) : 주목(州牧).

謀面(모면) : 얼굴이나 곁에 나타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

三宅(삼택) : 상임 · 상백 · 준인 또는 정사를 맡은 사람,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 법을 다스리는 사람.

弗作(불작) : 행하지 않는다. 따르지 않다의 뜻.

往任(왕임) : 옛날에 임용하던 방법.

亦越(역월) : 또한의 뜻. 월(越)은 조사.

三有宅(삼유택) : 삼택을 임명하는 것.

克卽宅(극즉택) : 직위에 나아가 일을 잘 감당하였다는 뜻.

三有俊(삼유준) : 삼택의 사람들이 천거한 훌륭한 사람들.

受(수) : 주왕(紂王)의 이름.

羞刑(수형) : 형별로 만백성을 다스리려는 것.

有夏(유하) : 중화의 뜻으로 주(周)나라를 가리킴.

長伯(장백) : 관장.

任人(임인) · 準夫(준부) · 牧(목) : 삼택, 즉 상백 · 준인 · 상임을 지칭.

趣馬(추마) : 말을 관리하는 사람.

小尹(소윤) : 낮은 관리들의 장.

左右携僕(좌우휴복) : 임금의 옆에서 정사를 돋는 관리.

大都(대도) : 큰 고을의 장.

小伯(소백) : 작은 고을의 장.

藝人(예인) :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

表臣(표신) : 강계(疆界)를 짓는 일을 맡은 신하, 표(表)는 봉(封)의 뜻.

百司(백사) : 여러 가지 일을 맡은 사람들.

尹伯(윤백) : 관청의 장.

庶常吉士(서상길사) : 여러 일정한 직책을 가진 훌륭한 관리들.

司徒(사도) : 백성의 교육을 맡은 관리.

司馬(사마) : 군사를 맡은 관리.

司空(사공) : 토지와 농사일을 맡은 관리.

亞旅(아려) : 이상 여러 사람들의 차관.

微(미) · 蘆(노) : 오랑캐들의 이름.

烝(증) · 三毫(삼백) · 阪(판) : 모두 땅 이름.

以(이) : 임용.

宅心(택심) : 임명 받을 사람들의 마음.

克俊(극준) : 재능이 뛰어난 사람.

有德(유덕) : 덕 있는 사람.

庶言(서언) : 정부의 모든 명령.

庶獄(서옥) : 여러 가지 송사.

庶慎(서신) : 나라의 모든 금계와 방비.

2 “오오! 젊으신 임금이시여! 지금부터 우리가 정사를 세움에 있어 일을 맡을 사람과 법을 맡을 사람과 고을을 다스릴 사람을, 우리는 그가 순종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되, 우리가 받고 있는 백성들을 잘 돌보고 우리의 여러 송사와 여러 삼갈 일에 화하게 하시어 상관하지 마십시오. 한 마디 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끝내 덕을 이룬 선비를 생각하시어 우리가 받은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오오! 이 단은 남에게서 들은 훌륭한 말들을 모두 젊으신 임금님께 아립니다. 지금으로부터 문왕의 자손께서는 여러 송사와 여러 삼갈 일에 잘못됨이 없게 하시고, 오직 올바르게 다스리십시오.

옛 상나라 사람들과 우리 주나라 문왕께서는 정사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일을 맡은 사람과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과 법을 맡은 사람을 바르게 그 자리에 임명하셨으니, 이에 간택하여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나라란 정사를 세우지 않고 간사한 사람을 등용하여 덕을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정사를 세우는데 있어서 간사한 사람을 등용하지 마시고, 오직 착한 사람만을 등용하여 힘써 우리나라를 돋도록 하십시오.

지금 문왕의 자손이신 젊은 분이 임금이시니, 모든 송사를 그르치지 마시고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맡아 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군비를 삼가 우임금의 발자취를 따르고 널리 천하에 행해지도록 하여 바다 끝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문왕의 밝은 빛을 뚜렷이 하시며 무왕의 큰 덕을 선양하십시오.

오오! 지금 이후의 임금님은 정사를 세우심에 떳떳한 덕을 지닌 사람을 쓰도록 하십시오.”

嗚呼！孺子王矣。繼自今，我其立政，立事準人牧夫，我其克灼知厥若，丕乃俾亂，相我受民，和我庶獄庶慎。時則勿有間之！

自一話一言。我則末惟成德之彥，以乂我受民！

嗚呼！予旦已受人之徽言，咸告孺子王矣。繼自今，文子、文孫，其勿誤于庶獄庶慎，惟正是乂之！

自古商人，亦越我周文王，立政，立事牧夫準人，則克宅之，克由繹之，茲乃俾乂。

國則罔有立政，用儉人，不訓于德，是罔顯在厥世，繼自今立政，其勿以儉人，其惟吉士，用勸相我國家！

今文子文孫孺子王矣，其勿誤于庶獄，惟有司之牧夫。

其克詰爾戎兵，以陟禹之迹，方行天下，至于海表，罔有不服。以觀文王之耿光，以揚武王之大烈！

嗚呼！繼自今後王，立政，其惟克用常人！

[통석] “오오, 어린 임금님께서 이제 천하의 임금이 되시어, 마땅히 이전의 왕업을 이어서 지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정책을 수집하고 사업을 계획하는 공경(公卿)과 법을 지키는 준인(準人)과 백성을 기르는 상백(常伯)에 대하여 마땅히 그 마음의 따르는 바를 밝게 아셔야 합니다. 정치를 시행함에 크게 위임하여 우리가 받은 백성을 서로 돋게 하고, 여러 송사와 여러 가지 삼갈 일을 조화하게 하여 소인들의 참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모든 생각을 여기에 두어야 합니다. 한 마디를 할 때마다 덕을 이룬 어진 선비를 생각하여 우리가 받은 백성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오오, 저 단은 이미 여러 사람에게서 들은 아름다운 말과 우임금과 탕임금과 문왕과 무왕의 일을 모두 어린 임금님께 고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문왕과 무왕의 자손으로서 모름지기 문왕과 무왕께서 행하신 일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송사와 여러 가지 삼갈 일을 잘못해서 여러 직책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책을 맡은 관장에게 오로지 다스리도록 맡기셔야 합니다.

옛날의 성군이신 상나라의 탕임금으로부터 우리 주나라의 문왕에 이르기까지 정책을 세우는 도리에 있어서, 그 일을 세우는 임인(任人) · 목부(牧夫) · 준인(準人) 등 삼택(三宅)의 벼슬 같은 것은 모두 어진 사람을 간택해서 그 직책을 맡기고 또 이것을 유역(由繹)하여 채용할 것입니다. 이는 곧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입니다. 그 러므로 옛날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어진 사람을 기용하여 정치적 공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정책을 세우려 함에 아첨하는 소인을 채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첨하는 소인은 그 행동이 모두 덕에 따르지 않습니다. 만약 잘못 채용하시면 빛나는 사업을 이룩하기는 틀린 일입니다.

임금께서는 오늘부터는 정책을 세움에 절대로 아첨하는 소인을 채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착하고 훌륭한 사람을 등용하여 국가의 일을 돋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임금님께서는 문왕과 무왕의 자손이십니다. 어린 몸으로 왕위에 오르셨으니, 모든 행동을 문왕과 무왕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신하의 직책을 간섭해서 여러 송사를 그르치지 마시고, 오로지 이 책임을 맡은 목부(牧夫)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사로써 하늘의 토벌을 받드는 것은 형벌 가운데 더욱 큰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군사와 병기를 다스려 군비를 정돈함은 장차 왕자로서의 위엄을 멀리 떨쳐 우임금께서 구주(九州)를 다스리던 자취에 오르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위엄을 사방에 더하고 널리 천하에 행하여 사해(四海)의 바깥에 이르러, 두려워하고 복종하지 않음이 없어서 문왕의 빛나는 성덕을 더욱더 드러내시며, 또 무왕의 크신 업적을 드날려야 할 것입니다.

오오, 오늘부터 우리 주나라의 뒷임금이 정책을 수립함엔 모름지기 떳떳한 덕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 삼택의 일을 오로지 맡겨야 될 것입니다.”

我(아) : 우리 임금님의 뜻. 이하 동일.

受民(수민) : 하늘로부터 받은 백성.

文子文孫(문자문손) : 문왕의 자손. 문왕의 손자요. 무왕의 아들이라 해석하기도 함.

正是父之(정시예지) : 올바른 도리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것.

罔有立政(망유립정) : 정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것.

顯(현) : 덕을 밝히는 것.

常人(상인) : 일정한 덕이 있는 사람.

3 주공이 말하였다.

“태사(太史)와 사구(司寇)인 소공(蘇公)이여! 공경하여 그대들의 송사를 처리함으로써 우리 임금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하오. 이에 법도로 삼간다면 여러 가지 일에 알맞은 형벌을 쓰게 될 것이오.”

周公若曰：“太史！司寇蘇公。式敬爾由獄，以長我王國。茲式有慎，以列用中罰。”

[통석] 주공이 사관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는 태사(太史)가 되어 법을 집행하는 사람아니 반드시 사구(司寇)인 소공(蘇公)과 같이 일을 삼가도록 하오.

무왕 때에 소분생(蘇忿生)이 사구의 벼슬에 올라, 그 말미암은 바 송사를 공경하여 우리 왕국을 길이 뻗어나게 하였소. 그대 태사는 이를 본받아서 삼간다면, 능히 경중을 달아서 넘치고 모자람이 없는 알맞은 법을 시행하게 될 것이오.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원망하는 백성이 없어져서 우리 왕국의 아름다운 명이 무궁토록 이어지리라 믿소.”

太史(태사) : 사관의 장. 여기서는 이 말을 받아쓰도록 부른 것이다.

司寇(사구) : 법을 맡은 관리.

蘇公(소공) : 소분생(蘇忿生). 무왕 때부터 성왕 때까지 사구의 벼슬에 있었다.

由獄(유옥) : 송사를 처리하는 것.

中罰(중벌) : 알맞은 형벌.

주관(周官)

주관(周官)이란 주나라의 관리라는 뜻이다. 성왕(成王)이 백관들에게 그 직무를 다 할 것을 훈계한 말을 사관이 기록한 것이다.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는 들어 있다.

1 주나라 임금이 모든 나라들을 안무하며 후복과 전복을 순회하여 사방으로 내조(來朝)하지 않은 제후들을 쳐 만백성을 안정시키니, 여섯 복의 여러 제후들이 덕을 받들지 않는 이가 없게 되었다. 이에 호경으로 돌아와서 기다리는 관리들을 감독하여 바로잡았다.

惟周王撫萬邦, 巡侯甸, 四征弗庭, 綏厥兆民, 六服羣辟罔不承德。歸于宗周, 董正治官。

[통석] 우리 주나라의 임금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어루만지시고 나아가 후복과 전복의 나라를 순수(巡狩)하시고 또 사방의 내조하지 않는 제후를 정벌하여 억조의 백성들을 안정시켰다. 이때에 기내(畿內)의 제후와 후복·전복·남복·채복·위복·요복 등 육복의 제후가 모두 임금님의 덕성스러운 뜻을 받들어 따르지 않음이 없었다.

임금님께서는 주나라 호경에 돌아와 조정에서 일보는 여러 관리들을 감독하여 각 기 체통에 따르도록 하고 서로 침월(侵越)하지 못하게 했다.

侯甸(후전) : 후복과 전복. 육복 중에서 도읍에 가장 가까운 두 복.

四(사) : 사방.

弗庭(불정) : 내정(來庭)하지 않음, 즉 내조하여 복종하지 않는 제후를 뜻함.

辟(벽) : 제후.

2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큰 도(道)가 행해졌을 때에는 어지러워지기 전에 단속하셨고, 위태로워지기 전에 나라를 보호하셨소.”

또 말씀하셨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옛날을 상고하여 백 명의 관리를 세우셨으니, 안으로는 여러 가지 일을 맡은 관리와 사철의 정사와 사방의 산을 맡은 관리가 있었고, 밖으로는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과 제후가 있어서 모든 정사가 화협하고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평화로웠소. 하나라와 상나라는 관리를 배로 늘렸으나 역시 잘 다스렸소. 밝은 임금이 정사를 세우심에는 그 벼슬보다도 그 사람을 중히 여겼소.

지금 나, 작은 사람은 덕을 공경하고 부지런히 하여 아침저녁으로 미치지 못하듯이 하고 있으며 전대(前代)를 우러러 따르고자 하여 그대들 관리들에게 훈계하는 것이오.

태사(太師)와 태부(太傅)와 태보(太保)를 세웠으니, 이들이 바로 삼공(三公)이며 도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음양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오. 관직은 반드시 갖추어지지 않아도 좋으나 오직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오.

소사(小師)와 소부(小傅)와 소보(小保)는 이른바 삼고(三孤)니 삼공의 차관으로 교화를 넓히고 하늘과 땅을 공경하고 밝혀 나 한 사람을 돋는 것이오.

총재(冢宰)는 나라의 다스림을 장악하는 것이니, 여러 관리들을 거느려 온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것이오.

사도(司徒)는 나라의 교육을 장악하는 것이니, 오륜을 펴서 만백성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오.

종백(宗伯)은 나라의 예를 장악하는 것이니, 신(神)과 사람을 다스려 위아래를 화합하게 하는 것이오.

사마(司馬)는 나라의 정벌을 장악하는 것이니, 육군(六軍)을 거느려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오.

사구(司寇)는 나라의 금조(禁條)를 장악하는 것이니, 간악한 자를 심문하며 난폭한 자들을 벌주는 것이오.

사공(司空)은 나라 땅을 장악하는 것이니, 사방의 백성들을 살게 하며 지리를 시의에 맞추는 것이오.

이 육경들은 직책이 나뉘어 있고, 각기 그의 부하들을 거느려 아홉 주의 목들을 인도하여 만백성을 부하게 해주는 것이오.

육 년 동안에 다섯 복이 한 번 내조하며, 다음 육 년에는 임금이 계절에 맞추어 순수하여 사방의 산에서 제도를 고찰하는 것이오. 제후들이 각기 그 지방의 산으로 뵈러 오면 벼슬을 내리고 올리고 하여 크게 밝히는 것이오.”

王曰：“若昔大猷，制治于未亂，保邦于未危。”

曰：“唐虞稽古，建官惟百，內有百揆、四岳，外有州牧、侯伯，庶政惟和，萬國咸寧。夏商官倍，亦克用父。明王立政，不惟其官，惟其人。

今予小子祗勤于德，夙夜不逮，仰惟前代時若，訓迪厥官！

立太師、太傅、太保，茲惟三公，論道經邦，變理陰陽，官不必備，惟其人。

少師、少傅、少保，曰三孤，貳公弘化，寅亮天地，弼予一人。

冢宰掌邦治，統百官，均四海。

司徒掌邦教，敷五典，擾兆民。

宗伯掌邦禮，治神人，和上下。

司馬掌邦政，統六師，平邦國。

司寇掌邦禁，詰姦慝，刑暴亂。

司空掌邦土，居四民，時地利。

六卿分職，各率其屬，以倡九牧，阜成兆民。

六年，五服一朝，又六年，王乃時巡，考制度于四岳。諸侯各朝于方岳，大明黜陟。”

[통석] 임금님이 여러 관리들을 훈계하고 인도하여 말씀하셨다.

“옛날에 큰 도(道)가 세상에 행하여졌을 때에는 성덕을 갖춘 밝은 임금이 어지러워지기 전에 다스림을 절제하셨고, 위태로워지기 전에 나라를 잘 안보하였으므로,

오래도록 잘 다스려지고 안정되어 어지럽고 위태로운 재앙을 받지 않았었소.”

임금님이 그 일을 열거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요임금과 순임금 때에 옛 법을 참고하여 크고 작은 관직을 세우니, 그 수가 백 명이나 되었던 바 안으로 백규(百揆)와 사악(四岳)이 있어 조정에서의 정사를 모두 다스렸고, 밖으로는 주목과 후백이 있어 사방을 잘 다스렸소. 그 벼슬의 수는 비록 적었지만 체통을 문란하게 하지 않고 모든 정사를 오직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니 사방의 여러 나라가 다 편안할 수 있었던 것이오.

하나라의 우임금과 상나라의 탕임금 때에는 벼슬을 두고 정사를 세움이 요순 때에 비하면 배가 늘었으나 또한 여러 나라가 편안히 다스려졌었소. 이는 모두 명철하신 임금이 벼슬을 세우고 정사를 시행함이 그 벼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마땅한 사람을 얻는 데 있었던 것이오.

이제 나, 소자(小子)는 공경하여 덕을 닦기에 힘써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상 이에 미치지 못할까 저어하는 바이오. 오직 전대(前代)의 당우(唐虞)와 하상(夏商)을 우러러 빙들어 이에 따르고, 여러 관리들을 훈계하고 인도하려 하오.

이제 옛 법을 참작하여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의 벼슬을 제정하여 세우고 이를 삼공(三公)이라 일컫고, 오로지 임금과 하늘과 사람의 도리를 강론(講論)하여 나라를 경륜하게 하고, 만물이 각기 마땅함을 얻어서 음양의 운행을 화하고 빛나게 조화시키려 하오. 그러나 이 관직이 지극히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인원을 채우는 것을 앞세우지 않고, 모름지기 도덕을 온전히 갖춘 사람을 그 자리에 있게 하려 하오.

삼공의 밑에 또 소사(少師), 소부(少傅), 소보(少保)의 차관 벼슬을 세워 이를 삼고(三孤)라 일컫고, 삼공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덕화를 크게 넓히고 공경하여, 천지의 도를 밝게 드러내어 나 한 사람을 보필토록 하려 하오.

또 육경(六卿)이 있어 그 우두머리로 총재(冢宰)를 세워 천관(天官)의 벼슬을 삼고 나라를 다스리는 도를 주관하게 하여, 안팎의 여러 관리를 거느리게 하며 어진 이를 골라 직책을 나누어 사해(四海)를 평탄하게 고르고자 하오.

또 사도(司徒)를 세워 지관(地官)의 벼슬을 삼고 나라의 교화를 담당케 하여, 삼가

친하고 의롭고 분별 있고 차례 있고 믿음성 있게 하는, 다섯 가지 뜻뜻한 도리를 펴서, 천하의 조민(兆民)을 편안히 따르게 하려 하오.

또 종백(宗伯)을 세워 춘관(春官)의 벼슬을 삼고 나라의 의식을 주관하게 하여, 오로지 하늘과 땅과 사람과 귀신에 관한 일을 정제해서 다스리도록 하며 또 위아래와 높고 낮음의 차등을 조화시킬려 하오.

또 사마(司馬)를 세워 하관(夏官)의 벼슬을 삼고 나라의 군사에 관한 일을 맡도록 하여, 천자의 육군을 통어(統御)케 하고 정의를 침범하는 무리가 있으면 정벌하여 나라를 평안히 다스리려 하오.

또 사구(司寇)를 세워 추관(秋官)의 벼슬을 삼고 나라의 법률을 주관하게 하여, 간악함을 추궁하여 힘써 그 참다운 실정을 파악하고 포악함을 처형하여 벗어날 수 없게 하려 하오.

또 사공(司空)을 세워 동관(冬官)의 벼슬을 삼고 나라의 토지를 관장하게 하여, 사농공상(士農工商)에 종사하는 백성들이 저마다 마땅한 곳에서 일하게 하고, 기후에 따르고 지리를 때에 맞게 얻도록 하려 하오.

여섯 가지 벼슬자리가 이미 그 직책을 분장(分掌)하고 각기 소속된 관리를 거느려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구주(九州)의 목(牧)에 솔선하여 여러 관리들로 하여금 밖으로 교화를 선양해야 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정치의 공덕이 밝게 드러나 억조의 창생들을 두터이 교화하도록 해야 될 것이오.”

임금님께서는 이미 안에 있는 신하를 훈계하고 인도하였으며, 또 바깥 신하를 제어하는 법을 밝혔다. “6년 동안에 다섯 가지 복(服)의 땅에 있는 제후들이 서울에 와서 한 차례의 조회를 갖고 각기 자기의 직무를 고하며, 또 6년을 경과한 12년 만에는 임금 스스로가 제후들이 맡고 있는 지방을 순행함에 사악(四岳)에서 제도를 고찰하고, 오복(五服)의 제후들이 각기 폐백을 가지고 방악(方岳)의 밑에 내조하면 순수(巡狩)의 행차가 이르는 곳마다 매양 제후들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묻고 살펴서 내치고 올리는 법을 크게 밝히는 것이오.

大猷(대유) : 나라를 다스리는 큰 도.

唐虞(당우) : 당(唐)은 姜(堯), 우(虞)는 순(舜)의 나라 이름.

百揆(백규) : 여러 가지 정사를 맡은 관리.

四岳(사악) : 사철의 정사를 돌보고 사방의 산(동쪽의 태산, 남쪽의 형산, 서쪽의 화산, 북쪽의 항산)을 관리하는 사람.

太師(태사) : 임금을 가르치는 사람.

太傅(태부) : 임금의 일을 돋는 사람.

太保(태보) : 임금을 보호하는 사람.

貳公(이공) : 삼공의 차관.

冢宰(총재) : 재상과 같음.

五典(오전) : 오상, 오교라고도 하며, 오륜을 말함.

上下(상하) : 하늘과 땅, 신과 사람, 임금과 신하,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통틀어 일컫는 말.

六師(육사) : 천자가 관할하는 육군.

詰(힐) : 심문하는 것.

六卿(육경) : 천관 총재(天官 家宰) · 지관 사도(地官 司徒) · 춘관 종백(春官 宗伯) · 하관 사마(夏官 司馬) · 추관 사구(秋官 司寇) · 동관 사공(冬官 司空)의 여섯 사람.

九牧(구목) : 구주(九州)의 목(牧).

時巡(시순) : 계절에 따른 순수(巡狩).

3 임금께서 또 말씀하셨다.

“오오! 모든 나의 벼슬하는 관리들이여! 그대들이 맡은 일을 공경하여 그대들이 내는 명령을 삼가시오. 명령을 내리면 실행토록 해야 하며 취소해서는 안 되오.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익을 위하여 모든 백성들은 진심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오.

옛 제도는 배우고 관직에 나아가 일을 의논하고 마련하여 정사가 어긋나지 않으리니, 그대들은 일정한 법을 스승으로 삼고, 교묘한 말로 그대들의 벼슬을 어지럽히지 마오. 의심이 쌓이면 모사가 실패하는 것이고, 게으르고 소홀하면 정사가 거칠어지는 것이오. 배우지 아니하면 벽을 향해서 선 것과 같아서 일을 처리함에 번거로울 뿐이오.

그대들 관리들에게 훈계하노니, 공을 쌓기에 힘쓰고 일을 넓히기에 과감하게 결단 할 수 있어야만 뒷걱정이 없게 되오.

벼슬은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교만해지기 쉽고 농은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사치해지기 쉬운 것이오. 공손하고 겸소하여 덕만을 행하고, 그대의 거짓됨을 행하지 마

오. 덕을 행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날로 훌륭해지며, 거짓을 행하면 마음이 수고롭고 날로 졸렬해질 것이오.

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며 두려워해야 하오.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만한 일을 당하게 되오.

어진 이를 밀어 주고 능력 있는 이에게 사양하면, 모든 관리들이 저절로 화합할 것이오. 화합 못하면 정사가 어지러워지는 것이오. 천거한 이가 그 벼슬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대들의 공이고, 그들이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그대들이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되오.”

임금께서 또 말씀하셨다.

“오오! 세 가지 중요한 나랏일을 맡은 이들과 대부들이여! 그대들의 벼슬을 공경하여 그대들의 정사를 잘 다스려 주오. 그리하여 그대들의 임금을 도우며 만백성을 영원히 편안케 하여 온 나라가 싫어하지 않도록 해주오.”

王曰：“嗚呼！凡我有官君子！欽乃攸司，慎乃出令！令出惟行，弗惟反。以公滅私，民其允懷。

學古入官，議事以制，政乃不迷。其爾典常作之師，無以利口亂厥官。蓄疑敗謀，怠忽荒政。不學牆面，莅事惟煩。

戒爾卿士，功崇惟志，業廣惟勤，惟克果斷，乃罔後艱。

位不期驕，祿不期侈。恭儉惟德，無載爾僞。作德，心逸日休，作僞，心勞日拙。

居寵思危，罔不惟畏。弗畏，入畏。

推賢讓能，庶官乃和，不和政匱。舉能其官，惟爾之能，稱匪其人，惟爾不任。”

王曰：“嗚呼！三事暨大夫。敬爾有官，亂爾有政，以佑乃辟，永康兆民，萬邦惟無斁。”

[통석] 성왕은 또 백관을 불러 훈계하여 말씀하셨다.

“오오, 나의 밑에서 벼슬하는 군자들이여! 마땅히 그대들이 맡은 바 직무를 공경하

고 그대들이 빌하는 명령을 삼가도록 하오. 한 번 명령한 것은 반드시 시행하여야 되지, 막하고 거슬러서 도로 취소해서는 안 되오. 그런데 명령이 마땅하고 마땅치 못함은 마음의 공변되고 사사로움에 달려 있소. 천하의 공도(公道)로써 자기의 사사로운 정을 없애면 정령(政令)이 한 번 벌함에 반드시 만백성이 공경하고 믿어서 마음으로 복종하게 될 것이오.

그대들 크고 작은 여러 관리들은 반드시 먼저 옛날 전대에 이루어진 법을 배우도록 하오. 그런 다음에 벼슬에 들어 일을 보도록 하오. 국가의 사무를 의논함에 있어 배울 것을 깨달아 스스로 제재하고 짐작해서 처리하면 그 정사가 조리가 있어 미혹하고 그릇되지 않을 것이오.

또한 그대들은 마땅히 당대(當代)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법을 스승 삼도록 하오. 수다스러운 말로 가벼이 변동하여 그대들의 관직을 어지럽혀서는 아니 되오.

만약 의심이 쌓여 결단하지 못하면 도리어 꾀하는 일이 실패할 것이며, 마음을 게으르고 소홀히 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정사가 거칠어질 것이오. 옛 법을 즐겨서 배우려 들지 않으면 다스리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여, 담을 향해 선 것처럼 눈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일을 잡으면 그 행동이 번거롭고 흔들리게 될 것인 바, 어떻게 국가의 일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또 거듭 그대들 조정에 있는 관리들에 훈계하오. 만약 일의 공덕을 높이고자 하면 오직 그 뜻을 세우도록 할 것이며 업적을 넓히고자 하면 모름지기 부지런히 노력하도록 하오. 또 모름지기 일에 부딪치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도록 하오. 그래야 사업이 성공해서 후일의 어려운 환난이 없을 것이오.

이제 그대들 관리들은 그대들의 벼슬이 높아질수록 교만해지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자랑과 교만이 따라오고, 받는 녹이 두려워지면 사치를 기약하지 않아도, 사치가 스스로 따라오는 것이니 마땅히 몸가짐을 공손하게 하며 검박하고 절약하도록 하오. 오직 성실한 덕에 나아가 그대들의 거짓을 일삼지 말도록 하오. 그 덕을 닦음이 성실하면 마음이 편안해서 날마다 아름다워질 것이며, 만약 공검(恭儉)을 빌어서 거짓을 일삼으면 마음이 수고로워지며 날로 졸렬해질 것이오.

총애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마땅히 위태롭고 욕된 재앙을 생각해야 될 것이며,

지위가 높아질수록 뜻은 낮게 가질 것이며, 봉록이 두터워지면 뜻을 더욱 겸소하게 하여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도록 해야 하오. 명예를 얻었을 때에 만약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교만하고 사치해서 반드시 위태롭고 욕된 두려움 속에 빠져 녹과 지위를 보존하지 못할 것이오.

그대들 대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능히 어질고 덕스러운 사람을 추천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겸손히 양보하면, 낮은 신하와 모든 관리들이 협동하고 화합하여 다투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대신들이 어진 이를 가지고 재능 있는 사람을 해친다면, 관리가 또한 화하지 못해서 조정의 정사가 반드시 어지럽게 될 것이오.

천거한 사람이 그 관직을 잘 맡아보면 이는 곧 그대들의 능력인 것이며 천거한 바가 그 자리에 마땅한 인물이 아니면 이는 곧 그대들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오.”

성왕께서는 말씀하셨다.

“오오! 위로는 삼사대신(三事大臣)으로부터 아래로는 대부제신(大夫諸臣)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그대들의 벼슬을 공경하고 삼가며, 그대들의 정사를 잘 다스리며, 그대들의 임금을 도와 길이 천하의 억조 백성들을 편안히 구제하도록 하오. 여러 나라들이 가까이하고 밭들어서 우리 주나라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길 바라오.”

攸司(유사) : 맡은 바 일.

制(제) : 옛날의 제도.

典常(전상) : 떳떳한 법.

利口(이구) : 교묘한 말.

牆面(장면) : 벽에 얼굴을 딱 대고 있는 것처럼 답답함을 뜻함.

卿士(경사) : 관리들을 총칭한 말.

期驕(기교) : 교만하려 드는 것.

日休(일휴) : 날로 훌륭해지는 것.

居寵(거총) :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

入畏(입외) : 두려워할 만한 일에 빠져드는 것.

其人(기인) :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

三事(삼사) : <입정>편에 나오는 임인(任人) · 준부(準夫) · 목인(牧人)을 지칭함.

大夫(대부) : 삼사의 관속들을 말함.

군진(君陳)

군진(君陳)은 신하의 이름이다. 주공(周公)이 은나라의 사나운 백성들을 성주(成周)의 동교(東郊)에 옮기고 친히 감독하였는데, 주공이 작고한 뒤 성왕이 군진으로 하여금 주공을 대신해서 동교를 다스리게 하였다. 이 편은 성왕이 군진을 훈계한 말인데, 사관이 기록하면서 군진으로 편명을 삼은 것이 다.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만 실려 있다.

1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군진이여! 그대는 아름다운 덕을 가지고 효도를 하여 공손하였소. 효성이 있어야 만 형제에게 우애하고 정사에까지 베풀 수 있으므로 그대에게 이 동교를 다스리게 하니 삼가 맡으오.

옛날 주공은 만민을 교도하였는데 백성들이 그의 덕을 쫓았소. 가서 그대가 맡은 일을 삼가고 그분의 법을 따라 주공의 훈계를 힘써 밝히면 백성들은 잘 다스려질 것이오.

내가 들기로, ‘지극한 다스림은 꽂답고 향기로운 신명(神明)을 감응케 하는 것이니, 기장이 향기로운 것이 아니고 밝은 덕이 향기로운 것이다’ 하였소. 그대는 바라건대 이 주공의 길과 훈계를 본받아 매일 부지런히 힘쓸 것이며 감히 편히 놀고자 하지 말아야 하오.

대개의 사람들은 성인을 만나보지 못하였을 때는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성인을 만난 뒤에는 성인을 따를 수 없다고 여기는데 그대는 그것을 경계하오. 그대가 바람이라면 백성은 풀과 같은 것이오.

정사를 도모하되 무슨 일이나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오.

일을 폐하고 일으킴에 백성들의 뜻에 따라 나가고 들어가고 하여,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거든 그 일을 시행하도록 하오.

그대에게 좋은 계획과 좋은 생각이 있거든 들어가 안으로 그대 임금에게 아뢰고 밖에서 그것을 따르도록 하오. 그리고 ‘이 계획과 이 생각은 오직 우리 임금님의

덕이십니다'라고 말하오. 오오! 신하와 임금이 모두들 이와 같이 되어야 임금의 덕이 정말로 훌륭하게 나타날 것이오.”

王若曰：“君陳！惟爾令德孝恭。惟孝，友于兄弟，克施有政。命汝尹茲東郊，敬哉！昔周公師保萬民，民懷其德。往慎乃司，茲率厥常，懋昭周公之訓，惟民其乂。我聞曰：‘至治馨香，感于神明。黍稷非馨，明德惟馨。’爾尚式時周公之猷訓，惟日孜孜，無敢逸豫！”

凡人未見聖，若不克見，既見聖，亦不克由聖。爾其戒哉。爾惟風，下民惟草。圖厥政，莫或不艱。有廢有興，出入自爾師虞庶言同則繹。爾有嘉謀嘉猷，則入告爾后于內，爾乃順之于外，曰：‘斯謀斯猷，惟我后之德。’嗚呼！臣人咸若時，惟良顯哉。”

[통석] 성왕은 군진에게 고하셨다.

“군진이여! 그대는 착한 덕이 있어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공경하였소. 어버이에게 효도하여야 형제간에 우애하며, 그것을 능히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에까지 미루어 나갈 것이므로 백성들 사이에 교화가 크게 행해지고 풍속이 순박해질 것이오. 그러므로 그대에게 이 동교(東郊)의 도시를 다스리게 하니 공경하도록 하오.

옛날에 주공께서 그 도시를 다스림에 사보(師保)가 되어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사랑하며 보호하였소. 때문에 만백성들이 그 덕을 사모하였던 것이오. 그대가 가거든 마땅히 그대가 맡은 직무를 삼가서 지키도록 하고 전날에 행하던 뜻뜻 한 법에 따르도록 하여, 주공의 옛 가르침을 밝게 드러내도록 하오. 그리하면 하도 (下都)의 백성들이 흡연히 다스려질 것이오.

내가 들으니 주공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다스려지고 크게 융성하면 자연히 화한 기운이 훈훈하게 감돌고 향기가 피어나서 천지신명을 감동시켜 이르게 한다. 그러니 제사에 쓰는 기장은 향기가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밝은 덕이 몸

과 마음에 쌓였다가 정사에 나타나며, 그런 뒤에 향기가 피어나 신명을 감동시켜서 이르게 한다'고 하였소.

그대는 주공의 이 큰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고 종일토록 부지런히 힘써서 감히 텔끝만큼도 안일하고 나태하지 않도록 하오. 몸소 덕을 밝히면 신명도 또한 감동하는 법인데, 하물며 온나라의 백성들이야 교화되지 않을 사람이 있을 것인가?

보통 사람의 마음은 성인을 보지 못하였을 때에 능히 보지 못할 듯이 사모하고, 이미 성인을 본 뒤에는 그 뜻과 기운이 훈미하고 나태해져서 성인의 행하는 바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니, 그대 군진은 경계하도록 하오. 그대는 백성들의 위에서 바람처럼 백성들을 격려하고 이끌어 주어야 하오. 아래 백성들이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은 마치 바람에 쓰러지는 풀과 같소.

정사를 도모함에 혹 어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마땅히 폐지해야 할 것도 있고 마땅히 새로 일으킬 것도 있으니, 모름지기 내고 들이고 반분함을 그대의 여러 대중에게 물어서 가부를 헤아리도록 하오.

만약 여러 사람의 생각이 모두 같으면 마땅히 스스로 헤아려서 깊이 생각하도록 하오. 그대에게 일에 절실한 아름다운 계획과 도리에 마땅한 아름다운 생각이 있으면, 먼저 조정에 들어가 안으로 그대의 임금에게 모두 고하여 숨김이 없도록 하오. 밖에 나아가서는 이 계획과 이 생각은 모두 우리 임금님의 밝은 덕에서 나온 것이라 말하오. 오오! 신하나 임금 된 사람이 이와 같이 하면 오직 충량(忠良)한 덕을 갖추게 되고 드러난 이름을 잊지 않게 될 것이오.”

東郊(동교) : 성주(成周)의 동쪽 교외.

師(사보) : 이끌어 주고 돌보아 주는 것.

黍稷(서직) : 제사에 쓰는 제물을 가리킴.

爾惟風下民惟草(이유풍하민유초) : 너는 바람이고 백성들은 풀과 같아. 너의 교화에 따라 백성들은 따라간다는 말.

有廢有興(유폐유흥) : 정사에는 있던 일을 없애기도 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있다는 말.

出入(출입) : 나가서 어떤 일을 시행하고 또 그만두고 들어오는 것.

師(사) : 민중의 뜻.

繹(역) : 시행하는 것.

人(인) : 인주(人主), 즉 임금.

顯(현) : 덕이 백성들에게 밝게 나타나는 것.

2 임금께서 또 말씀하셨다.

“군진이여! 그대는 주공의 큰 교문을 넓히되, 권세에 의탁하여 위세를 떨치지 말 것이며, 법에 기대어 나쁜 짓을 저지르지 마오. 너그러우면서도 법도가 있어야 하고 부드러움으로써 화합하여야 하오.

은나라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처벌하라고 해도 무조건 처벌하지 말 것이며, 내가 용서하라고 해도 무조건 용서하지 말고 오직 중도(中道)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오.

그대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고 그대의 교훈에 동화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처벌함으로써 범법을 막아야 형벌이 서게 될 것이오.

간사하고 사악한 데 빠진 자와 법도를 어기고 습속을 문란하게 하는 자는,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작게 범했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마오.

그대는 미련하다고 화내고 미워하지 말며 한 사람에게 완전하기를 바라지 마오. 반드시 참을성이 있어야 성공할 것이며, 너그러움이 있어야 덕이 커질 것이오.

덕을 닦은 사람을 골라내되 간혹 어질지 못한 사람도 골라낼 것이며, 어진 이를 등용하되 간혹 어질지 못한 사람도 이끌어 주어야 하오.

백성들은 나면서는 순후하나 사물로 인해서 변하는 것이니, 위에서 명하는 바를 어기고 그들이 좋아하는 바로 쫓아갈 것이오. 그대가 법을 삼가고 덕을 지킬 수 있다면 곧 되돌아오지 않을 자 없어, 진실로 큰 도에 이르게 될 것이오. 그러면 나 한 사람이 많은 복을 받게 됨은 물론이요, 그대의 명예도 영세(永世)토록 칭송될 것이오.”

王曰：“君陳! 爾惟弘周公丕訓, 無依勢作威, 無倚法以削。寬而有制, 從容以和! 殷民在辟, 予曰辟, 爾惟勿辟, 予曰宥, 爾惟勿宥, 惟厥中!”

有弗若于汝政, 弗化于汝訓, 辟以止, 辟乃辟!
狃于姦宄, 敗常亂俗, 三細不宥!
爾無忿疾于頑, 無求備于一夫!
必有忍, 其乃有濟, 有容, 德乃大。
簡厥修, 亦簡其或不修, 進厥良, 以率其或不良!
惟民生厚, 因物有遷, 違上所命, 從厥攸好。爾克敬典在德, 時乃罔不變, 允升于大猷。
惟予一人, 膽受多福, 其爾之休, 終有辭於永世。”

[통석] 성왕은 또 말씀하셨다.

“군진이여! 반드시 속으로 가늠하고 융통성 있게 해서 주공께서 끼치신 큰 교훈을 널리 퍼나가도록 하오. 권세에 의지해서 위엄을 부리거나 함부로 학대함이 없도록 하며, 법에 기대어 오만하게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오. 반드시 너그러우면서도 절제가 있도록 하며 조용하면서도 화합하도록 하오.

은나라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내가 형벌을 내리라고 말하더라도 무턱대고 내 뜻에 따라 형벌을 내리지 말며, 내가 용서해 주라고 하더라도 내 뜻에 따라 그냥 용서해 주지 말도록 하오. 모름지기 경중을 따져 봐서 그 중도를 잡도록 하오.

만약 억세어서 그대의 정령(政令)에 따르지 않거나 혼미해서 그대의 교훈에 순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형벌을 가하도록 하오. 다만 한 사람에게 별을 내려 천만 사람이 경계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형벌을 실시하도록 하오.

간특하고 사악한 습관에 젖은 사람과 인륜의 강상(綱常)을 무너뜨린 사람과 풍속을 어지럽힌 사람 등 세 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죄가 아주 미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관계된 바가 심히 중대하므로 결코 용서할 수는 없소.

그대가 다스림을 펴 갈 때 혹 완악하고 어리석어 훈계함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화내고 성내어 미워하지 말며 모름지기 넉넉한 마음으로 깨우치고 인도

해서 교화하도록 하오. 사람은 각각 능한 것이 있고 능하지 못함이 있으니,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갖추기를 바라지 마오.

경박한 사람은 일을 도모할 수 없으니 반드시 굳게 참는 기운이 있어야 무슨 일이 든지 이루어낼 수 있으며, 얄팍하고 좁은 소견을 가진 사람은 대중을 기를 수 없는 것이니, 너그러운 도량이 있어야 비로소 그 덕이 넓고 크게 벤져 갈 것이오.

직책을 잘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대는 마땅히 직책을 잘 수행하는 사람을 잘 분별해 내고 또한 혹 잘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려내야 하오. 의로움을 행함에 좋은 사람과 좋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그대는 마땅히 선량한 사람을 나아가게 하고, 선량하지 않은 사람은 잘 이끌어 거느리도록 하오. 백성들은 태어날 때는 그 본성이 원래 순박하고 두터우나 바깥 사물에 이끌려서 그 습성이 결국 얄팍해지는 것이오. 또한 백성들의 일반적인 감정은 윗사람의 명령에는 어기면서 그 좋아하는 바를 따르려 하는 것이오. 만약 그 명령하는 바가 좋아하는 바에 반대되면 복종시킬 수 없을 것이오.

그대가 만약 오상(五常)의 법을 공경하고 몸소 덕을 닦는다면 백성들은 얄팍함을 버리고 두터운 데로 돌아가지 않음이 없을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진실로 큰 도덕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오. 동시에 나 한 사람도 수고롭지 않게 많은 복을 누릴 것이며, 그대 또한 아름다울 것이니 결국 다 함께 영원토록 어진 명성이 드러날 것이오. 거듭 그대는 힘써 주기를 바라오.”

在辟(재벽) : 법에 걸려 있는 것.

中(중) : 중정, 중도의 뜻.

敗常亂俗(배상란속) : 윤리를 무너뜨리고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것.

簡其或不修(간기혹불수) : 덕이 없는 자를 따로 가려놓고 교육시킨다는 뜻.

進(진) : 등용의 뜻.

民生厚(민생후) : 사람의 성품은 나면서부터 둔후하다는 말.

因物有遷(인물유천) : 인성이 사물에 얹혀 악하게 되어진다는 것.

고명(顧命)

성왕이 죽음을 앞두고 여러 신하에게 명하여 강왕(康王)을 세웠다. 사관이 그때 일을 서술하여 이 편을 만들었다. ‘고명(顧命)’이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지난 일을 회고하며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금문과 고문에 다 들어 있다.

1 사월 십육일에 임금께서 불편하셨다.

갑자날에 임금은 물로 손과 얼굴을 씻고, 시자(侍者)가 관과 조복을 입히니 옥궤(玉几)에 기대앉았다.

그리고 태보(太保)인 석(奭)과 예백(芮伯)과 동백(彤伯)과 필공(畢公)과 위후(衛侯)와 모공(毛公)과 군사를 맡은 장군, 임금을 호위하는 사람, 여러 관장 및 모든 관리들을 모두 불렀다.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오오! 병이 크게 더해 위태로운 것 같소. 병이 날로 심하여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 당부하는 말도 못하게 될까 두려워, 이에 나는 그대들에게 훈계하고 명하겠소.

옛 임금 문왕과 무왕께서는 거듭 밝은 덕을 펴시어 법도를 정하고 가르침을 베푸셨소. 익히고 익혀 어기지 않음으로써 온나라를 쳐 천명을 이루실 수가 있었소.

뒤의 어리석은 자에 이르러도, 하늘의 위엄을 공경히 맞이하고 문왕과 무왕의 큰 교훈을 이어받고 지켜서 감히 어둡거나 지나치지 않았소.

지금 하늘이 명을 내리시어 거의 일어나지도 깨어나지도 못할 것 같소. 그대들은 바라건대 나의 말을 밝힘으로써 태자 교(釗)를 삼가 보호해 어려움에서 구제해 주기 바라오.

먼 나라는 달래고 가까운 나라는 도와서 작고 큰 나라를 편안히 하고 힘쓰게 하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위엄과 예의를 지켜야 하니, 그대들은 교로 하여금 법도가 아닌 길에 나아가지 않도록 해주오.”

이렇게 명령을 받은 뒤에 돌아가서 차일(遮日)을 궁정에 내어 놓았다. 이튿날 을축

에 임금께서 봉어하셨다.

惟四月哉生魄，王不懼。

甲子，王乃洮頰水，相被冕服，憑玉几。

乃同召太保奭，芮伯、彤伯、畢公、衛侯、毛公，師氏、虎臣、百尹御事。

王曰：“嗚呼！疾大漸，惟幾。病日臻，旣彌留，恐不獲誓言嗣，茲予審訓命汝！”

昔君文王、武王宣重光，奠麗陳教則肆。肆不違，用克達殷集大命。

在後之侗，敬迓天威，嗣守文、武大訓，無敢昏逾。

今天降疾，殆弗興弗悟。爾尚明時朕言，用敬保元子釗，弘濟于艱難！

柔遠能邇，安勸小大庶邦！

思夫人自亂于威儀，爾無以釗冒貢于非幾。”

茲既受命還，出綴衣于庭。越翼日乙丑，王崩。

[통석] 위(位)에 있은 지 37년째인 4월 16일, 성왕은 병이 들어 편안하지 못하였다. 갑자일(甲子日)에 이르러 왕은 병이 더욱 악화되어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태자를 보필하고 이끌어 주도록 하려 했다. 이에 병을 무릅쓰고 힘써 일어나 물로 손과 얼굴을 씻고 좌우의 도움을 받아 곤룡포와 면류관을 정제한 뒤 옥궤(玉几)에 의지하여 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태보(太保) 겸 총재(冢宰)인 소공석(召公奭)과 사도인 예백(芮伯)과 종백(宗伯)인 동백(彤伯)과 태사 겸 사마인 필공(畢公)과 사구(司寇)인 위공(衛公)과 태부 겸 사공인 모공(毛公) 및 숙위(宿衛)의 벼슬인 사씨대부(師氏大夫)와 호신(虎臣)과 여러 관리들을 모두 불렀다.

임금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오오, 내 병이 이미 크게 기울어져 날로 위태로워지니 오래지 않아 죽음에 이를 것 같소. 맹세하는 말로 내 뜻을 잊게 하지 못할까 저어하여, 나는 자상히 살펴 그 대들에게 훈계하고 명하는 바이오.

옛날에 선왕이신 문왕과 무왕께서 서로 이으시어 다 그 덕을 밝히셨고 거듭 광휘를 드러내셨소. 그리하여 능히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안정시켜 주셨고, 또 가르침을 베풀어 주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익히지 않음이 없도록 하며, 익혀서 어기지 않음으로써 능히 온나라에 사무쳐 드디어 큰 명을 우리 주나라에 모았소.

나는 뒤를 이어받은 어리석은 사람이오. 그러나 공경을 다하여 하늘의 위덕을 맞이하고, 문왕과 무왕의 큰 가르침을 지켜서 감히 혼매하고 넘치는 일은 없었던 것이오.

이제 하늘이 내 몸에 병을 내려 자못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깨어날 수도 없겠으니, 그대들은 내 말을 똑똑히 기억하여 서로 더불어 원자(元子) 교(釣)를 삼가 보호하여 어려운 왕업을 크게 이룩하도록 하여 주오.

먼 곳에 있는 백성들을 어루만져 달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백성들을 잘 인도하여 만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사방의 여러 나라를 잘 권장하고 인도해서 제후들을 이끌도록 하오.

사람이 사람다운 이유는 언어와 동작을 단정히 하여 두려울 만한 위의를 갖추는 일과 부끄럽지 않을 만한 예의 바른 행동을 겉으로 나타내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오. 그대들은 반드시 원자 교를 보좌해서 예가 아닌 기미를 무릅쓰고 나아가지 않도록 하오.”

이에 여러 신하가 이미 고명(顧命)을 받고 물러가니 설비해 놓은 장막을 궁정으로 내어 놓았다. 이튿날 을축(乙丑)에 왕은 봉어하였다.

哉生魄(재생백) : 달에 그림자가 지기 시작하는 날, 즉 16일.

不憚(불역) : 몸이 편치 못함.

夷(석) : 소공의 이름.

芮伯 · 形伯(예백 · 동백) : 둘 다 제후.

畢公(필공) : 이름은 고(高).

毛公(모공) : 이름은 모르나 필공과 함께 문왕의 서자.

衛侯(위후) : 강숙(康叔).

師氏(사씨) : 군사를 맡은 사람.

虎臣(호신) : 호분(虎賁)으로 임금을 호위하는 사람.

百尹(백윤) : 백관의 장.

御事(어사) : 여러 가지 일을 맡은 관리들.

日臻(일진) : 날로 더해지는 것.

彌留(미류) : 목숨이 거의 경각에 붙어 있는 것.

不獲(불획) : 부득(不得) · 불능의 뜻.

誓言(서언) : 맹세하는 말. 공언하는 말.

審訓(심훈) : 잘 살펴서 훈계하는 것.

重光(중광) : 문왕의 덕을 문왕이 이어 거듭 밝혔기 때문에 한 말.

不違(불위) : 정도를 어기지 않음.

元子(원자) : 태자.

釗(교) : 강왕(康王)의 이름.

柔遠能邇(유원능이) : 면 나라는 달래고 가까운 나라는 푹는 것.

夫人(부인) :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綴衣(철의) : 차일. 왕좌 위에 치는 휘장.

翼日(일일) : 이튿날.

2 태보(太保)는 중환(仲桓)과 남궁모(南宮毛)에 명하여 제(齊)나라 제후인 여급(呂伋)으로 하여금, 두 사람은 방패와 창을 들게 하고 임금의 호위병 백 명을 거느려 태자 교(釗)를 남문(南門) 밖에서 맞아들였다. 옆방으로 인도하여 상(喪)을 입고 상 주 노릇을 하게 하였다.

정묘(丁卯)날에는 문서 다루는 사람에게 명하여 법도를 기록하게 하였고, 칠 일이 지난 계유(癸酉)날에는 소공이 관리들에게 명하여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악사(樂師)를 시중드는 관리가 도끼 무늬의 병풍과 차일을 쳤다.

창문 사이에는 남쪽을 향해 도끼 무늬의 천으로 가장자리를 댄 대캡질 자리를 겹으로 깔고 오색 구슬로 장식된 안석을 놓았다.

서쪽 행랑에는 동쪽을 향해 가느다란 대로 총총히 짜고 여러 가지 빛깔의 천으로 가장자리를 댄 자리를 겹으로 깔고 무늬 있는 조개로 장식된 안석을 놓았다.

동쪽 행랑채에는 서쪽을 향하여 구름무늬의 가장자리를 댄 왕골자리를 겹으로 깔고, 무늬가 새겨진 구슬로 장식된 안석을 놓았다.

서쪽 옆방에는 남쪽을 향해 검은 실로 짜 가장자리를 댄 푸른 대자리를 겹으로 깔고 칠을 한 안석을 놓았다.

또한 구슬을 겹으로 다섯 군데 놓았으니 진(陳)나라 구슬과 붉은 구슬칼과 큰 교훈이 새겨진 구슬과 큰 구슬과 위가 둑근 구슬과 위가 뾰족한 구슬을 서쪽 행랑에 놓았다. 화산(華山)에서 난 구슬과 동쪽 오랑캐의 구슬과 하늘빛 구슬과 황하에서 난 무늬 있는 구슬은 동쪽 행랑에 놓았다. 윤(胤) 땅의 춤옷과 큰 조개와 큰 북은 서쪽 방에 놓았다. 태(兌)가 만든 창과 화(和)가 만든 활과 수(垂)가 만든 대살은 동쪽 방에 놓았다.

구슬 수레는 서쪽 섬돌 앞에, 금수레는 동쪽 섬돌 앞에, 상아 수레는 왼편 문간방에, 나무 수레는 오른쪽 문간방 앞에 놓았다. 두 사람이 검붉은 건에 세모창을 들고 묘당 안문 안에 서 있었다. 네 사람이 검푸른 건에 날이 바깥쪽으로 향한 창을 들고 섬돌을 끼고 양쪽 옆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은 관을 쓰고 뾰족한 도끼를 들고 묘당 동쪽에 섰고, 한 사람은 관을 쓰고 도끼를 들고 묘당 서쪽에 섰고, 한 사람은 관을 쓰고 긴 삼지창을 들고 동쪽 가에 섰고, 한 사람은 관을 쓰고 뾰족한 창을 들고 가의 섬돌에 서 있었다.

太保命仲桓、南宮毛，俾爰齊侯呂伋，以二干戈，虎賁百人逆子釗於南門之外。延入翼室，恤宅宗。

丁卯命作冊度，

越七日癸酉，伯相命士須材。

狄設黼辰綴衣。牖間南嚮，敷重篾席黼純，華玉仍几。

西序東嚮，敷重底席，綴純文貝仍几。

東序西嚮，敷重豐席畫純，雕玉仍几。

西夾南嚮，敷重筭席玄紛純，漆仍几。

越玉五重，陳寶，赤刀、大訓、弘璧、琬琰在西序。大玉、夷玉、天球、河圖在東序。胤之舞衣、大貝、鼙鼓在西房。兌之戈、和之弓、垂之竹矢在東房。

大輶在賓階面，綴輶在阼階面，先輶在左塾之前，次輶在右塾之前。

二人雀弁執惠, 立于畢門之內。四人綦弁執戈上刃, 夾兩階阤。一人冕執劉, 立于東堂, 一人冕執鉞, 立于西堂, 一人冕執戣, 立于東垂, 一人冕執瞿, 立于西垂, 一人冕執鋟【當作鉞】，立于側階。

[통석] 태보인 소공석은 가까운 두 신하인 중환(仲桓)과 남궁모(南宮毛)에게 명하여, 제(齊)나라 제후 여급(呂伋伋)으로 하여금 창 두 벌과 호위병 백 명을 거느리게 하여 태자인 교(釗)를 남문 밖에서 맞아들여 노침(路寢)의 옆방에 들게 하여, 복을 입고 상주(喪主)가 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조상의 뒤를 이어 천자의 위(位)가 이미 정해진 것을 나타내었다.

사흘 뒤인 정묘(丁卯)일에 소공은 먼저 사관에게 명하여 책서(冊書)와 책을 받는 법도를 짓게 하였다.

이레 뒤인 계유(癸酉)일에 성왕(成王)을 입관하게 됨에 관리에게 명하여 재목을 츄하여 상사(喪事)에 쓰도록 하였다.

이에 있어서 낮은 관리인 음악을 맡은 적인(狄人)에게 명하여 도끼 무늬가 그려진 병풍을 성왕의 시신을 모신 뒷 편에 치고 차일과 장막을 주위에 쳐놓아 성왕이 살아 있을 때와 똑같게 했다.

정전(正殿)의 창문 사이로 남쪽으로 향한 곳에 검고 흰 무늬의 천으로 가장자리를 두른 대껍질 자리를 세 겹으로 깔고 아름다운 구슬로 장식한 안석을 세워 놓았다. 이는 성왕이 여러 신하를 만나는 자리였다.

또 서쪽 행랑에는 동쪽으로 향한 곳에 여러 가지 무늬를 놓은 비단으로 가장자리를 두른 부들자리를 세 겹으로 깔고 평소에 쓰던 조개 무늬의 안석을 차려 놓으니, 이는 성왕이 평소에 정사를 보고 받은 자리였다. 또 동쪽 행랑에는 서쪽으로 향한 곳에 여러 무늬를 놓은 비단으로 가장자리를 두른 왕골자리를 세 겹으로 깔고, 다듬은 옥으로 장식한 안석을 차려 놓으니, 이는 성왕이 나라의 노인을 공양하고 여러 신하에게 음식을 공양하던 자리였다.

또 정전의 서쪽 옆방에는 남쪽으로 향한 곳에 검은색으로 된 천으로 가장자리를

두른 죽순 껌질로 만든 자리를 세 겹으로 깔고, 검은 칠을 한 안석을 차려 놓으니,
이는 성왕이 친족들을 만나던 자리였다.

여기에 구슬을 다섯 겹으로 늘어놓고 또 여러 가지 보물을 진열하였다. 적삭(赤削)
의 칼과 제왕의 대훈(大訓)과 대벽(大璧), 완염(琬琰)의 구슬을 서쪽 행랑에 진열하
고 태옥(太玉)과 이옥(夷玉)과 천구(天球)의 구슬과 하도(河圖)의 보배를 동쪽 행랑
에 진열하였다. 윤(胤)나라에서 만든 무의(舞衣)와 대폐(大貝)와 길이 여덟 자의 큰
복은 모두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문사(文事)에 갖추는 것으로 서편 방에 진열하였
다. 공인(工人) 태(兌)가 만든 창과 공인 화(和)가 만든 활과 공인 수(垂)가 만든 대
살(竹矢(죽시))은 모두 동편 방에 진열하였다. 이는 모두 대대로 전해지는 물건이
었다.

또 다섯 수레를 진열하였으니, 구슬로 장식한 큰 수레는 서편 섬돌에 있어 남쪽을
향하고, 금으로 장식한 수레는 동편 섬돌에 있어 남쪽을 향하게 하고, 나무로 만든
수레는 사랑 앞에 놓아 북쪽을 향하게 하여 구슬 수레와 마주서게 하고, 다음에 상
아(象牙)로 장식한 수레와 가죽으로 된 수레는 오른편에 놓아 북쪽을 향하게 하여
금수레와 마주서게 하였다. 이는 모두 성왕이 평소에 아끼고 타시던 것이었다.

장차 새 임금을 맞이하려 하므로 뜻밖의 변란에 대비하여, 무사 두 사람에게 붉은
색의 작변(雀弁)을 쓰고 세모창을 들고 노침필문(路寢畢門)의 안에 서게 하였다.
네 사람은 검푸른 군모를 쓰고 창날이 밖으로 향한 창을 들고 동서 두 섬돌의 곁에
있는 당의 모서리에 서게 하니, 섬돌마다 두 사람씩이었다.

또 대부 한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도끼(劉)를 잡고 정전의 동쪽 월랑(月廊)에 서게
하고, 한 사람은 관을 쓰고 도끼(鉄)를 잡고, 정전의 서쪽 월랑에 서게 하고, 한 사
람은 관을 쓰고 양지창(兩枝槍)을 들고 동편 행랑의 섬돌위에 서게 하고, 한 사람
은 관을 쓰고 삼지창을 들고 서쪽 행랑의 섬돌 위에 서게 하고, 한사람은 관을 쓰
고 창(銃)을 들고 북쪽의 섬돌 위에 서게 하였다.

仲桓(중환) · 南宮毛(남궁모) : 모두 신하의 이름.

呂伋(여급) : 제나라 태공(太公)의 아들인 정공(丁公).

延入(연입) : 인도하여 들이는 것.

翼室(익실) : 임금이 있는 옆방.

恤宅(홀택) : 우거(憂居), 즉 상(喪)을 입는 것.

作冊(작책) :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

伯相(백상) : 방백이며 재상인 소공(召公)을 가리킴.

狄(적) : 적인으로 악공의 심부름을 하는 하사(下士).

黼(보) : 검은빛, 흰빛의 도끼 무늬.

臚間(유간) : 들창과 문 사이.

黼純(보준) : 보 무늬의 천으로 가장자리를 댄 것.

華玉(화옥) : 오색 구슬.

仍几(잉궤) : 고인이 생전에 쓰던 안석.

西序(서서) : 당 서쪽 행랑.

豐席(풍석) : 왕골 등속으로 짠 자리.

西夾(서협) : 서쪽 옆방.

玄紛純(현분준) : 검은 실로 짜서 가장자리를 댄 것.

玉五重(옥오중) : 구슬을 겹으로 다섯 군데 놓았다는 뜻. 오중은 뒤의 진보(陳寶) · 적도(赤刀)가 일중, 대훈(大訓) · 홍벽(弘壁)이 일중, 완(琬) · 염(琰)이 일중, 대옥(大玉) · 이옥(夷玉)이 일중, 천구(天球) · 하도(河圖)가 일중임.

陳寶(진보) : 옥기의 이름. 진나라 문공(文公)이 얻은 것이라 함.

赤刀(적도) : 붉은 구슬 칼.

大訓(대훈) : 선왕의 교훈이 새겨진 구슬.

弘壁(홍벽) : 큰 구슬.

大玉(대옥) : 화산(華山)에서 났다는 큰 구슬.

夷玉(이옥) : 동이의 구슬.

天球(천구) : 옹주(雍州)에서 바쳐 왔다는 하늘색 구슬.

河圖(하도) : 황하에서 얻은 무늬 있는 구슬.

胤(윤) · 兌(태) · 和(화) · 垂(수) : 모두 명공(名工)의 이름.

大貝(대贝) : 산의 생(散宜生)이 강회(江淮) 물가에서 얻었다는 수레바퀴처럼 생긴 큰 조개.

大輅(대로) : 구슬로 꾸며진 큰 수레.

賓階(빈계) : 손님들이 오르는 서쪽 섬돌.

纘轄(철로) : 금으로 꾸민 두 번째로 큰 수레.

阼階(조계) : 주인이 오르는 섬돌.

先轄(선로) : 상아로 꾸민 수레.

左塾(좌속) : 왼쪽 문간방.

次轄(차로) : 나무로 만든 수레.

惠(혜) : 무기의 일종으로 세모창.

畢門(필문) : 묘당의 안문.

上刃(상인) : 칭날이 바깥쪽을 향하게 드는 것.

東堂(동당) : 당의 동쪽.

3 임금은 삼베관에다 보불(黼黻) 무늬 바지를 입고 서쪽 손님 섬돌로부터 올라왔다. 공경대부(公卿大夫)와 제후들은 삼베관에 검은 바지를 입고 들어와 제자리로 나아갔다.

태보(太保)와 태사(太師)와 태종(太宗)은 다 삼베관에 붉은 바지를 입었다. 태보는 큰 홀(笏)을 받쳐 들었고, 태종은 구슬잔과 구슬 덮개를 들고 동쪽 섬돌로부터 올라왔다. 태사는 서책(書冊)을 들고 서쪽 섬돌로부터 올라와서 임금께 명하신 것을 적은 책을 바쳤다.

그리고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구슬 안석에 기대시어 마지막 명령을 선언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명하시어 교훈을 지키고 주나라 임금으로 임(臨)하게 하셨습니다. 큰 법도를 지키고 천하를 조화시켜 문왕과 무왕의 빛나는 교훈에 보답하고 선양하십시오.”

임금은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대답하였다.

“미미한 이 소자가 어찌 세상을 다스리어 하늘의 위엄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수가 있겠소?”

그리고 구슬잔과 구슬덮개를 받으신 임금은 세 번 앞으로 나아가 세 번 술잔을 올리고 세 번 뒤로 물러났다.

태종이 “음복(飲福)하십시오” 하고 아뢰었다.

태보는 술잔을 받고 내려가 세수를 하고 다른 술잔에다가 작은 홀(笏)을 들고서 술을 따라 보제(報祭)를 지냈다. 종인(宗人)에게 술잔을 주고 절하니 왕도 답배(答拜)했다.

태보는 다시 술잔을 받아 술을 올리고 술잔을 입에 댔다가 뒤로 물러났다. 종인에게 술잔을 주고 절하니 임금도 답배했다.

태보가 내려가니 모두 거두고 제후들도 묘당 문 밖으로 나와 기다렸다.

王麻冕黼裳, 由賓階躋, 卽士邦君, 麻冕蟻裳入卽位。

太保、太史、太宗, 皆麻冕彤裳。太保承介圭, 上宗奉同瑁, 由阼階躋。太史秉書, 由賓階躋, 御王冊命。

曰：“皇后憑玉几, 道揚末命。命汝嗣訓：‘臨君周邦, 率循大卞, 變和天下, 用答揚文、武之光訓。’”

王再拜興, 答曰：“眇眇予末小子, 其能而亂四方, 以敬忌天威?”

乃受同瑁, 王三宿三祭三咤, 上宗曰：“饗。”

太保受同, 降盥, 以異同秉璋以酢。授宗人同, 拜, 王答拜。

太保受同, 祭躋, 宅。授宗人同, 拜, 王答拜。

太保降, 收, 諸侯出廟門俟。

[통석] 이에 후계자인 강왕(康王)을 맞이하여 고명(顧命)을 받게 하고 제례(祭禮)를 올렸다. 그러므로 상복을 벗고 제복(祭服)을 입었다. 이에 강왕은 삼베관을 쓰고 보불(黼黻)을 수놓은 옷을 입고 손님 섬돌로부터 당에 오르셨다.

아직 고명을 받지 않고 오히려 감히 왕의 도로써 거하지 않으니, 공경대부와 여러 나라의 제후들이 삼베관과 검은색 옷을 입고 왕의 뒤를 따라 올라와서 각각 자기 자리에 나아갔다.

태보(太保)는 유조(遺詔)를 받고 태사(太史)는 책(冊)을 받들고 태종백(太宗伯)은 예를 도왔다. 세 사람이 모두 삼베관을 쓰고 붉은 옷을 입었다. 태보는 큰 훌(笏)을 받들고 상종(上宗)(태종)은 옥으로 된 술잔과 사방 네 치의 훌개를 받들어 제사와 조회의 예로써 하니, 이는 모두 임금의 도가 있음이다. 태사가 유명(遺命)의 책서(冊書)를 잡고 선왕의 명을 높여, 손님 섬돌로부터 당에 올라와 책명(冊命)으로써 강왕에게 고하였다.

그 뜻을 이렇게 아뢰었다.

“위대하신 성왕께서 위독하시던 때에 친히 옥으로 된 안석에 기대시어 임종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당신에게 명하시어 문왕과 무왕의 큰 교훈을 이어받아 주나라

의 임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미 큰 위(位)에 계시니 모름지기 선왕의 큰 법에 따르셔서 천하를 빛내시며 문무의 빛나는 교훈에 보답하시어 덕화를 드날리십시오.”

강왕께서 재배하고 일어나 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약한 내가 능히 큰 법을 따라서 크게 화함을 이루고,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사방을 다스리시어 하늘의 위명(威命)을 공경하고 두려워한 것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태종백(太宗伯)이 받든 술잔과 홀의 덮개를 받아서, 홀의 덮개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술잔으로써 제사를 드렸다. 강왕께서 세 차례 엄숙한 예를 올리고, 술잔을 신위(神位)의 앞에 나누고, 세 차례 술을 잔에 부어 술잔을 세 차례 신의 자리에 올렸다. 이로써 고명 받음을 고하니 상종백(上宗伯)이 신의 명을 전하여 선왕께서 이미 흠향하셨다고 아뢰었다.

강왕께서 제사를 지내고 바친 술잔을 태보에게 주니, 태보가 술잔을 받아들고 당 아래에 내려가 손을 씻고서 다른 술잔과 반쪽 홀을 들고서 보하는 제사를 지냈다. 인하여 소종백(小宗伯)에게 술잔을 주고 대신하여 신의 자리에 절하였다. 강왕께서 아들의 도리로써 또한 주검에 대신하여 답례하였다.

강왕께서는 상중(喪中)에 계시므로 복주(福酒)를 마실 수가 없었기에 종인(宗人)이 잔에 술을 부어 태보에게 주었다. 태보는 임금님을 대신하여 잔을 받아 먼저 땅에 강신하는 제사를 지냈다. 그런 뒤에 술을 들어 이에 닿을 정도로 맛보고 물러나 자기 자리에 서서 술잔을 종인에게 주고 아래서 절하여 신의 주심에 감사하니, 강왕께서 또한 답하는 절을 하였다.

제사가 이미 끝나서 태보가 당을 내려가니 책임자가 기물을 거두고 제사를 돋던 제후들은 모두 묘당의 문 밖으로 나아가 새 임금을 기다려 뵙게 되었다.

麻冕(마면) : 삼베로 만든 관.

黼裳(보상) : 검은빛 · 흰빛 도끼 무늬가 들어 있는 바지로, 제사 때 입음.

蟻裳(의상) : 개미 같은 검은 바지.

卽位(즉위) : 제자리에 나아가는 것.

太宗(태종) : 태종백(太宗伯)으로 의례를 맡은 관원.

圭(규) : 구슬로 만든 홀(笏).

上宗(상종) : 태종.

書(서) : 서책으로, 명령이 씌어 있는 대쪽.

冊命(책명) : 명령이 적혀 있는 책.

皇后(황후) : 대왕(大王)의 뜻.

道揚(도양) : 성명 · 선언의 뜻.

末命(말명) : 마지막 명령.

嗣訓(사훈) : 선왕의 교훈을 이어 지키는 것. 즉 임금이 되는 것.

乃受同璽(내수동모) : 그런 뒤 임금이 태종으로부터 구슬 술잔과 그 덮개를 받는 것임.

太保受同(태보수동) : 임금이 음복하신 잔을 태보가 받은 것.

祚(작) : 여기서는 보제(報祭)의 뜻.

宗人(종인) : 소종백(小宗伯)으로 태종을 돋는 사람.

受同(수동) : 종인(宗人)으로부터 술잔을 받는 것.

收(수) : 재상을 거두는 것.

강왕지고(康王之誥)

강왕(康王)이 여러 사람들에게 고한 말로서, 금문과 고문에 다 실려 있는데 금문에는 이 편이 고명(顧命)에 합쳐져 있다.

1 임금이 나가서 응문(應門) 안에 머무르니 태보(太保)가 서쪽 제후들을 거느리고 응문 왼쪽으로 들어오고, 필공(畢公)은 동쪽 제후들을 거느리고 응문 오른쪽으로 들어 왔다. 모두 네 마리의 몸이 누렇고 말갈기가 붉은 말을 벌여 놓았다.

손들은 홀과 폐백을 받쳐 들고 아뢰기를, “여러 호위하는 신하들이 감히 토산물을 가져다 바치는 바입니다” 하며 모두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임금은 마땅히 덕을 이을 분이라 답배(答拜)하셨다.

태보와 예백(芮伯)이 모두 나와 서로 읍하고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기를, “감히 천자님께 삼가 아립니다. 하느님이 큰 나라인 은나라 명을 바꾸시니, 주 나라 문왕과 무왕이 크게 그것을 이어받아 서쪽 땅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새로 즉위하신 임금님은 상별을 모두 적절히 하시고, 그분들의 공을 안정시켜 뒷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임금님은 삼가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육군을 크게 유지하시어, 우리의 높은 할아버지들의 얻기 힘든 명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여러 나라 제후들과 후복 · 전복 · 남복 · 위복의 제후들이여! 이 한 사람 교(釗)는 널리 고하오. 옛 임금 문왕과 무왕께서는 고루 부하게 하시고 허물을 힘써 벌하지 않으셨소. 지극히 모두가 믿도록 하여 천하에 덕을 밝히셨소. 그리고 또 곰과 말곰 같은 사람들과 두 마음을 갖지 않은 신하들이 있어서 왕실을 보호하고 다스려 주었소. 이리하여 하느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것이오. 하늘은 그의 도를 가르치시어 세상을 맡겨 주셨던 것이오. 또 명하여 제후들을 세우고 울타리를 만들어 우리 뒷사람들을 돌보아 주셨으니, 지금 나의 여러 아저씨들은 바라건대, 당신의 앞 분들이 선왕의 신하로서 일하던 것을 돌보아 안정시켜 주시오. 비록 당신들의 몸은 밖에 있다 해도 마음은 왕실에 있어 주어야겠소. 그럼으로써 근심을 받들어 순종하

여, 어린 이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끼치지 않도록 해주시오.”

여러 제후들은 모두 명령을 듣고 나서 서로 읍하여 나아갔다.

왕도 관을 벗고 상복을 갈아 입으셨다.

王出在應門之內。太保率西方諸侯，入應門左，畢公率東方諸侯，入應門右，皆布乘黃朱。賓稱奉圭兼幣，曰：“一二臣衛敢執壤奠。”皆再拜稽首。王義嗣德，答拜。

太保暨芮伯咸進相揖，皆再拜稽首，曰：“敢敬告天子。皇天改大邦殷之命，惟周文、武誕受羑若，克恤西土。

惟新陟王，畢協賞罰，戡定厥功，用敷遺後人休。今王敬之哉。張皇六師，無壞我高祖寡命！”

王若曰：“庶邦侯、甸、男、衛！惟予一人釗報誥。

昔君文、武，丕平富，不務咎，底至齊信，用昭明于天下，則亦有熊羆之士不二心之臣，保乂王家，用端命于上帝。皇天用訓厥道，付畀四方。

乃命建侯樹屏，在我後之人，今予一二伯父尚胥暨顧，綏爾先公之臣服于先王。雖爾身在外，乃心罔不在王室。用奉恤厥若，無遺鞠子羞。

羣公旣皆聽命，相揖趨出。王釋冕，反喪服。

[통석] 강왕이 왕위에 오르자 여러 신하들이 새 임금께 문안을 드렸다. 이에 강왕이 필문(畢門)을 나와 응문(應門) 안에 있었다. 태보인 소공이 서백(西伯)이 되었으므로 서쪽 땅의 제후들을 거느리고 응문 왼편으로 들어오고, 필공(畢公)은 동백(東伯)이 되었으므로 동쪽 땅의 제후들을 거느리고 오른편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섰다. 모두 갈기가 붉은 네 마리의 누런 말을 벌여 세웠다. 손님이 되는 제후는 각기 받들고 있는 훌과 폐백을 들고 아뢰었다.

“임금님께서는 새로 큰 위에 나아가시니 여러 신하가 예를 다하여 조현(朝見)함이 마땅하옵니다. 저희 여러 신자(臣子)는 외지(外地)에 있어 임금님의 호위자 노릇을 하는 사람으로서 감히 그 지방 토산물인 말과 폐백을 드리옵니다”라고 하면서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강왕께서 큰 위에 나아가시어 그전 왕의 덕을 잊게 되실 분이므로 또한 답하여 절하셨다.

태보인 소공과 사도인 예백과 여러 신하가 모두 앞으로 나아가 서로 읍하고, 모두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저희들 여러 신하는 감히 공경을 다하여 천자님께 고백하옵니다. 하늘이 은나라의 주(紂)가 무도함을 싫어하시어, 마침내 큰 나라 은의 천명을 바꾸어 천하를 잊게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주나라의 문왕, 무왕 두 성덕을 갖추신 임금님께서 서로 이으셨습니다. 곧 유리옥(羑里獄)을 벗어나 비로소 천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승하하신 우리 성왕께서는 공평한 사랑과 밝은 위덕으로 상을 내리고 벌을 내리는 일에 있어 정당하게 처리함으로써, 능히 그 공을 세우게 하고 뒷사람에게 아름다운 복을 끼쳐 주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왕위를 이으셨으니 능히 이를 안보해서 잘 지키고 공경하셔야 합니다. 평안한 세월이 오래 흐르면 점차 쇠퇴해지기 쉽습니다. 반드시 군사를 잘 다스려 육사(六師)의 제도를 크게 확장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 복종하게 천하를 안정시키십시오. 우선 편한 것만 생각하고 계을리져 우리 높으신 조상인 문왕·무왕의 얻기 어려운 명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언제나 명념하여 행하십시오.”

강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 여러 나라의 후복·전복·남복·위복 등 제후들은 이미 나에게 경계하여 주었소. 나 한 사람 교(釣)는 또한 장차 그대들의 훈계에 보답하려 하오.

옛날에 우리 선왕이신 문왕·무왕께서는 크고 넓은 덕이 있으시매 천하를 풍부하게 하여 오직 덕에 힘쓰시고 형별에는 힘쓰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음을 미루어 지극한 자리에 이르게 하고 정성된 마음을 다하여 천하를 밝게 하니, 곰과 같이 힘센 무사와 순일하고 충실하여 두 마음이 없는 어진 신하가 있어 서로 보좌하여 주나라의 왕실을 보호하고 다스렸던 것이오. 그러므로 문왕과 무왕께서는 이로써 단정한 명을 하느님으로부터 이어받으셨고, 하느님께서는 이로써 그 도에 따라 사방의 큰 땅을 부여해 주신 것이오.

선왕이신 문왕과 무왕께서는 왕업을 이룩하시고 이어서 제후들을 봉하여 울타리

에 세우셨으니 그 뜻이 모두 우리 후세 자손들을 보좌함에 있었던 것이오.

이제 여러 성이 같으신 아저씨뻘 되는 제후들은 서로 더불어 그대들의 선조가 우리 선왕에게 신하로서 복종하던 도리를 돌이켜 생각하고 나라를 편안히 다스려 주시고, 나를 도와서 올타리의 책임을 다해 주기 바라오. 그대들의 몸은 비록 직책에 따라 외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들의 마음은 모름지기 부지런히 나라에 대한 충성심으로 왕실을 생각하시기 바라오. 이 마음으로 윗사람의 근심을 받들어 어린 나로 하여금 후세에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게 하오.”

태보 이하 모든 제후들이 모두 임금께서 훈계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서로 읍하고 물러났다. 이에 임금께서는 곤룡포와 면류관을 벗고 상복으로 갈아입으셨다. 이제 즉위하는 길한 예식이 끝났으므로 상중(喪中)에 있는 예를 차리신 것이다.

應門(응문) : 조문(朝門). 《주례(周禮)》에 의하면 궁정에 고문(阜門) · 치문(雉門) · 고문(庫門) · 응문(應門) · 노문(路門)(필문)의 5문이 있다고 했다.

黃朱(황주) : 제후들이 임금에게 예물로 바치는 누런 몸에 붉은 갈기의 말.

賓(빈) : 제후들.

一二(일이) : 여럿의 뜻.

臣衛(신위) : 나라를 호위하는 신하. 즉 제후를 가리킴.

王義嗣德(왕의사덕) : 사관이 서술한 말로, 사덕(嗣德)은 선왕의 덕을 계승하는 것을 말함.

長皇(장황) : 장대(張大)의 뜻.

六師(육사) : 육군으로 천자의 군대.

高祖(고조) : 높은 할아버지 문왕(文王).

寡命(과명) : 받기 어려운 명.

庶邦(서방) : 여러 나라.

侯甸男衛(후전남위) : 후복(侯服) · 전복(甸服) · 남복(男服) · 위복(衛服)의 여러 제후들.

報誥(보고) :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훈계를 하겠다는 뜻.

務咎(무구) : 애써 백성들의 허물을 꼬집어내어 다스리는 것.

熊羆之士(웅비지사) : 곰이나 말곰처럼 용감한 군대를 뜻함.

不二心之臣(불이심지신) : 오직 한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는 신하.

訓厥道(훈궐도) : 히늘의 도로써 가르치는 것.

付界(부비) : 주어 맡기는 것.

建侯(건후) : 제후들을 세우는 것.

樹屏(수병) : 나라의 올타리를 세우는 것.

伯父(백부) : 임금의 백숙부(伯叔父)가 되는 제후들.

奉恤(봉휼) : 임금을 받들어 나랏일을 근심하는 것.

鞠子(국자) : 임금 자신을 가리킴.

反喪服(반상복) : 상복을 도로 입는 것. 즉위는 길례(吉禮)에 속하므로 상증이라도 길복(吉服) · 흥복(凶服)의 중간 예복을 입는 것임. 식이 끝나자 임금은 다시 상복을 입은 것이다.

필명(畢命)

강왕이 성주(成周)의 백성들을 필공(畢公)에게 명하여 보호하고 다스리게 하면서 훈계한 말이 이 편이다.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만 실려 있다.

1 십이년 유월 초사흘 경오(庚午)날에서 사흘째인 임신(壬申)날, 임금은 아침에 호경(鎬京)으로부터 걸으셔서 풍(豐) 땅에 이르셨다. 그리고 필공에게 명하여 성주(成周)의 백성들을 동쪽 교외에서 보호하고 다스리게 하였다.

惟十有二年六月庚午朏越三日壬申，王朝步自宗周至于豐。以成周之衆，命畢公保釐東郊。

[통석] 강왕이 즉위하신 지 십이 년째 되던 해 유월 초사흘(경오일)이 지나서 사흘째인 임신일이었다. 이날 아침에 강왕은 호경으로부터 보행으로 풍 땅에 이르러 친히 문왕의 사당에 고하고 필공에게 명하여, 성주의 백성들을 낙읍에서 다스리게 하였다.

十有二年(십이년) : 강왕 12년(1067 B.C.).

朏(비) : 따라서 경오(庚午)는 초사흘임.

宗周(종주) : 호경(鎬京).

豐(풍) : 문왕의 도읍터로 그의 묘가 있다.

成周(성주) : 주공(周公)이 낙읍을 경영한 뒤 붙인 이름.

2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오오, 보사(父師)여! 문왕과 무왕께서는 천하에 큰 덕을 펴시어 온나라의 명을 받을 수 있으셨소.

주공께서는 선왕을 보필하여 나라를 안정시키시고 은나라의 미련한 백성들을 낙읍으로 옮겨 왕실과 가깝게 하셨소. 그의 가르침에 교화되어 삼십칠 년이 지났으니 세상도 풍속도 바뀌어 온 세상이 근심이 없게 되고 나도 편안해졌소.

세도(世道)는 오르내림이 있고 정사는 풍속을 따라 바뀌는 것이니, 그의 착함을 착하게 하지 못하면 백성들에 권할 바가 없게 되오. 주공께서는 오직 덕에 힘써 조그만 사물에도 부지런하셨소. 사대(四代)를 밝게 도와 바른 낮빛으로 아랫사람을 거느려 스승의 말처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없게 하셨소. 아름다운 공적이 선왕보다 많았으니 이 작은 사람은 옷자락을 늘어뜨리고 팔짱을 낀 채 이루어지는 공을 우러러볼 뿐이었소.”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오오, 보사여! 지금 나는 주공이 하시던 일을 공에게 삼가 명하노니 가십시오.

착한 이를 표창하고 악한 자를 구별하여 그들이 사는 마을을 표하며, 선함을 드러내고 악함을 물리쳐 풍조(風潮)와 명성을 그곳에 세우시오. 가르침과 법을 따르지 않거든, 정리(井理)에 한계를 따로 하여 두렵고 사모하게 하십시오. 교외와 기내(畿內)를 구획(區劃)하고, 봉토(封土)의 지킴을 삼가 굳게 하여 온 세상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정치는 떳떳한 것을 귀히 여기고, 말은 체(體)와 요(要)를 송상하는 것이라, 기이한 것을 좋아하지 않소. 상나라 풍속이 들떠서 말 잘하는 것만을 어질게 여겼는데, 아직 그 여풍이 가시지 않았으니 공은 유의하시오.

내가 듣기로 ‘대대로 녹을 받는 집안은 예를 행하는 이가 적어, 방탕하여 덕을 넘보며 천도를 어겨 교화를 해치고 사치하고 고운 것을 송상해 만세토록 고치지 못한다’고 하였소.

은나라 사람들은 영화를 누린지 오래되어, 사치를 즐기고 도의를 돌보지 않았소. 남보다 옷을 아름답게 꾸미기에 힘쓰고 교만하고 자랑만 하니 악으로 말미암아 끝장을 보았소. 아무리 풀어진 마음을 수습하려 해도 막기가 어려웠던 것이오, 부유하고도 교훈을 따른다면 목숨을 길게 부지할 수 있을지니 오직 덕과 의가 큰 가르침인 것이오. 옛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달리 무슨 교훈이 있겠소?”

王若曰：“嗚呼！父師！惟文王、武王，敷大德于天下，用克受殷命。
惟周公左右先王，綏定厥家，毖殷頑民，遷于洛邑，密爾王室，式化厥訓。旣歷三紀，
世變風移，四方無虞予一人以寧。
道有升降，政由俗革，不臧厥臧，民罔攸勸。
惟公懋德，克勤小物，弼亮四世。正色率下，罔不祗師言。嘉績多于先王，予小子垂拱
仰成！”
王曰：“嗚呼，父師！今予祗命公以周公之事，往哉！
旌別淑慝，表厥宅里，彰善瘅惡，樹之風聲。弗率訓典，殊厥井疆，俾克畏慕。申畫郊
圻，慎固封守，以康四海！
政貴有恒，辭尚體要。不惟好異。商俗靡靡，利口惟賢。餘風未殄，公其念哉！
我聞曰：‘世祿之家，鮮克由禮，以蕩陵德。實悖天道，敝化奢麗，萬世同流。
茲殷庶士席寵惟舊，怙侈減義，美服美于人。驕淫矜夸，將由惡終。雖收放心，閑之惟
艱。
資富能訓，惟以永年，惟德惟義，時乃大訓。不由古訓，于何其訓？’”

[통석] 강왕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오, 보사 필공이여! 우리 문왕과 무왕께서 큰 덕을 천하에 베푸시어, 명을 받아
온나라를 이어 왕업을 창건하신 뒤 오늘까지 지켜왔소.

주공께서 선왕을 도우시어 나라를 편안히 다스려 왕업을 안보하고 굳혀 놓은 것이
오. 또 삼가 교화하기 어려운 온나라의 어리석은 백성을 다스려 낙읍에 옮기고 이
들을 왕실에 가까이하게 하여 덕과 의로써 교화하였소. 이미 삼기(三紀 36년)의
세월이 흘러 세태는 변하고 풍속은 달라졌소. 이제 온나라 백성들은 안정되어 사
방에 근심거리가 없어졌소. 이리하여 나 한 사람은 편안하여졌소.

세상의 도리는 날로 올라가 잘 다스려지는 때도 있고, 날로 내려와 어지러워지는
때도 있소. 그러므로 정사를 하는 사람은 풍속에 따라서 변혁해야 하오. 이제 정사
는 착하고 간특함을 가려낼 때요. 진실로 그 착함을 알아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권

장하고 우러러 생각할 바가 없는 것이오.

오직 필공께서는 큰 덕에 힘쓰시고 또 능히 작은 일까지도 부지런하고 삼가시어, 문왕·무왕·성왕 및 나까지 4대에 걸쳐 보필해 주고 빛내 주셨소. 항상 조정에서 바른 얼굴빛으로 아랫사람을 거느리시니 모든 신하가 스승삼고 본받아 그 말씀을 공경하지 않음이 없었소. 공의 아름다운 공적은 이미 선왕의 때보다 많은 바 있으니 이제 미약한 나는 팔짱을 끼고 이루어지는 공을 우러러볼 뿐이었소.”

강왕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오오, 보사 필공이여! 이제 나는 조묘(朝廟)에 나아가 삼가 책명(冊命)을 행하고, 주공께서 온나라 백성을 교화해서 복종시키던 일을 공에게 맡기니 가시기 바라오. 낙읍을 보호하고 다스림엔 반드시 착한 사람과 간악한 사람을 가려서, 찬양하고 제어해야 하오. 그 교훈에 잘 따르는 사람은 그가 사는 집과 마을을 세상에 널리 알려 착한 사람을 빛냄으로써 악한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도록 하여, 착한 사람의 명성을 높이 드러나게 하오.

가르침과 법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논밭의 경계를 만들게 하여, 악을 행함으로써 받는 재화를 두려워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받는 복을 부려워하도록 하게 하오. 또 왕기(王畿)의 지경(地境)이 이미 옛날부터 그려져 있으나, 모름지기 거듭 왕기와 교외를 구별해서 정하도록 하오. 이러하면 사해의 백성들은 편안히 안정하게 될 것이오.

정치란 항상 일정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 아침저녁으로 법을 고치지 않도록 하오. 말이란 전체를 포괄하면서도 간결해야 되는 것이니 실속 없이 떠들지 않도록 하오. 마땅히 총명으로 다스려 기이한 것을 좋아하지 않도록 하오.

상나라 풍속이 풍미하여 곁으로 말만 잘하면 어질다고 한 적이 있었소. 주공의 성스러움과 군진(君陳)의 어진 인격으로도 젖어온 풍습을 뿐리 뽑지 못했으니 공은 특히 염두에 두기 바라오.

내가 들으니 옛사람이 밀하기를 ‘무릇 대대로 녹을 받는 집안사람들은 편안한 환락만 따라다니므로 예절의 가르침을 죽는 사람이 적다. 따라서 교만하고 방자하여 덕이 있는 사람을 능멸하니 천도에 거스름이 아주 심하다. 이는 특히 한 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만 대에 걸쳐 대대로 녹을 받은 집은 다 마찬가지이다'고 했소.

이제 은나라의 여러 관리들은 대대로 녹을 받은 집안사람들이라, 그전 사람의 영화에 의해서 살아온 지가 오래이므로, 사치하고 교만하여 의리를 끊고, 한갓 의복만 빛나게 꾸미고 교만과 자랑을 일삼으며 죄악으로 끝장을 내려 하고 있소. 되풀이해서 훈계하면 방탕한 마음을 조금 거두기는 하겠지만 습관이 깊어지면 막을 도리가 없게 될 것이니 명심하오.

은나라의 관리들은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오. 재산이 풍부함에 능히 가르치면 마음이 밖으로 흐르지 않고, 오직 성명(性命)의 바른 자리를 온전히 지켜 장수를 누릴 것이오. 그러나 가르침에는 덕(德)과 의(義), 두 가지 뿐이니 이것이 곧 옛날의 큰 교훈이오. 만약 옛날에 말미암아 가르치지 않으면 그 무엇을 가르치겠소?"

父師(보사) : 태사와 같은 말.

三紀(삼기) : 36년. 1기는 12년.

升降(승강) : 도가 잘 행해지기도 하고 땅에 떨어지기도 함.

臧(장) : 선(善)의 뜻.

四世(사세) : 문 · 무 · 성왕을 거쳐 강왕에 이르는 4대를 말함.

仰成(양성) : 일을 이루기를 우러러 바라보고만 있다는 말.

旌別ள慝(정별속특) : 선한 자를 표창하고 악한 자를 가려내는 것.

風聲(풍성) : 풍조와 명성.

畏慕(외모) : 악을 두려워하고 선을 그리워하는 것.

體要(체요) : 체는 이치와 뜻이 완전히 갖추어진 것. 요는 간략하되 중체(衆體)가 합한 것.

利口(이구) : 사실과 다른 교묘한 말.

世祿(세록) : 대대로 녹을 받아먹고 지내온 집안.

由禮(유례) : 예를 행하는 것. 예를 좇는 것.

萬世同流(만세동류) : 만세토록 그대로 담습하는 것.

美于人(미우인) : 남보다 아름다워지려 하는 것.

由惡終(유악종) : 나쁜 결과로 끝장을 보고 마는 것.

3 임금께서 또 말씀하셨다.

"오오, 보사(父師)여! 나라의 편안하고 위태로움은 오직 이 은나라을 다스리는 데

있으니, 강하게도 유하게도 하지 않아야 그 덕이 닦아질 것이오.

주공이 그 처음을 삼가 다스리니 군진(君陳)이 중기(中期)에 조화를 이루어 놓았고, 공이 그 끝마무리를 하게 되었소. 세 분이 협심하여 한결같이 도에 이르게 함으로써 도는 정치에 흡족히 미치고 은택이 백성들에게 베풀어져, 왼쪽으로 웃깃을 여미는 사방 오랑캐들까지도 모두 의지하게 될 것이니, 나 소자도 오래도록 많은 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소.

공은 이 성주(成周)에 무궁한 터전을 세우시오. 그러면 공에게도 무궁한 성문(聲聞)이 따를 것이요, 자손들도 그 이룬 법을 쫓아서 잘 다스려지게 될 것이오.

오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주오. 백성이 적다고 말하지 말고 일을 삼가 주오. 옛 임금님들께서 이루신 공을 삼가 쫓아 이전의 정치보다 아름답게 해주시오.”

王曰：“嗚呼，父師！邦之安危，惟茲殷土。不剛不柔，厥德允修。

惟周公克慎厥始，惟君陳克和厥中，惟公克成厥終。三后協心，同底于道，道治政治，澤潤生民。四夷左衽，罔不咸賴，予小子永膺多福。

公其惟時成周，建無窮之基，亦有無窮之聞，子孫訓其成式惟父。

嗚呼！罔曰弗克，惟既厥心。罔曰民寡，惟慎厥事。欽若先王成烈，以休于前政！”

[통석] 강왕께서 말씀하셨다.

“오오, 보사 필공이여! 우리 주나라의 안정됨과 위태로움은 오로지 이 은나라 사람들이 복종하느냐 않느냐에 달려 있소. 이들을 교화하는 데는 중도를 잡아서 다스려야 할 것이오. 군세계 하되 사나움에 이르지 말고, 부드럽다고 해서 고식적인 데 흐르지 않으면, 장차 은나라 사람들이 은혜에 감복하여 위엄을 두려워하고 진실로 그 덕을 닦으려 할 것이오.

옛날 주공께서 스스로 은나라 백성을 살피심에 삼가고 조심하셨으니, 이는 그 처음을 신중히 한 것이오. 군진이 주공을 이어 조용하고 화하게 하니, 이는 그 가운데

데를 조화시킨 것이오. 공께서는 또 강함과 부드러움을 아울러 쓰시어 그 끝맺음을 잘하도록 하오.

세 분께서 그 마음을 협화(協和)하여 함께 다스리는 도에 이르시면, 장차 그 도가 젖어들이 잘 다스려지리라 믿소. 은택이 온나라 백성으로부터 사방으로 미쳐 만민에게 고루 스며들면 왼쪽으로 웃깃을 여미는 사방의 오랑캐들의 풍속도 모두 중국을 우러러 힘입게 될 것이오. 이에 나 또한 길이 다복하게 될 것이며, 이는 모두 공의 공덕이라 생각할 것이오.

공이 이 성주를 위하여 천만 년이 되도록 무궁할 기업을 세우시면, 또한 천만 년이 되도록 무궁한 명성이 자손들에게 이르러 마땅히 이루어 놓은 법에 따라 후손들을 잘 다스리게 될 것이오.

오오, 공이여! 이제 동쪽 교외에 가시어 온나라 백성을 다스림이 어렵다 하여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마땅히 힘써 그 마음을 다하시기 바라오. 또 온나라 백성은 적고 약하므로 거느리기 쉽다고 말하지 마시고 마땅히 그 일을 삼가고 조심하여 선왕께서 이루어 놓으신 공렬(功烈)에 따라 주공과 군진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도록 하오”

閑(한) : 등한히 하는 것.

三后(삼후) : 주공(周公) · 군진(君陳) · 필공(畢公)을 가리킴.

四夷(사이) : 사방의 오랑캐.

左衽(좌임) : 왼쪽으로 웃섶을 여미는 것. 중화인은 오른쪽으로 웃섶을 여미는 것인데 좌임은 오랑캐 풍습이라 보았다.

聞(문) : 기리는 말을 듣는 것.

惟既厥心(유기궐심) : 오직 그 마음을 다하여 나라를 위해 일하기를 바란다는 것.

군아(君牙)

군아(君牙)는 신하 이름이다. 목왕(穆王)이 군아를 대사도(大司徒)로 임명하면서 훈계한 말이 이 편이다.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만 있다. 강왕이 죽고 아들 소왕(昭王)이 뒤를 이었고, 다시 그의 아들 목왕이 즉위하고 난 뒤의 일이다.

1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오, 군아(君牙)여! 그대 할아버지와 그대 아버지가 대대로 충성을 다하여 왕가에 수고해 주어 그 공적이 태상(太常)에 기록되어 있소.

나 소자가 문왕·무왕·성왕·강왕의 유업을 계승하고 있음은 또한 선왕의 신하들이 보좌하여 사방을 다스려 준 덕택이라 믿소. 그러나 마음속의 근심과 두려움이 범의 꼬리를 밟고 봄의 얼음판을 건너는 것과 같소.

이제 그대에 명하노니 나를 도와 팔다리가 되고 마음과 척골이 되어 주오. 그대 선조의 일을 이어 조상을 육되게 마오.

오륜을 널리 펴되 백성의 법을 공경하여 화합하게 하오. 그대 몸이 바르면 감히 바르지 못한 것이 없을 것이오. 백성의 마음은 중정하지 않으나 오직 그대는 중정하여야 하오.

여름의 더운 비에도 백성들은 원망하고 탄식하며, 겨울 큰 추위에도 백성들은 또한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니, 그들을 다스린다는 일은 어렵소. 그 어려움을 생각하여 그 쉬움을 도모하면 백성들은 이에 편안해질 것이오.

오오! 크게 나타났도다, 문왕의 도모하심이여! 크게 이었도다, 무왕의 공이여! 우리 후인(後人)을 계발하고 도와주시되 바른 도리로 하고 결함이 없으셨으니, 그대는 이 가르침을 삼가 밝혀서 선왕을 받들고 따르시오. 문왕·무왕의 빛나신 명을 선양하여 그 공이 옛사람의 짹이 되게 하여 주오.”

임금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군아여! 그대는 오직 옛 어른의 옛 법을 따라 본받아야 하오. 백성을 다스리고 못 다스림이 이에 있으니, 그대 조고(祖考)가 행하던 바를 죽어 그대 임금에게 치적이

있게 밝혀 주오.”

王若曰：“嗚呼，君牙！惟乃祖乃父，世篤忠貞，服勞王家，厥有成績紀于太常。惟予小子，嗣守文、武、成、康遺緒，亦惟先王之臣，克左右亂四方。心之憂危，若蹈虎尾，涉于春冰。

今命爾予翼，作股肱心膂。續乃舊服，無忝祖考！

弘敷五典，式和民則。爾身克正，罔敢弗正。民心罔中，惟爾之中。

夏暑雨，小民惟曰怨咨，冬祁寒，小民亦惟曰怨咨。厥惟艱哉。思其艱以圖其易，民乃寧。

嗚呼！不顯哉，文王謨。不承哉！武王烈！啓佑我後人，咸以正罔缺。爾惟敬明乃訓，用奉若干先王。對揚文、武之光命，追配于前人！

王若曰：“君牙！乃惟由先正舊典時式！民之治亂在茲。率乃祖考之攸行，昭乃辟之有乂！”

[통석] 목왕이 군아를 대사도로 삼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오, 군아여! 그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는 선왕 때에 사도가 되어 대대로 우리 주나라 왕가를 위해 수고롭게 일하심으로써 아름다운 공적을 이루어 이에 태상(太常)의 기(旗)에 빛나게 기록되어 있소.

미약한 내가 문왕·무왕·성왕·강왕의 유업을 이어받았으니, 또한 우리 선왕들의 신하처럼 나 한 사람을 잘 도와서 천하 사방의 다스림을 생각하오. 그러나 어진 인재를 얻기가 어려울까 저어하오. 그러므로 마음 가운데 근심되고 위태로운 생각이 마치 호랑이의 꼬리를 밟은 듯하며 봄날 얼음 위를 건너는 것처럼 두렵소.

이제 그대를 사도의 벼슬에 명하여 나를 보의(補翼)케 하니 마땅히 나의 팔다리가 되도록 하오. 그대는 능히 충성스럽고 곧게 일하여 옛날 그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행하시던 바를 이어 혹시라도 먼저 쌓은 업적을 무너뜨려 조상을 욕되게 하지 마오.

그대가 사도가 되어 나라의 가르침을 주관함에 반드시 친(親) · 의(義) · 별(別) · 서(序) · 신(信)의 다섯 가지 당당한 도리를 베풀어 삼가 백성들의 떳떳한 법칙을 화합하도록 하오. 그러나 가르침을 세우는 근본은 또 그대의 몸에 있는 것이니, 그대의 몸이 능히 바르면 백성들이 보고 본받아서 바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오. 백성들의 마음이 혹 악에 빠져 중정(中正)의 도리를 잃으면, 그대는 마땅히 중정의 도리로써 거느리도록 하오.

사람이란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한 뒤에야 예의와 사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오. 예를 데고 비가 내리면 낮은 백성들은 몸을 드러내 놓고 밭 가운데 일하면서 서로 원망하고 탄식하며, 겨울에 크게 추워 손발과 살갗이 얼게 되면 낮은 백성들은 또 한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오. 그것은 생계가 어렵기 때문이니 사도가 된 사람은 마땅히 가난을 생각하여 먹고 입기에 쉬운 방도를 도모해 주면, 백성들의 삶도 편해질 것이오.

오오, 크게 빛나도다. 문왕의 꾀하심이여! 크게 잘 받들어 온 무왕의 공덕이여! 이로써 우리 후손들을 일깨우고 도우시어 일마다 모두 하늘의 바른 이치를 따르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소. 이제 그대도 마땅히 공경하여 사도로서의 가르침을 밝게 하여, 나를 돋고 선왕을 받들어 주오. 그리하여 문무의 빛나는 명을 드러내고 충성을 세상에 나타내어 또한 그전 사람에 짹하도록 하오.”

목왕께서는 거듭 이렇게 명하셨다.

“군아여! 이제 그대가 사도가 되었으니 오직 선조들의 옛 법에 따라 이를 준수하고 본받도록 하오. 옛 법을 본받으면 정치와 교화가 잘 닦아져서 백성이 다스려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정치와 교화가 해이해져서 백성들은 어지러워질 것이오. 백성의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짐이 이에 달려 있으니, 그대가 능히 그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행하시던 바를 따르면 천하는 편안히 다스려질 것이오. 또한 그대 임금의 정치적 공적을 밝게 드러냄이 될 것이니 아름답지 않겠소.”

太常(태상) : 해와 달이 그려 있는 임금의 깃대. 공로 있는 사람을 이 깃발에 기록한다.

遺緒(유서) : 유업의 뜻.

左右(좌우) : 임금 옆에서 보좌하는 것.

五典(오전) : 오상 · 오교라고도 하며, 오륜을 말함.

惟爾之中(유이지중) : 오직 그대가 중정함으로써 바로잡으라는 말.

圖其易(도기이) : 백성들의 다스림이 쉬워지도록 힘쓰라는 뜻.

追配(추배) : 짹이 되도록 하는 것, 즉 비슷해지도록 하는 것.

正(정) : 관장(官長)의 뜻.

경명(悶命)

목왕(穆王)이 백경(伯悶)이란 신하를 태복(太僕)에 임명하면서 훈계한 말을 사관이 기록하여 이 편을 만들었다. 태복이란 군사를 맡은 장관직으로서, 이 직위에 있는 사람이 정신을 가다듬고 군기를 바로잡으면 어떠한 사태에 부딪혀도 제승(制勝)할 수 있는 중요한 직위이기 때문에 각별히 훈계한 것이다.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만 실려 있다.

1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오! 백경이여! 내 덕이 모자란 몸으로 선인의 뒤를 이어 임금의 자리에 있게 되니 두렵고 위태로운 마음에 밤중에도 일어나 그 허물을 덜려고 생각하고 있소. 옛날 문왕과 무왕께서는 총명하셔서 모든 일을 환히 알고 계신 데다가 크고 작은 신하들이 모두 충성되고 어진 마음을 갖고 있어 모시고 있는 시종들까지도 바르지 않은 사람이 없었소. 아침저녁으로 그 임금을 받들고 돋기 때문에 출입하고 기거하는 데 공경하지 않음이 없었고 명령을 발하고 법령을 베푸는 데 착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백성들이 공경하여 따르고 온 나라가 다 아름답게 다스려졌소. 지금 나 한 사람이 어질지 못하니 좌우전후에서 벼슬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미치지 못하는 점을 바로잡아 주어 허물을 고치고 잘못을 시정하고 그른 마음을 바로잡아서 선왕의 업적을 잊게 해주시오.

지금 나 그대에게 명하여 대정(大正)을 삼노니, 여러 속관들과 시중드는 신하들을 감독하여 그대 임금이 덕을 힘쓰게끔 해주고 부족한 것을 서로 닦아 주기 바라오. 그대 동료들을 신중히 뽑아 말 잘하고 낯빛을 꾸미는 자와 눈치 보아 행동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는 쓰지 말고 오직 올바른 관원들만 등용해야 하오.

하속관원이 바르면 그 임금도 바르게 되고 하속관원이 아첨하면 그 임금도 스스로 잘난 체하는 것이니, 임금이 덕을 닦는 것도 어지럽히는 것도 모두 신하가 하기에 달려 있소.

그대는 간사한 자를 가까이하여 귀와 눈이 되는 벼슬에 있게 하므로 임금을 선왕

의 법이 아닌 데로 인도하게끔 하지 마오.

사람을 취하는 데에 착한 것을 취하지 않고 재물로 하면 그 벼슬을 더럽히는 것이니, 그대는 그대의 임금을 삼가 섬기지 않음이 되고, 나와 그대는 죄를 짓게 될 것 이오.”

임금이 말씀하셨다.

“오오! 공경하여 길이 그대 임금을 떳떳한 법으로 도와주오.”

王若曰：“伯冏！惟予弗克于德，嗣先人，宅丕后，忧惕惟厲，中夜以興，思免厥愆！昔在文、武，聰明齊聖，小大之臣，咸懷忠良，其侍御僕從，罔匪正人。以旦夕承弼厥辟，出入起居罔有不欽，發號施令罔有不臧，下民祗若，萬邦咸休。惟予一人無良，實賴左右前後有位之士，匡其不及，繩愆糾謬，格其非心，俾克紹先烈！”

今予命汝作大正。正于羣僕侍御之臣，懋乃后德，交修不逮！

慎簡乃僚，無以巧言令色便辟側媚，其惟吉士！

僕臣正，厥后克正，僕臣諛，厥后自聖。后德惟臣，不德惟臣。

爾無昵于愒人，充耳目之官，迪上以非先王之典！

非人其吉，惟貨其吉，若時癟厥官。惟爾大弗克祗厥辟，惟予汝辜。”

王曰：“嗚呼！欽哉，永彌乃后于彝憲！”

[통설] 목왕께서 백경(伯冏)에게 명하여 태복정(太僕正)을 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경이여! 오직 나 한 사람은 임금으로서의 덕을 온전히 갖추지도 못하고서, 문왕·무왕·성왕·강왕의 뒤를 이어 임금의 큰 자리에 올랐소. 이로 인하여 항상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과 위태로운 생각이 들어 밤중에 일어나 잠을 못 이루고 그 허물을 면하려 하고 있소.

옛날 문왕께서는 총명하시어 듣지 않는 바가 없으시고 보지 않는 바가 없으셨으

며, 삼가서 엄숙하셨고 성스러워 두루 통달하지 않는 바가 없으셨소. 또한 조정에 있는 신하들도 모두 충성스럽고 선량하여 가까이 모시는 시종들도 단정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아침저녁으로 그 임금을 따르고 도와주었던 것이오. 그러므로 한 번 출입하고 한 번 움직이는 것에 공경하지 않음이 없었소. 명령하는 바가 훌륭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아래 백성들이 모두 공경하고 따라오니, 모든 나라가 다 함께 아름다움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오.

나 한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어질지 못하니 전후좌우에서 벼슬하는 어진 이들에게 의지하여 힘입으려 하오. 그러니 모두들 그 마음을 다하여 미치지 못하는 바를 돋고, 그 허물됨을 바로잡고, 그 어그러짐을 바로잡고, 그릇됨을 바로잡아 주어 내가 문무의 덕을 이어받도록 해주오.

이제 나는 그대에게 태복정의 벼슬을 명하여 그대에게 소속되는 여러 시종들의 관장이 되게 하니 각기 힘써 그대들의 임금의 덕을 도와 내가 미치지 못하는 바를 일깨워 주도록 하오.

또한 관장의 직책이 있는 그대는 마땅히 그대에게 소속된 사람을 잘 간택하여, 함부로 실속 없이 말만 잘하는 사람이나 얼굴빛만 점잖은 체하는 사람이나 눈치만 보아 적당히 발라맞추거나 간사하게 아첨함으로써 임금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쓰지 않도록 하고 훌륭한 인재와 바른 사람을 쓰도록 하오.

곁에서 시중드는 신하는 임금의 덕에 관계됨이 아주 중대한 것이니, 만약 시종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 임금 된 사람은 날로 곧은 말을 듣게 되어 능히 정직해질 것이며, 만약 시중드는 사람이 아첨하는 소인이라면 그 임금은 거만스레 자칭 성인이 되어 그 뜻이 매양 경하고 방자해서 날로 사벽(邪辟)한 데 빠지고 말 것이오. 이는 임금이 덕을 이루는 것도 시중드는 사람에게 달려 있고, 부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시중드는 사람에게 달려 있음을 나타낸 예라 할 것이오.

그대는 삼가 간사한 소인을 가까이하여 나의 귀와 눈이 되는 시종의 벼슬에 채움으로써 나의 총명을 현혹시켜 임금을 인도함이 선왕의 옛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오.

이제 그대가 시종하는 사람을 구함에 만약 충량하고 올바른 사람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뇌물을 주어 영달하려는 사람을 좋게 생각하여 등용한다면, 좌우에는 모두 소인만 있게 되어 마침내 바르게 도와야 할 벼슬자리를 병 되게 하고 말 것이오. 따라서 그대는 임금을 크게 공경하지 않음이 되고 나와 그대는 직책을 허술하게 한 허물로 죄를 짓게 될 것이오.”

목왕께서 말씀하셨다.

“오오, 그대는 공경하오. 마땅히 정직한 사람을 간택하여 그대의 임금을 나라의 떳떳한 법으로 다루고 도우시오. 소인이 곁에 있어 임금의 마음을 미혹시키지 않도록 해주오.”

조后(비후) : 태왕(太王)의 뜻으로 봄.

恤惕(출처) :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

發號(발호) : 경계하는 뜻으로 내리는 군령 같은 것.

施令(시령) : 법령을 펴는 것.

繩(승) : 나무에 먹줄을 치듯이 바로잡는 것.

先烈(선렬) : 선왕의 훌륭한 공.

大正(대정) : 태복의 뜻. 정은 장(長), 즉 우두머리의 뜻.

不逮(불체) : 불급의 뜻.

巧言(교언) : 말을 교묘히 꾸며 하는 것.

令色(영색) :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얼굴을 꾸미는 것.

側媚(측미) : 비뚤어지게 아첨하는 것.

僕臣(복신) : 시중드는 신하.

耳百之臣(이목지신) : 임금의 귀와 눈이 되는 신하. 즉 임금 가까이에서 시종하는 시종들.

惟貨其吉(유화기길) : 오직 재물로 뇌물을 주며 벼슬하려는 사람.

彝憲(이헌) : 떳떳함.

여형(呂刑)

목왕(穆王)이 여후(呂侯)를 사구(司寇)에 임명하면서 훈계한 말을 사관이 기록하여 이 편을 만들었다. 사구란 형벌을 맡은 장관으로서, 선악을 정확히 판별하며 권선징악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심복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훈계한 것이다. 금문과 고문에 다 들어 있다.

1 여후(呂侯)를 임명했을 때, 임금이 나라를 다스린 지 백 년이 흘러 노쇠하고 혼미해졌으므로 혜아려 형벌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에게 고하였다.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 교훈이 있었소. 치우(蚩尤)가 처음 난리를 일으키니 백성들에게까지 뻔치고 미쳐서 도둑질하고 남을 해치는 짓을 하지 않는 자가 없게 되고, 의를 가벼이 여기고 반란을 일으키고 난동을 일삼아 서로 약탈하고 혼란을 일삼았소.

묘(苗)나라 백성은 착한 법을 쓰지 못해 형벌로 제재하였소. 다섯 가지 사나운 형벌을 만들어 놓고 법이라고 하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였소. 이때 비로소 코 베고 귀 베고 거세하고 멱칠 새기고 죽이는 형벌을 함부로 만들어 법에 걸리면 모두 형벌로 다스려 변명할 여지가 있는 자라도 차별을 두지 않았소.

백성들도 서로 물들어 어수선하고 어지러워졌고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약속과 맹세를 뒤엎었으며, 학정(虐政)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니 이에 하늘이 죄 없음을 호소하게 되었소. 하느님이 백성들을 굽어보시니 향기로운 덕은 없고, 참혹한 형벌로 인해 피비린내만이 났소.

하느님은 여러 죽은 사람의 죄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나움을 위엄으로써 갚으시니, 묘나라 백성들은 멸망하고 끊겨 지상에서 대를 잊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오. 이에 중(重)과 여(黎)에게 명하여 땅과 하늘이 통하지 못하게 하니, 신(神)이 내려 올 수 없게 되었소. 여러 제후들과 신하들은 밝은 법도에 어긋나는 짓만 했으며 홀아비와 과부들을 돌보아 주지 않았소.

하느님이 아래 백성들에게 밝게 물어 보시되, 홀아비와 과부들이 묘나라의 허물을

고하였소. 이에 덕으로 위압하시니 두려워하게 되고, 덕으로 밝히시니 밝아졌소. 이에 세 분에게 명하시어 백성들을 구제하게 하시니, 백이(伯夷)는 법을 펴서 백성을 형벌로부터 막았고, 우(禹)는 물과 땅을 다스려 이름난 산천(山川)을 맡고, 직(稷)은 씨 뿌리는 법을 널리 펴서 아름다운 곡식을 풍족하게 하셨는데, 세 분이 공을 이루매 백성들이 넉넉하게 되었소.

사관(士官)은 백성들을 중정한 형벌로 제재하여 가르침으로써 덕을 공경하게 하였소.

공경되니 윗자리에 있고, 밝게 아래에서 섬기니 사방에 빛나서 부지런히 덕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소. 이에 형벌의 중정함을 밝혀 백성들을 다스려 뜻深远한 덕을 지니게 했소.

옥사를 다스리는 것은 위세를 부리는 데 목적이 있음이 아니고 잘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 삼가고 두려워하여 몸에 옥될 말이 돌아오지 않게 하시오. 하늘의 덕을 따를 수 있고 스스로 큰 명을 따르게 된다면, 하늘과 짹지어 누림을 받게 될 것 이오.”

惟呂命, 王享國百年耄, 荒度作刑, 以詰四方。

王曰：“若古有訓, 崩尤惟始作亂, 延及于平民, 囂不寇賊, 鴟義姦宄, 奪攘矯虔。苗民弗用靈, 制以刑, 惟作五虐之刑曰法, 殺戮無辜。爰始淫爲劓刖椓黥, 越茲麗刑并制, 囂差有辭。

民興胥漸, 混混棼棼, 囂中于信, 以覆詛盟, 虐威庶戮, 方告無辜于上。上帝監民, 囂有馨香德, 刑發聞惟腥。

皇帝哀矜庶戮之不辜, 報虐以威, 遏絕苗民, 無世在下。

乃命重黎, 絶地天通, 囂有降格。羣后之逮在下, 明明棐常, 鰥寡無蓋。

皇帝清問下民, 鰥寡有辭于苗, 德威惟畏, 德明惟明。

乃命三后, 恤功于民, 伯夷降典, 折民惟刑, 禹平水土, 主名山川, 稷降播種, 農殖嘉穀, 三后成功, 惟殷于民。

士制百姓于刑之中, 以教祗德。

穆穆在上, 明明在下, 灼于四方, 囧不惟德之勤。故乃明于刑之中, 率乂于民彝彝。
典獄非訖于威, 惟訖于富, 敬忌, 囧有擇言在身。惟克天德, 自作元命, 配享在下。

[통석] 여후(呂猴)가 대사구(大司寇)가 됨에 목왕의 명을 받들어 법을 가르쳤다. 목왕이 나라를 이어받은 지 오십 년, 그 나이 백 살을 해아리게 되었으므로 늙고 혼미하여 거칠고 소홀하였다. 그러나 형벌은 중대한 일이므로 시세의 마땅한 것을 해아려서 법률을 만들어 사방을 다스렸다.

여후는 목왕의 명을 전하여 말하였다.

“여기엔 옛날부터 전해 오는 훈계가 있소. 태고적에는 화기 있고 인정이 두터워 백성들의 풍속이 착하지 않음이 없었소. 황제 때에 이르러 치우(蚩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난동을 일으켰소. 이것이 연장되어 평민들에게까지 미쳐 모두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소. 백성들은 도적질을 하고 사람을 해치는 등 올빼미처럼 사나운 짓을 일삼았소.

사람을 해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도둑질하고 겁탈하고 속이고 죽이는 것을 다반사로 알았었소.

묘족(苗族)들이 치우의 흉포함을 본떠 착한 일을 행하지 않았소. 형벌로써 이들을 제재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혹독한 법률을 만들어 떳떳한 법을 삼고 끝내는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살육하기에 이르렀소.

코 베고 귀 베고 거세하고 얼굴에 먹칠하는 형벌을 실시하여 법에 걸려든 사람에겐 반드시 이 형벌을 가하였던 것이오. 또한 여러 사람을 연루시켜 시비와 곡직을 잘 가려내지도 않고 처벌하였소. 그때의 백성들이 모두 이러한 풍조에 물들어 악한 짓을 행하니 온 세상이 혼미하고 요란하였소. 행하는 일마다 모두 마음에 진실함이 없고 서로 저주하며 맹세를 뒤엎었으며 서로 속이고 속아 혼란하였소. 포악한 정치로 위압하니 참혹한 형벌을 받은 백성들이 억울함을 하늘에 호소하자 하늘이 묘나라 백성들을 굽어 살핌에, 향기로운 덕행을 갖춘 사람은 없고 혹독한 형벌을 행하는 피비린내가 날 뿐이었소.

이에 순(舜)임금께서 모든 백성이 죄 없이 살육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느님의 뜻을 우러러 받들어 묘나라 백성을 학대하는 죄에 대하여 살벌한 위엄으로써 대응하였소. 그리하여 묘족을 전멸시키고, 그 군주를 귀양 보냈으며 그 무리를 헤쳐 대대로 아래 나라에 두지 않게 하였던 것이오.

삼묘(三苗)들이 혼미하고 포악함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신에게 물어 보았소. 이에 무당들이 요사스러운 말을 퍼뜨려 백성과 귀신의 사이를 어지럽히니, 사(邪)와 정(正)이 구분되지 못하였소. 순임금께서 중씨(重氏)와 여씨(黎氏)에게 명하여 제사지내는 법을 닦고 밝혀, 높고 낮음과 위아래와 땅과 하늘이 혼잡하게 왕래하는 것을 근절시켰소. 이에 귀신이 재앙과 복을 내린다고 거짓 평계하는 잡된 말이 없어진 것이오.

그때에 위에 있는 여러 제후와 밑에 있는 여러 관리들이 또한 모두 똑똑하고 분명하여 떳떳한 도리로써 도우니, 훌아비 훌어미 등 지극히 미천한 사람들까지도 스스로 선을 행하여 덮고 가림이 없이 마음대로 아니하니 재앙을 받지 않게 된 것이오.

여러 제후들과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법도에 어긋나는 짓만 하였으며, 묘족들은 모두 악행을 자행하여 훌아비와 과부들이라 하더라도 돌봐 줄이 없었소. 이에 순임금께서는 덕으로써 위엄을 행하니 천하가 두려워하여 악을 버리게 되었으며, 덕으로써 밝음을 행하니 천하가 분명히 선을 행할 줄 알게 되었던 것이오.

이에 백이(白夷)와 우(禹)와 후직(后稷)의 삼후(三后)에게 명하여, 함께 백성들을 걱정하는 공을 세우게 하였소. 백이를 질종(秩宗)에 임명하여 하늘과 땅과 사람의 세 법전을 베풀어 백성들로 하여금 잡되고 망령됨을 끊게 하고, 만약 예를 잃으면 오직 법으로 다스려 백성들의 마음을 바로잡았던 것이오. 우(禹)를 사공(司空)에 임명하여 물과 토지를 다스리게 하여 유명한 산과 큰 내를 표하여 이름을 붙이고 땅의 구획을 정하여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켰소.

후직(后稷)을 전정(田正)에 임명하여 파종하는 법을 퍼서, 백성들에게 심고 거두는 것을 가르쳐 좋은 곡식을 풍성하게 거둠으로써 민생을 두터이 하도록 하였던 것이니, 삼후가 모두 성공하여 천하의 백성들에게 커다란 부를 안겨 주었소.

백성들은 이미 부자가 파고 가르침을 입었소. 그러나 가르침에 따르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걱정하여 고요(皐陶)를 명하여 사사(土師)의 벼슬을 내리고, 백성들을 중도에 맞는 형벌로써 제어하여 덕을 공격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이끌어 주었소.

이때에 순임금께서는 화목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위에 계셨으며, 백이와 우와 후직 등 여러 신하는 지극히 밝은 마음으로 아래에서 일을 보니 광휘가 사방에 빛나게 되었소. 따라서 백성들이 감화되고 흥기(興起)해서 오직 덕을 닦기에 힘쓰지 않음이 없었던 것이오.

다만 관습과 풍속이 아직 고르지 못하였으므로 고요에게 명하여 사사를 삼고, 형벌의 경중이 중도에 맞도록 함을 분명히 하여, 이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고 그 떳떳한 성품을 돋게 했던 것이오.

무릇 옥을 맡은 관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여 세력 때문에 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권 때문에 유혹되지 않도록 하며, 항상 공경하고 조심해서 시행해야 하오. 이에 하늘의 덕에 순수해지면 나 자신이 죽고 사는 것과 오래 살고 쉽게 죽는 큰 명을 만들어 하늘과 상대하여 땅에 존재할 것이니, 옥을 맡아서 법을 쓰는 공이 하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를 것이오.”

耄(모) : 늙어서 혼란함을 뜻함.

荒(황) : 크다.

若(약) : 월(越)과 통하는 어조사.

蚩尤(치우) : 태고시의 구려국(九黎國) 제후. 반란을 일으켰다가 황제(黃帝)에게 탁록(涿鹿)에서 패하였다 함.

延及(연급) : 사방으로 미치는 것.

奪攘(탈양) : 약탈의 뜻.

矯虔(교건) : 소요(騷擾). 반란을 일으키는 것.

苗(묘) : 구려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 즉 순과 우가 친 삼묘.

麗刑(여형) : 여(麗)는 이(罹)와 통하여 법에 걸리게 하는 것.

罔差(망차) : 차별 없이 제재하였다는 뜻.

泯泯(민민) : 어수선한 것.

棼棼(분분) : 어지러운 것.

庶戮(서록) : 여러 죽음을 당한 사람들.

聞惟腥(문유성) : 비린내를 맡았다는 뜻.

遏絕(알절) : 멸망의 뜻.

重黎(중례) : 전옥(顛頃)때에 하늘과 땅을 각각 다스린 사람이라고도 하고 (초어(楚語)), 중(重)은 희씨(犧氏), 여(黎)는 화씨(和氏)라고도 하나, 딴 곳엔 요순 때의 신하로 중과 여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降格(강격) : 신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

逮(체) : 급(及)과 같음.

乘常(비상) : 법도에 어긋난 짓을 하는 것.

有辭(유사) : 원망하는 것.

三后(삼후) : 뒤의 백상(伯常) · 우(禹) · 직(稷)의 세 사람.

折民惟刑(절민유형) : 절(折)은 막는 것, 즉 백성들이 법을 어기지 않도록 형벌로써 막았다는 뜻.

穆穆(목목) : 형벌을 삼가는 모습.

灼(작) : 법을 빛내는 것.

中(중) : 중정.

訖于威(홀우위) : 위세를 부리는데 목적을 두는 것.

擇言(택언) : 택(擇)은 역(讐)과 같아, 싫다는 뜻. 즉 싫어하는 말.

作元命(작원명) : 커다란 하늘의 명을 따름.

配享(배향) : 그에 따라 누림 받는 것.

2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아아! 세상의 정사를 맡고 옥사를 다스리는 이들이여! 그대들은 하늘의 목자(牧者)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겠소? 지금 그대들은 무엇을 거울삼겠소? 백이가 법을 폐낸 길이 아니겠소? 지금 그대들은 무엇을 경계하겠소? 오직 묘나라 백성들이 옥사를 살피지 않아, 좋은 사람을 골라 다섯 가지 형벌의 중정함을 폐지 못한 일이 있소. 오직 위세를 부리고 재물을 약탈하는 자들로 다섯 가지 형벌을 결단하고 쓰게 함으로써, 죄 없는 사람을 어지럽혔던 것이오. 하느님은 달갑게 여기지 않으시 어 묘나라에 벌을 내리셨소. 묘나라 백성들은 천벌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받아 그 대가 끊기고 만 것이오.”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오오! 유념하오. 큰아버지 · 큰형 · 작은아버지 · 동생 · 어린 아들 · 어린 손자들이여! 모두 내 말을 들으시오. 지극한 명령이 있을 것이오. 이제 그대들은 날로 부지런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니, 그대들은 혹 부지런하지 않다고 주의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오. 하늘은 백성들을 고르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다스리게 하셨소. 끝을 잘 마치고 못 마치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소. 그대들은 바라건대 하늘의 명을 삼가 받아들여 나 한 사람을 받아들여 주오. 비록 처벌하라 해도 덮어놓고 처벌 말며, 용서하라 해도 덮어놓고 용서 마오. 오직 다섯 가지 형벌을 삼가고 세 가지 덕을 이루어 주오. 한 사람에게 경사가 있으면, 만민도 이에 힘입게 되고, 영원토록 편안해질 것이오.”

王曰：“嗟！四方司政典獄。非爾惟作天牧？今爾何監？非時伯夷播刑之迪？其今爾何懲？惟時苗民，匪察于獄之麗，罔擇吉人，觀于五刑之中。惟時庶黎奪貨，斷制五刑，以亂無辜。上帝不蠲，降咎于苗，苗民無辭于罰，乃絕厥世。”

王曰：“嗚呼，念之哉！伯父、伯兄、仲叔、季弟、幼子、童孫皆聽朕言，庶有格命！今爾罔不由慰日勤，爾罔或戒不勤。天齊于民，俾我一日，非終惟終在人。爾尚敬逆天命，以奉我一人。雖畏勿畏【畏威古通用】，雖休勿休，惟敬五刑，以成三德。一人有慶，兆民賴之，其寧惟永。”

[통석] 목왕께서는 형벌을 공경함에 대하여 힘주어 말씀하셨다.

“아아, 그대들 사방의 제후는 정사를 맡아서 법률과 옥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니 어찌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기르는 사람들이 아니겠소? 이제 그대들이 거울삼을 것은 무엇이겠소? 그것은 백이가 법을 펴서 백성을 인도한 일이 아니겠소?

이제 그대들이 징계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묘나라 백성들인 것이오. 묘족들은 세력만 믿고 위세를 부려 법에 저촉되는 것을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또한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여 다섯 가지 형벌의 경중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없이, 다만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권위로써 정사를 어지럽히며 부자들은 물로써 법을 빼앗았었소. 그리고 다섯 가지 형벌을 단행하여 무고한 백성을 아무렇게나 처벌하였던 것이니,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짓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마침내 묘나라 백성들에게 크나큰 재앙을 내렸던 것이오. 묘족들은 재앙을 면할 길이 없어 자손들이 진

멸하고 그 후손이 끊어지고 말았소.”

목왕께서는 오로지 성이 같은 제후들에게 말씀하셨다.

“오오, 우리 제후들은 잘 생각하시오. 그대들은 큰아버지 · 큰형 · 아저씨 · 동생 · 어린 아들 · 어린 손자들에 해당하니 지위의 고하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모두 마땅히 내 말을 듣도록 하오. 이제 지중한 명령을 내리겠소.

무릇 형벌은 중대한 것이오. 그대들은 날마다 부지런하고 삼가는 것으로 위안을 삼지 않음이 없도록 하오. 그대들은 혹시라도 부지런하지 못하고 형벌을 잘못 써서 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하오. 하늘이 형벌을 내려 어지럽히는 백성을 다스리고 간사함을 막고 사나움을 정계하며, 나로 하여금 하루하루 이를 시행하게 하셨소.

그러므로 사람이 죄가 있을 때엔, 그대로 끝낼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용서할 사람이 있고 죽여야 할 사람이 있으니 그것은 죄를 범한 사람의 됨됨이에 달려 있다고 보겠소. 그대들은 삼가 하늘의 명을 맞아 나 한 사람을 받들어 섬기도록 하오. 내가 누구를 벌주려 하더라도 그대들은 경솔하게 무서운 형벌을 가함이 없도록 하며, 내 어느 사람을 용서하라 해도 경솔하게 용서해 주지 않도록 하오.

오직 다섯 가지 형벌을 조심해서, 굳세고 부드럽고 정직한 세 가지 덕을 도와서 이를도록 하오. 나 한 사람 경사가 있으면 나라에 태평한 경사를 누리게 될 것이며, 천하의 많은 백성들이 또한 이를 힘입어 영원토록 편안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오.”

司政典獄(사정전옥) : 정사를 맡고 옥사를 다스리는 사람이니 곧 제후들.

天牧(천목) : 천명을 받아 목자처럼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

監(감) : 감(鑑)과 통하여 본뜨는 것. 거울로 삼는 것.

麗(예) : 법의 뜻임.

庶威(서위) : 위세를 부리는 여러 사람들.

不蠲(불견) : 좋지 않게 여기는 것.

格命(격명) : 지극히 중요한 명령.

非終(비종) : 나라를 끝까지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

惟終(유종) : 나라를 끝까지 잘 다스리는 것.

俾我一日(비아일일) : 나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법으로 다스리게 하였다는 뜻.

畏物畏(의물외) : <군진>편의 ‘여왕벽(予曰辟)이라도 이우물벽(爾惟勿辟)하라’와 같은 뜻. 즉 내가 벌하라고 말하더라도 그대는 함부로 벌하지 말라는 말.

休勿休(휴물휴) : <군진>편의 '여월유(予曰宥)라도 이유물유(爾者勿宥)하라'와 같은 뜻. 즉 내가 용서하라고 하더라도 그대는 함부로 용서하지 말라는 말.

三德(삼덕) : 강(剛) · 유(柔) · 정직을 뜻함.

3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아아! 오시오. 나라와 땅을 다스리는 이들이여! 그대들에게 좋은 형벌을 알려 주겠소. 지금 그대들이 백성들을 편안케 하려면 무엇을 가리겠소?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소. 무엇을 공경하겠소? 형벌이 아니겠소. 무엇을 헤아리겠소? 연루의 별이 아니겠소.

양편이 나오고 주위가 갖추어지면 옥관은 다섯 가지 형벌에 대한 변명을 들을 것이며, 다섯 가지 변명이 사실과 맞거든 다섯 가지 형벌로 바로잡을 것이며, 다섯 가지 형벌을 사실과 맞출 수 없거든, 다섯 가지 별금으로 바로잡을 것이며, 다섯 가지 별금에도 굴복하지 않거든 다섯 가지 허물을 바로잡으시오.

다섯 가지 허물의 병폐는 관권을 쓰는 것, 원한이나 은혜를 갚는 것, 집안사람을 이용하여 내통하는 것, 뇌물 쓰는 것, 친구를 이용하여 청탁하는 것이오. 그 죄는 고르게 다스려야만 하는 것이니, 잘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오.

다섯 가지 형벌이 의심스러우면 용서를 하오. 다섯 가지 별금도 의심스러우면 용서하오. 잘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오.

사실을 조사한 것과 여러 사람의 말이 맞아야 하는 것이니 잘 심문하고 잘 헤아려 보오. 사실을 조사하지 않고 옥사를 처벌하지 말며, 하늘의 위엄을 생각해서 하오. 묵형(墨刑)이 의심스러워 용서할 자는 그 별이 백 환(白緩)이니, 그 죄의 내용을 잘 살피시오. 코 베는 의형(劓刑) 형벌이 의심스러워 용서할 자는 그 별이 두 배이니, 그 죄의 내용을 잘 살피시오. 다리 자를 형벌이 의심스러워 용서할 자는 그 별이 오백 환이니, 그 죄의 내용을 잘 살피시오. 거세하는 형벌이 의심스러워 용서할 자는 그 별이 육백 환이니 그 죄의 내용을 잘 살피시오. 사형이 의심스러워 용서할 자는 그 별이 천 환이니, 그 죄의 내용을 잘 살피시오. 묵형에는 천 가지 죄가 있고, 코 베는 형벌에도 천 가지 죄가 있고, 다리 자르는 형벌에는 오백 가지 죄가 있

고, 거세하는 형벌에는 삼백 가지 죄가 있고, 사형에는 그 종류가 이백 가지나 있소. 다섯 가지 형벌에는 도합 삼천 가지 죄가 있는 것이오. 위아래로 죄를 비교해보고 어지러운 변명으로 그르치지 마오. 행해지지 않는 별은 쓰지 말고 오직 법을 따라 잘 살펴 다스리도록 하오.

상형(上刑)이라도 가볍게 해야겠으면 하형(下刑)을 쓰고, 하형이라도 무겁게 해야겠으면 상형을 쓰시오. 별을 가볍게 하고 무겁게 하는 데는 요량이 있어야 하오. 형벌은 시대에 따라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 것이나, 바르지 못한 자를 바르게 하는 것이니 질서가 있고 올바르게 집행해야 하오.

별로 징계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사람들은 극히 괴롭게 여기오. 간사한 사람으로 옥사를 처리하게 말고 어진 이가 옥사를 처리해야 올바르게 되는 것이오.

말을 어긋나게 하는 것을 살펴 따르지 않은 자도 따르도록 하오. 옥사를 처리함에 있어 불쌍히 여기고 공경하며, 형벌 문서를 밝게 공개하여 서로 헤아려보게 해야 중정을 얻게 되는 것이오. 그처럼 형벌을 잘 살피고 다스려야 옥사가 이루어지고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오. 그 형을 임금에게 상주(上奏)할 때는 빠뜨림이 없이 다 갖추어 올리되 두 가지 형벌을 받은 자도 아울러 적어 올리시오.”

王曰：“吁！來有邦有土！告爾祥刑。在今爾安百姓何擇？非人，何敬？非刑，何度？非及？”

兩造具備，師聽五辭，五辭簡孚，正于五刑，五刑不簡，正于五罰，五罰不服，正于五過！

五過之疵，惟官惟反惟內惟貨惟來。其罪惟均，其審克之！

五刑之疑有赦，五罰之疑有赦，其審克之。簡孚有衆，惟貌有稽，無簡不聽，具嚴天威！墨辟疑赦，其罰百鍰，閱實其罪！劓辟疑赦，其罰惟倍，閱實其罪！荆辟疑赦，其罰倍差，閱實其罪！宮辟疑赦，其罰六百鍰，閱實其罪！大辟疑赦，其罰千鍰，閱實其罪！墨罰之屬千，劓罰之屬千，荆罰之屬五百，宮罰之屬三百，大辟之罰，其屬二百，五刑之屬三千。上下比罪，無僭亂辭。勿用不行，惟察惟法，其審克之！

上刑適輕下服，下刑適重上服，輕重諸罰有權！刑罰世輕世重，惟齊非齊，有倫有要。

罰懲非死，人極于病。非僥折獄，惟良折獄，罔非在中。察辭于差，非從惟從。哀敬折獄，明啓刑書胥占，咸庶中正。其刑其罰，其審克之。獄成而孚，輸而孚，其刑上備，有并兩刑！

[통석] 목왕께서 말씀하셨다.

“아아, 모두 오시오. 나라와 땅을 다스리는 제후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길한 형벌을 알리겠소. 이는 교회를 도와 백성을 안정시키는 데 충분한 것이오. 이때에 있어서 그대들이 이 좋은 형벌을 가지고 백성들을 편안히 하고자 하면 항상 선택할 바가 무엇이겠소? 그것은 형벌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오? 항상 공경하고 삼갈 바가 무엇이오? 그것은 형벌을 쓰는 일이 아니겠소? 또 마땅히 살피고 헤아릴 바가 무엇이오? 법조문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겠소?

재판할 때에는 양편의 다투는 사람이 모두 관청에 나온 뒤에 말과 증거가 구비되면, 여러 사람의 재판관과 함께 이 다섯 가지 형벌에 대한 말을 듣고 심정을 파악함에 있어, 모두 믿을 만하고 의심이 없으면 다섯 가지 형벌로 바로잡도록 하오. 다섯 가지 형벌로 의논할 때에 말과 형벌이 서로 어긋나서 가려낼 수 없는 것은 의심된 일이니, 다섯 가지 벌금으로 바로잡아서 이를 대속케 하여 용서하도록 하오. 다섯 가지 벌금을 의논할 때에 말과 벌금이 어긋나서 응하지 않는 것은, 이 벌금이 의심되는 것이니 다섯 가지 허물을 바로잡아 용서하도록 하오.

그러나 다섯 가지 허물의 폐단은 옥을 다스리는 관리가 사사롭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 그 수가 다섯이 있소. 혹은 권세를 두려워함이니 이는 벼슬로 인한 폐단이오. 혹은 은혜와 원한을 갚으려 함이니 이는 보복으로 인한 폐단이오. 혹은 여자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니 이는 여자로 인한 폐단이오. 혹은 뇌물을 받고 보아 주는 것이니 이는 재물로 인한 폐단이오. 혹은 와서 간청함을 듣는 것이니 이는 친분으로 왕래함에서 생긴 폐단인 것이오. 이것은 모두 사사로운 간청으로 죄인을 들이고 내고 함이라 그 죄가 범인과 동일한 것이니 그대들은 자세히 살펴 시행하도록 하오.

다섯 가지 형벌 가운데 의심된 것은 마땅히 용서할 사람이 있는 것이며 다섯 가지 벌금 가운데 의심된 것은 마땅히 용서할 사람이 있는 것이오. 그대들은 내고 들이는 사이에 죄와 사람을 자세히 살펴 잘하도록 하오. 형벌과 벌금을 가려냄에 믿을 만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 용모와 표정에 따라 잘 살피도록 하오. 실정을 가려낼 수 없는 것은 바로 용서하도록 하오. 꼭 물어 볼 필요가 없는 것이오. 그러나 의심스러운 옥사를 밝히기는 어려운 것이오. 그대들은 마땅히 하느님께서 굽어 살피시는 위엄을 두려워해야 되오.

죄에는 경중이 있고 벌금에는 많고 적음이 있소. 얼굴에 먹칠하는 형벌의 경우 의심이 있어 용서하게 되면 벌금 백 환(鍛)을 납부하여 그 본죄를 면하도록 하되 그 정상을 잘 살펴서 참으로 의심된 점이 없어야 용서할 것이오.

코 베는 형벌은 먹칠하는 형벌에 비하면 무거운 편인데 의심이 있어 용서하기로 하면 그 벌금을 배로 더하여 이백 환을 납부하게 하되 또한 반드시 그 실정을 파악하도록 하오.

다리를 자르는 형벌은 코 베는 것에 비하면 더욱 무거운 것인데 의심이 있어 용서하기로 하면 그 벌금을 배로 더하되 차이를 두어 오백 환으로 하고 또한 그 실정을 잘 살피도록 하오.

거세하는 형벌은 다리 자르는 형벌에 비하면 더욱 중한 것인데 의심이 있어 용서하기로 하면 그 벌금은 육백 환을 내리되 또한 실정을 잘 파악하도록 하오.

사형은 극히 중한 형벌이지만 의심스러워 용서하기로 하면 그 벌금은 일천 환에 이를 것이나 또한 정상을 잘 파악하여 용서할 만한 경우에 용서하도록 하오.

이 다섯 가지 형벌의 조항이 또한 같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오. 얼굴에 먹칠하는 형벌에 속하는 죄목이 천 가지요, 코 베는 형벌에 속하는 죄목이 천 가지이며, 다리 끊는 형벌의 죄목에 속하는 것이 오백 가지이고, 생식기를 자르는 형벌의 죄목에 속하는 것이 삼백 가지이며, 사형의 죄목에 속하는 것이 이백 가지라. 도합 다섯 가지 형벌에 속하는 죄목이 삼천 가지인 것이오.

만약 마땅한 법률 조문이 없어서 결정하기 어려운 죄목은, 마땅히 위아래의 법조문에 붙여 봄서 경중이 마땅한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오. 그러나 가하고 가하지 않

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참람하고 혼란한 말을 듣지 않도록 하오. 또한 시대적 상황을 잘 참작하여 지금 시행되지 않는 법은 쓰지 않도록 하며, 오직 법이 뜻하는 바를 자세히 살펴서 거듭 힘써 시행하도록 하오.

만약 그 죄상은 위의 무거운 형벌에 속하지만 그 마음은 가벼운 경우라면 마땅히 아래의 형별로써 처벌하도록 하고, 그 죄상은 아래의 가벼운 형벌에 속하지만 그 뜻이 무거우면 마땅히 위의 형별로써 처벌하도록 하오. 곧 모든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짐작하는 것은 마치 물건을 저울에 나는 것과 같은 것이오.

형별에 있어서도 또한 세태에 따라 가볍게 할 것이 있고 무겁게 할 것이 있소. 가지런한 가운데에도 도리에 어긋나서 가지런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오. 그러나 인정에 맞추고 시대의 변천에 맞추어 분명한 차례가 있게 하고 확연한 체계가 있게 하오.

다섯 가지 형별에 별금으로 대속하게 하는 것은 본래 가벼이 징계함을 나타낸 것으로 죄인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힘겨운 별금을 물게 함으로써 심한 고통을 겪도록 하는 것이오.

법관은 백성들을 통솔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오. 그러므로 말재주만 부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송사를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되오. 오직 온건하고 양순한 사람으로 하여금 송사를 판단하게 하여, 경중의 마땅함을 얻어서 중도에 맞지 않음이 없도록 해야 되오.

그러나 송사를 판단하는 데 있어 진술하는 말을 어긋나게 하는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진정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니 한편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하오. 처음에는 복종하지 않다가도 나중에는 복종하는 수도 있는 것이니, 마땅히 항상 불쌍히 여기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송사를 판단하도록 하오.

또한 형별 문서를 분명히 공개하여 여러 사람과 함께 서로 헤아려 보아 다 중정의 법에 맞게 하오. 그러한 뒤에 형별을 내리고 별금을 물리는 것을 자세히 헤아려서 잘 처리하도록 하오.

이와 같이 하면 그 재판의 결과가 아래로 여러 백성들에게 미덥게 될 것이며, 위로 임금에게 아뢰어도 미덥게 될 것이오. 그 형별의 내용을 임금에게 아뢸 때에는 반

드시 실정을 구비하도록 할 것이니, 만약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죄가 있을 경우에는 경중을 아울러서 보고하도록 하오.”

有邦有土(유방유토) : 나라와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 즉 제후.

祥刑(상형) : 상은 선(善)과 같아, 좋은 형벌의 뜻.

及(급) : 체(逮)와 통하여 돌봐 주는 것.

師(사) : 옥관.

兩造(양조) : 양쪽의 사람들, 즉 원고와 피고.

五辭(오사) : 오형에 대한 변명. 즉 벌하려는 데 대한 변명.

簡(간) : 핵심(核實)의 뜻. 즉 실제의 모양을 조사하는 것.

疑有赦(의유사) : 형벌이 너무 과하다고 의심이 되면 그 형벌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뜻.

惟貌有稽(유모유계) : 심문해 보고 또 잘 살펴보라는 뜻.

無簡(무간) : 사실을 조사해 보지 않는 것.

聽(청) : 청옥(聽獄) 즉 옥사를 다스리는 것.

鋟(환) : 금붙이를 다는 무게의 단위. 여기서는 주대(周代)의 돈 이름.

閥實(열실) : 사실을 살피는 것.

倍差(배차) : 의형(劓刑)의 두 배하고도 더 한다는 것이니 이백 환.

屬(속) : 유(類)와 같이 죄의 종류.

權(권) : 요량하여 알맞게 처리하는 것.

世輕世重(세경세중) : 시대에 따라 형벌이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였다는 것.

惟齊非齊(유제비제) : 바르지 못한 자를 바르게 하는 것.

折獄(절옥) : 옥사를 처리하는 것.

胥占(서점) : 조사해 보는 것.

孚(부) : 모두가 믿을 수 있는 판결을 하라는 것.

上備(상비) : 다 기록하여 위로 보내는 것.

并兩刑(병량형) : 두 가지 형벌을 받은 자는 무거운 벌만 받을 것이나 기록은 두 가지 다 하여 두라는 것.

4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오오! 공경하오! 옥관과 제후와 동족과 이성들이여! 내 말에는 두려워할 점이 많소. 나는 형벌을 공경해서 덕 있는 사람만이 벌을 다스리게 하고 있소. 지금 하늘은 백성들을 돋고 계시니, 땅에서 하늘에 짹지울 수 있으려면 한쪽 말을 밝게 살펴야 하오. 백성들의 송사가 어지러운 것은 양편 말을 바로 듣지 못하기 때문이니 옥

사(獄事)의 양편 말을 사사로이 듣는 일이 없도록 하오. 옥사에서 얻은 뇌물을 보배롭지 못하며 오직 죄 짓는 일만이 쌓여, 원한으로 보복 당하게 될 것이오. 길이 형벌을 두려워해야 하오. 하늘은 중도로 하지 않는 일이 없으니, 사람들은 그 명을 잘 살펴야 하오. 천벌이 다하지 않으면 세상에는 훌륭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오.”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오오, 뒤를 이을 자손이여! 지금부터 무엇을 거울삼겠소? 덕으로 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겠소. 밝게 들어 처리하오. 어진 사람이 형벌을 가하여 끝없는 칭송이 다섯 가지 형벌에 붙여지게 되면 모두가 바르게 되고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이오. 임금의 어진 백성들을 위임 받은 이들은 좋은 형벌을 거울삼아 다스리길 바라오.”

王曰：“嗚呼，敬之哉！官伯族姓，朕言多懼！朕敬于刑，有德惟刑。今天相民，作配在下，明清于單辭！民之亂，罔不中聽獄之兩辭，無或私家于獄之兩辭！獄貨非寶，惟府辜功，報以庶尤。永畏惟罰。非天不中，惟人在命。天罰不極庶民，罔有令政在于天下。”

王曰：“嗚呼，嗣孫！今往何監？非德。于民之中，尙明聽之哉！哲人惟刑，無疆之辭屬於五極，咸中有慶。受王嘉師，監于茲祥刑！”

[통석] 목왕께서 말씀하셨다.

“오오, 그대들은 공경하도록 하오. 무릇 옥을 말아서 다스리는 관장과 일가와 타성의 제후들은 이제 내가 한 말에 대하여 두려움이 많을 것이오. 그것은 내가 형벌을 조심하고 삼가는 때문이오. 부득이 형벌을 쓴다 하더라도 모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덕을 지닌 채 행해야 되오.

이제 하늘이 형벌을 제정하게 하심은 백성들의 교회를 도우려 함인 것이오. 그러므로 옥을 맡은 관리는 하느님의 뜻을 우러러 본받아서 하느님과 짹이 되어 땅에

있어야하오. 더욱이 증거가 없는 한편만의 송사를 명확하게 하면 간사한 사람도 능히 속이지 못할 것이오.

이제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옥을 맡은 관리가 적절하고 올바른 마음을 쓰는 데에 말미암지 않음이 없소. 또 재판에 있어 양편 말을 듣고 판단해야 하며 혹 시라도 사사로운 이해를 가지고 양쪽의 진술을 판결해서는 안 되오.

무릇 옥(獄)을 팔아서 재화를 얻는 것을 보배롭게 여겨서는 안 되오. 오직 스스로 허물된 죄상만이 쌓이게 되어 결국 하늘로부터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 보복하게 될 것이오. 길이 두려워할 것은 하늘의 형벌이니 하늘이 사람을 대우함이 중도로 써 아니 함이 없건만, 사람들이 스스로 재앙의 명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오. 하늘에서 형벌을 내림이 모범되지 못하면 옥을 맡은 관리가 포악한 짓을 하여 백성들은 하늘 밑에서 어진 정치의 혜택을 못 받게 되오.”

목왕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오오, 그대들 대를 이을 자손들이여! 그대들은 모두 백성을 다스릴 책임이 있소. 이제부터 마땅히 거울삼을 바가 무엇이겠소? 옛날의 법으로써 덕을 이루어 백성들로 하여금 타고난 중도를 미덥게 하며 그 성품을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겠소? 그대들은 분명히 들으시오! 옛날부터 어질고 밝은 사람은 백이나 고요처럼 법률을 주관하는 관리가 됨에 끝없는 칭찬을 받을 것이오. 이는 무엇 때문인가? 다섯 가지 법률을 진행함에 모두 중도를 얻은 때문이오. 그 어진 명성이 무궁토록 빛나는 경사가 있을 것이니, 그러므로 길한 법률이라 하는 것이오.

이제 그대들 제후들은 우리 왕실의 아름답고 착한 백성들을 받아서 다스리고 있소. 마땅히 이 중도에 맞는 아름다운 법을 거울삼아 은택이 사방에 미치게 하고 명예가 후세까지 드리우도록 하오!”

官伯族姓(관백족성) : 관은 옥관, 백은 제후들, 족은 동족, 성은 이성(異姓)을 말하는 것임.

單辭(단사) : 피고나 원고의 한편을 변호하는 말.

獄之兩辭(옥지량사) : 옥사에서 원고 피고의 양편의 말.

獄貨(옥화) : 옥사에서 먹은 뇌물.

庶尤(서우) : 여러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

令政(영정) : 선정.

嘉師(가사) : 양민의 뜻.

문후지명(文侯之命)

신후(申侯)와 견웅(犬戎)이 유왕(幽王)을 죽이자 진(晋)나라 문후(文侯)가 정(鄭)나라 무공(武公)과 더불어 태자 의구(宜臼)를 왕위에 오르게 했으니 이분이 평왕(平王)이다. 도읍을 동쪽 낙양(洛陽)으로 옮긴 뒤 평왕이 문후를 방백(方伯)에 임명했는데, 거창(秬鬯)과 궁시(弓矢)를 주면서 책서(策書)를 지어 명한 것이 이 편이다. 금문과 고문에 다 들어 있다.

1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저씨 의화(義和)여! 문왕과 무왕은 정말 현철하시어 덕을 삼가 밝히시니, 위로는 밝게 올라가고 널리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에 하느님은 그의 명을 문왕계 내리셨던 것입니다. 또한 옛날 관장들이 잘 보필하여 그들의 임금을 밝게 섬겼으므로, 작고 큰 계책이 모두 따르게 되어, 옛 할아버지께서는 편안히 임금 자리에 계실 수 있으셨습니다.

오오! 가련한 이 작은 사람이 임금 자리에 올라서 하늘의 큰 벌을 받았으니, 백성들에게는 재물과 은택이 끊기고 견웅(犬戎)의 침입으로 우리나라를 어지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신하들은 나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뛰어난 사람들이 적은 데다가, 나 또한 무능하여 말씀드리는 것이오. 할아버지와 아저씨들이여! 누가 나의 몸을 걱정해 주시오. 오오! 공을 이루는 이가 있다면 한 사람은 길이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오.

아저씨 의화여! 당신은 당신의 밝은 조상을 빛내시었소. 당신은 비로소 문왕과 무왕을 본받아 당신의 임금으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셨고, 옛날 문덕(文德) 있는 사람들을 따라 효도를 행하셨습니다. 당신은 많은 일을 다스려 주고 나를 어려움에서 보호하셨으니, 당신과 같은 분을 나는 칭송합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아저씨 의화여! 당신은 돌아가 백성들을 보살펴 당신의 나라를 편안히 하시오. 당신에게 검은 기장술 한 병과 붉은 활 한 개와 붉은 화살 백 대와, 검은 활 한 개와

검은 화살 백 대와 말 네 필을 내리니 아저씨는 돌아가셔서, 먼 사람들은 달래고 가까운 사람들은 도와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해주시오. 지나치게 편히 놀지 말고, 당신의 도읍을 살피고 걱정하여 당신의 밝은 덕을 이루어 주시오.”

王若曰：“父義和！丕顯文、武，克慎明德，昭升于上，敷聞在下，惟時上帝集厥命于文王。亦惟先正，克左右昭事厥辟，越小大謀猷，罔不率從，肆先祖懷在位。

嗚呼！閔子小子嗣，造天不愆，殄資澤于下民，侵戎，我國家純。卽我御事，罔或者壽俊在厥服，予則罔克，曰：‘惟祖惟父。其伊恤朕躬？’嗚呼！有績，予一人永綏在位。父義和！汝克昭乃顯祖。汝肇刑文、武，用會紹乃辟，追孝于前文人。汝多修，扞我于艱，若汝予嘉！”

王曰：“父義和！其歸視爾師，寧爾邦！用賚爾秬鬯一卣，彤弓一，彤矢百，盧弓一，盧矢百，馬四匹。父往哉。柔遠能邇，惠康小民。無荒寧，簡恤爾都，用成爾顯德！”

[통석] 평왕이 즉위하여 동쪽 도읍인 낙양으로 옮겼다. 진문후(晋文侯)가 자기를 세워 준 공로를 아름답게 여겨 방백(方伯)을 삼았는데, 같은 성이므로 아버지[父]라는 존칭을 쓰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字)를 불러 명하였다.

평왕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저씨 의화여! 크게 드러나신 우리 조상이신 문왕·무왕께서 모두 삼가 덕을 밝히시니, 그 덕이 소명하게 드러나 하늘에 오르고 널리 퍼져 백성들에게 알려졌소. 이에 하느님께서는 이를 도우시어 문왕에게 큰 명을 내리시어 천하를 보유하게 하시고, 또한 옛날의 관장 자리에 있던 신하들은 당신의 할아버지처럼 좌우에서 돋고, 밝게 그 임금을 섬기므로 작고 큰 계책들에 모두 따르고 펴나가지 않음이 없었소. 그러므로 우리 선조이신 여러 임금님들께서는 편안히 왕위에 계셨던 것이오. 오오! 가엾은 나, 미약한 사람은 왕위를 이어받자 하늘의 꾸지람을 받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라는 파괴되어 백성들에게 줄 재물과 혜택이 끊어졌소. 그리하여 오랑캐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여 너무 심한 해를 끼친 것이오. 나아가 조정의 신

하도 나이 드신 뛰어난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으니, 나는 천박하고 졸렬하여 감당할 수가 없소. 오직 제후들을 믿고 따를 뿐이오.

나는 제후들에게 ‘그대들 제후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항렬에 있는 분들이니 누구든 내 몸을 걱정해 주시오. 오오, 내 한 몸을 위하여 공적을 이루시면 나 또한 영원토록 편안히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오’ 하고 말했소.

아저씨 의화여! 나라가 이미 어려워진 뒤에 다행히 그대가 왕실을 위하여 수고해주시니, 그대의 드러난 조상이신 강숙의 공덕을 더욱 빛낸 것이오. 또한 당신의 왕실을 부흥시켜 문왕과 무왕의 예법을 본받아 제후들을 모아 가지고, 나를 왕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당신의 임금으로 하여금 왕통을 잊게 하였고, 문덕이 있는 당신의 조상인 강숙에게 효도를 드린 것이오. 또한 그대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를 보호해 줌이 많으니 그 공을 아름답게 여기는 바이오.”

평왕께서는 말씀하셨다.

“아저씨 의화여! 왕실은 이제 안정되었소. 그러니 진나라에 돌아가 그대의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돌보도록 하여 그대의 나라를 편안히 하시오. 나는 당신께 검은 기장으로 빛은 술 한 통을 내리니 그대 조상들의 사당에 제사 지내도록 하오. 또 붉은 활 한 벌과 붉은 화살 백 대, 검은 활 한 벌과 검은 화살 백 대를 주노니 당신 마음대로 정별하도록 하오. 또 말 네 마리를 내리니 정별에 그 말을 쓰도록 하오.

아저씨 의화여! 진나라에 가시거든 마땅히 먼 곳 사람을 달래고, 가까운 사람을 은혜로써 길러서 낫은 백성들을 편안히 다스리시오. 혹시라도 태만해서 안일하지 않도록 하시오. 또한 반드시 도시와 시골의 관리들과 백성들을 잘 가려서 살피고 은혜로써 보호하여 나라의 근본을 굳게 하면 더욱 더 당신의 빛나는 덕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오.”

父(부) : 손윗사람을 존칭한 말.

義和(의화) : 진문후(晋文侯)의 자(字).

丕顯(비현) : 그 덕이 선함을 뜻함.

謀猷(모우) :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계책.

憲(건) : 천벌을 받았다는 뜻으로 유왕(幽王)이 겸(융)에게 죽음을 당하고 나라가 동도인 낙읍으로 옮겨오

게 된 것을 가리킴.

罔克(방극) : 무능의 뜻.

顯祖(현조) : 덕을 밝힌 할아버지.

賚(뇌) : 하사의 뜻.

師(사) : 무리.

桓(거) : 검은 기장.

鬯(창) : 기장으로 빚은 술을 말함.

卣(유) : 술통.

彤(동) : 적(赤)과 같음.

비서(費誓)

비(費)는 땅 이름이다. 회이(淮夷)와 서옹(徐戎)이 함께 반란을 일으켰는데, 노후(魯侯)가 이들을 치면서 비 땅에서 군중들에게 선서한 것이 이 편이다. 금문과 고문에 모두 들어 있다.

1 공이 말씀하였다.

“아아! 사람들은 떠들지 말고 명령을 들으시오. 지금 회(淮) 땅의 오랑캐와 서(徐) 땅의 오랑캐들이 함께 일어났소. 그대들은 갑옷과 투구를 잘 가지고 그대들의 방패 끈을 잘 매어 튼튼히 하고 그대들의 활과 화살을 갖추고, 그대들의 창을 벼리고 그대들의 창끝과 칼날을 갈아 조금이라도 잘못됨이 없도록 하오.

지금 외양간의 소와 말을 크게 놓아줄 것이니 그대들의 덫을 막고 그대들의 함정을 메워, 감히 방목한 짐승들을 상하지 않도록 하오. 방목한 짐승들이 상하면 그대들은 일정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오.

말이나 소가 달아나거나 하인, 하녀가 도망치더라도 감히 제자리를 넘어 쫓지 말 것이며, 공경히 되돌리면 나는 헤아려서 그대들에게 상을 내릴 것이오. 그대들이 제자리를 넘거나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일정한 벌을 받게 될 것이오. 약탈이나 도적질을 하고 담을 넘어가 마소를 훔치거나 하인과 하녀를 끌어낸다면 그대들은 일정한 벌을 받게 되오.

갑술(甲戌)날 나는 서옹(徐戎)을 칠 것이니 그대들은 먹을 것을 갖추어 미치지 못함이 없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큰 벌을 받게 될 것이오.

세 교(郊)와 세 수(遂)의 노나라 사람들이여! 그대들의 담틀을 준비하오. 갑술날 나는 성을 쌓을 것이니 바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에게 죽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든 형벌을 다 가할 것이나 죽이지만 않겠소.

세 교와 세 수의 노나라 사람들이여! 그대들의 마초와 여물을 쌓아 부족함이 없게 하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오.”

公曰：“嗟人！無譁，聽命！徂茲淮夷、徐戎竝興。

善歎乃甲冑，敲乃干，無敢不弔，備乃弓矢，鍛乃戈矛，礪乃鋒刃，無敢不善！

今惟淫舍牿牛馬，杜乃攢，斂乃弣，無敢傷牿。牿之傷，汝則有常刑。

馬牛其風，臣妾逋逃，無敢越逐，祇復之！我商賚汝。乃越逐不復，汝則有常刑。無敢寇攘，踰垣墻，竊馬牛，誘臣妾。汝則有常刑。

甲戌，我惟征徐戎。峙乃糗糧，無敢不逮！汝則有大刑。魯人三郊三遂！峙乃楨榦。甲

戌，我惟築，無敢不供！汝則有無餘刑，非殺。魯人三郊三遂！峙乃芻茭，無敢不多！汝則有大刑。

[통석] 백금(伯禽)이 노(魯)나라의 제후에 봉하여져 장차 회북(淮北)의 오랑캐와 서주(徐州)를 정벌하려 함에 군사를 비(費) 땅에 모아 놓고 훈시를 하였다.

노공(魯公)은 말하였다.

“여러분들은 떠들지 말고 내 명령을 듣도록 하오. 지난번에 이미 반란을 일으킨 바 있는 회(淮) 땅의 오랑캐가, 이제 내가 처음 부임한 기회를 타서 서(徐) 땅의 오랑캐와 더불어 한패가 되어 침략해 오고 있소. 그러므로 내가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정벌하려 하오.

무릇 전쟁은 군비를 완전하게 갖추는 일이 급선무니, 그대들은 마땅히 갑옷과 투구를 잘 손질하고 창과 방패를 잘 다듬어서 한 가지도 불완전한 것이 없도록 하시오. 그대들은 활과 화살을 미리 준비하고, 그대들의 칼과 창을 잘 벼려서 한 연장도 날카롭지 않음이 없게 하여야 하오.

이제 외양간에 매어둔 소와 말을 크게 풀어 놓아 들에서 방목하도록 할 것이니, 여기 거주하는 백성들은 마땅히 그대들이 짐승을 잡기 위하여 설치한 덫을 거두고 함정을 메워서 감히 우리가 방목하는 소와 말을 다치거나 빠지지 않게 하시오. 만약 미리 제거하지 않았다가 놓여난 소와 말을 상하게 하면 그대들을 용서 없이 일정한 형벌에 처할 것이오.

자리를 엄정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되오. 군중(軍中)와 말과 소가 암컷과 수컷이 서

로 어울려 달아나거나 부리는 하인과 하녀가 집을 버리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잊어버린 주인은 감히 군대의 진영을 넘어서 쫓지 말도록 하오. 만약 이것을 만나면 조심해서 돌려보내도록 하시오. 나는 물건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에게 상을 내릴 것이오.

만약 그대들이 군대의 진영을 넘어가 이것을 쫓거나 혹은 되돌려 보내지 않고 감추어 두면 일정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오. 또한 감히 도둑질하고 약탈하거나 혹은 담장을 넘어가 남의 말과 소를 훔치거나 하인과 하녀를 끌어내지 않도록 하시오. 만약 이걸 범하면 그대들은 곧 일정한 벌을 받게 될 것이오.

갑술일에 나는 장차 서용을 치겠소. 서용(徐戎)이 노나라에 더 가깝기 때문에 치는 것이오. 군사 행동에는 무엇보다 먹을 군량이 제일 급하오. 그대들은 마땅히 그대들의 식량을 비축해서 감히 결핍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라오. 만약 미치지 못함이 있으면 식량을 맡은 사람은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나 죽이지만은 않겠소.

노나라 사람인 삼교(三郊)와 삼수(三遂)의 백성들은 그대들에게 담을 치도록 하겠으니, 마땅히 담틀을 쌓아 놓도록 하오. 갑술일에 군대를 나아가게 할 것이며 이 날에 성을 쌓고 진영을 만들려 하니 감히 계을러서 바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오. 만약 바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곧 여러 가지 형벌을 다 받게 될 것이라지만 죽이지는 않을 것이오.

노나라 사람인 그대들 삼교와 삼수의 백성들은 마땅히 그대들의 말과 소를 먹일 수 있는 마른풀을 준비하도록 하되 감히 모자람이 없도록 하시오. 만약 많이 모자라게 되면 그대들은 큰 벌을 받게 될 것이오.”

譁(화) : 훈화(喧譁)의 뜻. 즉 자껄이고 떠들다.

徂(조) : 왕(往)과 같음.

淮夷(회이) : 회수(淮水) 북쪽 일대의 오랑캐들을 말함.

徐戎(서용) : 서주(徐州) 일대의 오랑캐.

不吊(부조) : 조(吊)는 선(善)과 통합. 즉 일을 잘하지 못함.

牿牛(곡우) : 외양간에서 풀려 나온 우마의 뜻.

獲(화) : 기함(機檻).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그 위에 빛을 놓음.

風(풍) : 동물의 암컷 · 수컷이 바람이 나서 어울려 달아나는 것.

越逐(월축) : 군사가 자기 대오를 떠나 뒤쫓는 것.

祇復之(지복지) : 달아난 말과 소를 불든 사람은 공경히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뜻.

商(상) : 해아린다는 뜻.

甲戌(갑술) : 용병하는 기일.

糗糧(구량) : 군사들의 식량.

三郊三遂(삼교삼수) : 교는 도읍 밖의 땅, 수는 교 밖의 땅. 천자는 육군이니 육향육수라 하고, 대국은 삼 군이니 삼교삼수라 했다. 즉 노나라의 전군을 가리킴.

楨轍(정간) : 축장(築牆)하는 나무. 즉 담틀.

無餘刑非殺(무여형비살) : 형벌의 나머지가 없이 다 하되, 다만 죽이지만 말라는 뜻.

芻茭(추교) : 군사용으로 쓰는 말과 소의 먹이를 말함.

진서(秦誓)

진(秦)나라 목공(穆公)이 정(鄭)나라를 치려고 군사를 보냈는데, 진(晋)나라 양공(襄公)이 효(崤) 땅에서 진(秦)나라 군사를 맞아 싸워 크게 이기고 장수 세 사람을 붙잡았다. 목공이 정나리를 텁내어 침략하다가 패전하게 되었음을 뉘우쳐, 여러 신하에게 맹세한 글이 이 편이다. 금문과 고문에 다 들어 있다.

공이 말씀하였다.

“아아! 나의 신하들이여! 떠들지 말고 잘 들으시오. 나는 그대들에게 여러 말 중에서 수언(首言)이 될 말을 고하겠소.

옛사람이 말씀하기를, ‘백성들은 모두 자기 위주로 즐기고 있으니, 남을 책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남한테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소.

내 마음에 걱정되는 것은 해와 달이 지나가고 있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이오.

옛날의 모사하던 사람들은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싫어했는데, 지금의 모사하는 사람들은 순순히 따라 붙고 있소. 비록 그렇다고는 하나 머리가 노래진 분들과 상의하면 허물을 짓는 일은 없을 것이오. 머리 희끗희끗한 어진 신하들은 근력은 이미 약었으나 나는 그래도 그들을 갖고 싶고, 팔팔한 용감한 사람들은 활쏘기 말 달리기에 어김이 없으나 나는 그래도 그들을 바라지 않소. 술술 교묘한 말을 잘하여 윗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바꾸게 하는 자들을 나는 거느릴 틈이 없소.

곰곰이 나는 그것을 생각해 보았소. 만약 꿋꿋한 신하가 있어, 정말로 다른 재주는 없으나 그의 마음이 착하다면 그런 사람은 받아들일 만하다고 하겠소. 남이 가진 재주를 자기가 가진 듯이 여기고 남의 현성(賢聖)한 것을 마음속으로 좋아하며,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 이상으로 좋아한다면 그런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오. 이들에게 우리 자손과 백성들을 보전하게 하면 또한 이로움이 있도록 일을 할 것이오.

남이 재주 있는 것을 시기하며 미워하고 남의 현성한 것을 거슬러 이루지 못하게 하면, 그런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소. 이들은 우리 자손과 백성들을 보전하지 못

할 것이며 또한 위태롭게 할 것이오.

나라의 위태로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나라가 번영하고 편안함도 또한 한 사람의 경사를 바라기 때문인 것이오.”

公曰：“嗟，我士！聽無譁！予誓告汝羣言之首！

古人有言曰：‘民訖自若是多盤，責人斯無難，惟受責俾如流，是惟艱哉。’

我心之憂，日月逾邁，若弗云來。

惟古之謀人，則曰未就予忌，惟今之謀人，姑將以爲親。雖則云然，尚猷詢茲黃髮，則罔所愆。

番番良士，旅力旣愆，我尚有之，仡仡勇夫，射御不違，我尚不欲。惟截截善謠言，俾君子易辭，我皇【遑通】多有之？

昧昧我思之，如有一介臣，斷斷猗無他技，其心休休焉，其如有容。

人之有技，若已有之，人之彥聖，其心好之，不啻如自其口出，是能容之。以保我子孫黎民，亦職有利哉！

人之有技，冒疾以惡之，人之彥聖，而違之俾不達，是不能容。以不能保我子孫黎民，亦日殆哉！

邦之杌陧，日由一人，邦之榮懷，亦尚一人之慶。”

[통석] 진목공(秦穆公)이 정(鄭)나라를 쳐서 패하고 난 뒤, 뉘우쳐 여러 신하를 모아 놓고 다음과 같이 잘못을 말하였다.

“아아, 그대들 나의 신하들이여! 떠들지 말고 내 말을 잘 듣도록 하오. 나는 이제 그대들에게 여러 말 가운데서 근본 되는 요지를 들어 훈시하겠소.

옛사람이 말하기를 ‘백성들의 마음은 모두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일이 많으니, 자기에게 어떠한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책망을 받아들일 줄 모르면서도 남을 꾸짖기는 어려워하지 않는다. 나의 허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책망을 받아들임을 물이 흘러내리는 것과 같이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고 하였소.

나는 이제 전날의 간함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마음 깊이 뉘우치고 있소. 이제 세 월은 흘러가서 나이는 더해 가고,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이 걱정일 뿐이오. 옛날에 일을 꾀하던 나이 많은 노인들은 내가 노인들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만 모든 일에 너무 고집을 세워 나의 뜻에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마침내 꺼려하고 멀리한 것이오. 지금 일을 꾀하는 젊은이들은 지나치게 앞으로 나아감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므로 가까이하고 미덥게 여겨 일을 꾀한 것이 모두 실패하고 말았소. 지나간 잘못은 이미 그렇다 치더라도 장차 돌아오는 앞날에는 올바른 일을 꾀하려 하오. 오늘부터는 마땅히 머리가 세어가는 노인들에게 계책을 묻고 의논하여 허물을 없애려 하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노쇠하고 어진 신하들은 이미 힘이 쇠약하지만, 그 꾀하고 생각하는 바는 아주 깊고 먼 바가 있으므로, 나는 이분들을 머무르게 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겠소. 팔팔해서 무용이 있는 사람은 활 쏘고 말달리기에는 실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 슬기와 생각이 거칠고 얇은 지라 나는 이러한 사람을 등용할 생각이 없소. 하물며 말만 술술 잘하며 교묘한 언사로 옳고 그른 것을 뒤엎고 군자로 하여금 그 말을 바꾸도록 하는 소인을 어느 겨를에 생각이나 해보겠소?

일찍이 곰곰 생각해 보니 쓸 사람을 얻고 못 얻는 것에 나라의 안정과 위태로움이 달려 있소. 만약 한 사람의 신하가 있어 오로지 끗끗하고 성실할 뿐, 다른 재능은 없으나, 다만 그 마음이 화평하고 넉넉하여 다른 사람의 재주를 보면 마치 자기의 재주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또 다른 사람이 어질고 착한 것을 보고서 마음 깊이 좋아하여 그 입으로만 칭찬하지 않고 진실로 이를 받아들이는 신하가 있다면 이 같은 신하야말로 내가 믿고서 내 자손을 편안히 맡길 수 있으며, 백성들 또한 이로움에 종사하게 될 것이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재능 있는 것을 보면 곧 시기하고 질투해서 미워하며, 다른 사람이 어질고 착한 것을 보면 이를 가로막아 위로 통하지 못하게 하면 이는 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오. 이는 교만하고 인색하고 편협한 사람이나 내가 자칫 잘못하여 이를 임용한다면 내 자손들을 안보할 수도 없을 것이며 백성들 또한 심히 위태로울 것이오.

무릇 나라가 위태롭고 안정되지 못함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소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마침내 끝없는 재앙을 끼치게 될 것이오. 나라가 영화롭고 편안한 것도 또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인의 경사로움을 아름답게 여김에 있는 것이오. 한 사람의 착하고 착하지 못함이 나라의 편안하고 위태로움에 관계함이 이와 같은 것이오.”

自若(자약) : 자기 본위의 행동을 하는 것.

俾如流(비여류) : 물의 흐름같이 거리낌이 없는 것.

若弗云來(약불운래) : 세월은 흘러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되돌려 고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뜻.

就予(취여) : 나의 일을 성취시키는 것.

姑將(고장) : 고저(姑且)와 같은 말로 고는 아직의 뜻.

今之謀人(금지모인) : 신진의 선배.

古之謀人(고지모인) : 노성의 선배.

箇諭(유순) : 일을 상의하는 것.

番番(파파) : 늙은 모양.

侈侈(흘흘) : 용감한 모양. 팔팔한 모양.

截截(절절) : 말 잘하는 모양.

皇(황) : 황(遑)과 통합.

昧昧(매매) : 말없이 곰곰이의 뜻.

斷斷(단단) : 정말로의 뜻.

休休(휴휴) : 마음이 착한 모양.

彥(안) : 아름다운 선비.

不啻(불시) : 부단(不但)과 같은 말.

杌陧(울얼) : 불안의 뜻.

옮긴이 소개 | 권덕주 權德周 | (1934~2009)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중어중문학과 졸업. 동 대학원 중문학 석사를 마치고 중국문화대학 대학원에서 중문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동 대학 종학학술원 명예박사. 1974년부터 1999년까지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14년간 동 대학 중국문화연구소장으로 있었다. 저서로 《중국 미술사상에 대한 연구》《대학한문》 등이 있으며 역서로 《입학도설》《고반여사》《중국사상의 근원》《대동서》 외 다수가 있다.

서경

©사단법인 올재

발행 | 2014년 2월 15일

펴낸이 | 흥정우

기획 · 편집 | 이상민 김지훈

표지제작 | 강병인

편집디자인 | 황인정

인쇄 · 제작 | (주)헤럴드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57-78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ISBN | 978-89-97876-21-1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라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